경기도 문화재 총 람

도지정편 — 2

기념물
문화재자료

京畿道文化財

경기도

일러두기

1. 이 책은 2017년 '경기도문화재원형기록화사업'의 하나로 경기도지정문화재 총 693건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경기도문화재총람(도지정편)이다.
2. 제1권에는 유형문화재 262건·무형문화재 65건·민속문화재 12건, 제2권에는 기념물 183건·문화재자료 171건 등을 수록하였다.
3. 편집은 지정 종목과 지정 번호순으로 하였으며, 활용의 편의를 돕고자 시·군별 지정문화재 목록을 색인으로 작성하였다.
4. 문화재 개요는 지정명칭, 지정구분, 수량·면적, 지정일, 소재지, 소장자, 시대 순으로 명기하였고, 문화재 지정명칭은 한자를 병기하였다. 명칭과 수량 단위는 지정고시 당시의 명칭과 수량에 따랐다.
5. 문화재 규격은 세로·가로·높이·지름·두께 등의 순으로 표기하되, 그림은 장황을 제외한 화면의 규격, 불상은 전체 높이와 무릎 부분의 폭, 건조물은 정면과 측면의 칸수를 표기하였다.
6. 개별 문화재에 대한 설명은 분야별 전문가 집필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기존 자료를 재정리하였다. 문화재 조영·제작 시기, 용어 등 세부 사항은 기존의 학설과 더불어 집필자의 의견에 따랐다.
7. 문화재 사진은 최근(2016~2017년)의 모습을 수록하되,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과거 촬영 사진도 수록하여 그 변화 과정을 알 수 있게 하였다.
8. 사진 수집과 촬영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제공한 사진과 경기문화재연구원이 보유한 사진을 검토하여 일부는 문화재사진 전문작가에게 의뢰·촬영하였다. 발굴유적 사진은 문화재조사기관이 제공한 유적·유구·유물 사진을 수록하였다. 촬영이 불가한 경우(소재 불명, 보존상태 불량 등)에는 관련자나 관련기관이 제공한 사진을 활용하였다.
9. 문화재의 지정번호 중 결번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거나 지정해제가 된 경우이다.

경기도 문화재 총 람

도지정편 — 2

기념물
문화재자료

경기도

目次

일러두기 02

1 기념물

제1호 정몽주선생 묘 10
제2호 권율장군 묘 12
제3호 심대장군 묘 14
제7호 정약용선생 묘 16
제13호 남이장군 묘 18
제16호 이완장군 묘 20
제17호 채제공선생 묘 22
제18호 민영환선생 묘 24
제19호 노송지대 26
제20호 연주대 28
제21호 맹사성선생 묘 30
제22호 용인 왕산리 지석묘 32
제23호 최영장군 묘 34
제24호 이항복선생 묘 36
제25호 이종무장군 묘 38
제26호 이덕남장군 묘 40
제28호 조종암 42
제29호 황희선생 영당지 44
제30호 채산사 46
제31호 팔곡리 향나무 47
제32호 유형원선생 묘 48
제33호 최항선생 묘 50
제34호 황희선생 묘 52
제35호 서성선생 묘 54
제36호 서희장군 묘 56
제37호 정문부장군 묘 58
제38호 김준룡장군 전승지 및 비 59
제39호 해유령전첩지 60
제40호 이익선생 묘 61
제41호 노강서원 62
제42호 송산사지 64
제43호 노산사지 65
제44호 처인성 66
제46호 화산서원 68
제47호 한재당 70
제48호 홍선대원군 묘 72
제49호 이수광선생 묘 74
제50호 유형장군 묘 76
제51호 정발장군 묘 78
제52호 이방실장군 묘 79
제53호 심온선생 묘 80
제54호 이수선생 묘 82
제55호 덕흥대원군 묘 84
제56호 이대원장군 묘 및 신도비 86
제57호 원균장군 묘 88
제58호 백인걸선생 묘 90
제59호 성혼선생 묘 92
제60호 이세화선생 묘 94
제61호 가평 연하리 향나무 96
제62호 유관선생 묘 98
제69호 죽주산성 100
제73호 별망성지 102
제74호 농성 103
제75호 영창대군 묘 104
제76호 이천 설성산 설성지 106
제77호 서흥김씨 삼강정문 108
제78호 류량선생 묘 110
제79호 이정구선생 묘 및 삼세신도비 112
제81호 서운산성 114
제82호 안성 구포동 성당 115
제83호 안탄대선생 묘 116
제84호 이경석선생 묘 118
제85호 이원익선생 묘 및 신도비 120
제86호 백천장선생 묘 122
제87호 강희맹선생 묘 및 신도비 124
제88호 신숙주선생 묘 126
제89호 한음 이덕형선생 묘 및 신도비 128
제90호 허난설헌 묘 130
제91호 고정리 지석묘 131
제92호 이순몽장군 묘 132
제93호 수원 고읍성 134
제94호 수석리 토성 136
제95호 신립장군 묘 138
제96호 이준경선생 묘 140
제97호 노고산 독재동 추사필적 암각문 142
제98호 김자수선생 묘 144
제99호 김상용선생 묘 146
제100호 김상헌선생 묘 148
제101호 고송정지(탄옹고지) 149
제102호 충목단 150
제103호 조남리 지석묘 151
제104호 오윤겸선생 묘 152
제105호 김균선생 묘 154
제106호 윤곤선생 묘 156
제108호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 158
제110호 박진장군 묘 159
제111호 망월사지 160
제112호 오산 금암리 지석묘군 161
제114호 이맹현선생 묘 162
제115호 정난종선생 묘 및 신도비 외 묘역 일원 164
제116호 한산이씨 묘역 166
제117호 전주이씨 서원군파 묘역 168
제118호 전주이씨 태안군파 묘역 170
제119호 개원사지 172
제120호 이준선생 묘 174
제121호 이기조선생 묘 176
제122호 전주이씨 안양군 묘 177
제123호 양평군 함왕성지 178
제124호 안양시 비산동 도요지 180
제125호 팔달산 지석묘군 181
제126호 석수동 석실분 182
제127호 안산읍성 및 관아지 183
제128호 허준 묘 184
제129호 파주 다율리·당하리 지석묘군 186
제130호 인평대군 묘 및 신도비 188
제131호 김만기 묘역 190
제132호 여주군 석우리 선돌 192
제133호 여주군 처리 선돌 193
제134호 신익희 생가 194
제135호 안재홍 생가 196
제136호 북한산 중흥사지 197
제137호 심지원 묘 및 신도비 198
제138호 망이산성 200
제139호 정연 묘역 202
제140호 포천 영송리 선사유적 204
제144호 김덕함 묘 및 신도비 206
제145호 신흠 묘역 및 신도비 208
제146호 연천 삼곶리 돌무지무덤 210
제147호 오산시 궐리사 212
제153호 화성 남양리 신빈김씨 묘역 214
제154호 양평 신복리 강맹경 묘역 216
제155호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 218
제157호 한응인 묘역 220
제158호 연천 학곡리 고인돌 221
제159호 김포 수안산성 222
제161호 만년제 224
제162호 자유의 다리 226
제163호 청주한씨 문익공파 묘역 228
제165호 구암 한백겸 묘 및 신도비 230
제166호 의안대군 방석 묘역 232
제167호 양주 관아지 234
제168호 화성 홍법리 남양홍씨 묘역 236
제169호 문정공 조광조 묘 및 신도비 238
제170호 충렬공 박원종 묘역 240
제171호 저헌 이석형 묘 및 신도비 242
제172호 음애 이자 묘역 244
제173호 춘곡 정탁 묘역 246
제175호 아담스 기념관 248
제176호 하우현성당 사제관 249
제177호 청풍김씨 문의공파 묘역 250
제178호 송석 최명창 묘역 252
제179호 천림산 봉수지 254
제180호 여주 매룡리 고분군 256
제182호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 258
제183호 파주 교하 물푸레나무 260
제184호 미수 허목 묘역 262
제185호 포천 고모리 산성 263
제186호 취몽헌 오태주 묘역 264
제187호 유항 한수 묘역 266
제188호 광주 삼리 구석기유적 268
제189호 안성 봉업사지 270
제190호 과천 관악사지 272
제191호 과천 육봉 일명사지 274
제193호 고양 독산 봉수대지 275
제194호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 276
제195호 고양 멱절산 유적 278
제196호 파주 월롱산성지 280
제198호 여주 상교리 고려석실묘 282
제199호 민진장 묘역 284
제200호 수원 축만제 286
제201호 수원 여기산 선사유적지 288
제202호 평택 무성산성지 290
제203호 평택 자미산성지 292
제204호 평택 비파산성지 294
제205호 평택 용성리성지 295
제206호 평택 덕목리성지 296
제207호 풍고 김조순 묘역 298
제208호 연천 차탄리 고인돌 300
제209호 연천 양원리 고인돌 301
제210호 연천 신답리 고분 302

제211호	오산 외삼미동 고인돌	304
제212호	연천 학곡리 적석총	305
제213호	연천 심원사지	306
제214호	제간공 권규 묘역	308
제215호	용인 할미산성	310
제216호	의왕 모락산성	312
제217호	파주 육계토성	314
제219호	둔촌 이집 묘역	316
제220호	포천 자작리 유적지	318
제221호	불암산성	320
제223호	고양 북한산 산영루지	322
제224호	화성 화량진성	324
제225호	수원 창성사지	326

2
문화재자료

제1호	수원향교	330
제2호	양주향교	332
제3호	여주향교	334
제4호	평택향교	336
제5호	홍학사 비각	338
제6호	청계사	340
제7호	오정각	342
제8호	사세충렬문	343
제9호	과천향교	344
제10호	파산서원	346
제11호	교하향교	348
제12호	반구정	350
제13호	광주향교	352
제14호	지수당	354
제15호	장경사	355
제16호	포천향교	356
제17호	가평 하판리 삼층지진탑	358
제18호	운계서원	360
제19호	양근향교	362
제20호	지평향교	364
제21호	양평 용천리 삼층석탑	366
제22호	이천향교	368
제23호	양지향교	370
제24호	칠장사	372
제25호	운수암	373
제26호	죽산향교	374
제27호	안성향교	376
제28호	양성향교	378
제29호	김포향교	380
제30호	통진향교	382
제34호	남양향교	384
제36호	용주사 천보루	386
제37호	영월루	388
제39호	시흥 문원리 삼층석탑	390
제40호	진위향교 대성전	391
제41호	이천 자석리 석불입상	392
제42호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394
제44호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395
제45호	안성 유명건 묘갈	396
제46호	안성 대농리 석불입상	398
제47호	포천 금현리 지석묘	399
제49호	용인 주북리 지석묘	400
제52호	연천 통현리 지석묘	401
제53호	추곡리 백련암 부도	402
제54호	이순지선생 묘	403
제55호	이천보 고가	404
제56호	흥국사 대웅보전	406
제57호	한미산 흥국사 약사전	408
제58호	가학동 지석묘	409
제59호	청룡사 삼층석탑	410
제60호	삼막사 명부전	411
제61호	용인 창리 선돌	412
제62호	용인 목신리 석조여래입상	413
제63호	곤지암	414
제64호	원흥리 신라말·고려초기 청자요	416
제65호	용인 고안리 분청사기 도요지	418
제66호	망월사 천봉당 태홀탑	420
제67호	망월사 천봉선사 탑비	422
제68호	용인 맹리 지석묘	424
제69호	고양향교	426
제70호	이평리 석불입상	428
제71호	행주서원지	429
제73호	이해룡 고가	430
제74호	홍승인 고가	432
제75호	기천서원지	434
제76호	안성 도기동 삼층석탑	436
제77호	문원리사지 석조보살입상	437
제78호	수내동 가옥(이택구 가옥)	438
제79호	월산대군 사당	440
제80호	가운동 지석묘	441
제81호	전성부원군 이준선생 영정	442
제82호	하남시 상사창동 연자마	444
제83호	파주향교 대성전	445
제84호	청주한씨 문정공파 묘역 신도비	446
제85호	정창손 묘역 석물	448
제86호	남한산 법화사지 및 부도	450
제88호	연산군시대 금표비	452
제89호	양주 옥정리 선돌	453
제90호	오리 이원익 종택 및 관감당	454
제91호	공안공 정옥형·충정공 정응두 신도비	456
제92호	문간공 김세필 묘역 일원	458
제93호	서계 박세당 사랑채	460
제94호	안산 청문당	462
제95호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464
제96호	용인 이주국장군 고택	466
제97호	여주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	468
제98호	임영대군 이구 묘역 및 사당	470
제99호	의정부2동 성당	472
제100호	구 서이면사무소	474
제102호	양평공 한계순 묘역	476
제103호	죽산안씨 연창위 종가	478
제104호	고양 흥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480
제105호	신빈신씨 묘역	482
제106호	임은 이민곤 영정	484
제107호	익원공 김사형 묘역	486
제108호	안성 죽리 석조여래입상	488
제109호	권상 묘역	490
제110호	쌍계사 아미타회상도	492
제111호	용덕사 석조여래입상	494
제112호	남양 풍화당	496
제113호	서계 박세당 묘역	498
제114호	구정 남재 묘역	500
제115호	능원대군 이보 묘역	502
제116호	대은 변안렬 묘역	504
제117호	의정부 회룡사 석조	506
제118호	의정부 회룡사 신중도	508
제119호	양평 상원사 철조여래좌상	510
제120호	죽정 최유경 묘역	511
제121호	추연 우성전 묘역(우하영 묘역 포함)	512
제122호	사제 김정국 묘역	514
제124호	가평 현등사 지장십왕도	516
제125호	가평 현등사 칠성정화	518
제126호	가평 현등사 독성도	520
제127호	구 대부면사무소	522
제128호	원호·원두표 묘역	524
제129호	죽서 원몽린 묘역	526
제130호	용재 성현 묘역	528
제131호	안성 법계사 신중도	530
제132호	안성 법계사 화장찰해도	532
제133호	여주 신륵사 삼층석탑	534
제134호	여주 신륵사 원구형석조부도	536
제135호	양주 회암사 지공선사 부도비	538
제136호	풍산군 이종린 묘역	540
제137호	평정공 윤호 신도비	542
제138호	포천 안동김씨 고가터	544
제139호	파주 읍내리 석조여래입상	546
제140호	고양 북한산 서암사지	548
제141호	평택 서천사 석조여래좌상	549
제142호	박유명 초상모본	550
제143호	임연 초상	552
제144호	파주 검단사 목조관음보살좌상	554
제145호	용인 법륜사 삼층석탑	555
제146호	수원 청련암 아미타회상도	556
제147호	수원 청련암 신중도	558
제148호	수원 청련암 독성도	560
제149호	수원 청련암 산신도	562
제150호	수원 청련암 칠성도	564
제151호	화성 용주사 목조불패	566
제152호	화성 용주사 목조소대	567
제153호	광명 금오계첩	568
제154호	광명 이원익 유묵목판 인출본	570
제155호	광명 오리선생집·오리선생속집	572
제156호	화성 용주사 청동시루	573
제157호	고양 경주김씨 의정공파 영사정	574
제158호	가평 대원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575
제159호	우리절 5층석탑	576
제160호	우리절 석조부도 2기	577
제161호	양주 석굴암 석조불좌상	578
제162호	양주 석굴암 석조지장보살좌상	579
제162-1호	석조나한상	580
제163호	남양주 봉선사 목조불좌상	581
제164호	남양주 봉선사 칠성도	582
제165호	남양주 봉선사 독성도	584
제166호	통진이청	586
제167호	여주 신륵사 삼화상진영	588
제168호	양평 대성사 아미타불회도	590
제169호	평택 약사사 석조지장보살좌상	592
제170호	고양 백자음각 황사경 묘지	594
제171호	송준길 등서첩	596
제172호	파주 검단사 검단조사진영	598
제173호	가평 현등사 지장시왕도	600
제174호	부계팔경도	602
제175호	부계전도	604
제176호	의왕 청계사 조정숙공사당기비	606
제177호	영조 어필 벼루	608
제178호	대혜보각선사서	610
제179호	불법총론	612
제180호	고양 대성암 육경합부	613
제181호	용인 행복선원 묘법연화경 권1~7	614
제182호	포천 화봉사 신중탱화	616
제183호	안성 봉덕사 나반존자도	618

시·군별 문화재 목록 622

1

기념물

경기도기념물 제1호

정몽주선생 묘

鄭夢周先生 墓

고려시대
1기
단분, 호석, 묘비 1기, 혼유석 2기, 상석 4기(구·신), 향로석 2기, 장명등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2쌍(구·신), 석양 1쌍, 신도비 1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산3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영일정씨 종중
관리자 : 정덕수

고려 말의 충신 포은 정몽주圃隱鄭夢周(1337~1392)의 묘이다. 정몽주는 고려의 많은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오부학당五部學堂과 향교를 세워 유학을 진흥시키고 성리학의 기초를 세웠다. 당시 이성계의 세력이 날로 커져서 조준趙浚, 정도전鄭道傳 등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 하므로 우선 조준을 제거하려다가 1392년(공양왕4)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게 선죽교善竹橋에서 피살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정몽주가 순절한 뒤 개성 풍덕군에 묘를 썼다가 1411년(태종11)에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이장할 때 이장 행렬이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 지경에 이르자 앞에 세웠던 명정銘旌이 바람에 날려 현 묘소의 위치에 떨어졌는데, 운구하려던 행여가 움직이지 않아 이곳에 안장하였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 조정朝廷은 그의 고향인 영천까지 이장하는 것을 막았을 것으로 보인다.

묘역은 단분單墳으로, 원래부터 있던 석물은 운수방부형雲首方趺形 묘비,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 문인석 1쌍, 혼유석 등이고, 상석, 장명등, 망주석, 석양石羊, 곡장曲墻, 호석護石, 난간석, 그리고 새 문인석 1쌍 등은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추진된 묘역 정화 사업으로 추가·설치되었다.

1517년(중종12)에 건립된 묘비에는 '고려수문하시중정몽주지묘高麗守門下侍中鄭夢周之墓'라고 고려의 벼슬만을 쓰고 조선의 시호를 기록하지 않아 그가 두 왕조를 섬기지 않은 뜻을 분명히 하였다. 묘역의 입구에는 신도비가 세워졌는데 팔작옥개석八作屋蓋石, 비신碑身, 기대基臺의 형태이다. 이 신도비는 송시열宋時烈이 찬撰하고 김수증金壽增이 글을 쓰고 김수항金壽恒이 전액篆額을 써서 1696년(숙종22)에 건립된 것으로 왕조와 시대를 뛰어넘은 선생의 충절과 높은 학식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1	2
	3

1. 정몽주선생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정몽주선생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정몽주선생묘 묘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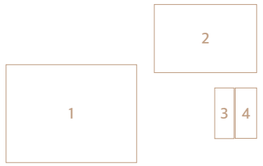
권율장군 묘

權慄將軍 墓

조선시대
1기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동자석 1쌍,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168-1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안동권씨 종중
관리자 : 이윤배

임진왜란의 명장인 충장공 권율忠莊公權慄(1537~1599)의 묘이다. 권율은 1582년(선조15)에 과거에 급제하고 예조좌랑·호조정랑 등의 벼슬을 거쳐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목사에 제수되어 바로 임지로 떠났다. 용인 싸움에서 관군이 패하자 광주에 가서 천여 명의 군병을 모집하여 이치梨峙 싸움에서 적을 대파시켜 호남을 지켰고, 그 공으로 전라감사로 승진하였다. 이어 함락된 도성의 수복을 위하여 북상하던 중 수원 독성산성禿城山城에 진지를 구축하고 왜병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면서 적의 서진西進을 막았다. 이후 서울과 보다 가까운 행주산성으로 진지를 옮겼다. 적장들은 이치 싸움과 독성산성에서 치욕을 경험한 탓으로 전군을 총출동시켜 행주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장군의 일사분란한 통솔력과 관군, 의·승병이 사력을 다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것이 1593년(선조26) 2월에 있었던 행주대첩幸州大捷이다.
대첩 후 장군은 전군을 지휘하는 도원수都元帥가 되었고, 임진왜란이 끝나자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그해 세상을 떠났다. 이에 조정朝廷에서는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영의정으로 관직을 추증追贈했고, 1604년(선조37)에는 선무공신宣武功臣 1등에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으로 봉하였으며, 충장忠莊의 시호를 내렸다.



1. 권율장군 묘 전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권율장군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권율장군 묘 문인석(좌) 전면,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권율장군 묘 문인석(우) 후면,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묘역은 봉분이 3기로 장군의 묘 중심으로 좌우에 전前부인 정경부인貞敬夫人 창령조씨昌寧曹氏와 후後부인 정경부인 죽산박씨竹山朴氏와의 삼위합장묘三位合葬墓이다. 묘소에는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 묘비, 상석, 향로석이 각 1기, 동자석, 망주석, 양관조복형梁冠朝服形 문인석이 각 1쌍씩 설치되어 있다. 묘역 입구에 있는 신도비는 원래 신도비의 비문이 심하게 마모되어 후손들이 1861년(철종12)에 새로 건립한 것으로, 신흠申欽이 찬하고 이유원李裕元이 글씨와 전액篆額을 쓴 것이다. 1971년, 1999년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곡장曲墻과 호석護石 등이 새로 단장되었다.

경기도기념물 제3호

심대장군 묘

沈岱將軍 墓

조선시대
1기
혼유석 2기, 상석 2기, 향로석 2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계체석, 신도비 1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산119-1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청송심씨 종중
관리자 : 심효길

임진왜란 때 경기도관찰사로 활약하다 전사한 충장공 심대忠莊公沈岱(1546~1592)의 묘이다. 심대는 1572년(선조5) 문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보덕輔德으로서 근왕병 모집에 힘썼다. 그 공으로 우부승지, 좌부승지를 지내며 승정원에서 왕을 가까이에서 모셨다. 왜군의 기세가 심해지면서 선조를 호종扈從하여 평양에서 다시 의주로 수행하였다. 1592년(선조25) 9월 권징權徵의 후임으로 경기도관찰사가 되어 경기도 일대에 진을 치고 있던 왜군을 격퇴시켰다. 서울을 수복할 계획으로 도민道民과 연락하여 삭녕에서 때를 기다리던 중 왜군의 야습으로 전사하였다. 왜군은 그의 수급首級을 참하여 서울 거리에 전시하였는데 60일이 지나도 마치 산 사람의 모습과 같았다고 한다. 이 비보가 행재소에 전해지자 선조는 이조판서로 추증하였고, 뒤에 조정에서는 좌찬성에 추증한 다음 청원군靑原君에 봉하고 충장忠壯이라 시호를 내렸다. 1604년(선조37)에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녹훈되었고, 1610년(광해군2)에는 다시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청원부원군靑原府院君에 추봉되었다.

묘역에는 2004년에 부인 광주노씨光州盧氏의 묘를 이전하여 합장한 묘역에는 현재 봉분이 2기가 있다. 2004년 부인 광주노씨의 묘를 이전하여 심대 묘의 우측에 부우로 조성하였다. 또한 지정 당시에는 심대의 봉분 앞에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 묘비가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졌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그리고 문인석, 망주석이 각각 1쌍씩 배치되어 있다. 문인석은 양관梁冠과는 다른 형태의 관모冠帽에 조복朝服을 입고 있다. 향로석은 새로 설치한 것이다. 한편, 1975년에는 묘 아래에 있던 낡은 재실을 해체·복원하였고, 새로운 신도비와 부인 광주노씨 묘비를 건립하였다.

1. 심대장군 묘 문인석(좌), 2015. 경기문화재연구원
2. 심대장군 묘, 2015. A&A문화연구소
3. 심대장군 묘,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7호

정약용선생 묘

丁若鏞先生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쌍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산175-1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남양주시

조선후기 문신 다산 정약용茶山丁若鏞과 숙부인淑夫人 풍산홍씨豊山洪氏의 합장묘이다. 정약용은 1762년(영조38)에 출생하여 1836년(헌종2)에 사망하였다. 1785년에 정시의 초시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1789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1792년에 홍문관 수찬修撰이 되어 축조 계획 중이었던 수원 화성의 성곽제도를 만들고, 축조의 공정을 단축시키는 거중기를 제작하였다. 1794년(정조18) 경기도 암행어사를 거쳐 이듬해 병조참의가 되었으나, 1801년(순조1) 천주교 신유박해辛酉迫害 때 포항 장기로 유배된 뒤에 강진으로 옮겨졌다. 유배 중에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흠흠신서欽欽新書』 등 다수의 책을 저술하여 정치·경제·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묘역은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상단에 단분으로 된 봉분이 있고 봉분의 용미龍尾를 가로질러 곡장이 둘러져 있다. 석물의 구성은 단출하다. 봉분 앞에 혼유석, 상석(폭 127cm), 육각향로석의 제단이 있다. 상석은 뒤편에서 계체석이 받치고 있고 앞쪽은 고리 장식이 있는 고석 2개가 받치고 있다. 상석의 서측에는 배설석排設石이 있는데, 배설석 뒤편과 동편에 1959년과 1974년에 세운 비석이 각각 세워져 있다. 비석의 형태는 옥개방부형이며, 2열로 된 비면의 표기는 부부의 위치에 따라 부인 이름을 좌편(동편)에 새겼다. 문인석은 없으며, 하계 바깥에 망주석(좌대 위 175cm) 1쌍이 있는데 세호細虎나 염우廉隅 장식없이 대석과 주신이 하나로 되었다. 묘역은 방치되었다가 1970년에 정비하기 시작하였으며 근래의 정비로 인하여 석재의 종류도 서로 다른 4가지가 혼재한다.

1

2

1. 정약용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정약용선생 묘 전경, 2017_ 남양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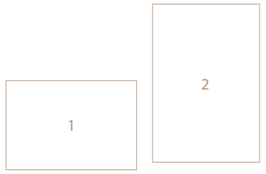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13호

남이장군 묘

南怡將軍 墓

조선시대
1기
쌍분, 묘비 1기, 상석 1기, 문인석 1쌍, 망주석 1쌍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산145

지정일 : 1973.07.10
소유자 : 의령남씨 의산위파 대종중
관리자 : 의령남씨 의산위파 대종중



1. 남이장군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남이장군 묘 문인석(좌),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전기의 무신인 남이南怡(1441~1468)의 묘이다. 남이는 의령남씨宜寧南氏로 1457년(세조3) 17세 때 무과에 장원급제하고 세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여러 무직武職을 역임하였다. 이시애李施愛의 반란 때 대장으로 출정하여 난을 토벌한 공으로 적개공신敵愾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여진의 건주위建州衛를 정벌할 때도 선봉으로 적진으로 쳐들어가 적을 무찌른 공으로 이등군공二等軍功에 책록된 후 26세의 나이에 병조판서가 되었다. 예종이 즉위하자 유자광柳子光의 무고로 처형되니 28세였다. 이것을 소위 남이의 옥獄이라 하는데 장군이 궐 안에서 숙직 중 혜성이 나타나자 '혜성이 나타남은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나게 하려는 징조다'라고 말한 것을 유자광이 엿들었다. 유자광은 남이가 역모를 꾀한다고 모함하여 문초 끝에 죽였다. 이 사건으로 임진왜란 전까지는 그는 난신亂臣으로 인식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일부 야사野史에서는 유자광의 모함으로 날조된 옥사獄死라고 규정하고 젊은 나이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영웅적 인물로 기술하고 있다. 그 뒤 1818년(순조18)에 이르러 남이의 후손인 우의정 남공철南公轍의 주청으로 관작이 복구되었다.

묘역은 2단으로 쌓인 석축대 위에 조성되어 있고 사성莎城으로 둘러 싸여 있다. 봉분은 쌍분으로 부인과의 합장묘이며 최근에 설치된 호석護石으로 단장되어 있다. 원래의 석물은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 문인석 1쌍이 있을 뿐이다. 묘비는 1971년에 건립한 것이며, 상석·혼유석·향로석, 그리고 망주석 1쌍은 최근에 조성한 것이다.

경기도기념물 제16호

이완장군 묘

李浣將軍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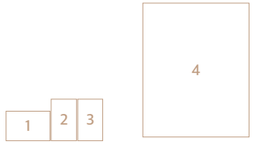
조선시대
1기
단분, 상석 1기, 향로석 1기, 혼유석 1기, 장명등 1기, 문인석 1쌍, 망주석 1쌍, 동자석 1쌍, 산신석 1기, 묘비 1기, 신도비 1기
여주시 상거동 산19-18

지정일 : 1973.07.10
소유자 : 이규선
관리자 : 이종갑

조선중기의 무신 정익공 이완貞翼公李浣 장군과 부인 서산정씨瑞山鄭氏의 합장묘이다. 이완의 호는 매죽헌梅竹軒으로 1602년(선조35)에 출생하여 1674년(숙종1)에 사망하였으며, 1624년(인조2) 무과에 급제한 후, 1631년(인조9)에 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병자호란에서 김자점金自點의 별장으로 출전하여 정방산성正方山城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이후 경기도 수군절도사, 훈련대장과 병조판서의 임무를 맡아서 북벌을 준비하였다. 표류로 제주도에 도착한 네덜란드인 하멜을 시켜 신무기를 만들게 하였으며, 성곽의 개조와 신축 등을 추진해나갔다. 그러나 효종이 재위 10년 만에 승하하자 북벌 계획이 중지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종 때에는 수어사로 임명되었고, 포도대장을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묘역은 곡장이 둘러져 있으며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에 봉분과 비석이 있다. 봉분 동측에 이수방부형螭首方趺形 비석이 있는데,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지었으며 이수螭首는 뿔이 달린 쌍룡이 여의주를 탐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석 윗면에는 연판을 조각하고 옆면에는 당초문과 연주聯珠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봉분 정면에는 혼유석과 상석, 향로석이 놓여 있으며, 상석의 뒤는 계체석이 받치고, 앞은 2개의 고석이 받치고 있다. 고석에는 고리 장식이 조각되어 있고 상석의 동편에는 장식 없는 육면체의 준석樽石이 있다.

하단 좌우에는 곡장 우석隅石의 선에 맞추어 망주석과 문인석이 각 1쌍씩 배치되어 있다. 망주석은 대석일체형이며 주두에는 원수圓首 아래 운각雲角과 염우廉隅, 주신에는 매듭모양의 세호細虎를 정교하게 새겼고 대석에는 연판문과 운각을 장식했다. 양관조복형梁冠朝服形 문인석은 비례와 입체감 등에서 조각 수준이 돋보인다. 머리에 쓴 관의 모양이 사실적이며, 관 오른쪽에 있는 비녀 머리를 꽃모양으로 장식했다. 후수後綬와 폐슬蔽膝에도 구름무늬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장명등과 동자석은 1998년에 도난당하여 근래에 새로 설치했다. 묘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신도비는 1688년(숙종14) 표석과 같은 재료와 조각 수준으로 제작되었다.



1. 이완장군 묘, 2000_ 남양주시
2. 이완장군 묘 묘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이완장군 신도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이완장군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7호

채제공선생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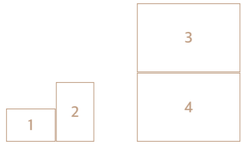
蔡濟恭先生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상석 1기, 망주석 1쌍, 석양 1쌍, 뇌문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산5

지정일 : 2073.07.10
소유자 : 채씨종중
관리자 : 채씨종중(조성기)

조선 정조 대의 문신인 채제공蔡濟恭(1720~1799)의 묘이다. 채제공의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백규伯規, 호는 번암樊巖이다. 충청도 홍주 출생이다. 1735년(영조11) 15세로 향시에 합격하고, 1743년 문과정시에 급제후 출사하여 여러 벼슬을 지냈다. 1758년 도승지에 재직시 영조가 사도세자를 폐위하는 비망기를 내리려 하자 죽음을 무릅쓰고 이를 막았다. 후일 영조는 정조에게 채제공을 가리켜 '진실로 나의 사심없는 신하이고 너의 충신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1788년 국왕의 친필로 우의정에 특채되었고 1790년 좌의정에 올라 행정 수반이 되었다. 1793년에 영의정에 임명되었으며 신도시 수원 건설과 수원의 화성성역華城城役을 총괄하였다.

체재공의 묘역에는 망주석·석양·혼유석·상석·고석·향로석 등의 옛 석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봉분 우측에는 방부개석方趺蓋石 양식의 묘표가 건립되어 있다. 음기陰記나 건립 연대의 기록이 전혀 없고, 비신의 앞면에만 글씨를 써서 피장자의 신분을 밝혔다. '문숙文肅'이란 시호가 새겨진 것으로 보아, 1823년(순조23)에 추탈追奪된 관작官爵이 복구되고 시호를 하사 받을 때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묘역 입구의 비각에는 정조가 직접 썼다는 방부개석方趺蓋石 양식의 뇌문비誄文碑가 안치되어 있어 정조의 총애를 짐작할 수 있다.



1. 채제공선생 묘 석양(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채제공선생 묘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채제공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채제공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8호

민영환선생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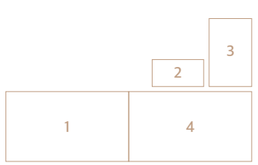
閔泳煥先生 墓

1905년
1기
단분, 상석 1기, 향로석 1기, 문인석 1쌍, 묘비 1기, 신도비 2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44-7

지정일 : 1973.07.10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용인시

일제에 의한 을사조약乙巳條約(1905)에 항거하여 자결 순절한 민영환閔泳煥(1861~1905)의 묘이다. 민영환은 여흥민씨驪興閔氏로 1878년(고종15)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1895년 주미전권대사에 임명되었다. 1896년(고종33)에는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어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였다. 다음해에는 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6개국 특명전권공사가 되어 각국을 방문하여 서양의 발전된 문물제도와 근대화 모습을 직접 체험하였다. 귀국 후에는 독립협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날로 심해지는 일본의 내정간섭에 항거하여 친일내각과 대립하였기 때문에 한직인 시종무관으로 좌천당했다. 1905년(고종42) 일제가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자 조약에 찬동한 5적의 처형과 조약의 파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뜻이 이루지 못한채 국민과 각국 공사 그리고 황제에게 고하는 3통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자결하였다.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묘역은 높은 사성莎城 위에 곡장曲墻을 설치한 구조이다. 봉분 앞에 상석과 향로석, 그 좌측에 묘비가 있으며, 묘역 앞 좌우로 문인석 및 망주석이 각각 1쌍씩 배열되어 있고, 중앙에는 장명등이 배치되어 있다. 묘역의 전방에는 1959년 3월에 건립된 묘비와 신도비가 있다. 묘비의 전면에는 '계정민충정공영환지묘桂庭閔忠正公泳煥之墓'라고 쓰여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필이다. 신도비의 비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신석호申奭鎬가 찬撰하고, 남봉우南鳳祐가 글씨를 썼으며, 김기승金基昇이 전액篆額을 쓴 것이다. 이 묘소는 원래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에 조성되었다가 1942년 이곳으로 이장하면서 부인과 합장하였다. 곡장은 1974년에 설치한 것이다.



1. 민영환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민영환선생 묘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민영환선생 묘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민영환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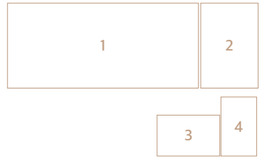
노송지대

老松地帶

조선시대
일원
38주
(효행기념관 부근 9주, 삼풍가든 부근 21주, 송정초등학교 부근 8주)
소나무 및 능수버들
수원시 장안구 파장·이목·송죽동 일원

지정일 : 1973.07.1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수원시

<노송지대>는 지지대고개 정상으로부터 서울-수원간 국도변에 노송이 생장하는 5km구간을 일컫는다.
정조가 생부 사도세자의 원침인 현륭원의 식목관에게 내탕금 1,000량을 하사하여 이곳에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40주를 심게 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대부분 고사하고 1권역 효행기념관 부근(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74) 9주, 2권역 삼풍가든 부근(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388) 21주, 3권역 송정초등학교 부근(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41) 8주 등 총 38주 정도의 노송만이 보존되고 있다.
1권역 효행기념관 부근 9주의 노송을 제외한 29주의 노송은 모두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의 소나무는 껍질과 가지 끝에 있는 눈의 색깔이 붉은 적송으로, 내륙지방에서 많이 자란다고 해서 육송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바닷가에서 자라는 해송보다 잎이 연하여 여송女松이라 칭하기도 한다. 아직도 긴 가지가 축축 늘어진 노송에 의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정조의 효행을 짐작할 수 있는 문화경관이 잘 나타나고 있다.



1. 노송지대 2권역, 2005_ 수원시
2. 노송지대 3권역,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노송지대, 1985_ 수원박물관
4. 노송지대, 1960_ 수원박물관

경기도기념물 제20호

연주대

戀主臺

조선시대
1기
1×1칸
목재
과천시 자하동길 62

지정일 : 1973.07.1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과천시

<연주대>는 관악산 연주봉의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절벽 위에 높이 30m의 인공석축을 쌓아 올린 곳이고, 그 위에 비둘기집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연주암이다.

조선후기 기록인 『연주암지戀主庵誌』에 의하면 677년(신라 문무왕 17) 의상대사義湘大師가 한강 남쪽에 유화遊化하다가 관악산의 수려함에 끌려 관악사와 함께 건립한 것으로 의상대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후 관악사와 의상대는 연주암과 연주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아래의 두 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첫째, 조선이 개국되고 한양으로 도성이 옮겨지자 고려에 대한 연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고려 충신 강득룡, 서견, 남을진 등의 사람들이 항상 이곳에 들러 두문동에서 절의를 지키다 숨진 고려의 충신 열사와 망해버린 왕조를 연모하였다고 하여 연주대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둘째, 태종이 셋째 왕자 충녕대군(세종)을 장차 세자로 삼을 뜻을 눈치 챈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왕궁을 빠져나와 관악산에 입산수도하면서, 이 연주대에 올라 왕궁을 바라보며 왕좌를 그리워하였고, 이후 사람들이 두 대군의 심정을 기리는 뜻에서 의상대를 연주대로, 관악사를 연주암으로 각각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두 가지 모두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인데, 이것은 연주대가 주변 경관이 워낙 뛰어난 절경인데다 한 눈에 멀리까지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여서 붙여진 전설로 생각된다. 현재의 건물은 세평 남짓한 맞배지붕으로 조선후기에 지어진 것이다.

1

2

1. 연주암 응진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연주대 전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21호

맹사성선생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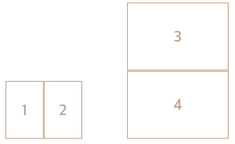
孟思誠先生 墓

조선시대
1기
묘비 2기(구·신), 상석 1기, 향로석 1기, 동자석 1쌍,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산신석 1기, 계체석
광주시 직동 산27

지정일 : 1974.09.26
소유자 : 신창맹씨 종중
관리자 : 맹두섭

조선 세종 대의 재상인 맹사성孟思誠(1360~1438)의 묘이다. 맹사성의 본관은 신창新昌, 자는 자명自明, 호는 고불古佛이다. 충청도 온양溫陽 출신이다. 1386년(우왕12)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춘추관검열春秋館檢閱을 지냈으며 조선 개국후에도 계속 출사하여 각조의 판서를 지낸 뒤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청렴결백하여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황희 정승과 함께 세종대왕을 잘 보필하여 조선초기의 사회안정과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묘역은 맹산(413.5m)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내려 형성한 골짜기의 뒷산 중턱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묘역의 석물 중에 당대에 조성한 것은 문인석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최근에 마련하였다. 근래에 보수작업을 진행하여 원형이 많이 변형된 상태이다. 문인석은 세종대의 양식을 갖추고 있으나 다른 세종 대의 문인석 보다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봉분에는 호석護石을 둘렀으며 그 앞으로 방부하엽方趺荷葉 양식의 단정한 묘표를 세워 놓았다. 비신의 앞면에는 당시 유행하던 송설체松雪體의 해서楷書로 피장자의 신원을 유려하게 썼으며, 뒷면에는 건립 연대(1438년, 세종20)를 새겨 놓았다. 양식이 뛰어나고 입석 시기가 분명하여 조선초기 묘비 연구의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묘역 우측의 묘비는 1959년에 건립하였다.



1. 맹사성선생 묘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맹사성선생 묘 문인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맹사성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맹사성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2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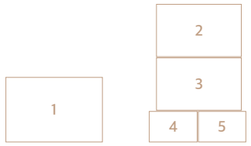
용인 왕산리 지석묘

龍仁 旺山里 支石墓

청동기시대
1기
덮개돌 570×405×105㎝
받침돌 284×86×35㎝
298×67×32㎝
석재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498

지정일 : 1974.09.2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용인시

<용인 왕산리 지석묘>는 경안천 주변의 완만한 구릉에 입지하고 있는 청동기시대의 지석묘이다. 현재 2기의 지석묘가 인접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중 1기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고 나머지 하나는 무너져 있다. 상태가 양호한 지석묘는 덮개돌과 양쪽의 장벽석, 한쪽 단벽석이 'ㄷ'형태로 남아있다. 덮개돌과 받침돌 사이에는 작은 쐐기돌을 끼워 넣은 흔적이 확인되는데, 이는 덮개돌을 수평으로 맞추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석묘는 형태와 구조에 따라 탁자식卓子式, 바둑판식碁盤式, 개석식蓋石式, 위석식圍石式 등으로 구분된다. 용인 왕산리 지석묘는 지상에 4개의 판석형 받침돌로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큰 덮개돌을 올린 구조로서 '탁자식 지석묘'에 해당된다. 탁자식 지석묘는 '북방식 지석묘'로 불리며 주로 한반도의 중부지역과 북부지역에 분포한다. 경기지역에 분포하는 지석묘는 북쪽지역의 전형적인 탁자식 지석묘와 달리 받침돌의 크기가 작고, 덮개돌이 두껍고 웅장한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덮개돌이 수평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조적 안정성과 뛰어난 축조기술을 엿볼 수 있다. 용인 왕산리 지석묘는 최초 '묘현지석묘慕賢支石墓'로 명칭이 부여되었으나 201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1. 용인 왕산리 지석묘 전경, 2015_ A&A문화연구소
2. 왕산리 지석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왕산리 지석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왕산리 지석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왕산리 지석묘 내부,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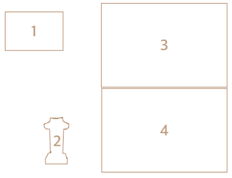
최영장군 묘

崔瑩將軍 墓

고려시대
1기
단분,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기, 문인석 1쌍, 묘비 2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70-2

지정일 : 1975.09.05
소유자 : 동주최씨 대종회
관리자 : 동주최씨 대종회

고려말기의 명장이자 충신인 최영崔瑩(1316~1388)의 묘이다. 최영은 동주최씨東州崔氏로 어릴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위엄이 있었다. 무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양광도도순문사의 휘하에서 왜구를 여러 차례 토벌하여 공을 세운 때 부터였다. 이후 1352년(공민왕1)에 조일신趙日新의 난과 1354년 장사성張士誠의 난을 평정한 것을 비롯하여 2차에 걸친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시켰다. 1358년에는 오예포에 침입한 왜구의 배 400여척을 격파하는 등 전국 각처에서 일어난 반란을 평정하고, 수십 차례에 걸친 왜구의 침입을 격퇴시켰다.
요동정벌을 위하여 우왕禑王과 함께 출정하였으나 이성계李成桂의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이성계 일파에게 붙잡혔다. 이후 고양에 유배된 후 1388년(우왕14)에 충주에서 처형되어 이곳에 안장되었다.
묘역의 봉분은 단분單墳으로 부인 문화류씨文化柳氏와의 합장묘이다. 화강암 장대석長臺石을 이용하여 2단의 호석護石을 두른 전형적인 고려시대 양식의 방형묘方形墓이다. 봉분의 바로 앞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다. 그 우측에는 1928년에 건립된 묘비, 좌측에는 1970년에 건립된 무민공충혼비武愍公忠魂碑가 있다. 봉분 앞쪽으로 좌우에 망주석과 문인석이 1쌍씩 세워져 있는데 이 중 문인석은 1970년에 새로 제작·배치하였으며, 이후 곡장曲墻을 추가·설치하였다. 이 묘역의 윗편에는 장군의 부친 최원직崔元直의 묘소가 있다.



1. 최영장군 묘, 2017_경기문화재연구원
2. 1928년 건립된 묘비, 2017_경기문화재연구원
3·4. 최영장군 묘, 2017_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24호

이항복선생 묘

李恒福先生 墓

조선시대
1기
쌍분, 묘비 1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신도비 1기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1082-11 외

지정일 : 1975.09.05
소유자 : 이상욱
관리자 : 이상욱

조선 선조 대의 명신名臣 이항복李恒福(1556~1618)의 묘이다. 이항복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재능이 우수하였다. 특히 죽마고우인 이덕형李德馨과의 기지와 재치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1580년(선조13) 알성과에 급제하고, 1589년(선조22) 예조정랑으로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을 다스려 선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그 뒤 여러 관직을 거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승지로서 왕비를 개성으로, 왕자를 평양으로, 선조를 의주로 호종扈從하였다. 그 동안 이조참판으로 오성군鰲城君으로 봉해진 후 형조판서로 도총관을 겸직하는 등 계속해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1600년(선조33)에 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사·세자사에 임명되었고,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에 봉해졌다. 1617년(광해군9)에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모를 반대하다 관직이 삭탈되고, 이듬해 북청에 유배되어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안으로는 당쟁을, 밖으로는 임진왜란을 뒷수습한 명재상名宰相이었다. 죽은 해에 관작이 회복되고 청백리淸白吏에 선정되었다.

묘역의 봉분은 쌍분으로 부인 안동권씨安東權氏와의 합장묘이다. 쌍분 중앙을 중심으로 전면에는 묘비와 혼유석, 상석, 향로석이 있으며, 그 앞의 좌우에는 망주석과 양관조복형梁冠朝服形 문인석이 각각 1쌍씩 배열되어 있고, 문인석 앞쪽으로는 차일석이 1쌍 배치되어 있다. 묘역 아래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사당인 영당影堂이 있고, 영당 우측에는 1652년(효종3)에 건립된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는 신흠申欽이 찬하고, 김집金集이 글을 썼으며, 김상용金尙容이 전액篆額을 썼다.

1
2

1. 이항복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이항복선생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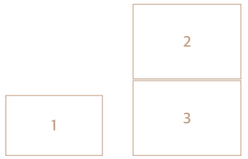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25호

이종무장군 묘

李從茂將軍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문인석 1쌍, 호석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79

지정일 : 1975.09.05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이씨종중(이봉녀)



1. 이종무장군 묘 전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이종무장군 묘 문인석(좌),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이종무장군 묘 후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초기 대마도를 정벌한 이종무李從茂(1360~1425)의 묘이다. 이종무는 장수이씨長水李氏로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하였다. 1381년(고려 우왕7)에 22세의 나이로 아버지를 따라 강원도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공으로 정용호군精勇護軍이 되었다. 1397년(태조6) 옹진만호로 재직 중 왜구의 침입으로 성이 포위되자 끝까지 싸워 이를 격퇴한 공으로 첨절제사僉節制使가 되었다. 1400년(정종2) 상장군上將軍으로 제2차 왕자의 난 때 방간芳幹의 군사를 무찔러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으로 통원군通原君에 봉해졌다. 그 후 좌·우군 총제를 거쳐 남양·수원 등지의 조전절제사, 중군도총제를 역임하고, 1419년(세종1)에는 삼군도체찰사에 올랐다. 이 해에 왜구의 침입이 더욱 심해지자 조정에서는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장군은 전함 227척, 군사 1만 7천여 명을 거느리고 대마도를 공략하여 적선 129척을 소각하고 가호 1,940여 호를 소각하는 등 대승을 거두었다. 또 도주하는 대마도 도주島主를 일본 규슈(九州) 본토까지 추격하여 항복을 받고 돌아오는 큰 공적을 올렸다.
묘역의 봉분은 단분으로 부인 평양조씨平壤趙氏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의 전면과 좌우면을 장대석長臺石으로 돌려 호석으로 삼았다. 원래의 석물은 묘비, 복두공복형幞頭公服型 문인석 1쌍, 용도 미상의 석물(장명등 하단부 추정) 1기이다. 묘비는 상단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하여 상단 좌우에 나선형 문양을 새겼다. 묘역의 좌측에 세워진 묘비는 원래 묘비의 비문이 마멸이 심하여 1975년 새로 세워진 것이며, 앞쪽의 상석, 향로석 등은 최근 신설된 것이다.

경기도기념물 제26호

이덕남장군 묘

李德南將軍 墓

조선시대
1기
쌍분, 묘비 2기, 상석 1기, 혼유석 1기, 향로석 1기, 장명등 1기,
무인석 1쌍, 망주석 1쌍, 신도비 1기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산85-1

지정일 : 1975.09.05
소유자 : 이한균
관리자 : 이씨종중(이한균)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인 이덕남李德南(?~1592)의 묘이다. 이덕남은 영천이씨永川李氏로 20세 때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원부정으로 있다가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물러났다. 이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외삼촌인 홍자수洪自修와 함께 고향인 안성의 의병을 모집하여 농기구를 녹여서 만든 무기로 북진하는 왜적을 수차에 걸쳐 격퇴하였다. 안성과 진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서운산 정상에 토성을 구축하여 의병 3천명을 거느리고 싸울 때 홍계남洪季男 장군이 성의 좌측을, 이덕남 장군이 성의 우측을 맡아 적을 협공하였다. 그 뒤 기호·호서 지방의 의병과 합세하여 활약하다가 전사하였다. 후에 병조참의에 증직되고, 그 충절을 기리기 위해 1718년(숙종44)에는 장군의 생가에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이 정문은 묘역에서 약 1km 떨어진 서운면 신촌리에 있었다.

묘역의 봉분은 쌍분으로 부인과의 합장묘이다. 묘비 이외에는 일체의 석물을 갖추지 않았으나 후손들에 의해 1975년에는 신도비·묘비·상석·혼유석·향로석·무인석 1쌍이 새로 세워졌고, 1979년에는 정려각旌閭閣, 1986년에는 사당인 진양사陣陽祠가 건립되었다. 원래의 구 묘비는 묘역 약 80m 앞쪽에 세웠는데, 팔작옥개석八作屋蓋石에 비신碑身은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은 구조이다. 비문은 영조 때 학자인 윤봉구尹鳳九가 찬撰하고, 홍봉조洪鳳祚가 글을 썼으며, 김진상金鎭商이 각자하여 세운 것이다.

1 2

1. 이덕남장군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이덕남장군 묘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28호

조종암

朝宗巖

조선시대(1684년)
1기
지정구역 4,859㎡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산176-1

지정일 : 1975.09.05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빙영섭

<조종암>은 좁은 의미로 숭명배청崇明排淸을 의미하는 석벽 각자刻字와 '조종암기실비朝宗巖記實碑'를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이 곳과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대통행묘大統行廟 및 그 부속건물까지를 포함하여 지칭한다.

조종암은 1684년(숙종10) 경기도 가평군수 이제두李齊杜와 허격許格, 백해명白海明 등이 멸망한 명나라를 추모하고 청나라를 적대시한다는 존명반청론과 대명의리론에 입각하여 암벽에 숭명배청의 의미를 담은 글자를 새겨 넣은 곳이다.

조종암을 이곳에 새긴 연유는 바로 앞에 흐르는 조종천에 있다. 여러 번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가는 조종천처럼 명나라의 유교문화를 수호하려는 충성심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명나라의 은혜와 청나라로부터 당한 굴욕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毅宗의 글씨 '사무사思無邪(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를 새겼다. 이것은 공자가 『시경詩經』을 한마디로 평가한 말인데, 김상헌金尙憲이 심양瀋陽에 억류되어 있을 때 구해온 것이다.

조종암에는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명나라의 은혜와 청나라로부터 당한 굴욕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명나라 의종毅宗 글씨 '사무사思無邪', 조선 선조의 글씨 '萬折必東(만절필동)', '再造藩邦(재조번방)', 조선 효종의 글씨 '日暮途遠至痛在心(일모도원 지통재심)', 낭선군 이우朗善君李俁의 글씨 '朝宗巖(조종암)'이 암벽에 새겨져있고, 1804년(순조4)에는 이러한 유래를 적은 '조종암기실비朝宗巖記實碑'가 암벽 위에 세워졌다. 구의사는 병자호란 때 청에 잡혀갔던 봉림대군鳳林大君(후의 효종)과 함심한 인물들로 1645년(인조23) 대군이 귀국할 때 우리나라로 망명했던 이들을 말하는데, 1831년(순조31)에는 명나라 구의사九義士의 후손이 이곳에 와서 지방유림과 함께 대통행묘大統行廟와 구의행사九義行祠를 건립하여 명나라 태조와 구의사를 제향祭享했다. 이들은 모두 명나라를 숭상하고 청나라를 배척했던 숭명배청 사상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소중화小中華 사상과 대명의리론對明義理論은 조선후기 사상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조종암은 이러한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의식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	2

3	4
5	6

1. 조종암, 촬영일미상_ 가평군
2. 조종암과 조종천,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사무사,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만절필동과 제조번방,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일모도원과 지통재심,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6. 견심정,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2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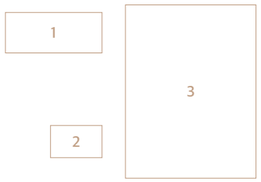
황희선생 영당지

黃喜先生 影堂址

조선시대
일원
3×2칸
목재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187, 산127

지정일 : 1976.08.27
소유자 : 파주시
관리자 : 파주시

<황희선생 영당지>는 조선초기 문신이자 청백리의 대표인 방촌 황희厖村黃喜(1363~1452)의 영정이 봉안된 곳이다. 황희는 고려 말부터 조선초기의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문물과 제도정비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황희는 세종연간(1418~1450) 영의정으로 임금을 도와 많은 업적을 남기며 청백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일화를 남겼다. 1452년(세종2) 황희가 89세로 세상을 떠나자 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으며, 1455년(세조1) 유림들이 그의 덕을 추모하기 위해 영당을 짓고 영정을 모셨다. 이 영당은 한국전쟁(1950~1953)으로 소실된 것을 1962년에 후손들이 복원하였다. 황희선생 영당지 주변에는 월헌사月軒祠·영모재影慕齋·반구정伴鷗亭·앙지대仰止臺 등 황희선생과 관련된 유적들이 위치해있다. 영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초익공初翼工 형식의 건물로 겹처마의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건물 정면에는 사분합 띠살문을, 양쪽에는 이분합 띠살문을 달았다. 건물 측면과 후면은 화방벽으로, 전면은 개방된 퇴칸으로 되어 있다. 영당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천장은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다. 정문은 정면 3칸의 솟을삼문 형식의 문으로 되어있다. 건물 주위에는 사당과 솟을삼문을 중심으로 담장이 둘러져 있다.



1. 황희선생 영당지,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황희선생 영당, 2006_ 파주시
3. 황희선생 영당, 2006_ 파주시

경기도기념물 30호

채산사
茝山祠

1907년 건립
일원
3×3칸
목재
포천시 신북면 청성사길 101

지정일 : 1976.08.27
소유자 : 최종규
관리자 : 최종규

<채산사>는 조선후기의 위정척사사상을 주창한 유학자이자 항일 의병장인 면암 최익현勉庵崔益鉉(1833~1906)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사당이다. 후에 항일 독립운동가인 염재 최면식念齋崔勉植(1891~1944)도 함께 배향하였다. 최익현은 1855년(철종6) 문과에 급제하여 장령·동부승지·공조참판·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공조판서 때 고종의 친정親政을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려 흥선대원군을 정권에서 물러나도록 하였다. 1905년(광무9) 일본의 강제적인 을사보호조약 체결에 항거하고 순창에서 의병운동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대마도로 유배된 뒤 단식 끝에 세상을 떠났다.
지역 유림들이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1906년 건립했으나 일제에 의한 훼철과 유림의 재건이 반복되었다. 해방 후 1949년 다시 중건되었고, 1975년 보수가 이루어졌다.
사당은 3칸의 솟을삼문을 전면에 두고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계단처럼 단이 진 이벌대 장대석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3칸의 평면 구조이며, 전면에 개방된 퇴칸을 두었다. 전면과 퇴칸열은 원주圓柱를 사용하였고 측면과 배면은 각주角柱이다. 가구 구조는 5량이며 맞배지붕이다. 전면은 익공에 처마는 겹처마이며, 배면은 민도리집에 처마는 홑처마이다. 내부 중앙에는 최익현 선생의 위패와 그 좌측에 시대와 작자 미상未詳인 영정影幀을 봉안하였고, 내부 좌측면에는 최면식 선생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하였다.

1
2 3

1. 채산사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사당,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사당 내부,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31호

팔곡리 향나무
八谷里 香나무

미상
1주
높이 약 9m, 줄기둘레 약 3m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59-3

지정일 : 1976.08.27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산시

<팔곡리 향나무>는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해 있는 향나무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상록침엽교목인 향나무는 키가 20m 이상, 줄기의 가슴높이 둘레는 3m 이상까지 자라는 늘푸른 큰키나무로, 가지가 위와 아래로 뻗는 특징이 있어 경관수로서의 가치가 높다.
팔곡리 향나무는 높이가 9m, 가슴높이의 줄기둘레가 3m에 이르는 큰 나무이다. 줄기는 땅 위 50cm 높이에서 서남쪽으로 갈라졌고 남쪽에서 다시 동쪽줄기가 갈라져 있어 모두 3개의 줄기가 동, 서, 남쪽으로 분기해 있다. 동서쪽 줄기는 옆으로 비스듬히 올라갔으나 서쪽줄기는 남쪽으로 뻗어 올라가다가 다시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어 활모양으로 구부러진 형상을 하고 있다. 지상 2.5m쯤 되는 부분에서 가지가 갈라져 부채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 나무의 수령은 600여 년이라고 하는 견해와 300년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확실하지 않다. 아름다운 수형, 왕성한 수세, 오래된 수령으로 자연경관적 가치와 마을의 장소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1
2

1. 팔곡리 향나무, 촬영일미상_ 안산시사
2. 팔곡리 향나무,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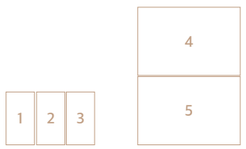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32호

유형원선생 묘

柳馨遠先生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1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문인석 1쌍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산28-1

지정일 : 1976.08.27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유원의



1. 유형원선생 묘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유형원선생 묘 문인석(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유형원선생 묘 문인석(좌), 2015_ A&A문화연구소
4. 유형원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유형원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시대 실학파 학자로서 근대 사회에 새로운 학풍을 일으키는데 교량 역할을 한 유형원柳馨遠(1622~1673)의 묘이다. 유형원은 문화 류씨文化柳氏로 임진왜란 뒤 사회가 극도로 어지럽고 양반사회의 모순이 노정露呈되어 가던 1622년(광해군14)에 출생하여 2세에 아버지를 잃게 되었다. 당시 아버지는 유몽인柳夢寅의 옥에 연좌되어 28세라는 젊은 나이에 옥사하였다. 1654년(효종4)에 진사시에 합격한 후 수차례에 걸쳐 벼슬에 추천되었으나 큰 뜻을 품고 전라도 부안에 은거하면서 저작에 힘쓰고 이상적인 세상을 건설하려는 이념에 몰두하였다. 그는 농촌에서 농민을 지도하는 한편 기아구제의 긴급책을 마련하는 등 이웃과 노복奴僕에 이르기까지 극진한 사랑을 베풀었다. 농민에게 최저 기준량의 경작지를 가지게 하는 토지 개혁을 비롯하여 농병일치農兵一致의 군제개혁, 부역負役의 균형, 국민 균등의 조세 정리, 국가 재정의 확립, 농업을 위주로 한 상공업의 장려, 과거제의 폐지와 공거제貢擧制의 실시, 관아의 정비 등을 주장하여 이상국가理想國家 건설을 실천에 옮기려 하였다. 그가 10년 동안 저작한 『반계수록磻溪隨錄』 26권에는 그의 사상과 이상국가 건설의 구상이 담겨져 있다.

묘역의 봉분은 단분으로 부인 풍산심씨豐山沈氏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을 중심으로 좌측 앞에는 묘비, 전방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이 있으며 그 앞쪽 좌우에는 양관조복형梁冠朝服形 문인석 1쌍이 배열되어 있다. 1768년(영조44) 건립된 묘비는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으로, 비문의 후면에는 판중추부사 홍계희洪啓禧가 지은 글을 새겼다. 봉분 주위로는 1971년에 신설한 곡장曲墻이 반원형으로 둘러져 있다. 묘역의 위편에는 아버지 유흠柳欽(1596~1623)과 어머니 여주이씨驪州李氏를 합장한 묘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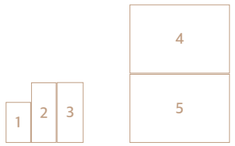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33호

최항선생 묘

崔恒先生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2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2기, 장명등 1기,
문인석 1쌍, 계체석, 차일석, 신도비 2기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산11-1

지정일 : 1976.08.27
소유자 : 삭녕최씨 태허정파 종중
관리자 : 최원범



1. 최항선생 묘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최항선생 묘 문인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최항선생 신도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최항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최항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초기의 문신이자 대학자였던 최항崔恒(1409~1474)의 묘이다. 최항의 본관은 삭녕朔寧, 자는 정보貞父, 호는 태허정太虛亭이다. 1434년(세종16)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집현전에 들어가 직제학에 올랐다. 1453년(단종1) 계유정난癸酉靖難에 공을 세워 정난공신靖難功臣 1등이 되어 도승지를 제수받았다. 이후 이조참판과 좌찬성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영성부원군寧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조선초기의 문물제도 정비에 많은 공을 세웠으며 각종 도서 편찬 사업에도 참여하였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묘역은 2단 계체석階砌石 구조로 조성되어 있으며 옛 문인석 1쌍과 최근에 새로 마련한 상석·향로석·장명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문인석은 세조 대에서 성종 대로 넘어가는 양식상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봉분 우측에는 1474년(성종5)에 건립된 방부하엽方趺荷葉 양식의 묘표가 서 있는데, 비문에는 당시 유행하던 송설체松雪體의 해서楷書로 피장자의 신분을 유려하게 썼다. 양식이 단정하고 조각 솜씨가 우수하여 당대를 대표할만한 묘표로 평가된다. 봉분 좌측에는 1983년에 새로 만든 묘비가 세워져 있다. 묘역 좌측에는 방부하엽 양식의 옛 신도비와 2003년에 동일한 양식으로 새로 세운 신도비가 나란히 서 있다. 옛 신도비는 하엽의 봉우리가 망실된 상태이며 비신도 절단되었던 것을 다시 접합해 놓았다. 비신의 마모가 극심하여 상단에 새긴 전액篆額만 겨우 확인할 수 있다.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에 의하면 처남인 서거정이 비문을 짓고 성임成任(1421~1484)이 글씨를 썼음을 알 수 있다. 건립연대는 파악할 수 없지만 15C 후반에 건립된 중요한 신도비로 판단된다.

경기도기념물 제34호

황희선생 묘

黃喜先生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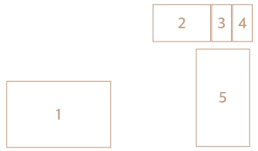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장명등 1기, 동자석 1쌍,
문인석 1쌍, 신도비 1기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산1

지정일 : 1976.08.27
소유자 : 장수황씨 대종중
관리자 : 장수황씨 대종중

조선초기 문신 황희黃喜(1363~1452)와 계배 정경부인 청주양씨淸州楊氏의 합장묘이다. 1383년(우왕9)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389년(공양왕원)에 대과에 급제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여러 요직을 역임하였다. 태종 대에 좌부대언과 대사헌의 직에 있으면서 국가 기반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세종 대에는 강원도 감사와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좌의정, 그리고 국정을 총괄하는 영의정부사를 지냈다. 태종 대부터 세종 대까지 조선의 문물제도 정비, 4군6진의 개척, 그리고 집현전을 중심으로 세종 대의 성세盛世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묘역은 3단으로 구성된 15세기 묘제의 특징을 보여준다. 상단에는 봉분과 상석이 있다. 봉분은 부부를 하나의 봉분에 합장한 사각형태로 짧은 용미가 있으며, 앞면에만 1미터 높이의 호석護石을 설치했다. 호석은 지대석, 면석, 만석의 3단으로 구성되었으며, 만석의 하단은 깎아서 띠 모양으로 돌렸다. 그리고 양단의 끝을 ㄱ자로 꺾어 사다리꼴의 흠향공간歆饗空間을 특이하게 조성했는데, 호석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은 경건하면서도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풍화가 심한 상석은 보수를 하였으며, 고석과 향로는 근래에 개비했다.

상석 아래 중계의 동측에는 1824년(순조24)에 건립한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 비석이 있다. 중계 중앙의 장명등은 사각형식으로 체석에 비해 개석이 크다. 원수는 연봉형 보주와 복발覆鉢의 2단구조이며 화창火窓은 요凹자형으로 앞뒤로만 뚫었고, 체석의 장식은 간단한 선각으로 처리했다.



1. 황희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황희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황희선생 묘 문인석(우),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황희선생 묘 무인석(우),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황희선생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장명등 좌우에 무인석 1쌍이 배치되었는데, 왕릉에서는 문인석이 놓여진 자리에 해당한다. 검을 들고 있지 않으나 방령포를 입고 소모자小帽子를 쓴 채 두 손을 공수拱手하여 시립侍立한 자세이다. 방령포 가슴부분 중앙에는 장방형의 단추구멍을 선각하였다. 하계 좌우의 문인석은 홀을 든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으로, 복두는 전각복두展脚幞頭이다. 머리가 크고 입주변의 팔자주름을 깊게 표현한 조선초기의 양식이다. 무인석은 문인석보다 안쪽에 있고 크기도 작아서 시자侍者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문무인석 모두 동측의 것이 반뼘 정도 크다. 묘역 하단에는 대리석으로 조성된 말각방형末角方形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비문은 신숙주申叔舟가 지었다고 전하나 비문의 판독이 어려울 정도로 마모가 심하다.

경기도기념물 제35호

서성선생 묘

徐省先生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1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계체석, 신도비 1기
포천시 설운동 산1-14

지정일 : 1976.08.27
소유자 : 서기원
관리자 : 서기원

조선중기 문신인 서성徐渻(1588~1618)의 묘이다. 서성은 대구서씨大丘徐氏로 1586년(선조19)에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병조좌랑에 올랐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호종하였고, 황정욱黃廷彧의 종사관이 되어 함경도로 가는 길에 국경인鞠景仁의 반란으로 사로 잡힌 왕자들과 황정욱을 지략을 써서 탈출시켰다. 1613년(광해군5) 계축옥사癸丑獄事에 연류되어 11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다가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다시 조정에 복귀하여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역임하였다. 1624년 이괄李括의 난 때 왕을 호종하고 병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627년(인조5) 정묘호란 때에도 왕을 강화도까지 호종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정사에 힘쓰다가 1631년(인조9)에 사망하였다. 한편 서성의 어머니는 소경의 몸으로 약현藥峴에서 술과 약과를 만들어 팔면서 서성을 공부시켰다. 서성의 호가 약봉藥峰인 것도 약현의 약藥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묘역의 봉분은 단분으로 부인 여산송씨礪山宋氏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은 호석을 높고 둥글게 하여 봉토하였다. 봉분 앞에는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 묘비와 혼유석, 상석,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망주석과 문인석이 갖추어져 있다. 묘역 아래에는 1646년(인조24)에 건립한 팔작옥개석의 신도비가 있다. 비문은 김상헌金尙憲이 찬撰하고, 오준吳竣이 글을 썼으며, 김광현金光炫이 전액篆額을 올렸다. 묘역의 곡장은 1968년에 신축한 것으로 장방형의 화강암을 세워 장식한 후 봉분을 중심으로 돌려 쌓았다.

1 2 3 4

1. 서성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서성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서성선생 묘, 1990년대_ 경기도
4. 서성선생 묘 전경, 2012_ 포천시

경기도기념물 제3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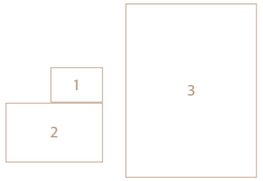
서희장군 묘

徐熙將軍 墓

고려시대
1기
쌍분, 호석, 묘비 1기, 상석 2기, 계체석, 장명등 1기,
문인석 1쌍, 무인석 1쌍
여주시 산북면 후리 산53-1

지정일 : 1977.10.13
소유자 : 서씨종중
관리자 : 서씨종중(서강익)

고려시대의 문신인 서희徐熙(942~998)와 부인 청주한씨淸州韓氏의 합장묘이다. 960년(광종11)에 갑과로 과거에 급제한 뒤, 광평원외랑·내의시랑 등이 되었다. 983년(성종2) 병관어사가 되고, 얼마 뒤 내사시랑평장사를 거쳐 태보, 내사령의 최고직에 올랐다. 서희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활약은 993년(성종12)에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한 거란의 장수 소손녕蕭遜寧과 담판해 유혈의 전투 없이 적을 물리친 것이다. 그 결과 994년부터 3년간 압록강 동쪽의 여진족을 축출하고 성을 쌓아 압록강까지 영역을 넓히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묘역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분은 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사각 호석護石이 둘러져 있다. 쌍분의 중앙 전면에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 묘비가 있는데, 비음에 글씨가 없다. 각 봉분 앞에는 혼유석 없이 4개의 고석으로 받친 상석이 있다. 중계에 장명등과 석인 2쌍이 배치되어 있다.



1. 서희장군 묘, 1978_ 여주시
2. 서희장군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서희장군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장명등은 동측에만 남아있는데, 체석의 화강암 석질이 주변 석물과 다르고 옥개석과 맞지 않아 후대에 다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옥개석은 2개가 겹쳐있는 특이한 형태인데, 원래 옥개의 원수가 파손되어 하나를 더 올린 것으로 보이며 이 둘은 원래 한 쌍의 장명등 옥개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모지붕형 옥개로 하단에 화사석과 연결되는 부분을 두 줄로 파내어 끼우도록 되어 있다. 화창을 요凹자형으로 윗부분까지 파낸 것으로 보아 15세기 중·후반 양식 장명등으로 생각된다.
봉분 쪽의 문인석 1쌍은 홀을 든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인데, 복두의 각은 X자로 교차한 교각交脚이다. 손은 숨겨져 있고 저고리 소매는 노출되어 있다.
무인석은 갑옷이 아닌 철릭天翼을 입고 소모자小帽子를 쓴 채 세장한 장검을 잡고 있다. 고려와 조선초기 묘제 연구에 의미가 있는 묘이다.

경기도기념물 제37호

정문부장군 묘

鄭文孚將軍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문인석 1쌍, 신도비 1기
의정부시 용현동 379-32

지정일 : 1977.10.13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해주정씨 송산종중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인 정문부鄭文孚(1565~1624)와 부인 고령신씨高靈申氏의 합장묘이다. 1588년(선조21) 문과에 급제하여 한성부참군漢城府參軍이 되었고, 1591년에 함경북도 병마평사에 올랐다. 1594년 영흥부사에 이어 온성부사·길주목사, 1599년(선조32) 장례원판결사·호조참의, 1601년(선조34)에 예조참판을 거쳐서 1623년(인조원년) 전주부윤이 되었다. 임진왜란 때에 회령의 국경인鞠景仁이 왕자를 잡아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에게 넘기고 항복하자, 이에 격분해 의병을 조직하고 왜적과 싸워 대승해 관북지방을 완전히 수복하였다. 이괄李适의 난에 연루되어 고문을 받다 죽었지만 숙종 때 무죄로 밝혀져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해주정씨 묘역 안에 부친 정신鄭愼, 5대조 정침鄭忱의 묘와 함께 있다. 묘역 뒷면에 사성莎城을 두르고, 그 아래를 2단으로 구획하였다. 상단에는 용미龍尾가 있는 단분單墳의 봉분과 비석, 상석이 있다.

비석은 원수방부형으로 화강암 대석 윗면에는 연판蓮瓣을 조각하였고, 측면에는 네모난 구획을 만들어 간단한 장식을 하였다. 비석의 기록에 따르면 정문부 묘는 일반적인 부부무덤의 배치 방식과 다르게, 부인을 서측에 부장附葬 한 부우祔右 형식으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비석 앞의 혼유석과 잇대어 있는 상석은 하전석 위에 고석 없이 바로 놓여 있고, 작은 사각 향로석에는 상다리 모양이 조각되어 있다. 하단에는 망주석과 장명등 없이 좌우로 1쌍의 문인석만 배치되어 있는데, 양관조복형으로 2량의 관을 쓰고 홀을 잡고 있다. 관의 오른쪽 옆 비녀 머리에는 화문花紋 장식이 있다. 폐슬과 후수에 정교한 장식은 없지만 입체감이 살아 있어서 형태가 분명하고 전체적으로 단아한 느낌을 준다. 언덕 아래에 옥개방부형 신도비가 있는데, 1665년(현종6)에 세웠던 것을 1861년(철종12)에 9대손 정인원鄭麟元이 추가로 기록하여 다시 세웠다.

정문부장군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38호

김준룡장군 전승지 및 비

金俊龍將軍 戰勝地 및 碑

조선시대
일원
지정구역 1,930㎡
전승비 135×40cm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산1-1

지정일 : 1977.10.13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수원시

병자호란 때 광교산 전투에서 청나라 군대와 맞서 싸운 김준룡金俊龍(1586~1642)장군의 공을 기념하기 위해 암반에 비碑의 형태로 글을 새겼다. 김준룡은 조선중기의 무신으로 1608년(선조41)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된 후·안동부사·황해병사·북병사 등을 거쳐 1636년(인조14) 전라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진군 하던 중 용인 광교산에서 청나라의 공경孔耿의 부대와 만나 격전을 치렀다. 전투 중 청나라 태조의 사위 백양고라白羊高羅를 사살하고 청나라 병력의 반수 이상을 격퇴시키는 공을 세웠다. 김준룡은 뒤에 어영중군·김해부사·경상도 병마절도사 등을 지냈으며 사망 후 좌찬성에 추증되고 '충양忠襄'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정조 때 화성 축성의 책임자였던 채제공이 석재를 구하러간 사람에게서 광교산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암반에 그 공을 새기게 했다고 한다. 암반에는 '충양공김준룡전승지忠襄公金俊龍戰勝地'라는 글씨와 그 좌우에 작게 '병자청란공제호남병丙子淸乱公提湖南兵, 근왕지차살청삼대장覲王至此殺淸三大將'이라고 새겨놓았다.

김준룡장군 전승지 및 비, 2006_ 수원시

경기도기념물 제39호

해유령전첩지

蟹踰嶺戰捷地

조선시대
일원
지정구역 3,311㎡
전첩비 1,060×480cm
석재(화강암)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 산28-9

지정일 : 1977.10.13
소유자 : 양주시
관리자 : 양주시

해유령은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에서 파주 광탄으로 넘어가는 고갯길로 1592년(선조25) 임진왜란 때 왜군과의 전투에서 최초로 승리한 곳이다. 지형적으로 볼 때, 좌우로 낮은 산이 마치 삼태기 모양으로 둘러져 있는 연곡리의 입구는 안으로 들어오는 적을 포위하여 섬멸할 수 있어 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반발하자 왜군은 파죽지세로 진군하여 20여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여 한강의 방어선마저 무너졌다. 이 때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의 부원수로 있던 신각申恪이 유도대장 이양원李陽元과 양주로 간 뒤, 함경도병마사 이혼李渾을 만나 전열을 정비하고 해유령에서 왜군을 대파하였다. 이는 임진왜란 중 육지에서 거둔 첫 승리로 조선 군대의 사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김명원이 명령불복종으로 신각을 무고함으로써 참형을 당하였는데, 뒤늦게 소식을 접한 조정에서 형집행을 막기 위해 선전관을 급파하였으나 이미 죽은 후였다.

1977년 해유령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높이 10.6m의 비를 세웠으며, 억울하게 죽은 신각 장군을 기리기 위해 '충현사'라는 사당을 지어 매년 5월 추모제향을 지내고 있다.

1 2
3

1. 해유령전첩지, 1980년대_ 양주시
2. 해유령전첩지, 1990년대_ 양주시
3. 해유령전첩지,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40호

이익선생 묘

李瀷先生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555

지정일 : 1977.10.13
소유자 : 안산시
관리자 : 여주이씨 종중(이필원)

조선후기 실학의 대가인 성호 이익星湖李瀷(1681~1763)의 묘이다. 이익은 1681년(숙종7)에 출생하여 10세가 되어서도 글을 배울 수 없을 만큼 병약하였으나 더 자라서는 둘째 형 잠潛에게 글을 배웠다. 25세가 되던 1705년(숙종31)에 증광시에 응하였으나 시험장에서의 녹명錄名이 격식에 맞지 않았던 탓으로 시험에 응할 수가 없게 되었다. 바로 그 다음해 둘째 형 잠이 장희빈張禧嬪을 두둔하는 소를 올린 이유로 역적으로 몰려 옥사하게 되자, 벼슬의 뜻을 버리고 학문에 몰두하여 실학파의 시조 유형원柳馨遠(1622~1673)의 학풍을 계승한 실학의 대가가 되었다. 그는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학문에 접근하여 사회 현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모든 학문은 실제 사회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성호사설星湖僿說』을 저술하여 현실적인 문제들, 즉 정치, 지방제도, 재정, 경제, 과거제도, 학제, 병제, 관제 등을 날카롭게 비판함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이상과 구상을 피력하면서 실학적인 사상을 확립시켰다.

묘역은 직계후손이 없어 방치되어 있던 것을 1967년 5월 성호 이익선생추모회에 의해 정화되었다. 이때 묘비를 포함하여 상석, 향로석, 망주석이 새로 건립되었다. 봉분은 단분으로 전前부인 고령신씨高靈申氏와 후後부인 사천목씨泗川睦氏와의 삼위합장묘三位合葬墓이다. 묘역 옆에는 사당인 첨성사瞻星祠와 재실인 경호재景湖齋가 있으며, 묘역에 인접하여 성호공원과 성호기념관이 조성되어 있다.

이익선생 묘, 2013_ 안산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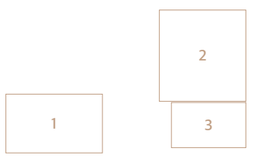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41호

노강서원

鷺江書院

조선시대
일원
사당 3×2칸
동·서재 3×2칸
외삼문 3×1칸
목재
의정부시 동일로122번길 153

지정일 : 1977.10.13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반남박씨 대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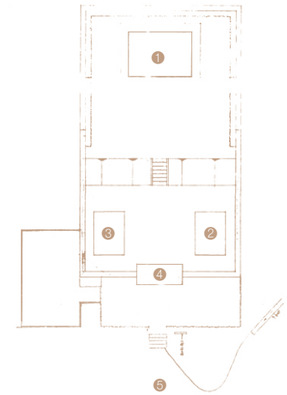


1. 노강서원 전경, 2015_ 의정부시
2. 노강서원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노강서원 사당,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노강서원>은 숙종 대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하다 진도 유배 도중 노량진에서 죽은 박태보朴泰輔(1654~1689)를 제향한 서원이다. 박태보의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사원士元, 호는 정재定齋이다. 서계 박세당의 둘째 아들로, 1677년(숙종3)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부수찬, 지평, 암행어사 등을 역임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 때 인현왕후의 폐위를 강력히 반대해 주동적으로 소를 올렸다가 고문을 받고 진도로 유배 도중 옥독獄毒으로 노량진에서 죽었다. 사후 그의 학문과 충절이 높게 평가되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열文烈'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노강서원은 1695년(숙종21) 사육신묘 서쪽 산기슭에 창건되었다. 2년 뒤, 조윤벽趙潤壁 등의 상소로 '鷺江(노강)'이라 사액 받았으며, 1754년(영조30)에 중건되었다. 1759년 채경침, 곽지후 등 영남 유생들이 송시열의 추배를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고 남아 있다가 1925년 한강 대홍수로 침수된 뒤 중건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후 후손들에 의해 1968년 현재의 위치인 수락산 자락에 옮겨 복원하였다.

경내 건물로는 사당·동재·서재·외삼문·고직사 등이 있고, 강당은 마련되지 않았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겹처마이며 정면 동측에는 생단이 있다. 정면은 툇간 없이 각 칸에 사분합문을 달고 기둥 상부에 용머리를 조각한 부재剖材를 설치하였으며, 사당 내부에는 박태보의 영정과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동재와 서재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툇마루로 이루어져 있다. 본래 유생들이 기거하는 곳이었으나 현재는 향사 때 사용하고 있다. 매년 2월과 8월 중정일中丁日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❶ 사당 ❷ 동재 ❸ 서재 ❹ 외삼문 ❺ 홍살문

경기도기념물 제42호

송산사지
松山祠址

조선시대
일원
지정구역 1,104㎡
사당 3x2칸
목재
의정부시 민락로 296

지정일 : 1977.10.13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평양조씨(계) 이판공파 공친회

<송산사지>는 조선의 개국에 참여하지 않고 고려 왕조와의 절개를 지킨 조견趙狷·원선元宣·이중인李中仁·김양남金揚南·유천兪蒧·김주金澍 등 여섯 분의 뜻을 기리고 제사하기 위한 사당이 있던 터이다. 기록에 의하면 절의를 지킨 조견, 원선, 정구鄭矩 세 분이 돌아온 마을이라 하여 이름 지어진 삼귀촌三歸村에 1798년(정조22) 3칸 규모의 모옥茅屋으로 창건되어 조견, 원선의 위패를 모셨다. 1802년(순조2)에 기와로 다시 건립되었고, 1803년에 당초 '삼귀서사三歸書社'라 불리던 것이 '송산사'로 개칭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서재西齋가 건립되었다. 1809년(순조9)에 이르러 이중인, 김양남, 유천, 김주 네 명의 위패를 추가로 모셨다. 1868년(고종5)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는데 1892년(고종29) 옛터 위에 단壇을 마련하여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계속하였고, 1964년에는 다시 단을 중수하여 담장을 두르고 위패석位牌石을 만들어 봉안하였다.
송산사 복원을 위한 1995년 발굴 조사 결과 위패석 봉안지와 담장 바깥쪽에서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경작耕作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파괴되어 있었으나 건물 앞뒤쪽의 장대석 기단 석축과 초석, 적심, 내부 바닥의 잡석다짐, 담장터 등이 노출되어 그 규모와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사당은 북향으로 자리잡아 고려의 왕도인 개성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맞배집으로 전면에 개방된 퇴칸이 있고 측면과 후면에는 방화벽防火壁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송산사지, 2015_ 의정부시

경기도기념물 제43호

노산사지
蘆山祠址

조선시대
일원
사당 3×2칸
목재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산69-7

지정일 : 1977.10.13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장기덕

<노산사지>는 조선말기의 성리학자인 화서 이항로華西李恒(1792~1868)가 세운 노산사터로 이항로가 태어난 집터이기도 하다. 노산사는 이항로가 생전에 주희朱熹(1130~1200)와 송시열宋時烈(1607~1689)을 흠모하여 그 도통을 잇고자 그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이항로 사후에 후손들이 이항로의 영정과 위패도 함께 모셔두었다. 사당은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것을 1954년 유림들이 이항로를 기리기 위해 노산사가 있던 자리에 새롭게 세운 것이다. 사당은 1985년 중수하였으며, 매년 음력 9월 15일 제향을 지내고 있다.
노산사지는 현재 사당과 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당 영역 밖에 제월대霽月臺라고 새긴 자연석과 묘정비 및 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다. 사당은 남향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초익공初翼工 형식의 건물로 겹처마의 맞배지붕으로 되어있다. 사당 건물 각 칸에는 이분합 띠살문을 달았고 측면과 후면은 화방벽으로, 전면은 개방된 퇴칸으로 되어있다. 사당 내부에는 1985년 중수한 상량문 등 몇 기의 편액이 달려있다. 대문은 두 개의 기둥 위에 평서까래를 걸고 기와 등을 쌓아 지붕을 만든 일각대문이다. 건물 주위는 사당과 대문을 중심으로 담장이 둘러져 있다.

1 2
3

1. 노산사지 제향 모습, 1979_ 양평군
2. 노산사지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노산사지 사당,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44호

처인성
處仁城

고려시대
일원
둘레 425m
성벽 높이 안 1.6m, 밖 5.5~6.7m
지정구역 25,564㎡
토성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산43

지정일 : 1977.10.3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용인시

<처인성>은 남사면 아곡 2리의 마을 입구의 낮은 구릉 선단부에 위치하는 테뫼식의 토축 산성으로 『고려사高麗史』에서는 고려시대 몽골의 2차 침입(1232년) 당시 승려 김윤후金允侯가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한 곳으로 기록하고 있다.
1998~1999년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서 의해 실시된 지표조사에서는 통일신라에서부터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도기와 기와를 채집하였고, 1999년 시굴조사에서는 구릉의 경사면 위쪽에 중심 토루를 축조 한 뒤 외면에 보축을 실시한 토축성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유적의 평면형태는 사다리꼴에 가깝고 구릉의 동쪽인 선단쪽이 좁다. 토루는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완만하게 낮아지는 경사면을 따라 축조되었다. 축조방법은 구릉 경사면의 위쪽 생토층을 정지하고 그 위로 판축으로 토루를 조성하였으며, 외측 경사면 역시 판축으로 보축을 하였다. 성내에서 성의 사용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통일신라시대 암막새기와 및 고려시대의 개원통보가 출토되었다. 또한 철촉·철창·환두대도 등의 무기류와 취사용 솥과 솥뚜껑, 따비 등의 농기구가 함께 출토되어 처인성이 방어용 취락의 성격을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은 『고려사』,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등의 기록과 지표·시굴조사에서 조선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읍성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1
2
3

1. 처인성 서벽 상부,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처인성 내부,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처인성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46호

화산서원
花山書院

조선시대(1631년 창건)
1동
사당 3x2칸
동·서재 3x2칸
내·외삼문 3x1칸
목재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227-40

지정일 : 1975.09.05
소유자 : 포천시
관리자 : 화산서원 원장(이병춘)

<화산서원>은 1631년 이항복李恒舟(1556~1618)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서원이다. 이항복의 본관은 경주, 자는 자상子常, 호는 필운弼雲·백사白沙·동강東岡이다. 고려의 대학자 이제현李齊賢의 방손傍孫, 참찬 이몽량의 아들이자 명장 권율의 사위이다. 1580년(선조13) 관직에 나갔고, 이이의 천거로 선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임진왜란 때는 선조, 왕비, 왕자의 피난에 호종하였다. 임진왜란 중 다섯 차례에 걸쳐 병조판서에 기용되어, 전쟁국면을 타개하는 데 공을 세웠고 이후 호성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이후 3정승의 요직을 거쳐 광해군 때 인목대비의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유배지에서 죽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본래 화산서원은 1631년(인조9) 지방유림의 공의로 포천시 가산면 옥금동에 사우를 짓고 이항복의 호를 따서 '백사서원白沙書院'이라고 하였다. 1635년에 이르러 화봉산 아래로 이건하였고, 1660년(현종1) 이 곳 지명을 따서 '화산서원'으로 사액되었다. 1746년(영조22)에 영조는 임진왜란 때 이항복의 공로로 승지를 보내 치제하고 후손을 특별히 등용하도록 명하기도 하였다. 이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5)에 훼철되어 위패는 매안埋安하였다가 1971년 화산서원복원추진회가 결성되어 복원사업이 추진되었다.

경내의 건물로는 사우인 인덕각仁德閣, 내삼문內三門, 동·서 협문夾門, 동재에 해당하는 동강재東岡齋, 서재에 해당하는 필운재弼雲齋, 외삼문外三門 등이 있다. 인덕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이며, 중앙에는 감실을 마련하여 이항복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하였다. 동강재와 필운재는 이항복의 호를 따서 붙인 당호이다. 매년 음력 9월 12일을 기하여 향사를 지내고 있다.

1
2
3
4
5

1. 화산서원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내삼문, 1990년대_ 경기도
3. 인덕각, 1990년대_ 경기도
4. 내삼문,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인덕각,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47호

한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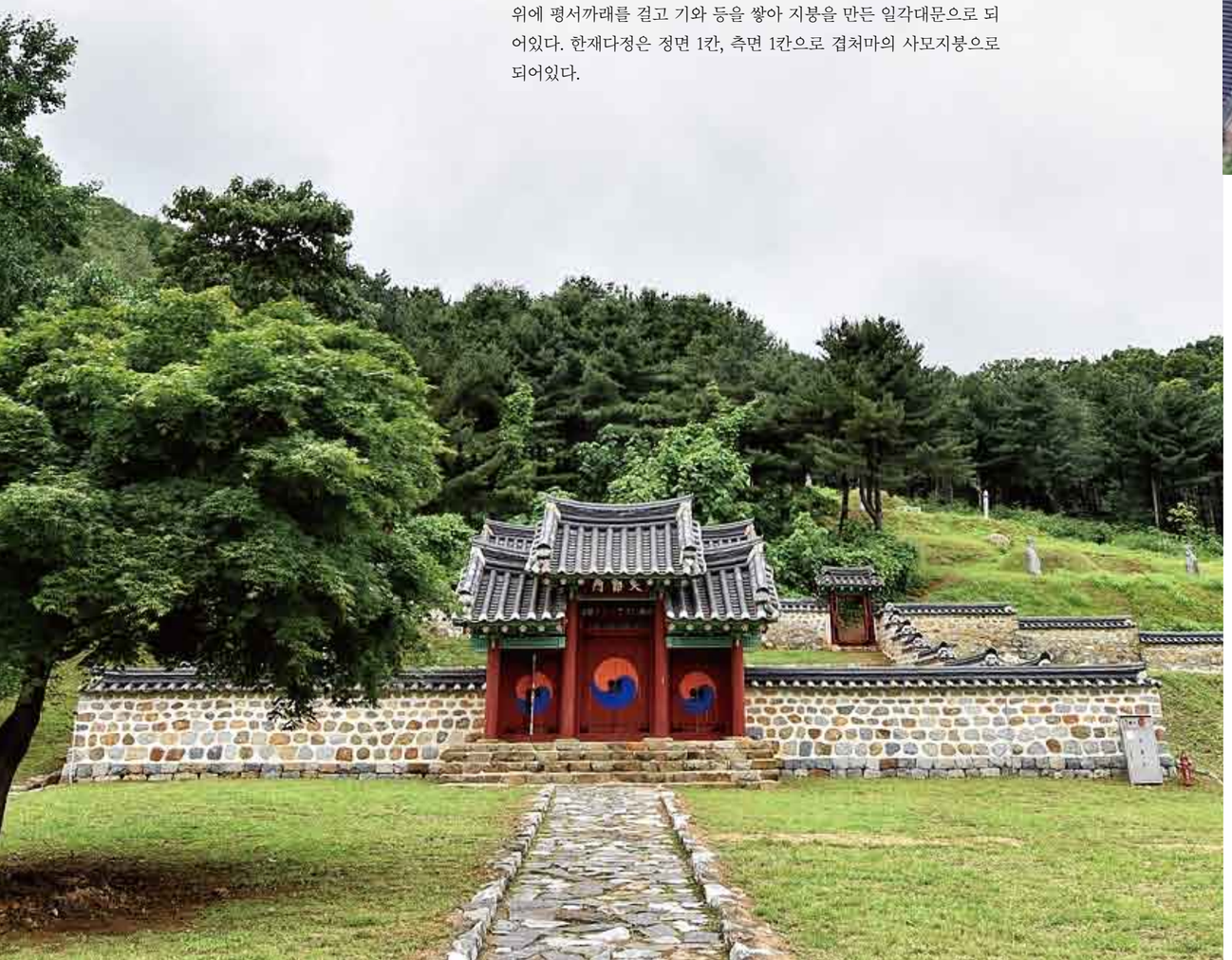
寒齋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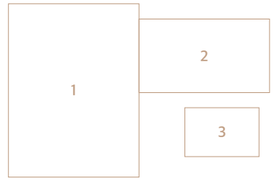
조선시대
1동
사당 3x2칸
내·외삼문 3x2칸
한재다정 1x1칸
목재
김포시 하성면 평화공원로 101

지정일 : 1975.09.05
소유자 : 전주이씨 시중공파한재 종중
관리자 : 전주이씨 시중공파한재 종중(이근후)

<한재당>은 조선전기 학자인 한재 이목寒齋李穆(1471~1498)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사당이다. 이목은 성종에게 숭불론崇佛論을 주청한 윤필상尹弼商(1427~1504)을 논박하는 상소를 올려 공주에 유배되었고 1498년(연산군4) 무오사화 때 훈구파勳舊派의 모함으로 조의제문弔義帝文 사건에 연루되어 김굉필金宏弼(1454~1504), 정여창鄭汝昌(1450~1504) 등과 함께 28세 젊은 나이로 처형되었다. 1504년 갑자사화 때 다시 부관참시剖棺斬屍 되었다가 1606년(중종1)에 신원伸寃되어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한재당은 이목의 기일인 음력 7월 26일에 차를 올리는 헌다례獻茶禮 의식을 거행한다.

한재당의 건물배치는 현재 정간사貞簡祠 현판이 붙은 사당과 대절문大節門 현판이 붙은 내삼문, 외삼문, 홍살문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경내에는 한재다정寒齋茶亭과 협문이 있으며, 근래에 지은 재실이 주축과 직교되게 위치하고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초익공初翼工 형식의 건물로 겹처마의 맞배지붕으로 되어있다. 사당 정면 각 칸에는 사분합띠살문을 달았고 전면은 개방된 퇴칸으로 되어있다. 사당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있으며, 천정은 우물천정으로 되어있다. 내삼문과 외삼문은 각각 정면 3칸, 측면 2칸의 솟을삼문 형식으로 되어있고, 협문은 두 개의 기둥 위에 평서까래를 걸고 기와 등을 쌓아 지붕을 만든 일각대문으로 되어있다. 한재다정은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겹처마의 사모지붕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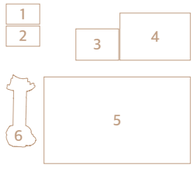
1. 한재당, 2015_ 김포시
2. 한재당 전경, 2015_ 김포시
3. 사당, 2015_ 김포시

경기도기념물 제48호

흥선대원군 묘
興宣大院君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상석 1기, 장명등 1기, 망주석 1쌍, 석양 1쌍, 문인석 1쌍,
호석, 신도비 1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22-2

지정일 : 1978.10.10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김낙용



1. 공덕동 흥선대원군 묘 근경, 1907년 이전_성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2. 공덕동 흥선대원군 묘 원경, 1907년 이전_성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3. 흥선대원군 묘 후면, 촬영일 미상_남양주시
4. 흥선대원군 묘 후면, 2017_경기문화재연구원
5. 흥선대원군 묘 정면, 2017_경기문화재연구원
6. 1908년 건립된 신도비, 2017_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 고종의 생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1820~1898)의 묘이다. 흥선대원군의 자字는 시백時伯, 호號는 석파石坡이며 부친 남연군南延君(1788~1836)이 인평대군麟坪大君의 6대손이었다. 남연군이 은신군恩信君의 양자養子가 되면서 남연군 일가는 영조의 현손玄孫으로 종친宗親이 되었다. 흥선대원군은 남연군의 4남으로 1843년(헌종9)에 흥선군興宣君으로 봉해졌으며, 1865년(고종2)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흥선군의 2남이 즉위하여 고종이 되었다. 그래서 흥선군은 대원군大院君에 봉해지고 신정왕후神貞王后의 수렴청정을 도왔다. 이 시기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고 쇄국정책을 단행했다. 이후 임오군란(1882)으로 청나라 톈진天津에서 4년간 유폐되기도 했다.

흥선대원군의 묘소는 부인 여흥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1818~1897)과 합장묘이며 고양 공덕리(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처음 조영되었다. 이후 1907년 파주 운천면 대덕리로 천장했으며, 1966년 현재 위치인 남양주로 이전되었다. 흥선대원군의 묘소 입구에는 신도비(1908년 건립)와 국태공원소 표석(1905)이 건립되어 있다. 봉분은 호석護石이 둘러져 있으며, 상석 뒤쪽으로 곡장이 있다. 한 단 아래에 망주석·문인석·석마가 차례로 건립되어 있다. 상석 바로 앞에는 장명등이 세워져 있다.

고종이 황제에 오르면서 대원왕大院王으로 추존되었으며, 부인인 여흥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1818~1897)은 여흥대원왕비驪興大院王妃로 추증되었다. 이 때 묘소도 흥원興園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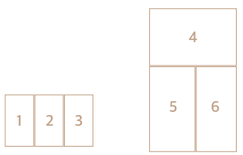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49호

이수광선생 묘

李睟光先生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상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쌍, 동자석 1쌍,
묘비 1기, 신도비 3기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산90-1

지정일 : 1978.10.10
소유자 : 전주이씨 종중
관리자 : 이씨 종중(이희태)



1. 이수광선생 묘 동자석(우),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이수광선생 묘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이수광선생 묘 동자석(좌),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이수광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이수광선생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6. 이수광선생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우리나라 최초로 천주교와 서양문물을 소개함으로써 실학 발전의 선구자가 되었던 이수광李睟光(1563~1628)의 묘이다. 이수광이 활동했던 시기는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을 치르고 광해군 때의 정치적 갈등과 인조 때의 이괄李括의 반란을 겪으면서 조선사회가 전기에서 후기로 변화하는 때였다. 그는 일찍이 관직에 나아가 중요한 관직을 두루 거치며 세 차례나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여러 서양서적 등을 통하여 새로운 사상적 전개방향을 탐색하고 개척하였다. 특히 『지봉유설芝峰類說』을 간행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천주교와 서양문물을 소개하였고, 실학파 선두자로 실학정신을 지향하여 현재까지도 사상사 및 철학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묘역의 봉분은 원래 호석을 두른 듯하나 현재는 정면에 장대석 1기만 남아 있다. 봉분 앞에는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 묘비, 상석, 향로석이 갖추어져 있으며, 묘의 전방 좌우에는 동자석과 망주석이 각 1쌍씩 갖추어져 있다. 묘비는 총탄자국이 있어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모가 심하다. 이수광 묘역 아래에는 아버지 이희검李希儉(1516~1579), 아들 이성구李聖求(1584~1644)의 묘역이 차례로 조성되어 있다. 묘역 아래 신도비각 내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있는데 모두 3기이다.

이 중 이수광 신도비는 중앙에 있는 비로 원수방부 형태이며, 비문은 이정구李廷龜가 찬撰한 것으로 1632년(인종10)에 건립되었다. 이희검 신도비는 원수방부의 형태로 비문은 신흠申欽이 찬하여 1613년(광해군5)에 건립되었다. 이성구 신도비는 팔작옥개석八作屋蓋石 형태로 이성구의 동생 이민구李敏求가 찬撰한 내용에 손자 이현치李玄緻와 이현석李玄錫이 추기追記를 보완하여 1720년(숙종46)에 건립되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50호

유형장군 묘

柳珩將軍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문인석 1쌍, 신도비 1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98

지정일 : 1978.10.10
소유자 : 진주유씨 종중
관리자 : 진주유씨 종중

임진왜란 때 크게 활약한 유형柳珩(1566~1615)의 묘이다. 유형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김천일金千鎰의 휘하에 들어가 강화에서 활약하였다. 1594년(선조27) 무과에 급제한 후, 선조의 친유親諭를 받고 감격하여 충성으로 나라에 은혜를 갚겠다는 '진충보국盡忠報國' 네 자를 등에 새겨 충성을 맹세하였다. 1597년(선조30) 정유재란 때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휘하에 들어가 수군水軍 재건에 노력하였고, 남해 앞바다의 전투에서는 명나라 제독 진린陳璘과 이순신을 곤경에서 구하였다. 노량진 해전에서 적탄에 맞아 전사한 이순신을 대신해 전투를 지휘하여 부산진첨절제사에 발탁되었다. 이후 1602년(선조35)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다. 그는 용병用兵에 능하고, 특히 통제영의 기계 설비와 회령·경성의 축성 등 적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시설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묘역의 봉분은 사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봉분 좌측에 묘비가 세워져 있고 봉분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갖추어져 있다. 상석 전방 좌우에는 양관조복형의 문인석이 있고 신도비는 묘소 아래 길 옆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의 비문은 이정구李廷龜가 찬撰하고 김현성金玄成이 글을 썼으며, 김상용金尙容이 전액篆額을 썼다. 그러나 현재의 신도비는 이정구가 찬한 것을 정학교丁學敎가 글을 쓰고, 이남식李南軾이 전액篆額을 써서 1874년(고종11)에 다시 건립한 것이다.

1. 유형장군 묘,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유형장군 묘 문인석(좌),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51호

정발장군 묘

鄭撥將軍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장명등 1기,
무인석 1쌍, 망주석 1쌍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산34-1

지정일 : 1979.09.03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정씨 종중(정태석)

조선중기 선조 대의 무신 정발鄭撥(1553~1592)의 묘이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자고子固, 호는 백운白雲이다. 돈녕부도정 정세현鄭世賢의 손자이고, 군수 정명선鄭明善의 아들이다. 1579년(선조12)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었으며 곧바로 해남현감과 거제현령이 되었다. 이어 비변사의 낭관을 지내고 위원군수와 훈련원부정을 역임하였다. 1592년 절충장군折衝將軍의 품계에 올라 부산진첨절제사가 되었다. 같은 해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부산에 상륙한 왜군을 맞아 분전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인해 마침내 성이 함락되고 전사하였다. 시신을 찾지 못해 애마愛馬가 물고 온 의관衣冠으로 장례를 치루었다고 전한다. 사후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묘역의 봉분은 단분單墳으로 조성하였으며 부인과 함께 합장하였다. 장명등을 비롯하여 무인석, 망주석, 상석, 향로석 등의 석물을 갖추었으나 모두 최근 것이며 옛 석물은 남아 있지 않다. 우암 송시열尤庵宋時烈(1607~1689)이 글을 지은 묘비가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없어졌다고 전하며, 현재는 봉분 우측에 1982년에 새로 만든 묘비가 서 있다. 한편 묘역 입구에는 정발 장군의 애마를 묻은 것으로 알려진 애마총愛馬塚과 비석이 남아 있다.

1
2

1. 정발장군 묘 후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정발장군 묘 전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52호

이방실장군 묘

李房實將軍 墓

고려시대
1기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무인석 1쌍, 망주석 1쌍, 호석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산81

지정일 : 1972.07.10
소유자 : 함안이씨 종중
관리자 : 이병용

고려의 무신으로 홍건적紅巾賊을 격퇴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이방실李芳實(1298~1362)의 묘이다. 이방실은 충목왕忠穆王이 원나라에 있을 때 호종扈從한 공으로 충목왕이 왕위에 오르자 중랑장中郎將이 되었다. 1354년(공민왕3)에 대호군大護軍이 되어 다루가치를 진압하고, 1359년 4만의 홍건적을 철주에서 격퇴하였으며, 이듬해 상장군이 되어 다시 철화에서 적을 격퇴하였다. 뒤이어 함종에 들어온 적을 배후에서 공격하여 의주 쪽으로 퇴각시켰다. 1361년(공민왕10) 20여 만에 홍건적이 다시 압록강을 건너 침략하자 서북면도지휘사로 분전하였다. 그러나 안주와 절령에서 참패하여 개경이 함락되었다. 이듬해 총병관總兵官 정세운鄭世雲, 최영崔瑩 등과 함께 적장을 죽이고 개경을 수복하는 큰 공을 세우고 개선하였으나 평소 시기하던 간신 김용金鏞 등의 모함으로 살해되었다.

묘역은 사성으로 둘러 쌓여있고, 봉분은 단분으로 두 부인 진양강씨晋陽姜氏와 영산신씨靈山辛氏와의 삼위합장묘三位合葬墓이다. 이 묘역은 1972년 기념물로 지정되었는데, 1978년 모든 석물을 새롭게 제작하여 단장함으로써 원래의 모습이 심하게 변경되었다. 봉분의 호석, 상석, 향로석, 무인석 등의 석물은 모두 1978년에 새로 설치한 것이다. 묘역 아래에는 1986년에 건립된 사당 충렬사忠烈祠와 1994년에 건립된 신도비가 있다.

1
2

1. 이방실장군 묘 후면, 촬영일미상_ 가평군
2. 이방실장군 묘 전면, 촬영일미상_ 가평군

경기도기념물 제53호

심온선생 묘

沈溫先生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장명등 1기, 문인석 1쌍, 신도비 1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13-10

지정일 : 1979.09.03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청송심씨 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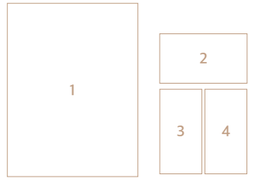
조선시대 태종 대의 문신인 심온沈溫(1375~1418)의 묘이다.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중옥仲玉이다. 세종의 국구國舅로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에 봉해지고 관직이 영의정에 이르렀으나 1418년(세종1)에 아우 심정沈涇의 옥사獄事로 인해 사사賜死되었고, 1451년(문종1) 복관復官되었다. 시호는 안효安孝이다.

묘역은 조선초기의 유행대로 3단의 계체석階砌石 구조로 조성되었다. 상석을 비롯한 고석·배설석排設石·장명등·문인석 등의 옛 석물이 잘 갖추어져 있다. 상석을 받친 고석을 4각형으로 만들고, 그 중앙에 종縱으로 1줄의 두터운 선을 내리 그은 것이 특이하다. 장명등 옥개석의 지붕위에는 둥근 절병통을 올렸으며, 사방으로 화창火窓을 낸 화사석의 몸체에는 화문花紋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복두공복幞頭公服을 착용한 채 묘역의 좌우에서 시립侍立해 있는 문인석은 신체 비례가 균형을 잘 이루고, 세부 표현이 매우 뛰어난 사실적인 작품이다. 계체석의 우측 끝에는 제향 때 쓸 제물을 올려놓던 배설석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봉분 앞에는 방부규수方趺圭首 양식의 묘표가 세워져 있다. 백대리석 비신의 앞면에 2줄의 유려한 팔분서八分書로 '안효安孝'라는 시호가 들어간 피장자의 신원을 써서 복관復官 이후에 입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신에 서자書者가 새겨져 있지 않으나 『청송심씨대동세보靑松沈氏大同世譜』에 의하면 조선전기 사대명필四大名筆 중의 한 명이자 송설체松雪體 대가인 안평대군安平大君(1418~1453)의 필적筆跡으로 되어있다. 또 위창 오세창葦滄吳世昌(1864~1953)이 편찬한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에도 안평대군의 서체로 밝히고 있어, 우리나라 서예사와 금석사연구의 귀중한 유물로 평가된다.

방부의 윗면에는 복련覆蓮을 장식하고, 좌우에 1칸 앞뒤에 2칸씩의 당초문을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비신의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두께를 매우 얇게 만든 것이 이색적이다. 최근에 묘표의 보호를 위해 인근의 수원광교박물관으로 이전하였고 동일하게 복제한 묘표를 그 자리에 세워 놓았다.

묘역 아래에는 1737년(영조13)에 건립한 방부이수方趺螭首 양식을 갖춘 신도비가 안치되어 있다. 비문은 9세손 판중주부사判中樞府事 심단沈檀(1645~1730)이 짓고, 호조판서 서명균徐命均(1680~1745)이 글씨를 썼다. 비신의 상단에 올린 전액은 13세손 부사과副司果 심육沈鋕이 맡았다. 원래 방부개석方趺蓋石 양식으로 건립되었으나 후대에 개석의 일부가 훼손되어 최근에 이수螭首로 교체하였고, 옛 개석은 비각의 우측에 따로 두었다.



1. 심온선생 묘 전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심온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심온선생 묘 문인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심온선생 묘표, 2015_ 수원광교박물관

경기도기념물 제54호

이수선생 묘

李晬先生 墓

조선시대
1기
쌍분, 상석 1기, 묘비 1기, 향로석 1기, 동자석 1쌍,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호석, 신도비 1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17-1

지정일 : 1980.06.02
소유자 : 이씨 종중
관리자 : 전주이씨 종중

조선중기 문신 이수李晬(1569~1645)와 증贈군부인郡夫人 정씨의 합장묘이다. 이수는 중종의 아들 덕양군德陽君의 손자이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 때에 선조를 호종扈從하여 선전관에 임명되었고, 광해군의 정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상소를 올려 순천으로 유배되었으나 인조반정으로 복관되었다. 이괄의 난이 일어난 1624년(인조2) 왕실의 강화도 피난과 1627년(인조5) 정묘호란 때 왕의 피난에 호종하였다. 그 뒤 오위도총관 자리에 올랐으나 병자호란 때 전사하였고, 현록대부懸錄大夫에 추증되었다.

이수의 묘는 전주이씨 덕양군파 묘역 내 위에서 두 번째에 자리하고 있다. 사성莎城이 없이 2단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묘역의 상단에 부부를 쌍분으로 합장했다.

봉분 하단 둘레에 장대석을 이용해 30cm 높이의 호석護石을 팔각으로 둘렀다. 쌍분 중앙 앞에는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의 묘비가 놓여 있는데, 비문은 김집金集이 짓고 송준길宋浚吉이 썼다. 비석의 정면에는 상석이 있고, 뒤쪽은 계체석에 걸쳐져 있으며, 앞쪽은 사다리꼴 기둥 2개로 받쳤다. 그 앞에는 구름문양으로 장식된 사각향로석이 있다.

배계절拜階節 좌우에는 망주석과 문인석 1쌍씩 배치되었는데, 망주석의 머리 부분에 운각雲角과 염우廉隅가 표현되었으며 세호細虎는 단순한 덩어리 모양이다. 문인석은 양관조복형梁冠朝服形인데, 관의 오른쪽에서 찔러 넣은 비녀의 머리에는 화판花瓣이 표현되어 있고, 조각솜씨는 다소 서툴지만 폐슬蔽膝과 후수後綬를 장식하여 단정한 느낌을 준다. 동자석이나 장명등은 없다. 묘역 아래의 옥개방부형屋蓋方趺形 신도비는 1897년 건립한 것으로 이재李縡가 찬撰하고, 10대손 이승휘李承徽가 글을 썼다.

2
1 3

1. 이수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이수선생 묘 망주석과 문인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이수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55호

덕흥대원군 묘

德興大院君 墓

조선시대
1기
쌍분, 묘표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장명등 1기, 망주석 1쌍,
무인석 1쌍, 계체석, 호석, 신도비 1기
남양주시 별내동 산205-13

지정일 : 1980.06.02
소유자 : 전주이씨 종중
관리자 : 이씨 종중

조선 선조의 생부인 덕흥대원군 이초德興大院君李岹(1530~1559)의 묘소이다. 덕흥대원군은 중종(1488~1544)과 창빈안씨昌嬪安氏(1499~1549)에게서 태어났다. 9세(1538)에 덕흥군德興君에 봉해졌으며, 13세(1542)에 부인 하동정씨河東鄭氏(1522~1567)와 혼인했다. 덕흥군과 부인사이에서 3남2녀가 태어났으며, 첫째가 선조이다.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선조가 입통入統해 즉위했다. 1570년(선조3) 송宋 영종英宗이 생부인 복왕濮王을 추승한 것을 따라 덕흥군을 덕흥대원군으로, 부인을 하동부대부인府大夫人으로 높였다.
묘는 각기 8각의 호석護石을 두른 쌍분雙墳으로 조성되었다. 묘표墓表는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으로 왼쪽부터 '덕흥대원군지묘德興大院君之墓, 하동부대부인정씨지묘河東府大夫人鄭氏之墓'라고 새겨져 있으며, 음기陰記는 없다. 묘표 앞에 혼유석, 상석, 향로석, 장명등이 놓여 있으며, 상석 좌우로 망주석이 있다. 망주석 아래로는 무인석이 놓여져 있다. 현재의 석물들은 덕흥대원군으로 추증된 1570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묘 아래쪽에는 1573년(선조6)에 건립한 덕흥대원군 신도비가 있다. 옥개귀부屋蓋龜趺 형태의 이 신도비는 좌의정 홍섬洪暹이 비문을 짓고, 여성위 송인礪城尉宋寅이 쓴 것이다. 덕흥대원군 신도비 아래쪽에는 선조의 동생인 하원군河原君의 묘소가 있다.

1
2

1. 덕흥대원군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덕흥대원군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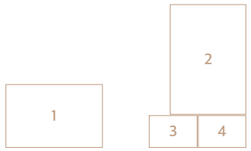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56호

이대원장군 묘 및 신도비

李大源將君 墓 및 神道碑

조선시대
1기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신도비 1기
신도비 높이 325cm
석재(화강암)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산83-6

지정일 : 1980.06.02
소유자 : 이씨종중
관리자 : 이씨종중



1. 이대원장군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이대원장군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이대원장군 사당,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이대원장군 신도비각,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남해안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다가 적의 포로가 되어 전사한 이대원李大源(1566~1587)의 묘이다. 이대원은 1583년(선조16)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거쳐 녹도만호가 되었다. 1587년 남해안에 왜구가 침입하자 부하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20여척의 배를 대파하는 전과를 올리고 적장을 붙잡아 수사水使 심암沈巖에게 바쳤으나, 전공戰功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심암의 요청을 거절하여 미움을 샀다. 다시 왜구가 흥양에 침입하자 심암의 명으로 군사 100여명을 이끌고 출병하여 손죽도 해상에서 적과 격투 끝에 붙잡혀 항복 권유를 거부하다가 결국 참살당하였다. 이에 앞서 관찰사의 장계狀啓로 그의 승전이 조정에 보고되어 심암은 파면되고, 장군은 수군절도사에 발령되었다. 그러나 조정朝廷의 명命이 도달하기 전에 죽었다. 이에 장군을 병조참판에 추증하였으며 충신의 정문旌門을 내려 충절을 기리게 하였다.

묘역은 사성으로 둘러져 있다. 봉분은 3기가 있는데 중앙에 장군의 묘가 있고 좌·우의 봉분은 두 부인의 묘이다. 중앙의 봉분 앞에는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 묘비와 상석, 향로석이 배치되어 있고, 그 앞쪽 좌우에는 망주석이 1쌍 배열되어 있다. 신도비는 묘역 아래에 세워져 있는데 비문은 남구만南九萬이 찬撰하고 조상우趙相愚가 글을 썼으며 김진규金鎭圭가 전액篆額을 써서 1699년(숙종25)에 건립한 것이다. 근래에 후손 등이 사당祠堂을 중수重修하고 장군의 동상을 건립하는 등 묘역을 정화하였다.

경기도기념물 제57호

원균장군 묘

元均將軍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2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2기, 장명등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계체석, 신도비 2기
평택시 도일동 산82

지정일 : 1980.06.02
소유자 : 원씨종중
관리자 : 원씨종중(원필의)

임진왜란 때 칠천량해전에서 전사한 원균元均(1540~1597)의 묘이다. 원균은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거쳐 조산만호로 있을 때 변방의 오랑캐를 무찌르는데 공이 컸다. 임진왜란 때 경상우도수군절도사로 나아가 왜적과 접전하였으나 양국 간의 전쟁준비의 격차가 있어 일방적으로 패배하였다. 이에 이순신李舜臣에게 원병을 요청하는 한편,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여 고군분투하였다. 마침내 이순신의 원병이 도착하자 합세하여 옥포·당포 등지에서 연전연승하였다. 그러나 포상 과정에서 이순신과의 공로 다툼이 심하여 불화가 발생하였다. 급기야 1593년(선조26) 이순신이 신설된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되어 지휘권을 장악하자 크게 반발하였고, 얼마 후에는 전라좌병사로 전속되었다. 이순신이 조정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투옥되자, 이순신을 대신하여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어 삼도수군을 이끌고 부산에 있는 적을 공격하던 중 칠천량해전에서 대파하여 전사하였다. 1604년(선조37) 이순신·권율權慄과 함께 선무공신宣武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묘역의 봉분은 단분으로 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와의 합장묘이다. 묘역에 배치된 원래의 석물은 이수방부형螭首方趺形 묘비와 양관조복형梁冠朝服形 문인석 1쌍이다. 그리고 신비新碑, 호석, 상석, 혼유석, 향로석, 장명등, 망주석 등 석물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석물들은 1981년 후손들에 의해 묘역이 정화되면서 갖추어진 것이다. 신도비는 묘역 아래에 있는데 역시 근래에 새로 건립한 것이며, 비문은 국한문혼용체이다. 비문의 내용은 왕이 내린 교서敎書와 원균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2

1 3

1. 원균장군 묘 원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원균장군 묘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원균장군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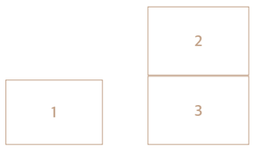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58호

백인걸선생 묘

白仁傑先生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문인석 1쌍, 장명등 1기,
망주석 1쌍, 신도비 1기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산26

지정일 : 1981.07.16
소유자 : 수원백씨 휴암공파 종중
관리자 : 백씨종중(백인현)



1. 백인걸선생 묘역 입구,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백인걸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백인걸선생 묘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 선조 대의 문신 백인걸白仁傑(1497~1579)의 묘이다. 백인걸은 조광조趙光祖의 문인門人으로 1519년(중종14)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스승과 동지를 모두 잃고 금강산에 입산하였다. 1531년(중종26) 생원시에 합격하고, 1537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다가, 1545년(명종1)에 을사사화乙巳士禍로 파직되고 1547년 정미사화丁未士禍에 연루되어 안변에 유배당하였다. 1565년(명종20) 승문원교리로 등용되었고, 선조 때 대사헌을 역임하면서 권신權臣을 논핵하다가 사임하고, 다시 1578년(선조11) 우참찬右參贊에 기용되었으나 사퇴하였다. 1579년 이이李珥와 함께 동서분당의 폐단을 논하고, 군비강화를 주장하였다. 그는 성리학에 대한 탐구를 열심히 하였으며, 계속되는 훈구勳舊 세력의 발호에 맞서 사림파士林派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선조 때 청백리에 선정되었다.
묘역의 봉분은 단분으로 비교적 규모가 크게 조성되었으며, 부인 순흥안씨順興安氏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을 중심으로 앞에 상석과 향로석이 놓여 있고, 우측으로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 묘비가 위치하고 있다. 상석 앞으로는 장명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좌우측으로 동자석, 망주석,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의 문인석이 각 1쌍씩 배치되어 있다. 묘역 아래에는 신도비가 있는데 이수螭首, 비신碑身, 기대基臺, 대좌臺座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찬하고 송준길宋浚吉이 글을 썼으며, 김수항金壽恒이 전액을 썼다.

경기도기념물 제59호

성혼선생 묘

成渾先生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상석 1기, 향로석 1기, 동자석 1쌍, 묘비 1기, 신도비 1기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산8-2

지정일 : 1981.04.17
소유자 : 우계문화재단
관리자 : 우계문화재단

조선중기의 문신 우계 성혼牛溪成渾(1535~1598)의 묘이다. 1551년(명종6)에 생원과 진사의 초시에 합격하였으나 복시에는 응하지 않고 백인걸白仁傑 문하에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선조 초부터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다가 율곡 이이李珥의 권유로 관직에 나가 이조참판이 되었다. 임진왜란 중에는 의정부 우참찬右參贊에 오르고 1594년(선조27)에는 좌참찬이 되었다. 그가 죽은 뒤 동인과 서인의 당쟁인 기축옥사己丑獄死와 관련되어 1602년(선조35)에 관직이 박탈되었지만 1633년(인조11)에 다시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묘역은 사성莎城이 감싸고 있으며, 용미龍尾가 있는 봉분은 상단에 위치해 있다. 상단과 하단을 구분하는 계체석에 걸쳐서 중앙 봉분 앞에는 상석 구성물이 있고, 동측에는 비석이 있다. 상석과 향로석 및 준석樽石은 근래에 개비하였고, 원래 상석으로 보이는 석물은 묘역 동측 후면으로 옮겨 산신석山神石으로 사용하고 있다. 묘비석은 중앙을 향하여 배치되었는데, 팔작지붕형 옥개석은 용마루와 내림마루가 표현되어 있고 하단에는 공포栱包 구조를 뚜렷하게 조각하였다. 화강암 대석은 장식없이 우람하게 조성했다. 비석의 대리석 비신에 새긴 비문은 김집金集이 짓고 윤순거尹舜擧가 써서 1649년(인조27)에 건립했다. 배계절拜階節에 한 쌍의 동자석이 있는데, 사각기둥형이며 풍화로 인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지만 쌍계雙紒를 하고 손에는 지물을 들고 있다. 차일석遮日石은 상단과 하단의 좌우에 4개가 있다. 묘역 입구의 신도비는 대리석으로 옥개와 비신을 만들고 화강암으로 대석을 만들었다. 옥개는 특별한 장식 없이 단순한 지붕 모양이며, 비문은 김상헌金尙憲이 짓고 김상용金尙容이 전액을 썼다.

1. 성혼선생 묘 동자석(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성혼선생 묘 동자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성혼선생 묘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성혼선생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성혼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60호

이세화선생 묘

李世華先生 墓

조선시대
1기
쌍분,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신도비 1기
파주시 문산읍 장승배기로61번길 52-27

지정일 : 1981.04.17
소유자 : 부평이씨 종친회
관리자 : 부평이씨 종친회

1. 이세화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이세화선생 묘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이세화선생 묘 문인석(좌),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이세화선생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중기 문신 충숙공 이세화忠肅公李世華(1630~1701)와 정경부인 貞敬夫人 순창설씨淳昌薛氏의 합장묘이다. 1657년(효종8)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에 선발되었으며, 정언·장령 호조 참의와 승지 등을 거쳐 황해도, 평안도, 전라도,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684년(숙종10)에는 연행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694년(숙종20) 갑술환국 이후 대사간과 호조판서에 제수되었으나 거절하다가 인현왕후 복위도감의 제조로 임명되었다. 그 뒤 육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하고 지중추부사를 지냈으며, 청백리에 뽑히기도 했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문집으로 『쌍백당집雙栢堂集』이 있다.

묘역은 사성莎城이 둘러져 있고 용미龍尾가 달린 봉분이 쌍분으로 나란히 조성되어 있다. 봉분 사이에는 화강암 대석 위에 대리석 비신을 세운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 비석이 있다. 비명碑銘의 표기는 비면 좌측(동편)에 부인명을 먼저 새겨서 부좌祔左한 방향에 따랐다. 그 앞으로 혼유석이 낮게 놓여 있다. 상석은 계체석 중간에 걸쳐서 설치되었는데, 하전석 위에 고석 없이 놓여 있다. 상석에 잇대어 사각 향로석이 놓여있다. 향로석 천판天板 위에는 향합과 향을 놓는 자리를 오목하게 판 것이 이채롭다. 하단 좌우로 계체석 가까이에 망주석, 바깥쪽에 문인석이 1쌍씩 배치되어 있다. 망주석 상단에 운각雲角과 염우廉隅가 표현되어 있으나 세호細虎는 표현되지 않았다.

문인석은 양관조복형梁冠朝服形으로, 화려한 3량 관을 쓰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으며 폐슬蔽膝과 후수後綬에는 구름문양이 뚜렷하게 장식되어 있다. 어깨보다 하단이 넓으며, 앞뒤로 두께가 있어서 당당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이다.

묘역의 입구 오른쪽으로 1708년(숙종34)에 건립된 신도비가 세워져 있는데, 팔작지붕형 옥개와 흰색 줄이 있는 비신, 그리고 네모난 대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문은 남구만南九萬이 짓고 오태주吳泰周가 글씨를 썼으며, 전액篆額은 최석정崔錫鼎이 썼다.

경기도기념물 제61호

가평 연하리 향나무

加平 連下里 香나무

수령 약300년
1주
높이 약 13m, 둘레 2.6m
가평군 상면 역촌길 84-14

지정일 : 1981.04.17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이만규

<가평 연하리 향나무>는 조선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천보李天輔(1698년~1761)의 고가 후원에 위치한 향나무이다. 이 지역은 이천보의 선조들이 대대로 살던 곳으로 가평 연하리 향나무는 그의 선조가 심었다고 전해진다. 향나무가 위치한 이천보 고가는 6·25전쟁에 화를 입어 안채가 소실되는 등의 화를 입었지만 이 향나무는 온전하게 살아남았다. 고가의 사랑채에서 13m 떨어진 울타리가 없는 후원에서 목련과 상수리나무, 개오동 등의 교목과 낙엽수 등과 함께 생육하고 있다.

향나무는 측백나무과의 상록침엽교목으로, 우리나라 중부 이남을 비롯해 울릉도와 일본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상나무·노송나무로도 불린다. 향나무의 목재는 강한 향기를 지니고 있어 예부터 제사 때 향을 피우는 용도, 조각, 가구 등의 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정원수·공원수로 사용되고 있다.

가평 연하리 향나무의 높이는 13m, 가슴 높이 줄기 둘레 2.6m, 수관폭 12m로 우람한 품격을 지니고 있다. 지상 1.7m 부위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으나 그 중 소가지는 서쪽으로 향하고 있고 주된 줄기는 위로 곧게 뻗어 자라고 있다. 수령은 약 300년 정도로 추정된다.

1

2

1. 가평 연하리 향나무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가평 연하리 향나무,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62호

유관선생 묘

柳寬先生 墓

조선시대
1기
쌍분, 묘비 2기(구·신), 상석 2기, 향로석 2기, 장명등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계체석, 호석, 신도비 1기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산157

지정일 : 1981.07.16
소유자 : 문화류씨 대종회
관리자 : 문현숙

조선시대 개국공신인 유관柳寬(1346~1433)의 묘이다. 유관은 문화류씨文化柳氏로 1371년(공민왕20) 문과에 급제하였고, 조선이 건국되자 개국원종공신이 되었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태종 대에는 예문관대제학을 역임하고, 『태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424년(세종6) 우의정에 올라 『고려사高麗史』를 교정하여 임금에게 올렸다. 그는 청백을 신조로 삼아 청렴 검소하고 청빈하게 생활하여 세종 때에는 청백리에 선정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봉분은 쌍분으로 부인 광주안씨廣州安氏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의 형태는 장대석을 이용하여 장방형長方形의 호석을 두른 장방원형분長方圓形墳으로, 이것은 조선전기의 전형적인 분묘형태이다. 봉분 앞에는 장대석을 이용하여 2단의 계체석階砌石을 설치하였다. 쌍분의 우측으로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의 구비舊碑가 있고, 중앙 앞에는 신비新碑가 설치되어 있다. 봉분 앞에는 각각 상석과 향로석을 별도로 배치하였다. 하단 아래 중앙에는 장명등이 있고, 그 좌우에 망주석과 문인석이 1쌍씩 갖추어져 있다. 문인석은 곧은 깃의 직령포直領袍를 착용하였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는 독특한 형태이다. 묘역 아래에는 신도비가 있는데 비문은 신석우申錫愚가 찬하고 김홍집金弘集이 글을 썼으며, 박용대朴容大가 전액篆額을 써서 1891년(고종28)에 건립한 것이다.

1

2

1. 유관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유관선생 묘 문인석(좌),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69호

죽주산성

竹州山城

고려시대
일원
둘레 1,688m, 높이 2.5m 내외
지정면적 154,327㎡
석재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산106

지정일 : 1973.07.1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성시

<죽주산성>은 산정상부를 감싼 테뫼식 내성과 중성 그리고 계곡부까지 감싼 포곡식 외성이 있는 3중으로 된 석성石城이다. 죽주는 죽산竹山의 옛이름으로 죽산지역은 충청도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중부내륙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한다. 이 성은 1236년(고려 고종23) 몽고군이 죽주산성에 이르러 항복을 권유하자 죽주방호 별감 송문주宋文胄 장군이 15일 동안을 싸워 적을 물리친 전승지로서 알려진 유적이다. 송문주 장군은 1231년(고종18)에 몽고 장수 살리타撒禮塔가 구주龜州(지금의 龜城)를 공격할 때 성을 방어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었다. 이에 몽고군의 공격법을 알고 미리 대비하여 백성들이 '신명神明'이라 하였다.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성벽 및 문지가 조사되었으며, 집수시설과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성벽은 둘레가 1,688m이고 높이는 2.5m 내외이며 부분적으로 복원이 되어있다. 성의 축조시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출토된 유물로 보아 유적은 초기철기시대부터 이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 중 백제와 신라의 토기편과 고려 및 조선시대 기와·토기·자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산성을 주변으로 한 죽산지역은 나말 여초 이후 많은 불교 유적과 유물이 밀집되어있어 나말여초기 호족 세력의 근거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고려시대에는 몽고군과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폐성되었고, 임진왜란 전후에 다시 보수하여 병자호란 때에는 진을 치기도 하였다. 현재는 옛 모습을 간직한 성벽과 새롭게 복원된 성벽이다.

1. 죽주산성 전경(남~북), 2015_한백문화재연구원
2. '官草'명 기와와 출토토기, 2006_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3. 3차 발굴조사 전경, 2012_한백문화재연구원
4. 외벽 조사 후 전경(동~서), 2015_한백문화재연구원
5. 외벽 복원 후 모습,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6. 서벽 축조 상태, 2006_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7. 남벽 내벽 축조상태, 2006_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8. 송문주장군 사당(충의사) 전경, 2015_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73호

별망성지
別望城址

조선시대
일원
둘레 225m, 높이 1.45m
지정면적 37,252㎡
석성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56번지

지정일 : 1979.09.03
소유자 : 안산시
관리자 : 안산시

<별망성지>는 시화호에 인접한 해발 49m의 봉우리 경사면에 추조한 석축성이자 테뫼식 해안 평산성平山城이다. 조선시대 해안 방비를 위해 축성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이 곳에 수군만호영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조선총독부, 1942)에는 성의 높이가 1.2~2.1m, 둘레가 1,040m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는 한국전쟁과 반월공업단지 조성에 의해 대부분 파괴된 것을 1988년에 길이 225m, 높이 1.45m로 북벽과 서벽을 복원해 놓았다. 성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해안선과 평행하게 남북이 긴 형태이다.
축성방법을 현재 복원된 성벽으로 판단한다면 외성벽은 할석으로 단과 열이 일정하지 않는 막쌓기에 가깝게 쌓아 올렸으며, 성 안쪽은 흙으로 완만하게 다져 놓은 상태이다. 북벽과 북서벽의 회절지점에 치雉가 있으며 성 안쪽의 편평한 터에서 조선전기의 자기와 기와 조각이 수습되었다.
이러한 출토유물과 문헌 기록으로 보아 별망성은 조선시대에 사용된 해안 보루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성의 주변으로 목내리산성, 군자산성 등이 남양만을 끼고 함께 있어 이 곳이 서해안의 요새였음을 알 수 있다.

1
2

1. 별망성지 성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별망성지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74호

농성
農城

고려시대
일원
둘레 337m
높이 안 2.2~2.4m, 밖 5~8m
지정면적 30,441㎡
토성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산41-5

지정일 : 1981.07.16
소유자 : 평택시
관리자 : 평택시

<농성>은 안정리 일대의 해발 24m의 낮은 구릉에 위치한 토성이다. 성벽은 구릉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외곽을 감싸는 형태로 축조된 평지성으로, 주변은 낮은 구릉과 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멀리 아산만까지 조망된다. 북쪽 2㎞ 지점에서는 진위천과 안성천이 합류하여 아산만으로 향하는 수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조선총독부, 1942)에는 '임진왜란 때 왜구가 농업을 경영하며 토성을 축조하여 농성이라는 명칭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2002년 발굴조사 결과 기록과 일치되는 부분이 없어 일제가 농성을 임진왜란기 왜군과 연결시키려는 의도에서 작성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남북으로 긴 장방형 평면으로 서벽과 동벽에 문지가 하나씩 있다. 외벽 하단에는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해자를 설치하였다. 동문지 바닥층 하부에서는 길이 8m의 배수로도 확인되었다.
해자와 문지에서는 어골문과 격자문이 타날 된 기와류와 동이, 편병, 편호, 청자편 등의 고려시대 토기와 자기편이 수습되었다. 이 중에서 토기류는 기와류와 마찬가지로 평택 덕목리성, 평택 비파산성에서 출토된 것들과 같으며, 자기류는 주로 14~15세기의 청자와 분청사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농성의 축성시기는 삼국시대 축성설, 통일신라시대 축조설, 고려시대 축성설, 조선시대 축성설 등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으나, 시·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들이나 성벽의 구조가 용성리성, 덕목리성, 비파산성과 같은 안성천 북쪽에 있는 고려시대 토성들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고려전기에 아산만 일대의 해안방어를 목적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
2

1. 농성 동문지 배수로, 2002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 농성,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75호

영창대군 묘
永昌大君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상석 1기, 향로석 1기, 묘비 2기(구·신), 동자석 1쌍,
문인석 1쌍, 망주석 1쌍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산24-5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전주이씨 안성시 종친회
관리자 : 전주이씨 안성시 종친회

1

2

1. 영창대군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영창대군 묘표,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선조의 유일한 대군인 영창대군 이의永昌大君李玜(1606~1614)의 묘이다. 영창대군은 선조와 인목왕후仁穆王(1584~1632)의 왕자로 6세인 1611년(광해군3)에 영창대군에 봉해졌다. 1613년 이이첨李爾瞻이 꾸민 계축옥사가 일어나는데 이 무옥誣獄으로 영창대군의 외가外家인 연흥부원군 김제남延興府院君金悌男을 비롯한 많은 인사가 처형되었다. 영창대군도 이들이 옹립하려고 했다는 거짓말로 인해 대군의 작위를 빼앗기고 강화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후 강화부사로 내려온 정항鄭沆에 의해 살해되었다. 1623년(인조1) 인조반정으로 영창대군은 복권되고, 비로소 예에 맞게 안장되었다. 이때 조영된 묘소는 광주 세촌면(성남시)에 있었으며, 1971년 현재의 위치로 이장했다. 시호는 소민昭愍이다.

봉분 앞에는 이수방부螭首方趺의 묘표(1625년 건립), 상석床石, 향로석이 있고 좌우로 동자석, 망주석, 문인석이 있다. 비좌에는 연화문이 조각되어 있고, 비의 앞면에는 '영창대군증시소민공지묘永昌大君贈諡昭愍公之墓'라는 명문이 있다. 이러한 석물들은 1623년경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봉분의 호석護石과 신도비는 현대에 제작한 것이다.

1623년에 제작한 영창대군 묘지석은 최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서 출토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묘지석의 글은 우의정 신흠申欽이 짓고, 6촌 김천령金千齡이 썼다.

경기도기념물 제7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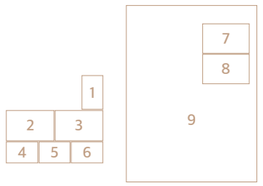
이천 설성산 설성지

利川 雪城山 雪城址

삼국시대
일원
둘레 1,095m, 높이 4~5m
지정면적 118,019㎡
토석혼축성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산930-1, 산115-1 외

지정일 : 1984.09.12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이천시

설성산성은 설성산 봉우리와 그 아래 큰 계곡의 지세를 이용하여 쌓은 포곡식의 삼국시대 석축산성이다. 설성산성은 1982년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실시된 『중원문화권유적정밀조사』에서 신라산성으로 추정되었고,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1997년에 실시한 『이천시의 문화유적』 지표조사에서는 백제토기가 출토되어 축조시기가 백제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설성산성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와 한백문화재연구원, 가경고고학연구소에서 6차 발굴까지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문지·동문지·건물지 6동·수혈주거지 13기·장대지·우물지·다수의 토광·추정 저수시설·저장시설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4~5세기 대의 백제토기를 비롯하여 6~7세기의 신라 대부완 및 9~10세기의 인화문토기와 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1. 설성산성 출토 기대, 2002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 설성산성 1차 서문지, 2001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3. 설성산성 동벽2구간, 2005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4. 설성산성 목곽고, 2005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5. 설성산성 토광, 2002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6. 설성산성 토광, 2002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7. 8. 복원된 설성산성 동문,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9. 설성산 설성지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설성산성은 이천시 장호원읍 설성산 해발 290m에 위치하고 있다. 부정형의 방형에 가까운 평면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축조기법에서 성 안쪽과 바깥쪽의 양쪽 모두를 쌓아올린 협축법夾築法과 한쪽만을 쌓아올린 편축법片築法 모두가 확인된다. 성벽은 자연암반의 윗면을 깎아 계단식으로 단을 조성한 후에 잘 다듬어진 장방형의 할석으로 단과 열을 맞추어가며 엇물리게 축조하였다. 외벽 뒤로는 자연암반의 경사면 위로 점토를 20~30cm 정도 다짐하고 뒤채움돌을 올려놓았으며, 뒤채움돌이 밀려서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축을 하여 뒤채움돌을 보강하였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에는 외벽 기단부에 보축을 하여 성벽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성벽 및 문지는 초축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개축이 이루어졌는데 기저부와 뒤채움에서 6~7세기에 해당하는 신라 토기와 기와 등이 출토되어 축조 상한시기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설성산성은 백제가 처음 쌓았다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까지의 조사성과로 미루어 볼 때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유한 이후에 고구려·백제로부터 한강 유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쌓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기념물 제77호

서흥김씨 삼강정문

瑞興金氏 三綱旌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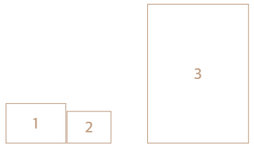
조선시대
1동
4×1칸
목재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산84-2

지정일 : 1984.09.12
소유자 : 서흥김씨 판서공파 대종회
관리자 : 서흥김씨 판서공파 대종회

<서흥김씨 삼강정문>은 서흥김씨 가문에서 배출된 충신과 효자 및 열부烈婦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세운 정문旌閭(효자·충신·열녀 등을 기리는 문을 세워 표창하는 것)이다.

충신인 김충수金忠守(1549~1592)는 임진왜란(1592~1598)때 의병장이며, 효자인 김충수의 아들 김함金涵(1568~1598)은 적에게 붙잡힌 아버지를 위해 적진에 들어가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였다. 김함의 손자며느리인 온양정씨溫陽鄭氏는 병자호란(1636~1637)때 적병에 쫓겨 물에 투신하였고, 김함의 6대손 김익성의 부인인 청주한씨淸州韓氏는 부군이 죽자 슬하에 자식이 없어 부도婦道를 못지켰다 하여 따라 순절하였다. 이에 1606년(선조39) 김함에게 효자 정문을, 1700년(숙종26) 김충수에게 충신 정문을, 1737년(영조13)과 1740년(영조16)에는 두 부인에게 각각 열부 정문을 내렸다. 원래 삼강정문은 월향리 낮은 언덕 위에 있었으나 후에 저수지를 만들면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 세웠다.

삼강정문은 현재 본채(삼강정문)와 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강정문 영역 밖에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본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규모를 가진 이익공二翼工 형식의 건물로 겹처마의 팔작지붕이며, 별도로 천장을 만들지 않고 서까래를 그대로 노출시켜 만든 연등천장이다. 건물은 낮은 장대석長臺石 기단에 팔각형 장초석을 놓았고 전면에만 홍살이 되어있다. 내부 정면에는 충신현판 1기, 효자현판 1기, 열부현판 2기가 걸려있고, 좌측 내벽에는 삼강정문기三綱旌門記가 우측 내벽에는 서흥김씨삼강정문이건기瑞興金氏三綱旌門移建記가 걸려있다. 본채 앞에 대문은 정면 1칸의 규모를 가진 초익공初翼工 형식으로 겹처마의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본채와 대문을 중심으로 담장이 둘러져있다.



1. 서흥김씨 삼강정문 전경, 2007_ 안성시
2. 서흥김씨 삼강정문,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서흥김씨 삼강정문 내부 천장,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78호

류량선생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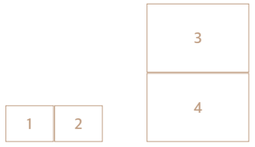
柳亮先生 墓

조선시대
1기
쌍분, 묘비 2기, 상석 2기, 장명등 1기, 문인석 1쌍, 망주석 1쌍, 호석, 신도비 1기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산21-1

지정일 : 1984.09.12
소유자 : 문화류씨 충경공파 종중
관리자 : 문화류씨 종중

조선시대 개국공신인 류량柳亮(1355~1416)과 부인 연안이씨延安李氏의 합장묘이다. 1382년(고려 우왕8)에 문과에 급제하고 전의부령에 임명되었으며, 판종부시사를 거쳐 이조전서로 재직하던 중 조선 건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개국의 공으로 인해 개국원종공신에 봉해지고, 1401년(태종1) 태종을 옹립한 공으로 좌명공신에 올랐으며, 1404년에 문성군文城君의 호를 받아 형조판서가 되었다. 이후 예문관 대제학 등 여러 직을 거쳐 1413년에 부원군府院君에 봉해지고 61세인 1415년에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고 이듬해 사망하였다.

묘역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계에 사각 쌍분으로 조성하였다. 봉분에는 호석護石을 둘렀는데, 서측 류량묘의 호석은 3단으로 만석의 아래는 깎아서 띠 모양으로 돌렸다. 부인묘의 호석은 만석이 없는 2단으로 되어 있다. 각 호석의 정면 면석에는 '우상류량지묘右相柳亮之墓'와 '연안이씨지묘延安李氏之墓'라는 글자를 새겨 묘주를 밝히고 있다. 각 봉분 앞에 비석이 있는데, 형태가 서로 다르다. 류량묘비는 상단에 장식이 없는 반달형 비수碑首를 조각했으나 부인묘비는 상단을 둥근 모양으로 다듬었다. 비음의 글씨는 풍화가 심하다. 중계의 사각장명등은 장식 없이 전후로 화창이 뚫려 있고 중대석은 8각이며 개석을 별도로 만들어 얹었다. 좌우의 문인석은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인데, 복두는 X자로 교차된 교각복두交脚幞頭이다. 특이하게 상계 계체석 좌우에는 기둥 모양의 계체석 우석隅石이 있다. 1미터 높이의 이 석물은 상부가 망주석 모양이지만, 뒷면에 덧붙은 턱으로 보아 망주석과는 다르다. 앞면에는 두 개의 원을 파고 그 안에 '만卍'자를 새겼다. 상석과 하계의 망주석은 1959년에 신도비를 세우며 교체한 것이고, 봉분 서쪽 산신석 모양 석물 2기는 구舊 상석으로 보인다. 일부 석물의 형상이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초기 묘제 형식을 잘 보여 준다.



1. 류량선생 묘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부인 정안이씨 묘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류량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류량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79호

이정구선생 묘 및 삼세신도비

李廷龜先生 墓 및 三世神道碑

조선시대
2기
단분, 묘비 1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동자석 1쌍,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가평군 상면 태봉리 산115-1

지정일 : 1984.09.12
소유자 : 연안이씨 종중
관리자 : 연안이씨 월사공파 종중

조선중기 4대 문장가 중 한 사람으로 일컬어졌던 이정구李廷龜(1564~1635)의 묘이다. 이정구의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자는 성징聖徵, 호는 월사月沙이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행재소에 나아가 설서가 되었고, 다음해 명나라 사신 송응창을 만나 『대학大學』을 강론하여 높은 평가를 받아 그 내용이 『대학강어大學講語』로 간행되었다. 그 후 왕의 신임을 받아 병조·예조·형조판서를 거쳤고, 여러차례 사신이 되어 명나라에 왕래하였다. 1628년(인조6)에는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다. 이정구는 문장에 재주가 있어 신흠申欽, 장유張維, 이식李植과 함께 조선중기 4대 문장가로 명성을 떨쳤다. 저서로는 『월사집月沙集』이 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이정구의 묘는 가평군 윗면 태봉리 주금산 동쪽 자락 연안이씨 묘역에 위치해 있다. 봉분의 형태는 단분으로 부인 안동권씨와 합장묘이다. 이정구 묘를 중심으로 상단에 장손 이일상李一相(1612~1666)의 묘, 그 상단에 아들 이명한李明漢(1595~1645)의 묘가 함께 조성되어 있다. 동남으로 약 70m 지점에 월사집 목판(경기도유형문화재 제133호), 연안이씨 정려문, 연안이씨 삼세비각이 있다.

묘는 정남향으로 2기의 계체석으로 구분하여 3계階를 이루고 있다. 상계에는 호석을 두른 봉분과 묘표, 혼유석을 배치하고, 중계에는 상석과 고석, 향로석, 동자석 2기, 망주석 2기를 배치하였으며 하계에는 문인석 2기를 배치하였다.

신도비는 1656년(효종7)에 건립한 것으로, 비문은 당시 좌의정 김상헌金尙憲(1570~1652)이 지었고, 글씨는 영의정을 지낸 이경석李景奭(1595~1672)이 썼으며, 전액篆額은 우의정을 지낸 김상용金尙容(1561~1637)이 썼다. 전액은 「의정부좌의정증시 문충이공신도비명議政府左議政贈諡 文忠李公神道碑銘」이고, 형태는 옥개방부형屋蓋方趺形이다. 개석은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를 간략화하였다. 신도비는 단순하면서 웅장한 모습, 당대 최고의 문장과 서예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17세기 대표적인 비이다.

묘표는 봉분 정면에 있으며, 음기陰記가 없어 정확한 조성연도를 알 수 없다. 대석의 윗면은 연판문을, 앞뒤에는 당초문을 조각하여 신도비와 같은 문양 구성을 보이고 있다. 형태는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이며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폭이 좁아지는 17세기 전반기 이후 크게 유행한 형태이다.

상석床石은 앞면은 고석鼓石 2기를 받치고 뒷면은 계체석에 받쳐 높이를 맞추었다. 마정질을 많이 한 상태이며, 사방을 모줄임하였다. 향로석은 정방형에 가까운 6각형태로 17세기후반에 유행한 전형적인 형태이다. 또한 봉분 하단을 보호하려고 두른 호석護石이 있는데, 조선후기 사대부 묘에서는 드문 사례이다.

동자석은 상석의 좌우에서 묘주와 가깝에 배치하였다. 머리에 쌍계가 있고, 두손에는 상단이 납작한 지물을 가슴 앞에서 모아 쥐고 있다. 복식은 소매폭이 좁고 앞면과 양 옆구리 아래로 긴 띠가 늘어진 포를 입고 있다. 쌍계 머리의 동자석은 16세기 초반부터 17세기 후반까지 유행한 형식으로 이정구 묘의 동자석은 17세기 중반의 평면적이고 도식적인 양식을 보이고 있다.

망주석은 중계에 위치하고 있다. 운두雲頭에는 여의앙련을 조각하였으며, 손잡이 형태의 귀耳는 많이 마모되어서 형태가 불분명하다.

문인석은 형태는 금관조복형金冠朝服形이다. 앞·뒷면에 장식한 폐슬과 후수는선단형태만 양각한 간략한 형태이다. 얼굴이 앞으로 많이 돌출되었고, 손가락은 동자석과 동일하게 마디의 구분이 없이 평면으로만 표현하였다. 인체의 형태나 세부장식의 입체화가 거의 없는 평면적이고 경직화된 17세기의 전형적인 양식이다.

전체적으로 원형의 묘제와 석물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17세기 전반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묘제나 묘역의 석물 유형과 배치 방식이 장손 이일상 묘와 아들 이명한 묘가 매우 흡사한데, 원수방부형 묘표, 동자석의 배치, 육각향로석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은 17세기 중·후반 연안이씨 묘역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이정구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이정구선생 묘 호석,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이정구선생 묘 향로석,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이정구선생 묘 동자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이정구선생 묘 동자석(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6. 이정구선생 묘 문인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7. 이정구선생 묘 문인석(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81호

서운산성
瑞雲山城

삼국~조선시대
일원
둘레 620m, 높이 6~8m
지정구역 90,253㎡
토성
안성시 서운면 청용리 산2 외

지정일 : 1985.06.28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성시

<서원산성>은 차령산맥의 주된 봉우리인 서운산의 봉우리 2개를 연결하여 마치 말안장 모양으로 쌓은 토성으로, '북산리성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평면 형태는 북동-남서쪽을 장축으로 하는 장방형을 띤다. 오랜 기간 활용하면서 수차례 수·개축되었기 때문에 산성의 축조재료는 토축·토석혼축·석축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성내 시설물로는 문지·치성·장대지·건물지·우물지 등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우물지 5개소가 확인되고 있어 물이 풍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한 홍계남洪季男 장군이 북쪽으로 올라오는 왜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쌓았다고 한다. 그러나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볼 때, 삼국시대부터 사용되다가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물리쳐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남쪽에는 좌성사座聖寺가 위치하며, 이 절의 뒤쪽 계곡에는 북산리 석조여래입상(향토유적 제43호)과 용이 살았다는 용굴 등이 있다.

1 2
3

1. 서운산성 북문지,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서운산성 남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서운산성 전경, 2015_ 한백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82호

안성 구포동 성당
安城 九苞洞 聖堂

1922년
1동
5×9칸
목재, 벽돌
안성시 혜산로 33

지정일 : 1985.06.28
소유자 :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관리자 : 주임신부(백명기)

<안성 구포동 성당>은 안성시를 내려다보는 비봉산 구포 동산 언덕에 자리를 잡았다. 1922년에 프랑스인 안토니오 콩베르(Antonio Combert, 한국 이름 공안국, 1875~1950) 신부가 동안강당의 목재와 기와를 일부분 옮겨 본당을 지었다. 보개면 신안리 동안강당은 조선시대에 유생들이 학문을 연구하던 곳이다.
구포동 성당은 서남 방향의 대지에 맞춰 본당을 배치했다. 목재로 기둥과 보를 짜 맞춘 목구조이며, 서양 성당 건축(basilica)으로 공간을 만들었다. 목구조 형식은 건물 옆면에서 볼 수 있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회벽으로 바르고, 창문 아래에 기단과 벽체는 돌로 마감하여 화재에 대비했다. 성당 평면은 십자형이지만, 날개채의 돌출이 적어 직사각형에 가깝다. 성당 내부에 열지은 사각기둥이 예배자 공간과 복도로 나눈다. 복도는 2층이며, 위쪽 복도는 건물의 세 면을 에워싸고 채광을 위한 창의 면적이 넓다. 천장은 목재로 마감하고, 바닥도 나무마루이다. 건립 당시에 앞모습은 현재와 다르다. 지붕과 앞·옆면의 입구에 박공지붕이 일본풍이다. 앞면은 1955년에 바뀌었다. 붉은 벽돌로 마감하며,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증축하였다. 지붕 뒷면의 일식 기와는 1985년에 한식 기와로 교체했다.
가톨릭 성당이 생겨나던 초기 단계에 한식과 양식을 절충한 사례로 성당 건축사와 근대건축 양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안토니오 콩베르 신부는 1901년 정미년 의병 운동에서 안성 읍민을 보호했으며, 1909년에 안법학교(현 안법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또한 미사에 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묘목을 프랑스에서 들어와 성당 앞들에 심었고 이는 안성포도의 기원이 되었다.

1 2
3

1. 안성 구포동 성당 내부,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안성 구포동 성당,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안성 구포동 성당,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83호

안탄대선생 묘

安坦大先生 墓

조선시대
1기
쌍분,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5-1

지정일 : 1985.09.20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안산시

조선 선조의 외증조인 안탄대安坦大(생몰년 미상)의 묘이다. 안탄대의 본관은 안산安山이고 자호는 명확하지 않다. 중종(1488~1544)의 장인이며, 후궁인 창빈안씨昌嬪安氏(1499~1549)의 아버지이다. 창빈안씨는 영양군永陽君·덕흥군德興君의 자당이며, 덕흥군은 선조의 생부이므로, 안탄대는 선조의 외증조가 된다. 안탄대는 1506년 중종반정으로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었고, 적순부위迪順副尉에 올랐으며, 사후에 우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안탄대 묘표에 의하면 그의 묘역은 선조 때 석물을 세우고 묘지기를 두어 금벌禁伐을 하였으나 연대가 오래되고 묘역을 보수하지 않자 몰래 묘를 매장하는 투매자偸埋者가 있게 되었다. 이에 능원대군綾原大君과 인평대군麟坪大君 등이 상의하기를 '창빈의 후손된 자는 모두 안씨에서 나온 셈인데 그 손자가 되어서 묘를 다스리지 않아 타인으로 하여금 투매하게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고는 이를 효종께 아뢰자 효종은 투매자를 법으로 다스려 무덤을 보호하도록 하고 안탄대의 묘를 봉축하였다. 또 묘지기 5인을 두었고, 방예로 봉사손이 되었던 사람에게 묘제를 맡도록 명하였다. 안탄대 묘표의 비문은 1656년(효종7) 외손 계열인 신최申最(1619~1658)가 찬撰하고, 신승申昇이 글을 썼다. 따라서 안탄대의 묘는 선조 대에 처음 건립되었으나 이후 효종 대인 1656년경에 재정비된 것이고 석물도 이때 다시 세운 것이다.

안탄대의 묘는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반월지구내에 있으며, 증 정경부인 황씨와의 쌍묘이다. 묘역은 2계階로 나뉘었으며 상계에는 봉분 2기, 묘표, 혼유석을 배치하였고, 중계에는 상석, 향로석과 망주석 2기, 문인석 2기를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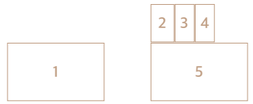
묘표는 쌍분의 가운데에 1기가 배치되어 있다. 비제는 '증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우의정겸령 경연사안공지묘 증정경부인 황씨 부좌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事安公之墓 贈貞敬夫人黃氏 祔左'이다. 묘표의 형태는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으로 상단은 폭이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17세기 중반 이후 크게 유행한 형태이다. 대석의 윗면에는 연판문을 간략하게 음각하였고, 앞뒷면에는 당초문을 새겼다. 비신은 대리석이고 대석은 화강석으로 되어 있다.

상석은 별도의 고석 없이 지대석으로 받침을 삼고, 중간부분부터 계체석에 걸쳐놓았다. 상석은 마정질을 한 상태이며, 사방을 모줄임하였다. 상석 정면으로는 4각형태의 향로석을 배치하였다.

망주석은 하계에 2기를 배치하였으며, 원수圓首부터 대석까지 모두 한 돌로 되어 있다. 운두雲頭에는 여의앙련을 조각하였으며 염의廉衣에는 커다란 연주문을 돌리고 하단에 8각의 칸만 구획한 후 당초문을 조각하였다.

문인석은 하계에 2기를 배치하였다. 형태는 금관金冠을 쓰고 조복朝服을 입은 금관조복형이다. 금관과 얼굴, 홀을 매우 크고 두껍게 강조하여 전체 비례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금관의 무武부분과 뒷면, 조복의 앞·뒷면에 장식한 폐슬과 후수는 내부 문양없이 선각으로 간략화하였다. 홀을 잡은 손과 옷자락은 완전히 평면화되어 있으며 세부장식이 생략되었다. 17세기의 형식적이고 도식화된 전형적인 양식이다.

전체적으로 묘제는 17세기 중반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석물의 종별과 형태, 양식도 17세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1. 안탄대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안탄대선생 묘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안탄대선생 묘 문인석(좌),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안탄대선생 묘 망주석,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안탄대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84호

이경석선생 묘

李景奭先生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장명등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신도비 1기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50-7

지정일 : 1985.09.20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전주이씨 백헌상공파 종중

삼정승을 지낸 이경석李景奭(1595~1671)의 묘이다. 이경석의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상보尙輔, 호는 백헌白軒이다. 종실 덕천군 이후생德泉君李厚生의 6대손이다. 1623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이괄李适의 난으로 인조가 공주로 몽진하자 승문원주서로 왕을 호종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인조를 호종해 남한산성에 들어갔으며, 홍문관·예문관의 대제학을 거쳐 우의정·좌의정을 역임한 뒤 영의정에 올라 국정을 총괄하였다. 후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고 1668년(현종9)에는 궤장廚杖을 하사받았다. 저서로는 『백헌집白軒集』 등 유집 50여 권이 간행되었고, 글로는 '삼전도비문'이 있는데 사후에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이경석의 묘는 성남시 석운동 청계산 대감능골에 남향으로 위치하며, 부인 전주류씨全州柳氏와 합장한 단분이다. 묘역은 크게 2계階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계에는 봉분, 묘표를 배치하였고 하계에는 망주석 2기, 문인석 2기를 배치하였다. 그 외에 배치된 혼유석·상석·고석·향로석 2기·장명등은 현대에 제작한 것이다.

묘역 입구에는 1754년(영조30)에 건립한 신도비가 있다. 비문은 박세당朴世堂(1629~1703)이 짓고, 현손 원교 이광사李匡師(1705~1777)가 썼다. 이광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서체인 동국진체東國眞體와 원교체를 완성한 서예의 대가로 조선 서예사적 위치가 매우 크다. 전액은 '영의정시문충이공신도비명領議政諡文忠李公神道碑銘'이다. 형태는 옥개방부형屋蓋方趺形으로, 개석은 팔작지붕형이다. 용마루와 내림마루가 좁고 처마의 선도 거의 직선화되었다. 18세기 중엽의 단순화된 개석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묘표는 1751년(영조27)에 건립한 것이다. 상계 봉분의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형태는 윗면이 둥근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이다. 비제는 '유명조선국문충 공백헌선생경석묘 정경부인전주유씨 부좌有明朝鮮國文忠 公白軒先生景奭墓 貞敬夫人全州柳氏 祔左'이다. 묘표의 비문은 현손 이광회李匡會가 짓고 원교 이광사李匡師가 썼다. 특히 묘표의 4면에 가득한 이광사의 글씨는 정갈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친다. 이경석 신도비와 함께 독특한 이광사의 서예를 볼 수 있는 18세기의 대표적인 묘비이다.

망주석은 하계에 2기를 배치하였다. 동쪽 망주석의 운두雲頭에는 여의앙련을 장식하고, 염의簾衣는 상단에 세줄 띠를 둘렀으며 주신柱身의 세호細虎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고개를 약간 비틀어 조각하여 운동감이 있다. 운두와 염의 등에 장식이 없는 서쪽 망주석은 후대에 놓여진 것으로 보인다.

문인석은 망주석 아래 하계에 2기를 배치하였다. 형태는 금관조복형金冠朝服形으로 얼굴은 평면적이고 눈은 선각화하였으나 미소를 짓고 있다. 금관 뒷면의 폐슬蔽膝과 후수後綬는 내부장식 없이 선단형태만 양각한 간략한 형태이고, 옆면의 옷주름은 등간격으로 선각하였다. 금관을 포함한 얼굴부분이 매우 크고 높게 강조되었고, 안면이 앞으로 많이 돌출된 형태로 17세기의 전형적인 양식이다. 전체적으로 현대에 추가된 석물을 제외한다면, 17세기의 묘제와 석물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경석의 신도비와 묘표는 17~18세기 문인들의 교유관계와 당시 서예사를 살필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1 | 2 | 3 | 4

1. 이경석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이경석선생 묘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이경석선생 묘 망주석,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이경석선생 묘 문인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85호

이원익선생 묘 및 신도비

李元翼先生 墓 및 神道碑

조선시대
1기
쌍분, 묘비 1기, 장명등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신도비 1기
신도비 높이 335cm
석재(화강암, 대리석)
여주시 상거동 산19-18

지정일 : 1985.09.20
소유자 : 충현박물관
관리자 : 충현박물관

청백리 이원익李元翼(1547~1634)의 묘이다. 이원익의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공려功勵, 호는 오리梧里이다. 태종의 왕자였던 익녕군益寧君 치褀의 4세손이며, 아버지는 함천정 이억재咸川正李億載이며, 어머니는 감찰 정치鄭錙의 딸이다. 대사헌과 호조·예조·이조판서 등을 지내고 관직이 좌의정과 영의정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당시 의주로 몽양가는 선조를 호종하여 호성공신扈聖功臣에 녹훈되고,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에 봉해졌다. 광해군 즉위 후 다시 영의정이 되었는데, 한백겸韓百謙이 건의한 대동법大同法을 경기도에 실시하기도 하였다. 1623년 인조가 즉위하자 다시 영의정이 되었으며,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80세에 가까운 노구로 공주까지 왕을 호종하였다. 다섯차례나 영의정을 지냈으나 근검절약, 청렴하여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었고, 인조로부터 궤장을 하사받았다. 저서로는 『오리집』, 『오리일기梧里日記』 등이 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이원익의 묘는 광명시 소하동 서독산 능선 하단 전주이씨 묘역 안에 있다. 부인 영일정씨迎日鄭氏와 쌍분이며 남동향으로 위치하여 있다. 묘역은 크게 2계階로 나뉘어져 있으며, 상계에는 봉분과 묘표, 혼유석을 배치하였고, 상계의 계체석에 상석을 걸쳐 배치하였다. 하계에는 향로석, 망주석 2기, 문인석 2기를 배치하였으며 장명등은 현대에 세운 것이다.

묘역 입구 길가에 위치한 신도비는 17세기에 제작한 것으로 마모가 매우 심하다. 형태는 이수방부형螭首方趺形으로 이수, 비신, 대석을 모두 별도로 끼운 형태이다. 비문은 이준李俊(1560~1635)이 지었으며, 미수 허목許穆(1595~1682)이 썼다. 전액은 '의정부영의정완평부원군증시문충이공신도비명議政府領議政完平府院君贈諡文忠李公神道碑銘'이다. 이수 앞면에는 쌍룡이 마주보며 여의주를 다투는 모습을 좌우대칭으로 조각하였고, 뒷면에는 단룡이 여의주를 쥐고 있는 모습을 부조하였다. 용의 얼굴을 크게 강조하였으나 안정된 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용의 이목구비와 S자형의 신체는 고부조로 조각하여 생동감이 있다. 17세기의 이수방부형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동양 최고의 전서체를 자랑했던 미수 허목의 글씨를 볼 수 있는 신도비이다.
이원익의 묘표는 1734년(영조10)에 건립한 것이다. 묘표의 비문은 4세손 이존도李存道가 기술하고, 안진경顔眞卿의 글씨체를 집자集字하여 건립하였다. 형태는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으로 대석은 거의 매몰된 상태이다.
망주석은 하계에 2기를 배치하였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편이며, 주신柱身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이다.
하계의 대표적인 석물은 문인석으로 망주석 아래에 2기를 배치하였다. 형태는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으로 안면이 앞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으며, 신체의 곡선이 기둥형으로 경직되었다. 특히 양 옆으로 갈라진 포袍의 옷주름은 매우 형식적이다. 17세기의 전형적인 문인석의 양식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17세기 전반기의 묘제와 석물을 유지하고 있으나 18세기에 추보한 묘표, 현대에 추보한 장명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특히 미수 허목의 글씨를 볼 수 있는 이원익의 신도비는 매우 중요하다.

1. 이원익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이원익선생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이원익선생 신도비 이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이원익선생 신도비 기대,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86호

백천장선생 묘

白天藏先生 墓

고려시대
1기
단분, 호석, 묘비 2기(구·신),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3기, 장명등 2기(구·신), 석양 1쌍, 망주석 1쌍, 문인석 2쌍(구·신), 계체석, 신도비 1기
화성시 기안동 140-1

지정일 : 1985.09.20
소유자 : 수원백씨 종중
관리자 : 수원백씨 종중

고려시대의 문인인 백천장白天藏(생몰년미상)의 묘이다. 백천장의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수원 백씨 중시조로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 문과에 급제한 후, 고려 조정에서 한림원 정4품 학사로 왕명을 받들어 외교문서를 작성하고 과거를 관장하며 서적을 편찬하였고, 서연관으로서 왕에게 강의하고 시종관으로서 왕을 시종하는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중서문하성의 정당문학으로 국정을 논의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원나라에 유학하여 이부상서를 거쳐 우승상·금자광록대부 등을 역임하였다. 원나라의 순제에게 나이가 많아 고국에 돌아갈 것을 청하여 귀국한 후 수성백隨城伯에 봉해졌고 그 후 수원에 살다가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을 들은 고려 충선왕이 애도하는 마음에 예관을 보내 제사를 치르게 하고, 시호를 문익文益이라 하였다.

백천장의 묘는 기안동 기안초교 뒤편의 구릉에 동향하여 있다. 부인 삼한국부인 월성최씨月城崔氏와 단분으로 합장하여 있으며, 묘역 아래에는 1975년에 제작한 신도비, 숭모재라는 재실 등이 있다. 백천장의 묘는 고려말의 원형이 남아있지 않으며, 전체적인 묘제 및 대부분의 석물은 현대에 제작한 것이다.

묘비는 봉분의 동쪽에 2기가 있는데 1기는 1813년에 세운 것이고, 1기는 1980년에 새로 세운 것이다. 묘소 입구 약200m 지점에는 1975년에 건립한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묘역 석물로는 신도비 1기, 호석護石, 묘비 2기(新1980·舊1813), 혼유석 1기, 상석 1기, 계체석, 향로석 3기, 장명등 2기(新·舊), 석양 1쌍, 망주석 1쌍, 문인석 2쌍(新·舊)이 있으나 대부분 현대에 제작한 것이다. 이 중 옛 석물로는 1813년에 세워진 묘비, 장명등 1기, 문인석 1쌍이 있다.

1813년에 세워진 묘표는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의 단순한 형태이다. 비제는 「정당문학 수원백천장지묘政堂文學 水原白天藏之墓」이고 건립자는 17세 후손인 백홍수白鴻洙이며, 뒷면에는 간략한 음기陰記가 있다.

장명등은 조선초기의 양식을 지니고 있으나 머릿돌과 몸돌의 형태가 다소 어색하다. 개석은 사모지붕의 형태이고, 체석體石과는 다른 재질이다. 화창火窓이 매우 크며, 대석이 간주형태로 얇고 긴 15세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문인석 1기는 조선전기의 양식이고, 1기는 현대에 새로 제작한 것인데 조선초기의 문인석은 마모가 많이 진행되었다. 형태는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이고 홀을 쥐고 있는 형상이나 세부 장식은 명확하지 않다. 얼굴표현과 뒷면의 문양표현은 거의 마모되었으며, 옆면의 3단 옷주름은 계단식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백천장의 묘는 조선 정조 때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능을 화산花山으로 옮길 때 10리 이내 묘소는 이장하게 했으나, 이 묘는 조정에서 보호하여 옮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 묘역은 백천장이라는 인물과 경기지역 주요 토착성씨의 묘역을 살펴볼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 백천장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백천장선생 묘 문인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백천장선생 묘 문인석(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백천장선생 묘 장명등,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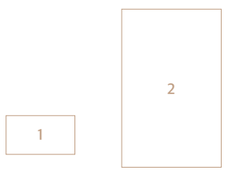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87호

강희맹선생 묘 및 신도비

姜希孟先生 墓 및 神道碑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문인석 1쌍, 신도비 1기
신도비 높이 239cm
시흥시 하상동 산2

지정일 : 1985.09.20
소유자 : 진주강씨 문량공파 종중
관리자 : 진주강씨 문량공파 종중



1. 강희맹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강희맹선생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시대 성종 대의 문신 강희맹姜希孟(1424~1483)의 묘이다. 강희맹의 본관은 진주晉州이고 자는 경순景醇이며, 호는 사숙재私淑齋이다. 동북면순무사東北面巡撫使 강회백姜淮伯의 손자이고 지돈령부사 강석덕姜碩德의 아들이며 인재 강희안仁齋姜希顔의 동생이다. 어머니는 영의정 심온沈溫의 딸이고 이모부는 세종대왕이다. 1447년(세종29) 친시문과에서 장원급제하고 종부시주부가 되었으며, 주요 요직과 각조의 판서를 거쳐 의정부좌찬성에 이르렀다. 사후 영의정과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량文良이다. 저술로 『사숙재집私淑齋集』과 『금양잡록衿陽雜錄』이 전한다.

강희맹 묘는 진주강씨晉州姜氏 세장 묘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묘역은 최근 새롭게 단장하여 옛 석물로는 무인석 1쌍 만이 남아 있다. 무인석은 양손을 가슴에 올린 채 시립侍立하고 있는데 머리에 착용한 투구는 목가리개를 늘어뜨리고 상모를 뒤로 넘겨 놓았다.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조선초기 무인석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봉분 앞에는 방부규수方趺圭首 양식의 묘표가 건립되어 있다. 방부를 상대석·중대석·하대석의 3단으로 구성한 뒤 하대석에는 복련覆蓮과 운족雲足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같은 양식의 묘표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것이다. 검게 산화된 비신의 앞면에 피장자의 신원을 썼으나 음기나 건립연대는 기록하지 않았다.

한편 묘역 아래의 비각에는 신도비가 안치되어 있다. 성종 대에 유행하던 방부이수方趺螭首양식을 갖추고 있다. 화강암으로 만든 방부의 윗면에는 복련을 돌린 흔적이 남아 있다. 이수의 앞면에 단룡농주單龍弄珠를 화려하게 조각하고 제액題額 공간을 마련하여 '문량공신도비文良公神道碑'라는 전액篆額을 음각해 놓았으며 이수의 뒷면에도 앞면과 같이 단룡농주를 장식하였다. 이수의 구도가 안정적이고 조각 솜씨도 빼어나 당대를 대표할만 하다. 비문은 대제학 서거정徐居正이 짓고 글씨와 전액은 생질甥姪인 홍문관박사 박증영朴增榮이 썼다. 건립연대는 1488년(성종19)이다.

경기도기념물 제88호

신숙주선생 묘

申叔舟先生 墓

조선시대
1기
쌍분, 묘비 1기, 상석 2기, 향로석 2기, 장명등 2기, 문인석 1쌍, 무인석 1쌍, 신도비 2기(구·신)
의정부시 고산동 산53-7

지정일 : 1985.09.20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고령신씨 종중

1. 신숙주선생 묘 전경, 2015_ 의정부시
2. 신숙주선생 묘, 2015_ 의정부시
3. 신숙주선생 신도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정난공신 신숙주申叔舟(1417~1475)의 묘이다. 신숙주의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자는 범옹泛翁, 호는 희현당希賢堂·보한재保閑齋이다. 1441년에는 집현전부수찬을 역임하였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성삼문과 함께 기여한 바가 컸다. 1452년 수양대군이 사은사로 명나라로 갈 때 동행하였으며, 계유정난 이후에 정난공신 2등이 되고 도승지에 올랐다. 이후 병조판서에 올라 국방과 외교를 관장하였고,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하면서 왜인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1462년에는 영의정에 올랐으나 잠시 사직하였다가 1467년에 다시 예조판서가 되었다. 예종 대에 수충보사병기정난익대공신輸忠保社炳幾定難翊戴功臣의 호를 받았다. 저서로는 성종 대에 『세조실록』, 『예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고, 『동국통감』, 『국조오례의』를 완성하였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신숙주의 묘는 의정부시 고산동 구성마을 뒤편 부용산 밑에 동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봉분은 군부인 윤씨와 쌍분이다. 묘역은 크게 3계階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계에는 봉분 2기과 묘표 1기, 중계에는 장명등 2기, 문인석 2기, 하계에는 무인석 2기를 배치하였다. 상석, 향로석은 현대에 제작한 것이고, 묘역 아래에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신도비, 1971년에 건립한 신도비, 한글학회에서 1971년에 건립한 한글창제기념비가 있다.

신도비는 묘역 하단 남동쪽에 위치하여 있는데, 정방형의 형태로 규모가 크고 당당하다. 비문은 마모되어 육안식별이 거의 어려운 상태이다. 건립연도는 1477년(성종8)이고, 비문은 청렴한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이승소李承召(1422~1484)가 찬하고 서예가로도 이름을 높였던 정난종鄭蘭宗(1433~1489)이 글을 썼다. 형태는 옥개방부형屋蓋方趺形으로 개석과 비신의 폭이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비신과 옥개는 하나의 대리석으로 제작되었으며 대석은 화강암이다. 대석의 윗면에는 커다란 복련을 시원하게 배치하였고, 앞뒷면에는 안상문을 조각하였다. 이 신도비는 15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형태와 격식을 갖춘 희귀한 석물이다.

묘표는 두 봉분 사이에 1기를 배치하였다. 건립연도는 1897년(고종34)으로 후대에 추보한 것이다. 형태는 옥개방부형이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용마루와 내림마루는 굵고 단순하게 나타냈으며, 대석에는 칸을 구획해 안상을 장식한 흔적이 남아 있다.

장명등은 중계의 동서로 각 봉분 앞에 2기를 배치하였다. 형태는 팔각형인데, 사대부묘역에서는 드문 예이다. 개석은 규모가 큰 편인데, 상단은 원수圓首형이고 아래에는 하엽을 조각하였다. 처마의 곡선은 완만하고, 각 추녀마루는 얕게 양각하였다. 화창은 4면만 뚫려 있으며, 화창 내부에는 불을 지필 수 있는 등좌燈座가 있다. 화사석과 대석은 한돌로 조성되었다. 비교적 단순하게 조성되었지만, 15세기 후반 사대부 묘에 놓이는 대표적인 형태이다.

석인은 중계에 문인석을, 하계에는 무인석을 배치하여 마치 왕릉같은 구성이다. 문인석은 형태는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이고, 장대한 규모이다. 목이 가슴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둔중한 신체형태이고 사각기둥에 가까운 경직된 모습인데, 15세기 석인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얼굴은 타원형이나 눈썹과 둥근 눈의 윤곽을 깊게 선각하였으며, 입부분을 돌출시킨 기법은 15세기 석인의 전형적인 양식이다. 옷주름은 큰 소매를 따라 직선형으로 조각하였는데, 등간격으로 일정하고 얇게 양각하여 형식적이다.

무인석은 검을 짚고 있는 집검형執劍形이다. 옷은 갑옷이 아니라 허리 아래 주름이 잡힌 포袍를 입고 있으며, 모자는 정수리가 뾰족한 소모자를 쓰고 있다. 이러한 의복과 소모자는 갑옷이나 관복의 밑받침옷으로 입던 편복의 유형으로 15~16세기 사대부 묘 무인석상이나 시자석인상侍者石人像에서 보이는 형태이다. 신체는 원통형에 가까운 둔중한 기둥형태로 구성요소는 매우 얇게 양각하고, 세부는 단순화시켰다. 얼굴은 문인석상과 유사한 인상이며 큰 타원형의 눈 주위를 깊게 선각하여 강조하였고, 유난히 수염을 길게 조각하여 무인석의 기상을 표현하였다. 사대부 묘에서 매우 드물게 조성된 무인석으로 15세기의 전형적인 양식이고, 미술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석인상이다.

전체적으로 15세기 후반기의 묘제와 석물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쌍분의 묘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팔각장명등, 문·무인석, 정방형 사모의 신도비 등 특이하고 우수한 석물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인근의 홍달손洪達孫(1415~1472) 묘역의 배치와 석물 구성이 유사하여 주목되며, 당대 명문세가의 명성만큼이나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석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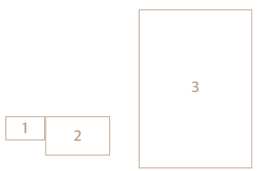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89호

한음이덕형선생 묘 및 신도비

漢陰李德馨先生 墓 및 神道碑

조선시대
1기
묘비 1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쌍,
동자석 1쌍, 문인석 1쌍, 신도비 1기
신도비 높이 360cm
석재(화강암)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82-1

지정일 : 1985.09.20
소유자 : 광주이씨 좌의정공파 종중
관리자 : 광주이씨 좌의정공파 종중



1. 한음 이덕형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한음 이덕형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한음 이덕형선생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시대 광해군 대의 문신인 이덕형李德馨(1561~1613)의 묘이다. 본관은 광주廣州이고 자는 명보明甫이며, 호는 한음漢陰이다. 지중추부사 이민성李民聖의 아들이며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의 사위이다. 1580년(선조13) 별시문과에 급제해 승문원承文院의 관원이 되었다. 1588년 이조정랑으로서 일본 사신을 접대하였고 1590년에는 대사간과 대사성을 지냈으며, 이듬해 예조참판이 되어 대제학을 겸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단독으로 일본의 겐소와 회담하여 그들의 침략을 공박하였고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명나라 장군 양호楊鎬를 설복해 서울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1606년 영중추부사가 되었다가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진주사陳奏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영의정이 되었다. 1613년(광해군5) 이이첨李爾瞻이 폐모론廢母論을 주장하자 이항복李恒福과 함께 이를 적극 반대하다가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그 뒤 용진龍津으로 물러가 국사를 걱정하다 병으로 죽었다. 어렸을 때 절친한 이항복과 기발한 장난을 잘해 많은 일화가 전해진다. 저서로 『한음문고漢陰文稿』가 있으며,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이덕형의 묘는 부인 한산이씨韓山李氏와의 합장묘이며 봉분은 단분單墳으로 조성하였다. 봉분 아랫부분에는 최근에 화강암으로 만든 호석護石을 설치하였다. 봉분 바로 앞에는 방부원수方趺圓首 양식의 옛 묘표가 세워져 있다. 묘역에는 문인석·동자석·상석·향로석·망주석 등의 옛 석물이 갖추어져 있다. 문인석은 금관조복金冠朝服을 착용하고 묘역의 좌우에서 시립侍立하고 있다. 신체 비례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며 조각 솜씨 또한 뛰어나다. 묘역은 1984년에 새로 단장하였다.

한편 묘역 아래의 비각에는 방부이수형方趺螭首形의 신도비가 안치되어 있다. 이수의 조각이 매우 생동감있게 표현되었다. 1653년(효종4)에 세운 것으로 비문은 용주 조경龍洲趙絅(1586~1669)이 지었고 글씨는 휴곡 오시복休谷吳始復(1637~?)이 썼으며 전액篆額은 정규상鄭奎祥이 올렸다.

경기도기념물 제90호

허난설헌 묘
許蘭雪軒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1기, 시비 1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장명등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호석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산29-5

지정일 : 1986.05.07
소유자 : 안동김씨 서운관정공파 종중
관리자 : 안동김씨 서운관정공파 종중

조선시대 선조 대의 시인 허난설헌許蘭雪軒(1563~1589)의 묘이다. 허난설헌의 본관은 양천陽川이고, 자는 경번景樊이며, 호는 난설헌이다. 본명은 초희楚姬이고 강원도 강릉江陵 출생이다. 초당 허엽草堂許曄(1517~1580)의 딸이며 하곡 허봉荷谷許篈(1551~1588)과 교산 허균蛟山許筠(1569~1618)의 누이이다. 삼당三唐 시인 중 한 명인 손곡 이달蓀谷李達(1539~1612)에게 시를 배워 일찍부터 그 재능을 인정받았다. 1577년 김성립金誠立(1562~1592)과 혼인하였으나 성격 차이로 가정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였고 아이들이 일찍 요절하는 등 개인적으로 매우 불우한 일생을 보냈다. 조선에 사신으로 왔던 주지번朱之蕃이 중국에서 허난설헌 시집을 발간하였고, 일본에서도 시집이 간행되어 널리 애송되었다.
허난설헌의 묘는 국수봉의 북쪽 구릉에 동향으로 자리잡은 안동김씨安東金氏 세장世葬 묘역에 있다. 초장지初葬地는 묘 앞에 있는 고속도로 구간 내에 있었으나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1985년 지금의 위치로 이장하였다. 묘역에는 1쌍의 문인석을 제외한 모든 석물을 새로 마련하였다. 1978년 봉분의 좌측에 이숭녕李崇寧의 글을 새긴 묘비를 세우고 우측에는 1985년 허난설헌 시비를 세워 놓았다.

허난설헌 묘,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91호

고정리 지석묘
高亭里 支石墓

청동기시대
1기
덮개돌 193×229×83㎝,
받침돌 25~30×95×38~45㎝
석재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609-1

지정일 : 1986.09.07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김포시

<고정리 지석묘>는 금단산 말단부의 경사면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놓여있다. 가장 서쪽에 위치한 1호 지석묘는 장벽쪽 받침돌 2개가 남아있는 탁자식 지석묘이고, 나머지는 2기는 덮개돌이 땅 속에 일부 묻혀 있어 정확한 형태와 구조는 알 수 없다. 1호 지석묘의 덮개돌은 맥석영이며, 받침돌은 변성암을 사용하였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운 부정형이며, 장축은 남-북방향이다. 2개의 받침돌은 판석형의 장벽석으로 장방형이다. 2호 지석묘는 1호 지석묘에서 남동쪽으로 떨어져 배치되어 있다. 덮개돌은 석영암질로 형태는 타원형이다. 3호 지석묘는 1호 지석묘에서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으며, 두 개의 석재로 분리되어 있다. 이들 덮개돌 주변에서는 받침돌로 보이는 석재가 확인되어, 1호와 같은 탁자식 지석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고정리 지석묘는 지상에 4개의 판석형 받침돌로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큰 덮개돌을 올린 '탁자식 지석묘군'으로 생각된다. 또한 돌방의 벽석인 받침돌의 크기가 작고, 덮개돌이 두꺼운 형태인 것으로 보아 중부지역 탁자식 지석묘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구조적 안정성과 뛰어난 축조기술이 돋보이며, 이 지역 지석묘문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1
2

1. 고정리 지석묘, 2016_ 김포시
2. 고정리 지석묘 전경, 2016_ 김포시

경기도기념물 제92호

이순몽장군 묘

李順蒙將軍 墓

조선시대
1기
쌍분, 묘비 1기, 상석 2기, 문인석 2쌍, 호석, 계체석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산45-3

지정일 : 1986.09.07
소유자 : 광주이씨 좌의정공파 종중
관리자 : 영천이씨 종친회

조선전기 무신인 이순몽李順蒙(1386~1449)의 묘이다. 이순몽의 본관은 영천永川이다. 1405년(태종5) 벼슬에 올라 1417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1418년 의용위절제사·동지총제가 되었으며, 1419년(세종1) 우군절제사에 임명되었다. 1419년 우군절제사로 이종무李從茂·우박禹博·박초朴礎 등과 함께 대마도 정벌에 나섰다. 여러 장수들은 모두 패하였으나 이순몽은 김효성金孝誠과 함께 대전과를 거두었다. 1433년 중군절제사가 되어 파저강婆猪江의 야인인 이만주李滿住를 토벌하여 큰 공을 세웠다. 1434년 경상도도절제사, 1447년 영중추원사를 지냈다. 시호는 위양威襄이다.

이순몽의 묘는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무술마을 동편 약 200m지점 구릉의 서편에 조성되어 있다. 부인과 쌍분이며 동냑향이다. 묘역은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3계를 이루고 있는 조선전기의 묘제이다. 상계에는 봉분·호석·묘표·상석을 배치하였고, 중계에는 문인석 2기, 하계에도 문인석 2기를 배치하였다. 봉분은 방형인데, 봉분 아래에 두른 호석護石은 장방형의 돌을 2단으로 쌓았다. 이러한 형태는 고려의 묘제를 이어받은 전형적인 조선초기의 양식이다. 묘역 아래에는 1997년에 새로 세워진 묘비 등이 있다.

묘표는 서쪽 봉분 앞에 1기가 있는데, 비제는 '영중추원사영천이공지묘領中樞院事永川李公之墓'이다. 건립연대는 1509년(중종4)으로 이순몽이 사망한 뒤 약 60년 후에 설립한 것이다. 형태는 좌우 모서리의 각을 죽인 규수방부형奎首方趺形으로 대석과 한 돌로 되어 있다. 마모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별다른 장식을 하지 않은 조선초기의 묘표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

상석은 각 봉분 앞에 1기씩 총 2기가 있다. 이순몽의 봉분 바로 앞에 묘표가 있기 때문에 상석이 계체석 끝단 정도까지 물러난 상태이고, 부인의 봉분 앞에는 묘표가 없어 상석이 봉분쪽으로 거의 붙어 있다.

문인석은 중계에 2기, 하계에 2기 총 4기가 설립되어 쌍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문인석의 형태는 모두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으로 홀을 들고 서 있다. 이목구비는 선각화되어 단순하고, 두 눈과 양 볼, 턱이 앞으로 돌출된 15세기의 전형적인 양식이다. 신체의 형태는 사각주형의 둔중한 형태에 구성요소는 얕게 양각하여 단순화시켰다. 중계 동쪽의 문인석은 복두의 양각이 교차하고 있는 교각복두交脚幞頭의 형태이고, 하계의 문인석은 복두의 양각이 거의 환형으로 곡선화되었다. 특히 하계 문인석은 손을 소매에 가리는 15세기의 한삼汗衫형 소매표현을 시도하였으나 어색하게 마무리되었다. 모두 15세기 후반기의 양식을 보이고 있으나 중계의 문인석과 하계의 문인석의 규모와 재질, 복식 표현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나서 각각 다른 시기에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조선초기의 묘제와 석물 구성을 잘 보존하고 있다. 특히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3계의 구성, 방형의 호석과 규수방부형의 묘표, 4기의 문인석의 배치 등은 15세기 전반 조선 사대부 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으로 주목할 만하다.

2

1

1. 이순몽장군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이순몽장군 묘 문인석(우, 앞),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9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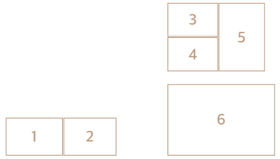
수원 고읍성

水原 古邑城

고려~조선시대
일원
둘레 540m, 높이 2.5m
토성
화성시 기안동 460-91, 457-302, 산2-2외

지정일 : 1986.09.07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화성시

<수원 고읍성>은 고려시대에 축조된 읍성으로 조선시대 1789년(정조13)에 사도세자의 능을 이곳으로 옮기기 전까지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의 수원지역의 행정 중심지였다. 현재 남아있는 성벽은 정조와 그 왕비의 능인 건릉健陵 북쪽 산정상부에서 서쪽 능선을 따라 수원대학교 정문까지 토축으로 길이 540m, 높이 2.5m 정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이 읍성이 세종 대에도 사용되었으며, 둘레는 270보(약 1.2㎞)이고, 성 안에는 두 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읍성이 퇴락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얼마되지 않아 폐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789년(정조13)에 양주 배봉산에 있던 사도세자의 능을 이곳 현륭원顯隆園(지금의 융릉)으로 옮기면서 기존의 읍성구역이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여겨진다.
관아와 객사, 군영, 운금루 등이 발굴조사되었으며 성내 관아터에서 통일신라~조선후기에 이르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자기는 고려전기 해무리굽 청자부터 조선말기의 청화백자까지 확인되고, 기와 또한 고려시대의 어골문기와와 17~18세기 것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는 고읍성의 사용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 수원 고읍성 출토 자기, 2006_ 한신대학교 박물관
2. 수원 고읍성 출토 기와, 2006_ 한신대학교 박물관
3. 관아터 1호 건물지, 1999_ 한신대학교 박물관
4. 성벽 동측 토층, 1999_ 한신대학교 박물관
5. 현륭원 재실터 남측 담장, 1999_ 한신대학교 박물관
6. 수원 고읍성 성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94호

수석리 토성

水石里 土城

삼국시대
일원
둘레 145m, 높이 7~7.6m
지정구역 34,628㎡
토성
남양주시 수석동 산2-2

지정일 : 1986.09.07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남양주시

<수석리 토성>은 남양주시 수석동에 있는 '토미재' 또는 '퇴미재' 라고 불리는 해발 83m의 구릉에 위치한다. 정상을 반월형으로 둘러싼 토루土樓는 둘레가 145m로 보루 정도의 규모에 해당된다.
토성내부에서는 서쪽으로 아차산, 남쪽으로 이성산과 남한산, 동쪽으로 천마산, 북쪽으로 수락산이, 그리고 한강을 건너는 미음나루가 한눈에 들어온다. 입지유형으로 보아 한강을 왕래하는 나루를 지키는 성곽으로 판단된다.
수석리 토성 대부분의 성벽은 삭토법으로, 성벽의 낮은 곳은 판축법으로 다져서 쌓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벽의 잔존 높이는 7m에서 7.6m를 넘는 곳도 있으며, 약 70°의 경사를 유지하고 있다. 성 내부에는 중간이 오목한 고대高臺가 있어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던 자리로 추정되기도 하였으나,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실시한 발굴조사에서는 성과 관련된 시설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습유물은 무문토기편, 회청색 경질 토기편 기와편 백자편, 그물추 등이 있으나 산포밀도는 높은 편이 아니다. 토기 가운데 격자문이 타날된 것도 있으나 대부분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유물들로 백제계 유물로 판단할 수 있는 유물은 극히 적다.

1 2 3 4

1·2. 수석리 토성 전경, 2008_ 국립중앙박물관
3·4. 수석리 토성,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이곳에서 멀지 않은 한강변 구릉지대에는 비슷한 양식의 성터나 취락이 많이 분포하는데, 하남 미사리 유적河南 渼沙里 遺蹟과 몽촌토성夢村土城 등 인접한 유적과 마찬가지로 백제 초기의 중심적 취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출토유물의 빈도가 극히 낮으므로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수석리 토성은 백제계의 초축으로 보기 보다는 이후에 나루터를 지키는 작은 요새지였다가 임진왜란 당시 한강 사수를 위해 구축한 토성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수석리 토성에는 선사시대부터 한강유역의 사람들이 집단 거주한 흔적이 남아있고, 오랜 기간 한강변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경기도기념물 제95호

신립장군 묘

申砬將軍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상석, 향로석, 혼유석,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동자석 1쌍, 묘갈 1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산15-1

지정일 : 1986.05.07
소유자 : 평산신씨 종친회
관리자 : 평산신씨 종친회

조선 선조 대의 무신 신립申砬(1546~1592)의 묘이다. 신립의 본관은 평산平山이고 자는 입지立之이다. 이조판서 신상申鏘의 손자이고 생원 신화국申華國의 아들이다. 1567년(명종22)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제수받고 도총관과 진주판관을 지냈으며 1583년(선조16) 온성부사로 있을 때 야인野人들의 침입을 여러 번 물리쳐 육진六鎭을 지켜냈다. 이어 평안도병마절도사를 거쳐 한성부판윤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팔도도순변사八道都巡邊使로 임명되어 충주 탄금대에서 왜군과 결전을 벌였으나 참패를 당하고 남한강에 투신해 자결하였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신립의 묘역에는 혼유석·상석·혼유석·고석·망주석·동자석·문인석 등 옛 석물들이 남아있다. 봉분 좌측에는 1688년(숙종14) 건립된 묘갈이 남아 있다. 옥개석의 용마루에는 두 마리의 용이 올라가 있으며 방부에는 복련覆蓮과 당초문唐草紋이 조각되어 있다. 백색 대리석의 비신 전면에는 피장자의 신분을 큰 글씨로 썼고 뒷면에는 묘갈문墓碣文을 새겼다. 그러나 전액을 쓰지는 않았다. 묘갈문은 우암 송시열尤庵宋時烈이 짓고 부제학 신익상申翼相이 글씨를 썼다.

1 2 3 4 5

1. 신립장군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신립장군 묘갈,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신립장군 묘 동자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신립장군 묘 망주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신립장군 묘 문인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96호

이준경선생 묘

李浚慶先生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1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장명등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신도비 1기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산35-1

지정일 : 1987.02.12
소유자 : 광주이씨 좌의정공파 종중
관리자 : 광주이씨 종친회

삼정승을 역임한 이준경李浚慶(1499~1572)의 묘이다. 이준경의 본관은 광주廣州이고, 자는 원길原吉, 호는 동고東皐·남당南堂·홍련거사紅蓮居士·연방노인蓮坊老人이다. 이준경은 1504년(연산군10) 갑자사화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연좌되어 6세의 어린 나이로 괴산에 유배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으로 풀려났다. 기묘사화 때 파직당하였다가, 1537년(중종32) 다시 등용되어 한성부판윤·대사헌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1550년(명종5) 영의정 이기李芑의 모함으로 보은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석방되어 지충추부사가 되었다. 이후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1565년(명종20)에 영의정에 올랐다. 저서로는 『동고유고東皐遺稿』, 『조선풍속朝鮮風俗』 등이 있다.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이준경의 묘는 청계산 줄기가 서북으로 뻗은 구릉에 북서향하여 있다. 봉분은 단분으로 정경부인 풍산김씨豊山金氏와의 합장묘이다. 묘역은 크게 3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계에는 봉분·호석·망주석 2기, 중계에는 장명등이 있고, 하계에는 석물이 없다. 석인·묘표·상석·고석·향로석 등은 현대에 새로 추가한 석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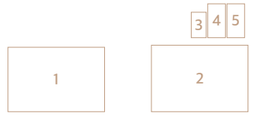
봉분 아래에는 장대석을 이용하여 호석護石을 둘렀다. 형태는 원형이며, 별도의 지대석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망주석은 봉분과 유독 근접하여 배치가 어색하다. 형태는 팔각형태이며, 대석은 별도로 제작하여 끼우는 방식이다. 원수圓首는 길고 뾰족하게 조성하였고, 운두雲頭에는 여의앙련을 조각하였다. 염의簾衣와 주신柱身에는 장식을 넣지 않았다.

봉분 앞의 묘표는 근래에 새로 세운 것으로, 원래의 묘표는 1585년(선조18)에 건립하였다. 비문은 노수신盧守愼(1515~1590)이 찬撰한 것인데, 마모가 심하여 현재는 수원대학교 박물관에 이관되어 있다.

장명등은 사각형이며 개석蓋石과 체석體石으로 분리되어 있다. 정자석頂子石은 2단의 원수圓首가 있으며 아래로는 연엽蓮葉을 장식하였다. 2단의 원수장식은 16세기 장명등의 특징이다. 지붕의 합각면이 4면에 있으며, 추녀마루는 완만하고 처마는 두껍게 조각하였다. 화사석火舍石과 대석臺石은 모두 한 돌로 이루어졌으며 화창은 중앙부에 작은 방형으로 뚫었다. 상대석에는 안상문을 음각하고, 중대와 하대에는 당초문을 얇게 양각하였으며 하단은 호족형으로 마감하였다. 화사석과 대석의 좌우너비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균형감이 다소 떨어지나 16세기 중반기의 특징을 잘 반영하였다.

신도비는 묘역 입구에 위치하는데, 1984년에 새로 건립한 것이다. 원래의 신도비는 1581년(선조14)에 노수신盧守愼이 찬하여 세워졌는데 임진왜란 때 파손되어 1962년 후손들이 중건하였고, 지금의 비는 1984년에 다시 조성한 것이다. 비문은 1581년 처음 신도비가 세워질 때 노수신이 지은 것으로 이준경의 약력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석물의 위치변동 및 묘제의 변동이 있으며, 옛 석물과 현대에 추보한 석물이 함께 잔존하고 있다.



1. 이준경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이준경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이준경선생 묘 장명등,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이준경선생 묘 망주석(우),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이준경선생 묘 망주석(좌),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97호

노고산 독재동 추사필적 암각문

老姑山 篤才洞 秋史筆蹟 岩刻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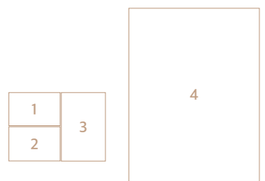
조선시대
일원(6점)
몽재 26×46cm
만의와 28×19cm
가탁천 18×17cm
미수선생장구지소 15×12cm
석재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29

지정일 : 1987.02.12
소유자 : 양주시
관리자 : 양주시

<노고산 독재동 추사필적 암각문>은 노고산 곡릉천 계곡의 자연암반 9곳에 산재되어 있는 암각문을 가리킨다. 암각문의 내용은 몽재夢齋, 만의와萬懿窩, 가탁천可濯泉, 미수선생장구지소眉叟先生杖屨之所 등이다.

높이 102cm, 너비300cm, 두께 323cm 가량의 화강암에 '몽재'라는 명문이 있는데 말미에 추사秋史라 새겨져 있어 조선후기 문인서예가 추사 김정희秋史金正喜(1786~1856)의 필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몽재와 그 아래 새겨진 간지干支의 의미는 미상이다. 이곳에 추사의 필적이 어떤 이유로 남겨진 것인지 알 수 없고, 몽재가 추사체의 전형이라 말하긴 어렵지만 현전하는 김정희의 암각문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희의 서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밖에 '미수선생장구지소眉叟先生杖屨之所'는 미수 허목眉叟許穆(1595~1682)이 지팡이를 놓았던 장소를 뜻하며 좌우에 이시선李時善과 임술壬戌, 독재동篤才洞 등의 미수풍의 전서가 있어 제자 이시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가탁천可濯泉·유마폭流磨瀑·충서근忠恕勤·만의와萬懿窩 등의 여러 사람의 필체가 있으나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



1. 추사 필적 암각서, 1999_ 양주시
2. 기타 인물 암각문, 2005_ 양주시
3. 미수 허목 필적 암각서, 1999_ 양주시
4. 노고산 독재동 추사필적 암각문,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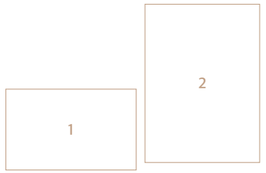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98호

김자수선생 묘

金自粹先生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장명등 1기, 석양 1쌍,
망주석 1쌍, 문인석 2쌍, 신도비 1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120-1

지정일 : 1988.03.21
소유자 : 경주김씨 상촌공파 종중
관리자 : 경주김씨 상촌공파 종중



1. 김자수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김자수선생 묘역,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고려시대 유신遺臣인 김자수金自粹(1350~1413)의 묘이다. 김자수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순중純仲이며, 호는 상촌桑村이다. 통례문부사通禮門副使 지제고知制誥를 지낸 김오金珸의 아들이다. 1374년(공민왕23)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거쳐 충청도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에 이르렀다. 이후 고려 말의 정치 상황이 혼란해지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해서 두문불출하였다. 조선 개국후 태종이 형조판서를 제수하자 이를 거절하고 고려의 망국을 비관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소에 포은 정몽주鄭夢周(1337~1392), 목은 이색李穡(1328~1396)과 서로 친하게 지냈으며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나라에서 효자정문孝子旌門을 내려 표창하였다.

김자수의 묘는 유명에 의해 그가 자결한 현재의 장소에 유해를 안장하였다고 전한다. 묘역의 봉분은 상하분上下墳으로 구성되어 있고 망주석 1쌍과 문인석 2쌍의 옛 석물이 갖추어져 있다. 양식상 안쪽의 문인석 1쌍은 조선 초에, 바깥쪽의 문인석 1쌍은 17세기경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석물은 모두 근래에 마련한 것이며 묘비는 세우지 않았다.

묘역 아래에는 방부개석方趺蓋石 양식의 신도비가 있다. 오석烏石을 사용한 비신에는 10대 외손 이조참판 채유후蔡裕後가 비문을 짓고 전前 판돈령부사 윤용구尹用求가 쓴 글씨를 새겼다. 전액은 17대 손 예조참판 김문제金文濟가 올렸다. 한편 신도비 앞쪽에는 비신과 이수만 남아 있는 옛 신도비가 놓여져 있는데 땅에 묻었던 것을 발굴하여 현재 위치에 놓은 것으로 전한다. 비문은 완전 마멸되어 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기념물 제99호

김상용선생 묘

金尙容先生 墓

조선시대
일원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계체석, 신도비 1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산6

지정일 : 1987.02.12
소유자 : 안동김씨 종중
관리자 : 안동김씨 종중

우의정 김상용金尙容(1561~1637)의 묘이다. 김상용의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경택景擇, 호는 선원仙源·풍계楓溪·계옹溪翁이다. 김번金璠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군수 김생해金生海이고, 아버지는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 김극효金克孝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강화로 피난갔다가 정철의 종사관이 되어 왜군 토벌과 명나라 군사 접대에 공을 세워 1598년 승지에 발탁되었다. 인조반정 후에 병조·예조·이조의 판서를 역임하였으며, 정묘호란 때는 유도대장으로서 서울을 지켰다. 1632년(인조10) 우의정에 발탁되었으나 늙음을 이유로 사퇴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왕족을 수행하여 강화도로 피난하였다가 청나라 군대가 성을 함락하자 성의 남문루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국하였다. 시와 글씨에 뛰어났으며, 문집으로는 『선원유고仙源遺稿』7권이 전한다. 1758년(영조34)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김상용의 묘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석실마을의 안동김씨 묘역에 위치하고 있다. 정경부인 안동권씨安東權氏와 합장 단묘이며 동남향으로 위치하여 있다. 묘역은 크게 2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계에는 묘표, 혼유석, 상석이 있고, 하계에는 향로석과 문인석 2기, 망주석 2기가 있다. 묘역입구에는 신도비가 있으며, 묘역 아래에는 충효문이 세워져 있다.

신도비는 석실마을 묘역 입구에 남서향하여 있다. 건립연대는 1647년(인조25)이고, 비문은 아우인 좌의정 김상헌金尙憲(1570~1652)이 찬하고, 의금부도사 류시정柳時定(1596~1658)이 썼으며, 후손 대사간 김광현金光鉉이 전액을 썼다. 전액은 '충신의정부우의정선원선생김공신도비명忠臣議政府右議政仙源先生金公神道碑銘'이다.

형태는 이수방부형螭首方趺形이다. 이수에는 쌍룡이 보주를 쥔 모습을 좌우대칭으로 생동감있게 조각하였다. 두 마리 모두 입을 벌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으며, 유난히 긴 콧수염은 뒤튼 용의 몸체와 함께 S자로 강한 굴곡을 이루고 있다. 얼굴과 몸체의 비중이 거의 유사하여 얼굴이 강조되던 16세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조각의 고저가 비교적 균일하다. 전체적으로 대석이 커서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세부조각은 정밀하다. 아버지인 김극효 신도비와 같은 해인 164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형태와 양식이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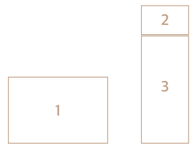
묘표는 상계의 봉분 정면 앞에 있는데, 정확한 건립연대에 대한 음기가 없다. 머릿돌에는 구름에 둘러싸인 달문양을 앞뒤 같은 구성으로 넣었으며 구름문양은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묘표 앞으로 혼유석과 상석을 두었다. 상석은 백색의 정제된 돌로 매끈하게 물손질 가공을 한 상태이다. 앞부분을 상계의 계체석에 걸쳐 놓았으며 모서리는 모두 모줄임을 하였다. 향로석은 장방형태로, 상단부는 두꺼운 천판의 형태이고, 하단부는 호족형으로 조각하였다.

망주석은 하계에 2기를 배치하였다. 형태는 8각형이며, 대석까지 모두 한돌로 만들었다. 원수의 꼭대기는 유독 뾰족하게 조각하였고, 운두雲頭에는 여의앙련을 얕게 새겼다. 주신柱身에는 볼록한 손잡이 형태의 귀耳가 조각되어 있고 배부분에는 두툼한 띠를 둘렀다. 17세기 세호細虎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모습이다.

문인석은 하계의 망주석 아래에 2기를 배치하였다. 형태는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이다. 복두를 포함한 얼굴부분은 크게 강조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신체비례가 안정적이고 조각솜씨가 우수하다. 세부적으로 복두의 양 끈, 뒷면 요대, U자형의 옷주름, 어깨의 둥근 면처리 등은 유연하면서도 섬세한 조각솜씨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17세기 전반기의 옛 석물과 배치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남양주 석실마을의 안동김씨 묘역의 공통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17세기 중반기를 대표할 수 있는 묘역이다.



1. 김상용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김상용선생 신도비 이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김상용선생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00호

김상헌선생 묘

金尙憲先生 墓

조선시대
일원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문인석 1쌍, 신도비 1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산5

지정일 : 1987.02.12
소유자 : 안동김씨 종중
관리자 : 안동김씨 종중

조선시대 문인인 문정공 김상헌文正公金尙憲(1570~1652)의 묘이다. 김상헌은 1590년 진사에 합격하고, 1596년(선조29)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예조좌랑·사간원 정언·홍문관 교리를 거쳐 1611년(광해군3)에 통정대부로 승진되어 승정원 승지가 되었다. 1636년(인조14)에 공조판서와 양관(홍문관·예문관)의 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병자호란에서 청나라를 배척하는 척화斥和를 주장하여 1640년(인조18) 청나라 심양에 압송되었다. 1645년(인조23) 소현세자와 함께 귀국하여 이듬해 의정부 좌의정에 임명되었다. 곧 사직한 후 수년 동안 연달아 왕의 임명이 있었으나 번번이 상소하여 사양하였다. 사망 후 1653년(효종4)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김상헌의 묘역은 얕은 사성莎城 아래 2단으로 구획하고, 상단에 용미龍尾가 달린 봉분과 비석 및 상석을 배치했다. 봉분 정면의 비석은 운수방부형雲首方趺形으로 비신과 한 돌로 제작된 비수碑首는 해와 달 주위에 구름이 빼곡하게 조각되어 있다. 대석은 연판과 안상으로 장식했고 비음에 글씨는 없으며, 1669년(현종10)에 건립했다. 비석과 상석 사이에는 혼유석이 있고, 하전석 위에 바로 놓인 상석은 비석과 같이 백색 세립화강암으로 제작되었다. 향로석은 사각으로 운족雲足이 표현되었으며 조각이 뚜렷하고 비례감이 좋다. 하단의 동측에는 중앙을 향하여 옥개방부형 비석 1기가 더 있다. 1671년(현종12)에 건립된 것으로,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송준길宋浚吉이 썼다. 옥개석은 단순한 형태의 팔작지붕이고 대석에는 윗면에 연판蓮瓣, 측면에 안상과 당초문이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다. 문인석 1쌍은 복두공복형으로 복두의 각은 전각展脚이다. 신체 비례가 자연스러우며, 세부의 정교한 표현은 없으나 형태가 분명하고 입체감이 살아 있는 우수한 조각이다.

1
2

1. 김상헌선생 묘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김상헌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01호

고송정지(탄옹고지)

枯松亭址(炭翁古址)

조선시대
일원
정자 2×2칸
목재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산58

지정일 : 1987.02.12
소유자 : 김효록
관리자 : 김호권

<고송정지>는 화정동에 있는 조선후기의 정자이다. 세조 때 단종 복위 모의에 가담했던 김문기金文起(1444~?)와 그의 아들 김현석金玄錫이 참화를 당하자 손자인 김충주金忠柱가 도성을 탈출하여 여러 곳을 떠돌다가 정착하여 살던 곳이다. 김충주는 이곳에서 숯을 구워 연명하면서 스스로 호를 '탄옹炭翁'이라고 하였다. 그는 매일 산 위의 바위에 올라 단종의 묘가 있는 영월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주변의 소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한다. 그 뒤 1827년(순조27)에 김충주의 9세 손인 진사 김처일金處一이 그 자리에 정자를 짓고 '고송정'이라고 하였다. 이 정자를 중심으로 일대를 '고송정지' 혹은 '탄옹고지炭翁古地'라고 한다. 지금도 정자 좌측후면에 가로 48cm 세로 93cm의 자연석에 면을 다듬어 '탄옹고지'라고 새긴 암각명문이 있다. 정자의 동쪽에는 그 당시에 심었다는 높이 8m 둘레 2m 향나무가 있으며, 고송정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그가 단종을 그리며 울던 망월암望越岩이라는 바위가 있다.

현존하는 정자는 김처일이 세웠던 정자가 사라진 후 1936년에 후손들이 세운 것으로 1992년에 전면 보수하였다. 사방이 개방된 형식으로 정면 2칸, 측면 2칸의 평면 위에 익공식 굴도리집을 짓고 겹처마를 두른 팔작지붕을 올렸다. 사각형 초석위에 사각 기둥을 올렸으며 마루는 우물마루이다. 천정은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천정 가운데에 우물천장을 두었으며 단청은 모로단청을 하였다. 내부에 고송정 중수기를 적은 6개의 목판이 있다.

1
2

1. 고송정지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고송정지,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02호

충목단
忠穆壇

조선시대
일원
유허비 175×68×14cm
설단비 80×26×13cm
석재(오석)
포천시 소흘읍 소흘로116번길 13

지정일 : 1987.02.12
소유자 : 포천시 유림
관리자 : 포천시 유림

1
2 3

1. 충목단 전경, 2009_ 포천시
2. 충목단 비석, 2012_ 포천시
3. 유허비 배면, 2012_ 포천시

<충목단>은 세조에게 폐위廢位당한 단종(1441~1457)을 복위시키려다 실패하여 죽음을 당한 사육신死六臣 중 한 명인 충목공 유응부忠穆公兪應孚(?~1456)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제단이다. 당초 1746년(영조22) 비단碑壇를 봉안하고 유허비遺墟碑를 세울 때에는 충목공의 단비만 있었기 때문에 충목단忠穆壇이라 하였다. 홍선대원군 때 서원철폐령에 의해 1864년(고종1) 훼철되었다가, 1890년(고종27) 복원하며 제단 좌측에 한남군 이어漢南君李㻗(?~1457), 그리고 우측에 병사兵使 양치楊治(?~1456)의 비단을 추가 배향하였다.

충목단은 비각 1동과 신위를 모신 비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기념비·정자·표석標石 등이 위치한다. 충목단 정면 중앙에는 일각문이 설치되어 있고, 후면에 접하여 구성된 비단 내에 3기의 비석을 세웠다. 비단은 외벌대로 단을 쌓았으며, 오른쪽부터 병사 양치선생, 총관공 유응부선생, 한남군 이어선생 선생의 순으로 모셨다. 각각의 비석 앞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상석床石이 설치되어 있다. 유허비각遺墟碑閣은 유허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충목단 좌측에 위치하며, 정면·측면 각 1칸 규모인 정방형의 홑처마 사모지붕 건물이다. 정면에는 출입을 위한 판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판문의 양 옆과 유허비각의 좌·우측면, 배면에는 모두 홍살이 설치되어 있고, 홍살 하부는 심벽으로 되어있다. 자연석 기단에 화강석 초석을 사용하고 공포는 익공이다. 유허비는 지대석과 좌대석을 설치한 위에 상부를 둥글게 마무리한 비신을 세운 형태로, 비신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으며 배면의 비문에는 '총관유응부선생'의 일생과 유허비가 1746년(영조22)에 건립되었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경기도기념물 제103호

조남리 지석묘
鳥南里 支石墓

청동기시대
1기
덮개돌 길이 418cm
받침돌 남쪽 길이 233cm
　　북쪽 길이 246cm
석재
시흥시 조남동 480-6

지정일 : 1987.02.12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시흥시

<조남리 지석묘>는 서해안에 인접한 구릉사이 곡부 완사면에 입지한 지석묘이다. 1999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 된 후 본래의 자리에 복원되었다.

지석묘의 형태는 지상에 받침돌로 돌방을 만들고 덮개돌을 덮은 탁자식 지석묘이다. 덮개돌은 편마암계통의 석재를 사용하였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향이다. 덮개돌 윗면에는 자연적인 현상의 균열이 다수 관찰되고, 측면은 다듬은 흔적이 있는데, 남동쪽과 남서쪽 모서리는 최근에 깨진 자국으로 확인된다. 덮개돌의 윗면에는 성혈이 확인되는데, 남동쪽 가장자리에는 21개, 북서쪽 가장자리에는 2개가 새겨져 있다. 성혈의 단면은 반구형이 14개, 팽이형이 5개, 원추형이 4개이다. 받침돌은 남쪽과 북쪽의 것은 편암 계통의 석재를 사용하였고, 단면 직사각형에 가깝다. 동쪽의 받침돌은 나머지 두 개의 것과 암질이 다르고 놓인 방향도 흐트러져 있어 후대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후대의 교란이나 도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남리 지석묘는 받침돌의 크기가 작고, 덮개돌이 두껍고 웅장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경기지역에 분포하는 탁자식 지석묘들의 특징 중 하나로서 지석묘의 지역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전체적으로 덮개돌의 평편한 면을 윗면으로 사용하여 수평을 맞춘 구조로서 구조적 안정성과 뛰어난 축조기술이 돋보이며, 이 지역 지석묘문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1 2
3

1. 조남리 지석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조남리 지석묘, 1990_ 한양대학교박물관
3. 조남리 지석묘 발굴조사, 1990_ 한양대학교박물관

경기도기념물 제104호

오윤겸선생 묘

吳允謙先生 墓

조선시대
1기
쌍분, 상석 1기, 묘비 1기, 향로석 1기, 동자석 1쌍,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산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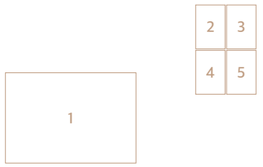
지정일 : 1988.03.21
소유자 : 해주오씨 추탄공파 종중
관리자 : 해주오씨 추탄공파 종중

삼정승을 지낸 오윤겸吳允謙(1559~1636)의 묘이다. 오윤겸의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자는 여익汝益, 호는 추탄楸灘·토당土塘이다. 1597년 문과에 급제하여 충청도관찰사, 강원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617년(광해군9)에는 일본에 가서 임진왜란 때 잡혀갔던 포로 150여명을 데리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대사헌에 임명되고, 이어 이조·형조·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626년 우의정, 1627년(인조5) 좌의정을 거쳐 1628년 70세의 나이에 영의정에 올랐다. 저서로는 시문과 소차를 모은 『추탄문집秋灘文集』을 비롯해 『동사일록東槎日錄』, 『해사조천일록海槎朝天日錄』 등이 전한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오윤겸 묘는 오산리 해주오씨 묘역 능선 골짜기를 따라 서북향으로 위치하여 있다. 부인 경주이씨慶州李氏와의 쌍묘의 형태이고, 1986년에 묘역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봉분 둘레에 호석護石을 둘렀다. 묘역은 2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상계에 봉분·상석을 배치하고, 하계에는 묘갈·향로석·동자석 2기·망주석 2기·문인석 2기를 배치하였다.

하계의 서쪽에는 1647년(인조25)에 건립한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의 묘갈이 있다. 비문은 좌의정 김상헌金尙憲(1570~1652)이 짓고, 의정부좌참찬 송준길宋浚吉(1606~1672)이 썼다. 대석의 상단에는 단순한 연판문을, 앞·뒷면에는 당초문을 조각하였다. 묘갈의 총 높이는 약 258cm이다.

상석과 혼유석은 17세기 이후 유행한 물손질을 한 형태로 표면이 매끄럽다. 상석의 앞부분은 계체석의 끝에 걸치면서 아래에 별도의 장대석을 받침으로 하였다. 향로석은 17세기 전형적인 육각형의 향좌아香坐兒 형태로 균형이 잘 맞고 정갈하다. 다리는 호족형으로 하단이 매몰된 형태이다.



1. 오윤겸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오윤겸선생 묘 동자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오윤겸선생 묘 동자석(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오윤겸선생 묘 문인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오윤겸선생 묘 문인석(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동자석은 상석의 좌우에 시립하여 2기를 배치하였다. 머리는 쌍계형이고 두손은 가슴앞에 모아 작은 지물을 들고 있는 형상이다. 얼굴은 통통하게 살이 올라 원만하고 살짝 미소를 짓고 있으며, 신체표현은 사각형태이고 직선적이다. 소매가 좁은 포袍를 입고 있으며 포 하단에는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손 아래로 허리띠의 긴 끈을 음각하였다. 뒷면 어깨에는 운견雲肩을 허리에는 포두를 음각하였는데, 운견의 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옆면 어깨를 걸쳐 흐른 긴 띠가 옆면 하단까지 길게 드러워졌다. 17세기 전반기 쌍계형 동자석의 대표적인 형상이다.

망주석은 동자석과 문인석 사이에 2기를 배치하였는데, 서쪽의 경우 묘갈에 약간 가려서 어색한 배치이다. 망주석은 전체 높이가 85cm정도여서 규모가 작고 주신柱身이 매우 짧아 어색한 비례를 보이고 있다. 운두雲頭에는 여의앙련如意仰蓮을 조각하였고, 주신에는 귀耳가 있는데, 마모가 많이 진행되어 형태가 명확하지 않다.

문인석은 하계의 가장 남쪽에 2기를 배치하였다. 형태는 금관조복형金冠朝服形이다. 안면표현은 동자석과 유사하게 원만하면서 평면적이고, 목이 가슴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엉거주춤한 자세이다. 금관을 포함한 머리의 비율이 신체의 약 1:2.5 정도인 점, 조복 앞면의 폐슬과 뒷면의 후수를 선단형태로 간략하게 음각한 점, 형식적으로 일정한 간격의 옷주름을 표현한 점 등 전체적으로 17세기 중반 사대부가의 묘역 석물의 원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기념물 제105호

김균선생 묘

金稛先生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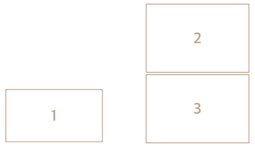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1기, 장명등 1기, 문인석 2쌍, 석양 1쌍, 향로석 1기,
망주석 1쌍, 신도비 1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89-1

지정일 : 1988.03.21
소유자 : 경주김씨 계림공파 종중
관리자 : 경주김씨 계림공파 종중

조선시대 태조 대의 문신 김균金稛(?~1398)의 묘이다. 예의판서禮儀判書 김기연金起淵의 손자이자 증찬화공신贈贊化功臣 김지윤金智允의 아들이다. 공양왕 초기에 밀직부사를 지냈으며 조선 개국에 참가하여 개국공신 3등에 녹훈되고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에 봉해졌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의정부좌찬성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제숙齊肅이다.

김균선생 묘는 오랫동안 묘가 실전失傳되었다가 1799년(정조23) 13대손 김사목金思穆(1740~1829)이 광주유수廣州留守로 있을 때 고로故老들에게 수소문하여 묘를 다시 찾고 묘역을 개축改築하였다. 묘역은 상하분上下墳으로 조성하고 봉분마다 방형의 호석을 둘렀으며 묘역 주위에는 곡장을 쌓아 묘소를 보호하고 있다. 망주석 1쌍과 문인석 2쌍의 옛 석물이 있으며 장명등과 석양은 최근에 추가로 설치하였다. 봉분 좌측에 세워져 있는 방부원수方趺圓首 양식의 묘표는 비신의 위쪽이 아래쪽보다 넓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다. 비신의 앞면에는 피장자의 신분을 쓰고 뒷면에는 음기陰記를 새겼다.

김균의 묘역 동쪽 아래에는 1905년(광무30)에 건립된 신도비가 서 있다. 사모지붕 형태의 옥개석과 무문無紋의 방부를 갖추었으며 정방형 비신의 4면에 비문을 새겨 놓았다. 비문은 성균관좨주成均館祭酒 덕은 송병선德殷宋秉璿이 짓고 판돈령부사 해평 윤용구海平尹用求가 글씨를 썼으며 전前 비서원승秘書院丞 안동 김녕한安東金甯漢이 전액을 올렸다.



1. 김균선생 묘 석물(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3. 김균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06호

윤곤선생 묘

尹坤先生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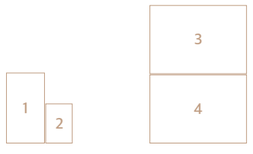
조선시대
1기
단분, 비석 2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장명등 1기,
문인석 1쌍, 계체석, 호석, 신도비 1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산81-1

지정일 : 1987.02.12
소유자 : 파평윤씨 소청공파 종중
관리자 : 파평윤씨 소청공파 종중

조선초기의 문신 소정공 윤곤昭靖公尹坤(?~1422)의 묘이다. 윤곤은 고려 말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1400년(정종2) 제2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왔다. 1401년(태종1)에 우군 동지총제로서 추충익대 좌명공신 3등에 오르고 파평군坡平君으로 봉해졌다. 1419년(세종1)에 평안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 이조 판서에 오르고 우참찬을 역임하였다. 사촌누이가 세조의 비 정희왕후貞熹王后이다.

묘역은 3단으로 조성되어 있고 사성莎城이 감싸고 있다. 근래에 봉분의 용미龍尾를 자르고 사군자四君子를 조각한 원형의 호석護石을 둘렀다. 상계에는 봉분과 비석2기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옥개방부형屋蓋方趺形 비석은 1869년(고종6) 10월에 세웠다는 명문이 있다. 봉분 앞 화강암 비석은 대석과 한 돌로 만들어진 규수방부형圭首方趺形 비석으로 비음에 글씨는 없다. 상단을 양쪽으로 비스듬히 깎은 규수방부형圭首方趺形이고 비음에 글씨는 없다. 상계 계체석에 걸쳐서 상석구성물이 배치되어 있고 중계에는 문인석과 장명등이 있으며, 하계는 비었다. 상석과 향로석 및 장명등은 근래에 교체된 것이다. 장명등 좌우에 문인석이 있는데 복두공복幞頭公服에 교각복두交脚幞頭를 쓰고 있다. 몸체는 가늘지만 유려하고 홀을 잡은 손은 소매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볼 아래 팔자주름이 깊게 패인 모습을 하고 있다. 동측 후면의 산신석은 원래 상석을 이설한 것으로 보인다.

묘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신도비가 있는데, 화강암 팔작지붕형 가첨석과 비신 및 대석으로 구성되었고, 총 높이는 295cm이다. 비문은 윤상익尹相翊이 짓고 윤조영尹祖榮이 글씨를 썼으며 전액篆額은 윤용식尹容植이 썼다.



1. 윤곤선생 묘 옥개방부형 비석,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윤곤선생 묘 규수방부형 비석,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4. 윤곤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08호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

甲串나루 船着場 石築路

조선시대
2개로
김포방향 40x12x1.2m
강화방향 35x35~50x1.5m
석재(화강암 및 편마암)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263-10외

지정일 : 1988.03.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김포시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는 월곶면 성동리와 강화군 갑곶리 사이를 연결한 통행로이다. '갑곶'이라는 지명은 이 곳이 건너편 강기슭까지 거리가 좁고 수심이 얕아 몽골군의 침입으로 고려 고종이 강화도로 피난갈 때 갑옷을 쌓아 건널 수 있었다는데서 유래한다. 석축로는 조선시대에 축조한 것으로 1419년(세종1) 이조판서를 지낸 박신朴信이 재산을 내놓아 마을주민과 만들었다. 1627년(인조5) 정묘호란 때 인조가 건넌 길이고, 1636년(인조14) 병자호란 때는 봉림대군(鳳林君으로 변경)이 외적의 침입을 막은 곳이며, 1866년(고종3)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장소이다.
1900년대까지 강화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행로였으나, 일제강점기에 새 나루터가 생겨 인적이 드물어지던 중 1970년에 강화대교가 개통되면서 폐쇄되었다. 이후 제방을 쌓아 석축로가 물에 잠겼으며, 석재는 제방이나 새 나루터 등으로 옮겨져 사용되거나 없어지기도 했다. 석축 부재는 바닷물이 높을 때는 물속에 묻히고, 물이 빠졌을 때 완만한 경사의 석축로가 보인다. 석축로 바깥은 육면체로 잘 다듬은 화강석을 축대처럼 가지런하게 쌓았고, 바닥은 네모난 화강석으로 불규칙하게 채워 윗면을 고르게 하였다.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는 강화대교 검문소 뒤편에 강 안쪽에 있고, 군부대 해안 철책선 안쪽이라 접근이 어렵다.

1
2

1.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 전경, 2015_ 김포시
2.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 2015_ 김포시

경기도기념물 제110호

박진장군 묘

朴晋將軍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상석 1기, 묘비 1기, 묘비 비좌 1기, 향로석 1기, 혼유석 1기, 문인석 1쌍, 계체석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산149-4

지정일 : 1987.02.12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밀양박씨 종중

조선시대 선조 대의 무신 박진朴晋(1560~1597)의 묘이다.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자는 명부明夫이며 박인수朴麟壽의 아들이다. 1584년(선조17) 무과 급제하고 비변사備邊司에서 근무하였다. 1589년 심수경沈守慶의 천거로 등용되어 선전관을 거쳐 1592년 밀양부사가 되었다. 같은 해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밀양의 작원鵲院에서 적을 맞아 싸우다 패해 포위되자, 밀양부密陽府를 소각하고 후퇴하였다. 이후 경상좌도병마절도사에 임명되어 나머지 병사를 수습하고, 군사를 나누어 소규모의 전투를 수행하였다.
같은해 8월 별장 권응수權應銖를 파견하고, 영천永川의 의병을 지휘하게 하여 영천성을 탈환하였다. 이어서 군사를 재정비하고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를 사용해 경주성慶州城도 탈환하였다. 이와 같은 전공으로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1593년에 독포사督捕使로 밀양과 울산 등지에서도 전과를 올렸고 1594년 경상우도병마절도사와 1596년 황해도병마절도사를 거쳐 참판에 이르렀다. 사후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의열毅烈이다.
박진의 묘는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봉분 바로 앞에는 묘표의 비신碑身을 받치던 화강암제 방부方趺만 놓여져 있다. 비신은 여의치 못해 세우지 못한 듯 하다. 묘역에는 상석, 혼유석,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이 갖추어져 있다. 금관조복金冠朝服을 착용한 문인석의 얼굴이 매우 입체감 있게 표현되었다. 향로석은 최근에 새로 마련한 것이다. 묘역의 오른쪽에는 1987년에 후손이 조성한 방부이수方趺螭首 양식의 묘비가 서 있다.

박진장군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11호

망월사지
望月寺址

조선시대
일원
지정구역 11,620㎡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680

지정일 : 1988.12.12
소유자 : 망월사
관리자 : 망월사

1
2

1. 망월사지, 1990년 이전_ 문화재청
2. 망월사지, 2012_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망월사지>는 남한산성 내 망월봉에서 남쪽과 북서쪽으로 뻗어내린 두 능선의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다.

망월사는 남한산성을 축성하고 산성 방어를 위해 건립한 9개의 사찰 중 가장 먼저 건립된 사찰이다. 조선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치르면서 도성 수비의 필요성을 느껴 벽암각성碧巖覺性(1575~1660)을 팔도도총섭으로 임명하고, 전국의 승군僧軍을 동원하여 1624년(인조2)부터 3년간 남한산성을 축성하여 국난에 대비하였다. 산성 축성 후에는 산성의 방어를 맡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군이 머물 9개의 사찰을 산성 내에 건립하였다. 9개 사찰 가운데 망월사와 옥정사는 원래 있던 사찰이고, 개원사·한흥사·국청사·장경사·천주사·남단사·동림사 등 7개 사찰을 창건하여 이들 사찰에 350명의 승군이 주둔하였다.

망월사에 대해서 『범우고梵宇攷』(1799)에는 '산성 내 사찰은 병자년 이후에 창건되었으며, 각각 승장을 두고 6도의 승려를 나누어 정하여 교대로 성첩을 지키게 하였는데 번승이 없어지고 번납전을 폐하였기 때문에 본사의 승려로 지키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중정남한지重訂南漢誌』(1847)에는 '망월사가 장경사 뒤 산기슭에 있는데 옛부터 망월암이 있었던 곳이라 9개 절 중에서 가장 고찰이며, 고려 때 한양에 장의사가 있었는데 태조께서 도성을 세울 때 이를 허물고 그 불상과 금자화엄경 한 부와 쇠솥 한 벌을 이곳으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기록으로 볼 때 망월사는 창건된 후 남한산성 축성 이전에는 암자 형태로 있었다가 산성이 축성된 17세기 초반에 새롭게 중건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월사는 1990년대부터 정비가 이루어져 현재 대웅보전, 극락보전, 범종각, 일주문, 요사채 등이 복원되었다.

경기도기념물 제112호

오산 금암리 지석묘군
烏山 錦岩里 支石墓群

청동기시대
일원
9기
1호 440×320×145cm 2호 230×210×60cm
3호 600×305×110cm 4호 225×170×30cm
5호 225×136×50cm 6호 190×120×30cm
7호 290×220×70cm 8호 478×334×130cm
9호 495×230×75cm
석재
오산시 수목원로 449

지정일 : 1987.02.12
소유자 : 국유 및 사유
관리자 : 오산시

<오산 금암리 지석묘군>은 수목원로 일원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옛날부터 잘생긴 바위가 많아 '금바위마을'로 알려져 있다. 지석묘는 모두 11기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9기가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되었다. 1호 덮개돌은 부정형으로 장축은 동-서방향이다. 2호 덮개돌은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은 동-서방향이다. 상면에는 성혈 및 채석흔이 일부 확인된다. 3호 덮개돌은 장타원형이며, 장축은 동남-서북방향이다. 4호 덮개돌은 부정형이며, 장축은 동-서방향이다. 5호 덮개돌은 장타원형이며, 장축은 북동-남서방향이다. 6호 덮개돌은 방형이며, 장축은 동남-서북방향이다. 7호 덮개돌의 장축방향은 동북-서남이며, 8호 덮개돌은부정형이며, 장축은 동-서방향이다. 덮개돌의 북쪽과 동쪽 측면에는 채석흔이 확인된다. 9호 덮개돌은 장타원형이며, 장축은 동-서방향이다.

낮은 구릉(81m)의 동쪽사면 말단부 평탄지에 1·2·3·4·추정 11호가 위치하며, 구릉 남사면에 5·6호가 자리한다.(고인돌 공원) 서쪽에 위치한 금바위 근린공원에 7호가 있고 도로 맞은편에 8호가 있으며 여계산 남사면 말단부에 9호가 위치한다. 지석묘의 덮개돌은 화강암질 계통의 석재를 사용하였는데, 대부분 땅에 묻혀있어 정확한 구조를 알기 어렵다. 다만 전체적으로 잔존상태로 보아 개석식蓋石式 지석묘로 여겨진다. 현재는 지석묘군이 정비되어 고인돌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1 2
3

1. 오산 금암리 3호 지석묘, 1988_ 오산시
2. 오산 금암리 6호 지석묘, 1988_ 오산시
3. 오산 금암리 지석묘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14호

이맹현선생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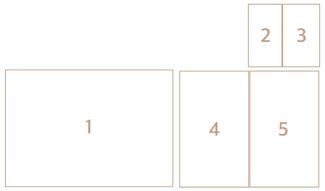
李孟賢先生 墓

조선시대
일원
쌍분, 묘비 2기, 상석 2기, 향로석 2기, 문인석 1쌍, 계체석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산45-5

지정일 : 1987.02.12
소유자 : 재령이씨 종중
관리자 : 재령이씨 종중

조선전기의 문신 이맹현李孟賢(1436~1487)과 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의 합장묘이다. 이맹현의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사성師聲, 호는 근재覲齋이다. 1460년(세조6) 문과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성균관 주부注簿가 되었다. 1464년에는 28세의 나이로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수찬修撰하는 데 참여하고, 1477년(성종8) 직제학을 거쳐 통정대부 부제학에 오른다. 이듬해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고, 51세 되던 1487년(성종18)에 나주목사에 올랐으며 청백리의 명예를 얻었다. 저술로는 유시遺詩 4수가 있다.

묘역은 2단으로 조성되었다. 봉분은 상단에 부인 파평윤씨 묘와 쌍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미龍尾가 사성莎城에 이어져 있다. 각각 봉분 앞에는 비석이 있는데, 동측 부인의 것이 약간 작다. 비석은 고운 화강암으로 제작되었으며 대석은 땅에 묻혀 있으나 하엽방부형荷葉方趺形이다. 조선초기 비석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연엽을 뒤집어 놓은 비수碑首의 꼭대기에는 원수圓首가 있다. 비문은 허침許琛이 지었으며 1488년(성종19)에 세웠다. 그 앞의 상석 구성물과 봉분 사이의 비석은 근래에 새로 설치한 것이다. 하단 좌우에는 장명등이나 망주석 없이 문인석 1쌍만 있다. 문인석은 홀을 든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이며 복두는 전각복두展脚幞頭이다. 전체적으로 사각기둥처럼 딱딱하고 평면적이며 세부를 선각으로 처리했다. 서측의 문인석은 목이 부러져서 보수하여 놓았다. 봉분 동측 후면에 있는 산신석은 구舊 상석을 이설한 것으로 보인다.



1. 이맹현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이맹현선생 비석,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부인 파평윤씨 비석,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이맹현선생 묘 문인석(우),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이맹현선생 묘 문인석(좌),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15호

정난종선생 묘 및 신도비 외 묘역 일원

鄭蘭宗先生 墓 및 神道碑 外 墓域 一圓

조선시대
일원
묘 3기(정난종·정광보·정광필)
신도비 2기
군포시 속달동 산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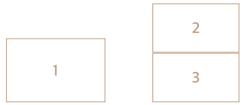
지정일 : 1989.06.01
소유자 : 동래정씨 종친회
관리자 : 동래정씨 종친회(정창모)

군포시 속달동 산 3번지 일대의 견불산(일명 수리산) 자락에는 허백당 정난종虛白堂鄭蘭宗(1433~1489)과 그의 두 아들 정광보鄭光輔(1457~1524), 정광필鄭光弼(1462~1538)의 묘를 비롯한 동래정씨東萊鄭氏 세장世葬 묘역이 자리잡고 있다. 조성할 당시의 원형대로 잘 보전되어 있고 신도비와 묘비 그리고 석물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 조선시대 사대부 묘제 연구의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정난종의 묘는 세장 묘역의 중앙에 위치한다. 부인 완산이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은 쌍분으로 조성하였다. 각각의 봉분 앞에 묘표를 건립하였는데 정난종 묘표는 1489년(성종20)에 세운 것이고 부인 묘표는 1487년(성종17)에 세운 것이다. 묘역에는 상석 1기, 장명등 1기, 문인석 2쌍 등의 옛 석물이 갖추어져 있다. 모두 조각 솜씨가 뛰어난 우수한 석물들이다. 묘역 바로 아래의 비각에는 방부이수方趺螭首 양식의 신도비가 안치되어 있다. 방부와 이수에 새겨진 문양이 정교하고 세밀하다. 비문은 남곤南袞이 짓고 글씨는 강징姜澄이 써서 1525년(중종20)에 건립하였다. 정난종은 각 조의 판서를 거쳐 우참찬에 이르렀고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에 올라 동래군東萊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익혜翼惠이다.

정난종의 묘 바로 위에 장남 정광보의 묘가 위치한다. 부인 전의이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은 쌍분으로 조성하였다. 묘역에는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의 옛 석물이 갖추어져 있다. 동자석과 장명등은 최근에 새로 설치하였다. 금관조복金冠朝服을 착용한 문인석은 얼굴 표정이 매우 사실적이다. 봉분 앞에 세워진 묘표의 상단에는 구름 속에서 노니는 기린麒麟을 조각하여 주목된다. 묘역 바로 아래의 비각에는 귀부이수龜趺螭首 양식의 묘갈이 안치되어 있다. 묘갈은 이행李荇이 글을 짓고 성세창成世昌이 글씨를 써서 1525년(중종20)에 건립한 것이다. 정광보는 창원도호부사昌原都護府使를 역임하였다.

정광보의 묘 바로 위에 동생 정광필의 묘가 위치한다. 부인 은율송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은 쌍분으로 조성하였다. 각각의 봉분 앞에 묘표를 건립하였는데 모두 1539년(중종34)에 세운 것이다. 묘역에는 상석, 향로석, 장명등, 망주석,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이 갖추어져 있다. 모두 양식과 조각 솜씨가 뛰어나 당대를 대표할만 하다. 묘역 바로 아래의 비각에는 방부이수方趺螭首 양식의 신도비가 안치되어 있다. 소세양蘇世讓이 글을 짓고 이황李滉이 글씨를 써서 1562년(명종17)에 세운 것이다. 정광필은 영의정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1. 정난종 선생 묘역,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정광보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정광필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16호

한산이씨 묘역

韓山李氏 墓域

조선시대
일원
지정구역 30,688㎡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0

지정일 : 2089.12.29
소유자 : 한산이씨 종친회
관리자 : 한산이씨 종친회

한산이씨 묘역,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한산이씨 묘역>은 조선중기부터 후기에 걸쳐 조성된 한산이씨韓山李氏 세장산世葬山 묘역이다. 원래 분당지구 신도시 개발지역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현재는 중앙공원 내에 편입되어 있다. 묘역은 해발 약 70m의 영장산靈長山 전체에 조성되어 있는데 전체 규모는 약 87,000여 평에 이른다.

정남향 묘역에는 토정 이지함土亭李之函(1517~1578)의 조부로 봉화현감을 지낸 한원군 이장윤韓原君李長潤(1445~1528)을 비롯하여 한성군 이질韓城君李秩(1474~1560), 한평군 이지숙韓平君李之菽(?~1525), 아천군 이증鵝川君李增(1525~1600), 이확李穫, 이집李潗, 이정李程 등의 묘역이 있다. 동남향에는 이증의 아들로 임진왜란 때 순절한 충신 이경류李慶流(1564~1592), 이경류의 애마총愛馬塚, 이증의 손자인 이정룡李廷龍 등의 묘역이 있다. 남서향에는 이오李奧·이원李垣·이한李漢·이병건李秉健 등의 묘역이 있다. 또한 남서향으로 중앙공원의 입구 쪽에는 이장윤·이질·이지숙의 유사遺事를 기록한 한산이씨삼세이하유사비韓山李氏三世以下遺事碑(1722년 건립)를 비롯하여 이증 신도비(1695년 건립), 이경류 정려비旌閭碑(1727년 건립), 이정룡 신도비(1728년 건립)가 있다.

위와 같이 이곳은 사패지賜牌地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성된 한산이씨의 세장지世葬地이었다. 또한 동·서·북쪽에 한산이씨 묘역임을 알리는 한산이씨묘산입수비韓山李氏墓山入首碑가 건립되어 있었고, 그 중 2기는 중앙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내로 이전하였다. 이 묘역군은 한산이씨의 세장묘역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가문에 대한 역사적 교훈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동안 조성되어 왔기 때문에 묘제 및 석물양식의 계기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들로 평가된다.

경기도기념물 제117호

전주이씨 서원군파 묘역

全州李氏 瑞原君派 墓域

조선시대
일원
묘 3기(이신성·이목·이지항)
신도비 2기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산8-2

지정일 : 1989.12.29
소유자 : 전주이씨 서원군파 종친회
관리자 : 전주이씨 서원군파 종친회

서원군瑞原君은 태종의 제2남인 효령대군의 둘째 아들이다. 이 묘역은 효령대군의 5세손인 이신성李愼性(1552~1596)과 그의 아들 이목李楘(1572~1646), 손자 이지항李之恒의 묘이다. 원래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던 것을 일제강점기인 1937년 조선총독부가 서원군파 묘역의 땅을 강제로 매입하여, 1938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강제로 이장하게 되었다. 이후 분당지구에 대한 신도시 개발 계획상 이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92년 발굴조사 후 현 위치로 2차 이장을 하여 오게 된 것이다. 2차에 걸친 이장으로, 특히 1차 이장 시에 묘역이 심하게 현상 변경되었다. 세분의 묘역은 현재 종렬로 배열되어 있으며, 신도비 2기는 묘역 입구에 배치되어 있다.

이신성의 묘역에는 묘비, 상석, 향로석과 망주석·문인석이 각 1쌍씩 있고, 묘역 입구에 신도비가 있다. 묘비는 이수귀부螭首龜趺 형태인데 이수와 비신은 하나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이수에는 한 마리의 이무기가 한발로 여의주를 움켜쥐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신도비는 이수귀부 형태이고, 이수에는 두 마리의 이무기가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으로 그 조각수법이 매우 뛰어나다. 비문은 김상헌金尙憲이 찬하고, 오준吳竣이 썼으며, 김광현金光炫이 전액篆額을 썼다.

이목의 묘역에는 묘비, 상석과 망주석·문인석이 각 1쌍씩 있고, 신도비는 묘역 입구 이신성 신도비 옆에 위치하고 있다. 묘비는 이수방부螭首方趺 형태이고, 비문 후면에는 후손 이돈영李敦榮이 찬한 노량진 선영에 대한 묘역 형세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으며 1855년(철종6)에 건립된 것이다. 신도비는 팔작옥개석八作屋蓋石·비신·기대로 구성되어 있고, 비문은 남구만南九萬이 찬撰하고 윤덕준尹德駿이 전액을 써서 1706년(숙종32)에 건립된 것이다.

이지항의 묘역에는 묘비, 상석과 문인석 1쌍이 있을 뿐이다. 묘비는 연수방부蓮首方趺 형태로 하나의 화강암 석재로 조성되었다.

1. 이신성과 이목의 신도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이신성 묘, 1992_ 고려대학교 박물관
3. 전주이씨 서원군파 묘역 전경, 1992_ 고려대학교 박물관
4. 이신성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이지항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6. 전주이씨 서원군파 묘역 전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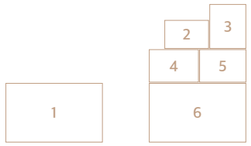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118호

전주이씨 태안군파 묘역

全州李氏 泰安君派 墓域

조선시대
일원
묘 2기(이팽수·이경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2, 산33-1

지정일 : 1989.12.29
소유자 : 전주이씨 태안군파 종친회
관리자 : 전주이씨 태안군파 종친회



1. 태안군 이팽수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태안군 이팽수 묘의 이중관구조, 1991_ 고려대학교 박물관
3. 태안군 이팽수의 부인 안산김씨 묘 출토 묘지석, 1991_ 고려대학교 박물관
4. 전주이씨 태안군파 묘역 발굴조사, 1991_ 고려대학교 박물관
5. 전주이씨 태안군파 묘역(이장 전), 1991_ 고려대학교 박물관
6. 이경인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임진왜란 때 호종공신으로 책훈된 태안군 이팽수李彭壽(1520~1592)와 그의 증손 이경인李敬仁(1575~1642)의 묘이다. 태안군은 성종의 제12남인 무산군茂山君의 다섯째 아들로 1592년(선조25) 임진왜란 때 왕을 호종한 공로로 호종공신으로 책훈되었다.

묘역의 봉분은 쌍분으로 부인 안산김씨安山金氏(1523~1579)와의 합장묘이다. 쌍분의 중앙 앞에 묘비·상석·향로석이 있고, 상석 앞 좌우에는 양관조복형梁冠朝服形 문인석이 배열되어 있다. 묘비는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으로 1618년(선조30)에 건립되었다. 이 묘역은 원래 정자동 산11-1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분당 신도시 개발지역 내에 포함되어, 1991년 발굴조사를 거쳐 정자동 산 34-4로 이장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쌍분 모두 회격묘灰隔墓에 외관外棺과 내관內棺을 사용한 이중관二重棺의 구조였다. 태안군의 묘에서 백자명기白磁明器 10점과 부인의 묘에서 청화백자묘지석靑畵白磁墓地石 7매, 백자명기 2점이 출토되었다.

이경인은 태안군의 증손으로 이천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봉분은 단분으로 부인 남양홍씨南陽洪氏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 묘비, 상석, 향로석이 있으며, 묘역 전방에는 좌우에 망주석과 양관조복형 문인석이 1쌍씩 배열되어 있다. 묘비는 원수방부형으로 1696년(숙종22)에 건립되었고, 비의 측면 및 후면 3면에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 마모가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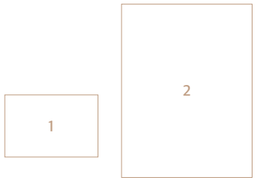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119호

개원사지

開元寺址

조선시대
일원
지정구역 11,573㎡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로 731-73

지정일 : 1989.12.29
소유자 : 개원사
관리자 : 개원사



1. 개원사지 대웅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개원사지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개원사>는 남한산성을 축성하고 산성 방어를 위해 창건된 사찰이자 산성 내 승군을 총 지휘하는 본영사찰本營寺刹이었다.

조선중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치르면서 도성 수비의 필요성을 느낀 조정은 벽암각성碧巖覺性(1575~1660)을 팔도도총섭으로 임명하고, 전국의 승군僧軍을 동원하여 1624년부터 3년간 남한산성을 축성하여 국난에 대비하였다. 산성 축성 후에는 산성의 방어를 맡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군이 머물 9개의 사찰을 산성 내에 건립하였다. 9개 사찰 가운데 망월사와 옥정사는 원래 있던 사찰이고, 개원사·한흥사·국청사·장경사·천주사·남단사·동림사 등 7개 사찰을 새롭게 건립하였다. 북쪽에는 장경사·망월사·동림사·옥정사·국청사가 있고 남쪽에는 개원사·한흥사·남단사·천주사가 위치하는데 이들 사찰에 350명의 승군이 주둔하였다.

개원사는 팔도도총섭이 주석하면서 전국에서 모인 모든 승군을 지휘, 관리하는 남한산성 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찰이었다. 『중정남한지重訂南漢誌』(1847)에는 개원사가 동문 안에 있으며 불경佛經을 많이 소장하고 있고, 무게가 200여근이나 나가는 큰 놋그릇이 4개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 남한산성의 본영사찰로서 규모가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원사는 남한산성 축성 이후 1894년(고종31) 의승방번제義僧防番制가 폐지될 때까지 300년 가까이 승군의 본영사찰로 역할을 다했다. 이후 1907년 일제가 산성 내 무기고와 화약고를 파괴하면서 사찰들도 대부분 전소되었는데 개원사도 이때 폐사되었다고 한다.

한편 개원사지는 1976년부터 정비가 이루어져 대각전·승장조사전·범종각·일주문·천왕문·요사채 등이 복원되었다.

경기도기념물 제120호

이준선생 묘

李準先生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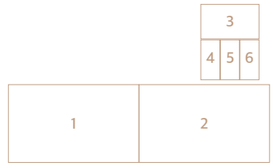
조선시대
1기
쌍분, 묘비 2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동자석 1쌍,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호석, 계체석
양주시 남면 신산리 산1-1

지정일 : 1989.12.29
소유자 : 전성부원군 종회
관리자 : 전성부원군 종회

조선시대 인조 대의 문신인 이준李準(1545~1624)의 묘이다. 이준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평숙平叔, 호는 뇌진자懶眞子 또는 서파西坡이다. 덕천군德泉君 이후생李厚生의 후손으로 이억손李憶孫의 손자이자 이유정李惟貞의 아들이다. 1568년(선조1) 증광문과에 급제한 뒤, 주서와 정언을 거쳐 헌납이 되고, 이어 진주목사 등을 지냈다. 1589년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을 다스리는데 공을 세워 평난공신平難功臣 2등에 책록되었고 전성군全城君에 봉해졌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운향사運餉使가 되어 명나라 군사의 군량미를 조달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한성부좌윤과 춘천부사를 거쳐 병조참판을 역임하였다. 광해군 때 이조판서에 이르렀으나 이이첨李爾瞻과 정인홍鄭仁弘 등 대북大北 일파가 계축옥사를 일으키고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유폐하는 등 정사를 어지럽히자 벼슬을 버리고 은퇴하였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숙헌肅憲이다.

부부 합장묘로 조성하면서 봉분은 쌍분으로 꾸몄다. 봉분의 아랫부분은 화강석으로 만든 호석을 원형으로 둘러 봉토의 유실을 방지하였다. 봉분과 봉분의 사이에 방부원수方趺圓首 양식의 묘표를 세워 피장자의 신분을 밝혔다. 비신에는 몇 군데의 탄흔彈痕 자국이 남아 있다. 묘역에는 상석, 향로석, 동자석, 문인석, 망주석 등의 옛 석물이 갖추어져 있다. 금관조복金冠朝服을 착용한 문인석 뒷면의 후수後綬 문양을 매우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최근에 신도비와 묘비를 새로 건립하였다.



1~3. 이준선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문인석 (우),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망주석 (좌),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6. 이준선생 묘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21호

이기조선생 묘

李基祚先生 墓

조선시대
일원
단분, 상석 1기, 향로석 1기, 동자석 1쌍,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신도비 1기
군포시 산본동 산1152-11

지정일 : 1990.04.30
소유자 : 군포시
관리자 : 한산이씨 총대종회(이명원)

1
2

1. 이기조선생 묘 전경, 2003_ 군포시
2. 이기조선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 인조·효종 대의 문신으로 활약한 이기조李基祚(1595~1653)의 묘이다. 이기조는 한산이씨韓山李氏로 1615년(광해군7) 진사로서 알성문과에 급제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형조좌랑에 기용되어 병조참의·공주목사 등을 거쳐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며 많은 치적을 쌓아 송덕비頌德碑가 세워졌다. 이어 대사간·이조참판을 역임하고, 1645년(인조23) 청나라 사신으로 가서 지나친 세공미歲貢米의 부담을 감축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예조판서에 올랐으나 김육金堉 등의 탄핵으로 함경감사로 밀려났다가 1653년(효종4) 공조판서에 임명되어 돌아오던 중 김화에서 병사하였다.

묘역의 봉분은 단분으로 부인 고령신씨高靈申氏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 혼유석, 상석, 향로석이 있으며 상석을 중심으로 전방에 좌우로 동자상, 망주석, 양관조복형의 문인석이 각 1쌍씩 배열되어 있다. 묘역 앞에는 신도비가 배치되어 있는데 팔작옥개석·비신·기대로 구성되어 있다. 비문은 박세채朴世采가 찬撰하고 이명필李命弼이 글을 썼으며, 신완申琓이 전액을 써서 1705년(숙종31)에 건립한 것이다. 이 묘역은 원래 산본동 산16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산본지역의 택지 개발로 인하여 1992년 현 위치로 이장移葬하게 되었으며, 이장 직전에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봉분은 전면과 좌·우면이 장대석을 이용하여 호석이 둘러져 있었고, 봉분 좌측 가장자리 호석 바깥쪽에서 청화백자로 만든 직사각형 판형의 묘지석 14매가 출토되었으며 내부구조는 회벽灰壁을 2칸으로 구축한 다음 그 안에 각각 목관木棺을 안치한 회곽묘灰槨墓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묘지석의 내용을 통하여 원래의 묘역이 1728년에 이장되어 조성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 묘역의 시대는 이것을 기준한 것이다.

경기도기념물 제122호

전주이씨 안양군 묘

全州李氏 安陽君 墓

조선시대
일원
단분, 상석 1기, 향로석 1기, 동자석 1쌍, 장명등 1기, 망주석 1쌍,
석양 1쌍, 문인석 1쌍, 묘비 1기
군포시 산본동 산27

지정일 : 1990.04.30
소유자 : 전주이씨 안양군파 종친회
관리자 : 전주이씨 안양군파 종친회(이무형)

조선 성종의 셋째 아들 안양군 이항安養君李恒(?~1505)의 묘이다. 어머니는 귀인貴人 정씨鄭氏이며 능천군 구수영綾川君具壽永(1456~1523)의 사위이다. 연산군의 노여움을 사서 제천에 안치되었다가 사사되었다. 중종이 즉위하면서 제물을 하사하고 관리를 파견해 제사지내도록 하였다. 1520년(중종15) 부인이 왕에게 상소하여 택지擇地를 받고 개장하였다. 시호는 공회恭懷이다.

묘는 부인 능성구씨綾城具氏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뒤쪽으로 사성莎城을 둘러 묘역을 보호하고 있다. 원래 양주에 있었는데 1895년(고종32) 석물과 함께 이장한 것이다. 묘역에는 장명등·망주석·문인석·동자석·상석·고석·향로석 등의 다양한 석물이 갖추어져 있다. 양식상 모두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것이 아니어서 후대에 계속 석물을 추설追設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자석은 하체가 거의 매몰된 상태이다. 봉분 우측에 방부개석方趺蓋石 양식의 묘표가 건립되어 있다. 묘역 앞에 서 있는 신도비는 1976년에 세운 것이다. 비문은 신종묵愼宗默이 짓고 글씨는 이일형李一珩이 썼으며 전액은 김충현金忠顯이 올렸다.

1 2 3
4

1. 전주이씨 안양군 묘 상석, 2017
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전주이씨 안양군 묘 동자석(좌),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전주이씨 안양군 묘 동자석(우),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전주이씨 안양군 묘, 2017
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23호

양평군 함왕성지

楊平郡 咸王城址

고려시대
일원
길이 700m, 높이 1.6m
지정구역 304,535㎡
석성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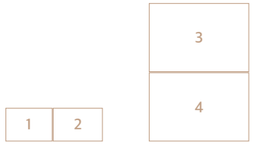
지정일 : 1990.09.0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양평군

<양평군 함왕성지>는 용문산 줄기인 855m의 봉우리와 865m의 여우봉에서 서쪽과 남쪽으로 뻗은 능선과 북쪽으로 흐르는 큰 계곡을 막아 축조한 고려시대 석축산성으로, '함공성'·'양근성'·'함씨대왕성' 등으로 불린다. 현재 성벽은 대부분 무너지거나 토사에 덮여 있는 상태이며 북벽과 남벽은 높이 1.6m, 길이 700m가 남아 있다. 1999년 이전까지는 삼한시대의 함씨대왕이 축조한 것으로 전해졌던 성으로, 경기도 지정문화재로서의 추후 발굴 및 복원 기초자료를 얻기위하여 1999년 수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지표 및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성내에서 문지 1개소·치성 1개소·추정 건물지 3동·장대지 2개소·우물지·수구지 2기를 확인하였으며, 고려~조선시대의 기와 및 자기편들이 수습되었다.

성벽의 기저부 조성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된다. 원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암벽이 노출된 곳은 성벽을 쌓지 않거나, 암반을 기저로 활용하여 암반 위에 성벽을 쌓았다. 성벽 축조에 사용된 돌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화강암을 그대로 이용하여 단과 열을 맞추지 않고 막쌓기에 가깝게 쌓아 올렸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들여쌓아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북동쪽의 건물지로 보이는 넓은 터에는 주춧돌로 이용된 편평한 돌, 고려~조선시대의 기와 조각 등이 흩어져 있으며, 산성 내에서 수습되는 유물들은 대체로 상한선이 고려후기로 편년되고 있다.

함왕성은 고려후기의 몽고침략기에 축조된 포천 보가산성, 양양 권금성, 충주 보련산성, 동해 두타산성 등과 같이 해발 600m 이상의 고지에 위치하고 험준한 지형을 이용한 방어에 초점을 맞추어 축조된 산성으로, 대체로 고려후기를 상한선으로 하는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고려후기에 축조된 입보용入保用 산성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 양평군 함왕성지 남문지, 1916_ 국립중앙박물관
2. 양평군 함왕성지 내부 우물,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양평군 함왕성지 성벽 상부,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양평군 함왕성지 성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24호

안양시 비산동 도요지

安養市 飛山洞 陶窯址

고려시대
일원
지정구역 51,540㎡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산3-1

지정일 : 1991.04.12
소유자 : 교육부
관리자 : 안양시

<안양시 비산동 도요지>는 1987년 10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목원 내 상수도 공사 중에 발견되었다. 도요지는 안양천 지류인 삼성천 상류에서 무너미고개로 올라가다가 초입 우측 사면에 위치한다. 반경 40~50m 범위에 음·양각된 고려 백자와 청자, 흑유자기 등이 다양하게 출토되어 고려시대 도자기의 다양한 발전상을 한눈에 보여준다.

출토된 청자는 대접, 접시와 같은 일상기종이 많고 각접시, 항아리, 뚜껑 등도 확인되며, 음각이나 양각 혹은 상감문양을 가진 것도 있다. 백자는 연질軟質과 경질硬質 두 종류가 있고, 대접, 접시, 합뚜껑, 호 등의 기종에 드물게는 상감과 음각으로 시문하였으며 굽 접지면에 모래나 내화토耐火土 모래빚음을 하였다. 자기편 외에 가마 소성燒成과 관련한 도지미, 가마벽편 등도 다수 찾아졌다.

고려시대 도자 제작양상은 청자가 중심이어서 백자는 드물게 제작되었다. 초기의 가마로는 용인 서리, 여주 중암리가 있고, 중·후기 가마로는 서울 근교에서 관악산 북안의 신림동 도요지와 이곳 비산동 도요지가 있다. 특히 비산동 도요지는 고려후기 백자의 제작양상과 조선백자의 성립과정을 밝힐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며,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동시기 청자와 백자의 상관관계까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1
2

1. 비산동 도요지 출토유물,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비산동 도요지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25호

팔달산 지석묘군

八達山 支石墓群

청동기시대
4기
1호 덮개돌 134×108×55cm
2호 덮개돌 180×165×45cm, 받침돌 20×110cm
3호 석재(받침돌추정) 118×216cm
4호 덮개돌 90×96×50cm
석재(화강암)
수원시 팔달구 교동 6-196

지정일 : 1991.04.12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수원시

<팔달산 지석묘군>은 수원시립도서관 동측의 팔달산 남쪽과 북서쪽 경사면에 위치한 4기의 지석묘를 말한다.

1호 지석묘는 수원시립도서관에서 북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화강암이고,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우며 장축은 북서-남동방향이다. 덮개돌의 하부구조는 서북쪽에 받침돌이 확인되나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다. 2호 지석묘는 1호에서 북쪽으로 7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화강암제이고,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장축은 북서-남동방향이다. 덮개돌의 하부구조는 동쪽, 남쪽, 서쪽에서 받침돌이 확인되었으며, 경사면 위쪽인 북쪽부분은 경사를 이용하여 굄돌을 괴지 않았다. 남쪽 받침돌은 장대석이며, 동쪽과 서쪽은 머리 크기 정도이다. 3호 지석묘는 2호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유실되었으며, 하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석재가 타원형으로 배치되어 남아있다. 이 석재는 덮개돌의 받침돌로 생각된다. 그 옆으로는 넓은 판석이 땅속에 묻혀있다.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다. 4호 지석묘는 3호 지석묘에서 북서쪽으로 1m 떨어져 있다. 덮개돌은 화강암질이고, 장축은 동-서방향이다. 남쪽과 서쪽의 받침돌이 빠져 나와 있다.

팔달산 지석묘군은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덮개돌 아래에서 받침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일부는 바둑판식碁盤式 지석묘일 가능성이 높다.

1 2
3 4

1. 1호 지석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2호 지석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3호 지석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4호 지석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26호

석수동 석실분

石水洞 石室墳

삼국시대
1기
85×340×150cm
석재(화강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36-9

지정일 : 1991.04.12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양시

<석수동 석실분>은 삼성산 남쪽 기슭과 십자바위 우측에 1기, 이보다 위쪽에 있는 십자바위 아래쪽에 1기 등 2기가 알려져 있으나 지형 조건으로 보아 더 많은 고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덤 구조는 석실로 통하는 연도羨道가 마련되지 않은 석실분이다. 연도가 있는 횡혈식석실분이 성행하기 이전의 석실분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아직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석실분의 장축은 남북방향이며, 석실의 세 벽은 화강암 할석으로, 뒷벽은 커다란 판석으로 축조하였다. 석실벽은 상부가 많이 무너져 1기는 3~2단, 다른 1기는 4~5단 정도 남아 있다. 석실 바닥 시설 여부는 조사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거나 점토를 깔았을 가능성이 있다. 규모가 큰 석실은 길이 140~170cm, 폭 60~140cm, 두께 30~60cm의 뚜껑돌 3매를 덮었으나, 가운데 뚜껑돌은 안쪽으로 도괴倒壞되었다.

이전에 이 무덤에서 금제귀걸이가 나왔다고 하나 확인되지 않는다. 구릉 기슭의 중턱에 입지하면서 장방형 평면 구조, 연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바닥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한성도읍기의 백제 석실분일 가능성이 높다.

1 2
3

1. 석수동 석실분 할석축조 석실벽,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석수동 석실분 판석축조 석실벽,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석수동 석실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27호

안산읍성 및 관아지

安山邑城 및 官衙址

고려~조선시대
일원
읍성 둘레 772.2m, 높이 약 2m
석성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256-1

지정일 : 1991.10.19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산시

<안산읍성 및 관아지>는 고려시대 후기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사용된 읍성과 관아지이다. 전형적인 평산성으로 주변은 수암봉에서 서쪽으로 내려 온 소금절골과 작은골 사이의 능선이 읍성을 감싸며 남쪽에 관아지가 위치하였다. 안산관아는 처음에 목내동 일대에 있다가 1441년(세종23)에 수암동으로 옮겨졌고 1669년(현종10)에 당시 자리에서 동남쪽으로 약 50m 떨어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당시 해안으로 침입하던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축조하였으며, 평시에는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성의 평면형태는 모서리가 둥근 장방형을 띤다. 주요 방어 지역으로 여겨지는 서쪽과 북쪽은 자연 지형으로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성벽은 자연 능선에 덧붙여서 한쪽 면만 고른 편축식 석성으로 축조하였다. 유물은 기와류와 자기류가 주로 출토되었는데 특히, '康熙年…(강희년)', '…正…酉…'명이 음각된 명문기와가 주목된다. 대체로 유물은 강희년(1662~1772)명 기와와 동일한 시기인 17~18세기로 볼 수 있다. 정문인 평근루平近樓와 객사·동헌 등의 행정시설, 옥사와 창고가 있었으나 모두 파괴되어 주춧돌과 장대석, 기와편 등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관아지는 일제강점기에 수암면사무소로 이용되다가 터만 남아있으며, 객사건물은 2010년에 복원되었다.

1 2 3
4

1. 안산 관아지 주춧돌, 2008_ 안성문화원
2. 안산 관아지 장대석, 2008_ 안성문화원
3. 안산 관아지 기와편, 2008_ 안성문화원
4. 안산객사,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28호

허준 묘

許浚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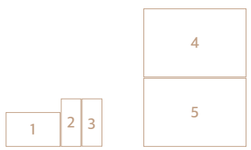
조선시대
1기
쌍분, 상석 1기, 혼유석 1기, 향로석 1기, 묘비 1기, 문인석 1쌍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산129

지정일 : 1992.06.05
소유자 : 국방부
관리자 : 허준기념사업회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명의名醫인 허준許浚(1539~1615)의 묘이다. 허준은 당시 명의인 유의태劉義泰에게 의학을 배우고, 1574년(선조7) 내의원內議院 취재取才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 혜민서惠民署 봉사를 거쳐 전의典醫로 발탁되었다. 1601년(선조34) 지중추부사에 임명되어 여러 의학서를 편찬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어의로서 왕을 의주까지 호종扈從한 공으로 1604년 호성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 1610년(광해군2) 16년간의 연구 끝에 25권의 방대한 의학서인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완성하였다. 1615년(광해군7) 사망한 후 관직의 최고 영예인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추증되었다.

묘역은 임진강을 건너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묘역은 재미 고문헌연구가 이양재李亮載 등에 의해 『양천허씨족보陽川許氏族譜』에 기록되어 있는 '하포리 엄동 손좌쌍분下浦里嚴洞巽坐雙墳'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1991년 9월 30일에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봉분은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파헤쳐 있었고, 허준의 묘임을 밝혀준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 묘비 및 양관조복梁冠朝服형 문인석 1쌍, 상석·혼유석·향로석이 묘 주위에 흩어져 있었다. 묘비는 두 쪽으로 잘려진 채 발견되었는데 마모된 비문 가운데 '양평군陽平(君)', '호성공신(扈)聖功臣', '허준(許)浚'이라는 글자가 있었고, 전술한 족보의 내용과 일치하여 허준의 묘소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는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새롭게 단장되었다. 봉분은 쌍분雙墳으로 부인 안동김씨安東金氏와의 합장묘이다. 묘역 아래에는 2011년에 건립된 중건비重建碑와 중건비건립기금후원공적비가 있고, 그 아래에는 재실齋室인 구암재龜巖齋가 위치하고 있다.



1. 허준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허준 묘 문인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허준 묘 문인석(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허준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허준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29호

파주 다율리·당하리 지석묘군

坡州 多栗里·堂下里 支石墓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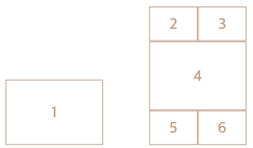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6기
1호 196×145cm, 2호 210×205cm, 3호 225×280cm,
4호 310×190cm, 5호 360×200cm, 6호 410×240cm
석재
파주시 당하동 산4-1

지정일 : 1992.06.05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파주시

<파주 다율리·당하리 지석묘군>는 파주시 교하면 다율리 산4-1, 당하리 산5-1번지 일대에 해당되는 곳에 분포한 지석묘군이다. 다율리와 당하리는 행정구역상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는 같은 능선부이며, 장면산에서 동남방향으로 뻗은 야산 중턱부에 위치한다.

1965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를 통해 100여기 이상의 지석묘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1988년 군부대의 시설물공사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었다. 1988년 한국선사문화연구소에서 수습발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파괴된 지석묘의 일부는 온양민속박물관 등으로 이전 복원되었다. 이후 1992년 문화재관리국의 현장조사를 통해 다율리에 13기, 당하리에 9기, 교하중학교 내에 2기, 군부대 안에 1기가 잔존함을 확인하였고, 5월에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지석묘 6기를 경기도기념물로 지정하였다. 1993년에는 한국선사문화연구소에서 다율리(교하리) 지석묘 9기를 발굴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지석묘군에서 마제석검 3점, 석촉 2점, 석착 3점, 지석 2점이 출토되었다.

이 지석묘군은 대규모의 무덤군으로서 탁자식과 개석식 지석묘가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며, 인접해서 주거지가 확인되어 청동기시대 사회의 생활공간과 무덤공간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1. 파주 다율리·당하리 1호 지석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다율리·당하리 2호 지석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다율리·당하리 3호 지석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다율리·당하리 4호 지석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다율리·당하리 5호 지석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6. 다율리·당하리 6호 지석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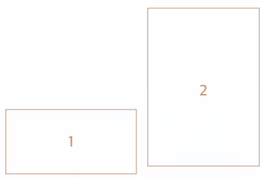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130호

인평대군 묘 및 신도비

麟坪大君 墓 및 神道碑

조선시대
일원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동자석 1쌍, 장명등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호석, 신도비 1기
신도비 높이 325cm
석재(화강암)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산46-1

지정일 : 1992.06.05
소유자 : 전주이씨 인평대군파 종중종회
관리자 : 전주이씨 인평대군파 종중종회



1. 인평대군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인평대군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 인조와 인열왕후仁烈王后의 3남인 인평대군 이요麟坪大君李淯(1622~1658)의 묘와 신도비이다. 인평대군은 1629년(인조7) 대군에 봉해졌으며, 1634년(인조12) 관찰사 오단吳端의 딸 복천부부인福川府夫人 동복오씨同福吳氏(1622~1658)와 혼인했다. 병자호란 이후 큰형인 소현세자昭顯世子와 함께 청나라 심양瀋陽에 볼모로 보내졌으며, 공물貢物의 양을 줄이는 등의 정치적 활동을 했다.

인평대군은 인조의 명으로 능창대군綾昌大君의 후사가 되었으며, 생전에 미리 자신의 묘자리를 정하고 석물을 갖추어 놓았는데 그 묘자리가 광주 능창대군 묘 곁이었다. 1693년(숙종19) 8월에 인평대군과 부부인의 묘소를 포천의 현재 위치로 이장하고, 신도비는 1694년(숙종20)에 옮겼다.

인평대군의 묘소는 호석護石을 두른 봉분 주위에 곡장曲墻을 둘렀으며, 묘표(1658년 건립)와 혼유석·상석·향로석을 차례로 설치했다. 상석 앞에는 장명등, 좌우에는 동자석과 망주석, 문인석을 건립해 놓았다. 서쪽 문인석과 망주석 앞에는 주준석酒樽石으로 추정되는 석물도 배치되어 있으며, 동쪽 곡장 밖에는 비신 없는 귀부龜趺도 있다.

묘역 남동쪽에 어제비御製碑가 비각碑閣안에 설치되어 있으며, 신도비는 봉분의 정남향에 위치하고 있다. 이수귀부螭首龜趺 형태의 신도비는 효종의 명으로 1658년에 건립되었으며, 비문은 영의정 이경석李景奭이 짓고, 처백부妻伯父 좌참찬 오준吳竣이 썼으며, 처백씨妻伯氏 이조참판 오정일吳挺一이 전자篆字를 썼다. 신도비의 뒷면에는 1659년(현종1)에 조각한 복천부부인의 신도비 음기陰記가 있다. 비문은 효종의 명으로 이경석이 찬했으며, 오정일이 쓰고, 둘째 아들인 복창군 이정福昌君李楨이 전액을 썼다.

경기도기념물 제131호

김만기 묘역

金萬基 墓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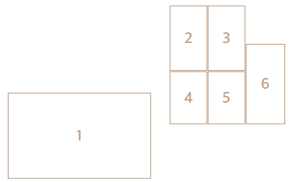
조선시대(1687년)
일원
단분, 묘비 2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신도비 1기
군포시 대야미동 158-6

지정일 : 1992.06.05
소유자 : 광산김씨 문충공파 종회
관리자 : 광산김씨 문충공파 종회(김건중)

조선 숙종 대의 문신인 김만기金萬基(1633~1687)의 묘이다. 본관은 광산光山이고, 자는 영숙永淑, 호는 서석瑞石 또는 정관재靜觀齋이다. 사계 김장생沙溪金長生의 증손이자 참판 김반金槃의 손자이고 생원 김익겸金益兼의 아들이다. 김만기는 우암 송시열尤庵宋時烈의 문인으로, 1652년(효종3) 사마시를 거쳐 이듬해 별시 문과에 급제해 승문원에 등용되었다. 1659년 효종이 죽고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 문제로 논란이 일자 기년설朞年說을 주장하였다. 1671년 딸이 세자빈에 봉해졌다.

1674년 숙종이 즉위하자 국구國舅로서 영돈녕부사에 임명되고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이어 총융사가 되어 병권을 장악하였으며 김수항金壽恒의 천거로 대제학이 되었다. 허적許積의 서자 허견許堅과 종실인 복창군福昌君 등이 역모를 꾀하자 이를 잘 다스려 보사공신保社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자 삭직되었다가 뒤에 복직되었다. 현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저서로 『서석집瑞石集』이 있다.

묘는 부인 청주한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은 단분單墳으로 조성하였다. 봉분 아래에 원형의 옛 호석을 둘러 봉토 유실을 방지하였다. 봉분 앞의 좌우에 2기의 묘표가 세워져 있다. 좌측 묘표의 앞면 대자大字는 숙종이 친히 어필로 써서 1699년(숙종25)에 새긴 것이며 우측 묘표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 지은 글을 김진규金鎭圭(1658~1716)가 써서 1688년(숙종14)에 세운 것이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의 옛 석물이 갖추어져 있는데 양식과 조각이 모두 뛰어나다. 상석을 받치는 고석은 최근에 새로 설치한 것이다. 묘역 바로 아래에는 방부개석方趺蓋石 양식을 갖춘 신도비가 서 있다. 팔작지붕 개석의 기왓골을 도드라지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김진규가 글씨와 전액을 써서 1703년(숙종29)에 건립하였다.



1. 김만기 묘역, 2003_ 군포시
2. 김만기 묘 문인석(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김만기 묘 문인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김만기 묘비(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김만기 묘비(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6. 김만기 신도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32호

여주군 석우리 선돌

驪州郡 石隅里 선돌

청동기시대
1기
245×60cm
석재(화강암)
여주시 북내면 석우리 253

지정일 : 1992.12.3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여주시

<여주군 석우리 선돌>은 금당천과 그 언저리의 들판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야트막한 언덕에 있다. 선돌의 재질은 화강암이며, 크기는 길이 245cm, 너비 60cm, 두께 80cm로 상당히 두툼한 느낌을 준다. 가장자리에는 손질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마을 사람들은 '마귀할머니의 지팡이', '물레돌', '선돌'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옛날 마귀할머니가 이 선돌 앞에서 물레에 실을 감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실제로 선돌 앞에는 길이 180cm, 너비 160cm 되는 넓적하고 두터운 돌이 놓여 있다.

이 선돌이 위치한 곳의 북쪽 마을을 '담모랭이', 남쪽 마을을 '돌담'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이 일제강점기에 강원도와의 경계 지점이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선돌의 기능은 경계 표시였을 가능성이 높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선돌에 최근까지도 음력 정월 대보름날 제사를 지내 왔다. 또한 선돌 옆에서 돌도끼 1점이 수습되었으며, 주변에 지석묘도 15기 정도 분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석우리 선돌은 지석묘와 함께 이곳이 거석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만큼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여주군 석우리 선돌,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33호

여주군 처리 선돌

驪州郡 處里 선돌

청동기시대
1기
210×155×30cm
석재(화강암)
여주시 점동면 처리 산88-6

지정일 : 1992.12.3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여주시

<여주군 처리 선돌>이 위치한 곳은 얕은 산흐름이 거의 끝나는 구릉지대로, 남한강의 샛강인 청미천과 주변의 들판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조망이 아주 좋은 곳이다. 이렇게 주변의 어디에서나 보인다는 것은 축조 당시에 택지擇地를 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 선돌의 재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이며, 높이 210cm, 너비 155cm, 두께 30cm의 크기이고 앞쪽의 방향은 북동 40°이다. 선돌은 전체적으로 넓적한 느낌을 주며, 윗부분은 상당히 손질을 많이 하여 평평하게 다듬은 흔적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선돌 바로 앞에는 길이 175cm, 너비 60cm 되는 넓적한 돌이 하나 놓여 있는데 제사를 지낼 때 제단으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까지 삼한콘크리트주식회사에서 해마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 위爲하는 행위를 해왔다는 점에서 민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처리 선돌은 정면으로 물(청미천)과 들판을 바라보고 있어 풍요와 관련있는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거석문화와 물과의 관련 문제를 시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주군 처리 선돌,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34호

신익희 생가

申翼熙 生家

1925년 추정
일곽
안채 총 7칸
바깥채 총 6칸
목재
광주시 초월읍 서하길 6-25

지정일 : 1992.12.31
소유자 : 신창현
관리자 : 신창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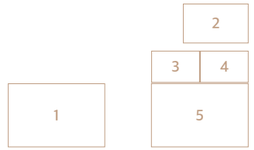
<신익희 생가>는 해방 전후 시기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로서 광복 후 제헌국회制憲國會 부의장, 국회의장을 역임한 해공 신익희海公申翼熙(1897~1956)의 생가이다. 원래는 지금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위치해 있었으나, 1865년 을축년乙丑年 대홍수로 집이 파손되어 1867년(고종4)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고 전해지며, 건축물대장에는 1925년 건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옥은 안채와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목조 기와집으로 전통 한옥의 외관을 잘 간직하고 있다. 안채는 기본 ㄱ자형으로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안방, 좌측으로 건넌방이 있고 안방 앞으로 부엌을 두었다. 부엌날개의 반대편으로 안방 뒤에 2칸의 방을 내달아 전체적으로 T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ㄱ자형의 바깥채는 대문을 중심으로 좌측에 2칸의 사랑방을 배치하고 우측에 1칸의 작은방을 두었다. 사랑방 좌측에는 1칸의 마루와 꺾어진 부분에 2칸의 방이 배치되어 있다.

이 집은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19세기 또는 20세기 초 경기지역 중소지주 계층의 가옥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둥의 일부 부재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부재가 가늘고 치목 수법도 오랜 것이 아니어서 적어도 20세기 초에 들어와 크게 개축된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는 민도리식, 홑처마 팔작지붕의 협문이 있으며 기와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협문으로 들어서면 바깥마당이 있고 바깥채의 대문을 통해 안마당으로 이어진다. 안채 우측 후정에는 우물의 흔적이 남아있다.



1. 신익희 생가 바깥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신익희 생가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신익희 생가, 2001_ 광주시
4. 신익희 생가, 2002_ 광주시
5. 신익희 생가 안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35호

안재홍 생가

安在鴻 生家

안채 1914년, 사랑채 1932년
일곽
안채 11칸, 사랑채 8칸
목재
평택시 고덕면 계루지 1길 7

지정일 : 1992.12.31
소유자 : 박갑인
관리자 : 박갑인

<안재홍 생가>는 근대시기 대표 언론인 민세 안재홍民世安在鴻(1891~1965)이 태어나 살던 집이다. 안재홍은 일제시기에 조선일보 주필로 재직하면서 신간회와 물산장려운동을 이끌었으며, 고대사 연구와 문자보급에 앞장선 민족지사이자 학자였다. 일제강점기 36년간 아홉 차례에 걸쳐 총 7년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루었다. 그의 호 민세는 '민중의 세상' 혹은 '민족에서 세계로' 라는 뜻을 담고 있다.

생가는 평택군 고덕면 계루지 마을의 야산기슭에 남향하고 있다. 원래 상당한 규모의 대문채까지 남아 있던 큰 집이었으나 지금은 안채와 사랑채, 새로 지은 대문채만 남아있다.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의 사랑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튼 ㄷ자형 배치를 이루고 사랑채의 동측으로 대문채가 위치한다. 상량문에 따르면 1914년 안채가 건립되었고 1932년에 사랑채가 건립되었다.

안채는 11칸 규모의 초가지붕 민도리집이다. 건넌방과 대청, 안방이 일렬로 배열되고, 안방 앞에서 꺾이어 부엌과 광이 있다. 전체 구조는 앞쪽에 퇴칸을 둔 오량가구다. 퇴칸은 필요에 따라 공간을 확장하거나 분절되어 별도의 용도로 이용되는데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공간 활용을 가능케 한다. 특히 부엌과 대청 사이에 있는 반 칸 연결 통로는 이 집만의 특색이다. 20세기 초 생활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한 전형적인 경기지방 가옥의 모습이다.

사랑채는 8칸 규모의 팔작지붕 집으로 一자형 평면구성을 한다. 중앙의 4칸 대청 동쪽에 툇마루가 있는 1칸 반 온돌방이 있고 서쪽에는 대청보다 한 단 높은 누마루가 형성되어 있다. 대문채는 맞배지붕 형식의 3량 집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생가에는 문중의 후손들이 거주하며 1992년 두 건물의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1 2
3

1. 안재홍 생가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사랑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안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36호

북한산 중흥사지

北漢山 重興寺址

고려~조선시대
일원
지정구역 20,162㎡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259 외

지정일 : 1992.12.31
소유자 : 중흥사
관리자 : 김학수

1
2 3

1. 북한산 중흥사, 1902_ 국립문화재연구소
2. 북한산 중흥사 대웅전, 1902_ 국립문화재연구소
3. 북한산 중흥사 대웅전(복원),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북한산 중흥사지>는 북한산의 잠룡동 계곡과 용계동 계곡이 합쳐지는 지점의 북쪽 경사지에 위치한다. 주불전이 있었던 곳의 배면에는 등안봉이 있고, 서쪽에는 장군봉이 위치해 있다.

중흥사는 창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은 알 수 없지만 중흥사에서 조성된 1103년(고려 숙종8)작 청동반자와 1344년(충혜왕5)작 향완이 전하고 있어 고려초에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385년(우왕11) 조성된 태고 보우太古普愚(1301~1382)의 탑비에는 1341년 중흥사에 태고암을 짓고 주석하였으며, 입적 후 동쪽 봉우리에 그의 승탑과 탑비를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때 중흥사의 조세를 면제하였고, 태종 때 이곳에서 기후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 조선초기까지는 사세를 어느정도 유지했지만 이후에는 많이 쇠락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지北漢誌』(1745)에는 '중흥사가 등안봉 아래에 있는데 옛날의 사찰은 30여칸에 불과하였지만, 북한산성을 축성한 후 중건하여 136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흥사는 1711년(숙종37) 북한산성 축성 후 산성 방어를 위해 설치된 11개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당시 중흥사를 중수하고, 용암사·보국사·보광사·부왕사·원각사·국녕사·상운사·서암사·태고사·진국사를 새로 건립하여 총 11개의 사찰에 승영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사찰에 승장 11인, 수승 11인, 의승 350인을 두어 산성 방어를 담당케 하였는데, 중흥사는 팔도도총섭이자 승대장이 머물면서 산성에 주둔한 승군을 총 지휘하는 수사찰이었다. 한편 사진으로 1902년까지도 사찰의 법등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1904년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고 1915년에는 홍수 피해까지 입어 결국 폐사되었다.

중흥사는 고려말 대표적인 고승인 태고보우가 주석한 사찰이며, 현재 원증국사탑과 탑비가 있는 태고사도 당시에는 중흥사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또한 조선후기에는 북한산성의 승영 사찰을 총 지휘하는 매우 중요한 사찰이었다. 현재는 대웅전과 요사채, 만세루 등이 복원 정비되었다.

경기도기념물 제137호

심지원 묘 및 신도비

沈之源 墓 및 神道碑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신도비 1기
신도비 높이 295cm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58-5

지정일 : 1992.12.31
소유자 : 파평윤씨 대종회
관리자 : 청송심씨 대종회

조선후기의 문신인 만사 심지원晩沙沈之源(1593~1662)의 묘이다. 숙천부사 심종침沈宗忱의 손자이고 감찰 심설沈偰의 아들이다. 1620년(광해군12) 정시문과에 급제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이듬해 검열에 등용된 뒤 부교리와 헌납 등의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후 대사간, 대사성, 대사헌을 거쳐 1652년(효종3) 형조판서에 올랐다. 아들 심익현沈益顯이 효종의 딸인 숙명공주淑明公主와 혼인하여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1653년 이조판서에 임명되었고 11월에 정조사正朝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다음해 우의정에 올랐고 다시 좌의정으로 옮겼다. 1657년 동지겸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후 이듬해 영의정에 이르렀다. 저서로는 『만사고晩沙稿』가 있다. 영천의 송곡서원松谷書院에 제향되었다.

원래 사적 제323호로 지정된 윤관尹瓘 장군 묘역의 바로 뒤쪽에 묘가 자리잡고 있었으나 파평윤씨와 청송심씨 문중의 대합의로 인하여 심지원 묘는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그 해 8월 원래의 위치에서 동쪽 구릉으로 이전 복원되었다. 심지원을 비롯해 전부인 안동권씨와 후부인 해평윤씨를 모두 함께 합장하였고 봉분은 단분單墳으로 조성하였다. 봉분 바로 앞에 방부이수方趺螭首 양식의 묘표가 세워져 있다. 비신 앞면에 쓰여 진 글씨를 통해 삼위三位를 모셨음을 알 수 있다. 묘역에는 상석·고석·망주석·문인석의 옛 석물이 갖추어져 있다. 고석의 몸체에는 나어두羅魚頭가 조각되어 있어 주목된다. 묘역 입구에는 방부개석方趺蓋石 양식의 신도비가 서 있다. 비문은 김수항金壽恒(1629~1689)이 짓고 신익상申翼相(1634~1697)이 글씨와 전액을 써서 1686년(숙종12)에 건립한 것이다.

1 2 3

1. 심지원 묘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심지원 구 묘표,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심지원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38호

망이산성
望夷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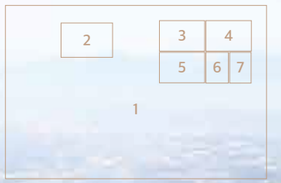
삼국~조선시대
일원
토성 외성둘레 2,080m, 내성둘레 350m, 높이 5m
석성 둘레 남북방향 약 2km
토석혼축성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산48 외

지정일 : 1993.06.03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성시

<망이산성>은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와 이천시 율면 산양리 그리고 충북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대야리 등 행정구역상 2개 도, 3개 시·군에 걸친 망이산(해발 472m)에 위치한다. 중부지방을 가르는 차령산맥의 중간지점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여지도서輿地圖書』 등에 망이성 봉수가 기록되어 있다.

산성은 9부 능성을 따라 테뫼식으로 축조된 토성인 내성과 포곡식 석축산성인 외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정상부에는 조선시대에 축조된 망이산봉수가 위치하고 있다. 성의 전체둘레는 2,080m이고 내성둘레는 350m 정도이다.

이 산성은 일찍이 '망이望夷'가 고구려가 신라를 '동이東夷'라고 했던 데에서 고구려와 관련되어 주목받았다. 현재까지 6차례 발굴조사 이루어졌으며, 1~3차까지는 안성구간이고 4~6차는 충북 음성구간에 해당한다. 유구는 치성을 비롯한 성벽, 문지, 배수구, 집수시설, 8각 건물지,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청동기시대부터 백제·신라·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에 걸친 토기·기와·자기·철제류 등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한편, 봉수는 동래·충주 등을 거쳐 올라오는 직봉과 남해·진주 등에서 올라오는 간봉間烽을 서울 남산(목멱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1. 망이산성 경관,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망이산성 복원성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망이산성 성벽, 2009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4. 서문지, 2010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5. 팔각건물지, 2010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6. '岐豊四年'명 기와, 2013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7. '官', '大官'명 기와, 2013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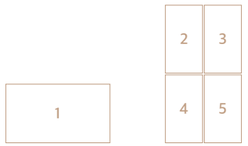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139호

정연 묘역

鄭淵 墓域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2기, 상석 2기, 향로석 1기, 장명등 1기,
보조상석 2기, 문인석 2쌍, 계체석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44

지정일 : 1993.06.03
소유자 : 영일정씨 종중
관리자 : 영일정씨 종중



1. 정연 묘역 전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정연 묘비(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정연 묘비(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문인석(우·앞),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문인석(좌·뒤),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 태종·세종 대의 문신인 정연鄭淵(1389~1444)의 묘이다. 정연은 1405년(태종5) 생원시에 합격하고 음보로 지평에 재직 중 당시 태종의 신임을 받던 영의정 하륜河崙의 비행을 탄핵한 일로 순금사에 내려져 국문을 받았으나 속죄되어 풀려났다. 도관·정랑을 거쳐 1420년(세종2) 사헌부 장령에 승진되었다. 1430년(세종12) 천추사에 임명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이후 이조판서·병조참판·형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442년(세종24) 사은겸주문사가 되어 다시 명나라에 파견되었다. 시호는 정숙貞肅이다.

묘역의 봉분은 단분單墳으로 부인 단양우씨丹陽禹氏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의 형태는 하단을 전면과 좌·우면에 장대석으로 호석을 둘렀는데 방형에 가까운 장방원형분長方圓形墳이다. 봉분 앞에는 연수방부蓮首方趺 형태의 묘비 2기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우측이 정연의 묘비로 1444년(세종26)에 건립된 것이고, 좌측이 부인의 묘비로 1445년에 건립된 것이다. 묘비 앞에는 상석이 각각 배치되어 있고, 보조의 상석은 좌우로 배치하여 놓았다. 묘역은 전체적으로 장대석을 이용한 계체석階砌石을 2단으로 구성해 계절階節과 배계절拜階節로 구분하고 있다.

묘역 배계절에는 좌우에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 문인석 2쌍이 배열되어 있다. 호석을 두른 장방원형분·연수방부형 묘비는 조선전기의 전형적인 묘제墓制 양식이다. 한편, 최근에 장명등을 새로이 설치하였고, 계체석을 한 단 더 조성하였으며, 묘역의 뒤편에는 다른 묘역과 분리시켜 보호할 목적으로 벽돌과 시멘트를 이용해 담장을 만들어 놓았다.

경기도기념물 제14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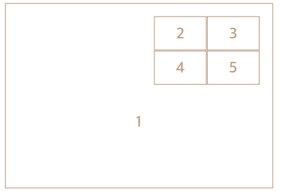
포천 영송리 선사유적

抱川 永松里 先史遺蹟

선사~원삼국시대
일원
지정구역 67,365㎡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158-2외 30필지

지정일 : 1994.07.02
소유자 : 신수철 외 26명
관리자 : 포천시

<포천 영송리 선사유적>은 경기 북부에서 처음 조사된 원삼국시대의 마을 유적이다. 향토사학자인 이우형씨가 처음 발견한 유적으로 레미콘 공장에서 자갈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유적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어 포천군의 의뢰로 1994년 한양대학교박물관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식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민무늬토기와 반달돌칼이 채집되어 1993년 '포천 영송리 선사유적'이라는 명칭으로 경기도기념물 140호에 지정되었지만, 발굴조사에서는 원삼국시대 집자리 5기, 저장 구덩이 1기와 조선시대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유적은 한탄강의 지류인 영평천 일대의 충적지에 위치한다. 집자리는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남쪽에 돌출된 출입 시설이 있는 凸자형의 평면 형태를 보인다. 규모는 집자리의 장축 길이가 5.8~8m 가량으로 중·소형에 해당된다. 집자리 내부에서는 외줄구들의 부뚜막과 화덕 시설, 그리고 기둥 구멍이 확인되었다. 1호 집자리에서 발견된 부뚜막에는 돌 솥받침 위에 완형의 경질무문토기가 그대로 얹혀 있어 당시의 식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 화덕 시설은 불 땐 자리 북쪽에 큰 바람막이돌을 가로로 세워놓은 모습으로 이른바 '중도식中島式 화덕'이라고 부르는 화덕 시설이다. 이외에도 돌로 된 뚜껑을 덮은 토기 3점이 발견되었는데, 일종의 저장 구덩이 안에 매납된 것으로 추정된다.



1. 포천 영송리 선사유적, 2012_ 포천시
2. 5호 주거지, 1994_ 한양대학교 박물관
3. 1호 주거지, 1994_ 한양대학교 박물관
4. B지구 조선시대 유구, 1994_ 한양대학교 박물관
5. A지구 토기군, 1994_ 한양대학교 박물관

집자리에서 출토된 유물은 주로 항아리, 단지 기종의 토기들인데, 대부분 경질무문토기이고 타날문토기는 많지 않다. 철기는 출토되지 않았다. 이러한 유물 양상과 함께 집자리의 평면 형태를 볼 때, 원삼국시대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의 마을 유적이라 판단된다.
영송리 선사유적은 지표에서 빗살무늬토기와 민무늬토기 등이 채집되어 선사시대 이래로 삶의 터전으로 오랜 기간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인근의 거사리에서도 원삼국시대 마을 유적이 조사되어 영평천 일대에 큰 규모의 정치 집단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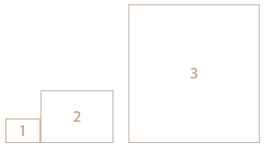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144호

김덕함 묘 및 신도비

金德諴 墓 및 神道碑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2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산신석 1기, 계체석, 신도비 1기
신도비 높이 465.5cm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산1

지정일 : 1993.10.30
소유자 : 상산김씨 충정공 종회
관리자 : 상산김씨 충정공 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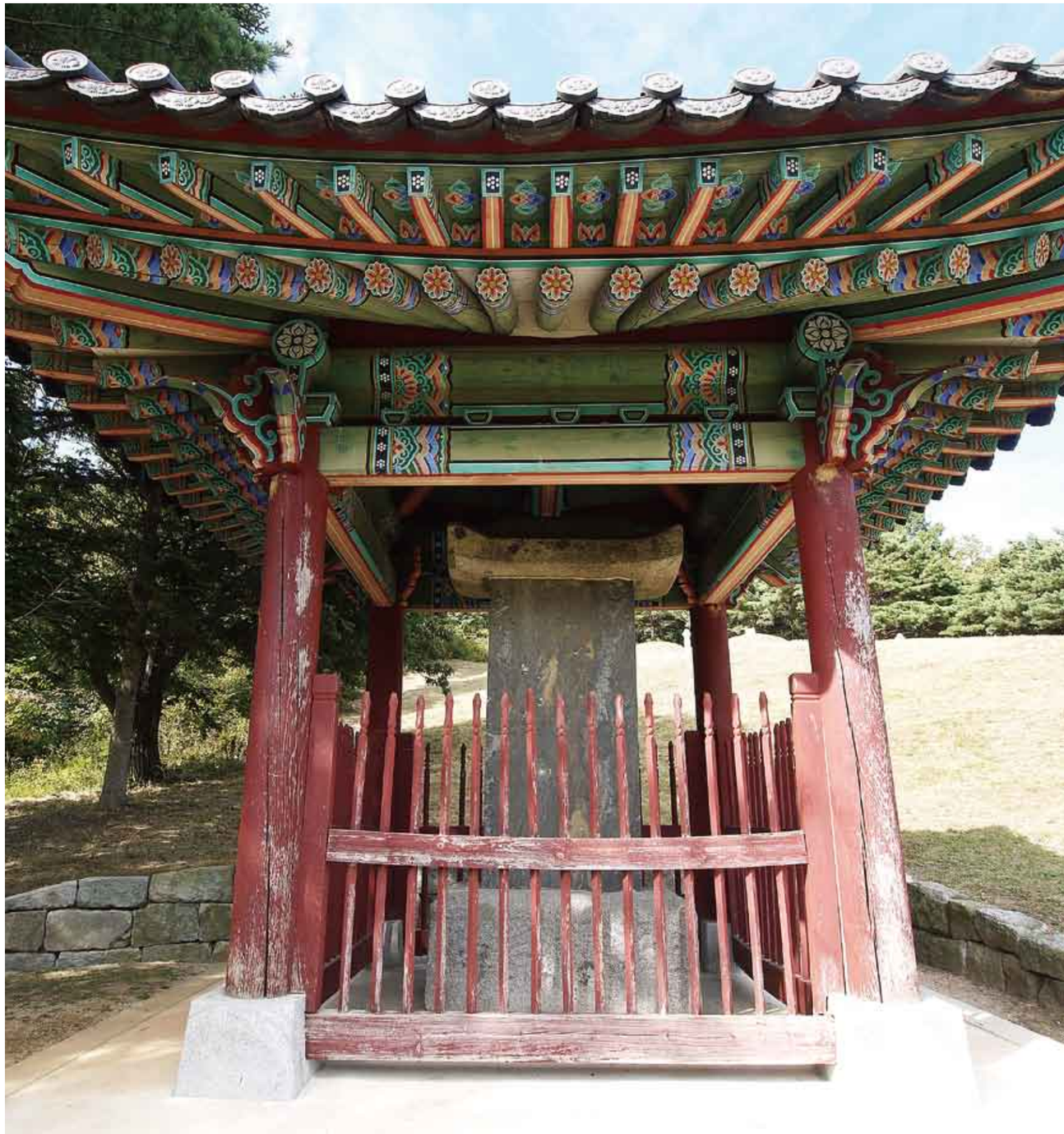


1. 김덕함 및 김연 묘역 전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김덕함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김덕함 신도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 선조~인조 연간의 문신인 김덕함金德諴(1562~1636)의 묘이다. 김덕함은 1589년(선조22) 진사로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연안에서 초토사招討使 이정암李廷馣을 도와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조달하는 일을 맡았다. 1594년(선조27) 군공청軍功廳이 세워지자 도청이 되어 공을 세웠다. 이후 내·외직을 거쳐 광해군 때 군기사정에 이르렀다. 1617년(광해군9) 인목대비에 대한 폐모론廢母論이 일자 이항복李恒福, 정홍익鄭弘翼과 함께 반대하다가 남해에 유배되었다. 1623년(인조원) 인조반정으로 집의執義가 되고 참의를 거쳐 부제학·대사성·대사간을 역임했다. 1627년(인조5) 정묘호란 때에 호소사, 난이 끝난 뒤 여주목사·춘천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636년(인조14) 청백리淸白吏에 선정되고 대사헌에 올랐다.

묘역은 낮은 사성莎城으로 둘러져 있고, 봉분은 단분單墳으로 부인 경주이씨慶州李氏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좌측에 원래의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 묘비와 신비新碑가 세워져 있고, 봉분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있다. 상석 앞에는 좌우로 망주석과 양관조복형梁冠朝服形 문인석이 1쌍씩 배열되어 있다.

신도비는 묘역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팔작옥개석八作屋蓋石, 비신碑身, 비신을 받치는 기대基臺, 전체를 받치는 하부구조인 대좌臺座가 설치되어 있다.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찬撰하고, 김수항金壽恒이 전액篆額을 썼으며, 증손曾孫 김유金濡가 글을 써서 1686년(숙종12)에 건립된 것이다. 한편 이 묘역은 두차례의 이장移葬을 거쳐 1660년(현종1)에 현 위치에 조성된 것이다. 이 묘역 아래에는 김덕함의 증손인 김연金演(1655~1725)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다. 이 묘역에는 1735년(영조11)에 건립된 팔작옥개석형 묘비와 석양石羊, 망주석이 각 1쌍씩 있다.



경기도기념물 제145호

신흠 묘역 및 신도비

申欽 墓域 및 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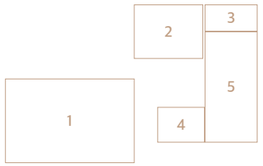
조선시대
1기
단분, 묘표 1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장명등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계체석, 신도비 1기
신도비 높이 335cm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산12-1

지정일 : 1994.04.20
소유자 : 신동선
관리자 : 신동선

조선 선조~인조 연간의 문신이자 한문학의 대가로 칭송되었던 신흠申欽(1566~1628)의 묘이다. 신흠은 평산신씨平山申氏로 1585년(선조18) 진사시와 생원시에 차례로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이이李珥를 두둔한 말로 인하여 당시 정권을 장악한 동인으로부터 이이의 당여라는 배척을 받고 종9품직인 성균관 학유學諭에 제수되었다. 이후 경원훈도·광주훈도를 거쳐 감찰·병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정철鄭澈의 종사관으로 활약하여 지평으로 승진되고, 이어 사성·대사간·부제학·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광해군 때는 한성부판윤·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인조 때에 예문관·홍문관 대제학·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묘역의 봉분은 단분으로 부인 전의이씨全義李氏와의 합장묘이다. 묘역은 사성으로 둘러져 있고, 봉분 앞에는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 묘비·혼유석·상석·향로석이 있다. 상석 전방에는 장명등이 있으며, 상석과 장명등을 중심으로 좌우에 망주석과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 문인석이 1쌍씩 배열되어 있다. 묘비는 1628년(인조6)에 건립된 것으로 후면의 내용은 신흠이 손수 작성한 것이다.

신도비는 묘역의 동남쪽 약 200m 지점에 묘역을 들어오는 입구에 세워져 있는데, 이수귀부螭首龜趺의 형태이다. 비문은 이정구李廷龜가 찬撰하고 심열沈悅이 글을 썼으며 김상용金尙容이 전액篆額을 써서 1699년(숙종25)에 건립된 것이다. 총 높이가 335cm의 대형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비례 감각과 세부적으로 생동감 있는 조각 표현 등이 뛰어난 작품이다.



1. 신흠 묘역, 2015. 경기문화재연구원
2. 신흠 묘역 전경, 2015. 경기문화재연구원
3. 신흠 신도비 이수, 2015. 경기문화재연구원
4. 신흠 신도비 귀부, 2015. 경기문화재연구원
5. 신흠 신도비, 2015.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46호

연천 삼곶리 돌무지무덤

漣川 三串里 돌무지무덤

삼국시대
1기
적석부 장축 28m, 단축 11m, 높이 약 1.3m
연천군 중면 삼곶리 421

지정일 : 1994.04.2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삼곶리부녀회

<연천 삼곶리 돌무지무덤>은 백제초기의 무덤으로 이전에는 수해를 막기위한 '방파제' 또는 '애기무덤', '소산이둥치' 등으로 불리었다.

유적은 서북에서 동남방향으로 흐르는 임진강의 충적대지 위에 입지하며, 1991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 학계에 알려졌다. 이후 1992~1993년에 실시된 두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초기의 돌무지무덤으로 밝혀졌다. 삼곶리 돌무지무덤의 구조는 먼저 충적대지의 평탄면을 정리하여 편평하게 만든 후에 큰 강돌로 2~3단정도의 계단식 적석을 마련하여 기초부를 만들었다. 또한 적석부의 북쪽에는 부석시설 만들고 구릉의 남쪽 경사면을 따라서는 무덤보호시설을 만들었다. 묘곽은 적석부의 중앙부에 동-서로 연접해 있는 2기가 확인되며, 평면형태는 표주박형에 가깝다. 묘곽축조는 막쌓기 수법으로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함께 사용하되 간혹 묘곽의 벽을 따라 돌을 세워 놓기도 하였다. 전체 돌무지무덤의 잔존 규모는 장축 28m, 단축 11m, 높이 1.3m정도이다. 무덤의 북쪽에는 제단시설로 생각되는 곳이 위치한다.

출토유물은 2개의 묘곽에서 목걸이 2개체분과 철촉 2점, 토기편 및 부서진 인골편이 출토되었다. 부석시설과 무덤보호시설에서는 둥근 구슬과 토기 4개체분, 숫돌편 등이 수습되었다. 무덤의 축조시기는 내부에서 출토된 타날문 장경호와 단경 유엽형 철촉短徑 柳葉形 鐵鏃 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고고학적 편년으로 볼 때 2~3세기로 추정된다. 따라서 무덤의 축조는 백제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무덤은 초기 백제의 무덤자료가 매우 빈약한 상황에서 당시의 무덤양식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당시 백제의 영역을 이해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연천 삼곶리 돌무지무덤 전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3. 출토유물(목걸이, 토기), 1993_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도기념물 제147호

오산시 궐리사

烏山市 闕里祠

조선시대
일곽
사당 3×2칸
강당 4×2칸
목재
오산시 매홀로 3

지정일 : 1994.04.20
소유자 : 궐리사
관리자 : 궐리사

<오산시 궐리사>는 조선전기 학자인 공자孔子의 64대손 공서린孔瑞麟(1483~1541)이 후학들을 지도하기 위해 세운 곳으로 지금은 공자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이곳은 1793년(정조17) 공자가 살던 중국 노나라의 마을인 '궐리闕里'의 지명을 따랐고, 사당을 세워 '궐리사闕里祠'라고 불렀다. 이 사당은 1871년(고종8)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졌다가 1900년 다시 복원하였다. 강당은 1981년 다시 지었으며 그 후 삼문, 홍살문 등이 갖추어졌고, 1993년 중국 산동성에서 공자의 석고상을 기증 받아 모시고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유림儒林과 세손世孫들이 춘추로 공자의 탄신誕辰과 기신忌辰일을 기하여 석전釋奠의 예를 올리고 있다.

오산시 궐리사의 건물배치는 현재 성묘聖廟와 성상전聖像殿으로 구분된다. 성묘 영역은 공자의 영정을 모신 성묘전과 제기고, 내삼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사당인 성묘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초익공初翼工 형식의 건물로 겹처마의 맞배지붕으로 되어있다. 사당 정면 각 칸에는 사분합 띠살문을 달았으며, 전면은 개방된 퇴칸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사당 내부 중앙에 벽을 뒤로 물려 감실龕室을 만들었으며 이곳에 공자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다. 성상전 영역에는 공자의 석조상을 중심으로 성인(안자·맹자·증자·자사)들의 조각 석상들이 세워져 있고 '성상전聖像殿'이라 쓰여 있는 현판이 내삼문에 걸려있다. 이외에도 궐리사에는 공자의 교학사상을 가르치기 위한 양현재養賢齋와 공자문화전시관, 행단杏壇, 외삼문, 홍살문과 하마비, 공적비 등이 있다.

1. 궐리사 홍살문, 1977_ 오산시
2. 궐리사 내삼문, 1977_ 오산시
3. 궐리사 내삼문,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궐리사 사당,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오산시 궐리사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53호

화성 남양리 신빈김씨 묘역

華城 南陽里 愼嬪金氏 墓域

조선시대
1기
단분, 묘갈 1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장명등 1기, 문인석 1쌍, 계체석, 곡장
화성시 남양동 산131-17

지정일 : 1994.12.24
소유자 : 전주이씨 육군파 대종회
관리자 : 전주이씨 육군파 대종회

세종의 빈인 신빈김씨愼嬪金氏(1406~1464)의 묘이다. 신빈김씨는 첨지중추원사 김원金元의 딸이다. 1418년에 궁궐에 들어왔으며, 소용昭容·숙의淑儀·소의昭儀·귀인貴人에 차례로 올랐고, 1447년에는 정1품인 빈嬪에 책봉되었다. 소생으로는 계양군桂陽君·의창군義昌君·밀성군密城君·익현군翼峴君·영해군寧海君·담양군潭陽君 등이 있다. 신빈김씨는 천성이 부드럽고 매사에 조심스러워 세종비 소헌왕후에게도 사랑을 받았으며, 소헌왕후는 그녀에게 막내아들 영응대군의 유모 역할을 맡기기도 하였다. 1464년(세조10) 9월 4일 59세를 일기로 졸하였다.

신빈김씨의 묘역은 비교적 넓은 편이며, 크게 3계階로 구분되어 있다. 상계에는 봉분과, 혼유석, 상석, 향로석을 배치하였다. 특히 상계의 계체석의 양 끝은 직각으로 꺾여 들어가도록 한 특이한 배치를 보인다. 이러한 계체석 배치는 15세기 전반 용인의 최사강崔士康(1385~1443) 묘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중계에는 문인석 2기를 배치하였고, 장명등은 현대에 새로 조성한 것이다. 하계에는 석물을 배치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원형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현대에 추가한 조형물이 있다.

묘역 입구에는 신빈김씨의 묘갈墓碣을 세웠다. 비문의 마모가 심하여 비제碑題와 비문이 잘 보이지 않고, 신도비에 주로 부여하는 명銘이 별도로 있다. 전액은 '신빈김씨묘비愼嬪金氏墓碑'이다. 비문은 당대 뛰어난 문장가인 김수온金守溫(1410~1481)이 찬을 하고, 당대의 명필가인 안혜安惠가 글을 쓰고 전액을 올렸으며 건립연대는 1465년이라고 전한다. 형태는 하엽방부형荷葉方趺形으로 머릿돌과 비신은 하나의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대석은 화강암으로 별도로 조성하였다. 상단의 원수圓首는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 작은 편이며 하엽의 줄기가 깊은 선각으로 간격이 조밀하게 조각되었다. 반전된 연잎과 옆면의 계단식 꽃잎형태는 다소 평면적이고 형식화되었다. 묘갈의 총 높이는 285cm이고, 위엄있고 당당한 15세기의 대표적인 하엽방부형 묘갈이다.

문인석은 중계에 2기를 배치하였다. 총 높이가 약 270c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이고, 형태는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이다. 이목구비는 선각위주인데, 눈의 윤곽을 크고 깊게 강조하였고, 입은 돌출시켰다. 얼굴과 신체가 유난히 세장한데, 특히 복두는 높고 길며, 어깨는 좁고 옷주름은 길게 늘어진 형태이다. 홀을 쥔 소매를 따라 직선으로 단순화된 옷주름선과 긴 홀은 수직적 요소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어깨는 사각형태이고, 전체적으로 신체의 굴곡 표현 없이 직선적이다. 세부표현은 저부조로 밋밋한 형태이나 개성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문인석이다.

전체적으로 넓은 묘역, 계체석의 특이한 조성 등 조선초기의 묘제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배치된 석물들은 규모가 크고 당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1. 신빈김씨 묘갈,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신빈김씨 묘역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신빈김씨 묘역 문인석(좌),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신빈김씨 묘역 문인석(우),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신빈김씨 묘역,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54호

양평 신복리 강맹경 묘역

楊平 新福里 姜孟卿 墓域

조선시대
1기
쌍분, 묘표 2기, 상석 2기, 장명등 1기, 문인석 1쌍, 신도비 2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301

지정일 : 1994.12.24
소유자 : 진주강씨 문경공파 종중
관리자 : 진주강씨 문경공파 종중

1. 강윤범(앞), 강맹경(뒤) 묘역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강맹경 묘역,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강맹경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5. 문인석(우),(좌),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삼정승을 지낸 강맹경姜孟卿(1410~1461)의 묘이다. 강맹경의 본관은 진주晉州이고, 자는 자장子章이다. 1451년(문종1) 우부승지에 임명되고, 이듬해 도승지의 자리에 올랐다. 1453년(단종1) 이조참판에 임명되었고 예문관제학, 의정부우참찬 등을 지냈다. 계유정난에서 세조의 집권에 공이 있어 좌익공신 2등에 책록되고 진산부원군晋山府院君에 봉해졌다. 1456년(세조2) 좌찬성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에는 우의정, 그 이듬해에는 좌의정을 맡았으며, 1459년에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담론에 능하고 학문이 깊어 황희의 밑에 있을 때 매우 촉망을 받았다고 전한다.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강맹경의 묘는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매봉산 동쪽 구릉에 동북향으로 위치하여 있다. 영천군부인 정경부인 파평윤씨榮川郡夫人貞敬夫人坡平尹氏와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다. 묘역은 크게 2계階로 나뉘며, 상계에는 봉분과 상석 2기, 하계에는 석인과 장명등을 갖추었다. 상계의 묘표 2기는 모두 2002년에 새로 조성된 것이다.

강맹경의 신도비는 묘역의 동쪽에 신도비각 안에 위치하여 있다. 건립연대는 1462년(세조8)이고, 비문은 당대 문장가인 신숙주申叔舟(1417~1475)가 찬撰하고, 사촌이었던 강희안姜希顔(1418~1464)이 글을 썼다. 특히 강희안은 시·서·화에 뛰어나 삼절三絶로 불리었으나 전하는 글씨가 많지 않아 서예사적으로 의미깊은 자료이다. 형태는 하엽방부형荷葉方趺形이다. 머릿돌과 비신은 대리석으로 한돌로 만들었으며, 비문의 마모가 매우 심하다. 대석은 별도의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원수圓首는 매우 뾰족한 형태이고, 반전된 하엽은 규칙적인 연잎형태로 만들어 다소 형식적이다. 전체적으로 비례가 안정적이고 장대한 형태이다.

양 봉분 앞에 있는 각각의 상석은 봉분과 계체석 사이에 배치하였다. 상석은 별도의 고석없이 상석의 하단부를 안쪽으로 깍아 받침으로 만든 형상이다. 상석부와는 뚜렷한 각을 내어 경계를 표시하였다. 매우 특색있는 표현으로 좌우 상석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

장명등은 하계에 위치하고 있는데, 강맹경의 봉분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사각의 형태이고, 개석은 사모지붕이다. 원수圓首는 다소 낮은 편으로 하단의 하엽은 단순하게 형상화하였다. 지붕의 곡선은 부드러우면서 날렵하게 끝이 올라갔으며, 지붕마루는 두툼하게 돌출시켰다. 화사석은 상대석과 합쳐진 상태이며, 네 면에 화창을 긴 장방형으로 뚫었다. 15세기 중반기를 대표하는 우수한 조형의 사대부 묘 장명등이다.

문인석은 하계에 한 쌍을 배치하였다. 문인석의 형태는 두 손을 소매에 넣은 채 공수拱手하여 시립하고 있는 시자석인侍者石人이다. 시자석인은 조선전기 사대부 묘에서 조성되던 희귀한 도상으로 진주강씨 묘역 등에서 종종 건립되었다. 관모는 방건의 형태로 정수리의 앞뒤로는 작은 트임이 있다. 좁은 소매의 우임 직령포를 입고 있으며, 허리띠는 광다회대廣多繪帶와 유사한데, 허리에서 매듭을 짓고, 나머지 끈을 짧게 늘여 끝술은 선각하였다. 얼굴은 타원형이나 이목구비는 주로 짙은 선각으로 평면화시켰다. 심엽형의 눈과 직선형 눈썹, 코는 그 윤곽을 짙게 선각하여 돌출시켰으며, 입과 턱부분도 돌출시켰는데 15세기의 안면표현법이다. 시자형이나 허리를 굽히지 않아 뻣뻣한 신체형태이며, 손을 포함한 소맷부리 표현은 평면적이고 경직화되었다. 그러나 시자형 문인석의 도상은 15세기에서 16세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되는 특이한 도상으로 시흥에 위치한 강희안姜希顔(1417~1464)묘의 문인석과도 유사하다.

묘역 전체가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15세기의 특이한 묘제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독특한 배치와 석물의 도상으로 주목되는 묘역이다.

1.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 항공사진, 2017
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흔암리 7호 주거지 수혈벽 및 토기출토 상태, 1997
_ 서울대학교박물관
3~6. 출토유물(불에 탄 벼·화살촉·반달돌칼·구멍띠토기),
_ 1997_ 서울대학교박물관

경기도기념물 제155호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

驪州 欣岩里 先史遺蹟

청동기시대
일원
집터 16기
지정구역 48,999㎡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1

지정일 : 1995.08.07
소유자 : 여주시
관리자 : 여주시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은 청동기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마을 유적이다. 이 유적은 현지 주민의 제보로 고故 김원룡 교수가 지표에서 채집한 석기, 토기들을 1962년 학술지에 소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서울대학교박물관과 고고인류학과가 1972년부터 1978년까지 7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집자리 16기를 확인하였다.

유적은 남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해발 123m 야산 정상부와 이곳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 상에 위치한다. 집자리는 긴 네모꼴이며, 규모는 11.6~42 평방미터로 다양하다. 집 규모로 보았을 때, 결혼을 한 단혼 가족 내지 3대에 걸친 대가족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자리 내부에서는 화덕 자리와 기둥 구멍, 그리고 저장 구덩이가 조사되었다. 화덕 자리는 집자리 중앙에 놓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한쪽에 치우쳐 있다.

집자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로 보았을 때, 남성과 여성의 작업 공간이 나뉘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화덕 자리에 가까운 공간에서 여성들은 주로 요리와 방직 작업을 하였고 남성들은 출입구에 가까운 공간에서 석기를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자리에서 출토된 토기는 구멍무늬, 골아가리무늬, 겹아가리짧은빗금무늬 등을 단독으로 새기거나 모든 무늬가 시문된, 이른바 흔암리식토기가 있다. 또한 굽다리접시 모양의 붉은간토기와 흙으로 만든 그물추가 출토되었다. 석기는 간돌검·돌화살촉·바퀴날도끼·돌도끼·반달돌칼·돌보습·갈돌·갈판·가락바퀴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12호 집자리에서 다량의 탄화미와 보리·조·수수 등의 곡물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흔암리 청동기인들은 먹거리를 위해 농경과 더불어 사냥, 어로, 채집을 병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 연대는 출토된 유물과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를 참고할 때, 기원전 8~6세기 무렵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 규모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조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문토기 편년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민무늬토기의 계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학사적으로 높게 평가된다.

경기도기념물 제157호

한응인 묘역

韓應寅 墓域

조선시대
일원
단분, 묘비 1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신도비 1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산18-6

지정일 : 1995.08.07
소유자 : 청주한씨 문중
관리자 : 청주한씨 문중

1
2

1. 한응인 신도비, 2008_ 안산문화원
2. 한응인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우의정을 지낸 한응인韓應寅(1554~1614)의 묘이다.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자는 춘경春卿, 호는 백졸재百拙齋·한유촌韓柳村이다. 승정원 주서·예조좌랑·병조좌랑·지평·정언 등을 지내고, 1584년 종계변무 주청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88년 신천군수로 재직 중 이듬 해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을 적발한 공으로 호조참의가 되었고, 다음해 평난공신平難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임진왜란 때 왕을 따라 평양에 도착하여 임진강 방어에 힘썼다. 1599년 사은사謝恩使로 다시 명나라에 갔고, 그 뒤 우찬성에 올랐다. 1600년 이조판서, 다음해 호조판서·병조판서 등을 거쳐, 1605년 부원군府院君에 진봉되고, 1607년(선조40) 우의정에 올랐다. 초서草書에 뛰어났으며, 저서로는 『백졸재유고百拙齋遺稿』가 있고,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한응인의 묘는 사사동 청주한씨 묘역 안에 위치하여 있고, 부인 전주이씨와 합장한 단묘이다. 묘역은 2계로 구분되어 있고, 상계에는 봉분과 호석·묘표·혼유석·상석이 있으며 하계에는 향로석·망주석·문인석 2기씩을 배치하였다. 청주한씨 묘역 입구 하단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신도비는 옥개방부형屋蓋方趺形이고, 건립연도는 1642년(인조20)이고, 비문은 김류金瑬(1571~1648)가 짓고, 한인급韓仁及(1583~1644)이 글씨를 썼으며, 전액은 김광현金光炫(1584~1647)이 썼다. 개석은 팔작지붕형태이고 윗면에 연판문을 조각하였다. 비신의 석질은 양호한 편이나, 총탄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묘표는 봉분의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으로 윗면이 반달형태이다. 비신은 대리석으로, 대석은 화강석으로 제작하였다. 망주석은 하계에 2기를 배치하였다. 운두雲頭에는 여의앙련如意仰蓮을, 염의廉衣에는 당초문을 조각하였다. 주신이 짧아 규모가 아담한 편이며, 주신에는 작은 세호細虎를 조각하였다. 문인석은 2기를 배치하였다. 형태는 금관조복형이고, 홀을 든 모습이다. 금관의 량梁은 선각으로 단순화하였고, 앞면의 폐슬이나 뒷면의 후수 장식도 선단형태만 간략화하였다. 전체적으로 평면적이고 형식화된 17세기 문인석의 형태이다.

경기도기념물 제158호

연천 학곡리 고인돌

漣川 鶴谷里 고인돌

청동기시대
1기
덮개돌 길이 270cm
굄돌 길이 약 200cm
석재(현무암, 화강암)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273-3, 273-4

지정일 : 1996.01.18
소유자 : 원주원씨 여주공파 종중(원준재)
관리자 : 연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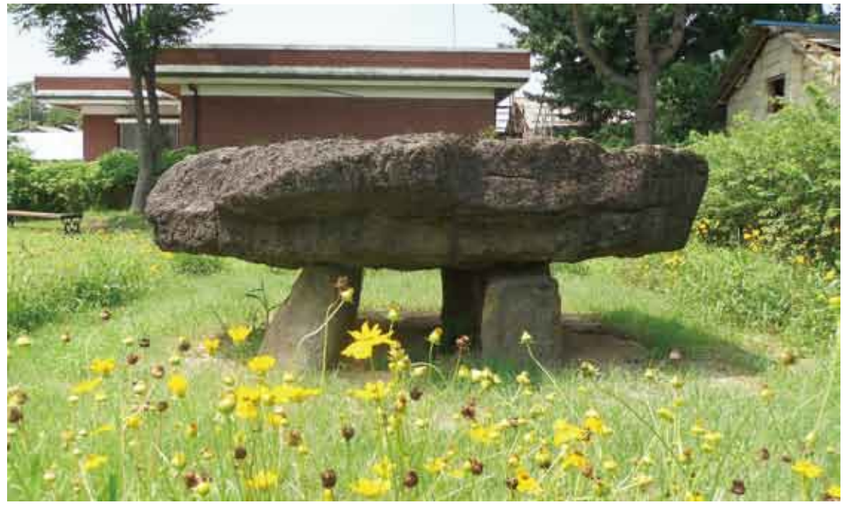
<연천 학곡리 고인돌>은 임진강 옆에 형성된 충적대지에 위치하며,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고인돌을 '굄돌', '고인돌'이라 부른다. 최근까지 마을에 재난이 일어나면 이곳에서 동네굿을 벌이는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고인돌은 덮개돌과 양쪽 굄돌만 있는 탁자식이며, 보존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평면이 오각형인 덮개돌은 가장자리를 많이 손질하였고, 재질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무암이다. 덮개돌의 크기는 길이 270cm, 두께 45cm이며, 놓인 방향은 북동쪽이다. 그리고 덮개돌 윗면에는 지름 7cm 안팎의 굼이 8개 파여 있기도 하다. 굄돌은 길이가 2m쯤 되어 상당히 크며, 서로 다른 암질인 현무암과 화강암을 각 1매씩 골라 축조에 사용하였다.

한편 학곡리에는 이 고인돌 이외에도 발굴조사된 4기 등 모두 5기가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돌깔림 시설이 발견되었으며, 출토유물로는 가락바퀴, 반달돌칼, 민무늬토기 등이 있다.

1
2

1. 연천 학곡리 고인돌, 2000_ 세종대학교 박물관
2. 학곡리 고인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59호

김포 수안산성

金浦 守安山城

삼국~조선시대
1개
둘레 578.5m
지정구역 49,355㎡
석성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산117 외

지정일 : 1996.01.18
소유자 : 김포시 외
관리자 : 김포시

<김포 수안산성>은 김포시 대곶면의 수안산 정상부를 돌로 둘러서 쌓은 삼국시대 테뫼식 산성이다. '수안산'이라는 명칭은 산의 정상부에 조선시대의 봉수대가 있어 이름 붙여진 것으로, 수안산성을 수안산성燧安山城이라고도 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성 안의 봉수터는 남쪽의 김포 백석산 봉수와 서남쪽으로 바다 건너 강화 대모산 봉수에 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성은 1985년과 1995년에 각각 한양대학교박물관과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서문지·추정 치 1개소·추정 건물지·봉수대지를 확인하였으며, 삼국시대 토기편·통일신라시대의 회색경질토기편·고려토기편·분청사기 편 등이 수습되었다. 2003년에는 기존 지표조사로 밝혀진 추정 건물지와 봉수대지에 대한 유구의 존재유무와 공동묘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산성 내부의 보존대책을 수립하고자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지 8동·봉수대 1기를 확인하였다.

산성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의 수안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강화도와 5㎞ 거리에 인접해 있다. 성의 둘레는 578.5m로, 평면형태는 동서가 긴 장타원형이다. 성벽은 군사시설 등에 의해 훼손이 심하여 현재는 남벽의 일부만이 남아 있으며, 보존이 잘 된 잔존성벽은 최대 10단으로 높이는 2~3m 정도이다.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의 기단은 자연암반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성벽은 크기가 고르지 않은 장방형 석재로 수평을 맞추어 서로 맞물리게 하여 거의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렸다.

성벽 및 성내 시설물은 공동묘지와 군사시설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지표 및 시굴조사로 확인된 건물지 8동에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에 이르는 토기와 기와 조각들이 발견되었으며, 『세종실록』「지리지」에 조선시대 제5거 연변봉수 직봉의 봉수로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성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봉수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2 3 4 5

1·2. 김포 수안산성,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김포 수안산성 다구역 건물지, 2003_ 한양대학교 박물관
4. 서쪽 진입로,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산성 내부,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61호

만년제

滿年堤

조선시대
일원
지정구역 42,307㎡
화성시 안녕동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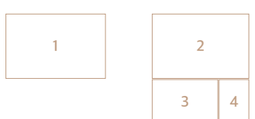
지정일 : 1996.07.29
소유자 : 서갑주
관리자 : 화성시

<만년제>는 현륭원 입구에 축조되어 활용한 제언이다. 1795년(정조19)에 이전까지 '방축수防築藪'라 불리던 제언이 만년제로 개칭되었고, 이후 1798년(정조22) 대대적인 소착공사疏鑿工事를 통해 새롭게 제방 등을 수축하여 저수지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1798년 2월부터 4월까지 군정軍丁 1만 8천여명을 동원해서 총둘레가 583보步에 달하는 규모의 저수지로 만들었다. 정조가 내하전 6,000냥을 자금으로 내려보내 공사재원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1798년 공사에서 만년제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제방을 쌓고 둑위에 버드나무와 떼를 입히거나 소나무를 심었다. 이를 통해 자연제방을 활용하면서 제방 내외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일성록日省錄』 기사에 따르면 동쪽 제방의 길이는 185보, 너비는 15보, 높이는 9척이고, 서쪽 제방은 길이 145보, 너비 30보, 높이 8척, 남쪽 제방은 길이 151보, 너비 13보, 높이 9척, 북쪽 제방은 길이가 102보, 너비가 10보, 높이가 8척에 달하였다.

그리고 만년제 중앙에 괴성魁星이라는 이름의 인공섬이 조성되었다. 괴성은 천원지방을 뜻하는 상징적 의미와 물의 순환을 통한 수질 정화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저수지를 네모꼴로 조성한 것이 땅이 모난 것을 상징하고, 괴성을 둥글게 만들어 하늘이 둥근 것을 본딴 것이었다. 『일성록』에 따르면 괴성은 지대地臺와 석축石築 상층을 각각 81步 규모로 축조되었다.

또한 만년제에는 수문水門과 수갑水閘이 설치되어 제언 아래 경작지에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데 용이하게 하였다. 만년제의 수문은 오방午方(正南을 중심으로 15도 각도 안의 방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상수문과 하수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총 11층에 달하는 수갑이 설치되어 차차로 수갑을 넣었다가 빼면서 수량을 조절하였다. 제언 아래 몽리답蒙利畓이 최대 30여 석락에 달할 정도였다.



1. 만년제 전경, 2014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만년제 괴성, 2012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만년제 하수문, 2013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만년제 은구, 2014_ 경기문화재연구원
5. 만년제 표석_ 화성시향토박물관

경기도기념물 제162호

자유의 다리

自由의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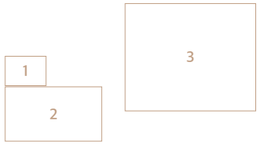
1953년
1기
800×8,300×450~700cm 내외
목재, 금속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400-6

지정일 : 1996.12.24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파주시

<자유의 다리>는 임진강이 흐르는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와 장단면 노상리를 연결한다. 이곳에서 도라산역까지 3km, 개성시까지 10km 정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남과 북의 주민이 오가던 가까운 곳이다. 1905년 용산에서 개성으로 향하는 철도를 부설하며 단선 철교를 만들었고, 1938년 경의선 복선 공사로 임진강을 건너는 철교도 상하행선이 된다. 한국전쟁으로 상행선은 파괴되고, 하행선 철교는 다리 기둥만 남아있었다. 휴전 협상을 진행하며, 군수물자 수송과 포로 교환을 위해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한 후, 북한에 수용됐던 국군과 유엔군 12,773명이 돌아왔다. 1953년 8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33일 동안 판문점에서 트럭을 타고, 임진강 철교까지 온 후 다리를 건넜다. 포로들이 자유를 찾았으므로 '자유의 다리'라는 이름이 생겼다.

자유의 다리는 나무를 짜 맞추었으나,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은 철재를 사용한 혼합구조이다. 통나무를 4개씩 묶어 한 면을 만든 사각형 다리 기둥이 6개 있다. 사각 틀이 뒤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각선과 수평으로 목재를 덧대어 안전한 구조로 만들었다.

건축적으로 평범한 임시 다리이지만, 휴전 이후 최초로 포로를 교환하고, 자유를 찾아 귀환한 장소라는 의미가 있는 곳이다. 한편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 남북 회담의 대표가 지나다녔던 길목으로, 한국전쟁과 남북 분단을 기억할 수 있는 근대문화유산이다.



1. 자유의 다리,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자유의 다리 전경, 2006_ 파주시
3. 자유의 다리,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63호

청주한씨 문익공파 묘역

淸州韓氏 文翼公派 墓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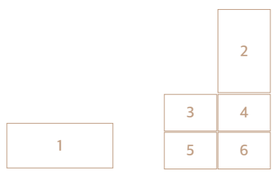
조선시대
일원
묘 4기(한준겸·한회일·한이성·한두상)
신도비 1기
시흥시 거모동 산62-4, 산62-12

지정일 : 1997.05.27
소유자 : 청주한씨 서평부원군 문익공파 종친회
관리자 : 청주한씨 서평부원군 문익공파 종친회

조선중기의 문신이며 인조의 장인인 한준겸韓浚謙(1557~1627)과 후손들의 묘이다. 한준겸은 청주한씨淸州韓氏로 1586년(선조19)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주요 관직으로는 1598년(선조31)에 우승지·경기도관찰사·대사성을 역임하고, 1599년 경상도관찰사, 1603년 부제학을 거쳐 1605년(선조36) 호조판서가 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딸이 인열왕후仁烈王后(1594~1635)로 책봉되자 영돈령부사로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졌다. 1624년(인조2)에 이괄李适의 난에 왕을 공주에 호종하였으며,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세자를 전주에 시종하였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이 묘역은 한준겸 묘역을 중심으로 좌측에 그의 아들 한회일韓會一(1589~1642) 묘역과 우측에 손자인 한이성韓以成(1606~1634) 묘역, 그리고 바로 앞쪽에 증손인 한두상韓斗相(1627~1687) 묘역이 함께 조성된 4대에 걸친 묘역이다. 한준겸 묘역은 원래 강원도 원주 음지촌에 있었으나 그곳의 지세가 후세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아들 한회일이 1636년에 이곳으로 이장해 온 것이다.

한준겸 묘역은 봉분이 단분單墳으로 회산부부인檜山府夫人 황씨黃氏와의 합장묘이다. 석물은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 묘비 1기, 상석·향로석·혼유석·장명등 각 1기, 문인석·망주석·동자상 각 1쌍, 신도비 1기가 있다.



1. 청주한씨 문익공파 묘역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한준겸 신도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한준겸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한회일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한이성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6. 한두상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신도비의 비문은 이정구李廷龜가 찬撰하고, 김상용金尙容이 전篆하였으며, 오준吳竣이 글을 써서 1629년에 건립한 것이다. 신도비는 이수귀부螭首龜趺의 형태이다. 장대한 귀부에 푸른 빛이 감도는 대리석 비신과 생동감이 넘치는 이수의 조각, 안정감 있는 비례감각 등 조선전기의 양식을 충실히 따른 훌륭한 작품이다. 한편, 이 신도비는 한준겸의 묘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여m 떨어져 있었으나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해 1994년 현 위치로 옮겨왔다. 기록에 의하면 영조의 명을 받아 1769년(영조45)에 신도비의 비각이 건립되었다고 한다. 현재의 위치로 옮겨오기 전까지는 신도비 주위에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구획된 장초석長礎石이 있었는데 비각을 복원하면서 이 장초석을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석재를 사용하여 복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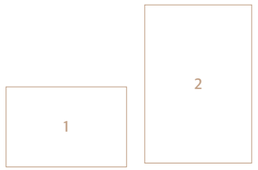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165호

구암 한백겸 묘 및 신도비

久菴 韓百謙 墓 및 神道碑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1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계체석, 신도비 1기
신도비 높이 580cm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산1

지정일 : 1998.04.13
소유자 : 청주한씨 정선공파 종회
관리자 : 청주한씨 정선공파 종회



1. 구암 한백겸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구암 한백겸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중기의 문신 구암 한백겸久菴韓百謙(1552~1615) 선생의 묘이다. 한백겸의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명길鳴吉, 호는 구암久菴이다. 문간공 한상경文簡公韓尙敬(1360~1423)의 후손으로 판관을 지낸 한효윤韓孝胤(?~1580)의 아들이며, 인조의 국구國舅인 서평부원군 한준겸西平府院君韓浚謙(1557~1627)의 백형伯兄이다. 18세에 행촌 민순杏村閔純(1519~1591)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다. 1579년(선조12) 생원시에 합격하고 출사하여 형조좌랑과 청주목사를 지냈으며 1607년 장례원판결사를 거쳐 호조참의에 임명되었다. 실증적이며 고증학적인 방법으로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고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를 지어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저서로 『구암유고久菴遺稿』가 전하며 원주原州의 칠봉서원에 제향되었다.

묘가 자리한 마을의 입구에, 귀부이수龜趺螭首 양식의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귀두龜頭가 우측으로 돌아간 귀부의 등에는 귀갑문龜甲紋을 짜임새 있게 잘 배치하고, 이수의 앞뒤에는 쌍룡쟁주雙龍爭珠를, 좌우에는 단룡농주單龍弄珠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또한 이수 위에 별도의 석재로 하엽보주荷葉寶珠를 올려놓았는데, 하부에 구름 속에서 노니는 용을 아름답게 조각하였다. 이조판서 정경세鄭經世(1563~1633)가 지은 비문을 당대의 명필인 오준吳竣(1587~1666)이 써서 비신의 앞면에만 새겼다. 전액은 김광욱金光煜(1580~1656)이 올렸다. 비문의 말미에 쓰여 진 건립연대는 1644년(인조21)이다.

신도비 뒤로 난 산길을 따라 오르면 청주한씨 세장 묘역이 나타난다. 한백겸 묘는 세장 묘역의 가장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 묘 앞으로는 섬강蟾江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상석·망주석·문인석의 옛 석물이 잘 갖추어져 있다. 복두공복을 입은 문인석의 입과 손을 비교적 작게 표현한 점과 망주석 상단부의 원수圓首를 높게 세운 점이 양식상의 특징이다. 봉분 앞에는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가 서 있다. 비신의 앞면에 피장자의 신원만 썼을 뿐, 나머지 면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전후사정으로 보아 한백겸 사후 1615년(광해군7)경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기념물 제166호

의안대군 방석 묘역

宜安大君 芳碩 墓域

조선시대
2기
단분 2기, 묘비 2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문인석 2쌍, 호석, 계체석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산152

지정일 : 1998.04.13
소유자 :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종회
관리자 :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종회

조선 태조의 8남인 의안대군 이방석宜安大君李芳碩(1382~1398)의 묘이다. 의안대군은 신덕왕후神德王后(?~1396)의 소생으로 1392년 조선 개국 후 최초의 세자로 책봉되었다. 의안대군은 1397년(태조6) 심효생沈孝生의 딸 현빈심씨賢嬪沈氏(?~1448)와 혼례를 올리고 1398년(태조7) 아들을 낳았으나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鄭道傳, 심효생 沈孝生 등과 함께 살해당했다.
이후 1406년(태종6)에 소도昭悼라는 시호諡號가 내려지고, 1412년(태종12)에 다시 오원五原이 내려졌다. 1670년 신덕왕후가 부묘祔廟되자 1680년(숙종6) 의안대군宜安大君으로 추증되었다. 부인 심씨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으로 추증되었다.
의안대군은 후사가 없어서 1437년(세종19)에 세종이 왕자인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를 후사로 정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그러나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의 배후로 처형 되자 세조에 의해서 춘성군 이당春城君李譻이 의안대군에게 입후되었다.

의안대군 묘는 부인 심씨와 상하분上下墳으로 위쪽이 대군, 아래쪽이 부인의 묘이며, 장대석長大石으로 단을 구분했다. 봉분은 장대석으로 방형方形의 호석護石을 부른 방형분方形墳이다. 각 봉분 앞에는 복하엽覆荷葉이 조각된 묘표墓表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군 묘표는 1449년(세종31) 2월에 건립되었으며, 부인 묘표는 같은 해 5월에 건립되었다.
대군 묘표에는 '有明朝鮮國五原昭悼公之墓(유명조선국오원소도공지묘)', 부인 묘표에는 '○○三韓國大夫人沈氏之墓(○○삼한국대부인심씨지묘)'라고 전면자前面字가 새겨져 있다. 부인 묘표 앞에 상석床石과 향로석香爐石이 있으며, 좌우로 복두공복幞頭公服 차림의 문인석 2쌍이 건립되어 있다.

1. 의안대군 방석 묘역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의안대군 방석 묘표,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의안대군 방석 묘역 문인석(우, 앞),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의안대군 방석 묘역 문인석(좌, 뒤),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의안대군 방석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6. 부인 심씨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67호

양주 관아지

楊州 官衙址

조선시대
일원
문화재구역 6,096㎡
양주시 부흥로1399번길 15

지정일 : 1999.04.26
소유자 : 양주시
관리자 : 양주시

<양주 관아지>는 조선시대 양주목楊州牧의 치소로서 기록에 의하면 1504년(연산군10)에 일시적으로 폐목되었다가 1506년(중종1)에 다시 복구되면서 고주내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해동지도海東地圖』 양주목해제에 따르면 1511년(중종6)에 치소를 불곡산佛谷山 남쪽 현재의 자리인 유양리에 이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22년 시둔면(의정부 1동)으로 옮길때까지 411년간 양주군 읍치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다. 불곡산 양주 관아지가 위치한 곳은 남사면에 접해 완만한 구릉지를 이루고 남측 유양천을 중심으로 소규모 경작지가 형성된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양주목 관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중 1871년(고종8) 편찬된 『경기읍지京畿邑誌』의 「양주목읍지楊州牧邑誌」가 가장 상세하다. 공해조公廨條에는 동헌東軒인 매학당梅鶴堂, 연무청, 군관청, 속오초관청, 아병초관청, 사창 정도만 기록되어 있으나, 각방사례各房事例에는 공해조에 누락된 다양한 관아 시설이 규모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객사·형옥·읍창·진창·군기고·화약고·금화정·관청 및 관청고·문루·동헌 및 중동헌·동서행각·내삼문·좌우행각·내아 및 행랑·향청·집사청·초관청·형리청·순령수청·관노청·세락수청·주인청·토포청·강무루 등 31개 시설인데,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객사 관련 시설이 1개, 동헌 관련 시설은 내아를 포함해 14개, 관아 부속시설은 향청을 비롯해 7개, 중영과 관련된 시설은 9개로 구분된다.

1 2 3 4

1. 양주 관아지 동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양주 관아지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양주목사 송덕비군, 1984_ 양주시
4. 양주목사 송덕비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양주 관아지는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어 당초에는 이건된 양주목사 송덕비군과 입구 주변의 옛 사령청 초석과 장대석렬, 훈련장 건물의 초석, 석루조 그리고 동북쪽에 관아 누문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팔각 장초석과 고복석, 장대석 등의 유물 정도만 남아 있다가, 1997년에 동헌東軒이 먼저 복원되었다. 이후 2000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의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건물과 권역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동헌의 위치는 1997년 복원된 동헌의 전면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과 내아 영역의 대략적 윤곽 등이 확인되었다.
동헌 뒤편에는 1792년(정조16) 왕이 광릉에 행차하던 길에 민정을 살피고 신하들과 함께 활을 쏜 뒤 잔치를 베푼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어사대비가 있고, 관아지 서쪽의 작은 계류 상류쪽에 '금화동문', '화대', '관민동락' 등의 글씨가 새겨진 석재가 남아있다.

경기도기념물 제168호

화성 홍법리 남양홍씨 묘역

華城 弘法里 南陽洪氏 墓域

조선시대
일원
묘 5기(홍언필·홍섬·홍형·홍담·홍진도)
신도비 5기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산30

지정일 : 1999.04.26
소유자 : 남양홍씨 종회
관리자 : 남양홍씨 종회

<화성 홍법리 남양홍씨 묘역>은 조선 중·후기 남양홍씨 문중의 집성묘이다. 이 묘역에는 홍형洪泂(1446~1500), 홍언필洪彦弼(1476~1549), 홍섬洪暹(1504~1585), 홍담洪曇(1509~1576), 홍진도洪振道(1584~1649) 등 남양홍씨의 여러 인물의 묘가 넓은 터에 산재하여 있다.

홍언필은 1504년(연산군10) 문과에 급제하였고,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진도로 귀양갔다가 중종반정 이후 사면되었다. 1519년 병조에서 참지·참의 등을 지내고, 우부승지에 재임 중 기묘사화가 일어났다. 이 때 조광조趙光祖와 내외종간이어서 그 일파로 지목되어 옥에 갇혔다가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의 변호로 풀려났다. 이어 형조판서·병조판서·호조판서·대사헌 등을 역임하였고, 1537년 우의정에 올랐다가 곧 좌의정에 이르렀다. 1545년(인종1) 영의정이 되었다. 몸가짐이 검소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청빈하기로 유명하였다.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홍섬은 홍언필의 아들이다. 홍섬은 조광조의 문인으로 부제학·경기도관찰사·대사헌을 거쳐, 1552년(명종7)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 1567년 예조판서가 되었고, 1571년(선조4) 좌의정이 되어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영의정이 되어 세 번이나 중임하였다. 시호는 경헌景憲이다.

홍담은 홍언필의 조카이고 홍언광의 아들이다. 한성부좌윤으로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고, 병조판서·이조판서·예조판서·좌참찬·우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훈구파勳舊派의 거두로서 김개金鎧와 함께 정철鄭澈 등의 사림파와 대립하였다. 시호는 정효貞孝이다.

홍진도는 아버지가 인조의 외조부인 구사맹具思孟의 사위여서 인조와 이종사촌 형제이다. 1623년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이듬해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에 책록되어 남양군南陽君에 봉하여졌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남한산성으로 호종하였고, 그 뒤 판의금부사·한성부판윤·판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남양홍씨 묘역은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청명산 남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남양홍씨 묘역은 크게 3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제1권역은 홍법리의 홍법사로 가는 입구의 우측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홍형, 홍언필·홍섬·홍담·홍진도 등의 묘가 자리잡고 있다. 이외에도 이근방 일대에는 홍귀해, 홍한 등 남양홍씨의 많은 후손들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이중 홍언필의 묘가 비교적 원형 및 석물이 가장 잘 남아있다. 홍언필 묘는 정경부인 봉화정씨奉花鄭氏·여산송씨礪山宋氏의 3개의 봉분이 있다. 묘역은 2계로 나뉘어 상계에는 봉분 3기·묘표 2기·상석이 있으며, 하계에는 향로석·망주석 2기·문인석 1쌍이 있고 묘역 입구에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는 1549년(명종4)에 건립된 것으로, 비문은 시문에 뛰어났던 정사룡鄭士龍(1494~1573)이 찬하고 해서로 유명한 송인宋寅(1517~1584)이 썼다. 형태는 옥개방부형으로 팔작지붕의 개석이고 대석에는 화려한 당초문을 양각하였다. 묘표는 모두 2기로 홍언필·여산송씨의 묘표는 하엽방부형으로 대리석재질이고, 건립연대가 기록되지 않았으며, 봉화정씨 묘표는 규수방부형으로 매우 단순화하였다. 문인석은 복두공복형이고, 균형이 잘 잡히고 유연한 신체곡선을 지닌 16세기 전반기의 문인석이다.

홍섬 묘는 홍법사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의 산록에 위치하고 있다. 봉분의 중앙은 홍섬, 서쪽에는 증 정경부인 진주류씨晉州柳氏가 있고, 동쪽에는 정경부인 청주한씨淸州韓氏와 3개의 봉분으로 조성하였다. 묘역은 2계로 나뉘어 상계에는 봉분 3기·묘표 1기·상석이 있으며, 하계에는 향로석·망주석 2기·문인석 2기를 배치하였다. 묘역 서쪽에는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는 1586년(선조19)에 건립한 것으로, 비문은 김귀영金貴榮(1520~1593)이 찬하였고, 명필 석봉 한호韓濩(1543~1605)가 썼으며, 남응운南應雲(1509~1587)이 전액을 올렸다. 신도비는 옥개방부형의 당당한 형태이다. 묘표는 음기가 없으며 하엽방부형의 16세기 전형적인 형태이다. 문인석은 복두공복형으로 원만한 얼굴과 유연한 신체를 지닌 16세기 후반의 양식을 보인다.

홍진도의 묘는 남쪽 산록에 위치하고 있다. 단분의 합장묘로 상계에는 봉분 1기, 신도비가 있고, 하계에는 상석·향로석·동자석 2기·망주석 1기·문인석 1쌍을 배치하였다. 신도비는 1689년(숙종15)에 건립한 것으로 이의찬李義顚(1669~1745)이 글을 짓고, 후손 홍봉서洪鳳瑞가 글을 썼으며, 김진상金鎭商이 전액을 올렸다. 옥개방부형의 당당한 형태이다. 특히 이곳에는 다른 묘와 달리 동자석 2기가 설립되었는데, 양관조복형 문인석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문관복식에 홀을 든 동자석이 상석 좌우에 바짝 시립하여 있다.

이 외에도 홍형의 묘표는 15세기 말엽의 규수방부형태를 잘 보여준다. 비문은 조광조가 기록한 것을 후에 송시열이 쓴 것이고, 홍형의 묘갈은 1518년(중종13)에 건립한 것으로 좌의정 신용개申用漑(1463~1519)가 지은 것이다. 또한 홍담의 신도비는 1640년(인조10)에 건립한 것으로 대제학 유근柳根(1549~1627)이 짓고, 명필 오준吳竣(1587~1666)이 글씨를 썼다.

화성 남양홍씨 묘역은 조선 사대부 묘제의 원형과 석물이 잘 남아 있는 곳이 많고, 서예사와 금석학적으로 대표적인 묘비가 많이 존재하는 중요한 묘역이다.

1 2 3 4

1. 화성 홍법리 남양홍씨 묘역,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홍섬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홍언필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홍담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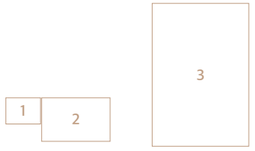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169호

문정공 조광조 묘 및 신도비

文正公 趙光祖 墓 및 神道碑

조선시대
일원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문인석 1쌍, 망주석 1쌍,
계체석, 신도비 1기
신도비 높이 244cm
석재(대리석)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산55-1

지정일 : 1999.10.18
소유자 : 심곡서원
관리자 : 심곡서원



1·2. 문정공 조광조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문정공 조광조 신도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중기의 문신 조광조趙光祖(1482~1519)의 묘이다. 조광조의 본관은 한양漢陽이고 자는 효직孝直이며 호는 정암靜庵이다.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 조충손趙衷孫(?~1479)의 손자이자 감찰監察 조원강趙元綱(1454~1500)의 아들이다. 한훤당 김굉필寒喧堂金宏弼(1454~1504)의 문인으로 성리학 연구에 힘써 사림의 영수가 되었다. 도학道學 정치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분야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다가 반대파에 의해서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실각하고 곧이어 사사賜死되었다. 관직은 대사헌을 지냈으나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묘는 한양조씨 세장 묘역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다. 묘역은 선조 대에 복관復官되면서 새롭게 단장된 것으로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의 옛 석물이 갖추어져 있다. 대리석으로 만든 향로석에 연주連珠를 장식하고 운족雲足을 마련하였으며, 망주석의 상단부에는 운각雲角을 조각하였다. 복두공복幞頭公服을 착용한 조선전기 양식의 문인석은 1995년 한신대학교 박물관의 학술조사 때에는 없었던 것으로, 후손들에 의해 추설追設된 것으로 보인다. 봉분 앞에는 방부원수方趺圓首 양식의 단아한 묘표가 세워져 있다. 백색 대리석으로 제작된 비신의 앞면에는 피장자의 신원을 쓰고, 뒷면에는 이산해李山海(1538~1609)가 지은 6행의 간략한 음기陰記를 새겼으나 글씨를 쓴 인물과 입석 연대는 기록하지 않았다. 방부의 윗면에는 복련覆蓮을 정연하게 배치하였으며 사면에는 연주連珠와 안상眼象을 정성껏 조각하였다.

한편 묘역의 입구에는 묘표와 동일한 양식의 신도비가 건립되어 있다. 좌의정 노수신盧守愼(1515~1590)이 지은 비문을 좌찬성 이산해가 썼지만 마모가 심하다. 대리석 비신의 상단에 올린 전액은 좌부승지 김응남金應南(1546~1598)이 쓴 것이다. 방부의 윗면에는 복련을 새기고 앞뒤에는 화문花紋을, 좌우에는 2칸의 안상을 장식하였다. 건립연대는 1585년(선조18)이다.

경기도기념물 제170호

충렬공 박원종 묘역

忠烈公 朴元宗 墓域

조선시대
일원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장명등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계체석, 신도비 1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산31

지정일 : 2000.03.24
소유자 : 순천박씨 문숙공파 도산종중
관리자 : 순천박씨 문숙공파 도산종중

충렬공 박원종忠烈公朴元宗(1467~1510) 묘역은 중종반정中宗反正(1506) 공신 박원종과 그 일가의 묘산墓山이다. 박원종 묘역에는 박원종과 그 부친인 박중선朴仲善(1435~1481), 아들인 박운朴雲(1493~1562) 등 박원종 일가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다. 박원종의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백윤伯胤이며, 아버지는 적개좌리공신敵愾佐理功臣 박중선이다. 박원종은 1506년(중종원) 성희안成希顔, 류순정柳順汀 등과 함께 연산군을 폐하고 중종을 옹립하였다. 그 공으로 정국공신 1등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 이듬해 정난공신靖難功臣 1등에 봉해졌다. 벼슬은 영의정을 지냈으며, 시호諡號는 충렬忠烈이다.

박원종 묘는 봉분 앞에 묘표, 상석, 향로석, 장명등이 차례로 설치되어 있으며 좌우로 망주석과 문인석이 건립되어 있다. 신도비는 이수방부螭首方趺 형태이며, 신용개申用漑가 비문을 짓고 썼으며 1511년(중종6) 6월에 건립되었다. 이 신도비는 이수 조각이 매우 뛰어나며, 16세기 신도비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박원종 묘 아래에는 아들 박운의 묘소가 있으며 묘표, 혼유석, 상석, 향로석, 문인석이 건립되어 있다. 박운의 묘표에는 전면 상단에 삼족오三足烏, 후면에는 달토끼가 조각되어 있어 특이하다. 박원종 묘 서쪽에는 부친 박중선 묘가 있으며 묘소에는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 등이 갖춰져 있고 1490년(성종21)에 건립된 신도비가 있다. 이러한 박원종 묘역은 16세기 초 묘제墓制와 석물 연구에 매우 중요한 곳이다.

1 2

1. 충렬공 박원종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충렬공 박원종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71호

저헌 이석형 묘 및 신도비

樗軒 李石亨 墓 및 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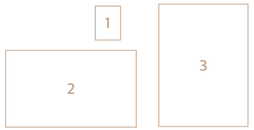
조선시대
일원
단분, 묘비 1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문인석 2쌍, 계체석, 신도비 1기
신도비 높이 345cm
석재(화강암, 대리석)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산3, 215

지정일 : 2000.06.12
소유자 : 연안이씨 정헌공파 종중
관리자 : 연안이씨 정헌공파 종중

조선 성종 대의 문신인 이석형李石亨(1415~1477)의 묘와 신도비이다. 이석형의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백옥伯玉, 호는 저헌樗軒이다. 임천부사 이종무李宗茂의 손자이자 대호군 이회림李懷林의 아들이다. 1441년(세종23) 생원과 진사의 두 시험에 합격하고 곧이어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해 사간원정언에 제수되었다. 1447년 문과 중시에도 합격하여 왕명으로 진관사津寬寺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1455년(세조1) 첨지중추원사와 전라도관찰사를 지내고 1466년 팔도도체찰사를 겸해 호패법을 철저히 재정비 하였다. 1470년(성종1) 판중추부사에 올랐으며 1471년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에 책록되고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시문에 능하였으며 『치평요람』과 『고려사』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저서로 『대학연의大學衍義』, 『대학연의집략大學衍義輯略』, 『저헌집樗軒集』 등이 있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묘는 부인 연일정씨延日鄭氏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은 단분單墳으로 조성하였다. 봉분 좌측에 방부원수方趺圓首 양식의 묘표가 세워져 있다. 검게 산화된 대리석 비신을 종縱으로 꽂은 점이 특이하다. 앞면에는 피장자의 신분을 써 놓았다. 음기는 7대손 청풍도호부사 이희조李喜朝가 글을 지었으나 글씨를 쓴 인물을 밝히지 않았다. 묘역에는 문인석 2쌍만이 옛 석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양식상 바깥쪽 문인석의 시기가 올라가고 안쪽 문인석의 시기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상석과 향로석은 최근에 설치한 것이다.

묘역 입구의 비각에 방부원수方趺圓首 양식을 갖춘 신도비가 안치되어 있다. 원래는 묘 바로 아래에 있었으나 최근에 묘역을 정비하면서 지금의 위치로 이건한 것이다. 비신의 상단에는 병조판서 김상용金尙容(1561~1637)이 쓴 전액이 새겨져 있다. 김상용은 중국 당唐의 이양빙李陽氷 전서체篆書體에 매우 능하여, 당시 공사公私 간의 비석에 쓰여 진 전액이 대부분 그의 손에서 나왔다. 비문은 4대손 판중추부사 이정구李廷龜(1564~1635)가 짓고 외6대손 동양위 신익성東陽尉申翊聖(1588~1644)이 글씨를 썼다. 건립연대는 1624년(인조2)이다. 화강암으로 만든 방부 위에, 하얀색 무늬가 가늘게 수놓인 청대리석 비신을 세워 놓았다.



1. 저헌 이석형 묘표,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저헌 이석형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저헌 이석형 신도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72호

음애 이자 묘역

陰崖 李耔 墓域

조선시대
일원
쌍분, 묘비(구·신) 2기, 상석 1기, 혼유석 1기, 향로석 1기,
문인석 1쌍, 표지석 1기, 계체석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산11-17

지정일 : 2000.06.12
소유자 : 한산이씨 종중
관리자 : 한산이씨 종중

조선전기의 문신이자 기묘명현己卯名賢 중 한 사람인 이자李耔(1480~1533)의 묘이다. 이자의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차야次野, 호는 음애陰崖·몽옹夢翁·계옹溪翁이다. 이색李穡의 후손으로, 대사간 이예견李禮堅의 아들이다. 1506년 중종반정 후에 발탁되어 홍문관수찬·교리 등을 지내다가 1517년부터 홍문관 전한·직제학을 거쳐 부제학에 이르렀다. 그 후에 좌승지로 옮겼다가 다음해에 대사헌이 되었다. 이 무렵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 등의 신진 사류들과 교유를 하면서 도학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그들의 급진적 개혁 정책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 사림파가 참화를 입게 되자 그도 여기에 연좌되어 파직·숙청되었다. 그 뒤 음성·충주 등지에 은거하여 세상을 등지고 독서와 시문으로 소일하고, 이연경李延慶·김세필金世弼·이약빙李若氷 등과 학문을 토론하며 여생을 마쳤다. 저서로는 『음애일기陰崖日記』와 시문집인 『음애집陰崖集』이 있고, 『기묘명현록己卯名賢錄』에 올랐다.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이자의 묘는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의 구아산의 서쪽 기슭 한산이씨 묘역에 위치하여 있다. 한산이씨의 묘역은 묘역 입구에서부터 차례대로 아래에서부터 이추, 이자, 이운, 이예견의 묘 등 많은 조선시대 묘가 조성되어 있으며 석물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자의 묘는 쌍분인데, 부인인 정경부인 의령남씨宜寧南氏, 정경부인 인천채씨仁川蔡氏와 함께 조성된 것이다. 묘역은 2계로 나뉘었으며, 상계에는 봉분 2기, 혼유석, 상석을 배치하였고, 하계에는 향로석, 문인석 2기를 배치하였으며 동쪽에는 묘표를 세웠다. 서쪽에는 2001년에 새로 건립한 묘표가 있다. 옛 묘표는 옥개방부형屋蓋方趺形의 큰 규모인데, 음기에는 '崇禎紀元後五丙子四月日立(숭정기원후 오병자사월일립)'이라는 기록이 있어 1936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봉분의 아래에는 앞부분에만 4매의 장대석을 받쳤는데 양 끝은 앞쪽으로 각을 꺾은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서울의 광평대군 이여李璵(1425~1444) 등 조선초기의 묘제에서 드물게 나타나며 이 외에도 같은 한산이씨 묘역 내의 부친 이예견李禮堅(1436~1510), 아들 이루李耬의 묘역에서도 유사하게 설치되었다.
문인석은 금관조복형金冠朝服形으로 얼굴은 둥글고 신체표현이 유연한 16세기 전반기의 전형적인 양식이다. 금관의 량梁의 구획이 명확하지 않고 금관 뒷면의 장식만 형상화한 단순한 형태이다. 뒷면 허리띠 아래로는 후수의 문양을 커다란 꽃잎형의 운문으로 양각하고 좌우로는 패옥佩玉을 연주문의 형태로 음각하였다. 안정적인 신체비례에 어깨면은 둥글고 소매의 옷주름은 부드러운 16세기 전반기의 우수한 작품이다. 상석, 혼유석, 향로석은 후대에 추보한 것으로 보인다.

1. 음애 이자 묘역 전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음애 이자 묘, 2015_ A&A문화연구소
3. 음애 이자 구(舊)묘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음애 이자 문인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음애 이자 문인석(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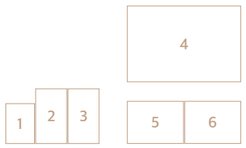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173호

춘곡 정탁 묘역

春谷 鄭擢 墓域

조선시대
일원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문인석 1쌍, 계체석, 호석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15

지정일 : 2000.06.12
소유자 : 정철호
관리자 : 청주정씨 춘곡파 종친회



1. 정탁 묘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정탁 묘 문인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정탁 묘 문인석(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정탁 묘역,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정탁 묘역 사성(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6. 정탁 묘역 사성(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 개국공신인 춘곡 정탁春谷鄭擢(1363~1423)의 묘이다. 정탁은 청주한씨淸州韓氏로 1382년(우왕8)에 문과에 급제하여 춘추수찬春秋修撰이 되었다. 이후 호조와 병조의 좌랑을 역임하고, 1392년(공양왕4)에 광흥창사가 되었는데, 같은해 이성계李成桂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여 개국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이후 사헌지평을 역임하고, 대장군으로 성균대사성에 승진하였다. 1396년(태조5)에 중추원 우승지로 있을 때 현안으로 대두된 표전문제表箋問題의 찬표인撰表人으로 명나라에 가서 해명한 다음 좌승지로 서용되었다. 1398년(정종 즉위년)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李芳遠을 도와 정사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1412년(태종12) 정조사로 명나라에 다녀오고, 1415년(태종15)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에 봉하여졌다. 1421년(세종3) 진하사進賀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우의정에 올랐다. 시호는 익경翼景이다.

묘역은 대형의 봉분과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 묘비, 상석, 문인석 1쌍이 있으며, 장대석을 이용한 2단의 계체석階砌石으로 계절階節과 배계절拜階節로 공간을 구분하여 조성하였다. 봉분의 전면에는 사다리꼴 형태로 호석護石이 조성되어 있는데, 전면 중앙에는 1단의 호석을 둘렀고, 그 좌우에는 2~4단의 호석을 조성하였다. 현재 봉분으로 덮여 있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면 중앙의 호석은 형태로 보아 고려 및 조선전기까지 전형적인 묘제 양식이었던 방형方形 구조의 호석을 둘렀던 지대석地臺石으로 판단된다.

묘비의 비문은 마모가 심하여 일부 글자만을 판독할 수 있다. 문인석은 복두공복幞頭公服에 홀笏을 든 형상인데 전면에 수염과 의습선衣褶線을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해 놓았고, 후면에는 복두의 각角, 공복의 야자대也字帶를 조각하였다. 한편, 장명등과 망주석은 원래 설치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분실되었다.

경기도기념물 제175호

아담스 기념관

아담스 記念館

1923년
1동
지정구역 350㎡
지하 1층, 지상 2층
벽돌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0-22

지정일 : 2001.01.16
소유자 : (재)삼일학원
관리자 : (재)삼일학원

<아담스 기념관>은 1923년 건립된 삼일학원의 교사校舍로, 미국 아담스교회의 도움을 받아 세워졌다. 삼일학원은 미국인 선교사 W.스웨어러(W.Swearer, 1971~1916, 한국명 서원보)가 15명의 소년을 모아 시작한 교회 부설 학교로, 교회건물을 빌려서 수업하였다. 수원지방감리사였던 노블 목사가 미국 아담스 교회에서 기부금을 지원받아 수원시 매향동에 근대식 학교 건물을 세워 아담스 기념관(North Adams Memorial)이라 불렀다. 아담스 기념관은 1940년까지 삼일학교로 사용되었다. 이후 교장실과 교무실, 채플실, 기도실 등으로 사용하였다.

설계는 아담스 교회 선교부에서 하였으며, 중국인 왕영덕王永德이 공사를 맡았다. 1923년 5월 7일에 준공하여, 같은해 12월 12일에 공사를 마쳤다. 아담스 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벽돌구조이다. 초기에는 T자형 평면이었으나, 뒷부분에 화장실을 덧붙인 십자형 평면이 되었다. 현관은 한쪽으로 치우쳤으며, 몇 개의 계단을 오르면 1층이다. 흙과 접하는 아랫벽은 다듬은 돌을 쌓고, 1·2층 벽면은 붉은 벽돌이다. 내부 마감은 대부분 목재이며, 바닥은 마루이다. 창호 윗부분은 벽돌을 세웠으며, 아랫부분은 석재를 가로질러 두었다. 지붕은 모임지붕으로 목조트러스에 천연슬레이트로 마감하였다. 현관 지붕은 삼각형이 보이는 박공 모양이며, 지붕에 삼각형으로 돌출한 지붕창(dormer window)을 설치하였다.

수원에 기독교가 전파되던 때에 근대교육의 현장과 근대건축의 원형이 남아있으며, 근대문화유산을 현 상황에 맞춰 활용하는 좋은 예이다.

1
2

1. 삼일학교, 1937_ 수원박물관
2. 아담스 기념관,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76호

하우현성당 사제관

下牛峴聖堂 司祭館

대한제국시대(1906년)
1동
3×2칸
석재, 목재, 시멘트 벽돌
의왕시 원터아랫길 81-6

지정일 : 2001.01.22
소유자 :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관리자 :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1
2

1. 하우현성당 전경, 2016_ 의왕시
2. 하우현성당 사제관, 2016_ 의왕시

하우현 성당은 1900년대 초반에 박해를 피하던 천주교인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청계산과 광교산을 잇는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다. 교인들은 1844년에 공소공동체를 만들고, 1893년에 공소가 되었으며, 1900년에 본당으로 분리된 후 1906년에 사제관을 지었다.

<하우현 성당 사제관>은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돌로 만든 단을 쌓아 땅 높이를 정리한 후 건물을 세웠다. 첫 번째 단은 아홉 개의 계단이 있고, 두 번째 단은 일곱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두 번째 단의 계단은 낮은 돌난간으로 품격을 주었다. 건물 앞면은 두 번째 단에서 시작하지만, 뒷면은 첫 번째 단 높이 정도이다. 아랫단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경사로 생긴 지하 창고로 들어가는 여닫이문이 있다. 팔작지붕에 퇴칸을 가지고 있어 전통 건물로 보이지만, 실내 평면 구성과 내외부 벽체, 평평한 천장, 여닫이 창호, 난방방식 등이 서양식이다.

벽면에 기둥이 없어 칸 구분이 어렵지만, 앞면 3칸, 옆면 2칸이며 칸에 맞춰 실내를 나눴다. 건물의 앞면 중앙에 출입 공간과 거실, 왼쪽에 식당과 뒷방, 오른쪽은 앞뒤 칸을 쓴 큰 방이 있다. 벽체는 자연스러운 모양의 돌을 불규칙하게 허튼층으로 쌓고 흰색 회줄눈을 넣었다. 건물 네 면에 툇 기둥을 두고 처마를 만들었다. 퇴칸에 있는 사각기둥은 원형장주圓形長柱초석 위에 받쳐두었다. 나중에 사모기둥 사이에 원기둥을 세워 보강하였다. 건립 초기의 기둥과 보강한 기둥은 모양과 색으로 구분해 두었다.

건립 초기보다 앞면 출입구의 폭이 줄었고, 앞쪽 툇마루도 없앴으며, 실내 마감과 창호도 변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건물 구조체는 큰 변화가 없고, 부재도 좋은 편이다.

사제관 옆 본당은 1965년에 건립하였으며 서양 성당 건축(basilica)을 단순한 모양으로 처리하고 흰색으로 마감하였다. 팔작지붕의 한양절충식 사제관과 현대적인 본당은 조화롭게 대조와 대비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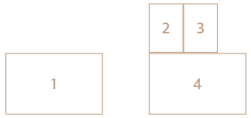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177호

청풍김씨 문의공파 묘역

淸風金氏 文毅公波 墓域

조선시대
일원
묘 5기(김식·김육·김좌명·김성응·김시묵)
신도비 4기
남양주시 삼패동 산29-1, 산41-1 외

지정일 : 2001.09.17
소유자 : 청풍김씨 문의공파
관리자 : 청풍김씨 문의공파



1. 김성응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김육 신도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김좌명 신도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김식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청풍김씨 문의공파 묘역은 문익공 김식文毅公金湜(1482~1520)을 비롯하여 3대손 영의정 김육金堉(1580~1568), 4대손 김좌명金佐明(1616~1671), 7대손 김성응金聖應(1699~1764), 8대손 김시묵金時默(1722~1772)의 묘이다.

김식은 청풍김씨로 사림파의 대표적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당시 사림의 영수로 숭앙받던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훈구세력 제거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해 미신타파·향약실시·정국공신의 위훈삭제 등의 개혁정치를 폈다. 조광조 등과 함께 기묘팔현己卯八賢으로 일컬어지며, 명종 때 복관되어 선조 때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익文毅이다. 김육은 문신으로 실학적 성향을 지니고 대동법大同法의 시행 등 제도개혁을 추진한 정치가이다. 영의정을 역임하였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묘역은 남양주시 삼패동 산29-1 소쿠리마을 왼쪽 편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청풍김씨 묘역은 위 5명의 묘역을 비롯하여 조선중기 이후부터 이곳에 안장되어 세장지世葬地를 이루어 왔다. 특히 위 5기의 묘역들은 인물의 역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석물의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묘역의 석물 중 가장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은 김육과 김좌명의 신도비이다.

김육과 김좌명의 신도비는 소쿠리마을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8m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세워져 있다. 이 신도비들은 모두 이수·비신·비대·대좌로 구성되어 있다. 규모는 총 높이가 4m에 이르는 대형이다. 김육 신도비의 비문은 이경석李景奭이 찬하고, 아들 김좌명이 글을 써서 1664년(현종5)에 건립한 것이다. 이수螭首에는 전·후면에 2마리의 이무기가 앞발을 치켜들고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비대에는 상단에 연판문蓮瓣紋을 조각하고, 전·후면에는 2구획으로 나누어 절지문折枝紋과 기린麒麟을 조각하였으며, 좌우 측면에는 절지문과 연당초문蓮唐草紋을 새기고 있다.

김좌명 신도비의 비문은 박세당朴世堂이 찬하여 1679년(숙종5)에 건립한 것이다. 이수에는 전·후면에 2마리의 이무기가 앞발을 치켜들고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비대에는 상단에 연판문을 조각하고, 전·후면에는 2구획으로 나누어 절지문折枝紋과 해태를 조각하였으며, 좌우 측면에는 상단에 절지문과 하단에 2구획으로 나누어 화문花紋을 새기고 있다. 이 두 신도비는 전체적으로 비례가 안정감 있고, 조각이 우수한 신도비이며, 양질의 석재를 사용하여 보존상태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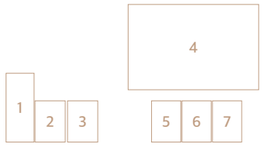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178호

송석 최명창 묘역

松石 崔命昌 墓域

조선시대
일원
쌍분, 묘비 2기, 혼유석 1기, 상석 3기, 향로석 1기, 동자석 1쌍,
문인석 1쌍, 계체석, 신도비 1기
양주시 덕계동 산64

지정일 : 2002.04.08
소유자 : 개성최씨 참판공파 종중
관리자 : 개성최씨 참판공파 종중



1. 송석 최명창 신도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3. 송석 최명창 묘비(좌)·(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송석 최명창 묘 전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송석 최명창 묘 동자석(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6. 송석 최명창 묘 향로석,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7. 송석 최명창 묘 동자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중종 대 청백리淸白吏에 선정된 최명창崔命昌(1466~1536)의 묘이다. 최명창은 개성최씨開城崔氏이며, 호는 송석거사松石居士이다. 1489년(성종20)에 진사, 1504년(연산군10)에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가 되고, 그 뒤 성균관전적·응교를 역임하였다. 1519년에 예조판서를 거쳐 뒤에 황해도관찰사를 지낸 뒤 전주부윤과 원주목사가 되었다. 관직에 있었을 때는 소신껏 건의하여 많이 채택되었으며, 병이 깊어지자 아들을 불러놓고 검소한 장례를 당부하였고, 항상 집이 누추하여 친구의 방을 빌려 기거하였다고 한다. 이후 그는 중종 때 청백리淸白吏에 선정되었다.

묘역의 봉분은 쌍분雙墳으로 부인 단양우씨丹陽禹氏와의 합장묘合葬墓이다. 석물로는 묘비 2기·상석 3기·동자석 2기·문인석 2기·향로석 1기 및 계체석 등이 있다. 그리고 묘역의 좌측 30m 아래에는 신도비 1기가 세워져 있다.

쌍분 앞에는 각각 1기의 묘비가 세워져 있는데 신도비문에 의하면 1520년(중종15)에 졸卒한 부인의 묘에 1537년(중종32)에 쌍분으로 합장하면서 2기의 묘비를 함께 건립한 것이다. 따라서 묘표의 재질이 같고, 규모 및 형태도 비슷하나 관석의 문양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 발견되고 있다. 관석의 전면은 모두 유운문流雲紋 속에서 한 마리의 이무기가 여의주를 물고자하는 형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반면 관석의 후면은 최명창의 묘비의 경우 유운문에 해를 조각하였고, 단양우씨의 묘비는 유운문 속에 그믐달을 조각하여 놓음으로써 남편과 부인의 묘표에 양陽과 음陰을 묘사하여 놓은 것이다.

신도비는 묘역의 좌측 아래에 배치되어 있는데 옥개석屋蓋石·비신碑身·기대基臺·대좌臺座로 구성되어 있다. 비문은 김안국金安國이 찬撰하고, 김노金魯가 글을 썼으며, 임필형任弼亨이 전액篆額을 써서 1537년(중종32)에 건립한 것이다.

경기도기념물 제179호

천림산 봉수지

天臨山 烽燧址

조선시대
일원
지정구역 9,287㎡
둘레 80m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35-5, 8-6

지정일 : 2002.09.16
소유자 : 성남시 외 8인
관리자 : 성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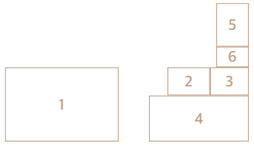
<천림산 봉수지>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3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청계산의 주봉인 망경대와 국사봉 사이에 동북쪽으로 뻗은 능선의 말단부 해발 약 170m 지점이다.

조선전기 발간된 『세종실록』「지리지」(1454)부터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까지 조선 전 시기 발간의 지지에 기록이 있다. 최종 철폐시기는 1895년(고종32)이다. 명칭상 조선 전 시기 발간 지지별로 천천산봉화穿川山烽火, 천천현봉수穿川縣烽燧 혹은 월천현봉수月川峴烽燧 등으로 표기되었으나, 최종 명칭은 천림산봉수天臨山烽燧이다. 봉수군 인원은 『남한지南漢志』(1846)에 봉군 25명, 보 75명의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봉수에는 봉군 5명이 6일씩 번을 섰으며, 봉군 1명당 봉군보 3명씩이 배속되어 봉군의 생계지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노선과 성격은 부산 응봉봉수에서 초기하는 제2거 직봉의 마흔네번째 내지봉수內地烽燧이다. 대응봉수는 남쪽의 용인 석성산봉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북쪽으로 한양의 목멱산 제2봉에 응했다. 당시 주연야화晝煙夜火(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횃불을 올려 신호를 보내는 방법)의 봉수제에서 봉수는 밤에 신호를 보냈던 야화였다.

봉수의 형태는 동서방향 장축의 장타원형이다. 과거 지표·발굴조사를 통해 석축의 방호벽防護壁과 방호벽 상부 원장지垣墻址 및 방호벽 내 5기의 외방내원형 연조煙竈가 북쪽에 치우쳐 동서방향 5~7m 간격을 이루며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이외 봉수 내외부로의 출입을 위한 출입시설 1개소와 부속 건물지 등이 조사되었다. 규모는 동서 장축 33.8m, 남북 단축 12m, 전체 둘레 80m 정도로서 이는 조선시대 내지봉수의 평균규모이다. 출토유물은 도기병 1점을 포함한 도·토기류, 자기류와 상평통보 14점 등이다.

봉수의 규모 및 방호벽과 연조 5기 등의 부속시설로 보아 보존상태가 양호한 조선시대 내지봉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과거 발굴조사 후 보호를 위해 주위 보호휀스를 둘러 놓았다.



1. 천림산 봉수지 전경, 2008_ LH토지주택박물관
2. 천림산 봉수지 석축유구, 2008_ LH토지주택박물관
3. 천림산 봉수 제1연조, 2008_ LH토지주택박물관
4. 천림산 봉수지, 2008_ LH토지주택박물관
5. 천림산 봉수지 출토 병, 2008_ LH토지주택박물관
6. 천림산 봉수지 출토 상평통보, 2008_ LH토지주택박물관

경기도기념물 제180호

여주 매룡리 고분군

驪州 梅龍里 古墳群

신라시대
일원
지정구역 177,607㎡
여주시 매룡동 산1-1

지정일 : 2002.09.16
소유자 : 김홍식 외 35인
관리자 : 여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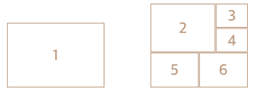
<여주 매룡리 고분군>은 여주시에서 동남쪽으로 3㎞쯤 떨어진 황학산黃鶴山(175.3m)의 북쪽 능선이 매룡리를 지나 남한강변의 상동까지 이어지는 해발 80m 내외의 능선과 동으로 뻗은 가지능선 일대에 해당한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의하면 상리에는 고분 10여기가, 매룡리에는 50여기의 고분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1916년 일본인 이마니시今西龍(1875~1932)가 처음 상리1·2호분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1927년에는 매룡리 2·8호분의 실측도와 유물을 소개하였는데, 이 중 2호분은 1916년의 상리 1호분을 지명과 호수를 바꿔 소개한 것이다. 보고된 3기는 모두 회장방형橫長方形 석실로서, 연도羨道는 남쪽 긴 벽의 중앙에 돌방보다 높게 단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다. 북·동·서 3벽을 내경하도록 쌓은 다음 편평한 천장석을 덮고 돌 틈을 회로 막은 구조이다. 바닥에는 시상屍床이 동서 양쪽에 2개씩 있으며, 1호분에서는 석침石枕 5개, 금동귀고리 2점, 도자刀子 2점이 출토되었고, 8호분에서는 석침 1개가 출토되었다.

그 후 1987·88년에는 한림대학교박물관에서 고분군의 가장 남쪽에 있는 매룡리 용강골 고분을 발굴하여, 신라 석실분 13기와 고려시대 토광묘土壙墓 2기를 조사하였다. 이 고분군의 석실분은 모두 장방형 평면에 경사면 아래쪽의 짧은 벽에 연도가 나 있는 것이어서 상리 석실분과는 다른 구조이다. 석실은 약간 굴광하여 축조한 반지하식 구조이다.

석실벽은 할석割石을 이용하여 내경하도록 축조하고 천장에 큰 편평석 2~3매를 덮은 구조이나, B-1호분만 말각조정抹角藻井 천장이다. 연도는 중앙에 있는 것도 1기 있으나 대부분 오른쪽에 편재해 있다. 연도 바닥과 시상대가 석실 바닥보다 20~50cm 높게 되어 있는 점은 상리 석실분과 같다. 석실 안에서는 석침, 철도자, 단경호, 병형토기, 단각고배, 병, 반, 보주형꼭지 뚜껑, 적갈색파수부옹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D-2호분에서 출토된 병의 동체부에는 '井(정)'자가 음각되어 있기도 하다.

여주지역은 백제 한성기에 술천성述川城으로 비정되고 있으며, 한성 함락(475) 이후에는 고구려의 골내근현骨乃斤縣이 되었다가, 신라 진흥왕의 한강유역 진출(552) 이후 신라 영역으로 편제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는 6세기 중·후반 이후에 축조된 신라의 지방고분군으로서, 일부 5세기 이후의 고구려계 석실요소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백제 묘제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 여주 매룡리 고분군 이전 복원된 전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여주 매룡리 고분군, 2006_ 여주박물관
3. 매룡리 고분군 제8호분, 1927_ 국립중앙박물관
4. 매룡리 고분군 제154호분, 1927_ 국립중앙박물관
5. 매룡리 고분군 출토 토기, 2000_ 경기문화재연구원
6. 매룡리 고분군 일부 전경, 1927_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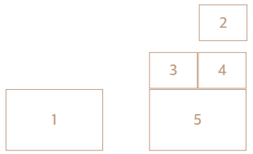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182호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

坡平尹氏 貞靖公派 墓域

조선시대
일원
약 600여 기
(부원군묘역 3기, 정승묘역 7기, 판서묘역 8기, 참판묘역 30기 등)
파주시 당하동 산4-20 외

지정일 : 2002.09.16
소유자 : 파평윤씨 정정공파 교하종중
관리자 : 파평윤씨 정정공파 교하종중



1. 윤번 묘, 2006_ 파주시
2.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재실,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윤번 묘비·석물,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인천이씨 묘비·석물,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인천이씨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은 정정공 윤번貞靖公尹璠(1384~1448)을 비롯하여 그의 후손들의 묘이다.

윤번은 고려 말 판도판서 승례承禮의 아들이다. 음보로 관직에 나아가 신천현감을 거쳐 1428년(세종10) 군기시판관을 역임하였다. 딸이 수양대군首陽大君의 부인이 되자 군기시부정에 승진되고 이어 공조참의가 되었다. 1434년(세종16) 이조·호조의 참판, 경창부윤을 거쳐 1439년 경기도관찰사·대사헌 등을 지냈다. 1440년(세종22) 우참찬·공조판서에 이어 지중추원사가 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고, 1447년(세종29) 판중추부원사가 되었다. 영의정에 추증되고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시호는 정정貞靖이다.

묘역은 파주시 교하면 당하리, 와동리 일대에 파평윤씨 정정공파의 세장지世葬地를 이루면서 약 600여기가 조성되어 있다. 이 중 옛날 석물이 남아있는 묘역은 약 50여기가 조사되었다. 이들 묘역은 조선시대의 묘역이 한 종중에 의해 연대별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묘역 조성의 역사적 계기성繼起性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유적지이다.

윤번의 묘역은 상단에 윤번 묘역이 있고, 약 30m 하단에 부인 인천이씨仁川李氏의 묘역이 있다. 봉분은 모두 장대석을 이용한 방형方形의 호석護石을 두른 방형봉토분方形封土墳으로, 비교적 대형의 호석을 이용한 봉분이다. 묘역은 계체석階砌石으로 3계단을 조성하여 묘역을 상계上階·중계中階·하계下階로 구분한 능원陵園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윤번의 묘비는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으로 1448년(세종30)에 건립된 것이다. 인천이씨의 묘표는 규수방부圭首方趺의 형태로, 1456년(세조2)에 예장禮葬 후 건립된 것이다. 인천이씨 묘역의 석물들은 대체로 윤번의 묘역에 있는 석물보다 규격 및 조각기법에 있어서 크고 정교하며 양질의 석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인천이씨가 세조의 장모로서 세조의 등극 이후인 1456년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이씨 묘역에서 출토된 청화백자靑畫白磁 지석誌石은 1456년에 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최고最古의 청화백자로 우리나라 청화백자 제작기원을 밝히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2012년에 보물 제1768호로 지정되었다.

경기도기념물 제183호

파주 교하 물푸레나무

坡州 交河 물푸레나무

미상
1주
수령 약 150년, 높이 약 11m, 둘레 2.73m
파주시 다율동 986-2

지정일 : 2002.09.16
소유자 : 한국토지공사
관리자 : 한국토지공사

물푸레나무는 '껍질을 벗겨 물에 담그면 파란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푸르게 물들인다'고 하여 이름지어 졌으며, 우리나라 산야의 계곡에 자생하는 나무로 주로 따뜻한 곳에서 자란다. 줄기에는 흰무늬가 있고 4~5월에 연한 녹색의 꽃이 피고 꽃잎은 없다. 가을에 노란색 단풍이 들어 관상가치가 뛰어나며, 열매는 9월에 갈색으로 익는다. 추위에 강하고 물리적 성질이 좋아 악기나 운동용구의 재료로 쓰이며, 예로부터 농경민족인 우리에게 물푸레나무 가지는 도리깨의 재료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옛 선비들은 서당에서 물푸레나무로 만든 회초리를 맞으며 글공부를 한 탓에 과거에 급제하면 물푸레나무에 큰절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교하 물푸레 나무는 다율리의 청석초등학교에서 무수골로 가는 시멘트 포장도로와 경작지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주변 택지개발지구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으나, 보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조선 중종 때 이곳에 정착하게 된 초당 강경서草堂 姜景敍(1443~1510)가 조성한 연못에 심어 진 것이라 전해져 오고 있으나, 주변 환경으로 볼 때 자생한 것이 잔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령은 약 150년으로 추정되며, 나무 높이는 약 11m, 가슴둘레 줄기 지름은 약 96.6cm, 수관 폭은 약 14.4m이다. 수령이 오래된 노거수인데도 불구하고 외관상 나무줄기에 손상이 많지 않고 수세가 건강한 편이다. 주요 특징은 일반적으로 물푸레나무가 외줄기인데 비해 지상에서 약 1.5m까지는 줄기가 하나이지만 그 위는 여섯 줄기로 갈라져 있고, 이 줄기들에서 가지가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둥근 수관형을 보이고 있다.
이 물푸레 나무는 천연기념물 제286호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에 비해 수령은 적어 보이나 아름다운 수형과 수세, 양호한 생장 상태, 마을의 수호목으로 이용되는 등 파주 지역의 고유성과 함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노거수로서 자연경관적·문화경관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파주 교하 물푸레나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84호

미수 허목 묘역

眉叟 許穆 墓域

조선시대
일원
단분, 묘비 1기, 장명등 1기, 문인석 1쌍, 망주석 1쌍, 향로석 1기, 계체석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산90

지정일 : 2002.09.16
소유자 : 양천허씨 미수공파 은거당종중
관리자 : 양천허씨 미수공파 은거당종중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예학禮學에 있어서 일가를 이룬 허목許穆(1595~1682)의 묘이다. 허목은 양천허씨陽川許氏이며, 호는 미수眉叟이다. 50세가 되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제자백가의 책을 연구하다가 다시 경서經書의 연구에 전념하였다. 1674년(숙종1) 복상문제로 제2차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서인의 대공설大功說을 반대하여 기년설朞年說을 채택하게 하는데, 남인이 집권하게 되자 대사헌에 특진되어 이조참판을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1679년 파직 후에는 고향에서 저술과 후진교육에 전념했다. 그림·글씨·문장에 모두 능하였으며, 글씨는 특히 전서篆書에 뛰어나 동방 제1인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전해지는 글씨로는 삼척의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 시흥의 영상이원익비領相李元翼碑 등이 있다. 저서로는 『동사東事』, 『방국왕조례邦國王朝禮』, 『미수기언眉叟記言』 등이 전한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묘역의 상부부터 허목의 조부 허강묘와 조모 진주강씨묘, 고조부 허원과 고조모 선산김씨의 묘, 증조모 전주이씨묘, 허목과 전주이씨의 합묘순으로 조성되어 있다. 묘역의 봉분은 단분單墳으로 단독장묘單獨葬墓이다. 석물로는 묘비 1기·장명등 1기·문인석 2기·망주석 2기·상석 1기·향로석 1기 및 계체석 등이 있다. 봉분 앞의 묘비는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으로 비신은 하얀색이 감도는 대리석이고, 비대는 화강암이다. 비신의 후면에는 '허미수자명許眉叟自銘'으로 시작되고, '작자서作自序'로 끝을 맺는 허목 자작自作의 명銘과 서序가 음각되어 있다. 이 자서명自序銘은 그가 사망하기 2년 전인 86세(1680)에 남겨두었던 것이었다. 이밖에 허목 묘역의 하단에는 허목의 5대조인 허훈許薰(1416~1473)과 부인 고성이씨固城李氏의 합장묘를 이장할 때 출토된 석곽石槨 2기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소실된 허목이 살았던 은거당恩居堂의 정원을 조성하였던 괴석 2점도 위 석곽 옆에 옮겨 배치되어 있다.

1
2

1. 미수 허목 묘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미수 허목 묘역, 2014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85호

포천 고모리 산성

抱川 古毛里 山城

삼국시대
일원
내성 둘레 96,7m, 외성 둘레 24m
지정구역 86,628㎡
토석혼축성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산64

지정일 : 2002.09.16
소유자 : 김석순 외 10인
관리자 : 포천시

<포천 고모리산성>은 고모산 정상부를 둘러서 쌓은 삼국시대 테뫼식 산성이다. 고모리 산성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2001년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지 1개소·건물지 7동·우물지 1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고모리 산성은 포천군 소흘읍의 고모산(해발 386.5m)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고모산은 포천 분지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천천의 상류지역에 해당한다. 이 일대는 의정부·양주·포천·남양주 네 분지의 합류지점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산성의 평면형태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이다. 내성벽의 동벽을 제외하면 나머지 북-서-남쪽의 성벽은 거의 같다. 외성은 대부분 유실되었지만, 남벽과 북벽에 남아 있다.

축조방법은 대체로 흙을 재료로 하는 토성이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토석혼축이, 동벽에서는 석축 구간도 확인된다. 토축 성벽은 바깥쪽은 삭토하여 경사도를 높이고, 상면은 성토하여 성벽을 축조하였다. 토석혼축 성벽은 암반면 위에 할석을 막쌓기로 2~3단 축조한 후에 그 위를 흙으로 성토하였다. 동벽 일부 구간에서 확인된 석축 성벽은 기저부에 잡석을 깔고 그 위에 할석의 편평한 면을 앞으로 하여 위로 갈수록 작은 돌을 사용하여 막쌓기 형태로 석축하였다.

지표조사 결과 건물지에서 흑색마연연질의 직립구연 단경호 등, 3~5세기에 해당하는 백제토기가 주로 수습되었으며, 한성백제 이후 시기의 고구려나 신라, 통일신라의 유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한성백제기에 축성된 산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1
2 3

1. 포천 고모리산성 출토 토기, 2001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 고모리 산성 내성 동벽 20구간, 2001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3. 고모리 산성 내성 북벽 15구간, 2001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경기도기념물 제186호

취몽헌 오태주 묘역

醉夢軒 吳泰周 墓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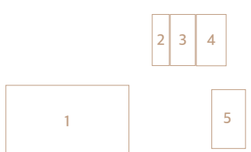
조선시대
일원
단분, 묘갈 1기, 장명등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숙종 어제 치제문비 1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산48

지정일 : 2003.04.21
소유자 : 오세명 외 4인
관리자 : 오세명 외 4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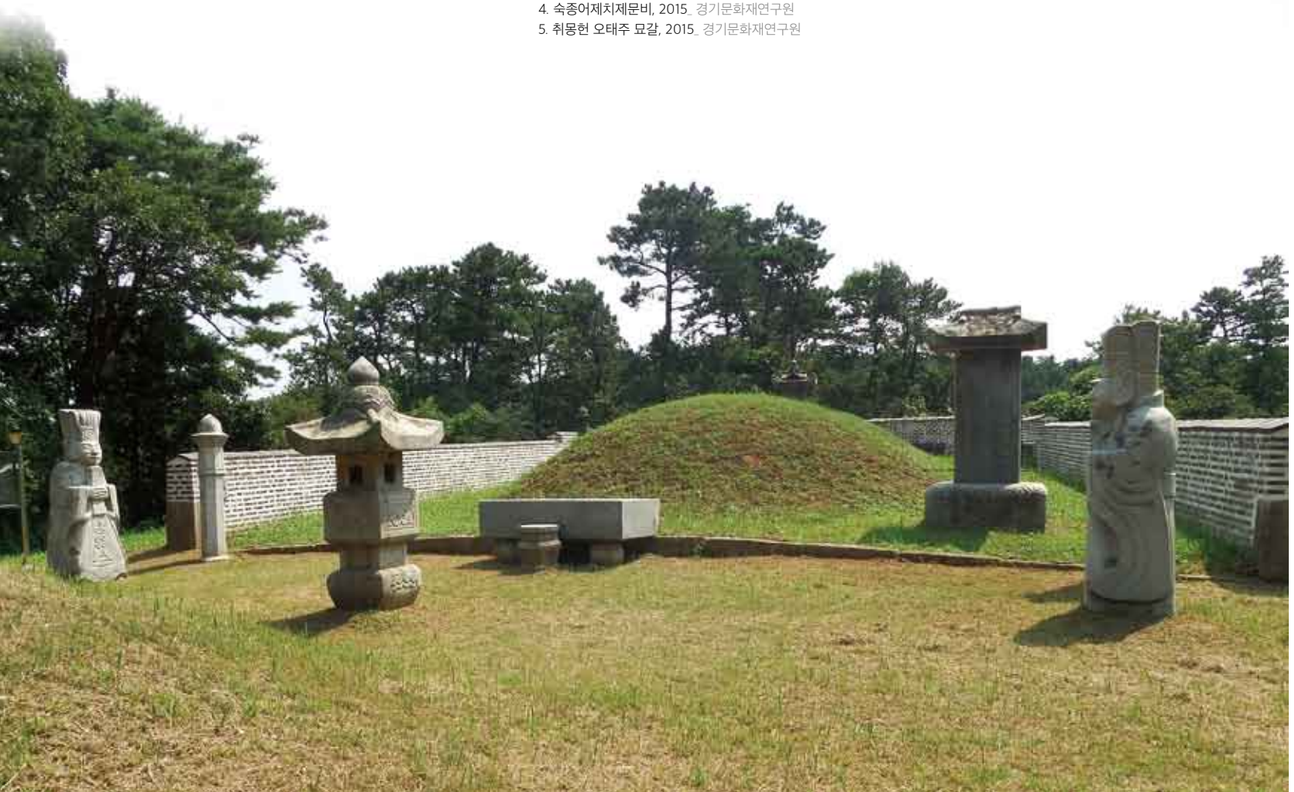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서예가인 오태주吳泰周(1668~1716)와 그의 부인 명안공주明安公主(1665~1687)의 합장묘이다. 오태주는 해주오씨海州吳氏이며 호는 취몽헌醉夢軒이다. 현종의 셋째 딸이자 숙종의 누이동생인 명안공주와 결혼하여, 1679년(숙종5) 해창위海昌尉에 봉해졌다. 1689년 희빈장씨禧嬪長氏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려는데 반대하다가 삭직 당했으며, 그 후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서예를 즐겼다. 글씨를 잘 썼으며 특히 예서隸書에 능했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묘역은 3기의 봉분이 있는데 중앙에 오태주와 명안공주의 합장묘가 있고, 그 위로 오태주의 어머니인 정경부인貞敬夫人 상주황씨尙州黃氏의 묘역, 그리고 아래로는 오태주의 아들인 오원吳援의 묘역이 차례로 배열되어 있다.

오태주 묘역의 봉분은 단분單墳으로 부인 명안공주와의 합장묘이다. 묘역의 석물로는 묘갈墓碣 1기, 숙종어제치제문비肅宗御製致祭文碑 1기, 장명등 1기, 상석·향로석 각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이 배치되어 있다.



1. 취몽헌 오태주 묘 전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취몽헌 오태주 묘 망주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취몽헌 오태주 묘 문인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숙종어제치제문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취몽헌 오태주 묘갈,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봉분 좌측의 묘갈은 팔작옥개석八作屋蓋石, 비신碑身, 기대基臺로 구성되어 있다. 비신의 전면에는 3행으로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조선국 왕녀명안공주지묘朝鮮國 王女明安公主之墓
수록대부해창위겸오위도총綏祿大夫海昌尉兼五衛都摠
부도총관오공태주도장지묘府都摠管吳公泰周道長之墓

묘갈문에 의하여 이 묘갈의 건립과정을 분석해 보면 명안공주가 졸한 다음해인 1688년(숙종14)에 현종이 하사한 비석으로 비를 세울 때 전면의 좌방左方(전면의 첫1행) 만을 새겼는데 그 좌방은 오태주가 손수 쓴 글이었다. 이후 오태주가 1716년(숙종42)에 졸하자 1720년(숙종16)에 김창흡金昌翕이 찬한 묘갈명병서墓碣銘幷序를 새기면서 전면의 우방右方(전면의 2~3행)은 오태주의 유필遺筆을 모아 추각追刻하고, 이 사실을 다시 김창흡의 찬한 글 다음에 추기追記하였다. 따라서 이 묘갈의 건립연대는 1688년이지만 1720년경에 모든 비문이 완성된 것이다. 또한 묘역에는 숙종이 명안공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제문祭文과 오태주가 죽었을 때 지은 제문을 기록한 숙종어제치제문비가 세워져 있다. 장명등과 양관조복형梁冠朝服形 문인석, 망주석은 모두 장식성이 뛰어난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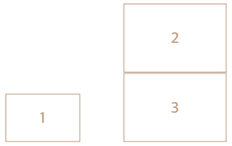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187호

유항 한수 묘역

柳巷 韓脩 墓域

조선시대
일원
쌍분, 묘비 2기, 장명등 1기, 상석 1기, 혼유석 1기, 향로석 1기,
문인석 2쌍, 망주석 1쌍, 계체석, 신도비 1기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산87

지정일 : 2003.04.21
소유자 : 청주한씨 종중
관리자 : 청주한씨 종중



1. 유항 한수 묘역,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유항 한수 묘 전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유항 한수 묘 후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고려의 문신으로 시서詩書에 뛰어나고 당대의 명필로 이름을 남긴 한수韓脩(1333~1384)의 묘이다. 한수는 청주한씨淸州韓氏이며, 호는 유항柳巷이다. 일찍부터 문재가 뛰어나 1347년(고려 충목왕3)에 15세의 나이로 과거에 합격하였다. 충정왕 때 정방의 필도치에 임명되었으며, 왕이 강화로 갈 때 시종하였다. 1361년(공민왕10)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안동으로 피난할 때 호종하였으며, 이후 사복시 판사를 거쳐 좌대언에 승진하였다. 1365년 신돈辛旽이 집권하자 왕에게 신돈이 바른 사람이 아니니 멀리할 것을 아뢰었다가 예의판서로 폄직된 다음 곧 관직에서 물러났다. 1371년(공민왕20) 신돈이 주살되자 왕이 다시 불러 이부상서·수문전학사로 발탁하였으며 곧 승선에 임명됨으로써 전선을 관장하게 되었다. 이후 벼슬은 판후덕부사에 이르렀다. 저서로는 시문집인 『유항집柳巷集』이 있다.

묘역의 봉분은 쌍분으로 부인 안동권씨安東權氏와의 합장묘이다. 석물로는 묘비 2기, 상석·향로석 각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장명등 1기 등이 있다. 봉분은 호석이 없는 원형봉토분이다. 2단의 계체석으로 묘역을 상계·중계·하계로 분리하였다. 좌측 봉분 앞의 묘표는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으로 전면의 글씨는 판독할 수 없으나, 후면에는 공의 5대손 형윤亨允(1470~1532)이 중종 때 건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측 봉분 앞의 묘표는 역시 원수방부의 형태로 후면에는 공의 12대 손 금천군수 숙塾이 숙종 때 건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좌측 봉분 앞의 장명등은 옥개석과 몸체로 구성되어 있고 장식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선전기의 것으로 보인다. 우측 봉분 앞의 석재는 위치와 구조상 장명등의 석재로 판단된다. 문인석은 2쌍으로 모두 복두공복幞頭公服에 홀忽을 들고 있는 형상으로, 마모가 심하고 고식적古式的이어서 조선전기의 문인석으로 판단된다. 상석과 향로석, 그리고 망주석 등은 보다 후기에 조성된 것이다.

경기도기념물 제188호

광주 삼리 구석기유적

廣州 三里 舊石器遺蹟

구석기시대
일원
지정구역 147,103㎡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11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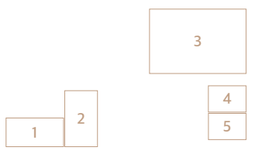
지정일 : 2003.04.21
소유자 : 광주시
관리자 : 광주시

<광주 삼리 구석기유적>은 '2001년 광주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유적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구 기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두 차례 조사되었다. 광주 삼리 구석기유적은 한강 이남지역에서 펼쳐졌던 경기도 구석기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2003년에 경기도 기념물 제188호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에 그 주변으로 지정면적이 확대되었다.

유적은 경기도종축장이 있던 해발 514m의 발리봉 북쪽 사면의 해발 75~100m정도의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 주변으로는 남쪽에서 동쪽으로 휘돌아 나온 노곡천이 곤지암천과 만나 북서쪽으로 흘러 경안천에 합류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하천에 의한 퇴적층과 사면에 의한 퇴적층이 잘 발달하는데, 광주 삼리 구석기유적도 이러한 퇴적환경에서 퇴적된 토양층 위에 형성되었으며 낮은 언덕지대와 풍부한 물줄기는 당시 구석기인들의 삶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첫번째 조사는 '2001년 광주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조성과정 중 진행되었다. 유적의 서쪽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 갈색 또는 짙은 갈색의 토양층에서 중기구석기시대~후기구석기시대에 이르는 4,000여점의 유물들이 3개의 문화층에 걸쳐 확인되었다. 가장 아래에 있는 3문화층은 중기구석기시대의 아주 늦은 시기에 속하고 그 위에 있는 2문화층과 1문화층은 후기구석기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쪽의 3문화층에서 위쪽의 1문화층까지 찍개 또는 여러면석기와 같이 크고 무거운 석기 종류는 고르게 나타나지만, 1문화층으로 갈수록 그 수량이 줄어든다. 2문화층에서는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대형 밀개가 확인되었다. 3개의 문화층에서 발굴된 잔손질된 석기 중에서 비교적 자주 보이는 것은 긁개와 홈날 등이다. 유적의 석기제작에 이용된 돌감의 대부분은 석영과 규암 종류이며 이와 같은 암질의 돌감은 유적 주변의 곤지암천이나 노곡천 주변에서 쉽게 발견된다.



1.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5지역 출토 흑요석 석기(뚜르개, 슴베찌르개, 새기개), 2000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2지역 층위, 2000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3지역, 2000_ 경기문화재연구원
5.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5지역, 2000_ 경기문화재연구원

유적에서 가장 특징을 이루는 돌감은 1문화층에서 확인된 흑요석이다.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는 제5지역에서만 발견되었는데, 흑요석 좀돌날(가늘고 길쭉한 돌날)이 많이 확인되었으며, 이외에도 뚜르개, 슴베찌르개, 새기개 등도 확인되었다.

두번째 조사는 유적 지정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유적의 층위 및 유물의 분포범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2문화층과 3문화층이 안정된 갈색 토양층 내에서 확인되었으며, 제5지역 인접한 곳의 지표면 가까이에서 1문화층과 관련되는 흑요석 유물이 집중적으로 확인되어 유적 전체가 당시 구석기인의 생활터전이었음을 알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중기구석기시대 늦은시기 이전으로 보이는 유물층이 확인되기도 했다.

경기도기념물 제189호

안성 봉업사지

安城 奉業寺址

고려시대
일원
지정구역 43,314㎡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50-1 외

지정일 : 2003.04.21
소유자 : 안성시 외 26인
관리자 : 안성시

<안성 봉업사지>는 안성시 비봉산 아래 죽산면 죽산리에 위치한다. 봉업사의 창건이나 폐사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몇몇 기록과 사지와 관련된 문화재와 유적의 발굴조사 등을 통해 결과 등을 통해 사찰의 내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봉업사에 관해서는 『고려사高麗史』에 1363년(고려 공민왕12) 왕이 죽주에 묵었으며 봉업사에서 고려 태조의 영정에 배알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는 봉업사가 비봉산 아래에 있으며, 고려 때 태조의 진영을 봉안하였는데, 공민왕이 청주를 떠나 이곳에 들려 진전에 참알參謁하였고 지금은 석탑만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1966년에 이곳에서 1081년(문종35)에 봉업사에서 조성되었다는 명문이 있는 유물이 수습되어 기록처럼 비봉산 아래 위치한 이곳이 봉업사임이 밝혀졌다. 이 외에도 1217년(고종4) 조성기록이 있는 봉업사명 청동금고(보물 제576호), 덮개부에 봉업사 명문이 있는 고려시대 봉업사명 청동향로(보물 제1414호) 등이 전하고 있다. 또한 사지에는 고려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보물 제435호)과 안성 죽산리 당간지주(경기도유형문화재 제89호)가 있으며, 안성 칠장사에는 이곳에서 이운된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보물 제983호)이 봉안되어 있다.

봉업사지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3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목탑지를 비롯하여, 고려시대 후기에 이르기까지의 건물지와 부속시설 등이 30여개소가 넘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華次寺(화차사)'라 쓰인 8~9세기 명문기와 및 '大中八年(대중팔년)'(1845)이라 쓰인 명문기와가 출토되었고, 이 시기에 제작된 다량의 기와와 자기류, 불상편, 불구류 등이 출토되어 봉업사의 사세가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봉업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고, 고려시대에는 태조의 진영을 봉안한 진전사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찰이었으며 가장 번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 석탑만 남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 조선전기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1
2 3
4
5

1. 봉업사지 발굴조사, 1998_ 경기도박물관
2. 봉업사지 출토 명문기와류, 1998_ 경기도박물관
3. 봉업사지 출토 고려청자, 1998_ 경기도박물관
4. 봉업사지 전경, 2008_ 안성시
5. 봉업사지 전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90호

과천 관악사지

果川 冠岳寺址

조선시대
일원
지정구역 4,228㎡
과천시 중앙동 산12-9

지정일 : 2003.04.21
소유자 : 연주암
관리자 : 연주암

1
2
3
4 5
6

1. 관악사지 전경, 1999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 가지구 건물지, 1999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3. 나지구 상층 건물지, 1999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4. 다지구 출토 청동발, 2010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5. 봉황문막새기와, 2009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6. 관악사지, 2013_ 과천시

<과천 관악사지>는 관악산 남동쪽 계곡부 최상단에 있는데, 사지의 위쪽에는 연주대가, 아래쪽에는 연주암이 위치하고 있다. 관악사는 급경사 지역에 구역별로 석축을 쌓아 평탄지를 조성하여 건물을 건립한 전형적인 산지가람이다.

관악사에 대한 기록은 주로 사찰의 존재 정도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창건이나 폐사 등 자세한 연혁은 알 수 없다. 관악사에 관해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는 관악산에 있다는 간단한 기록과 함께, 사찰과 관련한 변계량卞季良(1369~1430)의 시와 성간成侃(1427~1456)의 기행문이 실려 있다. 한편 『명종실록』에는 1550년(명종5) 관악사 승려 계은이 궁궐로 와서 호피를 바치니 상을 주라고 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18세기 중반 경까지의 문집류에서 관악사에 대한 시문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와 『경기지京畿誌』「과천읍지」(1842~1843)에는 관악사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관악연주암지冠岳戀主庵誌』(1959) 등에는 의상대사가 연주대를 창건하고 그 아래 관악사를 건립하였으며, 3차 중창 당시 효령대군(1396~1486)이 주도하여 40칸 규모로 가람을 만들어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관악사의 3차 중창 때 효령대군이 위치를 옮겨 지금의 연주암이 되었다는 것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관악사라는 사찰명이 있기 때문에 연주암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찰이 필요하다.

관악사지는 1999년과 2015년의 발굴조사 결과 관악사는 조선 초기에 건립되어 18세기 중반 경까지 법등을 밝히다가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의해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결과 사지는 금당구역과 승방구역, 생활구역으로 추정되는 3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여동의 건물지와 관련 시설이 확인되어 상당히 규모있는 사찰이었음이 밝혀졌다.

경기도기념물 제191호

과천 육봉 일명사지

果川 六峯 逸明寺址

통일신라~조선시대
일원
지정구역 10,000㎡
과천시 중앙동 산11

지정일 : 2003.04.21
소유자 : 교육인적자원부
관리자 : 교육인적자원부

<과천 육봉 일명사지>는 관악산 남쪽 능선의 동쪽 계곡부에 위치한다. 사지는 완만한 경사지에 석축을 쌓아 평판지를 조성하여 자리하였는데, 기록이 전하지 않아 사찰명이나 창건, 폐사 등 구체적인 연혁은 알 수 없다.

이곳은 1994년 지표조사 때 연화대석과 석탑부재가 발견되어 사지임이 밝혀졌다. 1999년 진행된 발굴조사에 의하면 사역은 약 400평 규모이고 정남향을 하고 있다. 사지에서는 대지조성을 위해 축조한 2단의 석축과 건물지 2동, 배수시설, 우물 2기, 연화문 대석, 석탑 부재 등이 발견되었다.

사지는 남단부에 동서방향으로 2단의 석축을 축조하여 대지를 마련하였는데, 이곳에서 금당지로 추정되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건물지 1동과 요사채로 추정되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지 1동이 확인되었다. 불상 대좌나 석등 부재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4기의 연화문 대석은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초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당한 수작이다. 또한 발견된 석탑 부재는 지대석, 탑신석, 상륜부재 등인데 이 역시 연화대석과 같은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제작된 기와, 고려초기와 조선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토기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청자와 백자들이 출토되었다.

발굴조사로 확인된 유구와 출토유물로 볼 때, 사찰은 통일신라 말경에 창건된 후 14세기 말경에 중창되어 법등을 이어오다가 17세기 말경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1 2
3 4 5

1. 과천 육봉 일명사지 전경, 1999_ 충청대학교 박물관
2. 육봉 일명사지 남-서 유적 전경, 1999_ 충청대학교 박물관
3. 육봉 일명사지 제1건물지 온돌시설, 1999_ 충청대학교 박물관
4. 육봉 일명사지 연화대석과 석탑부재, 1999_ 충청대학교 박물관
5. 육봉 일명사지 통일신라 기와, 1999_ 충청대학교 박물관

경기도기념물 제193호

고양 독산 봉수대지

高陽 禿山 烽燧臺址

조선시대
일원
방호벽 둘레 74.6m, 길이 22~23m, 높이 1.3~2.5m
지정구역 6,583㎡
토석혼축성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42-31

지정일 : 2003.09.04
소유자 : 고양시
관리자 : 고양시

<고양 독산 봉수대지>는 해발 133.4m인 독산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입지상 북쪽으로는 시야를 가리는 높은 산지가 없어 전망이 용이하고, 남쪽으로 4㎞의 근거리에는 제4거 직봉의 고봉봉수가 잘 조망되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 전기에 발간된 『세종실록』「지리지」(1454)부터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조선시대 전 시기 발간된 지지에 봉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에 의하면 최종 철폐시기는 1895년(고종32)으로, 조선전기에는 소달산봉화所達山烽火 혹은 소질달산봉수所叱達山烽燧, 조선후기에는 독산봉수禿山烽燧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 고양 독산 봉수는 평안북도 강계군 여둔대봉수에서 초기하는 제3거 직봉의 일흔일곱번째 내지봉수內地烽燧로, 최종 북쪽의 파주 대산봉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동쪽 지역의 해포봉수에 응하는 노선을 가지고 있다. 봉수의 내·외로 출입을 위한 계단형의 출입시설 4개소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한반도 남부지역내의 봉수 중에서 유일한 사례이다. 이외에 평상시 매일 평안화平安火를 상징하는 1거와 비상시를 대비하여 설치하였던 거화시설인 연조煙竈 5기를 방호벽 내부가 아닌 외부에 동-서 1열로 설치한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봉수의 형태는 평면 원형이며, 흙과 돌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고양군 여지승람高陽郡輿地勝覽』(1891)에 따르면 봉수군 인원은 양인 15명, 사천 60명으로 이들이 번을 이루어 교대로 번을 섰던 것으로 여겨진다.

1
2

1. 고양 독산 봉수대지 출입시설,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고양 독산 봉수대지,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94호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

安山 大阜鑛山 堆積巖層

중생대 후백악기(7,000만년 전후)
일원
지정구역 318,397㎡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147-1 외

지정일 : 2003.09.04
소유자 : 문낙빈 외 2인
관리자 : 문낙빈 외 2인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은 중생대 후백악기(7,000만년 전후)의 응회암질(화산쇄설물) 사암 내지는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광산 활동으로 거의 수직으로 40~60m 높이로 절개되어 노출되어 있으며 현재 하부퇴적층 상당부분이 복개된 상태이다.

1997년 대부광산 암반 채굴 중 23개의 중생대 공룡발자국 및 식물화석 클라도플레비스(Cladophlebis)가 발견되었다. 공룡발자국 모양은 뭉툭한 발가락이 세 갈래로 나있는 삼지창 형태로 발가락 사이가 벌어져있고 발뒤꿈치 부분은 둥근 형태이다. 발자국의 생김새와 발톱자국이 없는 점 등에서 조반목鳥盤目의 초식공룡으로 추정된다.

대부광산퇴적층 중 화산폭발 시 퇴적된 입자에 대한 칼륨-아르곤(K-Ar) 연대측정을 실시한 결과 퇴적 시기는 공룡이 번성했던 중생기 후기인 7,000만년 전후로 판명되었고, 퇴적층을 구성하는 많은 층리의 색깔 및 두께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주로 호수와 그 주변에서 퇴적된 것으로 판명되어 이 지역이 당시 호수지역임이 밝혀졌다.

퇴적층은 경상남·북도와 전남 등 일부 남부지방에 분포되는 중생대 지층으로 인근 대부도의 탄도, 불도,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작은 딱섬, 와룡산 일부에도 분포하고 있으나 특히 대부광산의 절개된 퇴적암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껍게 절개되어 있다.

퇴적암층은 서울 근교에서 유일하게 중생대 지질층과 화산암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인근 화성시 고정리의 공룡알화석지(천연기념물 제414호)와 관련되어 당시의 식생 및 환경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질층이다.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 전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95호

고양 멱절산 유적

高陽 멱절山 遺蹟

삼국시대
일원
지정구역 15,818㎡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740-22 외

지정일 : 2004.05.0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고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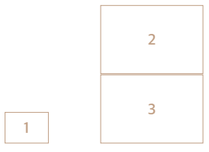
<고양 멱절산 유적>은 한성기 백제의 토성 및 주거유적이다. 2001년 경기도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한성기 백제토기가 다량으로 채집되어 2003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한성기 백제의 집자리 8기, 용도 미상의 수혈 2기, 도랑 1기, 적석유구 5기 등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구덩이 1기에 대해서 내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다량의 한성기 백제 중앙 양식의 토기들이 출토되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2012년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에 성토부로 보고된 것이 한성기 백제 토성임이 새롭게 밝혀졌다.

유적은 한강과 지천이 합류하는 한강 북안의 잔구성 산지 정상부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수하여 서해로 흘러드는 요지에 해당되는 지점으로, 주변으로는 반경 4~5㎞의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어 해발 27m 높이의 멱절산 정상부에서도 주변 지역을 관망하기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멱절산은 본래 길이 300m, 너비 100m 가량의 작은 잔구이지만, 이마저도 주위의 공장 조성으로 인하여 절반 이상이 훼손된 상태이다.

토성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이며, 전체 둘레는 300m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멱절산 정상부의 남서쪽 언저리를 따라 토성이 남아 있고, 북서쪽에는 거의 삭평되고 기저부만 남아 있다. 토성은 암반인 기저부를 굴착하여 정지 작업을 한 이후에 물성이 다른 흙을 교호하면서 성토하여 위로 쌓아 올렸는데, 이러한 축조 기법은 한성기 백제 토성인 화성 길성리 토성에서도 확인된다. 토성에서는 고배, 삼족기, 기대, 개배 등 한성기 중앙 양식의 백제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으며, 특히 토기 표면에 조족문을 포함하여 여러 형태의 기호들을 새기거나 눌러 찍은 문양들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철기는 철촉, 주조괭이, 삽날 등 토기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다.

이외에도 토성 내부에서 작은 구덩이 14기가 조사되었는데, 장방형, 원형의 평면 형태이며, 일부는 단면이 플라스크 형태를 보여준다. 주로 저장 용도의 구덩이로 추정된다.

유적은 지리적으로 서해로 나가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적의 성격이 토성인 점, 그리고 토성 내부에서 출토된 다량의 백제토기로 보아 당시 중국과의 교역 거점이자 수운을 관리하기 위한 군사 시설일 것으로 추정된다.



1. 멱절산 유적 출토 삼족기, 2003_ 경기도박물관
2. 고양 멱절산 유적 전경, 2012_ 중앙문화재연구원
3. 멱절산 유적, 2012_ 중앙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196호

파주 월롱산성지

坡州 月籠山城址

삼국시대
일원
둘레 약 1,315m
지정구역 74,213㎡
토석혼축성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138

지정일 : 2004.05.0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파주시

파주 월롱산과 연접되어 강변에 위치하는 교하 월롱산에도 기관봉산성이 축성되어 있다. 천연의 수직 절벽을 성벽으로 활용하면서 일부 구간에는 토·석 혼축으로 쌓은 성벽 구간도 있다고 하나 확실치는 않다. 성내부는 넓은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다.

조선후기에 편찬된 『대동지지大東地志』와 일제강점기의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월롱산성의 위치와 유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 이곳에 오래 전부터 산성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산성은 남북으로 세장한 타원형이며, 산 정상부와 9부 능선상에 축조되었다. 전체 둘레는 약 1,315m, 성내 면적은 33,232㎡이다. 성벽은 높이 15~20m 정도의 자연절벽과 암벽을 이용하는 등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축성하였으며, 벽면석의 흔적은 일부에서만 확인된다.

월롱산성은 사방이 조망되는 천혜의 요지에 축성되었다. 북쪽으로는 파주일대 평야와 임진강 연안이, 동쪽으로는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교하면 일대가, 남쪽으로는 고양 일대 및 북한산 일대까지 조망된다. 또 월롱산 좌우에는 임진강의 주요 지류인 문산천과 곡릉천이 수운교통에도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곡릉천을 따라 서쪽 6㎞ 지점에는 오두산성이, 곡릉천을 사이에 두고 남서쪽 4㎞ 지점에는 장명산보루가, 동쪽 5.5㎞ 지점에는 봉서산성鳳棲山城이 축성되어 있는 등 주변의 관방시설과 유기적으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월롱산성은 주요 하천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을 사이에 두고 4~5.5㎞ 거리에 대응하는 성곽과 보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변 하천로를 통제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교하면 일대 평야지대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주변의 관방유적을 아우르는 거점성으로서, 두 강의 하류유역을 모두 관할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할 수 있다.

성안에서는 한성도읍기의 백제토기편이 다량으로 채집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에 의해 축성된 성곽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과 일부 확인되는 축성기법 등으로 보아 백제가 임진강유역과 한강유역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와 대치하던 4~5세기경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 월롱산성지 성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파주 월롱산성지 전경, 2008_ 파주시

경기도기념물 제198호

여주 상교리 고려석실묘

驪州 上橋里 高麗石室墓

고려시대
1기
기단 1층 412 x 442 x 46cm
2층 280 x 322 x 50cm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12-1

지정일 : 2004.05.06
소유자 : 파평윤씨 태위공파 종중
관리자 : 파평윤씨 태위공파 종중

<여주 상교리 고려석실묘>는 고달사지 뒤쪽의 우두산 능선에 위치한다. 무덤의 하부는 평면이 원형이고 널길이 있으며, 상부는 네모꼴의 2층 기단으로 된 상방하원석실묘上方下圓石室墓이다.

지상 구조는 2층의 계단 모양인데 기단 1층은 동서 442cm, 남북 412cm, 높이 46cm 크기이며, 형태는 동서쪽이 남북쪽보다 긴 네모꼴이다. 기단 2층은 동서 322cm, 남북 280cm, 높이 5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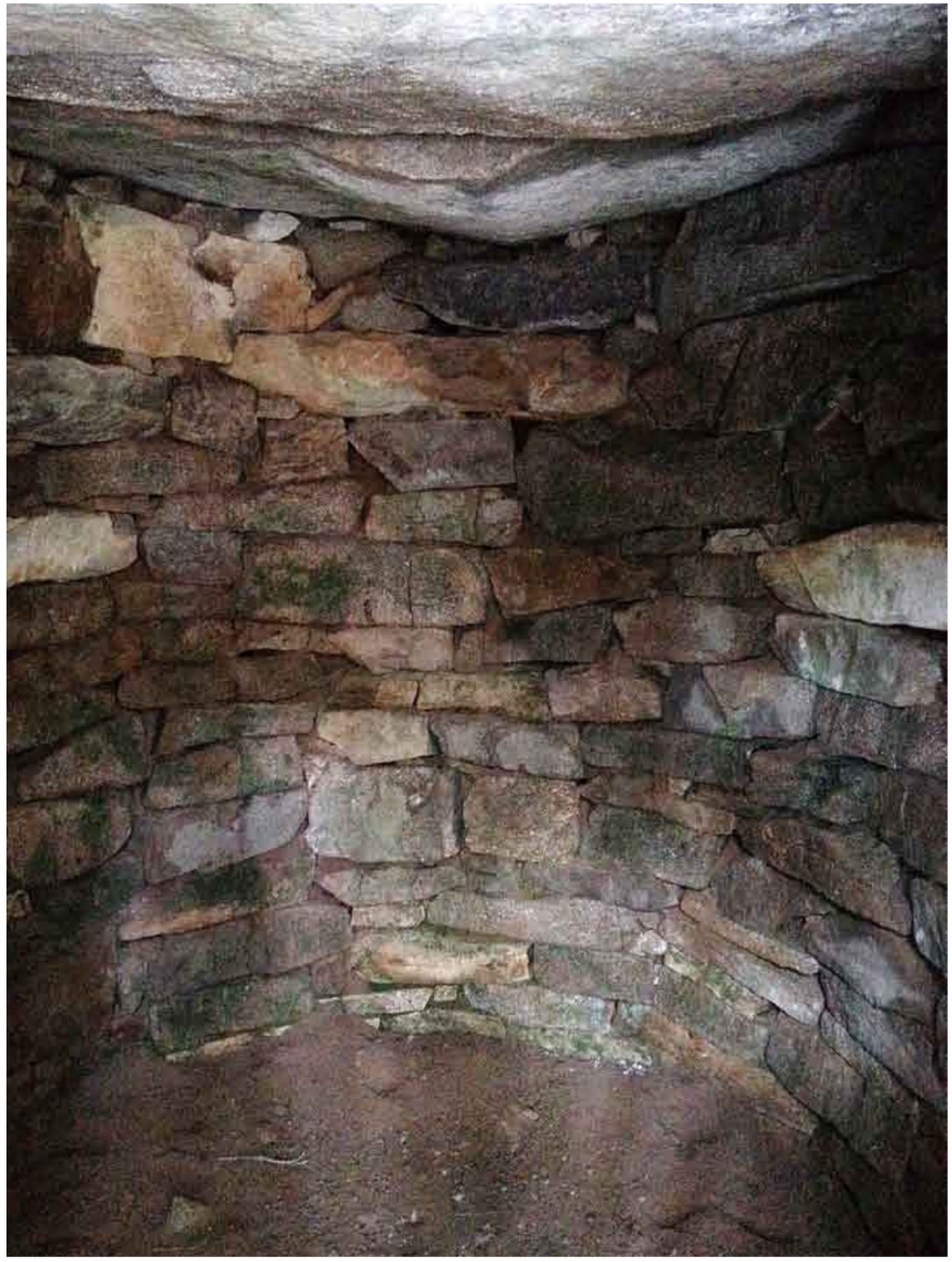
기단 하부의 석실은 돌을 쌓아서 평면이 원형인 널방과 긴네모꼴의 널길을 만들었다. 평면의 전체 모습은 열쇠 구멍처럼 생겼다. 널방의 바닥은 지름이 163cm쯤 되며, 벽의 높이는 167~175cm이다. 널길은 남북쪽이 220cm이고 너비는 90cm쯤 된다. 널방의 벽은 바닥을 따라 축조하였는데 천장쪽으로 가면서 조금 좁아진다. 천장은 평평한 큰 돌 2매로 덮었는데 너비가 130cm나 된다.

기단의 모습은 불탑의 기단과 비슷한데 인근에 고달사지가 있는 점으로 보아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무덤 양식으로 보인다.

출토유물로는 청동 숟가락, 철제 촛대, 도기 편병, 쇠못, 청자 상감 대접, 백자와 청자 조각, 사람 뼈 등이 있다. 청자 상감 대접은 기단과 널방에서 발견된 조각을 복원한 것으로 구름무늬와 여의두如意頭무늬가 상감되어 있고 회청색을 띠고 있다. 바닥에는 모래받침이 있어 고려말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무덤은 널방이 원형이고 그 위에 네모꼴의 기단이 2층으로 조성된 특이한 구조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 고분의 발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고려시대 무덤으로 판단된다.

1. 여주 상교리 고려석실묘, 1982_ 한양대학교 박물관
2. 상교리 고려석실묘 내부, 1982_ 한양대학교 박물관
3. 상교리 고려석실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상교리 고려석실묘 내부,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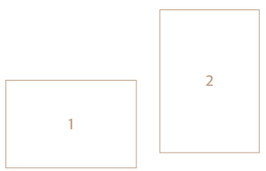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199호

민진장 묘역

閔鎭長 墓域

조선시대
일원
단분, 묘비 1기, 향로석 1기, 혼유석 1기, 호석,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계체석, 신도비 1기
여주시 점동면 부구리 산8-4

지정일 : 2004.05.06
소유자 : 여흥민씨 종중
관리자 : 여흥민씨 종중



1. 민진장 묘역,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민진장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군국軍國의 중무重務를 맡았던 민진장閔鎭長(1649~1700)의 묘이다. 민진장은 여흥민씨驪興閔氏로 송시열宋時烈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69년(현종10) 20세에 진사가 된 뒤 현령을 지내던 1686년(숙종12)에 별시문과에 장원하였다. 할아버지 민광훈閔光勳, 아버지 민정중閔鼎重에 이어 3대가 장원하여 삼세문장三世文壯이라 불렸다. 승정원승지·예조참판·승정원도승지를 거쳐 1696년(숙종22) 병조판서가 되었고, 1700년(숙종26) 우의정에 올랐다. 효행이 뛰어나서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묘역의 봉분은 단분으로 호석護石을 둘렀으며 부인 의령남씨宜寧南氏와의 합장묘이다. 석물로는 묘비 1기, 상석·혼유석·향로석 각 1기, 망주석·문인석 각 1쌍 및 계체석 등이 있다. 봉분 좌측에 묘비의 음기陰記의 지은이는 알수 없지만 금원군錦原君 박사익朴師益(1675~1736)이 글을 써서 1734년(영조10)에 건립한 것이다. 문인석은 양관조복梁冠朝服에 홀笏을 들고 있는 형상이다. 양관은 삼량관三梁冠으로 무武에는 여의운문을 장식하였다. 조복의 앞자락에는 여의운문의 전형인 원형의 문양이 양각되어 있고, 뒷면에는 꽃문양이 있는 대대大帶·후수後綬·패옥佩玉을 묘사하였다.

묘역 아래에 배치된 신도비의 비문은 이재李縡가 찬하고, 홍봉조洪鳳祚가 글을 섰으며, 민진원閔鎭遠이 전액篆額을 써서 1743년(영조19)에 건립한 것이다. 신도비는 이룡옥개석螭龍屋蓋石·비신碑身·기대基臺의 형태이다. 팔작지붕의 옥개석 위에 두 마리의 이무기가 몸이 뒤엉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얹은 것이 특징적이다. 기대基臺의 전면에는 연꽃들 속에서 물결을 헤엄치는 현무玄武가 목을 뒤틀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형상을 양각하였다. 그리고 기대의 좌우 측면에는 1마리의 해태를 앉아있는 형태로 양각하였고, 후면에는 연화당초문을 양각하였다. 이와 같은 신도비는 그 예도 드물뿐더러 조각 수법이 뛰어나 예술적 가치가 높다.

경기도기념물 제200호

수원 축만제

水原 祝萬提

조선시대(1799년)
일원
지정구역 725,772㎡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4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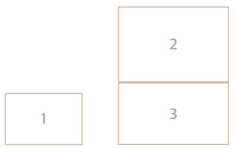
지정일 : 2005.10.17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수원시

<수원 축만제>는 1799년(정조23)에 화성부 서쪽에 축조된 수리시설로 현재 일명 서호西湖로 불리고 있다. 1795년 화성부 북쪽에 만석거萬石渠(현재 만석공원)를 축조한 이후 정조의 명령으로 여러 수리시설이 화성에 축조되면서 축만제도 만들어졌다. 만석거를 축조하면서 대유둔전大有屯田을 개설했듯이 축만제와 더불어 축만제둔전祝萬堤屯田(서둔전西屯田)을 개설하였다.

제방 양쪽 끝에 2개의 수문이 설치되었는데 축만제로 가두어둔 물을 활용하기 위한 장치였다. 제언 아래에 제언의 수리 혜택을 받는 몽리답蒙利畓이 232석락石落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의 제언堤堰이었다. 제언 관리를 담당할 인원으로는 감관 1명, 감고 1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축만제 아래쪽에 설치한 축만제둔전은 총 규모가 답畓 83석 15두 4승락에 달하였고 도조賭租로 556석 14두 4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둔전의 관리를 위해 도감관 1인, 감관 1인, 농감·동감 각 2인, 색리 1인, 사령 2인, 권농 2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축만제둔전과 대유둔에서 나오는 수입은 화성의 수성고에 소속시켜 수성修城에 필요한 물력으로 이용하였다.

정조는 즉위한 이후 농업기술·농업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수리水利의 진흥'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화성성역을 수행하면서 만석거, 만년제, 축만제 등을 화성에 축조하였다. 여러 제언이 축조된 이후 앞서 버려졌던 땅들에 새로운 둔전이 개설되면서 비옥한 전토로 바뀌었다. 축만제가 갖고 있는 농업수리 역사상의 의의는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아 2016년 11월 ICID(국제관개배수위원회) 세계 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 축만제 표석,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수원 축만제, 1967_ 수원박물관
3. 수원 축만제, 2014_ 수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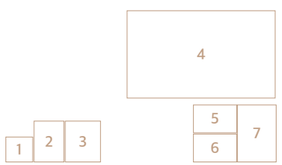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201호

수원 여기산 선사유적지

水原 麗妓山 先史遺蹟址

청동기~원삼국시대
일원
지정구역 301,731㎡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6-1

지정일 : 2005.10.17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수원시



1. 여기산 선사유적 출토 탄화미, 2009
_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 수원 여기산 선사유적 출토 민무늬토기, 2014_ 수원시
3. 여기산 선사유적 출토 구멍무늬토기, 2009
_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4. 수원 여기산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여기산 선사유적 청동기시대 3호 집자리, 1984
_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6. 여기산 선사유적 원삼국시대 5호 집자리, 1984
_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7. 여기산 선사유적 원삼국시대 5호 집자리 외줄구들, 1984
_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수원 여기산 선사유적지>는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 마을 유적이다. 숭실대학교 사학과의 고故 임병태 교수가 지표조사 과정에서 무문토기와 경질무문토기를 발견하면서 처음 학계에 알려졌다. 유적 서쪽 부분이 화강암 채석 공사로 인하여 심하여 훼손되었다. 숭실대학교 박물관이 1979년부터 1984년까지 4차례에 걸쳐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 집자리 9기를 발굴하였다. 유적이 위치한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서둔동 유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적은 해발 104m 여기산 정상과 여기에서 북서 방향으로 뻗어 내린 능선 상에 위치한다. 청동기시대 집자리는 긴 네모꼴 형태로 추정되며, 골아가리구멍무늬토기와 구멍무늬토기 등 이른바 역삼동식토기와 석촉편 등이 출토되어 청동기시대 전·중기 집자리로 판단된다. 원삼국시대 집자리는 남쪽에 돌출된 출입 시설이 있는 '철凸'자형의 평면 형태를 보이는데, 거주하는 공간은 육각형 내지 오각형 모습이다. 집자리 내부에서는 ㄱ자 형태의 외줄구들, 기둥 구멍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동장벽에 시설된 5호 집자리 외줄구들은 돌로 터널 형태의 골격을 만들고 점토로 덧씌워 마감하였다. 이 유적에서 조사된 외줄구들은 남한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원삼국시대 난방 시설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삼국시대 집자리에서 출토된 토기는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로 구성되며, 대체로 조리·저장·운반 등 일상 용도의 기종이다. 철기는 단조철부와 철겸, 철정이 소량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흙으로 빚은 가락바퀴와 송풍구 및 다량의 슬래그가 출토되어 방직, 철기 제작과 같은 생산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적 연대는 집자리의 평면 형태와 출토유물로 보아 3세기 초 무렵으로 추정된다.

수원 여기산 선사유적지는 남한 지역에서 최초로 조사된 원삼국시대 마을 유적일 뿐만 아니라, 이 유적에서 발견된 외줄구들, 돌출된 출입 시설이 있는 육각형 집자리는 모두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일 정도의 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기념물 제202호

평택 무성산성지

平澤 武城山城址

삼국~고려시대
일원
둘레 547m
지정구역 43,571㎡
토축성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20-5

지정일 : 2005.10.17
소유자 : 이병우 외 14인
관리자 : 평택시

<평택 무성산성>은 무성산(해발 104.7m)의 9부 능선을 따라 축조된 테뫼식 토축산성이다.

성벽의 둘레는 547m이고 평면형태는 남북이 길쭉한 장타원형에 서벽 일부가 돌출된 ㅓ자형이다. 성의 북쪽은 발안천이 흐르고 남으로는 자미산·비파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아산만 방향으로 뻗어 동서간의 교통로를 차단하는 요지에 해당한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와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覽』에 조선전기 임경업장군이 쌓았다는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성벽은 동·남·북벽이 능선을 따라 경사면을 이용하고 서벽은 계곡을 가로질러 축조하였으며 성내 시설물로는 문지 2개소, 치성 2개소, 장대지 1개소, 추정 수구지 1개소, 건물지 6개소 등이 있다. 유물은 청동기~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시기가 확인되었다.

무성산성은 출토유물과 축조방법을 고려할 때, 통일신라기에 축조되어 고려시대까지 활발히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같은 능선상에 위치한 자미산성, 비파산성과 함께 안성천 하류의 해안방어와 육상 교통로를 함께 제어할 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1. 평택 무성산성지 서문지,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무성산성지 출토 기와 및 토기, 2004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3. 무성산성지 성벽, 2004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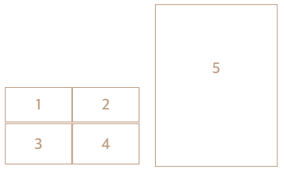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203호

평택 자미산성지

平澤 玆美山城址

삼국~고려시대
일원
둘레 582m
지정구역 66,986㎡
문지 2개, 소치성 3개, 소건물지 9개, 소수구지 1개소
토석혼축성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 산68

지정일 : 2005.10.17
소유자 : 김영식 외 19인
관리자 : 평택시



1. 자미산성지 출토 막새기와, 2012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 자미산성지 저장시설, 2004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3. 자미산성지 북문지 일대 성벽, 2008_ 한백문화재연구원
4. 자미산성지 집수시설, 2008_ 한백문화재연구원
5. 평택 자미산성지 전경, 2008_ 한백문화재연구원

<평택 자미산성>은 무성산성에서 비파산성에 이루는 연봉들 중 가장 중앙부에 위치한 자미산(해발 110.8m) 7~8부 능선을 따라 축조된 테뫼식 석축산성이다. 북쪽으로는 무성산성, 동쪽으로 용성리 강길마을성이 위치하며 남쪽으로 약 100m거리에 비파산성, 용성리성 등이 자리하고 있다. 정상부에서는 서해대교가 한눈에 들어오며, 아산만과 남양만 일대의 조망이 유리하다.

자미산성의 명칭은 성城과 산山의 우리말 '잣'과 '미·메·뫼'가 합성된 말로 '성이 자리한 산'으로 풀이된다.

이 산성의 둘레는 582m이며 평면형태는 동서방향이 약간 긴 장방형을 띤다. 성벽의 동·남·북벽은 능선을 따라 조성하였고 서벽은 계곡을 막아 축조하였다. 성벽은 원래 석축이었으나 1970년대 남양만 방조제공사를 위해 석재를 반출하여 석성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성벽과 관련한 유구로는 문지 3개소, 치성 3개소 등이 있으며 성내부에서는 정상부의 저장시설과 북문지 주변에서 수혈유구, 구들, 집수시설 등이 있다. 이중 저장시설은 반지하식으로 암반을 굴착하여 바닥과 벽체에 점토를 바른 형태로 내부에서는 호, 완 등 신라토기와 통일신라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 시설의 기능은 항온항습을 유지하기 위한 창고로 추정된다.

유물은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몽촌토성 출토품과 유사한 한성백제 토기류와 신라 기와와 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기와는 평기와, 막새기와, 명문기와 등이 확인되는데 특히 회오리문, 연화문, 바람개비문 등이 시문된 수막새와 연주문 안에 구름문이 시문된 암막새 등이 특징적이다. 이외에도 성문을 고정했던 이음쇠와 철정, 철솥, 요대 등 군사적 성격이 강한 금속유물도 함께 출토되었다.

경기도기념물 제204호

평택 비파산성지

平澤 琵杷山城址

고려~조선시대
일원
둘레 약 1,622m
지정구역 254,264㎡
문지 5개, 소치성 4개, 소건물터 14개, 소음료유구 5개소
토성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 산98-1 외

지정일 : 2005.10.17
소유자 : 김경숭 외 56인
관리자 : 평택시

<평택 비파산성>은 비파산의 정상부와 용성리 뒷골의 평지를 포함하고 있는 삼태기모양의 포곡식 토축산성이다. 비파산琵琶山은 평택시 안중면 용성리 설창마을과 덕우리 원덕우마을의 경계에 있는 해발 102.2m의 산으로 무성산과 자미산에서 이어온 산줄기가 이어져 있으며 북쪽으로는 자미산성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용성리성과 마주보고 있다. 비파산은 산세가 비파악기를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며 주민들은 '피라산'이라고 부른다. 평택시 서부지역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차령산맥과 평택시·오산시, 남쪽으로는 아산시와 아산만, 서쪽으로는 당진군과 서해, 북쪽으로는 화성시 일대가 한눈에 조망되는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된다.

산성 내 시설물로는 문지 5개소, 치성 4개소, 건물지 14개소, 음료유구 5개소 등이 있다. 1998년 수해시 무너진 제방에서 산성의 축조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乾德三年(건덕 3년, 965)'명 기와가 수습되었다. 한편 시굴조사에서는 '車城(거성)'명 기와가 출토되었다. 이 지역은 원래 고구려의 '상홀현上忽縣'으로 신라 경덕왕대 '거성현車城縣'으로 개명하였다가 고려 초에 용성현이 되었다. 따라서 비파산성은 통일신라 시대의 거성현의 치소와 관련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외 유물은 대부분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의 기와편과 자기·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1 2
3

1. 비파산성지 동벽 내벽, 2004
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 비파산성지 출토 '車城'명 기와, 2012
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3. 평택 비파산성지 전경, 2015
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205호

평택 용성리성지

平澤 龍城里城址

고려~조선시대
일원
둘레 약 449m
지정구역 33,504㎡
문지 3개, 소치성 5개, 소건물지 5개, 소수구지 1개소 등
토성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 469-3, 469-4 외

지정일 : 2005.10.17
소유자 : 최병렬 외 28인
관리자 : 평택시

<평택 용성리성지>는 비파산성에서 남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진 해발 30~42m 정도의 낮은 구릉을 따라 축조된 평지성이다. 규모가 작고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평택 서부지역의 여러 성곽과 연계된 서해안 방어시설로 추정되고 있다.

성벽은 토축으로 조성되었고 전체둘레는 449m이다. 평면형태는 북벽이 약간 짧은 사다리꼴 모양이나 동벽을 지나는 농수로 조성시 북동회절부 부근의 동벽이 파괴되었기 때문으로 기본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성벽은 서·북·동벽은 능선을 따라 경사면을 이용하여 축조하였고 남벽은 성내의 평탄한 저습지대를 가로지르며 쌓았다. 성벽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잘 남아있다.

성내의 시설물로는 문지門址 3개소, 치성雉城 5개소, 건물지建物址 5개소, 수구지水口址 1개소 등이 있다. 유물은 고려시대 어골문 기와와 조선시대 백자편 등이 수습되었다.

1 2
3

1. 용성리성지 북벽, 2004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 용성리성지 북벽 외황시설, 2004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3. 평택 용성리성지 전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206호

평택 덕목리성지

平澤 德睦里城址

고려시대
일원
추정둘레 226m(동성), 290m(서성)
지정구역 25,603㎡
토성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647-1

지정일 : 2005.10.17
소유자 : 공석은 외 19인
관리자 : 평택시

<평택 덕목리성>은 해발 16~33m의 평탄한 지형에 축조된 방형의 토성으로 원덕목 마을의 진입로를 사이에 두고 동성과 서성이 서로 마주보는 독특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성터 주변의 자연지명이 관터, 사창, 나라땅 등과 관련되어 통일신라시대 광덕현廣德縣의 치소治所로 추정되고 있다.

60m 정도 떨어져 있는 두 성은 민가와 경작지 조성으로 상당부분 파괴되었는데, 동성은 성의 흔적만 확인되며 서성은 북벽과 동벽의 일부가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2개의 성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940년 이전에 한쪽 성이 파괴 된 것으로 보인다.

동성은 대부분이 파괴되었는데 잔존한 기저부를 통해 길이는 226m 정도로 추정된다. 서성은 동서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방형이고, 단면은 북고남저·동고서저이다. 유물은 파괴가 극심한 동성에서 주로 수습되었다. 지표조사에서는 벼루, 철제쩌귀, 새문양이 시문된 기와편 등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찾아졌으며, 시굴조사에서는 기와편, 격자문이 시문된 토기편 등 고려시대 이후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성의 축조방법과 출토유물로 볼 때, 사용시기는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로 판단된다. 덕목리성은 광덕현에 인구가 집중되는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되어 지방통치의 행정거점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고려시대 이후 평택 서부지역의 여러 성곽과 함께 서해안 해안방어를 목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 2 | 3 | 4

1. 평택 덕목리성지 전경, 2015
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덕목리성지 성벽, 2004
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3. 덕목리성지 북문지, 2004
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4. 덕목리성지 외벽 기단열, 2004
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경기도기념물 제207호

풍고 김조순 묘역

楓皐 金祖淳 墓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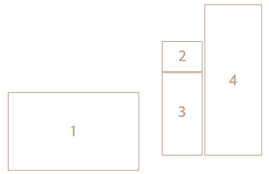
조선시대
일원
단분, 묘표 1기, 상석 1기, 혼유석 1기, 향로석 1기, 장명등 1기, 망주석 1쌍, 계체석, 신도비 1기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산56-27

지정일 : 2005.10.17
소유자 : 안동김씨 종중
관리자 : 안동김씨 종중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1765~1832)과 청양부부인靑陽府夫人 심씨沈氏(1766~1828)의 묘역이다. 김조순은 본관이 안동安東으로 청음 김상헌淸陰金尙憲, 문곡 김수항文谷金壽恒, 몽와 김창집夢窩金昌集의 후손이다. 자는 사원士元, 초휘初諱는 낙순洛淳이다. 사후 영의정으로 증직贈職 되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며, 정조 묘정에 배향되었다. 김조순에 대한 정조의 신임이 깊어 그의 딸을 간택해 훗날 순조정비인 순원왕후純元王后가 되게 한다. 순원왕후가 중전에 책봉되자 김조순은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에 봉해졌다. 1828년 부인 심씨가 먼저 사망하자 김조순이 미리 잡아 놓은 여주 효자리에 안장安葬하고, 1832년 김조순도 합장된다. 이후 1836년(헌종2), 1841년(헌종7)에 두 번 천장해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김조순 묘는 합장된 봉분 앞에 혼유석·상석·향로석·장명등이 차례로 놓여 있으며 묘역 좌우에 망주석이 설치되어 있다. 묘표는 혼유석 동쪽편에 건립되어 있으며, 옥개방부屋蓋方趺 형태로 비신은 오석烏石(흑색사암)으로 제작되었다. 묘표의 전면대자前面大字는 철종 어필御筆로 오른쪽 상단에 '어필'이라는 전서篆書가 조각되어 있다. 음기陰記는 판중추부사 조두순趙斗淳이 짓고 석봉 한호石峯韓濩(1543~1605)의 글씨를 집자集字한 것이다. 김조순이 건립한 선대 비석들 대부분이 이와 같은 석봉 집자비이다.

묘역 하단 동남쪽에 신도비각이 있는데 팔작지붕이며, 장주초長柱礎를 사용했다. 신도비는 묘표와 동일한 옥개방부 형태이며 철종이 지은 어제御製 신도비문을 김조순의 외손 남병철南秉哲이 전서와 비문을 함께 썼다.



1. 풍고 김조순 묘역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풍고 김조순 신도비각,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풍고 김조순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풍고 김조순 신도비 비문,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208호

연천 차탄리 고인돌

漣川 車灘里 고인돌

청동기시대
일원
덮개돌 380×320×20~60cm
석재(응회암)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28-3 일원

지정일 : 2005.10.10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연천군

<연천 차탄리 고인돌>은 양쪽 굄돌을 세워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올려놓은 탁자식인데 후대後代에 남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상태다. 평지에 위치하면서 덮개돌의 긴 방향이 주변의 차탄천 흐름과 나란한 모습이다. 고인돌 축조에 사용된 돌의 재질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안산암질 응회암이다. 덮개돌의 평면은 긴네모꼴이며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손질한 흔적이 뚜렷하고 편리片理에 따라 떨어진 자국도 관찰된다. 크기는 길이 380cm, 너비 320cm, 두께 20~60cm이다. 덮개돌의 윗면에는 2~3개씩 짝을 이룬 성혈이 30여 개 파여 있다.

발굴조사에서 무덤방을 덮었던 것으로 보이는 뚜껑돌이 찾아졌다. 형태는 긴네모꼴이고 길이는 250cm쯤 된다. 이 뚜껑돌은 양쪽 굄돌 위를 덮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고인돌 주변에서는 빗살무늬토기 조각을 비롯하여 황색을 띠는 연질 토기, 숫돌 등 여러 종류의 유물이 찾아졌다. 이들 유물들은 홍수나 제의행위를 하면서 이곳에 묻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고인돌은 1950년대 말까지만 하여도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 여겨 마을 제사를 지내왔지만,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 점차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1 2
3 4
5

1. 연천 차탄리 고인돌, 2001_ 세종대학교 박물관
2. 차탄리 고인돌(북-남), 2012_ 세종대학교 박물관
3. 차탄리 고인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차탄리 고인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차탄리 고인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209호

연천 양원리 고인돌

漣川 兩遠里고인돌

청동기시대
일원
덮개돌 380×340×46cm
석재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408-4

지정일 : 2005.10.10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연천군

<연천 양원리 고인돌>은 마을사람들이 '괸돌말'이라고 부르는 곳에 위치한 고인돌로, 양쪽 굄돌 위에 커다란 덮개돌을 올려 놓은 탁자식 고인돌이다. 덮개돌의 재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이고, 돌 결을 따라 많은 손질을 한 흔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특히 덮개돌이 거북의 등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고인돌의 덮개돌이 이처럼 거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크기는 380×340×45cm이며, 윗면에 지름 10cm쯤 되는 성혈이 파여 있다.

굄돌은 동쪽과 서쪽에 놓여 있는데 서쪽의 굄돌이 기울어져 있어 현재 고인들은 북서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운 상태이다. 또한 탁자식 고인돌의 일반적인 굄돌보다 높이가 매우 낮은데 이것은 고인돌의 구조적인 변화 과정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막음돌은 북쪽 것만 있으며, 무덤방 안으로 넘어져 있다. 무덤방의 크기는 길이 270cm, 너비 60cm쯤 되는데 다른 탁자식 고인돌보다는 상당히 큰 편에 속한다.

이 고인돌은 주변의 통현리, 차탄리 탁자식 고인돌과 인접하게 위치해있어 당시 사회의 축조 세력 범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연천 양원리 고인돌, 2012_ 연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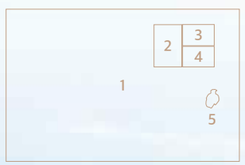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210호

연천 신답리 고분

漣川 薪畓里 古墳

삼국시대
일원
1호분 1,900×300cm
2호분 770×630cm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17-42·43

지정일 : 2005.10.10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연천군



<연천 신답리 고분>은 연천군 신답리 일대의 한탄강 북쪽 강변에 형성된 넓은 평탄지의 남동쪽에 위치한 삼국시대 고분이다. 한탄강을 따라 전곡읍 쪽으로 내려가면 전곡리토성, 은대리성 등 고구려 관방유적이 있다.

이 고분은 9m 간격을 두고 2기가 동서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 동쪽의 1호분은 지름 19m, 잔존 높이 3m로, 서쪽의 2호분보다 규모가 크다. 두 고분은 모두 오래전에 도굴되어 사람이 드나들 정도의 구멍이 수직으로 뚫려 있었으며, 주변에 고분이 더 있었다고 전해지나 도로공사와 경지정리 등으로 이미 멸실된 상태이다.

신답리 고분은 1991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표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2001년 LH토지주택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하였다. 고분의 구조는 1·2호분 모두 석실이 지상식이며 현실의 평면 형태는 방형이다. 호석이나 주구는 설치하지 않고 원형의 봉토를 매장주체부와 같은 공정으로 축조하였다.

석실의 벽석이나 바닥재는 주로 판상석을 사용했는데 틈새에는 자갈과 작은 돌을 채워 다졌으며, 1호분의 경우 회반죽을 전면에 발라 마무리하였다. 1호분은 현실 전벽前壁의 오른편에, 2호분은 중앙에 연도가 설치되어 있다. 잔존상태가 양호한 1호분은 현문부와 묘도까지 비교적 잘 남아 있고, 특히 현실의 천장이 삼각고임방식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물은 토기편 2개체분과 인골편 일부가 석실과 봉토에 흩어진 채 출토되었다. 그 중 고구려토기로 추정되는 병 모양의 흑색연질토기는 외면에 세 줄씩 한 조를 이루는 횡침선문대가 등간격으로 8조 이상 돌려져 있다.

신답리 고분은 삼각고임식 모죽임천장을 갖춘 지상식 석실봉토분으로 고구려 후기 무덤양식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고구려 고분은 남한지역에서는 연천 강내리·춘천 천전리·방동리·신매리, 용인 보정리, 성남 판교동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고분은 고구려가 한강 이남을 지배했던 5~6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남한지역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유적의 대부분이 관방유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고분이 지니는 학술적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 연천 신답리 고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신답리 고분 1호분 연도, 2001_ LH토지주택박물관
3. 신답리 고분, 2001_ LH토지주택박물관
4. 신답리 고분 2호분, 2001_ LH토지주택박물관
5. 신답리 고분 1호분 출토 흑색병형토기, 2001_ LH토지주택박물관

경기도기념물 제211호

오산 외삼미동 고인돌

烏山 外三美洞 고인돌

청동기시대
1 기
덮개돌 230×190×80cm
석재(화강암)
오산시 외삼미동 384

지정일 : 2006.01.23
소유자 : ㈜경기고속도로
관리자 : 오산시

<오산 외삼미동 고인돌>은 반월봉(해발 118m)의 서북사면의 완사면 해발 30~50m에 입지하며, 유적의 서쪽에는 황구지천黃口池川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다. 현재 2기가 서로 1m정도 떨어져 확인되며, 북쪽의 것을 1호, 남쪽의 것을 2호 고인돌로 지칭한다.

1호 고인돌은 지상에 받침돌을 설치하여 돌방을 만들고 덮개돌을 덮은 탁자식 고인돌이다. 덮개돌은 화강암 계통의 석재로서 장축은 남-북방향이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윗면은 비교적 평편한 편이며, 사방모서리는 다듬어져 있다. 윗면의 중앙에서 북쪽부분은 작은 성혈이 15개 정도 확인된다. 덮개돌 아래에는 동쪽과 서쪽에 장방형의 받침돌이 확인된다. 받침돌 규모는 동쪽이 받침돌의 규모는 동쪽은 길이 175㎝×너비 50~80㎝×두께 20~40㎝, 서쪽이 길이 180㎝×너비 80㎝×두께 20~40㎝정도이며 재질은 화강암계통이다.

2호 고인돌은 1호 고인돌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며 받침돌은 없고 덮개돌만 남아있다. 현존상태로 보아 본래 위치에서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삼각형에 가깝고, 두께가 얇고 편평한 편이며, 북쪽과 서쪽 측면은 다듬어져 있다. 윗면에서 3개의 성혈이 확인되며, 1호와 같은 화강암계통의 재질이다.

외삼미동 고인돌은 돌방의 벽석인 받침돌의 크기가 작고, 덮개돌이 두꺼운 형태인 것으로 보아 중부지역 탁자식 고인돌의 특징이 잘 나타며, 특히 탁자식과 개석식이 혼재되어 조성된 보기 드문 예로서 이 지역의 고인돌 축조양상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경기지역 고인돌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오산 외삼미동 고인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212호

연천 학곡리 적석총

漣川 鶴谷里 積石寵

삼국시대
일원
높이 1m, 장축 25m, 단축 10m
지정구역 22,793㎡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20-1·2

지정일 : 2006.04.24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대광교회

<연천 학곡리 적석총>은 임진강 중류지역의 강 북안에 발달한 낮은 모래언덕 위에 있다. 적석총의 전체적인 모습은 동서 방향이 긴 타원형이다. 동쪽 가장자리가 가장 넓고 서쪽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형태로 돌무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기단을 조성한 흔적은 찾아지지 않았다.

무덤방은 동쪽에서 3기, 서쪽에서 1기 등 모두 4기가 발굴되었지만, 서쪽이 많이 파괴된 점을 고려하면 6기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무덤방을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고 연달아 만들었는데 30~50cm 크기의 강돌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무덤방의 구조에서 특이한 점은 긴 벽의 한쪽에만 강돌을 쌓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놓은 점과 바닥 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토유물로는 타날문토기, 경질의 회청색 토기, 낙랑계 토기인 검은색 단지와 황갈색 단지 등의 토기류, 토제와 유리제 구슬류, 환옥과 연주옥, 관옥 등의 옥제품, 청동방울과 고리, 쇠낫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 특히 청동방울에는 '목木' 또는 '수水'와 비슷한 무늬가 확인되었다. 여러 유물 가운데 금박 구슬이나 낙랑계 토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단지 등은 이 적석총을 축조한 집단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학곡리 적석총은 돌무지 속의 무덤방이 지상에 축조된 점, 대부분 조각으로 찾아지는 껴묻거리로 보아 일부러 깨트려 버리는 장례습속이 있었다는 점, 무덤방의 축조에 강돌을 세운 점, 무덤방이 서로 연결된 것으로 볼 때 고구려 초기 적석총과 비슷한 점이 많아 비교된다.

1 2 3
4 5

1. 연천 학곡리 적석총 전경, 2002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학곡리 적석총 1호곽, 2002_ 경기문화재연구원
3. 학곡리 적석총 출토 구슬, 2002_ 경기문화재연구원
4. 학곡리 적석총,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학곡리 적석총,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213호

연천 심원사지

漣川 深源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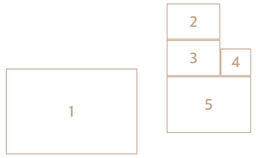
조선시대
일원
지정구역 9,643㎡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353, 354

지정일 : 2006.08.28
소유자 : 연천군
관리자 : 연천군

<연천 심원사지>는 보개산 환희봉(지장봉)의 서남쪽 골짜기에 위치한다. 사지는 보개산을 등지고 있으며 앞쪽 계곡을 바라보며 형성된 능선의 끝부분에 3단의 석축을 쌓아 대지를 조성하여 자리하였다. 심원사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가람고伽藍考』 등에 소재 정도만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범우고梵宇攷』(1799)에 심원사는 예전에 흥림사라 칭했으나 무학대사가 개건改建하고 '심원'이라 하였으며, 만세루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심원사의 연혁에 대해서는 『유점사본말사지楡岾寺本末寺誌』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심원사는 647년(신라 선덕여왕16)에 영원조사가 창건하여 흥림사興林寺라 하였고, 859년(신라 헌안왕3)에 범일국사가 재창하였으며, 1393년(태조2)에 화재로 소실되자 1396년(태조5) 무학대사가 삼창하면서 사명을 심원사로 바꾸었다고 한다. 또한 1595년(선조28) 인숭, 정인 두 스님이 병화로 소실된 사찰을 다시 중건하였다고 한다.

심원사는 근대기 항일운동의 근거지로도 역할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1907년에는 250칸의 건물과 1,602위의 불상이 병화로 모두 소실되었다고 한다. 소실된 사찰은 이후 점차 복구되어 『유점사본말사지』(1942) 편찬 당시 심원사에는 천불전, 봉향각, 산신각, 객실, 사무실, 창고 등의 건물이 있었으며, 부속암자로 성주암, 석대암, 지장암, 남암 등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모두 소실되었다.

심원사지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사역의 범위와 건물지를 비롯한 관련 유구들이 확인되었고 소조불상편 등이 출토되었다. 심원사지는 2004년부터 옛 천불전지를 비롯하여 복원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1. 심원사지 복원된 모습,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유점사본말사지에 기록된 심원사, 1940년대_ 문화재청
3. 심원사지 발굴조사 전경, 2009_ 한백문화재연구원
4. 심원사지 출토 소조불두, 2009_ 한백문화재연구원
5. 연천 심원사지 발굴조사 전경, 2011_ 문화재청

경기도기념물 제214호

제간공 권규 묘역

齊簡公 權圭 墓域

조선시대
일원
단분 2기(상 제간공권규, 하 경안공주), 묘표 2기, 상석 2기,
문인석 2쌍, 장명등 1쌍, 계체석, 호석, 신도비 1기
여주시 점동면 덕평리 산9-1

지정일 : 2007.09.17
소유자 : 안동권씨 제간공 종중
관리자 : 안동권씨 제간공 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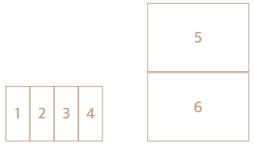
조선 태종의 부마駙馬 제간공 권규齊簡公權跬(1393~1421)와 부인 경안궁주慶安宮主(慶安公主, 1393~1415)의 묘역이다. 권규는 길창군 권근吉昌君權近의 3남으로 1403년 태종의 3녀 경안궁주와 혼인해 길천군吉川君에 봉해졌다. 이후 권규는 길창군으로 고쳐서 봉해졌으며, 사후 제간齊簡이라는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권규와 경안궁주 묘역은 상하분上下墳으로 권규의 봉분이 위쪽 경안궁주 봉분이 아래쪽에 있다. 묘역의 경사가 급해 북쪽에 석축을 쌓았고 좌우로 곡장曲墻의 흔적이 남아 있다. 봉분은 2개의 단을 쌓고 계체석階砌石을 설치했으며, 각 봉분은 장대석長大石으로 만든 8각의 호석護石을 두르고 있다.

각 봉분 앞에는 묘표墓表, 상석床石이 설치되어 있다. 권규의 묘표 전면에는 '朝鮮國駙馬吉昌君贈諡齊簡權公之墓(조선국 부마 길창군 증시 제간 권공지묘)'라고 새겨져 있고, 배면에는 '皇明正統七年壬戌二月二十九日遷葬于呂興府南村德谷里剛金山(황명 정통7년 임술 2월 29일 여흥부 남촌 덕곡리 강금산에서 천장하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정통7년은 명의 연호로 1442년이다.

경안궁주 묘표 전면에는 '朝鮮國 太宗第三女慶安宮主李氏之墓(조선국 태종 제3녀 경안궁주 이씨지묘)'라고 새겨져 있으며, 배면에는 부마 묘표와 동일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 경안공주 봉분 앞에는 문인석 2쌍이 건립되어 있으며, 현대에 설치한 장명등 1쌍도 있다.

이 제간공 권규 묘역은 1442년경 조성된 곳으로서 높은 곡장을 두르고, 8각의 호석을 봉분에 사용했으며, 문인석을 2쌍 배열 하는 등 조선전기 묘제를 잘 간직하고 있는 귀중한 묘역이다.



1·2. 제간공 권규 묘역 문인석(좌, 상·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4. 제간공 권규 묘역 문인석(우, 하·상),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제간공 권규 묘역,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6. 제간공 권규 묘역,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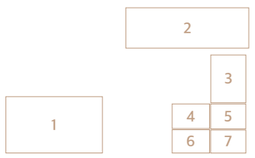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215호

용인 할미산성

龍仁 할미山城

삼국시대
일원
둘레 651m
지정구역 73,504㎡
석성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41 외

지정일 : 2007.09.17
소유자 : 이문식 외 9인
관리자 : 용인시



1. 할미산성 전경, 2014_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 할미산성, 2015_ 한국문화유산연구원
3. 할미산성 집수시설, 2015_ 한국문화유산연구원
4. 할미산성 1호 초석 건물지, 2015_ 한국문화유산연구원
5. 할미산성 성벽, 2015_ 한국문화유산연구원
6. 할미산성 출토 부가구연대부장경호, 2004_ 경기도박물관
7. 할미산성 출토 철촉, 2015_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용인 할미산성>은 할미산(해발 349m)의 정상과 그 남쪽의 능선 일부를 둘러싼 테뫼식 석축산성이다. 할미산 동쪽에는 금학천, 운학천, 양지천 등이 합류하여 경안천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된다. 서쪽으로는 석성산에서 발원한 신갈천이 오산천과 진위천을 거쳐 서해의 남양만에 이르고, 탄천이 북류하여 한강에 유입된다. 이렇듯 할미산성은 탄천, 경안천, 진위천으로 이어지는 수운 교통요지에 위치하며, 하천과 주변 평야지대가 모두 조망되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육로로는 서울과 남부지방을 연결하는 남북·동서교통로의 요충지에 있다. 할미산성은 『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를 비롯한 조선시대 지지류와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1942)에 관련 기록이 전한다. 그러나 언제, 누가 축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에 걸쳐 실시된 발굴조사 결과 백제 한성기의 대형 집수시설 2기, 다수의 저장시설 등과 함께 다수의 한성백제토기가 출토되어 신라에 의해 석축산성이 축성되기 이전에 백제의 관방유적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백제에 의해 축성된 성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산성은 성내부를 남북으로 양분하는 내성벽에 의해 북쪽의 내성, 남쪽의 외성으로 구분된다. 평면 형태는 성벽이 지형을 따라 진행하고 있어 불규칙한 타원형이다. 성벽은 일정한 규격으로 성돌을 가공하여 협축으로 정연하게 쌓았다. 성벽은 장방형 석재로 쌓거나, 장방형석재로 층을 맞추고 그 위에 판상석을 올리고 다시 장방형 석재를 쌓는 방식으로 구축하였다. 내벽과 외벽의 너비는 5m 정도이나 일부 4m 정도로 좁은 구간도 있다. 내·외벽의 기저부에는 보축하여 성벽을 보강하였다. 외벽의 보축은 기저부에 1~2단 가량의 석재를 넓게 붙인 형태이고, 내벽의 보축은 단면 삼각형의 형태로 체성벽에 덧붙인 형태이다. 성내 시설물로는 성의 중앙에 위치한 추정 저수시설이 확인되었다. 성벽에는 수구도 설치되었다.

성 내부의 정상부 평탄지에서는 25기의 수혈주거지와 성벽에 인접하여 부가구연장경호附加口緣長頸壺와 고배高杯 등이 매납된 제의유구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출토유물은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반으로 편년되는 신라후기 양식의 토기로서 석축성벽의 축성기법과 함께 신라에 의해 축성되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관방유적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성내부에서는 6세기 중엽~7세기 전반의 신라유물이 주로 출토되지만, 이후의 조사에서 장방형 초석건물지 2동, 팔각건물지 2동 등과 함께 통일신라시대 토기, 철기들도 다량 출토되어 통일신라시대에도 관방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기념물 제216호

의왕 모락산성

義王 慕洛山城

삼국시대
일원
둘레 878m
지정구역 44,797㎡
토석혼축성
의왕시 내손동 산122-1

지정일 : 2007.09.27
소유자 : 김영식 외 216인
관리자 : 의왕시

<의왕 모락산성>은 오전동과 내손동의 경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 1호선 옆의 모락산 정상부(해발 385m)에 축조된 테뫼식 산성이다. 장타원형 평면에 성내 지형은 동고서저·북고남저형을 이루고 있어 서쪽과 남쪽 안양천을 따라 형성된 군포-앙양-과천 일대의 광활한 평야를 조망함과 동시에 한성에서 수원-화성으로 이어지는 중요 교통로를 모두 조감할 수 있다.

2002년과 2005년 세종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 결과, 성벽 중 경사가 가파른 곳은 자연암반을 그대로 이용하고, 경사가 완만한 곳은 안팎으로 석축을 쌓아 올려 성벽을 구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동·남벽은 비교적 직선을 이루지만, 서벽은 능선과 계곡부를 연결하면서 자연 지형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성벽은 구간에 따라 토축과 석축 또는 토석혼축 등이 확인되며, 축조형태는 협축과 편축이 혼용되었다. 석축 성벽의 경우 능선 상단부의 좌·우를 L자로 깎아내어 수직 경사면을 만든 후 면석을 쌓아 뒷채움을 하거나 토석혼축으로 협축하였다. 토축 혹은 토석혼축 성벽은 작은 할석재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서 그 안팎으로 물성이 다른 흙을 켜켜이 쌓아 조성하였다. 이러한 성벽 축성 방법은 화성 청명산성, 파주 월롱산성과 유사하여 축성시기를 4세기 후반 백제한성기로 판단할 수 있다.

성내의 시설물로는 문지 2개소, 치성 4개소, 망대지 2개소, 건물지 6개소 등이 있다고 하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다. 성내에서는 호·옹·심발형토기·장란형토기·완 등 4세기 후반~5세기 무렵의 백제 토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토기 중 대다수가 회청색 경질토기로 단지나 대옹 등 대형의 저장용기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안양천 일대의 넓은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업생산물 등의 물류집산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모락산성 주변에는 산성과 같은 시기에 속하는 유적·유물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유기적인 관련을 가진 취락 등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모락산성이 자리한 지역이 한성에서 경기남부의 화성(길성리 토성·소근산성)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점과 넓은 충적평야를 배경으로 농업생산력도 높았던 지역이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백제가 경기중서부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모락산 국기봉에서 바라본 모락산성,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의왕 모락산성, 2006_ 의왕시
3. 모락산성 정상부 집석유구,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5. 모락산성 출토유물, 2007_ 의왕시

경기도기념물 제217호

파주 육계토성

坡州 六溪土城

신석기~삼국시대
일원
둘레 약 1,700m
지정구역 315,035㎡
토성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413

지정일 : 2007.10.22
소유자 : 파주시(국유, 사유)
관리자 : 파주시

<파주 육계토성>은 임진강의 돌출 만곡부 충적지대에 축성되었다. 임진강 도하지점의 하나인 가여울과 서쪽의 두지나루가 조망되어 도하하는 적을 방어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성의 남동쪽에는 칠중성, 남쪽에는 파평산보루, 북동쪽에는 호로고루, 서쪽에는 장좌리보루 등이 있다.

『대동지지大東地志』, 『여도비지輿圖備志』에 '치소 서쪽 7리에 있으며 토축으로 둘레는 7,692척이고 장단의 호로고루瓠蘆古壘와 상대한다.'라는 기록과 함께 고려 때에 여러 번 거란의 병화를 입어 폐성된 것으로 전한다. 동북-서남 방향으로 긴 장타원형 평면이며, 내성과 외성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중앙부에서 서편으로 치우쳐 남북으로 뻗은 두 줄의 평행한 토루가 성 내부를 구획하는 구조이다. 외성은 판축기법으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하부에는 현무암 석재와 강돌을 높이 1m 내외로 석축한 곳도 있다. 성벽은 동벽과 남벽구간에 비교적 잘 남아있다. 성 내부는 동벽과 서벽에서 중앙부로 갈수록 단이 지면서 낮아지고 가장 낮은 중앙부에는 남북으로 양분하는 수로가 있다. 이 수로를 통해 임진강으로 직접 드나들 수 있다. 성벽에는 동문지·남문지·서문지가 있고 북동회절부와 남동회절부에는 고대지도 있으며, 동남벽과 서남벽의 회절부 안쪽에는 우물지도 2개소 있다.

북벽은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성토법으로 축성하였는데, 그 앞쪽으로 임진강 본류가 흐르고 있다.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동벽 구간의 동남 회절부의 내성벽 쪽은 인위적으로 삭토하여 평탄지를 조성하였다. 전방의 고구려 칠중성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남벽에는 2개소의 문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외옹성을 갖춘 구조이다. 훼손이 심한 서벽에는 임진강으로 드나들 수 있는 수문이 설치되어 있다.

성안에서는 구석기를 비롯하여 빗살무늬토기편, 무문토기편,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전 시기의 유물이 채집된다. 성 내부의 발굴조사 결과 주거지, 저장수혈 등의 유구와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류 등 백제 초기의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그 중 온돌시설과 판재 벽체시설을 갖춘 凸자형 주거지는 4세기 백제 주거지로서 사이광구호, 장동호 등의 고구려 토기와 대옹, 철모, 찰갑편 등이 출토되어 이 성의 운영 주체가 백제에서 고구려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216년(고려 고종 3) 거란족의 침입 때 함락되어 폐기된 것으로 전한다.

1. 파주 육계토성 전경, 2005_ 경기도박물관
2. 육계토성 성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육계토성 성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육계토성 내 주월리 7호 주거지, 1996_ 경기도박물관
5. 육계토성 내 주월리 7호 주거지 부뚜막, 1996_ 경기도박물관

경기도기념물 제219호

둔촌 이집 묘역

遁村 李集 墓域

고려시대
일원
단분, 묘비 1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장명등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차일석 4기, 계체석, 신도비 1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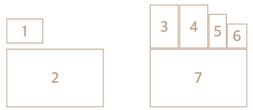
지정일 : 2008.05.26
소유자 : 광주이씨 대종회
관리자 : 광주이씨 대종회

고려후기의 학자이자 문신인 이집李集(1327~1387)의 묘이다. 이집의 본관은 광주廣州, 초명은 원령元齡, 자는 호연浩然, 호는 둔촌遁村이다. 충목왕(재위 1345~1348) 때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문장을 잘 짓고 지조가 굳기로 명성이 높았다. 1368년(공민왕17) 신돈辛旽의 비행을 비판하다 생명의 위협을 받자, 가족과 함께 영천으로 피신하였다. 1371년 신돈이 주살되자 개경으로 돌아와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여주 천녕현川寧縣에서 시를 지으며 일생을 마쳤다. 특히, 목은 이색李穡, 포은 정몽주鄭夢周, 도은 이숭인李崇仁과 같은 여러 명현들과 교유하였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그가 조선조에 벼슬을 지냈다고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1611년(광해군3) 8대손인 영의정 이덕형李德馨의 주청이 받아들여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바로잡게 되었다. 저서에 『둔촌유고遯村遺稿』가 있다.

이집의 묘는 부인 정화택주貞和宅主 영주황씨郢州黃氏와 합장한 단분이다. 묘역은 크게 3계로 구분되어 있다. 상계에는 봉분·혼유석·묘표를 배치하였고, 중계에는 상석·향로석·장명등을 배치하였으며, 하계에는 문인석·망주석 각 한쌍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묘역 배치와 대부분의 석물은 고려말의 원형은 아니고, 후대에 여러번 보수하면서 유지한 것이다. 1985년경에 새로 제작한 묘표, 계체석 등이 있었으나 2008년경 지정당시 대부분 철거하였다.

이 중 옛 묘표는 상계의 동쪽 끝에 위치하여 있다.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으로 비문은 11대손 이휴징李休徵(1607~1677)이 지었다. 비제는 '둔촌선생이공휘집지묘 정화택주영주황씨부장遁村先生李公諱集之墓 貞和宅主郢州黃氏祔葬'이며, 뒷면의 비문은 표면이 떨어져 나가 알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묘표의 대석은 후대에 추보한 것으로 보이며, 구舊 대석으로 추정되는 석물이 옆에 놓여 있다. 묘표의 총 높이는 168cm이다.

장명등은 중계에 위치하여 있으며, 사각형태이다. 사모지붕에 화창이 동서로 뚫려 있고 간주형의 대석이 있는 조선초기의 형태이다. 문인석은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으로 두 손을 소매속에 가린채 홀을 쥔 15세기의 형태이다. 이목구비는 평면적이고 의습선은 선각화한 단순한 형태의 15세기의 양식을 지니고 있다.



1. 둔촌 이집 묘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둔촌 이집 묘역,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둔촌 이집 묘역 문인석(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둔촌 이집 묘역 문인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둔촌 이집 묘역 장명등,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6. 둔촌 이집 묘역 향로석,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7. 둔촌 이집 묘역,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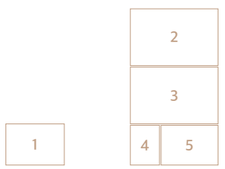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220호

포천 자작리 유적지

抱川 自作里 遺蹟地

삼국시대
일원
지정구역 99,815㎡
주거지 5동, 소형유구 6기, 건물지 1동, 구상유구 4기
포천시 호국로 1145번길 20 외

지정일 : 2008.08.27
소유자 : 국유, 사유
관리자 : 포천시



1. 포천 자작리 유적지 전경, 2001_ 경기도박물관
2. 자작리 유적지 집자리, 2001_ 경기도박물관
3. 자작리 유적지 집자리, 2013_ 기호문화재연구원
4. 자작리 유적지 출토 기대, 2009_ 경기도박물관
5. 주거지 출토 경질무문토기, 2013_ 기호문화재연구원

<포천 자작리 유적지>은 한성기 백제의 지방 거점 마을 유적이다. 이 유적은 1996년 단국대학교 사학과가 실시한 지표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학계에 처음 알려졌다. 이후 경기도박물관에서 2000년(1차)과 2003년(2차)에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2013년에 이르러 기호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3차)를 실시하였다. 3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유적에서 집자리 27기, 작은 구덩이 89기, 도랑 11기, 지상식 건물지 2기 등이 발굴되었다.

이 유적은 북쪽 배후의 왕방산 줄기와 남쪽의 한탄강 지류인 포천천 사이 충적지에 위치한다. 집자리는 대다수가 남쪽에 돌출된 출입 시설이 있는 육각형의 평면 형태를 보이며, 출입 시설에 따라 呂자형과 凸자형으로 분류된다. 규모는 매우 다양한데 경기도박물관이 조사한 2호 집자리의 경우에는 길이가 23.6m에 이르는 대형 집자리이다. 특히 이 집자리에서는 기와와 철정과 같은 건축 부재가 발견된 점에서 거점 마을의 최상위 계층 인물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집자리 내부에서는 ㅣ자형의 외줄구들, 기둥 구멍, 벽구壁溝 등이 확인되었으며, 바닥에 점토를 깔거나 불처리 하여 조성한 것도 있다.

집자리에서 출토된 토기는 경질무문토기와 백제토기가 함께 보이는데, 기종 가운데 일부는 백제 중앙 양식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박물관이 발굴한 1호 집자리에서 발견된 중국 동진대東晉代 청자편은 백제 중앙을 경유하여 입수된 것으로 자작리 거점 마을과 백제 중앙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철기는 철도자·주조괭이·철정·쇠스랑·철촉·소찰·꺽쇠 등으로 농·공구류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외에도 철제 슬래그, 철정과 이기재離器材가 출토되어 마을에서 철기와 토기를 만들어 소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적 연대는 출토유물과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를 참고할 때, 3~5세기 무렵이다. 이 유적은 유례가 없는 대형 집자리의 존재와 더불어 마을이 육각형 집자리로 구성된 점, 그리고 집자리에서 일상적으로 출토되지 않는 토기그릇받침이 출토된다는 점에서 이 지역 일대의 정치적 거점이라 판단된다.

경기도기념물 제221호

불암산성

佛巖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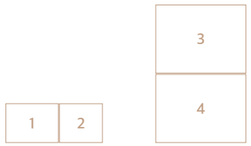
삼국시대
일원
둘레 221m
지정구역 7,128㎡
석성
남양주시 별내동 산97, 산104

지정일 : 2010.12.01
소유자 : 불암사 및 천보사
관리자 : 불암사 및 천보사

<불암산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과 남양주시 별내면의 경계에 위치하는 불암산의 남쪽 제2봉(해발 420.3m)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불암산은 서쪽으로 중랑천 건너 북한산과 마주보고 있으며, 남-북으로는 수락산과 아차산으로 연결된 험준한 암산이다. 불암산성 위에서는 주변이 훤히 내려다 보여 중랑천 일대와 구리시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

불암산성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11권 양주목楊州牧 성지조에 기록하고 있는 정도이다. 불암산성은 테뫼식 석축산성으로 성벽은 평탄한 정상부를 돌아가면서 자연지형을 따라 쌓았는데, 평면 형태는 부등변 5각형이나 4각형에 가까우며, 전체 둘레는 221m로 보루에 가깝다. 성벽은 대부분 무너진 상태이나 남쪽과 동쪽에 있는 일부 성벽에는 면석이 남아 있다. 남쪽 성벽을 살펴보면, 7단의 석축에 높이 120cm 정도 남아 있다. 성돌은 대부분 화강암 할석을 장방향으로 다듬어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며, 성돌 사이사이에는 약간의 쐐기돌을 사용하였다. 석재의 길이는 대략 40~60cm이고 높이는 20cm를 넘지 않는다. 문지는 성벽이 남쪽 능선과 만나는 지점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등산로가 지나가고 있다. 성 내부에는 집수시설로 추정되는 원형구덩이가 있고 정상부에서 북동쪽 아랫단에는 직경 230cm 정도의 석축구조물이 있다.

유물은 정상부 평탄면과 경사면 일대에 산포하고 있다. 채집된 유물은 무문토기편, 적갈색 연질토기, 회청색 경질토기편 등이며, 대체로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토기로 보이는 회청색의 경질토기편들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시대에 속하는 도기편들과 분청사기편을 포함한 자기편 등도 채집되었다. 축성기법이나 성내에서 발견되는 유물의 양상을 고려할 때, 이 산성은 7세기 무렵 신라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2. 불암산성 전경, 1916_ 국립중앙박물관
3. 불암산성 성벽 일부(북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불암산성 성벽 일부(남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기념물 제223호

고양 북한산 산영루지

高陽 北漢山 山映樓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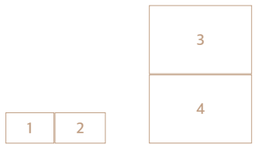
조선시대
일원
지정구역 8,279㎡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237 외

지정일 : 2013.06.07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고양시

<고양 북한산 산영루지>는 북한산성내 중흥사 근처의 계곡 암반에 위치한 산영루 일대를 일컫는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삼각산三角山 서남쪽 중흥사重興寺 일대의 중흥동은 조선시대 한성부의 명승이었다고 한다. 원래 산영루는 북한산北漢山 행궁行宮의 부속건물로 중흥사 승려들이 관리하면서 유사시 왕이 사용할 수도 있는 시설이었다.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등 당대의 시인과 유학자들이 아름다움을 칭송하면서 기문과 시를 남겼다.

산영루의 최초 건립시기는 알려진 바 없다. 최초의 기록은 1603년(선조36)으로 이정구의 『유삼각산기遊三角山記』에 '산영루 옛터' 라는 기록이 있는데, '옛터'라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당시 누각은 소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초 건립 시기는 더 빨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산영루는 여러 차례 중수와 소실을 거듭하였다. 1714년 송상기의 『유북한기遊北漢記』에는 중흥사 승려들이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1745년에 편찬된 『북한지北漢誌』에는 소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최근의 모습은 1885년 주한미국영사관의 G.C.Foulk이라는 공사직 대리가 촬영한 사진에 남아있는데, 장주초석위에 凸자 모양의 팔작지붕을 얹은 모습이다. 이후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소실되어 초석만 남아있다가, 2014년 고양시가 고양 600년 역사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원하였다.

산영루의 초석은 부재들 중 가장 오래된 유구로서 1885년 사진자료뿐만 아니라, 18세기 후반 소당 이재관 선생의 「북한산영루시회사생도北漢山映樓詩會寫生圖」에도 남아 있어 이때도 지금의 장주초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암반위에 세워진 장주초석은 10개이며 초석들은 정방형에 가깝게 치석되었고, 상면 역시 균일하게 다듬어져 있어 뛰어난 균형미를 보인다. 정자의 평면은 정면 3칸의 정칸에 1칸을 덧붙여 凸자 형이며, 지붕은 겹처마를 두른 팔작지붕으로 지붕면이 만나는 추녀마루의 끝 일부에만 막새기와가 설치되었다. 마루는 우물마루를 깔았고 난간은 평난간으로 아자교란亞字交欄을 설치하였다.



1. 북한산성 선정비군과 산영루지, 일제강점기_ 국립민속박물관
2. 북한산 산영루 소실전, 일제강점기_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3. 고양 북한산 산영루지 복원 이전, 2012_ 경기문화재연구원
4. 고양 북한산 산영루지 복원 이후, 2013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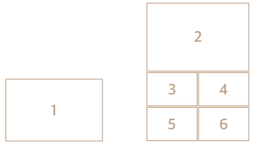
경기도기념물 제224호

화성 화량진성

華城 花梁鎭城

통일신라~조선시대
일원
지정구역 295,259㎡
토석혼축성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90 외

지정일 : 2016.05.30
소유자 : 이성원 외
관리자 : 이성원 외



1. 화성 화량진성 전경, 2014_ 한신대학교 박물관
2~4. 화량진성 서문지, 2014_ 한신대학교 박물관
5. 화량진성 서벽, 2013_ 한신대학교 박물관
6. 화량진성 남벽, 2013_ 한신대학교 박물관

<화성 화량진성>은 와룡산 서쪽능선 일대에 축성된 석축성이다. 남경성, 남경두토성, 화량성, 지화리산성, 와룡산성이라고도 불린다. 서쪽으로 돌출한 화룡산 남쪽 7부 능선에서 남쪽 계곡부를 포함하여 화량만 입구의 해변까지 축조되었다.

전체적으로 산을 끼고 있는 평지성으로 2013년 지표조사를 통해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의 길이가 776m로 확인되었다. 유실된 부분을 감안하면 기록에 전하는 1,176m와 대체로 일치한다. 성벽은 자연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성벽은 협축과 편축을 혼용하였으며 성밖으로 외황外隍(성 밖에 둘러 판 도랑)을 조성한 후 2~6단의 유단시설을 지형조건에 맞추어 설치하였다. 서쪽 성벽은 온전하게 잘 남아 있는데, 석축 성벽의 아래로 돌과 흙으로 쌓은 토축 성벽의 흔적이 확인되어 시기와 축성기법을 달리하는 2개의 성벽이 중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 정상부의 서문지를 기점으로 서벽구간과 동벽구간으로 나뉘는데, 동벽구간에 비해 서벽구간의 잔존상태가 좋다. 또한 서문지는 성벽을 방어하기 위해 반원형태의 옹성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성벽의 축성기법을 근거로 고려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보고있지만,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고려하면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413년(태종13)에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가 설치된 후 서해안지방의 해양방어요지로서 기능하였으며, 한때 수군절도사의 군진으로서 전략적 요충지였지만 이후 강화도로 그 기능이 이전하면서 폐성되었다.

경기도기념물 제2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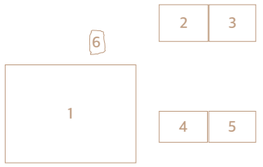
수원 창성사지

水原 彰聖寺址

고려~조선시대
일원
지정구역 13,995㎡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산41

지정일 : 2017.05.29
소유자 : 수원시
관리자 : 수원시

<수원 창성사지>는 수원 광교산에 위치해 있다. 창성사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지만, 수원 창성사지 진각국사탑비(보물 제14호)에 고려 말의 고승 진각국사 천희千熙(1307~1385)가 1382년 이곳에서 입적하였고, 1386년 승탑과 탑비를 조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창성사는 적어도 고려후기 이전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밖에 창성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종실록』에는 창성사가 1407년(태종7) 자은종의 자복사資福寺로 지정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창성사가 광교산에 있으며, 이색이 지은 고려 승려 천희의 비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16세기 중엽까지는 창성사의 법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에 『여지도서』(1765)와 『범우고梵宇攷』(1799)에는 창성사가 광교산에 있고 옛날에 폐사되어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발굴조사에서도 '건륭乾隆(1735~1796)'명 기와가 출토되어 18세기 후반에 중수했다는 기록을 뒷받침한다.



1. 수원 창성사지 전경, 2016_ 한신대학교 박물관
2. 창성사지, 2016_ 한신대학교 박물관
3. 창성사지 탑비구역, 2016_ 한신대학교 박물관
4. 창성사지 출토 막새, 2016_ 한신대학교 박물관
5. 창성사지 출토 고려시대 청자·중국자기, 2016_ 한신대학교 박물관
6. 창성사지 출토 건륭명 수막새, 2016_ 한신대학교 박물관

창성사지는 한신대학교에 의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굴조사가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이곳에서 나말여초, 고려시대, 14~17세기, 18세기 후반의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관련 유물이 출토되었다.
기록과 발굴조사를 통해 볼 때 창성사는 고려시대에 창건되어 17세기 경까지 법등을 이어오다가 폐사된 뒤 18세기 후반에 중수하였으며, 다시 19세기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성사지 내에 위치했던 진각국사탑비는 1965년 수원화성 내 방화수류정 근처로 옮겨 보호·관리하고 있다. 탑비는 일반적인 귀부와 이수 형식이 아닌 방형 비부에 옥개석을 얹힌 형식으로, 고려시대 비석으로는 유일한 형식으로서 주목된다.
한편 창성사는 발굴조사를 통해 건물지와 탑비 터 등이 확인되었지만 조사된 유적의 규모와 성격으로 볼 때 현재의 사지는 창성사의 일부 사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지 주변에는 현 창성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불교유적이 존재하고 있어 창성사의 사역은 훨씬 광범위했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문화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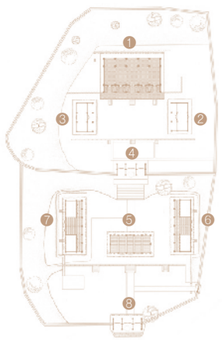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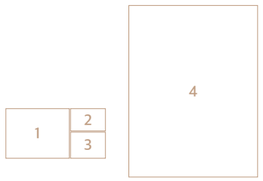
수원향교

水原鄕校

조선시대(1794년 중건)
일곽
대성전 5×3칸
동·서무 3×2칸
명륜당 5×2칸
동·서재 6×2칸
목재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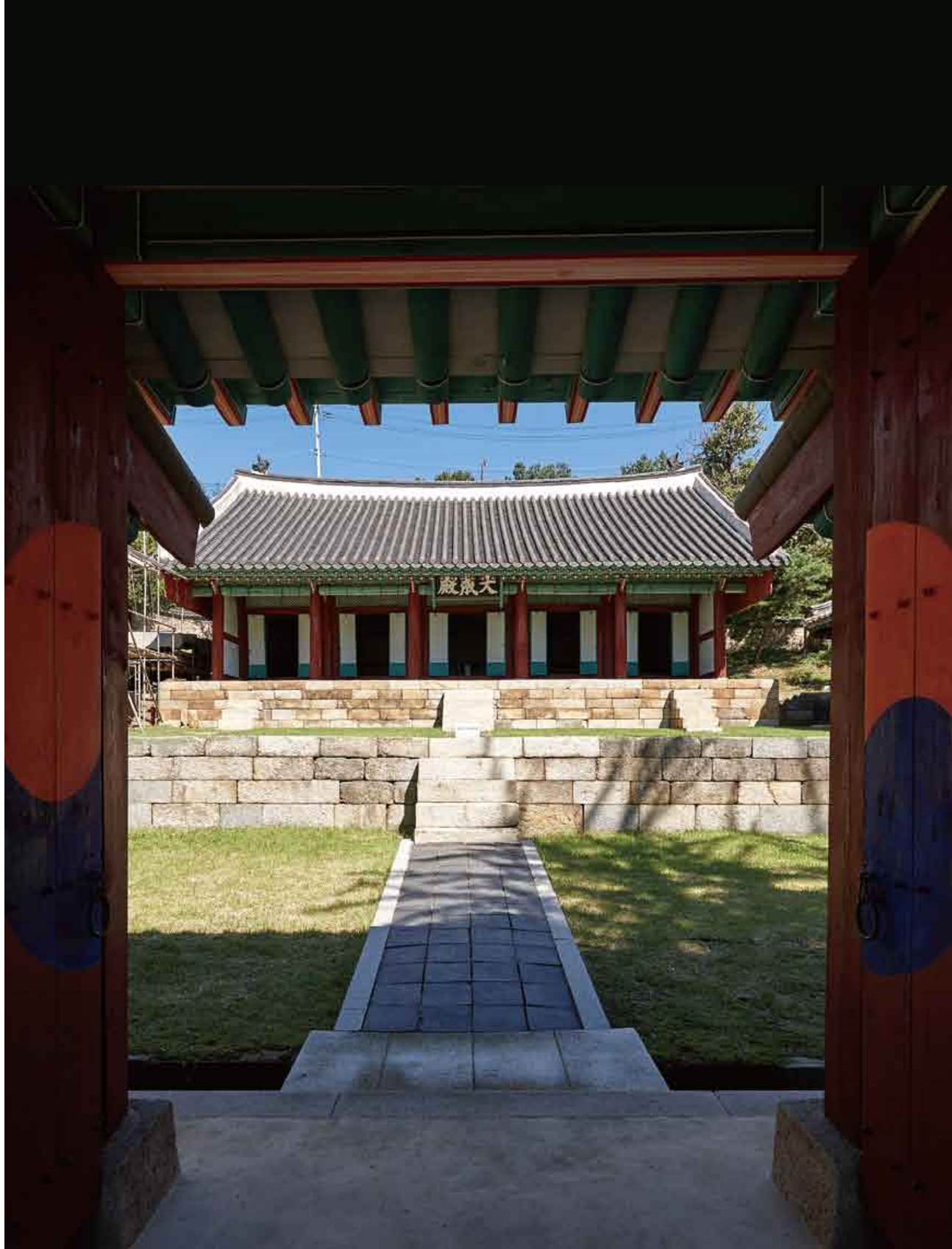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향교재단





<수원향교>는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에 최초로 창건되었다. 이후 기록에 의하면, 1794년(정조18)에 정조의 화성華城 영건營建 계획에 따라 모든 구읍舊邑의 시설을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 중창重創되었다. 현재 배향配享은 공자孔子를 비롯한 5성五聖, 송조 2현宋朝二賢 및 해동 18현海東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향교의 배치는 전체적으로 종축선상縱軸線上에 대성전大成殿과 명륜당明倫堂 등 두 주요 건물을 배치하고 동·서무東·西廡와 동·서재東·西齋를 정대칭으로 배치하는 등 전체 구도가 정연하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에 전후 퇴칸을 둔 익공계翼工系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 바닥은 전塼으로 마감되어 있고, 어칸 가구御間架構는 전후 2고주二高柱 7량가七樑家로, 좌우측벽이 막히고 전면이 트인 개방형 퇴칸을 두었으며, 후면은 내부에서 고주를 두어 퇴칸을 구성하였다. 동·서무는 전면 3칸, 측면 2칸의 전면에 전면개방형 퇴칸을 둔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바닥은 전塼으로 마감하였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민도리계 팔작지붕 건물로 바닥은 시멘트몰탈로 마감하고 내부는 실室로 구분없이 통칸으로 처리하였다. 공포는 민도리식이며 어칸가구는 전후면 평주平柱에 위에 대량을 건 5량 가구이다. 동·서재는 전면 6칸, 측면 2칸의 전면에 퇴칸을 둔 민도리계 맞배지붕이다.

1. **수원향교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향교 입구**, 1906_ 수원박물관
3. **향교 입구**,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대성전**, 2015_ 수원시



경기도문화재자료 제2호

양주향교

楊州鄕校

조선시대(1401년 창건)
일곽
대성전 3×3칸
동·서무 4×2칸
명륜당 5×2칸
목재
양주시 부흥로1423번길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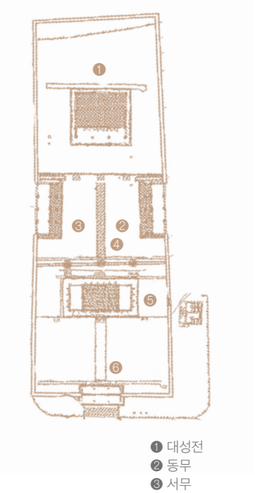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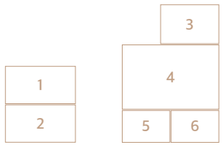
<양주향교>는 1401년(태종1)에 창건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 그 후 1610년(광해군2)에 중건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다시 완전 소실되었다. 그 후 1959년에 대성전大成殿을, 1984년에는 명륜당明倫堂을 복원하였다. 대성전에는 중국의 5성五聖과 송조 2현宋朝二賢 그리고 해동 18현海東十八賢이 봉안되어 있다.

전체 배치모습은 전학후묘前學後廟형식이며 대성전과 명륜당이 일축선 상에 정연하게 놓여져 있다. 대성전 전면의 동·서무東·西廡도 정대칭으로 자리하고 있다. 강학講學 영역에는 본래 동·서재東·西齋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는 없으며, 제향祭享 영역에 비하여 강학 영역이 좁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전퇴는 개방되어 있다. 가구는 6량가로 대들보를 놓고 여기에 동지주, 판대공을 사용하여 종보, 종도리를 결구하고 있다. 동·서무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맞배집이다. 전면 퇴칸은 대성전과 같이 개방되어 있다. 가구는 5량가이며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중앙의 정면 3칸은 우물마루를 깐 대청으로, 그 양측은 방으로 꾸몄다. 가구는 전후 평주 위에 대량을 걸고 그 위에 종보를 결구한 5량 구조이다.

내삼문은 보통 정면 3칸 규모의 단일 건물로 건립되나 양주향교에서는 일강문 형태로 3곳에 분리되어 건립되어진 것이 특이하다.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솟을대문 형식으로 건립되었다.





1. 양주향교 전경, 1980년대_ 양주시
2. 양주향교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대성전, 1984년_ 양주시
4. 대성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명륜당 내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6. 대성전 내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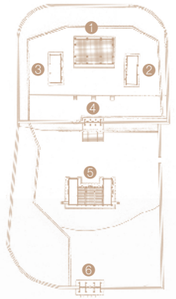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3호

여주향교

驪州鄕校

조선시대(1592년 재건)
일곽
대성전 3×3칸
동·서무 3×1칸
명륜당 5×2칸
내·외삼문 3×1칸
목재
여주시 향교1길 28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❶ 대성전
❷ 동무
❸ 서무
❹ 내삼문
❺ 명륜당
❻ 외삼문

<여주향교>는 고려 말에 설립된 것으로 전해진다. 건립 당시에는 마암(馬巖: 현 上里)에 건립되었으나 1592년(선조25) 임진왜란 당시 화재로 소실된 후 홍문리에 재건하였다가 현 위치에 옮겨 재건하였다. 배향配享은 공자孔子를 비롯한 5성의 위패가 대성전에, 동·서무에는 송조 2현과 해동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여주향교는 종축선상에 대성전과 명륜당 등 두 주요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향 영역은 대성전, 동무, 서무, 그리고 내삼문으로 구성되며, 강학 영역은 명륜당과 내삼문으로 구성된다. 기타 시설로는 외삼문 전면에 홍살문이 위치하고 있다. 전체 대지는 경사지이며 두 개의 단으로 구분되는데, 강학 영역과 제향 영역이 내삼문을 기준으로 나뉘며 내삼문 전면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대성전은 전면 3칸, 측면 3칸의 안으로 전퇴칸을 둔 익공계翼工系 맞배지붕 건물로 바닥은 전塼으로 마감되어 있다. 어칸 가구는 1고주一高柱 7량가七樑家이며, 측벽 가구에서는 전후에 고주高柱를 두어 2고주 7량가로 처리하였다. 동·서무는 모두 정면 3칸, 측면 1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바닥은 전塼으로 마감되어 있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민도리계 팔작지붕 건물로 중앙 3칸은 당堂으로 우물마루로 마감되어 있다. 좌우 실室은 온돌로 되어 있으며, 북측으로 1칸씩을 덧달아 내어서 전체적인 평면이 U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어칸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대성전 쪽 후면에 고주가 위치하고 있다.

외삼문은 솟을삼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1칸의 초익공初翼工계 맞배지붕 건물로 바닥은 강회剛灰다짐으로 마감되어 있다.

1. 대성전과 동·서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명륜당, 1984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명륜당,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대성전, 1984_ 경기문화재연구원
5. 대성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6. 여주향교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4호

평택향교

平澤鄕校

조선시대(1413년 창건)
일곽
대성전 5×3칸
명륜당 5×2칸
동·서재 3×2칸
목재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17번길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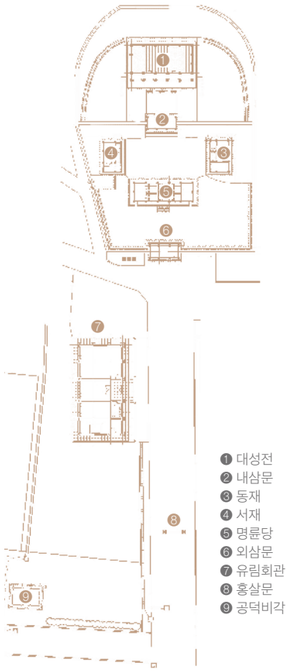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평택향교>는 1413년(태종13)에 창건되어 1445년(세종27) 증설되었다. 병자호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재건되어 1775년(영조51)에 중수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농민학교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삼문을 철거하기도 하였으나 1797년(정조21) 복원하였다. 대성전에는 공자孔子를 비롯한 5성과, 송조 2현, 해동 18현의 위패를 모셨다.

평택향교는 일반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로 경사지에 두 개의 단으로 구성된다. 강학 영역과 제향 영역이 중앙에 내삼문을 두고 좌우로 담장을 연결하여 나뉜다. 제향 영역은 대성전大成殿과 내삼문으로 강학 영역은 명륜당明倫堂과 동·서재, 외삼문 그리고 중문으로 구성된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익공계翼工系 맞배지붕의 건물로 전면에 개방형 퇴칸을 가지고 있다. 내부의 바닥에는 전塼이 깔려 있다. 가구는 어칸과 좌·우 측벽 가구가 각각 다르게 구성되었다. 어칸 가구의 경우 1고주一高柱 5량가五樑家의 구조로 전면에 퇴칸을 두었다. 공포는 전·후면이 서로 달라 전면에서는 1출목出目 2익공 형식으로, 후면에서는 화려한 장식의 전면과는 달리 물입공勿翼工, 초익공初翼工 형식으로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는 정면 3칸, 측면 2칸에 전퇴를 가진 맞배지붕 형식의 건물이다. 측면 한 칸은 통칸으로 하여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칸은 툇마루와 실室로 구성되어 있다.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솟을삼문 형태의 납도리 건물이다.



1 2 3 4

1. 평택향교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대성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명륜당,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서재,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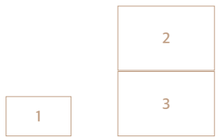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5호

홍학사 비각

洪學士 碑閣

1964년 건립, 1982년 이전
1동
2×1칸
목재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322-1 외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1. 홍학사 비각 정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홍학사 비각 측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홍학사 비각 후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홍학사 비각>은 조선중기 학자인 화포 홍익한花浦洪翼漢(1586~1637)의 비를 보호하는 비각이다. 홍익한은 병자호란(1636~1637) 때 최명길崔鳴吉(1586~1647)이 청과 화의를 맺고 항복하자는 것을 거부하다 중국 선양瀋陽으로 끌려가 함께 처형당한 윤집尹集(1606~1637), 오달제吳達濟(1609~1637)와 같은 삼학사三學士의 한 사람이다. 비각은 1964년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삼거리 부근에 건립되었으나, 1982년 현재 홍익한 묘소 앞으로 이전하였다. 홍학사 비각은 '의를 기리고 칭찬 한다'는 뜻의 '포의각褒義閣'으로도 불린다.

비각은 현재 정면 2칸, 측면 1칸의 규모를 가진 이익공二翼工 형식의 건물로 겹처마의 맞배지붕으로 되어있다. 비각 사방은 벽체가 없는 홍살로만 되어 내부가 개방되어 있으며, '포의각'이라는 현판이 비각 전면 좌측에 걸려있다. 비각은 장대석 기단 위에 사각 주춧돌을 놓고 원기둥을 세웠으며, 지붕 가구는 삼량三樑 구조이다.

비각 내부에는 석비石碑 4기가 있는데 홍익한의 신도비神道碑와 묘비墓碑, 아들 수원晬元의 효자비孝子碑와 어머니 한산이씨韓山李氏의 열녀비烈女碑이다. 또한 비각 내부의 상부에는 1964년의 비각을 세울 당시의 일들을 기록한 현판이 걸려 있다. 비각 뒤에는 홍익한 묘소 1기와 문인석 2기, 묘비 2기, 석상石床 1개소가 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6호

청계사

淸溪寺

삼국~조선시대
일곽
극락보전 3×3칸
지장전 3×1칸
봉향각 3×2칸
삼성각 1×1칸
목재
의왕시 청계로 475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청계사
관리자 : 청계사

『봉은사본말사지奉恩寺本末寺誌』에 실려있는 「청계사중건기淸溪寺重建記」에 의하면 <청계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되었으며, 이후 평양부원군 조인규(1227~1308)가 원元 간섭기인 1284년(충렬왕10)에 크게 중창하여 자신의 원당願堂으로 삼으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때 조인규는 청계사 내에 자신을 위한 건물을 지어 머물기도 하였다. 조선 초인 1431년(세조13)에 조인규의 영당은 다시 중건되었고, 1448년(세조30)에는 그의 6세손인 조현趙玹이 중건을 하는 등 이후로도 오랫동안 청계사는 조인규 일가의 원찰願刹이었다.

1503년(연산군9) 도성 내 사찰 폐쇄령이 떨어지게 되자 청계사는 봉은사를 대신해 선종본찰禪宗本刹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피해를 겪은 것은 물론 1689년(숙종15) 화재로 다시 한 번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곧 승려 성희性熙가 조인규 후손일가의 도움으로 중건하고, 그 내력을 추려 사적비를 세운다. 이후 정조가 왕세손 시절이던 1761년(영조37) 직접 청계사를 찾아 왕실을 위한 기도처를 마련하고, 밤나무 3,000주柱를 내리고 원감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 1789년(정조13)에는 현륭원제각顯隆園祭閣을 세웠는데, 이전에 지은 기도처를 확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1798년(정조22)에는 조인규 후손인 조무의趙武毅의 시주로 중건불사가 행해졌으며 1879년에도 한 차례 중건이 이루어졌다. 그 뒤에도 조선후기를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진 중건·중수 불사를 통해 청계사는 안정적으로 가람伽藍의 사세寺勢를 이어올 수 있었다. 특히 19세기에는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일으켰던 경허鏡虛(1849~1912)가 이곳에서 출가하여 도를 깨우쳤고, 그 선맥을 이은 만공滿空(1871~1946), 금오金烏(1896~1968), 월산月山(1912~1997) 등이 이곳에서 선풍仙風을 드날렸다고 한다.

1. 청계사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청계사 전경, 2004_ 의왕시

경기도문화재자료 제7호

오정각
五旌閣

조선시대(1870년)
1동
3×2칸
목재
안산시 단원구 오정각길 35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금령김씨종친회
관리자 : 김용헌

<오정각>은 조선 세조 때 단종 복위운동을 하다 죽임을 당한 이조판서 충의공忠毅公 김문기金文起(1399~1456)와 아들 현석玄錫에 대한 충신 정문旌門과 손자 충주忠柱, 증손 경남景南, 현손 약전約前 등에 대한 효자 정문 등 5대에 걸친 정문을 한데 봉안한 곳이다.
김문기의 신원은 1731년(영조7)에 관작官爵이 회복되었고, 1870년(고종7)에는 그를 비롯한 자손의 충신정려忠臣旌閭와 효자정려孝子旌閭가 내려졌다.
오정각 입구에는 1983년에 세운 오정각중수기념비五旌閣重修記念碑가 있는데, 비석의 뒷면과 양쪽 측면에 김문기 등 5대의 행적, 관직, 덕망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983년 중수 때 함께 세운 단칸 맞배지붕 대문을 들어서면 전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의 정각이 있는데 전면 1칸은 퇴칸으로 구성하였다. 가운데 칸의 처마 밑에 '오정각五旌閣'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내부에는 가운데 칸에 김문기의 영정과 정문이 있고, 왼쪽에 김경남과 김현석의 정문旌門이, 오른쪽에 김충주와 김약전의 정문이 봉안되어 있다. 현재의 건물은 1870년(고종7)에 후손들이 오세충효 정각五世忠孝 旌閣을 건립하였다고 하며, 그 후 국가 보조와 종친들의 성금으로 몇 차례 중수하여 보전되고 있다. 공포는 전면에 초익공初翼工, 후면에 이익공二翼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식으로 보아 후면의 것이 중수 이전의 모습으로 생각된다.

1
2

1. 오정각 전경, 2014_ 안산문화원
2. 오정각,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8호

사세충렬문
四世忠烈門

조선시대
일곽
3×2칸
목재
안산시 단원구 와동 15-1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김상옥
관리자 : 김상옥

<사세충렬문>은 조선중기 문신인 외암 김여물畏菴金汝岉(1548~1592)의 애국충정과 그 가족들의 절개를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내려준 정문旌門이다. 김여물은 임진왜란 당시 충주 달천 탄금대 전투(1592)에서 신립申砬(1546~1592)장군과 함께 왜적을 막아내지 못하여 강에 투신하였다. 또한 그의 후실後室 평산신씨平山申氏, 아들 김류金瑬 아내 진주유씨晉州柳氏, 손자 김경징金慶徵 아내 고령박씨高靈朴氏, 증손자 김진표金震標 아내 진주정씨晉州鄭氏도 병자호란 때 적군으로부터 순결을 지키기 위해 강에 몸을 던져 순절했다.
사세충렬문은 현재 본채와 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채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민도리 겹처마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건물 중앙에는 '四世忠烈門'이라 쓰인 현판이 걸려있고 내부 천장은 별도로 천장을 만들지 않고 서까래를 그대로 노출시켜 만든 연등천장이다. 내부는 2칸으로 구획되었고, 우측은 방의 형태로 문을 열면 마루바닥 위에 김여물의 충신정문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좌측은 4대 열녀의 정문들이 벽을 둘러가며 세워져 있다. 건물은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세워졌고, 건물 중앙에는 민가 대문형식의 문이 달려있다. 중앙칸을 제외한 양쪽 칸과 측면 칸은 화방벽火防壁 위에 홍살이 설치되었으나, 건물 후면은 화방벽 위에 벽으로 마감이 되어있다. 본채 앞의 대문은 기둥 두 개 위에 평서까래를 걸고 기와 등을 쌓아 지붕을 만든 일각대문一角大門이다. 건물 주위는 본채와 대문을 중심으로 담장이 둘러져 있다.

1
2

1. 사세충렬문 전경, 2008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사세충렬문 본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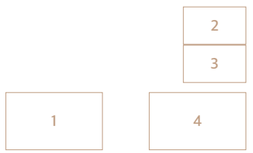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호

과천향교

果川鄕校

조선시대(1398년 창건)
일곽
대성전 3×2칸
명륜당 5×2칸
목재
과천시 자하동길 18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1. 과천향교 대성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명륜당,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대성전 내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홍살문과 외삼문,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과천향교>는 1398년(태조7)에 과천현 읍의 동북방 2리里(현재의 嘉逸里) 지점의 관악산 산록에 창건하였다. 그 후 등과유생이 없고 인재가 나지 않음을 향교 터가 부적절하다는 풍수설에 근거한 유림들의 중론에 따라 1690년(숙종16)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었다. 1944년에는 안산, 시흥, 과천향교 등 3개의 향교를 과천향교로 통합하였다. 이후 1959년에는 향교명칭을 시흥향교를 개칭하였다가 1996년 다시 과천향교로 복원하였다. 현재 5성, 송조 6현과 해동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향교가 자리한 곳은 전체적으로 경사가 심한 지형으로 모두 5개의 단을 조성하고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으로 영역을 설정했다.

대성전大成殿은 정면 3칸, 측면 2칸 장방형평면으로 맞배구조이다. 전면 기둥 위에는 전형적인 초가지를 길게 뽑은 초익공初翼工을 얹었으며 나머지 3면에는 물익공勿翼工을 사용하여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구는 무고주無高柱 이중二重보 형식인데 도리는 모두 5개를 사용하였다. 대들보와 종보는 동자주를 사용하여 결구하였고 종보와 종도리는 파련대공波蓮臺工으로 결구하였다. 천장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연등천장방식이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본채에 좌우로 1칸씩을 달아낸 장방형 평면이다. 중앙부 3칸은 마루를 깔아 강학講學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동편에는 온돌방을, 서편에는 마루를 깐 방을 만들었다. 명륜당의 경우 좌우 혹은 어느 한편에 교수를 위한 방이 마련되는 통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편의 마루방도 본래는 온돌방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외삼문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솟을대문 형식으로 1974년에 신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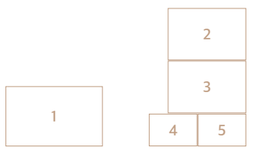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호

파산서원

坡山書院

조선시대(1568년 창건)
일곽
사당 3x2칸
찰륜당 4x2칸
목재
파주시 파평면 파산서원길 24-40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파산서원
관리자 : 파산서원



1. 파산서원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찰륜당,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대성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대성전 내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5. 파산서원 내 비각,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파산서원>은 1568년(선조1) 백인걸白仁傑·이이李珥 등의 관료와 파주 일대 유생의 발의에 의하여 적성현감 성수침成守琛(1493~1564)을 제향祭享하기 위해 창건되었다.

성수침은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이며, 중종·명종 때 도학과 청절淸節로서 이름이 높아 당시 기호사림의 대표적인 존재로 추앙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원은 선조 즉위 초 기호사림을 중심으로 한 서인西人의 본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수침의 아들 성혼成渾(1535~1598)이 동인東人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100여 년 가까이 사액 받지 못하다가 1650년(효종1) 비로소 파주 유생 백홍우白弘祐 등의 청액소請額疏를 계기로 사액을 받게 되었다.

1628년(인조6) 성혼을 추가 제향하고, 1705년(숙종31) 백인걸의 위패를 인근 자산서원紫山書院으로부터 옮겨와 추가 배향配享하였다. 1740년(영조16) 성수침의 동생 성수종成守琮을 추가 배향하였다 이듬해 영조의 서원 철폐 정책에 따라 출향한 뒤 1785년(정조9) 파주 유생 조중길趙重吉 등의 상소로 다시 추배되었다. 1871년(고종8) 대원군의 서원 철폐 시 훼철毁撤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 중의 하나이다.

서원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1611년(광해군3)에 중건하였다가 한국전쟁 때 다시 소실된 후 1966년 현재의 사당 건물만 복원되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이며, 각 칸에 2분합의 띠살문을 달아 놓았다. 사당 내부에는 성수침을 주벽主壁으로 모시고 좌우에 성수종·백인걸·성혼을 배향하였다. 매년 음력 2월 중정일에 향사鄕祠를 지내고 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1호

교하향교

交河鄉校

조선시대(1407년 창건)
일곽
대성전 정면 3칸x좌측면 3칸·우측면 2칸
명륜당 3x2칸
동·서무 3x1칸
동·서재 3x2칸
목재
파주시 쇠재로 91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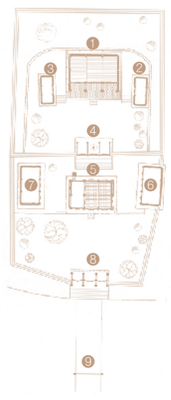
<교하향교>는 1407년(태종7)에 파주군 탄현면 갈현리에 창건되었다고 하며, 1731년(영조7) 탄현면 검단산黔丹山 동쪽 기슭에 장릉長陵이 위치하게 되면서 당시 교하현交河縣(現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이 교하군交河郡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아官衙의 이전과 함께 현재의 위치로 이건 되었다. 이후 관아는 다시 지석면 후율리로 이전하게 되지만 향교만은 그 자리에 남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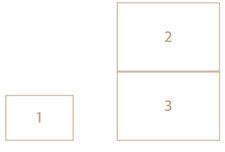
1943년 파주향교를 제외한 다른 파주군 내의 향교와 함께 철폐되었다가 해방 이후 1946년에 당시 유림들에 의해 복구되었다. 이후 1971년에 향교 일곽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게 되었고, 1981년에는 대성전 전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명륜당을 다른 위치에 복원하게 되었으며, 1992년에 교직사를 건립하였다. 배향配享은 대성전에 공자孔子를 비롯한 5성과 송조 2현, 해동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교하향교는 종축선상縱軸線上에 대성전大成殿과 명륜당明倫堂 등 두 중요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먼저 제향祭享 영역은 대성전, 동·서무東·西廡, 내삼문으로 구성되며, 강학講學 영역은 명륜당, 동·서재, 외삼문으로 구성된다. 기타 시설로는 외삼문 전면에 교직사와 홍살문이 자리 잡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에 전면에 퇴칸을 둔 익공계翼工系 맞배지붕 건물로 바닥은 강회剛灰다짐으로 마감되어 있다. 동·서무는 각각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바닥은 시멘트몰탈로 마감하였다.

명륜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민도리계 팔작지붕 건물로 바닥은 시멘트몰탈로 마감하였으며, 내부는 중앙에 당堂을 두고 동실東室 없이 서실西室만 두었다. 동·서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는 온돌로 마감하였다.





1. 교하향교 명륜당,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대성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대성전 내부,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2호

반구정
伴鷗亭

시대미상(1998년 개축)
1동
2×2칸
목재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127 외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파주시
관리자 : 파주시

<반구정>은 조선 세종 대의 정승이었던 방촌 황희厖村黃喜(1363~1452) 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나 여생을 보내던 곳이다. 황희 선생은 고려후기부터 조선전기에 걸쳐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문물과 제도의 정비에 노력했다. 세종(1418~1450) 대에는 24년 동안 영의정 부사로서 외교와 문물제도의 정비, 4군 6진의 개척,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 문물의 진흥 등을 지휘하여 세종성세世宗盛世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452년(문종2) 황희가 89세로 세상을 떠나자 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었다.

반구정은 임진강 기슭에 세운 정자로 낙하진洛河津과 가깝게 있어 원래는 낙하정洛河亭이라 불렀다. 미수 허목선생이 지은 『반구정기伴鷗亭記』를 보면 '정자는 파주 서쪽 15리 임진강 아래에 있고 조수 때마다 백구白鷗(흰갈매기)가 강 위로 모여들어 들판 모래사장에 가득하다.'라고 아름다운 풍광을 묘사했다.

현재 반구정 건물은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의 황희선생유적지 내에 기념관, 영당, 앙지대 등과 함께 위치하고 있다. 원래 반구정은 황희 사후 오랫동안 조상을 추모하는 전국의 선비들이 유적지로 보호하여 왔으나 한국전쟁 때 모두 불타 버렸다. 그 뒤 근처의 후손들이 부분적으로 복구해 오다가 1967년 시멘트로 개축을 하고 1975년에 단청과 축대를 보수하였다. 그러다가 1998년 유적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반구정과 앙지대仰止臺 등을 목조건물로 개축하였다.

건물 규모는 전면 2칸, 측면 2칸의 장방형 평면에 초익공初翼工 형식의 공포 구성으로 기둥 윗부분과 옆면 등에 꽃무늬 장식을 하였다. 기둥과 창방昌枋 사이에는 부드러운 낙양각落陽刻을 조각하여 넣었으며, 지붕은 겹처마를 두른 모임지붕으로 정상부에는 절병통節甁桶을 두었다. 내부에는 『반구정중수기伴鷗亭重修記』와 『반구정기伴鷗亭記』 그리고 한글로 옮겨진 '반구정 중건에 붙이는 글' 등 여러 개의 편액이 걸려있다.

1

2

1. 반구정 측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반구정 정면, 2006_ 파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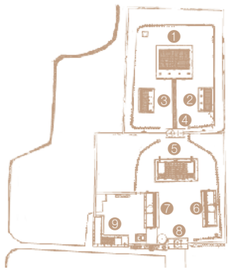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호

광주향교

廣州鄕校

조선시대(창건시기 미상)
일곽
대성전 3×4칸
동·서무 3×2칸
명륜당 5×2칸
동·서재 5×2칸
목재
하남시 대성로 126-13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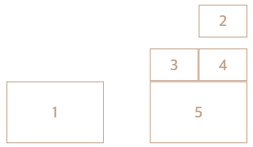


<광주향교>의 창건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며, 원래 이성산성二聖山城 서쪽 2리 쯤 금암산金岩山 사이에 있었다고 한다. 1626년(인조4)에 남한산성으로 이전하였으며, 1703년(숙종29) 당시 광주 부윤府尹이었던 이제李濟에 의하여 산성에서 북쪽으로 약 10리 거리에 있는 현 위치로 옮겨졌다고 한다. 대성전에는 공자孔子를 비롯한 5성五聖의 위패가, 동·서무東·西廡에는 송조 2현宋朝二賢 과 해동 18현海東十八賢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광주향교는 경기도 지역향교 가운데 드물게 평지에 배치되어 있는 관계로 영역 구분은 담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로 남북 종축선상에 대성전大成殿과 명륜당明倫堂이 위치하고 있다. 제향 영역은 대성전, 동·서무 및 내삼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학 영역은 명륜당, 동·서재 및 외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시설로는 서재 후면에 위치한 교직사校直舍가 있다.

대성전은 전면 3칸, 측면 4칸에 전면에 개방형 퇴칸을 둔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동·서무는 전면 3칸, 측면 2칸에, 전면 반 칸을 퇴칸으로 둔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며 바닥은 강회다짐으로 마감하였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로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와 온돌로 마감하였으며, 중앙 3칸을 당堂으로 하고 좌우에 동실東室과 서실西室을 두었다. 동재東齋는 터만 남아있었으나, 2002년 문화재 발굴조사를 거쳐 2007년 복원되었다. 동재와 서재西齋는 전면 5칸, 측면 2칸에 전퇴칸을 둔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전퇴칸은 우물마루로 되어있고, 내부는 중앙 1칸 및 좌우 각 2칸이 구분되어 있으며 온돌로 되어 있다.



1. 광주향교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동재터 발굴조사, 2002_ 한양대학교 박물관
3. 명륜당,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동재,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5. 대성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4호

지수당
池水堂

조선시대(1672년)
1동
3×3칸
목재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21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경기도

<지수당>은 1672년(현종13) 부윤 이세화李世華가 건립한 정자로 당시 고관들이 한가로이 즐기던 낚시터에 건립되었다. 이세화는 조선 후기 문신으로 1689년(숙종15) 인현왕후 폐위시 상소를 올렸다가 문초를 당하고 귀양을 갔던 인물이다. 그 뒤 복직되어 공조, 형조, 병조, 예조, 이조판서 등을 두루 거쳤다.

지수당 건립 당시 정자를 중심으로 앞뒤에 3개의 연못이 있었으나 1925년 을축년乙丑年 대홍수 때 지형이 허물어져 하나는 매몰되고 지금은 두 개만이 남아있다. 연못 가운데에는 '관어정觀魚亭'이라는 정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빈 터만 남아 있다. 지수당 옆에는 이세화 공덕비가 있고 서쪽 하천가에는 이름 없는 우물이 조성되어 있다. 제3의 연못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현재 논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수당의 평면은 정면과 측면이 각각 3칸으로 되어 있으나, 측면의 1칸이 반 칸 크기여서 전체모양은 장방형이다. 지붕은 홑처마를 두른 팔각지붕이다. 마루는 우물마루이며 주위에 30cm 높이의 머름을 둔 평난간을 설치하고 남북동 3곳의 난간중앙을 트고 디딤돌을 놓아 출입구로 삼았다. 천장은 연등반자攀子(천장)와 우물반자를 겸하여 호화롭게 보이게 하였다. 방형의 초석위에 방형 평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공포는 민도리식이다.

이곳은 현재 남한산성 관리사무소 서쪽에서 동쪽으로 성을 관류貫流하는 계곡물이 흐르고 정자 주변은 향나무와 전나무 개나리 등을 심어 아름답게 꾸몄다. 정자 옆의 연못은 ㄷ자 형으로 파서 연못이 정자를 둘러싼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1
2

1. 지수당 내부 천장,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지수당 전경, 2012_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5호

장경사
長慶寺

조선시대
일원
대웅전 3×3칸
칠성각 3×1칸
대방 5×2칸
요사채 5×2칸
목재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676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장경사
관리자 : 장경사

<장경사>가 있는 남한산은 청량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사적 제57호)이 자리하고 있다. 남한산성은 1621년(광해군13)에 후금後金의 침입이 염려되는 상황을 대비해 성을 석성石城으로 크게 개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괄의 난(1624)을 겪으면서 잠시 중단 되었고, 이후 다시 시작해서 1626년(인조4)에 완공하게 되었다.

장경사는 남한산성과 관련이 깊은데, 남한산성을 쌓을 당시인 1624년(인조2)에 공사 책임자였던 벽암각성碧巖覺性(1575~1660)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당시 남한산성에서는 전국의 승려가 동원되어 산성 짓는 것을 도왔는데, 이들이 머물 곳으로 기존의 망월사와 옥정사 외에 장경사를 포함한 7개의 사찰을 더 짓게 된 것이다.

『봉은사본말사지奉恩寺本末寺誌』에는 장경사가 1638년(인조16)에 창건되었다고 나와 있지만, 이때는 벽암각성이 화엄사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산성을 쌓던 1624년에 장경사도 같이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장경사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남한산성을 관리하는 주요 사찰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1894년(고종31) 번갈아 산성을 지키는 승번제도僧番制度는 폐지되었지만 사찰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1907년(순종1) 일본군들이 군대를 해산하면서 남한산성 안에 있는 사찰들을 파괴하는데, 장경사는 이때 다른 사찰들 보다 피해가 적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1975년 화재로 다시 한 번 큰 피해를 입었다. 장경사의 문화재로는 1899년 강남 봉은사로 옮겨졌다가 2013년 제자리 찾기 차원에서 다시 장경사로 옮겨진 '강희21년명 장경사 동종康熙二十一年銘 長慶寺 銅鐘'이 있다.

1 1. 장경사 전경, 2001_ 광주시
2 2. 장경사 전경, 2012_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6호

포천향교

抱川鄕校

고려시대(1173년 창건), 1962년 복원
일곽
대성전 3×3칸
명륜당 4×2칸
동·서재 3×1칸
목재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3274번길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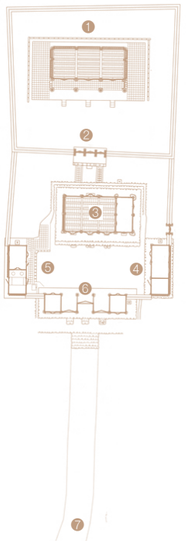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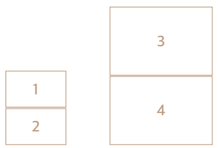
<포천향교>는 1173년(고려 명종3)에 창건 된 것으로 알려져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고려시대 창건 된 향교이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모두 소실 된 후 바로 1594년에 중건하였다. 이 후 다시 한국전쟁으로 모두 소실되었지만 1962년에 중건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배향 인물로는 5성, 송조 4현, 해동 18현을 봉안하였다. 향교 전체 배치는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으로 대성전大成殿과 명륜당明倫堂이 종축선상에 정연하게 놓여져 있고, 명륜당 전면에는 동·서재가 대칭으로 자리하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집이다. 전면 1칸은 툇간으로 측면까지 모두 개방되어 있다. 공포는 초익공初翼工식이다.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후면 평주와 고주 사이에 대들보를 걸었다.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이다. 보통 팔작지붕으로 하는 명륜당 구조와 좀 다르다. 내부는 서측 3칸은 마루를 깔았고 동측 1칸은 방으로 꾸몄다.

동·서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집 구조다. 서재는 한칸이 부엌이고 나머지 두 개는 온돌방으로 꾸몄다. 외삼문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솟을삼문형 맞배지붕으로 다른 향교보다 그 규모가 크다. 이 향교는 근래에 새롭게 조성된 향교로서 건축적 의미는 없으나 역사나 제향적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다.





1. 홍살문, 2011_ 포천시
2. 외삼문,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대성전, 2011_ 포천시
4. 포천향교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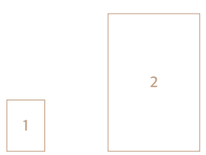
가평 하판리 삼층지진탑

加平 下板里 三層地鎭塔

고려시대
1기
높이 188cm
석재(화강암)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34

지정일 : 1975.02.05
소유자 : 현등사
관리자 : 현등사

<가평 하판리 삼층지진탑>은 일명 지진탑地鎭塔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현재 현등사에 남아있는 유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연혁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현등사는 운악산에서 내려온 능선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지진탑은 능선 끝 지점 아래 단에 작은 대지를 조성한 후 건립하여 사탑비보寺塔裨補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석탑은 오랜 세월로 인하여 기단부가 파손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대갑석甲石과 상대갑석이 남아있어 원래는 2층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하층기단은 매몰되어 있으며, 상층기단은 파손되어 1석으로 치석된 면석 부재만 석탑 앞쪽에 놓여있다. 면석은 규모는 작지만 우주隅柱와 탱주撑柱를 모각하였다. 1층 탑신석은 결실된 상태이며, 2층과 3층 탑신석은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있다. 특히 탑신석은 각 면에 1구씩의 여래 좌상을 조각한 사방불 탑신석으로 조각기법과 고려시대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옥개석屋蓋石은 각 층이 모두 남아있다. 옥개받침은 1층과 2층이 4단, 3층이 3단을 이루고 있으며, 처마부를 살짝 치켜 올렸다. 또한 합각부에서 약하게 반전을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낙수면은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부드럽게 치석治石하여 경쾌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상륜부는 노반석露盤石만 남아있다.
이와 같이 이 석탑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고, 1층 옥개석이 2층과 3층에 비하여 다소 커서 불균형적인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안정된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기단부와 탑신부의 사방불 탑신석과 옥개석의 치석 수법으로 보아 고려중기 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석탑은 고려시대 조계산 수선사에 머물며 국사를 역임한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知訥(1158~1210)이 현등사를 중건하면서 경내의 지기地氣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석탑을 건립했다고 하는 내용과 상통하고 있어 주목된다.



1. 탑신면 사면불, 2013_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 가평 하판리 삼층지진탑, 2013_ 금강문화유산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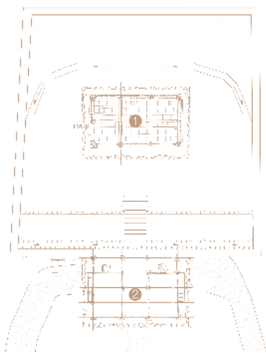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8호

운계서원

雲溪書院

조선시대
일곽
사당 3×2칸
재실 3×2칸
목재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192번길 16-21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평양조씨 종중
관리자 : 평양조씨종중



<운계서원>은 조광조趙光祖와 김식金湜의 문인으로 용문산에 은거하며 학문으로 이름을 떨쳤던 조욱趙昱(1498~1557)과 조성趙晟(1492~1555) 형제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본래 조욱, 조성 형제와 함께 신변申抃을 배향配享하고 있었으나, 숙종 대 사액을 청하는 과정에서 신변은 뚜렷한 행적이 없다고 하여 몇 차례 논란으로 불허한 끝에 1714년(숙종40) 신변을 제외하기로 하고 '용문서원龍門書院'이라는 이름으로 사액되었다. 이 때 신변은 따로 향현사를 지어 위패를 이안移安하면서 신변과 함께 조형생趙亨生·조문형趙門衡을 향현사에 추가로 배향하였다. 또 1798년(정조22)에는 유생 민진원閔鎭遠 등이 상소하여 특명으로 권경우權景祐를 향현사에 추배하였다.

이 서원은 사액 연도는 명확하나 최초 건립연도는 기록마다 서로 차이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1594년(선조27)으로, 조욱의 문집인 『용문집龍門集』 연보에는 1655년(효종6)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1706년(숙종32) 청액을 불허하는 『서원등록書院謄錄』 기사에는 "조욱의 서원에 조성과 신변을 병향하고는 '용문서원'이라 한 지 30년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건립연대는 확인되지 않는다.

『운계서원지雲溪書院誌』에 따르면, 1838년(헌종4) 임금이 용문사에 행차했다가 용문서원이 사찰 이름과 같다고 하여 운계서원으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1871년(고종8)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운계서원은 향현사와 함께 훼철되었고, 유림들이 서원 터에 제단을 설치하여 향사鄕祠를 이어오다 1932년 조욱의 후손 및 지평 유림들이 서원을 복원하고 향현사에 봉안되었던 조형생, 조문형, 신변의 위패도 함께 봉안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권경우의 위패는 후손들이 별도로 수곡서원을 건립하여 이안하였다.

조욱은 1516년(중종11)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을 단념하고, 조광조·김식을 사사하면서 학문연마에 힘썼다. 기묘사화 이후로는 형 조성과 함께 삭령에 집을 짓고 학문을 강론하며 지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에 비겨 칭송하였다. 모친상 후 용문산에 들어가 은거하였는데, 학문이 알려져 용문선생이라 일컬어졌다. 명종 때 성수침成守琛·조식曺植 등과 함께 천거되어 내섬시주부, 장수현감을 제수받았으며, 서경덕徐敬德·이황李滉 등 당대의 명사들과 교유하고 '문강文康'의 시호를 받았다. 매년 조욱의 탄생일인 음력 8월 21일을 기하여 향사鄕祠를 지내고 있다.

1	2
3	4
5	

1. 운계서원 전경, 촬영일미상_ 양평군
2. 운계서원 전경, 1990년_ 양평군
3. 재실 정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재실 후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사당 정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9호

양근향교
楊根鄕校

조선시대
일곽
대성전 3×2칸
동·서무 3×1칸
명륜당 4×2칸
동·서재 4×1칸
목재
양평군 옥천면 향교길 45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양근향교>의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중종(1506~1544)대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건물은 20세기 초에 중건된 건물로 판단되며 또한 한국 전쟁 이후 다수의 변형과 보수 과정을 거쳤으나 명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배향配享은 대성전大成殿에 공자孔子를 비롯한 5성五聖과 송조宋朝 2현 및 해동海東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전체배치 구도는 강학講學 영역을 앞에 두고 제향祭享 영역을 뒤에 둔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로 되어 있다. 동·서재가 호남지방 강학구역 배치의 규범인 명륜당明倫堂 후면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 다른 향교와 구별이 된다. 대지 전체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단이 위치한 곳은 내삼문 전면과 명륜당 측면으로 명륜당의 기단은 전후면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계翼工系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 바닥은 전塼과 같은 크기의 타일로 마감하였다. 어칸 가구는 무고주無高柱 5량가樑家로 전후 평주平柱에 걸쳤으나 측벽에는 평주와 같은 높이의 사잇기둥을 두고 맞보를 받았다. 동·서무東·西廡는 모두 전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 어칸 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전후면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동자주로 된 종대공을 놓은뒤 종도리 장혀와 종도리를 받았다.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로, 내부는 중앙 2칸 및 서측 1칸을 통칸으로 하여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동측 1칸은 온돌로 되어 있다. 어칸 가구는 무고주無高柱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말각 방형 단면의 대들보를 걸고 전후 4분의 1지점에 중대공을 놓았다. 동·서재東·西齋는 모두 정면 4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는 온돌방으로 되어 있다.

1·2. 양근향교 전경, 촬영일미상_ 양평군
3. 양근향교 전경, 1990_ 양평군
4. 양근향교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5. 대성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6. 명륜당,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7. 대성전 내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8. 명륜당 내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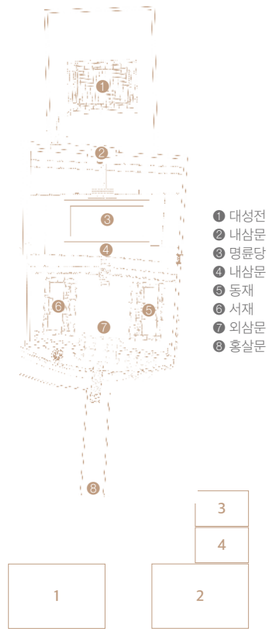
지평향교

砥平鄕校

조선시대(창건시기 미상)
일곽
대성전 3×2칸
명륜당 5×2칸
내·외삼문 3×1칸
목재
양평군 지평면 지평로 333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지평향교>는 창건 연대가 정확히 알려진 바 없으며 현 위치로 1670년(현종11)에 이건되었다(1996년 문화재연구소 조사 당시 대들보에서 묵서지 발견) 배향配享은 대성전에 공자孔子를 비롯한 5성五聖과 송조 2현宋朝二賢, 해동 18현海東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전체 배치는 경사지에 자리잡은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으로 외삼문, 명륜당, 내삼문, 대성전, 일축선상에 정연하게 배치되었다.
대성전大成殿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계翼工系 맞배지붕 건물로 전후퇴칸은 없으며, 내부는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 어칸 가구는 무고주無高柱 5량가五樑家로 전후면 평주平柱에 대들보를 놓았으며, 측벽에서는 중앙에 받침기둥을 두고 대들보 하부를 받게 하였다.
명륜당明倫堂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로, 전후 퇴칸은 없으며 중앙 3칸은 당堂으로 내부는 우물마루로 되어 있고 좌우 1칸은 실室로 온돌바닥으로 되어 있다. 어칸 가구는 무고주 5량가五樑家로 고주高柱 없이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었으며 전후 3분의 1지점에 중대공을 놓아 종보를 받았다. 좌우 협칸에서는 중앙에 받침기둥을 두고 대들보를 맞보형식으로 받았다.
내·외삼문內·外三門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솟을삼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1. 대성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지평향교 전경, 1980년대_ 양평군
3. 지평향교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명륜당,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21호

양평 용천리 삼층석탑

楊平 龍川里 三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236cm(지대석 제외)
석재(화강암)
양평군 옥천면 사나사길 329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사나사
관리자 : 사나사

<양평 용천리 삼층석탑>은 양평군 옥천면 사나사 대적광전 앞마당에 세워져 있다.

석탑은 대적광전 정면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석축으로 넓은 단을 쌓은 후 그 위에 다시 방형의 석축 단을 쌓아 세워놓았다. 지대석은 여러 매의 장대석으로 조성하였다. 지대석 위에는 2매의 판석으로 구성된 기단받침이 있다. 기단 받침은 상면이 경사져 있으며 상면 모서리 합각선이 갑석의 것과 같은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기단받침과 지대석 사이에는 하층기단 면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단은 4 매의 면석으로 만들었다. 기단 면석의 각 측면에는 모퉁이 기둥인 우주隅柱가 만들어져 있다. 각 면석의 중앙에는 가운데 기둥인 탱주撑柱가 조식되어있다. 면석 위에는 갑석이 올려있다. 갑석 하부에는 부연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통일신라 석탑 갑석 하부에는 각지게 돌출된 한 단의 부연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강원지역과 경기 일부지역에서 조성된 석탑의 경우 갑석 하부에 부연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대적·지역적 특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갑석 상면은 완만하게 경사져 있으며 낮은 탑신 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탑신석은 1층의 높이가 2층과 3층에 비해 높게 솟아 있다. 지붕돌은 위로 올라가면서 알맞게 체감遞減되고 있다. 지붕돌 아래에 조성된 옥개받침은 각 층마다 3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대 하강의 요소로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용천리 삼층석탑의 상륜부에 보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석탑에는 노반과 상륜부 편 일부가 남아있다. 용천리 삼층석탑은 전체적으로 체감률이 안정적인 고려시대 삼층석탑이라고 볼 수 있다.

1. 양평 용천리 삼층석탑, 1916_ 국립중앙박물관
2·3. 용천리 삼층석탑, 촬영일미상_ 양평군
4. 용천리 삼층석탑,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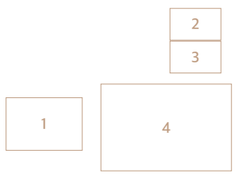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22호

이천향교

利川鄕校

조선시대(1402년 창건)
일곽
대성전 3×3칸
동·서무 3×1칸
명륜당 3×2칸
목재
이천시 향교로 1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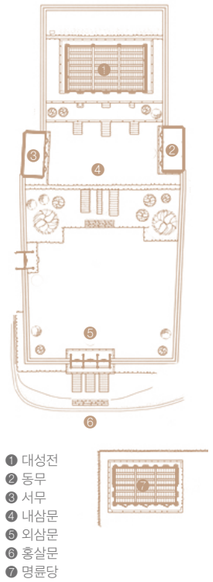
1. 이천향교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명륜당,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대성전과 동·서무, 1983_ 이천시
4. 대성전과 동·서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이천향교>는 조선 초 1402년(태종2)에 창건되었다. 이후 1717년(숙종43)과 1846년(헌종12)에 중수되었으며,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는 각각 1967년과 1980년에 재건되었고 홍살문 역시 1980년 이후에 재건한 것이다. 『향교지鄕校誌』에 수록된 내용으로 보아 현재의 대성전大成殿은 1906년에 개수改修한 건물이며, 명륜당明倫堂은 1915년에 이건移建하여 중창하였다. 현재 대성전에 공자孔子를 비롯한 5성五聖, 송조 2현宋朝二賢 및 해동 18현海東十八賢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전체배치는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이다. 전체 대지는 5개의 단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내삼문을 기준으로 전후면 단 차이가 나며, 내삼문 후면에서 계단을 통해 한 단을 오른 뒤 다시 계단으로 한 단을 더 오르면 동무와 서무가 있는 문묘 영역에 이른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익공계翼工系 단층 맞배지붕 건물로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 동·서무東·西廡는 모두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신위를 모시지 않았다.

명륜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는 3칸 통칸이며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 어칸 가구는 무고주無高柱 5량가五樑家로 고주高柱 없이 평주平柱에 대들보를 걸고 그 위에 4분 변작의 위치에 동자주童子柱 형식의 중대공을 놓아 종보宗樑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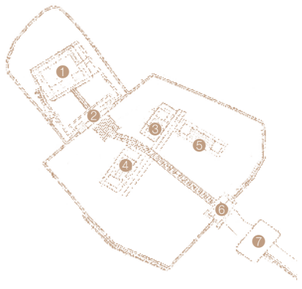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23호

양지향교

陽智鄕校

조선시대
일곽
대성전 3×2칸
명륜당 5×2칸
목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향교로13번길 20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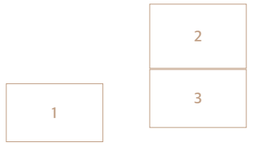
<양지향교>는 『양지군읍지陽智郡邑誌』「사적조事蹟條」의 기록을 보면 1504년(연산군10)에 정수산 아래에 새로 읍치를 두고 양지라고 하였고, 문헌상의 기록으로 처음 양지향교가 등장하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간행)이다. 그러므로 양지향교의 현 위치 조성은 1504년에서 1530년 사이로 여겨진다.

양지향교는 전체적으로 지형이 3단으로 구성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보이고 있다. 다른 향교들의 경우 대성전大成殿과 명륜당明倫堂 등 두 중요 건물이 종축선상에 위치하는 것에 비해 양지향교에서는 명륜당이 종축선상의 좌측에 치우쳐서 위치하고 있다.

양지향교는 전반적으로 문묘구역이 좁으며 상대적으로 강학구역이 넓게 조성되어 있다. 2012년 명륜당을 중심으로 하는 강학구역을 발굴조사한 결과 명륜당 옆의 공사청과 동재 터가 확인되어 2014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로 전면에는 개방된 퇴칸을 둔 이익공계二翼工系 맞배지붕 건물이다. 어칸가구는 모두 1고주一高柱 5량가五樑家로 구성되었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민도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내부는 전체적으로 좌우 대칭으로 구성하였는데 중앙 3칸에는 마루를 설치한 당堂을 두고 좌우에는 통칸으로 동실과 서실을 설치하여 온돌방을 두었다. 어칸가구는 무퇴 2중량으로 구성하였고, 협칸에는 전퇴 1고주 2중량으로 구성하였다.



1. 양지향교 대성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양지향교 발굴조사, 2012_ 경기문화재연구원
3. 2014년 복원된 공사청과 동재, 2015_ A&A문화연구소

경기도문화재자료 제24호

칠장사
七長寺

고려시대
일곽
대웅전 3×2칸
원통전 3×2칸
명부전 3×2칸
홍제관 5×3칸
영각 1×1칸
나한전 3×3칸
삼성각 3×1칸
목재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칠장사
관리자 : 칠장사

<칠장사>는 636년(백제 무왕19)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으며, '칠장사漆長寺'라 불리고 있었지만 창건과 그 이후 고려 초까지의 연혁에 대해 자세히 전하는 자료가 없다. 이후 1014년(고려 현종5)에 혜소국사慧炤國師(972~1054)가 왕명을 받아 중창불사를 일으켰다. 사찰의 명칭은 혜소국사가 이곳에서 일곱 명의 도적이 현인이 되었다고 하여 절 이름을 '칠장사', 산 이름을 '칠현산七賢山'이라 한 데에서 유래했다. 고려후기에는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충주 개천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고려역조실록高麗歷朝實錄』을 이 사찰로 옮겼으나, 1389년(고려 공양왕1)에 왜구가 또 침략하여 이때 칠장사가 불에 탔다고 한다.

그 후 거의 폐허로 남아있던 것을 1506년(중종1) 승려 홍정이 중창했으며, 1623년(인조1)에는 인목대비가 칠장사를 태자인 영창대군과 아버지인 김제남의 명복을 비는 사찰로 삼아 크게 중수 불사를 일으키면서 사세가 커졌다고 한다. 그러나 1674년(현종15) 당시 세도가들이 칠장사 뒷산을 장지로 삼기위해 사찰을 불태웠고, 이후 재가 수행자 초견이 중수하였으나 1694년(숙종20) 다시 화재가 일어났다. 1703년(숙종29) 승려 탄명이 나한전을 창건하여 8구의 나한을 봉안하고, 이듬해 1704년 승려 석규가 법당 등을 지었다. 이후 18세기에 다양한 불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때 활발하게 운영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칠장사에 현전하는 문화재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불회탱五佛會幀, 삼불회탱三佛會幀 등의 괘불이며, 이외에도 혜소국사비慧炤國師碑, 인목왕후 어필 칠언율시仁穆王后 御筆 七言詩 당간, 사천왕상 등 많은 문화재가 전해지고 있다.

칠장사 전경, 2008_ 안성시

경기도문화재자료 제25호

운수암
雲水庵

조선시대(1750년 창건)
일곽
대웅보전 3×3칸
비로전 5×2칸
선방 5×3칸
목재
안성시 양성면 성하길 80-63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운수암
관리자 : 운수암

<운수암>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성 백운산 무양산성舞陽山城(무한성)에 있는 암자이다. 1750년(영조25)에 깊은 신심을 지니고 있던 과부 장반야명張般若明 보살이 절을 짓기 위해 성 밖에 터를 닦았으나, 꿈에서 노승이 나타나 성안에 절을 지으라고 하여 현재의 위치에 창건하였다고 한다. 창건 이후 한동안 운수암의 구체적인 역사는 전하는 것이 없지만, 작은 규모로 법등을 잇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1870년(고종7) 홍선대원군의 시주를 받아 중창을 하였는데, 이때 같이 조성한 불화佛畵의 화기畵技를 보면 운수암은 홍선대원군 일가의 원찰 역할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운수암 편액은 홍선대원군의 글씨로 알려져 있다.

운수암은 하나의 건물에 법당과 요사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공간을 갖춘 대형평면으로 인법당人法堂 형식의 건물이다. 중창되던 시기 이러한 건물은 일상생활은 물론 염불과 같이 대중이 실내에 모여 공동으로 의례를 설행說行하기 위해 갖춰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수암의 평면은 工자형으로 중심채는 법당이고 좌우의 날개채는 휴게 및 생활공간이다. 선원과 종각과 같은 주변의 다른 건물은 모두 최근 확장된 것이다. 이 건물은 종합적 성격의 대형요사로 조선후기 신도와 승려의 밀착된 신행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불교건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운수암에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舍那佛坐像과 아미타회상도阿彌陀會上圖·현왕도現王圖 그리고 칠성도七星圖·독성도獨聖圖·산신도山神圖 등이 전하고 있으나 보관문제로 인해 본사인 용주사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승탑 1기도 남아있다.

운수암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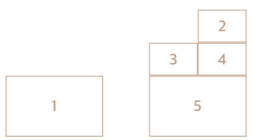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26호

죽산향교

竹山鄕校

조선시대(1533년 창건)
일곽
대성전 3×3칸
동·서무 3×1칸
명륜당 3×2칸
목재
안성시 죽산면 죽산향교길 54-45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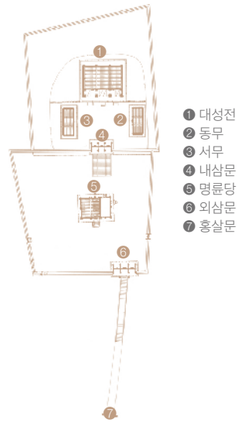


1. 죽산향교 대성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명륜당,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동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서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외삼문,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죽산향교>는 1533년(중종28)에 창건되었으며 이후의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은 명확하지 않다. 1871년(고종8) 간행된 『죽산부읍지竹山府邑誌』에 따르면, 마을 동북쪽 관문에서 3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보수로 인한 형상변경의 흔적이 많고 근대적인 가공 수법이 많이 보이는 점으로 보아 현재의 건물은 19세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대성전에 공자孔子를 비롯한 5성五聖, 10철十哲, 송조 6현宋朝六賢 및 해동 18현海東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죽산향교는 전체 대지가 크게 3단으로 구분된 전학후묘前學後廟前意學後廟의 배치형식을 갖추고 있다. 제향祭享 영역은 대성전과 동무, 서무 및 내삼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학講學 영역은 동재와 서재가 생략된 채 명륜당과 외삼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에 전면에 퇴칸을 둔 익공계翼工系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 어칸가구는 대량, 중량, 종량의 3개의 보를 둔 1고주一高柱 7량가七樑家로 전면에 퇴칸을 두었다. 도리는 모두 7량으로 굴도리로 되어 있으나 전후 중도리는 납도리로 되어 있다. 동·서무는 모두 정면 3칸에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

명륜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로 전후면 퇴칸 없이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와 온돌로 되어 있으며, 동실東室만을 벽체로 구분하고 서측 협칸과 어칸을 통칸으로 하여 당堂으로 두었다. 어칸 가구는 무고주無高柱 5량가五樑家로 전후 평주平柱에 대들보를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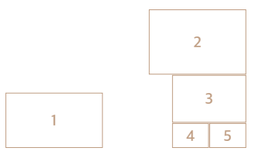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27호

안성향교

安城鄉校

조선시대(1532년 창건)
일곽
대성전 5×3칸
동·서무 3×1칸
명륜당 5×2칸
동·서재 3×3칸
풍화루 11×1칸
목재
안성시 향교길 75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1. 안성향교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대성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명륜당,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동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서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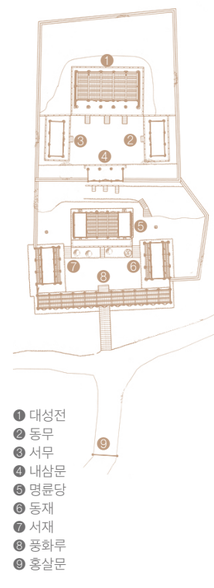
<안성향교>는 1532년(중종27)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임진왜란(1592) 당시 소실된 이후 재건되었다. 그 후 1883년(고종20)과 1903년(고종40)에 각각 대성전大成殿과 명륜당明倫堂을 보수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중건 및 보수 과정을 거쳤다.

안성향교는 종축선상 후면에 제향 영역, 전면에 강학 영역이 자리 잡고 있는 전학후묘형이며, 대지 전체는 크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전퇴를 둔 익공계 맞배집이다. 공포는 전면은 1출목 2익공이고, 후면에는 초익공만 두었으며, 주간에 화반 대신 소로를 각각 3개씩 놓았다. 어칸 가구는 1고주 7량가로 구성되어 있다. 동·서무東·西廡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는 강회다짐으로 마감하였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는 중앙 3칸을 우물마루를 깐 당堂으로 두고 좌우에 동실東室과 서실西室을 두었다. 어칸 가구는 5량가로 전후 평주平柱에 대들보를 걸었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처마는 전후면 모두 홑처마로 처리하였다.

동·서재는 모두 정면 3칸, 측면 3칸에 전후 퇴칸을 둔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전후 툇간은 마루로, 가운데 실室은 온돌 바닥으로 마무리하였다. 풍화루는 2층 문루의 형식으로 전면 11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1층 바닥은 강회다짐, 2층은 우물마루로 마감하였으며, 1층 중앙에 출입문을 두어 외삼문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공포는 민도리 식으로 되어 있으며, 어칸 가구는 3량가로 1층 원형기둥 머리에 사괘를 트고 창방과 평방으로 연결하였으며, 그 위에 방형의 2층 기둥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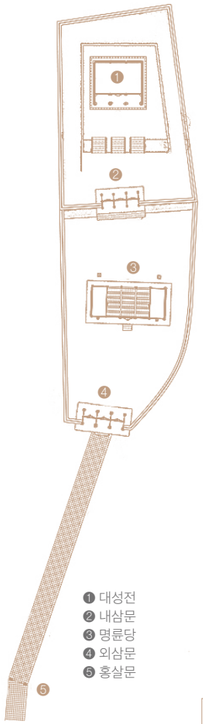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2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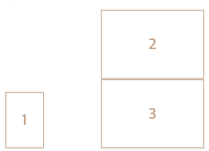
양성향교

陽城鄕校

조선시대
일곽
대성전 3×3칸
명륜당 5×2칸
목재
안성시 양성면 교동길 33-4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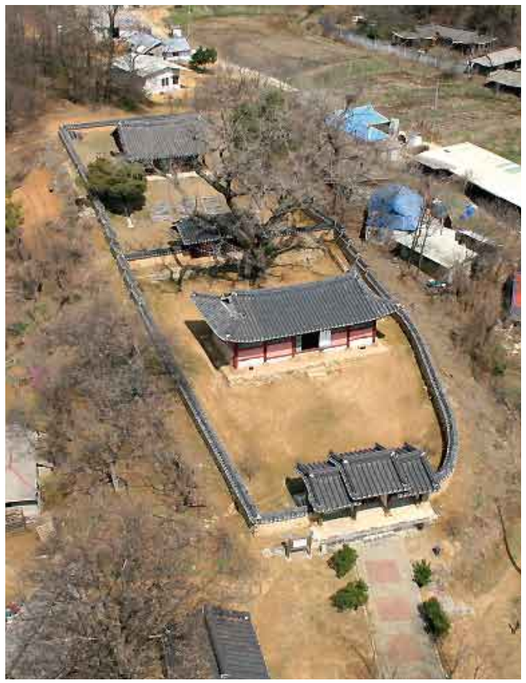


<양성향교>는 1533년(중종28)에 창건되었다는 설과 1680년(숙종6)에 창건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으나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다. 1774년(영조50)에 중창된 바 있고, 1898년(고종35)과 1917년에 중수되었다. 배향은 공자孔子를 비롯한 5성과 송조 2현, 해동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양성향교는 전학후묘 형식으로 전체 대지는 크게 2단으로 구분되고 종縱으로 길다. 남북 종축선상에 대성전과 명륜당이 위치하고 있으나 각각의 축이 약간씩 비껴 놓여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전면에 개방형 퇴칸을 둔 익공계翼工系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 바닥은 시멘트몰탈로 마감되어 있다. 어칸 가구는 1고주 7량가로 전면에 퇴칸을 두었다. 공포는 전후면을 다르게 처리하였는데, 전면은 초익공初翼工으로 처리하고 주간에 소로를 수장하였으며 귀포는 전각포로 구성하였다. 후면과 전면 퇴칸 고주는 보머리를 직절直截하고 간략한 민도리식으로 구성하였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로 바닥은 강회다짐으로 마감하고 내부는 중앙 3칸에 당堂을 두고 우물마루로 처리하였으며, 동실과 서실을 온돌로 처리하였다. 어칸 가구는 무고주無高柱 5량가로, 대들보는 전후 평주平柱에 걸었으며 단면이 원형에 가까운 직재直材를 사용하였다. 공포는 초익공 형식으로, 제공 내외단에 모두 초각을 하였다.



1. 양성향교 전경, 2007_ 안성시
2. 대성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명륜당,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29호

김포향교

金浦鄕校

고려시대(1127년 창건)
일곽
대성전 3×3칸
동·서무 3×2칸
명륜당 5×2칸
동·서재 3×2칸
목재
김포시 북변중로25번길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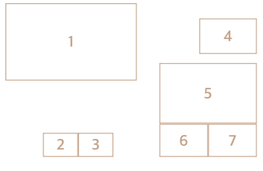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김포향교>는 1127년(고려 인종5)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나 확실치 않다. 원래 김포여자종합고등학교가 있는 산기슭에 있었으나 원종의 장릉章陵을 그곳에 모시게 되어 김포읍 걸포리로 이건 되었다가 다시 현 위치로 옮겨졌다. 배향配享은 공자孔子를 비롯한 5성과 송조 2현, 해동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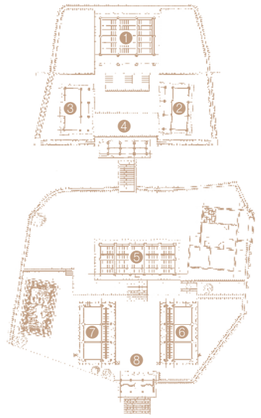
전체 대지는 경사지이며 두 개의 단으로 구성되는데 강학講學 영역은 중앙에 내삼문을 두고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제향祭享 영역은 대성전과 평삼문 형식의 내삼문, 최근 복원된 동·서무로 이루어져 있다. 강학 영역에서 동재와 서재가 전당후재前堂後齋 형식으로 위치하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익공식 맞배집이다. 전면으로는 의식시 편리하게 개방된 툇간을 두었다. 툇칸의 주간은 채 1.2m가 안되는 좁은 간격으로 처리하여 다른 향교와 구별이 된다. 중앙 칸 가구는 전면 툇간 구조까지 포함하여 6량가로 되어있다.

명륜당은 전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 형식의 납도리집으로 바닥은 우물마루로 마감되어 있다. 내부는 통상 좌우 한칸씩 방으로 꾸미는 것과 달리 김포향교에서는 전체를 통칸으로 처리하였다.



1. 대성전과 동·서무, 2016_ 김포시
2. 김포향교 춘기 석전제, 2017_ 김포시
3. 김포향교 추향제, 2015_ 김포시
4. 김포향교 전경, 2016_ 김포시
5. 명륜당과 동·서재, 2016_ 김포시
6. 김포향교, 1930년대_ 김포시
7. 외삼문,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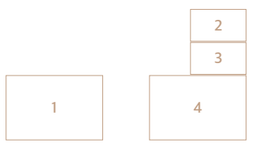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30호

통진향교

通津鄕校

고려시대(1127년 창건)
일곽
풍화루 3×2칸
대성전 3×3칸
동·서무 5×1칸
명륜당 5×2칸
목재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88-21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1. 통진향교 전경, 2016_ 김포시
2. 명륜당,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동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대성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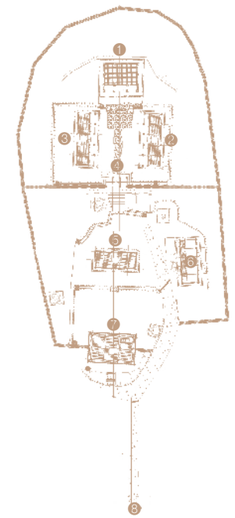
<통진향교>는 고려 말인 1127년(고려 인종5)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나 현재의 향교는 대성전을 제외하고 비교적 근래에 지어진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명륜당은 한국전쟁 이후 새로 지어졌으며, 동재와 풍화루는 각각 1993년과 1994년에 복원되었다. 대성전에는 공자孔子를 비롯한 5성을 배향하고 해동 18현을 종향하였다.

통진향교는 종축선상에 대성전과 명륜당 등이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면에 2층 누각인 풍화루를 두어 누하진입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제향 영역에는 대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무東·西廡가 위치해있고, 강학 영역에는 명륜당을 중심으로 1994년에 복원된 동재東齋가 측면에 치우쳐져 자리하고 있다.

대성전大成殿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구성으로 전퇴를 둔 초익공初翼工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내부에는 전돌을 깔았다. 가구 구성은 전후평주 위에 대량을 걸고 그 위에 종량을 얹힌 5량가로 되어있다.

명륜당明倫堂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민도리계 팔작지붕 건물로 전후퇴 및 동·서실을 두지 않고 전체를 통칸으로 구성하여 마루를 깔았다. 가구 구조는 대성전과 같이 전후평주 위에 대량을 걸고 종량을 걸친 5량 구조이다.

풍화루는 1995년에 신축한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며, 공포는 이익공을 사용하고 지붕은 팔작으로 구성하였다. 향교 입구에는 그 초입에 향교를 상징하는 홍살문과 하마비下馬碑가 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34호

남양향교

南陽鄕校

조선시대(1397년 창건)
일곽
대성전 3×3칸
명륜당 7×2칸
동·서재 3×2칸
목재
화성시 글판동길15번길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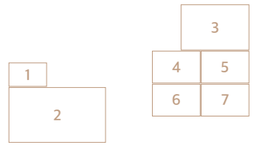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남양향교>는 1397년(태조6)에 남양부南陽府 음덕리陰德里 면역곡面驛谷(역골)에 창건되었으며, 1873년(고종10)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다고 한다. 이건 당시에는 대성전大成殿, 동·서무東·西廡, 명륜당明倫堂, 동·서재東·西齋, 내삼문, 외삼문, 교직사, 홍살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동무와 서무는 없고, 명륜당은 최근에 복원하였다. 대성전에는 현재 공자孔子를 비롯한 5성과 송조 2현, 해동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남양향교의 전체 배치는 크게 두 개의 남북 종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향 영역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하는 강학 영역이 각각 독립된 축을 갖고 있다. 전체 대지는 경사가 비교적 심한 구릉지이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에 전면에 개방형 툇간을 둔 익공계翼工系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 바닥은 장마루로 되어 있다. 어칸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전면에 퇴칸을 두었고, 공포는 전후면 모두 이익공으로 구성하였으며 첨자 양단에 소로를 놓았다.

명륜당은 정면 7칸, 측면 2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중앙 3칸은 당堂으로 두고 좌우 2칸씩을 익실翼室로 구성하였으며, 바닥은 각각 우물마루와 온돌바닥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익사형구성은 1989년에서 1990년 복원 당시 서울 문묘 명륜당의 형식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동·서재는 모두 정면 3칸 측면 2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며, 전퇴에는 마루를 설치하고 그 안쪽은 온돌방으로 꾸몄다.



1. 대성전, 1969_ 화성시
2. 대성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명륜당,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남양향교 전경, 1969_ 화성시
5. 남양향교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6. 동재, 1969_ 화성시
7. 동재,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36호

용주사 천보루

龍珠寺 天保樓

조선시대(1790년)
1동
5×3칸
목재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용주사
관리자 : 용주사

<용주사 천보루>는 화성시 성황산 자락에 위치한 용주사의 문루이다. 용주사는 정조의 친부인 사도세자의 현륭원縣隆園을 수호하기 위하여 1790년(정조14)에 옛 갈양사葛陽寺 터에 세운 능침사찰陵寢寺刹이다. 용주사의 건립은 현륭원의 조성과 함께 왕실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천보루를 비롯하여 대웅보전 등 여러 건축물이 1790년에 현륭원 조성과 함께 세워졌다.

사찰 자체가 평지에 자리하고 있어 천보루 역시 별도의 축대 없이 외벌대의 기단위에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중층누각으로 세워졌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공포는 연꽃과 연봉이 장식된 이익공으로 구성하였다. 누각의 아래쪽 기둥을 보면 전면과 후면 어칸에는 방형의 높다란 장초석을 놓고 그 위에 나무로 된 짧은 원기둥을 세워 천보루의 마루귀틀을 받치고 있으며, 상층의 기둥은 별도의 초석 없이 마루귀틀 위에 세워져 있다. 상층의 사방에 창호를 설치하였는데, 어칸에는 4짝의 분합문을 달았고 그 좌우의 협칸에는 3짝을 설치하였다. 내부에는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고주高柱를 생략하여 상당히 넓은 공간을 구성하였다. 양옆에 배치된 요사와 행각이 천보루의 측면에 연결되어 있어 마치 기다란 한 채의 건물처럼 보이도록 배치하였다. 누각으로 오르는 계단은 행각 내부에 두어 건물의 측면으로 출입이 이루어진다.

사역 전체가 계획적으로 건설되었기에 다른 사찰에서 보이는 누각과 좌우 요사의 구성법과는 달리 마치 회랑으로 둘러싸인 듯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 용주사 천보루, 1910~1940_ 국립중앙박물관
2. 용주사 천보루 측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용주사 천보루 정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용주사 천보루 후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37호

영월루

迎月樓

1925년 재건
1동
3×2칸
목재
여주시 주내로 13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여주시
관리자 : 여주시

<영월루>는 여주 외곽 남한강변에 있는 영월공원의 정상에 자리 잡고 있는 누각樓閣이다. 영월루의 최초 건축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원래 군청의 정문이었는데 1925년 경 신현태 군수가 현 위치에 누각으로 다시 세웠다고 한다. 영월루 입구에는 비석거리가 있고 그 위쪽에는 1958년에 이건된 창리 삼층석탑(보물 제91호)과 하리 삼층석탑(보물 제92호)이 있다.

상층 누마루에 올라보면 한강 상류 쪽으로 강 건너편에 신륵사가 보이며, 하류 쪽으로는 멀리 흥천면 마을이 보여 전망이 좋다. 누각 바로 아래에는 커다란 바위절벽이 있는데, 바위 위에는 힘 있는 필치로 '마암馬巖'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영월루 건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누각 형식이며, 평면은 장방형이다. 장대석 기단에 놓인 높은 사각 초석 위에 짧은 하층 기둥이 세워져 누마루가 꾸며졌다. 그 위에 상층 기둥이 세워져 공포와 결구되고 5량五樑의 지붕 가구가 짜 올려졌다. 누하주樓下柱는 10개의 원주와 2개의 각주로 구성되었으며 누상주樓上柱는 8개의 원주로 구성되었다. 창방이 굵은 부재로 보강된 것은 문루門樓의 가구법과 유사하다. 상층의 누마루는 우물마루양식이며, 사방에는 계자난간鷄子欄干이 설치되었다. 공포는 이익공二翼工 양식으로 지붕은 겹처마를 두른 팔작지붕이며 내부는 서까래가 노출되는 연등천장으로 마감되었다. 익공의 형태나 가구 수법으로 미루어 18세기 말의 건물로 추정된다. 영월루는 전망이 뛰어난 곳에 입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낮은 기단과 높은 초석, 그리고 몸체와 치켜 들려진 팔작지붕의 비례가 적절히 조화된 건물로 평가받는다.

1 2

1. 영월루,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영월루 원경, 2015_ 여주시

경기도문화재자료 제39호

시흥 문원리 삼층석탑

始興 文原里 三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1.7m
화강암
과천시 교육원로 41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보광사
관리자 : 보광사

<시흥 문원리 삼층석탑>은 보광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래는 과천시 관문동의 옛 사지에서 발견된 것을 옮긴 것이다. 발견 당시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명칭을 갖게 되었다. 석탑은 단층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를 올렸는데, 지대석은 높게 별도의 기단부처럼 마련하였으며, 각 면에 2구씩 안상眼狀을 새겼다. 안상은 상부 첨형尖形의 새김이 좌우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조각 수법도 정교하지 못하다. 지대석 상부에는 1석으로 치석된 부재를 올렸는데, 좌우에 우주隅柱를 간략하게 모각하였다. 갑석은 부연이 없는 판석형 석재를 마련하였으며, 갑석 상면에는 낮게 탑신 괴임을 마련하였다. 탑신석은 갑석에 비하여 좌우너비가 급격하게 줄어 석탑의 전체적인 외관을 다소 불안정하게 보이도록 하고 있다. 1층 탑신석은 정면을 사각형으로 구획하여 문비를 새긴 후 한가운데에 자물쇠를 양각하였다. 그런데 문비에 비하여 자물쇠의 크기가 다소 커서 과장된 인상을 주고 있다. 2층과 3층 탑신석의 높이는 급격하게 체감되었지만 우주의 좌우 너비는 1층 탑신석과 동일하다. 옥개석은 처마를 살짝 들어 올리도록 치석하였고, 안쪽에 치우쳐 낮게 3단으로 옥개받침을 마련하였다. 낙수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였고 합각부에서 처마를 살짝 들어 올려 경쾌한 인상을 주고 있다. 옥개석은 좌우 너비에 비하여 상하 높이가 낮아 평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상륜부는 새롭게 추가된 보주석을 올렸다.

석탑은 탑신부의 양식과 1층 탑신석의 문비와 자물쇠의 표현 등이 신라말기 석탑 양식을 계승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고 치석 수법이 고르지 못하며 간략화 된 측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대석의 안상 표현 기법, 부연이 마련되지 않은 판석형 갑석, 옥개석의 평박한 인상, 옥개받침의 간략화 된 처리 수법 등으로 보아 고려 중·후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2
3

1. 시흥 문원리 삼층석탑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문원리 삼층석탑,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문원리 삼층석탑 1층 탑신석,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40호

진위향교 대성전

振威鄕校 大成殿

조선시대
1동
대성전 3×3칸
목재
평택시 진위면 진위로 49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진위향교>는 조선초기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나 확실하지 않다. 병자호란 때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고, 위패는 개인이 보관해오다가 후에 초가집 두칸을 지어 봉안하였다고 한다. 1985년 건물의 전체적인 정비와 1987년 동재를 신축하고 서재를 개축했으며, 최근 1992년에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배향은 대성전 후면 어칸 벽에 기대어 공자孔子의 신위를 봉안하고 그 앞쪽으로 4성의 신위를 봉안하였다. 송조 6현 중 2현과 해동 18현의 신위는 양 측벽에 봉안하였다.

진위향교는 종축선상縱軸線上에 대성전과 명륜당 등 두 중요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 형식이다. 경사가 심한 대지에 단차를 두어 복잡하게 조성되어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로 전면에 퇴칸을 둔 익공계翼工系 맞배지붕 건물이다. 퇴간 바닥은 강회다짐으로 마감하였고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로 마감하였다.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민도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내부는 전체적으로 좌우 대칭으로 구성하였는데, 중앙 2칸에는 장마루를 설치한 당堂을 두고 좌우는 통칸으로 온돌방을 설치한 동실東室과 서실西室을 두었다. 어칸 가구는 무고주無高柱 2중량의 5량가五樑家로 구성되었고 동실 및 서실의 내부 쪽 가구는 전퇴 1고주高柱 5량가로 구성되었다. 동재와 서재는 평면 형태가 서로 다른데 동재는 전면 3칸, 측면 2칸의 전퇴 1고주 5량가 건물이고, 서재는 전면 4칸, 측면 2칸의 전퇴 1고주 5량가 건물이다. 동재는 어칸 및 좌측협칸으로 구성되었다. 어칸 및 좌측협칸은 전면에 툇마루를 둔 온돌방이고 우측협칸은 부엌이다.

1
2

1. 진위향교 대성전 내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진위향교 대성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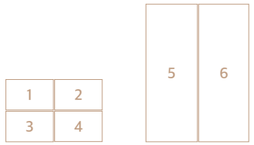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41호

이천 자석리 석불입상

利川 自石里 石佛立像

고려시대
1구
높이 250cm
석재(화강암)
이천시 설성면 자석로14번길 157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연화정사
관리자 : 이천시



1. 이천 자석리 석불입상, 1983_ 이천시
2. 자석리 석불입상, 2006_ 이천시
3. 자석리 석불입상, 2017_ 이천시
4. 대좌 추정 석재,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자석리 석불입상 정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6. 자석리 석불입상 측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이천 자석리 석불입상>은 연화정사 대웅전 좌측 노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새로 조성한 화강암 석재의 기단 위에 봉안되어 있다. 불상 뒤편 우측에는 세로 146cm, 가로 94cm, 높이 47cm 크기의 석부재가 놓여 있는데, 이는 불상 본래의 대좌로 추정된다. 광배는 없으며 목의 삼도 외에는 팔 다리 등의 표현이 보이지 않으며 뒷면 역시 아무런 조각 없이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간략하게 표현된 옷주름은 양 손의 표현과 더불어 마멸이 심해 정확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간략한 옷주름은 편평한 신체 표현과 함께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불상은 가슴 부분에서 나뉘는 2매의 돌로 이루어졌으며 머리에는 원형의 갓을 쓰고 있다.

긴 타원형의 얼굴에 이마 중앙에는 백호가 표현되었으며, 눈·코·입이 작고 귀는 비교적 짧게 표현되었다. 신체 비례와 상호 표현 등에서 인체 조각으로서는 조화와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돌기둥 같은 불신佛身에 앞뒤 모두 양감없이 밋밋한 신체, 간략하게 표현된 옷주름, 머리에 쓰고 있는 원형의 갓, 그리고 이목구비가 작은 얼굴과 짧은 목, 좁은 어깨 등의 특징으로 미루어 고려시대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머리의 갓과 돌기둥 같은 신체에 간략한 옷주름 표현은 경기 남부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고려전기에 유행했던 불상 양식으로, 지역 불상양식의 계보를 잇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42호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龍仁 貢稅里 五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250cm
석재(화강암)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81번길 48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황병태
관리자 : 황병태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옛 절터에 불상과 함께 보존되어 있는 높이 2.5m의 일반형 석탑이다. 판석을 지대석으로 단층기단을 구축하고, 오층탑신을 놓았다. 기단의 각 면석에는 양 우주隅柱가 모각되었는데, 현재 2매의 면석은 결실되었다. 탑신에 비해 좁게 조성한 갑석의 하면은 경사지게 처리하였고, 상면은 평평하게 치석했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1층만 각각 일석의 석재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층은 탑신과 옥개석이 통돌로 조성되었다. 탑신석의 각 면에는 양 우주가 정연히 모각되었다. 초층탑신은 다른층에 비해 월등히 높게 조성되어 있으며, 2층부터 5층까지의 탑신석은 거의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있다. 매층 옥개석이 넓게 조성된 탓에 탑신석이 위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각각 3단씩의 낮은 옥개받침이 조출되었는데, 상면의 3단으로부터 상면으로 경사를 이루며 추녀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들린 형상을 보이고 있다. 낙수면의 경사는 완만하나 합각부는 두툼하게 조성되었다.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에 이르러 날렵해지는 반전을 보이고 있다.

이 석탑은 기단부가 탑신부에 비해 왜소한 탓에 전체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2층 이상에서 탑신석과 옥개석이 일석으로 조성된 점을 볼 때 고려시대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44호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龍仁 彌坪里 藥師如來立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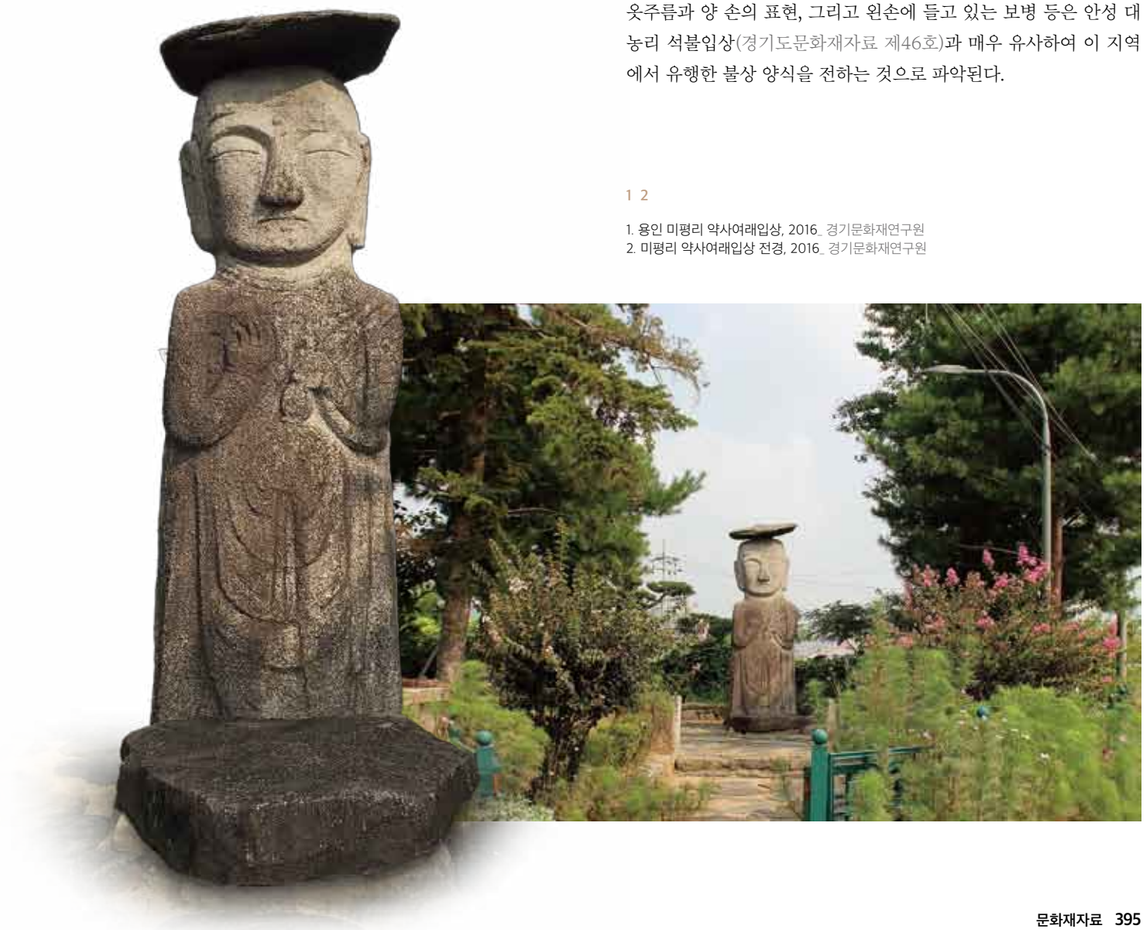
고려시대
1구
높이 430cm
석재(화강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66-19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심효언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은 돌기둥 같은 신체에 광배는 없으며 머리에는 다듬지 않은 원형에 가까운 갓을 쓰고 있는 고려시대의 불상이다. 발목 이하는 땅에 묻혀 있으나 발등은 노출되어 있다. 불상 앞에는 넓은 자연석을 두어 불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소발의 머리에 얕은 육계가 있고, 이마 중앙에는 백호가 표현되었다. 둥글고 큰 얼굴은 양감 없이 밋밋하고 눈은 가로로 길게 표현되었으며, 주먹코에 일자형의 입을 다물고 있다. 양 귀는 짧게 표현되었으며, 목에는 삼도가 새겨져 있다. 양 어깨에 걸쳐져 내려오는 법의는 가슴에서 넓은 U자형의 주름을 형성하고, 이는 신체 하부에까지 이어진다. 주름은 도톰하게 돋을새김하였다. 오른손은 손등을 바깥으로 하여 가슴 부근에 놓았으며 왼손에는 작은 정병淨甁을 들고 있다. 이로인해 약사여래상으로 여겨지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돌기둥 같은 신체에 옷주름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머리 위에 보개를 얹는 등 고려시대 전기에 충청도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유행한 불상 양식의 계보를 잇고 있는 상이다. 여기에 얼굴과 신체에 양감 표현이 거의 없고, 가로로 긴 눈, 두툼한 코, 일자로 다문 입, 크기에 비해 빈약하게 처리된 두 팔과 손의 표현 등에서 지방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머리의 갓과 밋밋한 신체에 간략한 옷주름과 양 손의 표현, 그리고 왼손에 들고 있는 보병 등은 안성 대농리 석불입상(경기도문화재자료 제46호)과 매우 유사하여 이 지역에서 유행한 불상 양식을 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 2

1.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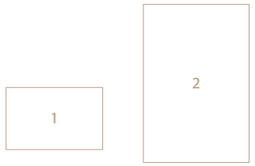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45호

안성 유명건 묘갈

安城 兪命建 墓碣

조선시대(1758년)
1기
257×69×25cm
석재(화강암, 대리석)
안성시 고삼면 삼은리 산2-1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유자목
관리자 : 유자목



1. 안성 유명건 묘갈 후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유명건 묘갈 정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안성 유명건 묘갈>은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유학자인 유명건兪命健(1664~1724)의 행적을 기록한 묘갈이다. 그의 조카 유척기兪拓基(1691~1767)가 영의정으로 있을 때인 1758년(영조34)에 세웠다. 도암 이재陶菴李縡(1680~1746)가 비문을 짓고 곡운 김수증谷雲金壽增의 글씨를 집자하였으며, 유척기가 두전을 썼다. 유명건의 자는 중강仲强, 본관은 기계杞溪이고 예조판서 유여림兪汝霖의 후손이다. 경전經典을 두루 익히고, 명유名儒들을 찾아가 배움을 구하는 등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장성하여서는 우암 송시열尤庵宋時烈에게서 학문을 익히고 있었는데, 스승 송시열이 화를 당하는 것을 보고 과거에 뜻을 접었다가 1702년(숙종28) 생원시에 합격하여 전설사별검이 되었다. 1705년(숙종31) 사헌부감찰이 되었다가 양성현감이 되었는데,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다. 이후 한산군수, 담양부사, 나주목사 등을 역임하다가, 1722년(경종2) 임인사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는 벼슬을 버리고 남포의 남전촌에 은거하였다가, 1724년(경종4) 병들어 세상을 떠났다.

유명건의 묘갈은 비대碑臺 위에 비신碑身을 세우고, 이수螭首는 한옥의 지붕을 모조하여 다포多包의 형태, 서까래와 부연副椽도 양각하여 처마를 섬세하게 나타냈으며, 비석 지붕을 올렸는데 지붕의 용머리에는 용신聳身을 꽂아 올렸다.

1720년(숙종46) 사후 양주 선영에 안장되었다가, 1744년(영조20)에 현재 위치인 안성 고삼면 삼은리로 이장移葬되었다. 유명건의 묘갈은 비대碑臺 위에 비신碑身을 얹고 이수螭首를 올린 형태이다. 이수는 한옥의 지붕을 모조하여 다포의 형상이나 까래와 부연까지도 양각하는 등 처마를 섬세하게 나타냈다. 윗면에는 서로 얽힌 두마리의 용을 큼직하게 표현해 놓았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46호

안성 대농리 석불입상

安城 大農里 石佛立像

고려시대
1구
높이 220cm
석재(화강암)
안성시 대덕면 대농리 91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성시

<안성 대농리 석불입상>은 신체 하반부가 땅에 묻혀 있어 전체적인 모습과 대좌는 파악할 수 없다. 광배는 없고 신체에 비해 큰 머리는 소발이며, 원정모 형식의 갓을 쓰고 있다. 양감이 없는 얼굴에는 가로로 긴 눈과 도톰한 코, 다물고 있는 작은 입이 표현되었고 두 귀는 어깨까지 늘어져 있다. 양 어깨를 덮고 내려오는 통견의 법의를 걸치고 있으며 양쪽 팔뚝에는 굵은 띠 모양의 주름이 형성되어 있다. 오른손에 정병淨甁을 들고 왼손으로 이를 받치고 있는 특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병은 보살상의 지물持物로 이용되는 기물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이 불상을 보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법의 아래에 드러난 왼손의 팔찌를 통해서도 보살상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돌기둥 같은 불신佛身에 양감이 드러나지 않는 밋밋한 신체, 몸에 비해 크게 표현된 머리와 이목구비의 표현, 머리에 쓴 갓, 한 손에 들고 있는 정병의 표현 등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경기도문화재자료 제44호)과 매우 유사한 표현 기법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표현은 특히 고려시대 전기에 충청도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유행한 불상 양식의 계보를 보여주며, 양감 없는 얼굴과 신체, 가로로 긴 눈과 두툼한 코, 일자로 다문 입, 크기에 비해 빈약하게 처리된 두 팔과 손의 표현 등 지방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 2

1. 안성 대농리 석불입상 정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대농리 석불입상 측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47호

포천 금현리 지석묘

抱川 金峴里 支石墓

청동기시대
1기
덮개돌 480×550×65cm
받침돌 120x120x52cm
110x106x23cm
석재(화강암)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04-10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포천시
관리자 : 이상목

<포천 금현리 지석묘>는 지상에 4개의 판석형 받침돌로 장방형의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큰 덮개돌을 올린 구조인 '탁자식 지석묘'이다. 탁자식 지석묘는 '북방식 지석묘'로도 불리는 것으로 주로 한반도의 중부지역과 북부지역에 분포하는 형식으로 금현리 지석묘는 이들 지역에서 확인되는 전형적인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덮개돌의 규모가 돌방에 비해 비교적 크고 판석형으로 안정감이 높다. 이러한 구조는 북부지역의 탁자식 지석묘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당시의 뛰어난 무덤 축조기술과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입지적으로 보면 곡부평야의 완만한 구릉의 평탄면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우금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른다.
지석묘의 덮개돌은 마름모꼴의 형태이며, 받침돌은 장벽 2개와 단벽 1개가 잔존해 있다. 무덤방 내부의 규모는 길이 170cm, 너비 140cm로 경기 북부지역의 지석묘 중에서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유물은 일제강점기에 도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출토유물을 확인할 수 없다. 오늘날 금현리 지석묘는 마을의 제를 올리거나 집안의 잡귀를 쫓는 굿 등 마을의 행사에 중요한 장소로 사용되면서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2

1. 금현리 지석묘, 2011_ 포천시
2. 포천 금현리 지석묘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49호

용인 주북리 지석묘

龍仁 朱北里 支石墓

청동기시대
1기
덮개돌 250×295×55cm
받침돌 120~130x120cm
60x20cm
석재(화강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825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허남훈

<용인 주북리 지석묘>는 북쪽에 위치한 대대천과 남쪽에 위치한 주북천이 동쪽에서 합수되는 지점 사이 형성된 넓은 충적지에 입지한다. 이처럼 주변보다 높은 충적지는 취락이나 무덤이 입지하기에 유리한 지역이다. 주북리 지석묘는 지상에 4개의 판석형 받침돌로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큰 덮개돌을 올린 구조로서 '탁자식 지석묘'에 해당된다. 현재는 장벽 2매와 단벽 1매만 확인된다. 덮개돌은 화강암질 편마암의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지석묘 주변에는 덮개돌로 보이는 석재가 흩어져 있어, 또 다른 지석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북리 지석묘는 넓은 충적지와 하천, 배후산지를 배경으로 취락이 입지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주변에 청동기시대의 생활유적도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낮은 받침돌과 두껍고 웅장한 덮개돌의 형태로 보아 경기지역 탁자식 지석묘의 특징도 잘 보여준다.

1
2

1. 용인 주북리 지석묘 전경,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주북리 지석묘,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52호

연천 통현리 지석묘

漣川 通峴里 支石墓

청동기시대
1기
덮개돌 255×355×44cm
받침돌 112x250x23cm
113x185x33cm
석재(현무암)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339-4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연천군

<연천 통현리 지석묘>는 고포리마을 동쪽 끝자락의 낮은 구릉사면에 입지한다. 원래 2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1기만 남아있다. 주변에는 민가와 비닐하우스, 밭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현리 지석묘는 지상에 4개의 판석형 받침돌로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큰 덮개돌을 올린 구조로서 '탁자식 지석묘'에 해당된다. 덮개돌은 현무암 재질로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은 남북방향이다.
발견 당시 덮개돌의 일부분은 깨져있고, 받침돌의 단벽은 없는 상태에서 장벽 받침돌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나, 2010년 문화재 발굴조사와 복원작업을 거쳐서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연천읍 통현리 일대는 지석묘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까지 8기의 지석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통현리 지석묘 주변에 수십 기가 더 분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형적인 구조의 탁자식 지석묘로서 이 지역 지석묘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1 2
3

1. 연천 통현리 지석묘, 2001_ 세종대학교 박물관
2. 통현리 지석묘, 2012_ 연천군
3. 통현리 지석묘,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53호

추곡리 백련암 부도

楸谷里 白蓮庵 浮屠

고려~조선시대
1기
175×98cm
석재(화강암)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982-118

지정일 : 1984.09.12
소유자 : 백련암
관리자 : 백련암

<추곡리 백련암 부도>는 태화산泰華山 백련암白蓮庵에 소재한 조선시대 부도이다. 백련암에 대한 구체적인 연혁은 전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사역에서 기와편과 백자편 등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부도는 처음 발견 시에 사찰의 아래쪽으로 형성된 골짜기에 나뒹굴고 있었으며, 지대석은 아래쪽이 깊게 파인 상태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리고 지대석 상면과 석종 하부에 원공이 있었으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지대석 하부의 한가운데에 깨진 백자편과 알아보기 힘든 묵서墨書된 종이가 있었는데, 복원 시 그대로 묻었다고 한다. 이 유물들은 최초 건립 시 유골이나 사리 봉안시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부도는 백련암의 동편으로 형성된 좁은 대지위에 세워져 있는데, 1석으로 마련된 사각형 대석 위에 1석으로 치석된 석종을 올린 상태이다. 대석은 판석형으로 다듬었는데, 정면에는 연주문대를 활용하여 사각형으로 구획한 다음 그 안에 좌우로 펼쳐지는 형상의 초화문草花紋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그리고 대석의 좌우측면도 사각형으로 구획한 후 그 안에 타원형의 안상을 새겼으며, 뒷면은 별다른 장식 없이 다듬었다. 대석 상면에는 16엽의 연화문을 원형으로 새겨 석종을 받치도록 했다. 석종은 하부의 지름이 크고 상부는 작은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하부에 연화문을 장식하였고 상부에는 연주문과 연화문이 함께 새겨진 보주를 올려 마무리하였다. 이 부도는 조선시대 성행한 전형적인 석종형 양식으로 세부의 장식 기법, 대석과 석종의 안정된 비율 등으로 보아 상당히 우수한 석공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부도의 주인공은 알 수 없지만 조선후기 백련암의 연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승려의 것으로 추정된다.

추곡리 백련암 부도,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54호

이순지선생 묘

李純之先生 墓

조선시대
1기
단분, 묘비 2기, 상석 2기, 묘표 2기, 계체석, 신도비 1기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5

지정일 : 1984.09.12
소유자 : 양성이씨 대종회
관리자 : 이경지

<이순지선생 묘>는 세종 대의 문신이자 천문학자로 활약한 정평공靜平公 이순지李純之(1406~1465)와 부인 영월신씨寧越辛氏의 합장묘이다. 1406년(태종6)에 태어나 1465년(세조11)에 사망하였으며, 1427년(세종9) 문과에 합격하고, 첨지중추원사와 예조참의, 판한성부사를 거쳐 1465년 판중추원사에 오른 후 행상호군으로 사망했다. 그는 문신임에도 주로 천문과학 분야에서 종사하며 과학적 업적을 남겼다. 처음으로 한반도의 위치를 '북극출지北極出地(북위) 38도度강强'이라고 계산해 내었고,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編』을 공동 저술하였으며, 이천李蕆 등과 함께 앙부일구, 자격루 등을 제작하였다. 1442년(세종24)에는 측우기를 만드는 것을 주관하였다. 1445년에는 천문 이론을 체계화한 『제가역상집諸家歷象集』을 펴냈고, 1457년(세조3)에는 일식과 월식 계산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산법가시算法歌詩』와 그 사용법인 『교식추보법交食推步法』을 완성했다.

개발 중인 도로변 주택가에 위치한 이순지선생 묘는 2단의 묘역 안에 사성莎城과 용미가 달린 단분單墳이다. 봉분 앞에는 부부의 비석과 상석 1쌍이 배치되어 있는데, 동측이 이순지의 비석이고 서측이 부인의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인이 상위인 서측에 위치해 있다. 표석은 조선전기의 양식으로, 뒤집어 놓은 연잎의 개석을 한 '하엽방부형荷葉方趺形'이다. 개석과 비신이 일체이며 상단의 원수圓首는 보수하였고, 연엽 아래에는 연화문을 선각하였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으며 단출하고 마모가 심하다. 비문의 얇은 해서체 글씨는 신녕궁주信寧宮主 신빈신씨信嬪申氏(1435년 졸)묘의 비문 글씨와 유사하고 비음에는 글씨가 없다. 비석 앞 각각의 상석은 고석이 없으며 광택을 내었던 흔적이 있다. 하단에서 석인이나 망주석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비석 모양의 석물 1쌍이 배치되어 있는데, 표석標石과 동일한 백색 세립화강암의 재질과 풍화 상태를 지니고 있다. 연마하여 광택을 내었으나 글씨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장명등, 망주석, 석인은 없다. 도로변에 있는 신도비는 근래에 새로 세운 것이다.

1
2

1. 이순지선생 묘, 촬영일미상
_ 남양주시
2. 이순지선생 묘, 2017
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55호

이천보 고가

李天輔 古家

조선시대
1동
사랑채 6×2칸
행랑채 6×1칸
목재
가평군 상면 역촌길 84-14

지정일 : 1984.10.25
소유자 : 연안이씨 종중
관리자 : 연안이씨 진암공파 종중

<이천보 고가>는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천보李天輔(1698~1761)가 살았던 집이다. 이천보는 본관이 연안延安이고 자는 의숙宜叔, 호는 진암晉庵이며 문인으로 이름이 높던 인물이다. 42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이 집의 뒤로는 현등산 줄기의 하나인 서리산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앞으로는 맑고 깨끗한 번계천磻溪川이 흐르고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지에 위치한다. 건립 당시의 건물은 모두 소실되고 현재 건물은 1867년(고종4)에 다시 지은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순사들이 머무르던 주재소로 사용되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인민군 사령부로 쓰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안채는 이 때 불에 타서 사라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은 사랑채와 행랑채만 남아 있다.

사랑채는 一자형 평면으로 정면 6칸, 측면 1칸 반이며 동향하고 있다. 두 겹으로 잘 다듬어 쌓은 장대석長臺石 기단 위에 높이가 한 자가량 되는 사다리꼴 초석礎石을 놓았는데 이 기단과 초석은 이천보 생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위에 세운 목조 건물은 5량가五梁架의 팔작지붕 구조로 고종 대에 지은 것인데 비교적 마름질을 정교하게 하였으며 공간 구성도 짜임새가 있다. 제일 왼쪽으로 전형적인 상류주택의 특색인 누마루를 두었고 그 우측으로 4칸의 방이 연이어 있으며 모두 전퇴前退를 갖는다. 제일 우측 1칸은 부엌이다. 가운데 칸은 4분합문으로 출입구를 두고 이 칸과 다음 두 칸은 미닫이문으로 되어 이것을 트면 넓은 칸을 만들 수 있다. 처마는 홑처마이며 지붕은 누마루 쪽이 팔작지붕이고 부엌 쪽은 맞배지붕이다. 누마루의 천장은 두 귀의 부채살형 서까래를 노출시키며 가운데에 보개천장을 두었다. 퇴칸의 퇴량退梁은 홍예보 형식으로 끝이 활처럼 휜 조형을 보여주어 고가의 품위를 돋보이게 한다.

1. 사랑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행랑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이천보 고가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5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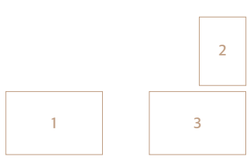
흥국사 대웅보전

興國寺 大雄寶殿

시대미상, 조선시대 중건
1동
3×3칸
목재
남양주시 덕릉로1071번길 58

지정일 : 1985.06.28
소유자 : 흥국사
관리자 : 흥국사

남양주시 수락산에 위치한 흥국사는 599년(신라 진평왕21) 원광법사圓光法師(555~638)가 창건하여 '수락사水落寺'라 하였다고 전하며, 그 뒤 조선중기까지의 역사는 전하지 않고 있다. 조선시대 선조년간에 선조의 친부인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원당으로서 '흥덕사興德寺'라는 사명으로 중창되면서 사세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626년(인조4)에 덕흥대원군의 휘호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면서 지금과 같이 '흥국사興國寺'로 개칭하였다.
조선의 중흥조인 덕흥대원군의 원당이라는 지위로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중창을 거듭하였는데, 1818년(순조18) 큰 화재가 일어나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어 이듬해부터 약 20여 년 간 명부전, 대웅보전, 만세루방萬歲樓房이 차례로 중창되었다. 1877년(고종14)에는 만세루방이 또 다시 화재로 소실되어 이듬해에 다시 중건하였다.
대웅보전은 1818년(순조18) 화재로 소실되어 1821년(순조21)에 재건하였고, 이후 1888년(고종25)에 중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13년에 해체수리가 진행되면서 상량문이 확인되었다.



1. 흥국사 대웅보전, 촬영일미상_ 남양주시
2. 대웅보전 용두장식,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흥국사 대웅보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대웅보전은 5단의 장대석으로 기단을 조성하고 원형으로 다듬은 초석을 사용하여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로 세워져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공포는 사방을 외1출목 내2출목의 다포로 구성하였는데 측면의 경우 평방이 생략되어 있다. 전면의 각 칸에는 4짝의 분합문을 들어열개문으로 설치하였고 좌우측면에는 1짝의 만살문을 달았다. 측면과 후면의 벽체는 모두 흙벽으로 구성하고 벽화를 그려 넣었다. 내부에는 우물마루가 깔려 있으며, 고주高柱를 세워 불단을 구성하였는데 고주의 위치를 건물의 기둥열 보다 뒤쪽에 배치하여 불단 앞쪽의 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하였다. 천정은 빗반자를 설치하여 벽화를 그려 넣었고, 어칸부분에만 우물천장을 구성하였다. 팔작지붕을 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충량의 경우 앞쪽 충량에만 머리 부분에 용두조각을 하였다.
건물의 외관에서 불전을 외호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용두조각이 일반적으로 어칸의 기둥상부에 나타나는 데 비해, 이 건물에서는 전면 양끝의 창방머리와 귀포에 배치하여 좌우로 넓게 벌려 놓은 듯 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붕의 추녀마루에는 궁궐에서만 사용하던 잡상이 올려져있어 흥국사와 왕실의 각별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57호

한미산 흥국사 약사전

漢美山 興國寺 藥師殿

조선시대(창건시기 미상)
1동
3×2칸
목재
고양시 덕양구 흥국사길 82

지정일 : 1985.06.28
소유자 : 흥국사
관리자 : 흥국사

고양시 한미산 자락에 위치한 흥국사는 신라 문무왕(재위 661~681) 때 원효대사元曉大師(617~686)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며, 현재의 사역은 1686년(숙종12) 중창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영조가 생모 숙빈 최씨의 묘소인 소령원昭寧園에 행차하는 길에 이곳에 들러 묵었으며 이때 절 이름을 흥국사로 고치고 직접 약사전의 편액 글씨를 써서 하사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1686년 이후 여러 차례의 중창이 진행되었으며, 약사전은 1867년(고종4)에 중창하고, 이후 몇 차례의 수리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약사전은 5단의 장대석 기단 위에 방형으로 다듬은 초석을 사용하였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세워져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공포를 외1출목出目 내2출목의 다포로 구성하였다. 정면의 각 칸에는 4짝의 분합문을 달았고 측면과 후면은 모두 판벽으로 구성하고 벽화를 그려 넣었다. 내부는 우물마루를 깔고 불단을 후면에 붙여 설치하였다. 천장은 빗천장을 설치하여 벽화를 그려 넣고 어칸에는 우물천장을 설치하였다. 충량의 머리에는 용두를 조각하여 불단을 장엄하고 있다. 용두 장식은 건물의 전면 어칸의 기둥머리에 설치하는 안초공과 귀포에서도 보이며, 포의 살미에 연꽃을 조각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장식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불전임에도 공포를 구성하는 데 있어 생략된 부재 없이 튼실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내·외부의 각 부재에 조각된 연꽃과 용두 장식은 조선후기 불전 건축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2

1. 약사전 용두 장식,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한미산 흥국사 약사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58호

가학동 지석묘

駕鶴洞 支石墓

청동기시대
1기
덮개돌 290×235×60cm
받침돌 85~170×55~110cm
석재
광명시 가학동 산101-2

지정일 : 1985.06.28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광명시

<가학동 지석묘>는 벌말의 뒷산 사면에 입지하며, 지상에 4개의 판석형 받침돌로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큰 덮개돌을 올린 '탁자식 지석묘'이다. 현재는 1기만 남아있지만 한양대학교에서 1997년에 실시한 발굴조사를 통해 지석묘 덮개돌로 추정되는 석재 11기가 확인되었다. 가학동 지석묘는 지석묘군의 서쪽 가장자리에 놓여있고 나머지 지석묘는 동쪽에 2열로 놓여있다. 지석묘군의 덮개돌은 장타원형과 한쪽 면만을 치석한 삼각형의 두 종류가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특별한 하부 매장시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덮개돌과 받침돌로 추정되는 11개 석재 중, 3·4호 석재는 6호 상석의 지석으로 추정되어 복원 1호로 명명하였고, 8호의 상석에 7호 지석을 복원 2호로, 9호는 상석이 유실된 지석으로 추정하여 복원 3호로, 10호는 복원 4호로, 11호는 복원 5호로 명명하여 총 5기를 주변에 이전복원 하였다. 이 중 경기도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지석묘의 덮개돌은 길이 290cm이고, 4개의 받침돌 중 3개는 무너졌다. 발굴조사를 통해 주변의 지석묘에서 가락바퀴, 돌화살촉, 반달칼 등이 출토되었고, 청동기 시대의 집터도 1기 조사되었다.

가학동 지석묘는 탁자식 지석묘이지만 돌방의 벽석인 받침돌의 크기가 작고, 덮개돌이 두꺼운 형태인 것으로 보아 중부지역 탁자식 지석묘의 지역적 특징이 잘 나타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석묘문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1 2
3 4

1. 가학동 지석묘 발굴조사 출토유물, 1997
_ 한양대학교 박물관
2. 가학동 지석묘군,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가학동 지석묘 발굴조사, 1997_ 한양대학교 박물관
4. 가학동 지석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59호

청룡사 삼층석탑

靑龍寺 三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238cm
석재(화강암)
안성시 서운면 청룡길 140

지정일 : 1985.06.28
소유자 : 청룡사
관리자 : 청룡사

<청룡사 삼층석탑>은 평면 방형의 단층기단 상면에 삼층탑신을 올린 높이 일반형 석탑이다. 1매의 판석으로 조성된 지대석의 상면에는 각호각형角弧角形 3단의 받침을 조출하여 기단을 받고 있다. 기단은 4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면에는 양 우주隅柱와 탱주撑柱 1주가 모각되어 있다. 1매의 판석으로 구성된 기단갑석의 하면은 경사지게 처리하였고, 상면에는 각호각형 3단의 받침을 조출하여 탑신부를 받고 있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일석으로 조성되었다. 탑신의 각 면에는 양 우주가 정연히 모각되어 있는데, 일층에 비해 2층 이상의 높이가 급격히 낮아져 비례가 흐트러진 일면을 보이고 있다. 또한 탑신석에 비해 옥개석이 크게 조성되어 조화로움을 상실하였다. 옥개석은 매 층 규모와 낙수면 등의 조성 수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역시 정형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매 층 각형 4단의 옥개받침이 조출되었고, 낙수면의 경사는 급하게 조성했다.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에 이르러 살짝 반전되어 경쾌한 일면을 보이고 있다. 1층 옥개석의 일부가 결실되었고, 탑신부에서 흐트러진 비례를 보이고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석탑의 부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후기에 조성된 석탑으로 추정된다.

1 3
2

1. 청룡사 삼층석탑 전경, 1983_ 전국사찰현황실태조사서
2. 청룡사 삼층석탑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청룡사 삼층석탑,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60호

삼막사 명부전

三幕寺 冥府殿

조선시대
1동
3×2칸
목재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478

지정일 : 1985.06.28
소유자 : 삼막사
관리자 : 삼막사

안양시 삼성산에 위치한 삼막사는 신라시대에 원효대사元曉大師(617~686)가 창건하고, 조선초기 무학대사無學大師(1327~1405)가 중창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삼막사사적비三幕寺事蹟碑』(1707)와 『삼성산삼막사사적三聖山三幕寺事蹟』(1771) 등으로 보았을 때, 조선 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세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명부전은 1880(고종17)에 의민義旻스님이 주도하여 건립하였다.

명부전은 장대석 3벌을 쌓아 기단을 만들고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어 초석으로 삼아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조성하였다. 출목出目익공으로 공포를 구성하고 맞배지붕을 올렸는데, 내부에 충량이 설치되어 있고 측면에도 공포를 두고 있어 원래 팔작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물의 전면에는 최근에 새로 단 4짝의 분합문이 설치되어 있고, 측면과 후면은 기둥 상부의 창방 아래까지 화방벽으로 처리되어 있다. 내부는 우물마루를 설치하고 불단은 건물의 후벽에 붙여 조성하였는데 건물의 측면까지 ㄷ자 형태로 설치하였다. 불단 중앙에는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봉안하고 양옆으로 십왕을 벌려 배치하였으며 불단의 양끝에는 인왕상을 입상으로 배치하였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서까래가 노출되어 있으며, 충량의 머리는 용두를 조각하여 화려하게 장엄하였다.

삼막사 명부전은 삼막사 내의 부불전副佛殿으로 다포와 같이 높은 격식으로 지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포의 연봉·연꽃조각과 내부 충량머리의 용두조각에서 이 건물의 화려한 장식성이 돋보이고 있다. 이러한 장식성과 화방벽으로 처리한 벽체의 구성법 등에서 19세기 말 사찰 건축과 소규모 부불전의 건축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2

1. 삼막사 명부전 내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삼막사 명부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61호

용인 창리 선돌

龍仁 倉里 선돌

청동기시대
1기
200×77×34cm
석재(응회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487-1

지정일 : 1985.06.28
소유자 : 용인시
관리자 : 용인시

선돌은 입석立石이라 부르기도 하며, 고인돌과 같이 거석문화의 한 유형이다. 그 주된 기능에는 풍요, 수호와 벽사, 경계와 이정표, 무덤을 표시하는 묘표석墓標石 등이 있다.

<용인 창리 선돌>은 야트막한 야산으로 둘러싸인 계곡 입구의 논가에 위치한다. 주변으로는 진위천의 샛강인 완장천이 흐르고 있으며, 앞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다.

이 선돌은 재질이 응회암이고 현재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이며, 정면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검바위'라고 부르는데 선돌의 형태가 장검을 거꾸로 세워 놓은 모습과 같아 유래하였다는 것과 선돌의 한쪽 면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는 것, 두 이야기가 전해 온다. 또한, 예로부터 이 선돌이 쓰러지면 마을에 재앙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이 선돌을 신성시하면서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려주며, 쓰러지지 않고 원래의 상태대로 잘 돌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편, 이 선돌은 지상 30cm되는 부분이 양쪽으로 움푹 들어가 잘록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갈아서 생긴 것이다. 이러한 선돌의 형상은 남근男根을 연상하게 한다. 이와같은 행위를 한 목적이 주목되는데, 아마도 후대의 여인들이 선돌을 남근으로 여기고 수태를 위하여 주술적인 행위를 했던 의미가 강하게 배어있는 것 같다.

용인 창리 선돌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62호

용인 목신리 석조여래입상

龍仁 木新里 石造如來立像

통일신라시대
1구
180×70×33cm
석재(화강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7

지정일 : 1985.06.28
소유자 : 배양자
관리자 : 배양자

<용인 목신리 석조여래입상>은 용인시 원삼면 목신리 마을 안에 위치한 석조여래입상으로 하반신이 땅에 묻혀 있어 전체적인 신체와 대좌의 모습은 파악하기 어렵다. 광배는 없으며 얼굴을 비롯한 신체 각부의 마멸이 심해 정확한 원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불상 뒷면에는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 불상 앞에는 넓은 자연석을 두고 불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양구를 올려 놓은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도 마을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머리에는 넓은 육계가 있으며 마모가 심해 상호는 알아보기 어렵고, 목의 삼도도 명확하지 않다. 법의는 양 어깨를 걸치고 내려오는 통견의로, 어깨에서 굵은 주름, 가슴에서 U자형의 옷주름을 형성하고 있다. 오른손은 손바닥을 밖으로 하여 가슴 부근에서 들고 있는 시무외인施無畏印, 왼손은 손바닥을 밖으로 하여 아래로 향하고 있는 여원인與願印의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신체와 대의 표현에 양감이 풍부하며, 시무외인과 여원인 등 고식古式의 손모양을 취하고 있는 점, 마모로 인해 이목구비의 세부는 알아보기 어려우나 볼에 양감이 살아 있고 눈 언저리가 살짝 들어간 표현 등 입체적인 조각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라가 통일한 676년을 전후한 시기 경북 영주 등에서 조성되었던 것과 같은 고식 불상의 계보를 잇고 있다.

1 2
3

1. 목신리 석조여래입상 정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용인 목신리 석조여래입상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목신리 석조여래입상 측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63호

곤지암
昆池岩

미상
1기
대석 360×590cm
소석 200×400cm
석재(화강암)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453-20

지정일 : 1985.06.28
소유자 : 부락공유
관리자 : 부락민

<곤지암>은 경기도 광주시의 '곤지암'이라는 지명유래를 간직한 화강암질의 바위이다. 큰 바위와 작은 바위 두 개가 1m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고, 큰 바위 상부上部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약 400년된 향나무가 자리 잡고 있다.

곤지암이라는 지명이 생기기 전에는 바위모양이 마치 고양이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묘猫바위'라고 불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충주 탄금대에서 왜군에게 패해 순국한 신립장군의 시신을 주변에서 장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바위가 벼락을 맞아 둘로 갈라지고 연못이 생겼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이후 마을 뒷산 끝자락, 연못이 있는 곳에 바위라고 하여 '곤지암崑池岩'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1872년 지방지도나 『중정남한지重訂南漢誌』에는 '곤지암崑池岩'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재는 '곤지암昆池岩'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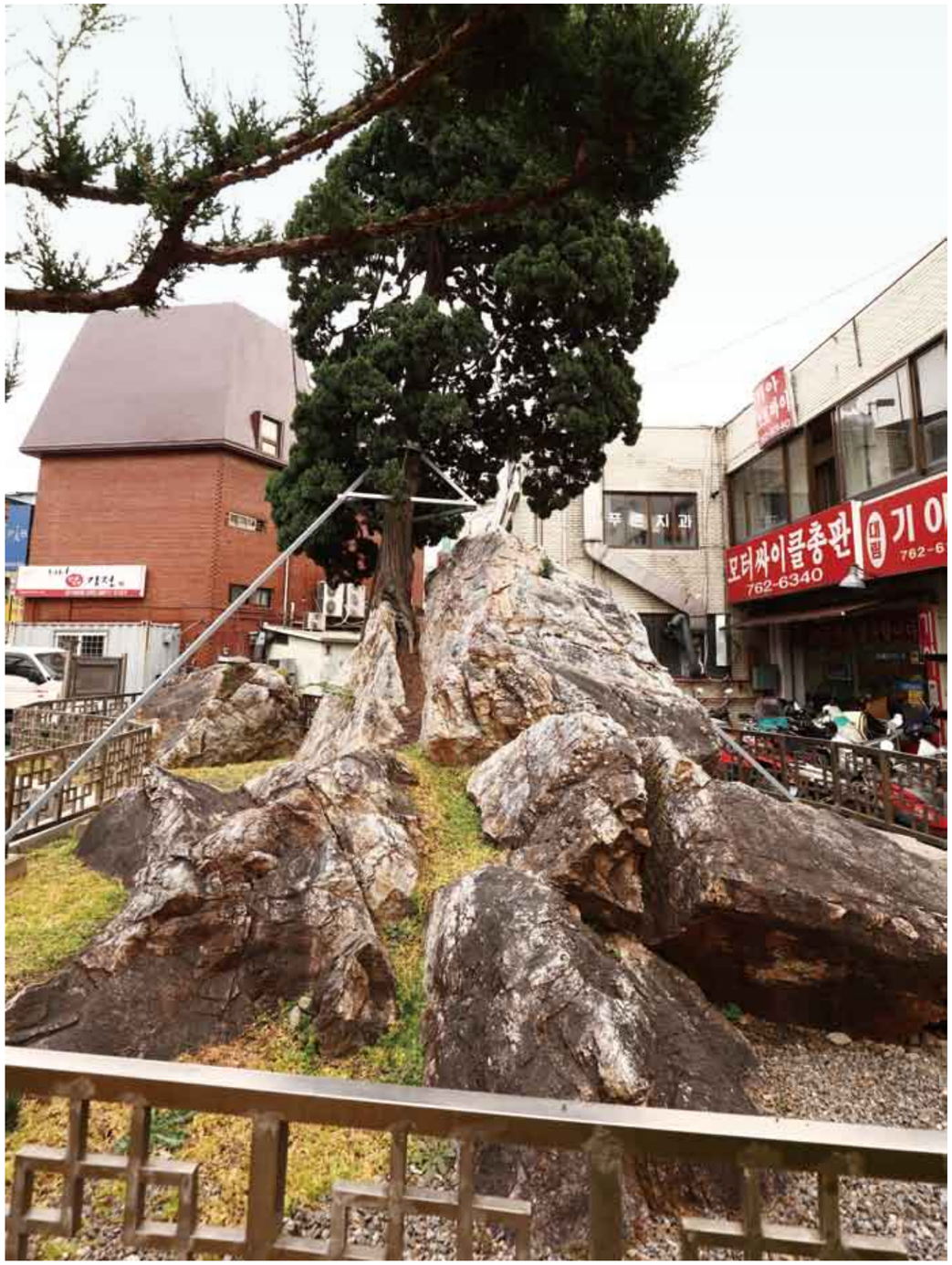
곤지암의 명칭에서 드러나듯 본래 이곳에는 연못이 있었고, 소하천인 노곡천으로 연결돼 곤지암천, 경안천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1970년대 바위주변은 복개되고 초등학교와 주택건물들이 들어서 현재는 원형을 가늠하기 어렵다.

광주시는 2014년 '곤지암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바위와 연못을 복원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

2

1. 곤지암,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곤지암,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64호

원흥리 신라말·고려초기 청자요

元興里 新羅末·高麗初期 青瓷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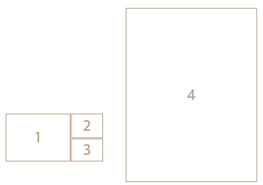
삼국~고려시대
일원
문화재구역 총 3,460㎡, 보호구역 총 2,856㎡
고양시 덕양구 원흥로 418-6, 430-3

지정일 : 1985.06.28
소유자 : 고양시
관리자 : 고양시

<원흥리 신라말·고려초기 청자요>는 건지산의 동쪽 산기슭에 위치하며 1937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근무하던 일본인 노모리 켄(野守建)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가마는 북동-남서방향으로 올라가는 능선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표에서 청자와 갑발편, 축요재인 벽돌 등이 확인된다.

청자는 비교적 고운 태토를 썼고, 유약은 암록색·황갈색을 띠고 있다. 대부분 무늬가 없으며, 굽받침으로는 회백색의 내화토耐火土를 얇게 받쳤는데 포개구운 것도 소량 확인된다. 밖으로 벌어진 대접, 입부분이 말린 발鉢, 조그마한 완盌, 호壺 등이 주로 출토되었다. 특히 굽다리가 높고 밖으로 벌어진 것들과 낮고 널찍한 것, 해무리굽에 가까운 완, 그리고 안바닥에 원각圓覺이 없는 대접류들이 주류를 이룬다. 또한 소성할 때 그릇을 보호하기 위해 썼던 원통형 갑발편과 발형 갑발편, 낮은 접시 모양의 갑발 받침도 많이 보인다.

출토유물의 특성으로 볼 때 원흥동 청자요지는 10세기 후반~11세기 전반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청자를 제작하던 청자요지에는 시흥 방산동, 봉천 원산리, 양주 부곡리, 서산 오사리, 진안 도통리 등이 있고, 백자를 제작하던 백자요지에는 용인 서리, 여주 중암리가 있다.



1. 원흥리 신라말·고려초기 청자요, 1937_ 국립중앙박물관
2. 출토유물(갑발), 1937_ 국립중앙박물관
3. 출토유물(청자소문완), 1937_ 국립중앙박물관
4. 원흥리 신라말·고려초기 청자요,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65호

용인 고안리 분청사기 도요지

龍仁 高安里 粉青砂器 陶窯址

조선시대
일원
문화재구역 총 490㎡, 보호구역 총 1, 039㎡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산53-2

지정일 : 1985.06.28
소유자 : 수원백씨종중
관리자 : 수원백씨종중

<용인 고안리 분청사기요지>는 백암면 지내地內 부락 남측 야산의 남쪽 산록에 위치하며 1975년 경에 처음 발견되었다. 가마터는 남북 방향으로 폭 15m, 길이 30m 정도의 규모로 야트막한 언덕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언덕 위로는 소나무와 참나무 등이 자라 있고, 가마터를 포함하여 주변으로 여러 기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다.
지표에 드러난 가마퇴적에는 많은 양의 분청사기 조각과 가마벽편, 가마 폐기물 등이 확인된다. 분청사기는 암녹색을 띠는 무문과 상감, 인화분청이 많이 보이는데, 발鉢과 대접, 접시 등 일상기종이 많고 제기류製器類, 항아리, 병 등은 소량 출토된다. 발, 대접은 몸통이 풍만하고 측면이 S자형을 이루다가 구연에서 살짝 외반하는데, 전체적으로 당당한 모습을 띤다. 굽받침으로는 태토비짐을 많이 사용했고 모래받침도 드물게 보인다.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상감, 인화 등 상감계열 분청사기만 출토되고 분장계열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데, 1467년(세조13) 광주廣州에 사옹원司饔院 분원分院이 설치되면서 도자제작 양상이 백자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상감과 인화 중심의 용인 고안리 분청사기 도요지는 분원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15세기 중반 무렵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1

1. 용인 고안리 분청사기 도요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출토유물, 2017_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문화재자료 제66호

망월사 천봉당 태흘탑

望月寺 天峰堂 泰屹塔

조선시대(1794년)
1기
250×270cm
석재(화강암)
의정부시 효원동 산91

지정일 : 1985.09.20
소유자 : 망월사
관리자 : 망월사

<망월사 천봉당 태흘탑>은 천봉선사 태흘天峰禪師泰屹(1710~1793)의 사리를 봉안한 묘탑墓塔이다. 망월사는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에 의하면 639년(신라 선덕여왕8) 해호대사海浩大師가 창건했다고 한다.

「조선국천봉대선사탑비명병서朝鮮國天峯大禪師塔碑銘幷叙」에 따르면 태흘의 성은 김씨, 자는 무등無等, 호는 천봉天峰으로 황해도 서흥瑞興 출신이다. 6세에 유덕사有德寺로 출가하여 명탁明琢의 제자가 되었고, 도원道圓으로부터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20세에 우점雨霑에게 불경을 배운 뒤, 여러 선지식을 찾아 공부하였다. 이후 백천의 호국사護國寺에 돌아가 참선, 정진하였으며, 해숙海淑의 법을 받았다. 1793년 84세로 입적했으며, 다비茶毘 때 정골 2편과 사리 64매를 수습했다. 제자들이 백천 호국사와 문화 월정사月精寺, 양주 망월사望月寺에 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하였다. 법맥을 이은 제자로는 환열幻悅·묘일妙一·낭규朗奎 등 10여 명이 있으며, 계율을 받은 승려는 수백 명에 이른다.

천봉당 태흘탑은 팔각원당 형식의 묘탑으로 지대석을 2단으로 쌓은 독특한 구조를 갖추었다. 4매석의 장대석으로 하층 지대석을 구성한 후, 2매의 석재를 맞물려 하층 기단 위에 설치했다. 기단은 팔각형 석재 1매를 사용했는데 상하로 구분된다. 하부는 모서리 부분에 동자주 형식의 기둥을 모각했으며, 면석 중앙에 사각형 액額을 표현했다. 상부는 하면에 1단의 층급을 모각했으며 측면 상하부에 테두리 장식을 표현하였다. 중앙부가 부풀어 오른 상하로 긴 팔각탑신에는 하부에 작은 연판, 상부에 큰 연판을 조각했다. 탑신 중앙부에는 '서산오세손 천봉당태흘탑숭정기원후 삼갑인 모춘하완립西山五世孫 天峰堂泰屹塔崇禎紀元後 三甲寅 暮春下浣立'이라고 탑명을 음각했다. 팔각형 옥개석 하면에는 공포와 물끊기 홈을 표현했으며, 낙수면은 좁고 완만하다. 연꽃을 새긴 보륜 위에 보주를 올린 상륜이 옥개석과 한 돌로 제자됐다. 탑 명문을 통해 1794년(정조18) 건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태흘탑 후면 암벽에는 시주자 명단을 기록했다.

망월사 천봉당 태흘탑,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67호

망월사 천봉선사 탑비

望月寺 天峰禪師 塔碑

조선시대(1797년)
1기
200×76×23cm
석재(화강암)
의정부시 효원동 산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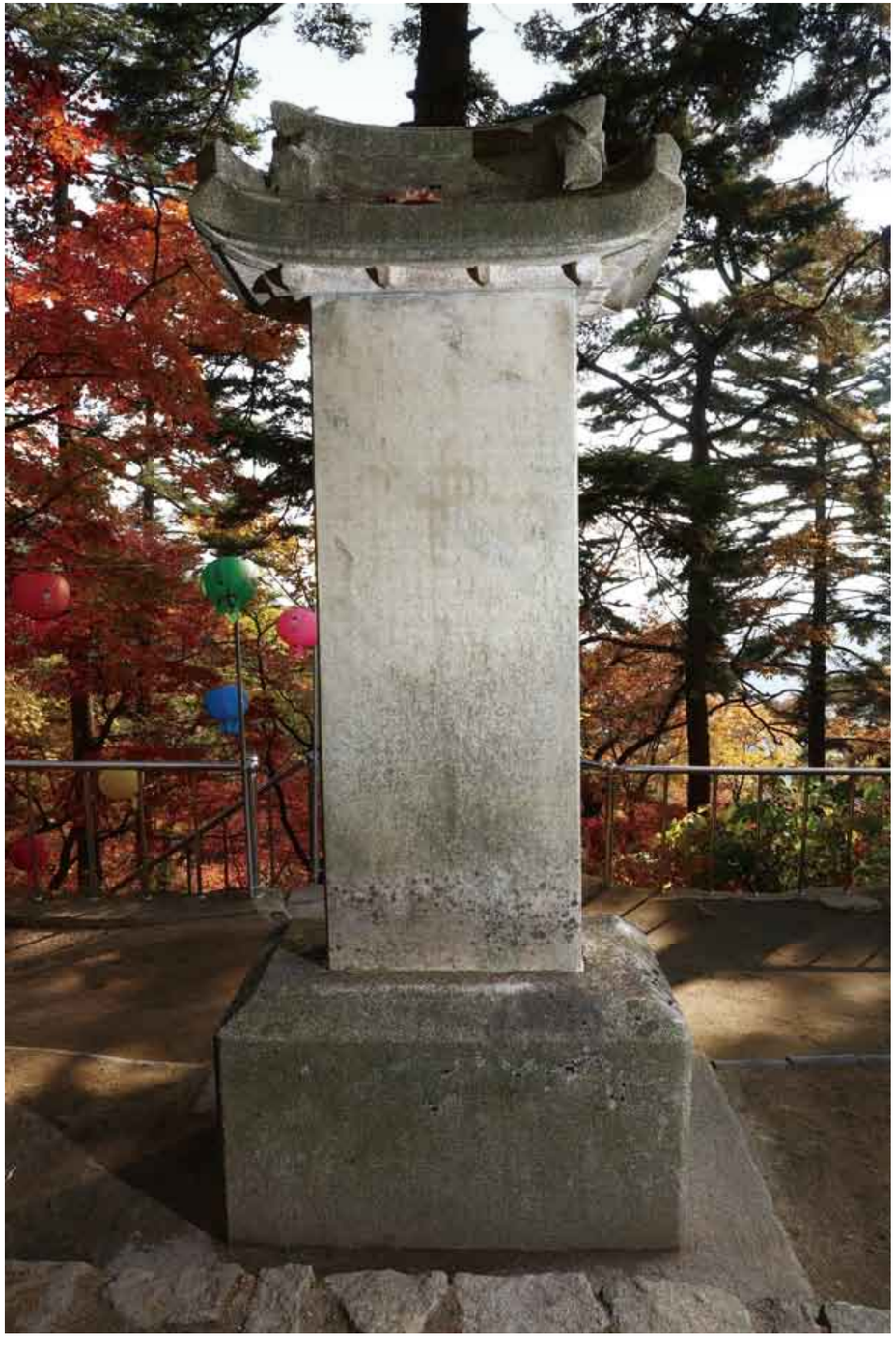
지정일 : 1985.09.20
소유자 : 망월사
관리자 : 망월사

<망월사 천봉선사 탑비>는 조선후기의 승려인 천봉선사 태흘天峰禪師泰屹(1710~1793)의 일대기를 기록한 비로, 의정부시 호원동 망월사 경내 남서쪽에 세워져 있다. 탑비 옆에는 그의 사리를 모신 부도(경기도문화재자료 제66호)가 함께 세워져 있다. 이 비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네모난 받침돌 위에 비신을 세우고 한식기와 팔작지붕을 조각한 지붕돌을 얹은 간단한 모습이다.

태흘 스님의 성은 김씨, 자는 무등無等, 호는 천봉天峯이며, 본관은 서흥瑞興이다. 16세에 유덕사의 명탁名琢에게 나아가 승려가 되었고, 도원道圓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1729년(영조5) 은월 우점隱月雨霑에게 학문을 배운 뒤 선지식을 찾아 여러 곳을 유력하고 만년에 배천白川 호국사로 들어가 좌선하다가 풍계 해숙楓溪海淑의 법을 이었다. 서산대사로부터 5세손이 되는 셈이다. 1793년(정조17) 나이 84세, 법랍 68세로 입적하였다. 화장 후 정골사리 2편과 사리 64과를 수습하여 배천의 호국사, 문화의 월정사, 양주의 망월사에 각각 탑을 세우고 분장하였다. 대표적인 제자로는 환열幻悅·묘일妙一, 낭규朗奎 등 10여 명이 있으며, 계율을 받은 승려는 수백 명에 이른다.

이 비는 태흘의 입적 후 4년이 지난 1797년(정조21)에 건립된 것이다. 수관거사水觀居士 이충익李忠翊(1744~1816)이 비문을 짓고 직접 썼는데 특히 단아한 필체가 돋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충익은 비의 뒷부분에서 태흘을 '내가 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가 80세인데 몸은 단정하고 귀와 입은 크고 눈은 샛별같아 둘러보심에 빛이 났다. 말씀하실 때는 꾸밈이 없고 간곡하시며 또한 복덕지혜를 다 갖추었다'고 평한 바 있다.



1 2

1. 망월사 천봉선사 탑비와 천봉당 태흘탑, 2017
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망월사 천봉선사 탑비, 2017
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68호

용인 맹리 지석묘

龍仁郡 孟里 支石墓

청동기시대
1기
덮개돌 340×310×35cm
석재(화강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352-9

지정일 : 1985.09.20
소유자 : 이범중
관리자 : 용인시

<용인 맹리 지석묘>는 최초 '용인군 맹리 지석묘'로 명칭이 부여되었으나 2016월 11월 8일 경기도문화재 명칭 변경 고시를 통해 '용인 맹리 지석묘'로 변경되었다.
이 지석묘는 1985년 용인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남방식 지석묘이다. 덮개돌은 두 조각으로 깨져 그 사이가 벌어져 있는데, 갈라진 면에 네모꼴의 정자국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일부러 깨뜨린 것으로 추정된다. 덮개돌은 화강암질로서 두꺼운 판석형으로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다. 덮개돌 윗면에는 크고 작은 성혈이 27개가 확인된다. 성형의 크기는 지름 3~17cm, 깊이 1~7cm 정도로 다양하다. 맹리 지석묘의 구조는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덮개돌 주변에는 다수의 석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알려진 바둑판식 지석묘와 달리 탁자식 지석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구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2 3

1. 용인 맹리 지석묘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맹리 지석묘 성혈,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맹리 지석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69호

고양향교

高陽鄕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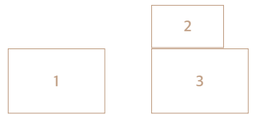
조선시대(1398년 창건)
일곽
대성전 3×2칸
동·서무 3×1칸
명륜당 5×2칸
동·서재 3×1칸
목재
고양시 덕양구 대양로285번길 33-13

지정일 : 1985.09.20
소유자 : 고양시
관리자 : 향교재단, 고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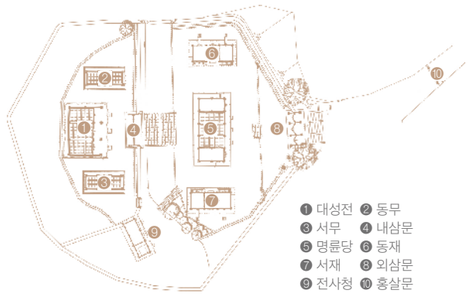
<고양향교>는 1398년(태조7) 벽제읍 대자리에서 창건하였으며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어 3년 후인 1595년(선조28)에 재건하였다. 창건 이후 원래 자리에서 약 300년 간 운영하여 왔으나 1689년(숙종15) 국상을 당하여 왕명으로 향교를 이건 하라는 명을 받아 현 위치로 이건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중 소실되어 1975년 명륜당의 중건을 시작으로 1981년부터 1988년까지 개축 및 신축을 통하여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배향配享은 중국 5성五聖은 대성전에, 송조 2현宋朝二賢과 해동 18현海東十八賢은 동·서무東·西廡에 봉안하였다.

건물배치는 경사지형을 2단으로 조성하여 전학후묘前學後廟형식으로 배치하였다.

대성전大成殿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 규모로 전면 반칸은 전퇴로 개방하였다. 동·서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장대석 기단 위에 세운 건물이다. 명륜당明倫堂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로 1975년 중건한 것을 1988년에 다시 재축한 건물이다. 좌우 퇴칸은 온돌방으로, 중앙 3칸은 대청마루로 마감하는 등 명륜당의 전형적인 당堂, 실室 구분형식을 따르고 있다. 동·서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건물로 방형 막돌로 쌓은 기단 위에 세웠다. 어칸에는 마루를 깔았고 퇴칸에는 온돌방을 놓았다.



1. 고양향교 전사청과 내삼문,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명륜당,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대성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70호

이평리 석불입상

泥坪里 石佛立像

고려시대
1구
162×74cm
석재(화강암)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267-22

지정일 : 1985.09.20
소유자 : 이평리
관리자 : 이천시

<이평리 석불입상>은 광배와 대좌가 결실된 채 마을 옆 야산에 있던 것을 현 위치에 옮겨 복원한 여래입상이다. 신체 볼륨감이 약화된 괴체형怪體型의 화강암 석불로서 하반신이 파손되고 곳곳이 마멸되어 세부 특징을 확인하기 어렵다.

신체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목이 짧은 얼굴로 인해 전체적으로 땅딸막하고 둔중한 느낌을 준다. 얼굴은 마멸되어 이목구비가 불분명하나 낮은 육계의 형태와 긴 귀의 윤곽이 확인된다. 목에는 돋을새김한 삼도三道의 일부가 남아 있다. 신체는 어깨가 위축되고 가슴이 밋밋하여 볼륨감을 찾을 수 없다. 법의는 통견通肩으로 걸쳤으며 양 어깨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쐐기 형태로 모이는 옷주름이 선각되어 있다. 넓게 U꼴로 트인 가슴의 옷깃 사이로 타원형으로 마무리된 내의 자락이 드러나 있다. 오른손은 무릎 아래로 내렸으나 손목 아랫부분이 결실되었으며, 왼손은 허리 부근에서 살짝 구부린 듯하다. 심하게 훼손된 뒷면은 조각되지 않았다. 볼륨감이 약화된 괴체형의 신체 조형성에 비추어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 3
2

1. 이평리 석불입상, 1986_ 이천시
2. 이평리 석불입상 측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이평리 석불입상 정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71호

행주서원지

幸州書院址

조선시대(1842년 창건)
일원
강당 5×2칸
사당 3×2칸
목재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127-17

지정일 : 1985.09.20
소유자 : 문정숙
관리자 : 고양시

<행주서원>은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충장공忠莊公 권율權慄(1537~1599)을 추모하기 위해 1842년(헌종8)에 왕명에 의해 건립되었다. 1841년(헌종7) 헌종이 서삼릉에 거둥하던 중 행주를 지나다가 권율의 공덕을 기리는 사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듬해 대첩지인 산성의 남서쪽에 서원을 건립하여 외삼문에는 '행주서원'이라는 편액을 달고, 사당에는 '기공사紀功祠'라는 편액을 내렸다.

1845년(헌종11)에는 1602년(선조35)에 세운 행주대첩비의 훼손이 심해지자 비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권율의 누락된 행적과 기공사 중창기를 추가한 대첩비를 만들어 기공사 옆에 세웠다. 이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고 존속하였으나,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 행주산성 안에 복원하여 명칭을 '충장사忠莊祠'라 하고 행주대첩비도 충장사 앞으로 옮겼다. 이후 1980년대 경기도와 고양시, 안동권씨종친회를 중심으로 다시 옛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복원작업이 추진되었다. 1988년 강당을 건립, 1997년에 사당을 복원하여 본래대로 '기공사'라 편액하였으며, 1998년 내삼문과 담장, 이듬해 재실을 완공하여 옛 서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매년 권율의 기일인 7월에 향사鄕祠를 지내다가 현재는 4월 15일과 9월 15일에 향사를 올리고 있다.

행주서원지,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73호

이해룡 고가

李海龍 古家

조선시대
1동
안채 4×4칸
사랑채 4×2칸
행랑채 8×1칸
목재
안성시 서운면 청룡길 1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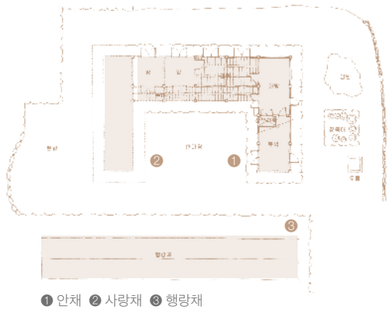
지정일 : 1985.09.20
소유자 : 안성시
관리자 : 이해룡

<이해룡 고가>는 조선후기 양반가의 살림집으로 안채 상량문에 1797년(정조21)에 안채와 사랑채가 건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집의 방향은 남서향으로 서운산 남쪽 계곡의 청룡리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넓은 바깥마당에 면하여 ㅡ자형의 행랑채가 있고, 그 뒤의 안마당을 중심으로 ㅡ자형 사랑채와 ㄱ자형 안채가 연결된 ㄷ자형의 본채가 배치되었다. 사랑채 남쪽에는 중문中門이 나 있어 최근 개축된 행랑채로 연결된다.

사랑채는 4칸 반 규모의 민도리집인데 남쪽에 툇마루가 딸린 2칸 온돌방이 있고 북쪽에는 1칸 반 크기의 대청이 있어 건넌방으로 연결된다. 장대석長臺石 기단위에 높은 초석을 두고 사각형 평기둥을 세웠다. 기둥 위에는 오량五樑의 지붕 가구가 짜 올려졌다.

안채는 1칸 건넌방, 3칸 대청, 2칸 안방이 일렬로 배열되고 안방 앞에서 꺾이어 2칸 부엌이 있다. 건넌방 툇마루는 대청보다 약간 높은데 사랑방으로 통하는 문이 나있고 마루 아래에는 아궁이가 있다. 기단과 지붕 가구는 사랑채와 비슷하나 부엌에서 지붕가구가 삼량三梁인 점이 다르다. 이 집은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남녀가 사용하는 영역이 구분된 독특한 공간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방의 창문은 머름을 댄 띠살창으로 가공이 정교하다. 집 뒤 언덕의 후원에는 자연석이 군데군데 놓이고 약간의 평지를 이루어 자연스런 맛을 남긴다.

이 집의 대들보나 기둥의 처리방식은 1700년대 후반의 전통가옥 양식을 보존하고 있다. 또 솟을대문 자리에 있었던 누마루의 형식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조 상류주택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❶ 안채 ❷ 사랑채 ❸ 행랑채

2
3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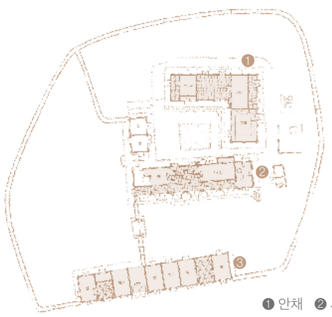
1. 이해룡 고가 행랑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이해룡 고가 전경, 2008_ 안성시
3. 이해룡 고가 사랑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이해룡 고가 안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74호

홍승인 고가
洪承仁 古家

조선시대
1동
안채 총 13칸
사랑채 총 14칸
행랑채 9×2칸
목재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851번길 3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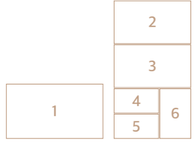
지정일 : 1985.09.20
소유자 : 장상건
관리자 : 장상건



❶ 안채 ❷ 사랑채 ❸ 행랑채

<홍승인 고가>는 경기도 지방 부농 규모의 전통적인 주거 형태를 보여준다. 원래 전주 최씨의 가옥이었으나 남양 홍씨에게 양도되어 '홍승인 고가' 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건축 연대를 밝혀 주는 자료는 없으나, 사랑채는 부재의 치목이나 가구 수법으로 보아 19세기 말경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안채는 그보다 앞선 것으로 보인다.

안채와 사랑채가 모두 ㄱ자형인데 안마당을 중심으로 꺾여 튼 ㅁ자형을 이루며, 사랑채 앞쪽으로 一자형의 행랑채가 있다. 9칸으로 구성된 행랑채의 좌측에서 네 번째 칸에 솟을대문칸을 두었다. 이 문을 들어서면 대문칸 오른쪽에 연이어 담장을 쌓아 행랑마당과 사랑마당을 뚜렷하게 구획하고 가운데에 단칸의 중문을 두었다. 사랑채에서 서쪽으로 꺾인 날개채에는 안마당으로 출입하는 별도의 문을 두었다. 안채는 가운데 2칸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안방, 왼쪽에 건넌방을 두고 안방 앞쪽에 부엌을 두었다. 부엌 뒤쪽은 우물과 장독대 등이 있는데 안방 뒷부분에 쪽마루를 붙여 출입에 편리를 더하고 있다. 기단은 안마당과 면하는 부분을 계단처럼 3중으로 구성하여 단차를 갖는다. 사랑채는 전면 7칸에 전퇴를 둔 일고주오량가一高柱五樑架로 간살 구성이 매우 독특하다. 즉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에 1칸 작은방과 오른쪽에 2칸의 사랑방을 두었는데, 창호를 전퇴칸 바깥쪽에 달아 방 앞쪽에서는 툇마루가 복도처럼 되었다. 조선후기 손님접대와 제례문화가 발달하여 사랑채를 크고 화려하게 지었던 경향을 잘 보여주는 가옥이다. 사랑채는 띠살창의 정교한 가공이 돋보이며 중요부분의 벽체는 회벽으로 장식한 전통한옥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1. 홍승인 고가 전경, 2017
_ 경기문화재연구원
2·3. 안채, 2017
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중문,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사랑채, 2017
_ 경기문화재연구원
6. 사랑채 내부, 2017
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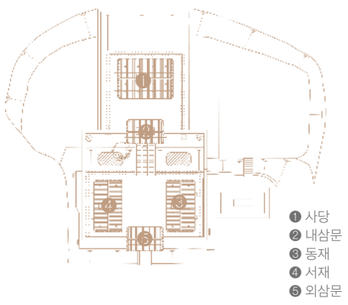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75호

기천서원지

沂川書院址

조선시대
일원
사당 3×2칸
동·서재 3×1칸
목재
여주시 금사면 뒷머리길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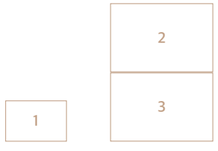
지정일 : 1987.02.12
소유자 : 남양홍씨종친회
관리자 : 남양홍씨종친회



<기천서원>은 1580년(선조13)에 여주목사 박승임朴承任이 유림과 논의하여 중종 대의 문신이자 학자인 김안국金安國(1478~1543)을 추모하기 위해 마생동馬生洞에 마암사원馬巖書院을 세운 데서 비롯되었다.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된 것을 1608년(선조41)에 현 위치에 복원하였고, 1611년(광해군3)에 이언적李彦迪(1491~1553)과 홍인우洪仁祐(1515~1554)를 추가 배향配享하였다. 1625년(인조3) '기천서원'으로 사액을 받았으며, 1661년에 정엽鄭曄(1563~1625), 이원익李元翼(1547~1634), 홍명구洪命耉(1596~1637)가, 1708년(숙종34)에 이식李植(1584~1647)이, 1802년(순조2)에 홍명하洪命夏(1607~1667)가 추배되어 총 8명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1871년(고종8)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훼철되었다가 1937년에 김영진 등 지역 유림 백여 명이 기금을 모아 사우를 중건하고 '모현사慕賢祠'라 하였다. 1979년에는 서예가 김충현의 후원으로 건물을 새로 짓고 기천서원으로 복구, 1987년과 1994년에 부속건물이 중수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서원은 남양홍씨 종친회에서 관리하며, 음력 2월과 8월의 중정일中丁日에 향사鄕祠를 올리고 있다.

제향祭享 인물의 성격은 초기에는 김안국, 이언적, 홍인우, 이원익 등 남인계를 제향하다가 점차 서인계 인물이 추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안국은 기묘사화 이후 여주에서 '범사정泛槎亭'을 지어 후진을 양성하였고, 이원익과 이식은 계축옥사 당시 인목대비仁穆王后의 폐모론에 반대하여 여주로 유배된 이후 은둔하였다. 정엽은 여주목사 재임 시절 선정을 베풀었으나, 계축옥사 이후 벼슬을 버리고 여주로 낙향하였다. 홍명구, 홍명하 형제는 여주 출신으로 홍명구는 병자호란 때 평안도관찰사로 청나라 군사와 싸우다 전사하였고, 홍명하는 현종 대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경내 건물로는 외삼문, 동재와 서재, 내삼문, 사당 등이 있다. 외삼문에는 '입덕入德', 동재에는 '보인輔仁', 서재에는 '권선勸善', 내삼문에는 '경행景行', 사당에는 '기천서원'과 '숭도崇道'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1. 기천서원지 제향, 2017_ 여주시
2. 기천서원지 외삼문,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기천서원지 사당,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76호

안성 도기동 삼층석탑

安城 道基洞 三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540cm
석재(화강암)
안성시 도기동 184

지정일 : 1989.06.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성시

<안성 도기동 삼층석탑>은 안성 읍내가 내려다 보이는 구릉 상면에 조성되어 있다. 단층기단 위에 평면 방형의 오층탑신을 올린 일반형 석탑이다. 수매의 장대석으로 조립된 지대석 오층 위에 양 우주隅柱만이 모각된 단층기단을 놓았다. 기단의 각 면은 우주를 모각한 판석 1매와 아무런 조식이 없는 판석 1매 씩 모두 8매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6매가 남아있다. 갑석은 판상형의 석재로 조성했는데, 상면은 편평하게 치석했고, 하면에는 각형 1단의 부연이 조출되어 있다.

초층 탑신은 우주를 모각한 4매의 석재로 이루어져 있지만, 2층과 3층은 우주가 표현되지 않은 1석으로 조성되었다. 4층 탑신석은 2매의 석재를 상하로 배치한 형태로 조성되었다.

옥개석은 매 층 1매의 판석으로 조성했는데, 2층 옥개석은 안으로 경사를 둔 1단의 옥개받침을 표현했다. 4층 옥개석 위에는 1매의 석재가 올려져 있는데, 크기나 형태로 보아 5층 탑신석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성 도기동 삼층석탑,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77호

문원리사지 석조보살입상

文原里寺址 石造菩薩立像

고려시대
1구
높이 170cm
석재(화강암)
과천시 교육원로 41

지정일 : 1989.06.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보광사

<문원리사지 석조보살입상>의 원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보광사 창건시 3층석탑과 함께 옮겨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밋밋한 돌기둥 같은 신체에 앞면만을 새긴 보살상이다. 머리와 신체는 선각으로 표현하였는데 얕은 선각은 선의 흐름이 불안정하고 새김이 분명하지 않으며 양감은 전혀 표현되지 않았다. 둥근 얼굴에 눈과 가는 눈, 입은 음각으로, 낮은 코는 양각하였는데 전체적으로 편평하다. 선각으로 빈약하게 표현된 짧은 목에는 삼도를 표현하였다. 양쪽 어깨를 모두 덮는 통견通肩의 법의를 걸치고 있으며, 가슴에는 Y자형 옷깃을 표현하고 있다. 양 팔과 신체 전면에도 옷주름이 표현되었으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왼손은 가슴 부근에서 연꽃봉오리를 잡고 있으며 오른손은 왼손을 받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머리에는 후대에 얹은 것으로 보이는 둥근 보개를 쓰고 있다. 이처럼 돌기둥 같은 신체에 머리에는 보개를 쓴 보살상은 고려전기 충청도와 경기남부에서 유행하던 보살상의 양식으로,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이 대표적이다. 둔중해 보이는 이 보살상은 양감 없이 전체적으로 밋밋한 신체에 편평한 얼굴, 좁고 빈약한 어깨, 서툰 옷주름선 등 고려전기 석불 조각 양식을 이어 지극히 도식화된 상양식을 보여 주고 있다. 머리에 씌워진 원형의 보개는 고려시대보다는 조선초기에 유행하는 형식으로, 이 보살상의 보개는 석불보다 늦은 조선초기의 조성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문원리사지 석조보살입상,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78호

수내동 가옥(이택구 가옥)

數內洞 家屋(李宅求 家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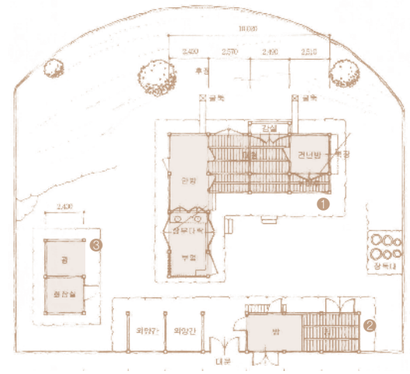
조선시대
일원
안채 총 8칸
문간채 6×1칸
헛간채 2×1칸
목재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0

지정일 : 1989.12.29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성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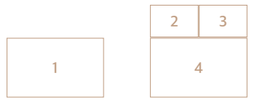
<수내동 가옥(이택구 가옥)>은 한산이씨韓山李氏의 살림집 가운데 하나이다. 원래는 1980년대까지 약 70호 가량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았으며, 그 중에 30여 호 가량이 한산이씨의 집성촌이었다. 현재는 분당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대부분 철거되고 이 집만 남았다. 현재 신도시의 중앙공원 내에 자리잡고 있어 주변의 밀집한 아파트군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집 주위에는 마을 어귀에 있던 큰 느티나무와 연못, 정자터 등이 잘 보존되어 있고, 가옥 옆에는 수령이 오래된 향나무가 있다.

가옥은 3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깥마당에 면한 一자형 문간채 뒤에 ㄱ자형 안채가 안마당을 둘러싸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튼ㅁ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안채의 뒤로는 널찍한 뒷마당이 흙담에 둘러싸여 있다. 안채는 3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1칸의 건넌방이 있고, 왼쪽에 2칸의 안방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으며, 안방 앞쪽으로 꺾이어 각각 1칸의 부엌과 광이 있다. 안방과 건넌방에는 반침半寢이 설치되어 공간의 효용도가 높다.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네모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오량五樑의 지붕 가구를 짜올렸는데, 부재가 비교적 견실하며 치목治木도 반듯하여 19세기 말의 건물로 추정된다.

문간채는 6칸 규모의 우진각 초가인데 중앙에 대문이 위치하였고, 왼쪽에 헛간과 외양간, 오른쪽에는 온돌방이 위치하고 있다. 이 집은 조선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경기 지역 살림집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❶ 안채 ❷ 문간채 ❸ 헛간채



1. 수내동 가옥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안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안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문간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79호

월산대군 사당
月山大君 祠堂

조선시대
일곽
사당 3×2칸
외삼문 3×1칸
목재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27

지정일 : 1989.12.29
소유자 : 전주이씨 월산대군파 종친회
관리자 : 전주이씨 월산대군파 종친회

<월산대군 사당>은 월산대군 이정李婷(1454~1488)의 신위神位를 모신 사당이다. 월산대군은 성종의 친형으로 문장이 뛰어나 중국에까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사당은 월산대군 묘역에서 북쪽으로 230미터 정도 떨어져 위치하며, 삼문三門을 세우고 네모난 담장으로 둘러친 중앙에 사당을 모셨다. 담장은 일반 사당에서는 드물게 장대석長臺石으로 3단을 쌓아 하단을 축조하였으며 삼문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한 곳씩 석조 배수구까지 갖추었다. 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이다. 왕실사묘王室祠廟의 경우 문을 삼중三重으로 하기도 하는데, 문을 하나만 두는 대신 솟을대문 형식으로 위계를 높였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에 툇간을 두고 개방한 것은 제례의 기능을 고려한 것이다. 정면의 중앙 정칸이 크고 좌우 측칸이 그에 비해 매우 좁은 점이 특징이다. 기단은 전후면 모두 장대석 한 단의 외벌대로 하여 높지 않으나, 전면 기둥의 장주초석으로 장중한 외관을 갖는다. 기단 상면 중 측면과 후면은 강회剛灰다짐으로 마감하였으나, 전면 퇴칸 부분은 좁고 긴 박석으로 마감한 점도 특징적이다. 사당 내에는 신주를 운반할 때 사용하던 작은 가마인 요여腰輿가 전해내려져오다가 현재는 고양600년기념전시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사당 지붕에 '강희32년康熙三十二年(1693, 숙종19)'이라 새겨진 망와望瓦가 있어 1693년(숙종19) 이전에 이미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문중 자료 등을 종합하면 현 위치의 사당은 영조의 하명에 의해 1756년(영조32)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당 완공과 신주 이안移安 후 영조는 '석광사錫光祠'라 사액하였다. 이후 1780년(정조4)에 다시 사당이 퇴락하여 수리를 명한 기록이 있고, 1808년(순조8)에는 홍주목사를 역임한 종손 이헌규李憲圭가 다시 중건重建하였으며, 1875년(고종12)에는 12대손 이봉규李鳳圭가 수리하였다.

1
2 3

1. 월산대군 사당 '석광사' 현판,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담장과 배수구,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월산대군 사당,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80호

가운동 지석묘
加雲洞 支石墓

청동기시대
1기
덮개돌 60×330×160cm
석재
남양주시 다산동 281-4

지정일 : 1990.09.0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남양주시

<가운동 지석묘>는 한강에 왕숙천이 합수하는 지점의 동쪽편의 낮은 구릉(80m) 정상부 부근 경사면에 입지한다. 인접한 주변보다는 높은 위치이지만 원거리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지역은 마을주민들이 '괸돌마을'이라 부르는 곳으로 본래는 여러 기의 지석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지석묘 또한 파손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원형은 현재보다 좀 더 큰 규모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덮개돌의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으로 한강이 흐르는 방향과 대체로 일치한다. 덮개돌은 윗면은 편평하며, 측면에는 일부 채석된 흔적이 남아있다. 전체적인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사다리꼴이다.

구조는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경사면 아래쪽에 받침돌 2개를 배치하였으며, 규모는 사람머리 크기 정도이다. 정확한 하부구조는 파악하기 어렵다.

남양주시 광역조사에 의하면 가운동 지석묘 근처에서 화살촉이 수습되었다고 한다. 한편,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攬』에 미금면 가운리 186번지의 지석묘가 소개되어 있으나 현재 정확한 위치나 현상은 파악하기 어렵다.

가운동 지석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8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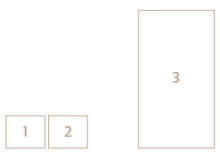
전성부원군 이준선생 영정

全城府院君 李準先生 影幀

조선시대
1폭
160×85cm
비단
양주시 남면 개나리21길 16-8

지정일 : 1990.09.06
소유자 : 전성부원군 종회
관리자 : 전성부원군 종회

이준李準(1545~1624)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평숙平叔, 호는 뇌진자懶眞子·서파西坡, 시호는 숙헌肅憲이다. 1589년(선조22)에 일어난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을 진압하는 공을 세워 평난공신平難功臣 2등에 책록되고 전성군全城君에 봉해졌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운향사運餉使가 되어 명군明軍의 군량미 조달책임을 맡았고, 광해군 때에는 이조판서에 이르렀으나 대북일파에 의한 계축옥사癸丑獄事를 계기로 은퇴하였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이 초상은 이준이 공신으로 책록될 당시 제작된 것으로, 사모를 쓰고 단령을 입고 교의에 앉은 모습의 좌상이다. 광국공신光國功臣·호성공신扈聖功臣·청난공신淸難功臣 등 16세기 후반~17세기에 제작된 대부분의 공신초상들은 사모는 모정帽頂 높이가 낮으며 비교적 짧은 뿔角과 분명한 구름문양을 지니고, 단령은 좁은 목둘레와 큰 흉배, 의복의 너비를 넓히기 위해 옷감조각을 의복의 옆선에 붙인 무가 특징이다. 이준의 초상 역시 17세기 공신 초상의 의복표현 양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다만 바탕에 채전菜氈이 그려지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2품의 직위를 의미하는 쌍학의 흉배와 학정금대鶴頂金帶를 통해 단종 이후 정착된 흉배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얼굴은 같은 시기의 공신초상들처럼 좌안 7분면左顔 7分面을 하고 있다. 선묘를 중심으로 한 17세기 화풍이 잘 남아 있으나, 근래의 수리과정에서 더해진 흔적도 찾을 수 있다. 빛에 오래 노출되어 안료의 색은 많이 잃었지만, 풍성하고 세밀하게 표현된 수염의 묘사 등은 공신책록 당시 40대인 이준의 모습을 잘 담고 있다.
이 초상은 의복구성에서 화법에 이르기까지 조선중기 공신초상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준과 같은 평난공신이지만 다른 양식을 지닌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53호 한응인韓應寅 초상과 함께 다양했던 조선의 초상문화를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1. 전성부원군 이준선생 영정 쌍학흉배,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전성부원군 이준선생 영정 안면부,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전성부원군 이준선생 영정,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82호

하남시 상사창동 연자마

河南市 上司倉洞 硏子磨

1930년대
1기
암맷돌 직경 120cm
숫맷돌 100×43cm
석재(화강암)
하남시 상사창동 346-2

지정일 : 1991.04.12
소유자 : 하남시
관리자 : 하남시

연자마는 소나 말로 돌려 곡식을 찧는 도정搗精기구로, '연자방아', '연자매', '돌매방아'라고도 한다. 방아 틀에 연결된 돌을 소와 말이 끌어 돌림으로써 곡물껍데기를 제거하거나 밀을 빻는 농기구로 농촌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둥글고 판판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옆으로 세워 얹어 아래위가 잘 맞닿도록 하여 돌리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즉 요철凹凸형태의 두 개의 돌에 집어넣은 곡식이 돌아가는 압력에 눌려 으깨지는 원리이다.

밑돌은 '알돌' 혹은 '알착', '바닥돌'이라고 하며 그 위에서 굴리는 돌을 '웃돌', '웃착', '방엣돌', '맷돌'이라고 일컫는다. 또는 받침돌은 '암돌', 굴리는 돌을 '숫돌'이라고도 한다.

<하남시 상사창동 연자마>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원형의 숫돌과 받침돌인 암돌로 구성되어 있다. 숫돌은 중심에 구멍이 뚫려 있고 이곳에 나무로 만든 사각형 방아 틀이 부착되어 있다. 이 부분을 멍에에 고정시키면 소나 말이 이 나무틀을 끌어 돌리면서 방아를 찧는다. 곡식을 빻을 때는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에 참여한다. 이는 연자방아를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곡식을 빻는 작업의 특성상 한 사람은 소나 말의 고삐를 잡아 앞에서 몰고, 다른 사람이 그를 따르며 넉가래로 곡식을 뒤집어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방앗간은 원래 여덟 개의 기둥에 볏짚으로 지붕을 한 팔각형의 정자형 건물이었으나 현재는 새로 보수해 놓은 모습이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거의 원형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제작연대는 1930년대로 짐작된다. 연자마는 곡식을 찧고 빻는 일 외에도 마을공동체 간의 서로 돕는 강력한 협동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한 농기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2

1. 하남시 상사창동 연자마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상사창동 연자마, 촬영일미상_ 하남시

경기도문화재자료 제83호

파주향교 대성전

坡州鄕校 大成殿

조선시대
일곽
대성전 3×2칸
목재
파주시 파주읍 향교말길 56-83

지정일 : 1992.06.05
소유자 : 향교재단
관리자 : 향교재단

파주향교의 연혁에 대하여는 관련 기록이 남은 것이 없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3가지 설이 구전해 온다. 첫째, 1398년(태조7)에 서원산瑞原山 아래에 창건하였고 그 후 1414년(태종14)에 현 위치로 이건하였다고 한다. 둘째, 1304년(고려 충렬왕30) 봉서산鳳棲山 아래에 건립하여 대성당大成堂이라 불리던 것을 세종 재위 시(1418~1450)에 중건하고 대성전이라 개칭하였다고 전하나 확실치 않다. 셋째, 1456년(세조2)에 창건하고 1660년(현종원)에 사액을 받아 돈암서원遯巖書院이라 하였고 1880년(고종17)에 수해로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고도 한다.

파주향교는 전체적으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대성전과 명륜당明倫堂의 건물배치는 종축선상縱軸線上에 이 배치되어 있으며, 강학 영역과 제향 영역은 다른 향교와 마찬가지로 내삼문을 경계로 담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전면에 반 칸의 퇴를 부가한 형식의 건물이다. 건물은 막돌로 만든 기단 위에 세웠는데 원래 건물은 한국전쟁 중 불타버리고 1971년도에 세운 건물이다.

배향配享은 공자孔子를 포함한 5성五聖, 송조 6현宋朝六賢, 해동 18현海東十八賢을 봉안하고 있다.

1
2

1. 대성전 내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파주향교 대성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84호

청주한씨 문정공파 묘역 신도비

淸州韓氏 文靖公派 墓域 神道碑

조선시대
일원
단분 3기, 묘갈 1기, 신도비 2기
한계희 신도비 높이 250cm
한사문 신도비 높이 231cm
한사개 묘갈 높이 211cm
석재(화강암)
성남시 분당구 율동 산2-1

지정일 : 1994.04.20
소유자 : 청주한씨 문정공파 종중
관리자 : 청주한씨 문정공파 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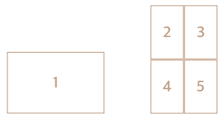
<청주한씨 문정공파 묘역 신도비>는 문정공 한계희文靖公韓繼禧(1423~1482)와 그의 아들 한사문韓斯文(1446~1507), 한사개韓士介(1453~1521)의 신도비神道碑 2기와 묘갈墓碣 1기이다.

한계희는 조선 초 기내훈구파畿內勳舊派에 속하는 유학자로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우승지·좌승지·공조참판·이조참판·이조판서·좌찬성을 역임하였고 특히 세조의 신임을 받았다. 최항 등과 함께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1477년(성종8) 『의방유취醫方類聚』 간행을 주관하였다. 그는 아들 여섯을 두었는데, 그 중 한사문은 대사헌·병조참판·공조참판·공조판서·함경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고, 아버지의 봉작을 물려받아 서천군西川君에 봉해졌다. 또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분의정국공신奮義靖國功臣 4등에 책록되었다. 한사개는 영흥부사와 해주·광주·진주 등의 목사牧使를 역임하였다.

한계희 신도비의 건립 연대는 1483년(성종14)으로 비문은 서거정徐居正(1420~1488)이 찬撰하고, 안침安琛(1445~1515)이 글씨를 썼다. 신도비는 조선 초의 전형적 양식인 연수방부蓮首方趺의 형태이다. 연수蓮首와 비신碑身은 하나의 화강편마암으로 되어 있다.

한사문 신도비의 건립 연대는 1508년(중종3)이며, 신용개申用漑(1463~1519)가 찬撰하고, 글씨와 전액篆額을 쓴 사람은 동일인으로 '윤尹'씨 성만 판독되고 이름은 판독되지 않는다. 연수방부의 형태로 방부의 하부 전·후면에는 각각 구획을 나누고 그 안에는 안상문眼象文을, 상부에는 연당초문을 조각하였다.

한사개 묘갈의 건립 연대는 1564년(명종19)으로 비문으로 김안로金安老(1481~1537)가 찬撰하였다. 비신의 전액篆額에 '영흥부사한공묘갈명永興府使韓公墓碣銘'이라 밝힘으로써 신도비가 아닌 묘갈임을 알 수 있다. 신도비는 종이품從二品 이상의 현직現職과 증직贈職, 그리고 종이품 이상의 관직官職과 품계品階를 갖추어야 세울 수 있다. 묘갈은 운수방부雲首方趺의 형태로, 운수의 전면에는 운문雲紋과 해가 조각되어 있고, 후면에는 운문과 상단 중앙부에는 초승달이 조각되어 있는데, 묘갈에 해와 달이 조각된 경우는 드물다.



1. 청주한씨 문정공파 묘역,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한계희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한사문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한사개 묘갈 정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한사개 묘갈 측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85호

정창손 묘역 석물

鄭昌孫 墓域 石物

조선시대
7점
묘비 2기, 문인석 2쌍, 신도비 1기
석재(화강암)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산37-1

지정일 : 1994.04.20
소유자 : 동래정씨 충정공파 종중회
관리자 : 동래정씨 충정공파 종중회

1. 정창손 묘역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하단 문인석(우),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하단 문인석(좌),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상단 문인석(좌),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상단 문인석(우),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좌익공신 정창손鄭昌孫(1420~1487)의 묘이다. 정찬손은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효중孝仲이다. 1449년 부제학으로 춘추관 편수관과 수사관修史官을 겸직하면서 『고려사高麗史』, 『세종실록世宗實錄』, 『치평요람治平要覽』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451년(문종1) 대사헌이 되었고 1455년(세조1) 우찬성으로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과 판이조사를 겸했으며, 좌익공신佐翼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이듬해 사위 김질金礩이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과 함께 단종 복위를 모의했는데, 사위 질이 이 사실을 자신에게 폭로함에 세조에게 고변하였다. 이 공으로 2등 수충경절좌익공신輸忠勁節佐翼功臣이 되었고, 우의정에 올랐다. 그는 이러한 처사로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金時習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세조로부터는 신임을 얻어 1457년 좌의정이 되었고, 이후 영의정이 되었다. 1504년(연산군10) 갑자사화 때에 연산군의 생모를 폐출하는 논의에 참여한 죄로 윤필상尹弼尙·한치형韓致亨·한명회韓明澮 등과 함께 십이간十二奸으로 몰려 부관참시剖棺斬屍되었다. 그러나 1506년(중종1)에 신원되었고, 부관참시 때 철거한 석물을 다시 세우고 예로써 개장改葬하였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따라서 정창손의 묘역은 처음 광주 방제동에 있었는데 그가 죽은 후 1504년(연산군10) 폐비 윤씨사건에 연루되어 묘지와 신도비·석물 등이 모두 파손되었다. 이후 1506년(중종1) 죄가 풀려 묘역을 개장하고 석물을 다시 세웠으며 신도비는 1623년(인조원)에 새로 건립하였다. 한편 신도비문에 의하면 부인은 공보다 먼저 사망하고, 공의 묘소와 거리가 100여보 떨어져 있었다고 하나, 1970년 도시계획으로 이장하면서 현재의 자리에 합장하였다.

정창손의 묘는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향목마을 동래정씨 묘역에 남서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묘제와 석물은 현대에 다시 조성하였으며 옛 석물을 일부 이전하였다. 봉분은 군부인 정경부인 청주정씨淸州鄭氏와 합장 단분이며, 봉분의 동쪽에 옛 묘표 2기가 있다. 묘역 아래 입구에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의 비문은 원래 1488년(성종19)에 서거정徐居正이 찬하고, 김수동金壽童이 서書와 전篆을 하였으나 1504년 파손되었다. 그 후 외손 이원익李元翼(1547~1634) 등이 주선하여 1623년에 다시 건립한 것이다. 비문은 한준겸韓浚謙(1557~1627)이 서거정의 비문에 추서 찬술하고, 심열沈悅(1569~1646)이 썼다. 형태는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이고, 대석에는 안상문을 조각하였으나 마모가 매우 심하다.

묘표는 2기가 있는데, 1기는 정창손의 묘표이고 1기는 정경부인 청주정씨의 묘표이다. 그중 청주정씨의 묘표는 하엽방부형荷葉方趺形이다. 건립연대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비제는 「봉원부원군배청풍군부인정씨지묘蓬原府院君配淸風郡夫人鄭氏之墓」이다. 15세기 후반에 제작된 전형적인 묘표로 연엽의 조각이 깊고 명확하다.

정창손의 묘표는 원수방부형이다. 비제는 「영의정봉원부원군증시충정정공지묘領議政蓬原府院君 贈諡忠貞公之墓」이고, 건립연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대석의 윗면에는 연판문을, 앞뒷면에는 안상문을 조각한 전형적인 15세기말~16세기초의 묘표이다.

문인석은 총 4기를 배치하였다. 형태는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이다. 두 손을 드러낸 채 홀을 쥐고 있는 형상이고, 구성요소가 하단의 문인석보다 또렷하다. 이목구비의 윤곽선이 더 깊고, 직선형의 의습선도 명확하나 전체적으로 평면적이고 기둥형의 신체를 보이고 있다. 두 손은 소매에 가리운 채 홀을 쥐고 있으며, 구성요소가 상단의 문인석보다 명확하지 않다. 의습선의 깊이가 매우 얕고 마모가 심하여 상단의 문인석보다 더 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조선전기 묘역의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묘표·신도비·문인석 외의 다른 석물들은 현대에 새로 추가한 것이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86호

남한산 법화사지 및 부도

南漢山 法華寺址 및 浮屠

조선시대
일원
법화사지 8,670㎡
부도1 93×72cm
부도2 161×84cm
부도3 135×90cm
하남시 상사창동 산97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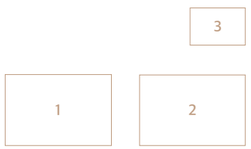
지정일 : 1994.07.02
소유자 : 국유 및 사유
관리자 : 하남시

법화사지는 남한산성 북문 근처의 법화골 벌봉 아래에 위치한다. 법화사에 대해서는 기록이 충분치 않아 창건이나 폐사 등 자세한 연내력은 알 수 없다. 병자호란 때 '법화장군'이라 불렸던 청 태종의 매부 양고리楊古利 장군이 조선의 원두표元斗杓(1593~1664) 장군에 의해 이곳에서 전사하였는데, 훗날 청 태종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절을 짓고 이름을 '법화사'라 하였다.

법화사지는 총석정이라 불리는 병풍처럼 큰 바위로 둘러싸인 평평한 대지에 자리하고 있다. 사역은 크게 법당지로 추정되는 상단 영역과 부도군이 위치한 하단 영역으로 구분된다.

법화사지는 2010~2011년 발굴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조사결과 고려전기 문화층, 조선전기 유구 2기, 조선후기 문화층, 근현대 건물지 2동, 현대 축대 2기 등이 확인되었다. 노출되어 있는 건물지와 축대는 근·현대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고, 그 아래에서 조선후기 문화층과 건물지로 추정되는 조선전기 유구, 고려전기 문화층이 차례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제작된 기와류와 자기류가 고루 출토되었고, 근대 기의 자기류도 소량 수습되었다.

이를 통해 법화사지는 일정부분 단절된 시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려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건립·증축·개축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법등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1. 법화사지 전경, 2011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법화사지 발굴조사, 2011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법화사지 부도, 2011_ 경기문화재연구원

한편 아래쪽의 사역에는 3기의 부도(승탑)가 있는데, 전형적인 조선후기 종형 부도이다. 3기 중 2기에는 각각 '○○堂慧道之塔(○○당혜도지탑)', '平源堂善伯大師(평원당선백대사)'라는 명문이 있어 주인공을 알 수 있으나 나머지 1기는 명문이 없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가운데 평원당탑 대좌에는 '梅雪堂(매설당)'이라는 명문이 있어 제 짝이 아니고 부재가 혼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88호

연산군시대 금표비

燕山君時代 禁標碑

조선시대(1504년)
1기
138×54×22.5cm
석재(화강암)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10-1

지정일 : 1995.08.07
소유자 : 고양시
관리자 : 고양시

<연산군시대 금표비>는 연산군이 자신의 유흥지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성종의 손자인 금천군의 묘역에 묻혀있다가 1990년 금천군의 후손들이 묘역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출토되어 현위치에 세워졌다.

금표구역은 지금의 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남양주시·광주시·구리시·김포시 등으로 추정되는데, 연산군의 폭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504년(연산군10) 연산군의 유흥지가 되었다가 1506년(연산군12)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다시 고양군으로 복귀되었으므로, 이 금표비는 연산군 때 유흥지를 만들면서 세워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비면에는 '금표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왕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겠다(禁標內犯入者 論棄毁制書律處斬)'라고 새겨져 있다.

연산군시대 금표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89호

양주 옥정리 선돌

楊州 玉井里 선돌

청동기시대
2기
1호선돌 300×55×45cm
2호선돌 315×50×40cm
석재(화강암)
양주시 옥정동 627-1, 산94-1

지정일 : 1995.08.07
소유자 : 양주시
관리자 : 양주시

<양주 옥정리 선돌>은 '왕가물골'이라고 불리는 작은 구릉의 양쪽 끝 부분에 위치한다. 약 200m의 거리를 두고 동·서 양쪽으로 1기씩 서 있다. 선돌이 있는 곳은 해발 80m쯤 되는 마을의 입구로 주변 어디에서나 훤히 보이는 조망이 좋은 지역이다. 선돌 옆으로는 작은 물줄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강화천의 샛강인 청담천에 합류한다.

1호 선돌은 마을의 동쪽에 위치하고, 전체적인 모습은 윗부분이 뾰족한 석주형이며, 가장자리에는 날카로운 연모(철기로 추정)를 가지고 손질한 것 같은 흔적이 뚜렷하다.

2호는 서쪽에 자리하며 재질은 1호와 같은 화강암이다. 1호와 비슷한 형태이며, 4면에 쐐기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옥정리 선돌은 마을 입구에 있어 마을을 지키는 수호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짐작되며 마을을 감싸고 있는 얕은 구릉 끝에 있는 점에서 풍수지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기의 선돌 모두 끝 부분이 뾰족한 점이 특이하다.

1 2

1. 양주 옥정리 1호 선돌,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양주 옥정리 2호 선돌,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0호

오리 이원익 종택 및 관감당

悟里 李元翼 宗宅 및 觀感堂

조선시대
2동
종택 문간채 13칸, 안채 14칸
관감당 5×2칸
목재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6

지정일 : 1996.12.24
소유자 : 충현박물관
관리자 : 충현박물관

<오리 이원익 종택 및 관감당>은 선조~인조 대 영의정을 지내고 청백리淸白吏로 이름 높던 오리 이원익梧里李元翼(1547~1634) 선생의 종손宗孫이 살던 집이다. 1630년(인조8)에 2칸 초가인 선생의 집에서 비가 새므로 왕이 새 집을 하사하였는데 모든 신민臣民이 이원익의 청렴하고 간결한 생활 자세를 '보고 느끼게 하고자 한다'는 뜻에서 관감정觀感亭이라 하였고, 선생은 이곳에서 4년 간 기거하다가 서거하였다고 한다. 사후에는 집터에 사당을 건립하여 1676년(숙종2)에는 '충현서원忠賢書院'으로 사액되었는데 후에 서원이 훼철되었다.
1916년에는 후손들이 옛 집터 위에 건물을 중건하여 관감당이라 하였는데 경관이 잘 보이도록 경사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를 구축하였다. 종택은 충현서원 내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안채는 1917년에, 문간채는 1940년 경에 건립되었다. ㄱ자형 안채와 ㄱ자형 문간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튼ㅁ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ㅡ자형 사랑채인 관감당이 그 옆에 따로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1. 관감당,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오리 이원익 종택 문간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오리 이원익 종택 안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안채는 13칸 반 규모의 소로수장小爐修粧집인데, 2칸 건넌방·3칸 대청·2칸 안방이 일렬로 배열되고 안방 앞쪽에서 꺾이어 3칸 부엌과 1칸 반의 온돌방이 있다. 지붕 가구와 기둥 이음, 부엌의 봉창과 다락의 완자창 등은 세련된 목수의 솜씨를 보이고 있다. 문간채는 13칸 규모인데 대문간 좌우에 온돌방과 부엌, 광이 있다. 관감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ㅡ자형으로 일반적인 상류 주택의 사랑채와 달리 중앙에 대청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배치하고 뒤쪽 칸에는 벽장, 고방을 둔 것이 특징이다.
관감당은 인조가 하사한 유서있는 집으로 소유자의 편의에 따라 현대식으로 고쳐진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20세기에 건립된 경기 지역 살림집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1호

공안공 정옥형·충정공 정응두 신도비

恭安公 丁玉亨·忠靖公 丁應斗 神道碑

조선시대
2기
정옥형 신도비 전체높이 235cm, 비신 197×82×21cm
정응두 신도비 전체높이 321cm, 비신 234×94×42cm
석재(화강암)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524-7 외

지정일 : 1996.12.24
소유자 : 나주정씨 월간공파 종회
관리자 : 나주정씨 월간공파 종회

<공안공 정옥형·충정공 정응두 신도비>는 조선전기의 문신인 정옥형과 그의 아들 정응두의 공적을 기리는 2기의 비이다. 정옥형丁玉亨(1486~1549)은 자字는 가중嘉仲, 호號는 월봉月峯으로 1513년(중종8)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검열을 거쳐 대사간 대사헌을 지냈다. 당시 김안로의 권세가 심해지자 조정을 떠나 외지를 돌기도 하였으나 1544년(중종39)에는 병조판서로 복귀하였다. 명종이 즉위한 후에는 소윤파에 가담하여 대윤파를 제거하는데 공을 세워 3등공신이 되었고, 좌찬성에까지 오른 후 생을 마쳤다. 그 후 '공안'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법령 조목의 전후 모순을 조절한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을 저술하였다. 정응두丁應斗(1508~1572)는 정옥형의 아들로 자字는 추경樞卿이고, 1521년(중종16)에 진사가 되고, 1534년(중종29)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선공감직장이 되었다. 그 후 이조좌랑 좌부승지 병조판서 등의 여러 관직을 거쳐 1566년(명종21)에는 판중추부사에까지 올랐는데 사후에는 '충정'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정옥형 신도비와 정응두 신도비는 모두 같은 양식으로 높은 사각받침돌 위로 비 몸을 세우고 지붕돌을 올린 모습이다. 정옥형의 신도비는 대석臺石과 비신碑身, 기왓골모양의 개석蓋石으로 이루어졌는데 석질이 사질화강암으로 물러서 마모가 심하다. 1584년(선조17)에 세워진 이 신도비의 비문은 홍섬洪暹(1504~1585)이 짓고 한호韓濩(1543~1605)가 썼으며 남응운南應雲(1509~1587)이 두전頭篆을 했다. 정응두의 신도비 또한 대석 비신 개석의 형식으로 1728년(영조4)에 세워졌다. 이 비의 비문은 남구만南九萬(1629~1711)이 짓고 썼으며, 최석정崔錫鼎(1646~1715)이 두전을 했다. 한호 남응운, 남구만, 최석정 등 조선 중·후기를 대표하는 명필들이 비문碑文과 두전頭篆을 쓴 만큼 이 2기의 신도비는 조선서예사 연구에도 중요한 사료가 된다. 본래 공안공 정옥형·충정공 정응두 신도비는 고양시 행신동에 세워졌으나 1988년 10월 도시계획으로 인해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1 2

1. 공안공 정옥형·충정공 정응두 신도비각,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공안공 정옥형·충정공 정응두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2호

문간공 김세필 묘역 일원

文簡公 金世弼 墓域一圓

조선시대
일원
단분 2기, 묘비 2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장명등 1기, 문인석 1쌍, 석양 1쌍, 망주석 1쌍, 계체석, 신도비 1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3

지정일 : 1999.04.26
소유자 : 경주김씨 종회
관리자 : 경주김씨 종회

<문간공 김세필 묘역>은 기묘명현己卯名賢인 십청헌 김세필十淸軒 金世弼(1473~1533) 일가의 묘산이다. 김세필은 조선초기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뜻에 따라 자결한 상촌 김자수桑村金自粹의 고손高孫이다. 자는 공석公碩, 호는 십청헌十淸軒이다.

김세필은 정암 조광조靜菴趙光祖, 음애 이자陰崖李耔 등과 기묘사화(1519, 중종14)에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김세필은 음죽陰竹으로 귀양을 갔다가 1522년(중종17) 풀려나지만 충주 지비천知非川에서 은거해 살며 지비옹知非翁이라 자호自號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이 묘역은 최상단에 김세필의 모부인母夫人 진천송씨鎭川宋氏(1435~1517)의 묘를 시작으로 김세필 묘, 그 아래로 김세필의 3남이며 을사사화乙巳士禍에 피해를 입은 김저金磵(1512~1547) 묘 등 후손들의 묘소가 조영되어 있다. 이 묘역은 묘표, 망주석 등 일부 석물을 제외하고 전체 형태나 석물들이 현대에 개비改備되어 원 모습이 거의 사라졌다.

김세필 신도비는 옥개방부屋蓋方趺 형태로 우암 송시열尤庵宋時烈(1607~1689)이 비문을 짓고, 김도희金道喜(1783~1860)가 글씨를 썼으며, 1858년(철종9)에 건립되었다. 진천송씨 묘표는 1534년(중종29), 김저 묘표는 1857년(철종8)에 건립한 것이다.

1 2 3

1. 김세필묘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김세필 묘역 일원,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김세필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3호

서계 박세당 사랑채

西溪 朴世堂 舍廊房

조선시대
1동
사랑채 5×3칸
목재
의정부시 동일로128번길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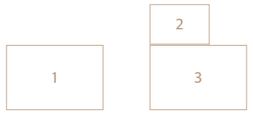
지정일 : 2000.04.17
소유자 : 서계문화재단
관리자 : 서계문화재단

<서계 박세당 사랑채>는 조선후기의 실학자 서계 박세당西溪 朴世堂(1629~1703) 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나 후학을 양성하고 저술 활동을 하던 곳에, 후손들이 건립한 집으로 알려져 있다. 선생은 1660년(현종1)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자리에 올랐으나 40세에 관직을 그만두고 이곳에서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힘썼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체험한 것을 토대로 그의 대표적인 농학서 『색경穡經』을 저술했다.

이 가옥은 본래 안채와 안사랑, 바깥사랑, 행랑채를 갖춘 규모 있는 사대부 주택이었으나, 한국전쟁 때 대부분 소실되고 현재는 바깥 사랑채만 남아 있다. 사랑채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로 남측에 누마루가 덧붙여진 형태다. 사랑방은 2칸 규모에 뒤쪽으로 반 칸씩 덧달아 후원으로 출입토록 하였고, 좌측으로는 반 칸 규모의 다락으로 오르는 문을 내고 그 아래 아궁이를 두었다. 이 사랑방의 남동쪽에는 1칸 온돌방, 반칸 마루방, 1칸 누마루를 설치하였는데 이곳에서 주로 손님접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누마루는 바닥면이 약 1자 반가량 높고 삼면으로 세살분합이 설치되어 있어 창호를 모두 열면 수락산과 주변 계류를 조망할 수 있다.

장대석 외벌대 기단에 방형으로 다듬은 초석을 놓고 사각기둥을 세우고 상부 가구는 5량으로 꾸몄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민도리집으로 단순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가구의 틀을 이루고 있다.

현재 이 집은 집 앞 어귀에 서 있는 은행나무와 계류를 따라 세워진 정자, 그리고 학당터 및 그 뒤의 영당과 묘택 등과 함께 일괄을 이루고 있다. 사랑채의 남측으로 약 10m 정도 떨어져 수락산에서 내려오는 계류가 있는데, 계류주변에는 궤산정簣山亭, 청풍정淸風亭 등 서계 당시의 정자와 서당터가 남아 있어 조선시대 은거 선비의 사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1. 서계 박세당 사랑채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사랑채 세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사랑채 측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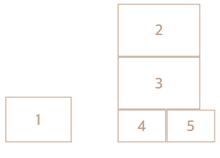
안산 청문당

安山 淸聞堂

조선시대
일곽
안채 총 8칸
사랑채 총 5칸
사당 3×1칸
아래채 4x1칸
목재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77

지정일 : 2000.03.24
소유자 : 안산시
관리자 : 안산시

❶ 사당 ❷ 안채 ❸ 아랫채 ❹ 사랑채



1. 안산 청문당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안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사랑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사당,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아랫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안산 청문당>은 진주유씨 성산공파의 대종가로 진주유씨 16세손 유시회柳時會(1562~1635)가 처음 건립하였다고 전해진다. 그의 조카 유적柳頔이 선조의 부마가 된 후 진주유씨는 넓은 사패지와 안산 바닷가의 어염권을 기반으로 이곳에 살면서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고, 조선중기에는 기호남인畿湖南人 3대가의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특히, 청문당의 만권루萬卷樓는 조선 4대 서고의 하나로 기호남인들의 학문적인 기반과 실학의 산실이 되었다.

이 가옥의 건립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안채의 대들보와 종보가 좁은 간격으로 붙어 있듯이 결구된 점, 마루와 안방의 기둥 열이 반 칸 어긋난 점, 대청 분합문 위에 교살 채광창이 설치된 점을 미루어 볼 때 19세기 이후에 중건되었으며, 사랑채는 그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문당은 앞마당에 면하여 ㄷ자형 사랑채가 우뚝 서 있고 그 뒤로 ㄱ자형 안채와 ㅡ자형 아랫채가 안마당을 둘러싸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트인 ㅁ자형식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안채 동북쪽에는 사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뒤뜰에는 화계花階가 조성되어 있다. 집 앞에는 오래된 연지가 있는데 연지 동쪽에 바깥사랑채에 해당되는 연당蓮堂과 그 서쪽에 현정玄亭이 있었으며 북쪽에는 우물과 느티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안채는 6칸 대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툇마루가 있는 1칸 반 건넌방, 왼쪽에 2칸 안방이 배열되어 있고 안방 앞쪽으로 부엌이 위치한다. 사랑채는 대문간 왼쪽으로 광, 온돌방이 있고 오른쪽에 2칸 사랑방과 서고가 배열되어 있으며 사랑방 전면에는 툇마루를 두었다. 두 건물 모두 가구는 전퇴 5량 형식이고 지붕은 팔작 형식이다. 사당은 3칸 규모인데 3량가樑家에 맞배지붕의 단순한 건물이지만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랑채와 안채가 트인 ㅁ자 형식으로 배치되어 안마당에서 외부로 직접 연결되는 중문이 있는 점은 경기지역의 민가에서 흔히 보여지는 방식이나, 안채와 사랑채, 사당의 치석 및 치목, 용재와 결구법 등은 사대부가의 예를 따르고 있어 보기 드문 절충된 구성을 갖고 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5호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軍浦 東來鄭氏 東來君派 宗宅

조선시대
일곽
안채 총 16칸
큰 사랑채 5x3칸
작은 사랑채 3x2칸
사당 1x1칸
문간채 9x1칸
마방채 6x1칸
목재
군포시 속달로110번길 20-11

지정일 : 2000.04.11
소유자 : 문화유산국민신탁
관리자 : 정준수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은 동래정씨 동래부원군의 종택으로 유교적 공간질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실제적인 쓰임새를 중시하는 조선후기 살림집의 시대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입향조入鄕祖는 대제학·판중추부사 등을 역임한 정사룡鄭士龍(1491~1570)으로 전하는데 그는 동래군東萊君 정난종鄭蘭宗(1433~1489)의 손자이다. 본 가옥의 맞은편 산 중턱에 파시조派始祖인 정난종선생의 묘가 있어 이로 인해 입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안채와 사랑채, 작은 사랑채, 행랑채 등 4동이나 원래는 사랑마당 바깥쪽으로 행랑, 작은 사랑채 뒤에 초당, 안채 뒤에 사당, 외양간 등이 있었고, 바깥 행랑 앞에는 연못이 있었다. 전체 배치형식은 ㄱ자 형태의 안채를 중심으로 사랑채와 문간채가 ㄱ자 형태로 남쪽과 서쪽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다. 사랑채는 1877년(고종14)에 지어졌으며, 안채는 대청마루 종도리 장여 측면에 상량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상즉위칠년聖上卽位七年'이라는 글자가 보이므로 1783년(정조7)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랑채는 전면 5칸, 측면 3칸으로 구성된 전후툇집으로 평면 구성이 독특하다. 향좌측 첫째 칸은 반 칸을 앞으로 더 내밀어 1칸 크기로 난간을 두른 누마루로 구성하고, 2칸 사랑방은 후면에 외벽이 있는 툇마루를 두어 누마루 뒤편 다락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사랑방 옆의 마루방은 뒤편의 안채로 드나들 수 있게 마루복도를 두었고, 그 옆의 칸은 행사청이라고 부르는 방으로 전면으로는 창만 두고 후면에 툇마루를 놓아 안마당 쪽을 향하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사랑채는 공간구성이 매우 기능적이고 평면 분할이 독특하여 주목되는 사례로 평가된다. 작은 사랑채는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된 전툇집으로 위치와 규모 등이 독특한데, 예전에 공부방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문간채는 원래 3칸집으로 사랑채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문을 두고 나머지 칸은 창고로 사용되었으나, 후에 다시 5칸을 덧달아 지어 안채의 폐쇄성이 강해졌다.

이 가옥은 기능성을 중시한 사대부 살림집의 독특한 공간구성을 갖추고 있어 조선후기의 건축양식으로서 큰 가치를 갖는다.

	2	3
	4	5
1	6	7

1.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 종택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3. 큰 사랑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안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5. 광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6. 작은 사랑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7. 작은 사랑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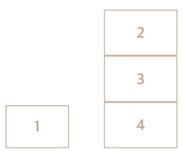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6호

용인 이주국장군 고택

龍仁 李柱國將軍 古宅

조선시대(1753년)
일곽
안채 총 10칸
사랑채 4×2칸
행랑채 8×1칸
목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로 242

지정일 : 2000.03.24
소유자 : 정병하
관리자 : 용인시



1. 행랑채와 안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대문과 행랑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사랑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안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용인 이주국장군 고택>은 영·정조 대의 무신으로서 많은 공적을 남긴 이주국李柱國(1721~1798)장군의 생가이다. 그는 정종의 아들인 덕천군德泉君의 후손으로 1721년(경종1)에 이 곳 문촌리에서 태어났다. 현재 이곳에 관련된 유적으로는 묘소, 신도비, 정자터 등이 남아 있으며, 묘역은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건물의 건축연대는 안채의 바래기기와望瓦에 '건륭18년계유일조작乾隆十八年癸酉日造作'이라고 되어 있어 이 가옥이 1753년(영조29)에 건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가옥은 안채, 사랑채, 행랑채의 3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ㄱ자형을 기본으로 하여 가운데 3칸 대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안방을 두고 그 앞으로 3칸의 날개를 달아 부엌, 광을 두었다. 부엌날개의 반대편으로 안방 뒤에 한 칸을 내달고 대청 맞은 편 건넌방 앞으로도 반 칸을 덧달아내어 경기도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ㄱ자집을 기본형으로 하고 이에 확대된 공간을 보여주는 점이 주목된다. 사랑채는 4칸으로 구성되었는데 오른쪽에 청방을 두고 가운데 2칸에 방과 마루, 왼쪽에 다락방과 아궁이를 시설하였다. 안채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나 방과 마루, 다락, 아궁이 등 구성요소가 짜임새를 갖추고 각각 성격과 방향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행랑채는 길에 면하여 7칸 반으로 구성되었는데 소슬대문 옆으로 2칸의 방을 들이고 나머지 4칸은 헛간이다.

현재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사랑마당과 안마당이 연속되어 있으나 건축 당시의 모습은 사랑마당과 안마당을 구획하는 담장과 중문채가 있어서 각각의 공간이 명확하게 분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면 사랑채의 전면과 측면의 구성에 대한 성격과 기능이 뚜렷해지고, 행랑채의 대문과 방의 위치, 안마당의 크기와 시선 방향 등이 적절한 구성을 갖게 된다.

이 가옥은 입지와 채 구성·공간 분할·조경 수법 등에서 고전적인 특징을 간직하고 있으며, 본채 뒤쪽 경사지의 조절과 화계의 조성 및 담장의 구성방법에서 향촌에 조영된 조선중기 반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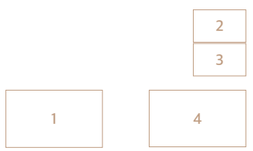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7호

여주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

驪州 海平尹氏 東岡公派 宗宅

조선시대(1891년)
일곽
안채 8×8칸
사랑채 7x2칸
목재
여주시 점동면 모래실2길 7

지정일 : 2000.03.24
소유자 : 윤중진
관리자 : 윤중진



1. 여주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여주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 전경, 2004_ 여주박물관
3. 사랑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안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여주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은 해평 윤씨 동강공파의 종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조선중기의 문인 윤세주가 경주김씨에게 장가를 들면서 처가가 있는 이 마을에 처음 가옥을 건립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현재의 건물은 1891년(고종28)에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청 종도리 장여 측면 상량문에 '신축년辛丑年'이라 적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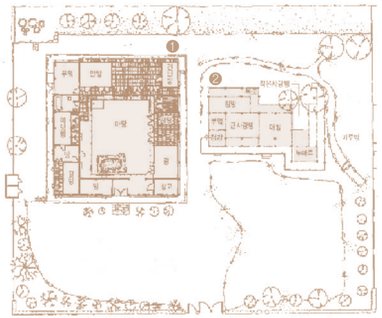
본래 종택에는 ㅁ자형 살림채 1동과 오른편의 사랑채, 그 앞으로 사랑 중문채, 다시 그 앞으로 연못이 있었으며, 안채 쪽으로는 안채중문간을 겸한 약방채가 세로로 놓였고, 바깥 대문 좌우로는 행랑이 있었다. 즉 안마당과 안채 바깥마당, 사랑마당, 사랑채 바깥마당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주택이었던 것이다. 소슬대문과 행랑채는 50년대 후반 청미천의 범람으로 무너지고 사랑채는 1963년 소실되어서 초석만 남아 있었다. 그 후 2014년 행랑채와 사랑채의 복원공사가 이루어져 현재 모습의 종택이 되었다.

안채는 정면 8칸, 측면 8칸의 규모로 가운데 마당을 둔 ㅁ자형 배치를 하고 있다. 안방과 대청이 있는 몸채는 측면이 2칸으로 전퇴가 있는 구조이며 가구는 5량으로 꾸몄다. 맞은편에 있는 문간은 측면이 1칸으로 가구는 3량이다. 몸채와 문간채를 연결하는 좌우 날개채는 측면이 1칸 반으로 5량가樑家를 구성했다. 지붕은 팔작으로 몸채의 합각은 좌우측으로, 날개채의 합각은 전면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가옥의 특징 중 하나는 몸채의 건넌방 앞쪽에 있는 툇마루를 통해서 사랑채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랑채는 정면 6칸 반, 측면 2칸의 몸채에 좌측으로는 전면으로 누마루를 시설하고, 우측으로는 뒤쪽에 넓은 방을 구성했다. 사랑채의 누마루는 전면에 있는 연못을 향해 돌출되도록 하여 주변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이 가옥은 규모가 있는 상류층 주택임에도 별도로 사당을 짓지 않고 안채의 날개부분에 사당을 들이고, 안채에 툇마루를 폭넓게 채용하였으며, 안채와 사랑채를 연결하는 복도를 두었다. 이는 모양새보다 쓰임새를 중요시 하던 조선후기 주택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❶ 안채 ❷ 사랑채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8호

임영대군 이구 묘역 및 사당

臨瀛大君 李璆 墓域 및 祠堂

조선시대
일원
단분, 묘표 1기, 상석 1기, 망주석 1쌍, 장명등 1기, 문인석 1쌍, 계체석
사당 3×2칸
석재(화강암), 목재
의왕시 능안아랫말길 32, 내손동 산154-1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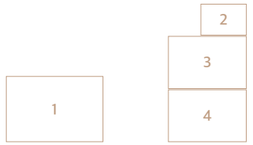
지정일 : 2000.03.24
소유자 : 전주이씨 임영대군파 종중
관리자 : 전주이씨 임영대군파 종중

세종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 이구臨瀛大君李璆(420~1469)의 묘와 사당이다. 1428년(세종10) 임영대군으로 봉작封爵되었으며, 1433년(세종15) 의령남씨宜寧南氏와 혼인을 하지만 바로 이혼하고 제안부부인濟安府夫人 전주최씨全州崔氏(?~1473)와 재혼했다. 임영대군은 정치적으로 세조와 매우 친밀했으며, 사후에 정간貞簡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임영대군의 묘역은 사당祠堂을 중심으로 서쪽에 임영대군 묘, 동쪽에 제안부부인 최씨묘가 위치하고 있다. 임영대군 묘는 장대석으로 3개의 단을 구획한 뒤 최상단에 봉분을 조성하고 두 번째 단에 장명등長明燈, 가장 아래에 문인석文人石 한 쌍을 설치했다. 이 장명등과 문인석은 15세기 후반 능묘 석물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들이다.

제안부부인 최씨 묘는 장대석으로 두 단을 구획하고 가장 위에 봉분을 그 아래에 장명등과 문인석을 설치했다. 최씨 봉분 앞의 묘표는 1476년(성종7)에 제작된 것이며, 장명등과 문인석도 이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임영대군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납도리집이며, 전면에는 개방된 퇴칸이 있고 그 안쪽은 벽체로 각 칸을 막아 3실로 구분하였다. 어칸에는 주독主櫝을 설치하여 임영대군과 제안부부인 최씨의 신주를 모셨으며 그 앞에 제탁과 향탁을 갖추었다. 좌우 협칸에는 제기와 제복을 보관하고 있다.



1. 임영대군 이구 묘,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임영대군 사당, 1999_ 의왕시
3. 임영대군 사당, 2016_ 의왕시
4. 임영대군 사당,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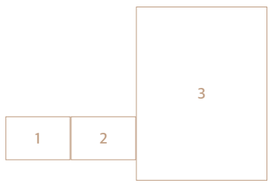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9호

의정부2동 성당

議政府2洞 聖堂

1953년
1동
249㎡
석재
의정부시 신흥로265번길 27

지정일 : 2001.01.22
소유자 : 천주교 의정부교구재단
관리자 : 주교좌 의정부성당



<의정부2동 성당>은 1953년에 이계광(요한) 신부가 신축한 성당으로 의정부에 주둔하던 주한 미 1군단 로제스키 군종신부軍宗神父와 미 1군단 가톨릭 신도의 헌금을 도움받아 건립했다고 본당 입구에 적어두었다.

의정부 2동성당은 화강석을 한 단 놓고, 육면체로 다듬은 돌을 쌓은 석조 구조이다. 화강석은 양주군 회천면 덕정리 돌산에서 가져와 의정부 석공이 공사했다.

평면은 서양 성당 건축(basilica)이지만, 내부는 단순하다. 기둥이 얇고 간단하며, 천장은 반원형(Barrel Vault)으로 복잡하지 않다.

외부 벽은 석재 사이의 줄눈 위아래가 연결되지 않는 막힌 줄눈이기 때문에 건물의 무게가 땅 표면에 균등하게 전달된다. 벽체와 창호 등에 사용한 석재의 모양이 섬세하며, 석재 표면보다 약간 튀어나온 내민 줄눈이 아름답다. 좁고 긴 창의 윗부분에 둥근 아치는 약간 뾰족하다.

지붕은 아래쪽은 평보, 위쪽에 ㅅ자 보를 얹어 연결하는 삼각형 구조물(Truss)이다. 지붕 마감은 너비 450~600㎜의 동판을 붙였다. 창호와 내부바닥이 약간 변형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전쟁 전후시기의 성당은 앞 시기보다 실내가 단순하지만, 종탑이나 전체적인 형태로 성당 건축의 특성을 표현했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에 종교나 공공시설이 지역 재료를 이용한 경우가 있다. 의정부 2동 성당은 이러한 시대적 특성이 잘 나타난 사례이다.

1. 의정부2동 성당 측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의정부2동 성당 내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의정부2동 성당 정면, 2010_ 의정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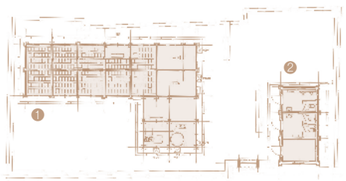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0호

구 서이면사무소

舊 西二面事務所

1914년
1동
7×2칸
목재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3번길 8

지정일 : 2001.01.22
소유자 : 안양시
관리자 : 안양시



❶ 구 서이면사무소 ❷ 화장실 및 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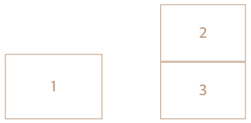
<구 서이면사무소>는 1914년 3월 현재의 호계도서관 앞쪽에 건립되었으나, 1917년 과천군 상서면(현 동안구)과 하서면(현 만안구) 일대의 행정구역이 합쳐지면서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이때 건물도 一 자형에서 ㄱ자형으로 증축했다.

1941년 서이면사무소에서 안양면사무소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해 8월 14일에 안양읍으로 승격하여 읍사무소를 서이면사무소 왼쪽에 신축했다. 그 후 서이면사무소는 개인에게 팔려 의원과 음식점 등으로 이용되다가 2000년에 안양시가 매입하여, 2002년에 옛 서이면사무소로 복원하였다.

건물의 구조는 나무를 다듬고 짜 맞춘 방법이 전통 목조이다. 규모는 앞면 7칸, 옆면 2칸이며 오른쪽으로 꺾인 ㄱ자형 평면이다. 기단에 길게 다듬은 돌을 놓고, 화강석을 직육면체로 다듬은 주춧돌 위에 사각기둥을 세웠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얹은 나무(도리)가 네모반듯하다.

내부 바닥도 전통 건축에서 사용하던 방식이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긴 목재를 가로질러 대고, 그 사이에 좀 더 짧은 목재를 보낸 후 목재판을 끼워 마감하는 우물마루이다. 천장은 서까래를 노출한 연등 반자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일제강점기에 건립한 공공시설은 벽돌 구조나 일본식 목골조가 많았던 것과 달리 서이면사무소는 일제강점기 초반에 전통 건축에서 근대행정업무를 시작한 드문 사례이다.



1. 구 서이면사무소 정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구 서이면사무소 측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구 서이면사무소 내부,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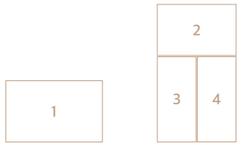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양평공 한계순 묘역

襄平公 韓繼純 墓域

조선시대
일원
단분 2기, 묘비 1기, 상석 1기, 장명등 1기, 문인석 1쌍, 계체석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126

지정일 : 2001.01.16
소유자 : 청주한씨 문간공파 종중
관리자 : 청주한씨 문간공파 종중



1. 양평공 한계순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부인 권씨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한계순 묘 문인석(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한계순 묘 문인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시대 문신인 양평공 한계순襄平公韓繼純(1431~1486)의 묘이다. 한계순의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조부는 개국공신인 서원부원군 한상경西原府院君韓尙敬(1360~1423), 부친은 증 영의정 한혜韓惠(1403~1431)이다. 서원부원군 한계미韓繼美(1421~1471)와 서평군 한계희西平君韓繼禧(1423~1482)가 그의 형이다.

한계순은 음직蔭職으로 출사하여 남이南怡의 역모를 잘 다스린 공으로 수충보사병기輸忠保社炳幾 정난익대공신定難翊戴功臣에 책훈策勳되고, 청평군淸平君에 봉해졌다. 이후 공조판서·이조판서·지중추부사를 지냈고, 좌리공신에 오르기도 했으며, 창경궁의 영조營造시 선공감 제조로서 역사를 감독하기도 했다. 사후 양평襄平의 시호가 내려졌다.

한계순은 초취初娶 성산이씨星山李氏, 재취再娶 안동권씨安東權氏, 삼취三娶 남원황씨南原黃氏로 세 부인을 두었으며, 현재 권씨 부인과 같은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한계순 묘역은 조부 한상경, 부친 한혜 등 청주한씨 묘산墓山이다. 한계순 묘는 부인 권씨와 상하분上下墳이며 각 봉분 앞에 문인석 한 쌍이 건립되어 있다. 한계순 봉분 앞에는 묘표, 상석, 문인석이 건립되어 있으며, 묘역 아래쪽에 신도비가 건립되어 있다. 신도비는 하엽방부荷葉方趺 형태이며, 비문은 마모가 심하다. 이 신도비문은 한계순의 조카인 한성부우윤 이계동李季仝(1450~1506)의 부탁으로 김뉴金紐(1436~1490)가 지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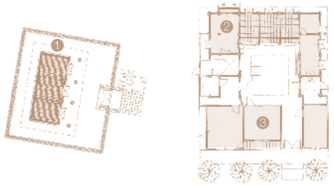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3호

죽산안씨 연창위 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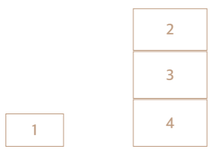
竹山安氏 延昌尉 宗家

조선시대
1동
안채 및 사랑채 5x7칸
사당 3x2칸
목재
양주시 광사로 131-27

지정일 : 2001.01.22
소유자 : 안민용
관리자 : 안민용



❶ 사당 ❷ 안채 ❸ 사랑채



<죽산안씨 연창위 종가>는 세종의 둘째 딸인 정의공주貞懿公主(?~1477)와 혼인하여 연창위延昌尉에 봉해진 안맹담安孟聃(1415~1462)과 조선전기 사헌부 감찰을 역임한 죽산안씨 18세손 안방형安邦炯(1465~?),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를 역임한 안방형의 아들 안종탄安從坦(1490~1538)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전한다. 그 후 영조대에 이르러 마을에 정자 등이 건립되면서 현재 모습으로 가옥이 중건되었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기에 부분적으로 보수와 변화과정을 겪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가옥의 대청 종도리 측면에 묵서명이 쓰여 있으나 퇴락하여 판독이 불가한 상태로 건립연대를 확정하기 어렵다.

가옥은 살림채가 ㄷ자형 안채와 ㅡ자형 사랑채가 결합한 ㅁ자형 배치를 하고 있으며, 살림채의 서편에 3칸 사당이 일곽을 이루고 있다. 대문간을 겸한 사랑채는 퇴락이 심하여 현대식 건물로 개조되었다가 최근 목조건물로 다시 고쳐 지었다.

안채는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건넌방과 안방을 배치하였는데, 건넌방의 뒤쪽으로 재실 1칸을 둔 것이 특이하다. 안방과 건넌방 앞으로는 부엌을 시설하고 그 앞쪽을 가로 막은 사랑채에는 사랑방과 대문, 문간방이 차례로 배치되었다. 안채는 방형의 다듬은 초석을 설치하고 그 위에 각기둥을 세워 5량가樑家를 꾸몄으며 좌우 날개채는 3량가로, 사랑채는 5량가로 구성하였다. 안채의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고 개조된 사랑채는 점판암을 이용하여 지붕을 덮었다가 최근 새로 건립하면서 팔작지붕으로 바꾸었다.

살림채의 왼쪽에 위치한 사당은 중산안씨 양효공과 정의공주의 신위를 모신 곳으로 1466년(세조12) 건립하였으나 한국전쟁 때에 파괴되어 1971년에 다시 지은 것으로 전한다. 구릉지를 절토하고 담장을 두른 다음 살림채를 향해 일각문을 내었다. 사당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마루를 깔고 정면을 제외한 나머지 삼면에는 화방벽을 둘렀다. 원기둥을 세워 격을 높였으며 상부가구는 5량가로 꾸몄다. 익공식으로 기둥머리를 장식하고 맞배지붕을 얹고 단청하였다.

이 가옥은 사랑채가 개축되고 안채의 일부분이 생활의 편의를 위해 개조되었지만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1. 죽산안씨 연창위 종가 전경, 2017 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안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사랑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사당,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4호

고양 흥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高陽 興國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조선시대
1구
54×34cm
목재
고양시 덕양구 흥국사길 82

지정일 : 2001.09.17
소유자 : 흥국사
관리자 : 흥국사

1. 고양 흥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얼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흥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수인,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흥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고양 흥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고양 덕양구 한미산漢美山 남동쪽 기슭에 위치한 흥국사 설법전에 봉안되어 있다.

이 불상은 높이가 54cm인 중소형 불상으로, 얼굴을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얼굴과 앉은키는 1:3.1의 신체비례를 보인다. 머리는 뾰족한 나발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로 표현되고, 육계 밑에는 반원형의 중간계주와 정수리 부위에 낮은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있다. 방형의 얼굴에 반쯤 뜬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콧날이 곧게 뻗었으며, 입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따로 제작된 손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있다.

바깥에 걸친 대의大衣는 오른쪽 어깨에서 대의자락이 가슴까지 내려와 긴 물방울 같이 U자형을 이루고, 나머지 대의자락은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자락과 겹쳐져 있다. 특히, 하반신의 대의 처리는 네 겹으로 접힌 주름의 가장 안쪽이 넓게 펼쳐지고, 나머지 주름은 물결이 일렁이듯 접혀져 있다. 반대쪽 무릎에 걸친 소매자락은 연판형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僧脚崎는 조선후기 불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판이 위를 향하는 앙련형仰蓮形으로 처리되지 않고, 윗단이 수평으로 접혀 있다. 불상 뒷면의 처리는 목둘레에 대의 끝단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흥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713년(숙종39)에 북한산 상운사 천불전에 봉안된 목조여래좌상과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착의법 등이 동일하여 조각승彫刻僧 진열進悅이 18세기 전반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5호

신빈신씨 묘역

信嬪辛氏 墓域

조선시대
1기
단분, 묘표 1기, 상석 1기, 장명등 1기, 문인석 1쌍, 계체석, 호석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산41

지정일 : 2001.09.17
소유자 : 전주이씨 함녕군, 온녕군, 근녕군파 종중
관리자 : 전주이씨 함녕군, 온녕군, 근녕군파 종중

태종의 후궁 신빈신씨信嬪辛氏(?~1435)의 묘역이다. 신빈신씨의 본관은 영산靈山(영월寧越)이며, 부친은 검교 공조참의 신영귀辛永貴이다. 신빈은 본래 태종 비 원경왕후元敬王后의 궁인宮人이었으며, 1414년(태종14) 아들 함녕군誠寧君 이인李裀(1402~1467)이 정윤正尹이 되면서 신녕옹주信寧翁主에 봉해졌다. 다시 1422년(세종4)에는 궁주宮主에 봉해졌으며, 1872년(고종9) 신빈에 봉해졌다.

신빈은 태종의 병간호를 오래 하고, 태종 승하 후에는 출가해 비구니가 되어 태종을 위해서 금자金字로 『법화경法華經』을 사경寫經하기도 했다. 세종은 신빈이 돌아가자 조상弔喪과 치제致祭를 내리고 관에서 장사葬事를 다스렸으며, 염斂에 쓸 의복을 하사했다.

신빈신씨의 묘는 장대석으로 두 단을 나누고 위에는 8각 호석護石을 두른 봉분과 '信寧宮主辛氏之墓(신녕궁주신씨지묘)'라고 조각된 묘표墓表(1441)와 상석床石을 설치했다. 아랫단에는 장명등長明燈과 한 쌍의 문인석을 건립했으며, 장명등의 중대中臺 4면에 '信寧宮主(신녕궁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문인석은 복두공복幞頭公服 차림에 홀笏을 든 형태로 조각되어 있다.

	3	4	5
1	2	

1. 신빈신씨 묘역 정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신빈신씨 묘역 후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신빈신씨 묘표,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신빈신씨 묘역 장명등,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신빈신씨 묘역 문인석(우),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6호

임은 이민곤 영정

林隱 李敏坤 影幀

조선시대
2폭
관복상 129.3×76.7cm, 비단
유복상 121×73cm, 비단
여주시 흥천면 임은길 37

지정일 : 2001.09.17
소유자 : 이장렬
관리자 : 이장렬

이민곤李敏坤(1695~1756)의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후이厚而, 호는 임은林隱이다. 영조년간에 활동한 문신으로 박필주朴弼周와 이재李縡 등에게 학문을 배워 낙론洛論 학통을 이었다. 활발한 저술 활동으로 「황극연의皇極衍義」를 지어 왕에게 바쳐서 왕도정치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1756년(영조32) 탕평책에 대한 직언을 하다 귀양 가던 도중 숙소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영조는 귀양을 풀고 도승지에 추증하였다.

이민곤의 초상은 각각 관복과 유복을 입은 모습을 그린 두 점이 전해진다. 두 작품 모두 세 폭의 비단을 이어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발색이 좋은 안료에 비해 인물의 신체 비율이 어색하고 세부묘사가 도식적으로 표현되었다. 얼굴표현과 공수한 부분의 옷 묘사 등을 통해 두 작품 모두 같은 작가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관복본 초상은 채전이나 화문석의 바탕없이 표피豹皮가 깔린 교의交椅와 의답椅踏에 앉은 모습으로, 상체에 비해 하체의 비율이 지나치게 짧아 어색한 느낌을 준다. 얼굴은 필선을 통해 구획을 정하고 짙은 호분과 채색을 통해 표현하였다. 흉배와 서대는 발색이 좋은 안료와 정밀한 묘사로 돋보이나 단령은 세부 문양 없이 단색과 옅은 옷주름의 음영만으로 그려져 대비된다. 단령의 하체 부분의 연속된 U자형 옷주름은 불화적 요소로 화승畵僧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복본 초상은 도포를 입고 복건을 쓴 모습이다. 화면에는 '爾沈弗揚 老而益懼 疹疾未慧 半世迷途, 蓮桂簪纓 猿狙之袍 爾宇衡茅 宜晦而韜, 木子春生 母與交會 土出申金 右輔車解'의 찬문이 적혀있다. 관복본 초상에 비해 안정적인 화풍을 보여준다. 안면은 필선을 통한 구획과 평면적인 채색으로 고식의 화법이 잘 드러난다. 의복 또한 필선과 옅은 음영법으로 풍만한 질감을 잘 살리고 있다. 복건은 18세기 중반의 굴곡진 외형과 층이진 내부 묘사가 두드러진다. 인물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주로 인쇄물을 통해 소개된 자세가 초상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18세기 후반~19세기의 초상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이 초상은 중앙양식보다 지방 또는 불화佛畵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식의 화풍을 유지하면서도 18세기 후반 이후의 초상 요소도 함께 그려져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

1 2 3

1. 임은 이민곤 영정,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임은 이민곤 영정 관복본, 2006_ 여주박물관
3. 임은 이민곤 영정 유복본, 2006_ 여주박물관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7호

익원공 김사형 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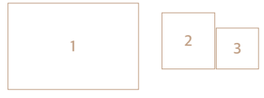
翼元公 金士衡 墓域

조선시대
1기
단분, 상석 2기, 향로석 2기, 장명등 1기, 묘표 2기, 문인석 1쌍, 사적비 1기, 계체석, 신도비 1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49

지정일 : 2001.09.17
소유자 : 안동김씨 익원공파 종중
관리자 : 안동김씨 익원공파 종중

조선 개국공신 김사형金士衡(1341~1407)의 묘이다. 김사형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평보平甫, 호는 낙포洛圃이다. 고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해 조준趙浚 등과 함께 대간을 지냈다. 이성계李成桂가 위화도회군을 단행한 뒤, 교주강릉도도관찰출척사로 나갔고, 1390년(공양왕2) 지밀직사사 겸 대사헌이 되고 이어 지문하부사가 되었다. 그 뒤 여러 장상들과 함께 이성계를 추대해 개국공신 1등에 봉해졌다. 같은 해 문하우시중에 제수되었고, 1396년(태조5)에 도통처치사가 되어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그 뒤 좌정승을 지냈고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때,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에 가 적장嫡長을 후사로 세울 것을 요청해 정종의 즉위를 도운 공으로 정사공신定社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1399년(정종1) 등극사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1401년 다시 좌정승이 되었고, 이듬해 영사평부사를 지냈다. 시호는 익원翼元이다.
김사형의 묘는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청계산의 능선에 서북향으로 위치하여 있다. 특히 묘역의 남쪽으로는 유사한 유형의 신효창申孝昌(?~1440)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 신효창은 김사형의 사위로 일명 '구정승골'에 함께 조성되어 있다. 김사형의 묘는 마한국대부인 죽산박씨竹山朴氏와의 합장 단묘이다. 묘역은 3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계에는 봉분·상석이 있고, 중계에는 문인석 1쌍·장명등이 있고, 하계에는 현대에 새로 건립한 묘비들을 배치하였다. 봉분은 형태가 6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약 160cm인 장대석을 이용하여 3단으로 호석護石을 둘렀다. 이러한 호석의 형태는 매우 희귀하다. 이외 신 묘표·신 상석·향로석 등은 현대에 제작한 것이다. 신 상석 옆으로는 예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원래의 상석이 함께 놓여 있다.

신도비는 묘역으로부터 약 600m 떨어진 마을 입구에 위치하여 있고, 신도비각 안에 보관되어 있다. 건립연대는 1934년이고 형태는 옥개방부형屋蓋方趺形이다. 비문은 자헌대부 이우면李遇冕이 찬하고, 20세손 김이회金理會가 글을 쓰고, 18세손 김성묵金聖默이 전액을 썼다. 전액은 「조선상락백부원군시익원김공신도비명朝鮮上洛府院君諡翼元公金公神道碑銘」이다.
장명등은 중계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데, 사각형의 형태이다. 사모지붕을 지니고 있고, 화창이 매우 크고 앞뒤로만 화창을 뚫은 15세기 초반의 양식을 보인다. 대석의 상대에는 깊은 음각선을 띠처럼 둘렀다. 개석蓋石 상단의 원수圓首는 손실된 상태이다.
문인석은 2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형태는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이다. 두 손을 한삼소매에 덮어 가리운 채 홀을 쥔 형상이고 복두는 서로 교차되는 교각복두交脚幞頭이다. 이러한 유형은 15세기 초반기에 주로 등장하는 형태이다. 이목구비는 선각으로 평면화하였고, 홀의 고저나 의습선의 깊이가 매우 얕고 옷주름은 단편적이다. 머리는 가슴쪽으로 깊숙이 들어갔으며, 신체는 굴곡이 거의 없는 기둥형으로 15세기 초기의 양식을 보이고 있다.
하계의 옥개방부형 묘표는 1955년 3월 13일 건립한 것이다. 묘표의 서쪽으로는 현대에 건립한 묘표가 추가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묘제나 석물의 원형은 잘 남아 있지 않지만 호석의 형태는 매우 희귀하며, 문인석과 장명등은 15세기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그 외 석물은 대부분 현대에 추보한 것이다.



1. 익원공 김사형 묘역,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익원공 김사형 묘역 문인석(우),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익원공 김사형 묘역 장명등,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8호

안성 죽리 석조여래입상

安城 竹里 石造如來立像

조선시대
1구
235×100cm
석재(화강암)
안성시 대덕면 죽리 17

지정일 : 2002.04.08
소유자 : 안성시
관리자 : 안성시

<안성 죽리 석조여래입상>은 외평마을 입구의 당산나무 옆에 위치한 석조여래입상으로 광배와 한 돌로 조성되었다. 뒷면은 아무런 표현도 가하지 않았다. 방형 얼굴에 높은 육계와 보주형의 정상 계주를 표현하였으며, 둥글고 큰 눈에 비하여 코와 입은 작은 편이다. 짧은 목에 삼도를 간략히 나타냈으며 목이 짧아 귀가 어깨에 닿았다.
양어깨를 덮은 통견의 법의法衣는 양 팔에 걸쳐져 손목 부근까지 내려오며, 오른쪽 어깨에 반원형으로 걸쳐지고 있다. 대의 안쪽에 입은 군의裙衣는 복부 상단에서 넓은 띠로 묶었으며 띠 상단에는 삼엽형이 새겨져 있다. 대의 주름은 하반신에 U자형의 주름을 형성하며 늘어져 있다.
두 손을 배 앞에서 포개어 선정인禪定印처럼 하여 연봉을 지물持物로 받쳐 들고 있다. 연봉 표면에는 Y자 홈이 나 있다.
이 작품은 용인과 안성 등에서 고려시대에 조성된 지방화된 양식의 석불과는 계통을 달리 하는 것으로 세부 조각수법이 뛰어난 편이며, 육계 위의 정상계주, 대의를 걸쳐 입은 방식 및 가슴에 보이는 군의의 처리 등에서 조선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 2

1. 안성 죽리 석조여래입상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죽리 석조여래입상,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9호

권상 묘역

權常 墓域

조선시대
일원
단분, 묘비 1기, 상석 1기, 혼유석 1기, 향로석 1기, 장명등 1기,
문인석 1쌍, 신도비 2기(구·신)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산24-4

지정일 : 2002.04.08
소유자 : 안동권씨 남강공 종회
관리자 : 안동권씨 남강공 종회

조선중기의 문신인 권상權常(1508~1589)의 묘이다. 권상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길재吉哉, 호는 남강南崗이다. 1528년(중종23)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이어 문소전참봉에 제배되고, 1573년(선조6)에 용강현령을 지냈다. 1583년 선공감정繕工監正에 이르렀으며, 이 해에 효행으로 천거되어 통정의 계급에 올랐다. 1587년(선조20) 노인직으로 가선의 위계를 받고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청주의 백록서원白鹿書院에 제향되었다.

봉분은 단분으로 증 증경부인 안정나씨安定羅氏와 합장묘이다. 묘역은 2계로 나뉘며, 상계에는 봉분·묘표·상석이 있으며 하계에는 향로석·장명등·문인석 1쌍을 배치하였다. 현대에 묘역을 새로 정비하였는데, 상계를 다시 계체석으로 어색하게 분리하였으며 호석·계체석 등은 새로 설치한 것이다. 묘역 하단 50m 아래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있으며, 묘역 근처에 효자정려문이 함께 남아 있다.

신도비는 묘역 입구에 있는데, 건립연대는 1606년(선조39)이다. 형태는 이수방부형螭首方趺形으로 이수와 비신은 대리석으로 제작하였다. 비문은 영의정을 지낸 이항복李恒福(1556~1618)이 지었고, 이숙李潚이 글을 썼으며, 전액은 노직盧稙(1536~1587)이 썼다. 전액은 '증영의정권상신도비명贈領議政權常神道碑銘'이다. 이수에는 두 마리의 용이 구름 속에서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을 좌우대칭으로 조각하였다. 이수의 외곽 형태가 방형이며, 내부 조각이 비교적 평면적이고 조각의 깊이가 얕다. 대석의 윗면에는 연판문을, 앞뒷면에는 안상문을 조각하였다. 신도비의 총 높이는 268cm이다.

묘표는 봉분의 정면에 위치하고 있다. 형태는 원수방부형圓首方趺形인데, 상단은 거의 방형에 가깝다. 음기가 없어 정확한 건립연대는 기록하지 않았다. 비신은 대리석이고 대석은 화강암으로 제작하였다. 대석의 상단에는 연판문을 앞뒷면에는 당초문을 크게 배치하였는데 매우 평면적이다.

장명등은 사각의 형태로 하계의 중앙에 위치하여 있다. 형태는 사각형이며, 사모 팔작지붕의 형태이다. 화사석의 화창이 유난히 작고 옆으로 긴 장방형이다. 대석의 안상문과 연판문은 저부조로 조각되었다. 개석 지붕의 길이가 짧고 체석體石 단면의 고저 변화가 심하지 않은 16세기 후반기의 장명등이다.

문인석은 하계에 2기를 배치하였다. 형태는 금관조복형金冠朝服形이다. 금관을 포함한 얼굴이 크고 높으며, 홀은 15세기에 비하여 크고 앞으로 돌출시켜 조각한 16세기의 양식을 보인다. 금관은 양梁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시기적 특징이 있다. 홀을 쥔 손가락은 경계가 없이 밋밋하게 표현하였으며 폐슬과 후수는 얇게 양각하였다. 얼굴은 둥글고 원만하며, 의습선이 부드러우며 안면의 돌출이 심화되는 과도기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1

3 4 5 6

1. 권상 묘역,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권상 신도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권상 묘역 장명등,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권상 묘역 묘표,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5. 권상 묘역 문인석(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6. 권상 묘역 문인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10호

쌍계사 아미타회상도

雙溪寺 阿彌陀會上圖

조선시대
1폭
220×185cm
비단
안산시 대부황금로 1171

지정일 : 2002.09.16
소유자 : 쌍계사
관리자 : 쌍계사

<쌍계사 아미타회상도>는 대금산大金山 쌍계사에 봉안되어 있으며, 서방 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부처가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 불화는 전반적으로 바탕천과 안료顔料가 박락剝落되었는데, 특히 화면 하단이 심하게 박락되었다.

횡으로 늘어난 화면 중앙에는 높은 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아미타부처가 있고, 아래로부터 좌우로 사천왕四天王을 상하 2단으로 배치하였으며, 관음觀音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문수文殊와 보현보살普賢菩薩, 금강장金剛藏과 제장애보살除障碍菩薩, 미륵彌勒과 지장보살地藏菩薩을 사선으로 상단까지 배치하였다. 이들 팔대보살八大菩薩은 아미타부처를 중심으로 배치된 십대제자十大弟子들을 감싸듯 배치하였다.

중품중생인中品衆生印의 수인手印을 결結하고 연화좌에 결가부좌한 아미타부처는 갸름한 턱에 작은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아미타부처 무릎 아래 좌우에는 본존을 향해 관음과 대세지보살이 서있는데 백의를 걸친 관음보살은 양손을 밑으로 내려 정병을 잡고, 대세지보살은 왼손으로는 연꽃가지의 끝을 받쳐 들었고, 오른손으로는 연화가지의 중간을 잡았다.

비단 바탕에 녹색과 붉은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 백분과 금니를 칠하였다. 사천왕과 보살들에게 사용된 청색은 1700년에 조성된 부안 내소사 괘불의 수화사首畵師였던 천신天信이 즐겨 사용하였던 색채의 흔적도 간취看取된다.

화기畵記가 잘려 나가 이 불화의 제작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횡으로 길어진 화면, 작은 이목구비, 녹색과 붉은 색과 같은 원색의 사용 등으로 미루어 18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❶ 아미타불
❷ 제장애보살
❸ 보현보살
❹ 대세지보살
❺ 미륵보살
❻ 금강장보살
❼ 문수보살
❽ 관음보살
❾ 타방불
❿ 10대제자
⓫ 사천왕

쌍계사 아미타회상도, 촬영일미상_ 성보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11호

용덕사 석조여래입상

龍德寺 石造如來立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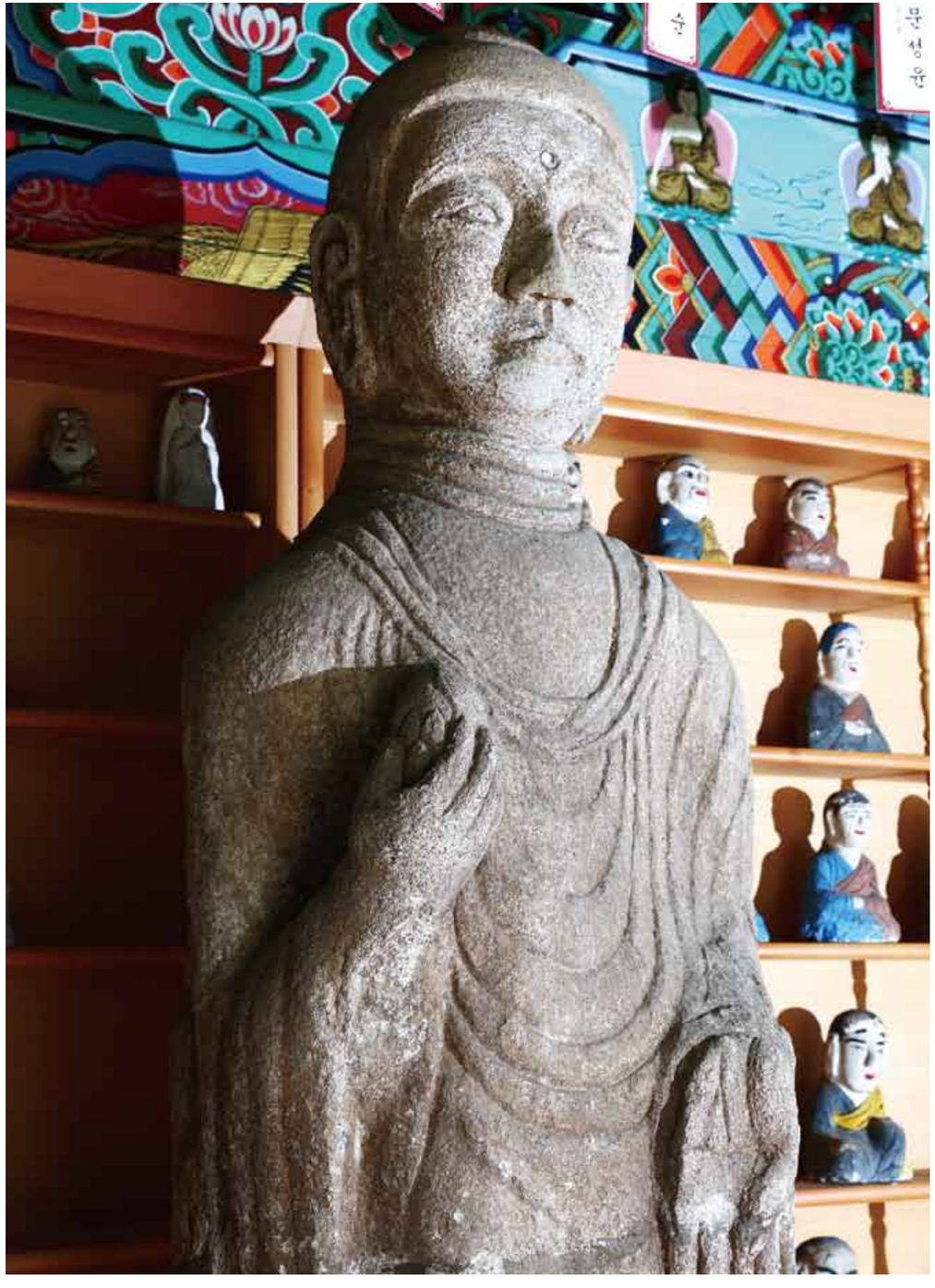
통일신라~고려시대
1구
231×61.5cm
석재(화강암)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71-41

지정일 : 2002.09.16
소유자 : 용덕사
관리자 : 용덕사

<용덕사 석조여래입상>은 용덕사 미륵전에 안치되어 있는 고려초기의 석조여래입상으로, 원래 적동저수지 입구의 제방 부근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 봉안하였다.

불상은 목과 배 부분이 절단된 것을 접합하여 복원한 것으로, 덧칠된 시멘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훼손되어 원형을 잃었다. 신체에 비해 비교적 큰 통통한 얼굴은 눈과 코, 목의 삼도三道 부분을 너무 깊게 파내어 원래의 원만한 상호를 잃고 경직된 모습이며, 미간의 백호공과 군살진 턱선의 윤곽이 뚜렷하다. 머리는 민머리이고 중앙에 낮은 육계가 솟아 있다. 밋밋한 가슴과 위축된 어깨선으로 인해 신체 볼륨이 약화되었으며 가슴과 허리 부분에도 석재 공구로 다듬은 흔적이 역력하다. 왼손은 허리 아래로 내려 손가락을 곧게 펴 여원인與願印의 수인을 맺었지만, 오른손은 가슴 위로 올려 연꽃봉오리를 쥔 특이한 모습이다. 통견의 법의는 둥글게 접힌 목깃 아래로 타원형의 평행주름을 이루다가 양 다리에 이르러 둘로 갈라져 U자형이 옷주름을 형성하는 이른바 우드야나(Udyana)식의 착의법着衣法의 전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양 손목을 감싸고 몸 좌우로 길게 드리운 옷자락은 수직적인 평행옷주름을 그리며 발끝까지 닿았다.

타원형의 양감 있는 얼굴과 굴곡 있는 신체 조형, 우드야나식의 법의 등에서 통일신라 후기 불상 양식을 잇고 있지만, 패턴화된 느슨한 옷주름과 볼륨이 약화된 신체 모습 등에서 고려시대 초기 특징이 완연하다. 둥글고 통통하며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얼굴에 비해 신체는 길고 가늘어 다소 섬약한 느낌을 준다.



1
2

1. 용덕사 석조여래입상,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용덕사 석조여래입상 세부,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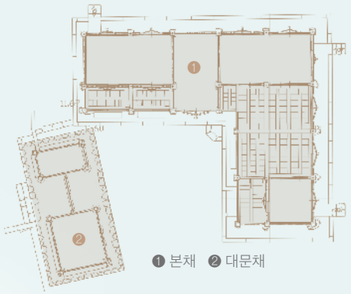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12호

남양 풍화당

南陽 風化堂

조선시대(1867년)
2동
본채 5×4칸
대문채 3×1칸
목재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45번길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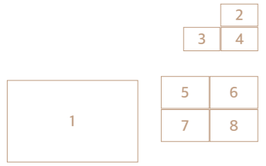
지정일 : 2002.09.16
소유자 : 남양기로회
관리자 : 남양기로회



<남양 풍화당>은 '남양풍화당기로회南陽風化堂耆老會'라는 현판을 걸고 있는 조선 태조 이래 건립된 일종의 관립 경로당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기로소耆老所'란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서로 기耆는 연고후덕年高厚德의 뜻을 지녀 나이 70세가 되면 '기耆', 80세가 되면 '노老'라 하였다. 남양 풍화당은 본채 내부 종리 바닥에 동치육년정묘칠월십삼일同治六年丁卯七月十三日이라는 상량문이 남아 있어 1867년(고종4)에 지었음을 알 수 있다.

가옥의 구성은 전면에 一자형 대문채가 있고 그 뒤로 본채인 ㄱ자형 평면의 본채가 마주 보고 배치되어 있다. 본채는 ㄱ자형 평면으로 전면에 퇴칸을 둔 전퇴집이다. 가구는 평사량으로 대청상부는 대량을 걸고 방 상부는 1고주를 놓고 결구하였다. 지붕모양으로 건물 내의 위계를 표현한 것이 특징인데 대청부분은 팔작지붕, 부엌부분은 맞배지붕으로 하였다. 현재 내부는 3칸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에 방 2칸, 오른쪽에 1칸 반 크기의 방을 두고 왼쪽 2칸 방 옆으로 한 칸 반 부엌과 방 2칸과 퇴칸 1칸을 구성하고 연결마루가 붙어 있다. 전체적인 평면구성을 볼 때 전형적인 경기도지역의 ㄱ자 집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문채는 1982년에 다시 지은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이다. 현재는 가운데 대문간을 두고 좌측에 1칸 방, 우측에 1칸 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크기는 각기 다르다. 지붕은 한식기와를 이은 맞배지붕이며, 대문 문틀은 홍살로 구성하고 판장문을 달았다. 풍화당은 전형적인 경기지역 민가 안채와 같은 평면구성을 하고 있으며, 기본 골격과 평사량 등 가구구조가 잘 보존되어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중앙관서에 설립되었던 기로소를 따라 지방에서 설립된 것은 흔치않은 예로, 당시 지방의 기로소 운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1. 풍화당 대문채, 2015_화성시향토박물관
2. 안마당에 본 풍화당, 1920년대 추정_화성시향토박물관
3. 후원에서 본 풍화당(개수전), 1991_화성시향토박물관
4. 안마당에 본 풍화당(개수전), 1991_화성시향토박물관
5. 후원에서 본 풍화당, 2015_화성시향토박물관
6. 안마당에 본 풍화당 대문채, 2015_화성시향토박물관
7. 남양 풍화당 본채, 2015_화성시향토박물관
8. 남양 풍화당 본채와 대문채, 2015_화성시향토박물관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13호

서계 박세당 묘역

西溪 朴世堂 墓域

조선시대
일원
단분, 상석 1기, 혼유석 1기, 향로석 1기, 묘비 1기, 산신석 1기,
망주석 1쌍, 차일석 3기, 계체석, 호석, 신도비 1기
의정부시 동일로122번길 124

지정일 : 2002.09.16
소유자 : 반남박씨 백석공파 종중
관리자 : 서계문화재단

조선후기 실학자인 박세당朴世堂(1629~1703)의 묘이다. 박세당의 본관은 반남潘南이고, 자는 계긍季肯, 호는 잠수潛叟·서계초수西溪樵叟·서계西溪이다. 1660년(현종1)에 증광 문과에 장원해 성균관전적에 제수되었고, 그 뒤 예조좌랑·병조정랑·경연시독관·함경북도 병마평사 등 내외직을 역임하였다. 그 뒤 통진현감이 되어 흉년으로 고통을 받는 백성들을 구휼하는데 힘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맏아들 박태유朴泰維와 둘째 아들 박태보朴泰輔를 잃자 여러 차례에 걸친 출사 권유에도 불구하고 석천동에서 농사지으며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만 힘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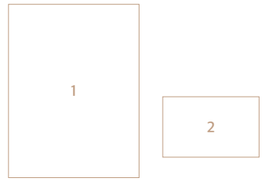
1702년(숙종28)에는 이경석李景奭의 신도비명神道碑銘에서 송시열宋時烈을 낮게 평가했다 해서 노론老論에 의해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박세당은 제도적으로 요역徭役과 병역의 균등화를 주장했고, 모든 정치·사회 제도와 법률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중국의 세력 변동에 주체적으로 반응하는 실리주의를 주장했다. 소론의 거두인 윤증尹拯을 비롯해 박세채朴世采, 처숙부 남이성南二星, 처남 남구만南九萬, 최석정崔錫鼎 등과 교유했다. 저서로는 『서계선생집西溪先生集』과 『사변록思辨錄』, 『신주도덕경新註道德經』, 『남화경주해산보南華經註解刪補』가 있고, 편저로는 농서農書인 『색경穡經』이 전한다. 시호는 문절文節이다.

박세당의 묘는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산의 낮은 구릉에 서북향으로 위치하여 있다. 봉분의 형태는 단분이며, 증 정경부인 의령남씨贈貞敬夫人 宜寧南氏, 증 정경부인 광주정씨贈貞敬夫 光州鄭氏와 함께 삼위三位 합장묘이다. 묘역은 1개의 계체석으로 구분하여 2계階를 이루고 있다. 상계에는 봉분, 혼유석을 배치하고, 하계에는 상석, 향로석, 망주석 2기를 배치하였는데, 망주석 등은 현대에 새로 조성한 것이다. 또한 묘역의 서쪽에 1986년에 건립한 묘비가 있으며, 묘역 하단 입구에는 1996년에 건립한 새로운 신도비가 있다.

봉분은 사각형태인데, 12기의 장대석을 이용하여 호석護石을 둘렀다. 봉분의 뒷면은 호석을 두르지 않고 용미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켰다. 18세기에는 매우 드문 봉분의 형태이다.

향로석은 옆으로 긴 직사각형태로 상석 앞의 중앙에 놓여져 있다. 천판 아래로는 당초문을 조각하였고, 다리는 호족형이며 하단이 매몰된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원형의 석물과 현대에 새로 건립한 석물이 공존하고 있는 묘역이다. 묘제 및 석물의 유형이 단순하고 화려하지 않아 검박한 실학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묘이다.



1. 서계 박세당 묘역,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서계 박세당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14호

구정 남재 묘역

龜亭 南在 墓域

조선시대
일원
단분, 묘갈 1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장명등 1기, 문인석 1쌍, 계체석, 신도비 2기(구·신), 재실
남양주시 별내동 282-4

지정일 : 2002.09.16
소유자 : 의령남씨 충경공 종친회
관리자 : 의령남씨 충경공 종친회

조선시대 문인인 구정 남재龜亭南在(1351~1419)의 묘이다. 남재의 본관은 의령宜寧으로 자字는 경지敬之, 호는 구정거사龜亭居士이며 본래 이름은 겸謙이었으나 뒤에 고쳤다. 목은 이색牧隱李穡의 문하이자 조선 개국공신으로 의령부원군宜寧府院君에 봉해졌다. 벼슬은 영의정을 지냈으며, 시호諡號는 충경忠景이다.

남재 묘역은 그의 신도비문에 의하면 양주 사동에 있으며, 태조가 건원릉健元陵 자리를 수릉壽陵으로 정하고 인근의 땅을 남재에게 내려주어 배장陪葬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건원릉은 태조 승하 후 김인귀金仁貴의 추천으로 정해진 곳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르다. 남재 묘역은 가장 위쪽에 남재의 부모인 남을번南乙蕃 부부의 묘가 있으며, 그 아래 남재의 묘가 있다. 그 아래 신인의령남씨愼人宜寧南氏 묘가 있으며 봉분 아래쪽에 사당과 신도비각, 재실 등이 위치하고 있다. 남재 묘는 장대석으로 단을 나누고 위쪽에는 상하로 긴 장방형의 봉분과 묘표가 있으며 아래에는 문인석이 건립되어 있다. 묘표는 기존의 묘갈이 오래되어 1898년(고종35) 후손들이 건립한 것으로 전면에는 '開國功臣領議政忠景南公在墓(개국공신 영의정 충경 남공 재묘)'라고 새겨져 있으나 마모가 심한 편이다. 문인석은 복두공복幞頭公服을 착용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묘역 아래의 남재 신도비는 1832년(순조32) 후손인 남구만南九萬(1629~1711)이 비문을 짓고 남공철南公轍(1760~1840)이 비문을 썼으며, 남이익南履翼(1757~1833)이 전서篆書를 썼다.

1
2
3

1. 구정 남재 묘역, 촬영일미상_ 남양주시
2. 구정 남재 묘역,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구정 남재 신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15호

능원대군 이보 묘역

綾原大君 李俌 墓域

조선시대
일원
쌍분, 묘비 2기, 상석 2기, 문인석 1쌍, 동자석 1쌍, 망주석 1쌍,
향로석 1기, 장명등 1기, 호석, 곡장, 신도비 1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14-3

지정일 : 2002.09.16
소유자 : 전주이씨 능원군파 종중
관리자 : 전주이씨 능원군파 종중

인조의 동생이며, 원종元宗의 아들인 능원대군 이보綾原大君李俌(1598~1656)의 묘이다. 이보는 의안군義安君의 후사가 되어 능원군에 봉해지고, 인조반정 뒤 원종이 추존되면서 대군에 봉해졌다. 능원대군은 병자호란 때 척화斥和를 주장하고, 소현세자가 청에 인질로 끌려갈 때 대신 가겠다고 자청하기도 했다. 특히 숭명배청崇明背淸 의식이 강해 평생 청나라 연호年號를 사용하지 않았다.

능원대군 묘는 풍양豐壤(현재 남양주 진접읍)에 조성했으나 1689년(숙종15) 현재 위치로 이장했다. 이장하면서 숙종의 명으로 묘소 석물들을 강화에서 채취한 석재로 제작했다. 현재 묘소는 원형 호석護石을 두른 봉분과 곡장, 묘표(1707), 혼유석, 상석, 향로석, 동자석, 4각 망주석, 문인석, 장명등이 건립되어 있다.

묘소 남동쪽 100여 미터 지점에 능원대군 신도비가 건립되어 있다. 이 신도비는 묘표와 마찬가지로 1707년(숙종35)에 숙종의 명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신도비문은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 최초에 지었던 것을 새기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숙종의 명으로 민암閔黯(1636~1693)이 다시 지었으나 역시 비석을 건립하지 못했다. 이후 1694년(숙종20) 숙종의 명으로 송시열의 비문을 새겨 건립하게 했으며, 1707년(숙종33)에 완공되었다. 묘표와 신도비에는 내수사內需司에서 숙종의 명을 받아 건립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도비는 능원대군의 아들 영은군寧恩君 이함李涵이 전서篆書를 쓰고 조상우趙相愚가 비문을 썼다. 신도비 뒷면에 최석정崔錫鼎이 지은 발문跋文도 새겨져 있다.

1
2

1. 능원대군 이보 묘역,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능원대군 이보 신도비, 촬영일미상_ 남양주시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16호

대은 변안렬 묘역

大隱 邊安烈 墓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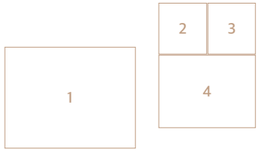
고려시대
일원
쌍분, 묘표 1기, 묘비 3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2기, 장명등 1기, 석양 1쌍, 망주석 2쌍, 문인석 1쌍, 차일석, 신도비 2기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산197

지정일 : 2002.09.16
소유자 : 원주변씨 종중
관리자 : 원주변씨 종중

원元나라 출신 무장武將인 대은 변안렬大隱邊安烈(1334~1390)의 묘이다. 변안렬의 본관은 황주黃州이며, 1351년(고려 충정왕3) 공민왕恭愍王을 따라 고려로 왔다. 공민왕은 변안렬을 판추밀부사 원개元顗의 딸과 혼인을 주선하고, 본관을 원주原州로 바꾸게 하여 원주 변씨의 시조가 되었다. 이후 변안렬은 황산대첩荒山大捷 등의 전투에서 승리해 추충량절선위익찬보조공신推忠亮節宣威翊贊補祚功臣에 책봉되었으며, 이후 영삼사사를 지내고 원천부원군原川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러나 말년에 이성계李成桂(1335~1488)를 제거하고 우왕禑王을 복위시키려 한다는 누명으로 유배되어 처형당했으며, 조선이 건국된 뒤에 복관되었다.

변안렬 묘는 양주 주엽산注葉山에 있었는데 인근에 세조 광릉光陵이 조영되면서 현재 위치인 풍양 오리동吾利洞(현 남양주 진건읍)으로 옮겼다. 이후 변안렬 묘소가 실전失傳되었다가 다시 찾은 뒤에 묘표를 건립했다. 현재 변안렬 묘는 봉분의 형태나 석물 등이 대부분 현대에 다시 제작되어 옛 모습을 찾기 힘들다. 다만 1571년(선조4)에 건립한 묘표가 신도비를 대신해 묘역 초입에 건립되어 있다.

변안렬 묘표는 6대 외손 박승임朴承任이 글을 짓고, 7대 외손 여성위 송인礪城尉宋人이 썼다. 이 묘표는 신도비에 버금가는 큰 규모로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 머리 앞면에는 구름과 달, 달에서 방아 찧는 토끼를 조각했으며, 뒷면에는 구름과 태양, 태양 속의 삼족오三足烏를 조각한 특별한 작품이다.



1. 대은 변안렬 묘역,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묘표 앞면,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묘표 뒷면,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대은 변안렬 묘표 전경,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1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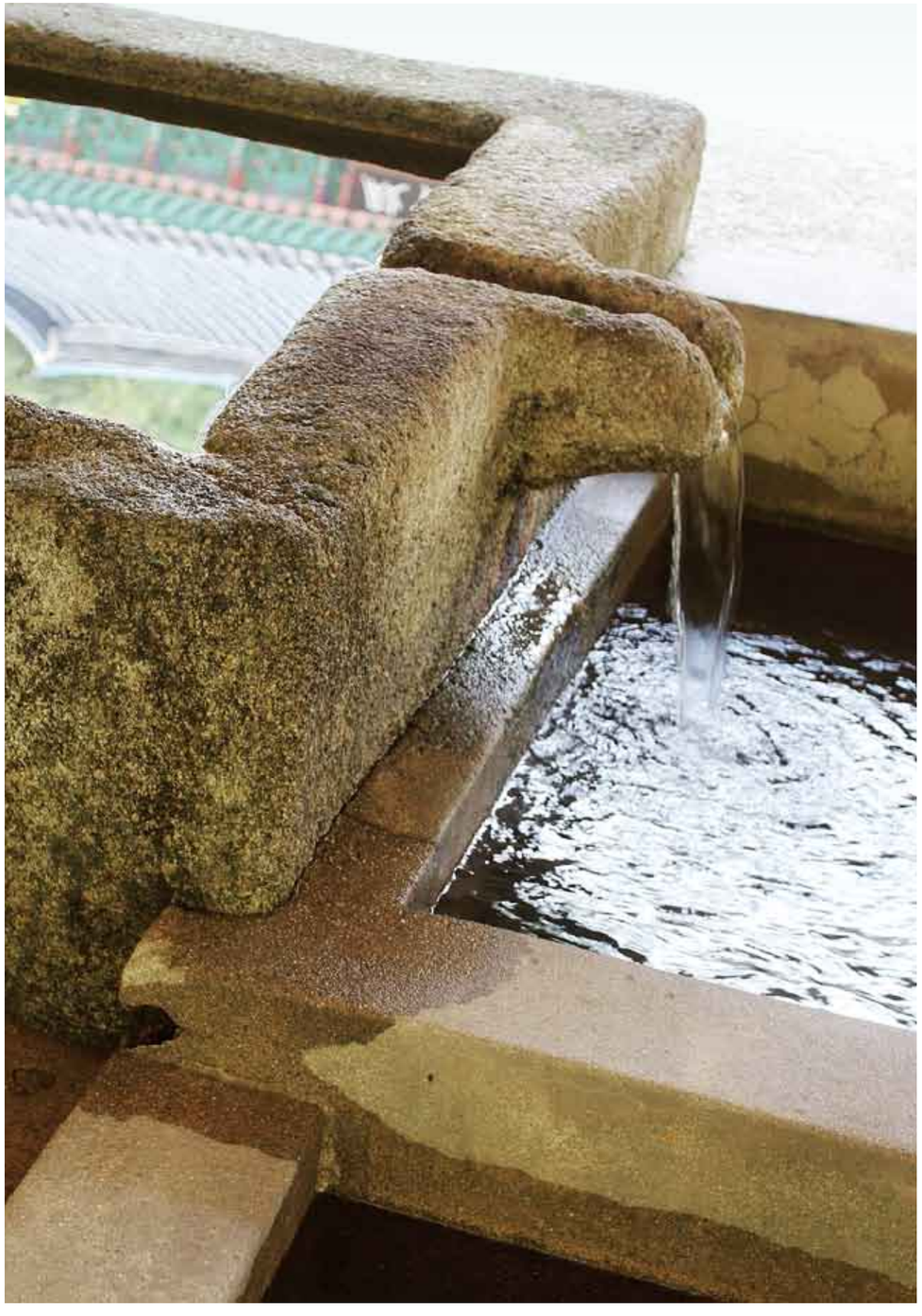
의정부 회룡사 석조

議政府 回龍寺 石造

조선시대
1기
90×244×153cm
석재(화강암)
의정부시 전좌로155번길 262

지정일 : 2003.04.21
소유자 : 회룡사
관리자 : 회룡사

1. 의정부 회룡사 석조, 2015_ 의정부시
2. 회룡사 석조,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의정부 회룡사 석조>는 의정부 도봉산 회룡사 경내에 남아있는 거대한 수조水槽이다. 이 석조는 화강암을 장방형으로 치석하고 내부 역시 장방형으로 파낸 형식으로 통일신라시대 이후 제작된 일반형을 따르고 있다.

수조는 서울 근교에서 가장 큰 편이다. 표면에 아무런 장식없이 각 면을 곱게 처리하였고, 내부도 특별한 장식없이 평평하게 다듬었다.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완만하게 안으로 다듬어져 있다. 밑면 한쪽의 둥근 배수공은 저장하던 물을 뺄 때 사용한 장치이다. 전면에는 U자형으로 돌출突出된 주구注口를 만들었는데, 홈과 끝을 부드럽게 처리하여 물이 차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내릴 수 있게 하였다. 현재 물을 담는 수조로 사용하지 않지만, 밑부분의 2개의 사각 수조가 단을 이루어 연결된 것과 수조와 맞닿은 벽면에 새로 제작한 석조용두石造龍頭가 있어 최근까지 물을 담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방형의 석조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사찰에서 제작되어 현존하는 유물이 많다. 장방형의 대표적인 석조는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경주 보문리 석조(보물 제64호), 고려시대에 제작된 보원사지 석조(보물 제102호)이다. 특히 보원사지 석조와 버금가는 회룡사 석조의 제작연대는 구체적인 문헌이 남아있지 않지만, 회룡사 경내에 남아 있는 오층석탑이나 노주 등의 석조물이 대부분 조선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이 석조 역시 조선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18호

의정부 회룡사 신중도

議政府 回龍寺 神衆圖

조선시대(1883년)
1폭
176×220cm
비단
의정부시 전좌로155번길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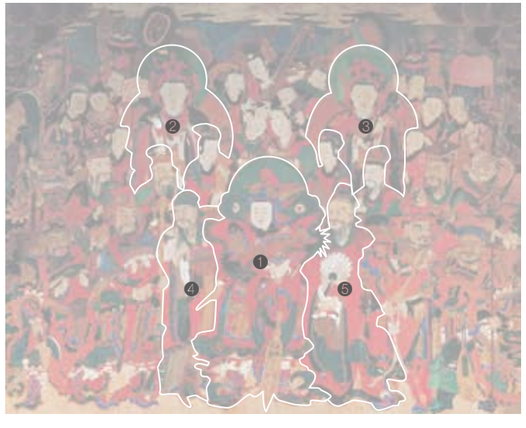
지정일 : 2003.04.21
소유자 : 회룡사
관리자 : 회룡사

<의정부 회룡사 신중도>는 의정부 도봉산 회룡사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후기의 신중도이다. 1883년(고종20)에 수락산 흥국사에서 불상 3구를 개금하고 시왕도 10축을 개채하는 불사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상궁 신씨申氏가 부모를 위해 발원하였다. 수화승首畵僧 경선당慶船堂 응석應碩이 출초出草하였으며, 작품昨品·진철震徹·긍법亘法·봉조奉祚와 함께 제작하였다.

위태천을 중심으로 상단 좌우에는 동일한 크기의 범천과 제석천을 배치하여 3위의 존상이 중심이 된 역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주위에는 권속들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다. 범천과 제석천이 중심이 된 상단에는 일월천자日月天子와 번幡, 기명器皿, 복숭아를 든 천동·천녀 등 천부중天部衆이 배치되었으며, 위태천을 중심으로 하는 하단에는 산신山神과 조왕신竈王神을 비롯한 천룡팔부天龍八部가 배치되어 있다. 산신과 조왕신은 토속신으로서 19세기 이후 신중신앙이 대중화됨에 따라 민간신앙과 결합하면서 나타난 도상이다.

전체적으로 적색을 주조색으로 설채하였으며 녹색·흑색·백색을 사용하여 색의 조화를 이루었다. 섬세하고 유연한 가는 선묘와 자연스런 동세의 인물표현, 밝은 청색을 자제하고 밝은 다홍색과 녹색 등 화사한 색을 사용한 점은 수화승 응석의 화풍을 잘 보여주지만, 번잡한 의습선의 표현 등 19세기 말 불화佛畵의 도식화된 표현도 엿보인다.

수화승 응석은 19세기 중반~20세기 초에 서울·경기지역, 특히 남양주 흥국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불화승이다. 현존하는 응석의 작품 중에는 신중도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 신중도는 1867년(고종4) 보문사 신중도의 초본을 기본으로 하여 화면 상단의 천동·천녀의 위치나 지물 등에서만 약간 변화를 주었다.



❶ 위태천(동진보살)
❷ 제석천
❸ 대범천
❹ 조왕신
❺ 산신

의정부 회룡사 신중도, 촬영일미상_ 성보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19호

양평 상원사 철조여래좌상

楊平 上院寺 鐵造如來坐像

조선시대
1구
45×26.5cm
금속
양평군 용문면 상원사길 292

지정일 : 2003.04.21
소유자 : 상원사
관리자 : 상원사

<양평 상원사 철조여래좌상>은 용문산 상원사 강원講院에 봉안되어 있다. 상원사는 1907년에 의병 소탕을 위하여 일본인들이 불을 질러 소실되었지만, 근래 대웅전과 요사, 강원을 세웠다.

강원 내에 주존불主尊佛로 봉안되어 있는 철불鐵佛은 새로 금을 칠하고 복장물을 넣었다. 불상은 중소형으로, 불신에 비하여 머리가 매우 크게 강조되었다. 머리 전체에 나발이 촘촘하게 붙어있고, 높이 솟은 육계와 정수리 부분에는 보주寶珠를 가지고 있다. 살이 찐 얼굴에 눈은 중국 명대明代 불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눈두덩이가 깊이 들어가고,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으며, 오뚝한 코, 미소를 머금은 입, 자연스러운 삼도를 가지고 있다.

대의는 양쪽 어깨를 덮은 통견으로 대의 안쪽에 편삼偏衫을 걸치고,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에 반원형으로 접혀 있는데, 중간쯤에 한 가닥의 깃이 밖으로 치켜 올라가 있다. 나머지 대의 자락은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이러한 표현은 불상의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지만, 우리나라 기년명紀年銘 불상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요소이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는 복부에서 띠로 묶어 양다리 사이에 끝단이 흘러 내려가 있다. 손은 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려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놓았는데, 이는 후보後補된 것으로 보여진다. 철조여래좌상은 높은 육계와 보주, 얼굴의 이목구비 처리, 착의법 등에서 명대 불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1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 2

1. 양평 상원사 철조여래좌상 정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상원사 철조여래좌상 배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20호

죽정 최유경 묘역

竹亭 崔有慶 墓域

조선시대
일원
쌍분, 묘표 2기, 상석 2기, 향로석 2기, 문인석 2쌍, 장명등 1기, 호석, 계체석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산1-1

지정일 : 2003.04.21
소유자 : 전주최씨 평도공파 종중
관리자 : 전주최씨 평도공파 종중

조선 개국공신 최유경崔有慶(1343~1413)을 모신 유택이다. 최유경은 전주최씨全州崔氏로 호는 죽정竹亭이다. 1372년(공민왕21) 판도좌랑, 이어 사헌장령이 되었다. 1375년(우왕1)에 전법총랑, 1388년 밀직부사에 올랐다. 1392년(조선 태조1)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되었다. 1397년에 지중추원사로서 경기충청도 도체찰사, 이듬해 경기우도관찰출척사가 되었다. 1398년 한양성 축성 및 남대문 축조를 감역監役했다는 상량문이 최근에 발견되었다. 1401년 정조사가 되어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오고, 1404년 판한성부사로서 사임했다. 태종 때 청백리淸白吏에 선정되었고, 시호는 평도平度이다.

묘역은 위로부터 최유경, 아들 최사강崔士康, 8대손 최노첨崔魯瞻 묘역이 차례로 조성되어 있고, 주변 능선에도 최유경의 아들인 최사위崔士威, 최사규崔士規 등 전주최씨의 묘역들이 위치하고 있다. 최유경 묘역의 봉분은 쌍분으로 셋째 부인 고성이씨固城李氏와의 합장묘이다. 묘역의 석물로는 묘비 2기, 상석·향로석 각 2기, 문인석 2쌍, 장명등 1기가 있다. 묘역은 계체석을 3단으로 조성하여 상·중·하계階로 구분하고 있다. 상계에는 각각 방형의 호석이 둘러진 쌍분, 그 앞에 원수방부 형식의 묘비가 세워져 있다.

최유경의 묘비는 1674년(현종15)에 9대손 최후량崔後亮이 건립한 것이다. 각각의 묘비 앞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이 배치되어 있다. 중계의 중앙에는 장명등을 설치하고 복두공복형 문인석을 좌우에 배치하였다. 하계에는 복두공복형 문인석이 좌우에 위치하고 있다. 변계량卞季良(1369~1430)이 지어서 1413년(태종13)에 세웠다는 묘갈은 없고, 현재는 최근에 새로 조성된 비가 상계의 좌측에 세워져 있다. 이 신비新碑에 의하면 원배元配와 계배繼配가 함께 부좌祔左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원배의 묘는 실전失傳되어 찾지 못하고 최근에 계배인 상락군부인 김씨上洛郡夫人金氏 묘를 이장하여 고성이씨 묘에 합장한 것이라고 한다.

1
2

1. 죽정 최유경 묘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죽정 최유경 묘역, 2015_ A&A문화연구소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21호

추연 우성전 묘역 (우하영 묘역 포함)

秋淵 禹性傳 墓域(禹夏永 墓域 包含)

조선시대
일원
우성전묘 쌍분,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쌍, 신도비 1기
우하영묘 쌍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79-1, 산71-1

지정일 : 2003.04.21
소유자 : 단양우씨 화수회
관리자 : 단양우씨 화수회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인 우성전禹性傳(1542~1593)과 조선후기의 실학자인 우하영禹夏永(1741~1812)의 묘이다. 우성전은 단양우씨丹陽禹氏로 호는 추연秋淵이다. 퇴계의 문인으로 1561년(명종16)에 진사가 되고, 1568년(선조1)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예문관 검열·홍문관수찬 등을 역임하였다. 1576년 수원현감으로 나가서는 명망이 높았으나, 그 뒤 한때 파직되었다가 다시 사헌부장령·사옹원정을 거쳐 1583년에 응교應敎가 되고 뒤에 여러 번 의정부사인을 역임하였다. 1591년(선조24) 정철鄭澈의 사건에 연좌되어 북인에게 배척되고 관직을 삭탈 당하였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풀려 나와 경기도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군호軍號를 추의군秋義軍이라 하고 식량을 조달하여 난민을 구제하였다. 강화도에 들어가서 김천일金千鎰(1537~1593)과 합세하여 전공을 세우고 강화도를 장악하여 남북으로 통하게 하였다. 그 뒤 여러 전과를 남겼으나 과로로 병을 얻어 경기도 부평에서 사망하였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우하영은 우성전의 7대손으로 호는 취석실醉石室이다. 그는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전국의 산천을 유람하고 사회실정을 체험하는 한편 옛 문헌과 당대 제가들의 논설을 널리 읽고 수집하여 국가·사회의 경영 및 개혁방안을 담은 『천일록天一錄』을 저술하였다.

우성전 묘역의 봉분은 쌍분으로 부인 양천허씨陽川許氏와의 합장묘이다. 묘역의 석물로는 묘비 1기, 상석·향로석 각 1기, 망주석 1쌍이 있고, 묘역에 이르는 도로 입구에 신도비 1기가 있다.

봉분 앞의 묘표는 원수방부圓首方趺의 형태이다. 묘역에 이르는 도로 입구에 있는 신도비는 팔작옥개석八作屋蓋石·비신碑身·기대基臺로 구성되어 있다. 비문은 성호星湖 이익李瀷이 찬撰한 글을 먼저 새기고, 7대손 우하영의 부탁으로 추기追記한 글을 뒤에 기록하였다. 글씨와 전액篆額은 이상천李相天이 쓴 것으로 1878년(고종15)에 건립한 것이다.

한편, 우하영 묘역은 우성전 묘역과는 직선거리로 약 50m 떨어진 숙곡리 산71-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묘역은 쌍분으로 부인 평산신씨平山申氏와의 합장묘이다. 묘역에는 쌍분만 조성되어 있고, 일체의 석물이 없다.

1. 추연 우성전 묘역,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추연 우성전 신도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우하영 묘역,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2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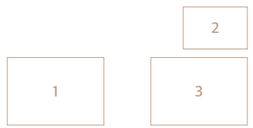
사제 김정국 묘역

思齊 金正國 墓域

조선시대
일원
쌍분, 묘표 1기, 상석 1기, 혼유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2기, 장명등 1기, 계체석, 신도비 1기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산123

지정일 : 2003.04.21
소유자 : 의성김씨 문목공파 종친회
관리자 : 의성김씨 문목공파 종친회

조선중기 문신으로 형인 모재 김안국慕齋金安國과 더불어 기묘사화己卯士禍에 해를 입었던 사제 김정국思齋金正國(1485~1541)의 묘이다. 인물이다. 김정국은 10대에 부모를 모두 여의고 이모부인 조유형趙有亨의 보살핌을 받으며, 김굉필金宏弼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김정국은 1512년(중종7) 부교리가 되어 동료들과 문종 비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복위를 주장하고 성사시켰다.
이후 기묘사화로 탄핵받아 고양의 망동芒洞에 은거하기도 했으나, 1538년(중종33) 복직되어 전라도관찰사, 중추부사, 돈녕부사 등을 지냈다. 시호諡號는 문목文穆이다.
김정국 묘는 계배繼配인 경주이씨慶州李氏의 묘와 함께 쌍분雙墳으로 조성되어 있다. 묘소의 석물로는 묘표, 상석, 향로석, 망주석, 장명등, 문인석 등이 있다. 묘역 하단에는 신도비도 건립되어 있다.
김정국 묘표는 원수방부圓首方趺 형태로 1546년(명종원)에 건립되었으며, 앞면에 '嘉善大夫禮曹參判金正國之墓, 정부인경주이씨지묘貞夫人慶州李氏之墓(가선대부예조참판 김정국지묘)'라고 새겨져 있다.
신도비는 묘표와 마찬가지로 원수방부 형태이며, 김정국의 손자 김요립金堯立(1550~?)이 마련한 석재에 박세채朴世采(1631~1695)가 지은 비문을 새겨 1691년(숙종17)경 건립했으나 비문이 마모되어 1908년에 다시 건립한 것이다.



1. 사제 김정국 묘역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사제 김정국 묘역 정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사제 김정국 묘역 후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24호

가평 현등사 지장십왕도

加平 懸燈寺 地藏十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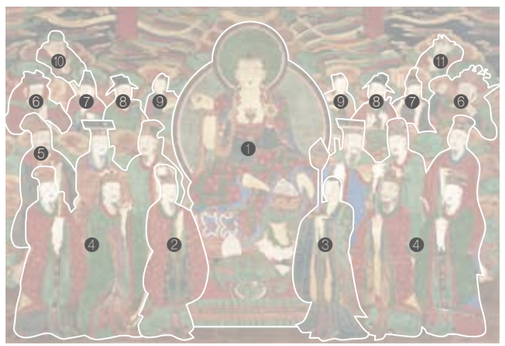
조선시대
1폭
151×212cm
비단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34

지정일 : 2003.09.08
소유자 : 현등사
관리자 : 현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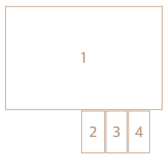
<가평 현등사 지장십왕도>는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 지장전에 봉안된 조선후기의 지장십왕도이다. 원래 극락전의 아미타회상도阿彌陀會相圖(경기도유형문화재 제185호) 좌우에 신중도와 함께 봉안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지장전에 후불탱으로 봉안되어 있다.

화면의 구성은 본존인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시왕十王·판관判官·사자使者·우두옥졸牛頭獄卒·마두옥졸馬頭獄卒·앙발仰髮의 옥졸·선악동자善惡童子 등 명부권속 등이 4단으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지장보살은 체발剃髮의 승형僧形으로, 활짝 핀 백색연화 위에 왼발을 올려놓은 채 앙련仰蓮과 복련覆蓮을 맞댄 연화대좌 위에 반가좌하였다.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들어 첫째와 셋째 손가락을 살짝 맞대고 왼손은 왼쪽 무릎 위에 놓았다. 보살은 녹색의 띠와 백색의 화문이 그려진 적색 조의가사條依袈裟를 걸쳤으며, 가사자락은 화려한 금색의 금구장식으로 고정되어 있다. 둥글고 원만한 얼굴에는 가늘고 섬세한 필선으로 이목구비가 묘사되었는데, 입이 유난히 작은 것이 특징이다. 지장보살의 무릎 부근 좌우로는 협시인 무독귀왕과 도명존자가 서로 마주보며 서 있다. 무독귀왕은 합장을 한 반면 도명존자는 두 손으로 지장보살의 지물인 석장錫杖을 대신 들고 있다. 시왕은 관복에 관모를 쓰고 홀을 들거나 합장 또는 수염을 쓰다듬는 등 자유로운 자세를 취하였다. 좌우에 각각 한 왕씩 책관冊冠을 쓰고 있으며, 제10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은 다른 대왕들과 달리 관 속에 검은 탕건을 쓰고 어깨에는 넓은 스카프같은 것을 둘렀다. 시왕의 위로는 공양물이 든 과반을 든 선악동자와 판관, 사자, 앙발의 옥졸, 그리고 제일 윗단 가장자리에는 우두옥졸과 마두옥졸이 각각 합장한 채 서있다. 화면 상단은 구름과 오색의 색대色帶, 반원형의 보개寶蓋로 가득 채워져있다.

이 지장시왕도는 화기가 결실되어 정확한 제작연대와 조성화원 등을 알 수 없지만, 밝고 선명한 적색과 녹색을 주조로 하여 청색·황색·호분 등을 함께 사용한 설채법, 능숙하면서도 섬세한 철선묘鐵線描, 번잡하지 않으면서 채색과 조화를 이루는 대의의 원문, 안정된 자세 등의 특징이 1759년(영조35)에 조성된 극락전 아미타회상도와 동일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1759년에 아미타회상도와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❶ 지장보살
❷ 무독귀왕
❸ 도명존자
❹ 시왕
❺ 오도전륜대왕
❻ 앙발의 옥졸
❼ 사자
❽ 판관
❾ 선악동자
❿ 우두옥졸
⓫ 마두옥졸



1. 가평 현등사 지장십왕도, 2013_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 지장보살 금구장식,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지장보살 석장,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오도전륜대왕,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25호

가평 현등사 칠성정화

加平 懸燈寺 七星幀畵

조선시대
1폭
203×182cm
비단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34

지정일 : 2003.09.08
소유자 : 현등사
관리자 : 현등사

<가평 현등사 칠성정화>는 가평군 현등사에 있는 조선후기의 불화로 삼성각 내에 모셔진 칠성도七星圖이다. 칠성도는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도교의 칠성신앙이 불교로 흡수된 후, 104위의 화엄신중華嚴神衆에 포함되면서 독립된 신앙으로 발전하였다. 정방형 형태의 화면에는 치성광여래삼존을 중심으로 칠성여래와 칠원성군 등 권속들을 한 화면에 그려 넣었다.

칠성도는 1861년(철종12)에 삼각산三角山 화계사華溪寺에서 운악산雲岳山 현등사로 옮겨진 불화인데, 상궁양씨尙宮梁氏 및 청신녀淸信女 김씨 등 왕실의 상궁과 일반 청신녀가 시주하여 조성한 것이다. 전체 크기는 가로가 약간 긴 정방형 형태로 비단바탕에 채색하였다.

화면의 구성은 중앙에 바퀴가 달린 수레 위 연화대좌에 앉아 있는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를 중심으로 일광·월광보살이 협시하고 있고, 그 좌우에 북두칠성을 부처로 의인화한 칠여래七如來, 도교와 관련된 칠원성군七元星君·남극노인南極老人·동자와 칠원성군七元星君·삼태육성三台六星·이십팔수二十八宿·자미대제紫薇大帝 등 권속들이 모두 60명으로 칠성도 중에서는 비교적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치성광여래는 원형의 두광과 신광에 가부좌한 모습이며 적당한 신체비례에 안정된 자세로서 구름을 타고 천상에서 하강하고 있다. 높은 육계, 근엄한 얼굴에 가늘고 작은 눈, 넓게 벌어진 눈썹, 작은 입을 묘사하였고 의복은 두 어깨를 덮는 통견의 법의를 걸쳤다. 치성광여래가 탄 수레는 구름 속에서 일각수의 흰 소가 힘차게 끌고 가는 형상으로 역동적인 인상을 준다.

현등사 칠성도는 비단 바탕에 진채색을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인 설채법은 녹색과 적색을 위주로 사이마다 백색을 가미하였다. 전체적으로 구도가 획일적이어서 생동감은 결여되어 있지만, 본존불을 중심으로 주요 권속들을 배치하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인물들을 작게 묘사하여 안정감과 원근감을 준다. 당시 칠성신앙의 성격이나 19세기 중반의 불화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❶ 치성광여래
❷ 월광보살
❸ 일광보살
❹ 칠성여래
❺ 자미대체
❻ 남극노인
❼ 칠원성군
❽ 삼태육성
❾ 이십팔수

3

1 2

1. 이십팔수,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남극노인,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가평 현등사 칠성정화, 2013_ 금강문화유산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26호

가평 현등사 독성도

加平 懸燈寺 獨聖圖

조선시대(1875년)
1폭
117.5×139.5cm
비단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34

지정일 : 2003.09.08
소유자 : 현등사
관리자 : 현등사

<가평 현등사 독성도>는 가평군 현등사에 있는 조선후기의 불화로 삼성각 내에 모셔진 독성도이다. 독성도는 스승없이 홀로 수련하여 도를 깨우친 성인(성자)인 나반존자那畔尊者를 그린 것으로 특별히 복을 받으려는 불교 신자들의 경배 대상이다.

화기에 의하면 1875년(고종12) 삼각산 화계사에서 열린 산림회山林會 중에 상궁장씨尙宮張氏가 발원하여 조성한 것이다. 칠성도와 함께 화계사華溪寺에서 옮겨온 것으로, 비단 바탕에 진채색을 사용하여 그렸다.

화면 중앙에는 흰 눈썹과 수염을 갖춘 늙은 스님 형상의 독성獨聖이 머리에는 녹색 두광頭光을 두르고 온화한 표정의 얼굴로 기암괴석 위에 앉아 있다. 의복은 백색내포 위에 녹색 두루마기를 입고 그 위에 붉은 가사를 걸쳤다. 한 손은 바닥을 짚고 다른 손은 긴 지팡이를 잡고 세운 다리 위에 자연스럽게 걸친 모습이다. 독성의 오른쪽(화면의 왼쪽)에는 소나무가 있고 그 아래 바위 절벽과 세 발 달린 향로와 필통이 그려져 있으며, 아래 기암절벽 사이로는 폭포와 강이 묘사되어 있다. 맞은편으로 모란꽃과 새 한 마리가 날고 있다.

전체적으로 채색은 녹색과 황토색을 중심으로 청색과 홍색을 적절히 사용하였다. 배경의 산수 표현과 청색하늘, 모란꽃 등은 당시 유행한 민화民畵에 보이는 중요한 소재로서, 조선말기 독성도의 전형적 구도와 표현기법을 따른 작품이다. 19세기 후반 왕실과 관련된 인물 및 제작 시기까지 알 수 있는 작품이다.

❶ 나반존자
❷ 석장
❸ 소나무
❹ 기암절벽
❺ 향로
❻ 필통
❼ 폭포
❽ 모란꽃

1

2 3

1. 가평 현등사 독성도, 2013_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 향로와 필통,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새와 모란꽃,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27호

구 대부면사무소

舊 大阜面事務所

1933년
1동
5×3칸
목재, 석재, 벽돌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7-9

지정일 : 2004.05.17
소유자 : 안산시
관리자 : 안산시

대부면은 1913년부터 사용하던 면사무소가 낡고 협소하여 1927년부터 새로 지으려 했으나, 궁핍하여 포기했다. 1932년에 마을 주민이 기성회를 조직하여 건축비를 마련하였다. 다음 해에 대부면에 사는 홍성균과 건축을 계약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공사를 거쳐 1934년 3월 20일에 준공했다. 1933년 4월 5일에 설치한 상량문이 남아있다. 대부면사무소는 앞면 5칸, 옆면 3칸이다. 건물의 뼈대와 지붕은 목조이지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아랫쪽 벽을 붉은 벽돌로 쌓았다. 벽돌벽의 윗부분은 유리창이거나 흰 벽이다. 또한, 앞면 중앙에 기와지붕이 있는 현관을 덧붙이는 등 근대공간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보인다. 평면에도 근대행정 기능을 수행하던 업무 공간의 영향이 나타난다. 내부 벽체가 남아 있지 않지만 지붕과 기둥의 흔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현관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공간을 나눴으며 중간 칸과 왼쪽 칸에 복도를 두어 업무 공간을 구분했다.
기단에 길게 다듬은 돌을 놓고, 화강석을 직육면체로 다듬은 주춧돌 위에 사각기둥을 세웠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얹은 나무도리는 네모 반듯하다. 천장은 서까래를 노출한 연등 반자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현관문은 나무판을 얇게 만들어 연결한 널판문이며, 개량형 목재 창은 9개가 있다. 내부 바닥은 마루였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현재는 비닐 타일이다.
일제강점기에 건립한 공공시설은 벽돌 구조나 일본식 목골조가 많았던 것과 달리 대부면사무소는 일제강점기 중반에 전통 건축이 근대건축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1. 구 대부면사무소 천장부,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구 대부면사무소, 2008_ 안산문화원
3. 구 대부면사무소,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28호

원호·원두표 묘역

元豪·元斗杓 墓域

조선시대
일원
원호 묘 단분, 묘비 1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계체석, 신도비 1기
원두표 묘 단분, 묘비 1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계체석, 신도비 1기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 산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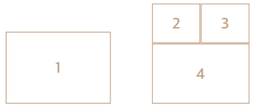
지정일 : 2004.05.17
소유자 : 원주원씨 충장공파 종중
관리자 : 원주원씨 충장공파 종중

임진왜란 때 순절殉節한 무관인 충장공 원호忠壯公元豪(1533~1592)의 묘이다. 원호는 임진왜란 때는 여주 신륵사神勒寺에서 적을 크게 무찔러 여주목사에 임명됐다. 이후 김화金化에서 적의 공격이 심해지자 낭떠러지로 몸을 던져 순절했다. 사후 좌의정으로 추증追贈되고, 원창부원군原昌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충장忠壯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원호의 묘는 부인 상주김씨尙州金氏와의 합장묘로 조성되었으며, 묘표·상석·향로석·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옥개방부屋蓋方趺 형태의 묘표는 1708년(숙종34)에 건립된 것으로 권상하權尙夏가 글을 지었다. 상석에는 '朝鮮驪州牧使 贈左議政 諡忠壯元公墓(조선여주목사 증좌의정 시충장원공묘) 貞敬夫人金氏祔(정경부인김씨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묘역 아래에는 1768년(영조44) 건립된 옥개방부 형태의 신도비가 있는데 비문은 최규서崔奎瑞가 지었으며, 7세손 원인손元仁孫이 쓰고, 김시묵金時默이 전자篆字를 썼다.

원두표元斗杓(1593~1664)는 충장공 원호의 손자이다. 원두표는 광해군 재위 시에는 출사하지 않고 인조반정에 가담해 정사공신 원평군原平君에 봉해졌다. 이후 벼슬은 좌의정에 오르고, 원평부원군原平府院君에 봉해졌다. 사후 내려진 시호諡號는 충익忠翼이다.

원두표 묘는 조부 원호 묘 아래에 있으며, 부인 삭녕최씨朔寧崔氏와의 합장묘이다. 석물은 묘표(1709)·상석·혼유석·망주석·문인석이 있으며 묘 아래에 신도비(1765)가 건립되어 있다. 원두표 묘표는 이여李畬가 지은 것이며, 상석에 '有明朝鮮國 靖社功臣 左議政 世子傅 原平府院君 諡忠翼 元公斗杓墓(유명조선국 정사공신 좌의정 세자부 원평부원군 시충익 원공두표묘), 貞敬夫人朔寧崔氏祔左(정경부인삭령최씨부좌)'라고 새겨져 있다. 신도비는 김원행金元行이 비문을 짓고, 이최중李最中이 썼으며, 민진원閔鎭遠이 전자篆字를 썼다.



1. 원호·원두표 묘역,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원호 묘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원두표 묘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원호·원두표 신도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29호

죽서 원몽린 묘역

竹西 元夢麟 墓域

조선시대
일원
단분, 묘표 1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계체석, 호석, 곡장, 신도비 1기
여주시 대신면 상구리 산11-110

지정일 : 2004.05.17
소유자 : 원주원씨 충장공파 종중
관리자 : 원주원씨 충장공파 종중

1. 죽서 원몽린 묘역,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죽서 원몽린 신도비,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 효종의 부마인 원몽린元夢麟(1648~1674)의 묘이다. 원몽린은 원주원씨原州元氏로 호는 죽서竹西이다. 1659년(효종10) 효종의 여섯 번째 공주인 숙경공주淑敬公主와 혼인하여 흥평위興平尉가 되었고, 후에 흥평군興平君에 봉해졌다. 1672년(현종13)에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의주까지 갔으나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돌아왔다. 여러 차례에 걸쳐 도총부도총관을 지냈다. 시호는 효헌孝憲이다.

묘역의 봉분은 단분으로 부인 숙경공주와의 합장묘이다. 석물로는 묘비 1기, 상석·향로석 각 1기, 망주석·문인석 각 1쌍 및 계체석 등이 있다. 봉분은 원형의 호석을 두르고 있고 봉분 주위에는 곡장이 설치되어 있다. 봉분 중앙 앞의 묘표는 원수방부圓首方趺의 형태로, 비신은 하얀색이 감도는 대리석을 사용하였고, 방부는 화강암을 사용하였다. 묘역 좌우에는 망주석과 그 앞쪽으로 문인석이 각각 1쌍씩 배치되어 있다. 망주석은 좌우측 모두 올라가는 형태의 쥐 모양이 양각되어 있다. 문인석의 형태는 양관조복梁冠朝服에 홀笏을 들고 있는 형상이다. 조복의 앞면에는 홀을 쥔 손등으로 부터 포袍의 주름이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고, 뒷면에는 연화문양이 있는 대대大帶와 여의운문이 양각되어 있는 후수後綬를 묘사하였다. 묘역을 둘러싸고 있는 곡장은 좌우 측면만 높게 조성되어 묘역을 보호하고 있고, 후면은 3단의 석축으로만 쌓고 뒤쪽에 조성되어 있는 묘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돌계단을 조성한 것이 특징적이다. 뒤에 조성되어 있는 묘역은 아버지인 원만리元萬里(1624~1672)의 묘소이다. 원몽린 묘역은 효종의 부마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바로 뒤에 조성된 아버지 원만리의 묘역과 묘역조성에 있어서 예우의 차원이 확연히 보인다.

묘역에 이르는 입구에는 신도비 1기가 배치되어 있다. 신도비의 형태는 팔작옥개석·비신·기대의 구조이다. 비문은 이의현李宜顯(1669~1745)이 찬撰하고, 비문은 진晋나라 왕희지王羲之의 글씨를 집자集字하여 새기고, 당唐나라 이양빙李陽氷의 글자를 집자하여 전액篆額을 하였다. 건립연대는 1761년(영조37)이다. 후면의 추기追記 역시 당唐의 명필이었던 유공권柳公權의 글자를 집자하여 새긴 것이다. 이 신도비는 중국 명필 3명의 글씨를 집자하여 만든 것으로 금석학사金石學史 및 서예사의 귀중한 유물이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0호

용재 성현 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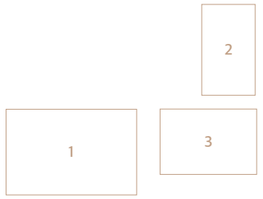
慵齋 成俔 墓域

조선시대
일원
쌍분, 묘갈 1기, 혼유석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문인석 1쌍, 산신석 1기, 계체석, 신도비 1기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산60-1

지정일 : 2004.05.17
소유자 : 창령성씨 문대공파 종중
관리자 : 창령성씨 문대공파 종중

조선 문신인 용재 성현慵齋成俔(1439~1504)의 묘이다. 성현의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경숙磬叔, 호는 용재慵齋·부휴자浮休子·허백당虛白堂 등이며, 시호는 문대文戴이다. 성현은 대사간·대사성·대제학·예조판서 등의 벼슬을 지냈다. 성현은 문재文才를 타고나 여러 차례 명나라로 사신을 가면서 사행록使行錄 저술하고, 조선에 오는 명나라 사신들과 창수唱酬하여 그들을 탄복하게 했다. 또한 성현은 음률音律에도 정통하여 장악원제조를 겸했으며, 예조판서로 유자광柳子光 등과 당시의 음악을 집대성하여 『악학궤범樂學軌範』을 편찬했다. 더불어 성종의 명으로 고려가사 중에서 「쌍화점雙花店」 등을 고치기도 했다. 1504년(연산군10)에 『용재총화慵齋叢話』를 저술했으며, 문집으로는 『허백당집虛白堂集』이 남아 있다. 성현은 죽은 뒤 수 개월 만에 갑자사화가 일어나 부관참시剖棺斬屍 당했으나 곧 신원伸寃되었다.

용재 성현 묘의 봉분은 쌍분으로 부인 한산이씨韓山李氏와의 합장묘이다. 석물로는 묘갈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문인석 2기가 배치되어 있다. 본래 문인석과 함께 무인석이 제작되어 배치되었는데, 2006년 무인석이 도난당했다. 현재 문인석은 16세기 석물이며,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 묘갈墓碣(1992년 건립) 등 그 외 석물은 근래의 작품들이다.



1. 용재 성현 묘역,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용재 성현 묘의 도난당한 무인석, 2005_ 문화재청
3. 용재 성현 묘,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1호

안성 법계사 신중도

安城 法界寺 神衆圖

조선시대(1874년)
1폭
157×142cm
비단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15

지정일 : 2004.11.29
소유자 : 법계사
관리자 : 법계사

<안성 법계사 신중도>는 본래 1874년(고종11) 안성 청룡사에서 미타삼존, 관음, 지장 등을 개금하고, 영산회상도, 신중도 등을 조성하면서 함께 조성되어 관음전에 봉안되어 있었다. 이후 1959년 법계사가 창건되고 1972년 대웅전이 건립된 이후 안성 청룡사 대웅전으로 옮겨와 봉안되었다.

안성 법계사 신중도를 그린 화승은 한봉창엽漢峰瑲燁, 춘만春晩, 선화善花로, 수화승 한봉창엽은 성운영희惺雲永羲를 이은 금곡영환(1858~1900년 활동)과 같이 활동한 인물로 1850년대부터 19세기 말까지 서울 근교 수락산 흥국사를 본거지로 서울, 경기, 강원, 충청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안성 법계사 신중도는 화면을 2등분하여 상단에 범천과 제석천을, 하단에 위태천을 배치하여 역삼각형의 구도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범천과 제석천 주변에는 주악천녀와 동자, 천자 등이 배치되고 위태천 주변에는 무장상들이 빈틈없이 자리하고 있다. 주존을 중심으로 역삼각형의 구도를 취하면서도 위태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19세기 후반 신중도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적색을 위주로 녹색과 청색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색의 조화를 이루었고, 부분적으로 금니를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인물의 자세, 의습선, 동작 등의 세부묘사와 공간 처리 등은 조선말기 불화의 시대적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❶ 위태천(동진보살)
❷ 제석천
❸ 대범천
❹ 천자
❺ 조왕신
❻ 산신

안성 법계사 신중도, 촬영일미상_ 성보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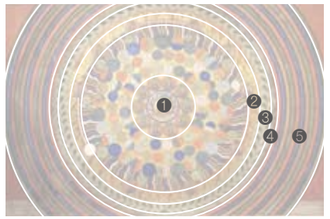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2호

안성 법계사 화장찰해도

安城 法界寺 華藏刹海圖

1911년
1폭
154×232cm
비단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15

지정일 : 2004.11.29
소유자 : 법계사
관리자 : 법계사



❶ 10개비로자나불
❷ 금강륜산
❸ 대연화
❹ 향수해
❺ 11개의 풍륜

1. 안성 법계사 화장찰해도,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화장찰해도의 비로자나불,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안성 법계사 화장찰해도>는 1911년 청룡사 내원암에서 제작되어 봉안되어 있다가 1959년 법계사가 창건되고 1972년 대웅전이 건립된 이후 안성 청룡사 대웅전으로 옮겨와 봉안되었다. 불화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화원이었던 환월상휴煥月尙休·하운창오河雲昌旿·명수明洙·경오景旿가 그렸다.

이 불화는 직사각형 화면에 『화엄경華嚴經』에서 설한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가 표현되어 있다. 『화엄경』 중 「화장세계품華藏世界品」은 보현보살이 대중에게 비로자나불의 서원과 수행으로 이루어진 연화장세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연화장세계는 맨 밑에 풍륜風輪이 있고, 그 위의 향수해香水海에는 대연화大蓮花가 떠 있다. 대연화 안에는 무수한 세계가 존재한다. 이 세계는 20중으로 중첩된 중앙세계를 중심으로 110개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불佛이 출현하여 중생들 속에 충만하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11개의 동심원을 둘러 연화장세계를 받치는 11개의 풍륜을 표현하였다. 그 안쪽으로 물결치는 향수해와 대연화가 둘러싸고 있으며, 비로자나불의 정토인 연화장세계를 받치고 있다. 대연화 안쪽으로는 금강륜산金剛輪山이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연화장세계의 다양한 세계종世界種이 가운데 큰 원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화면 중앙의 원과 주변의 작은 10개의 원에는 지권인을 한 비로자나불이 표현되어 있으며, 다시 작은 원은 바깥쪽을 향해 방사선으로 퍼져 있다. 이들 원에는 화장세계품의 세계종 명칭을 적어놓았다.

색채는 밝은 적색, 녹색, 남색, 황색, 흰색 등을 사용하였으며 금강륜산과 중앙의 바람을 금니金泥로 채색하였다. 현존하는 화장찰해도는 1894년(고종31) 예천 용문사 화장찰해도, 1899년(고종36) 통도사 화장찰해도, 19세기 후반에 그려진 개인소장 화장찰해도 3점이 알려져 있다. 이 중 안성 법계사 화장찰해도는 용문사 화장찰해도와 도상 및 내용이 흡사하여 경상도에서 활동했던 화승들의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주 신륵사 삼층석탑,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3호

여주 신륵사 삼층석탑

驪州 神勒寺 三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259cm
석재(화강암)
여주시 신륵사길 73

지정일 : 2004.11.29
소유자 : 신륵사
관리자 : 신륵사

<여주 신륵사 삼층석탑>은 다층전탑으로 인근 강변 암반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층기단을 구비한 평면방형의 3층 석탑이다. 넓직한 1매 판석으로 구성된 지대석의 외곽에는 높직한 1단의 각형 받침을 마련한 후 중앙에 호각형 2단의 받침을 조출해 기단을 놓았다. 기단은 1매의 석재로 조성했는데, 각 면에는 양 우주와 탱주를 모각했다. 갑석 역시 1매의 석재로 놓았는데, 각 면 3구씩 그리고 모서리에 1구씩 모두 복엽 16판의 복연複蓮을 조식했다. 중앙에는 낮고 높은 각형 2단의 받침을 조출해 탑신부를 놓았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1석으로 조성되었다. 매층 탑신석에는 양 우주가 모각되었는데, 1층 탑신은 2층에 비해 3배정도 높게 조성되었다. 현재 3층 탑신석은 결실되었다. 옥개석은 3층 모두 잔존하고 있다. 낙수면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해 둔중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하면에는 1·2층은 각형 3단, 3층은 각형 2단의 받침이, 상면에는 각형 2단의 탑신받침이 조출되었다. 상륜부는 모두 결실되었다.

이 석탑은 『신륵사동대탑수리비神勒寺東臺塔修理碑』에 의하면 전통적인 가람배치법에 의해 건립된 것이 아니라 나옹선사懶翁禪師(1320~1376)의 자취를 기념하고 그의 덕을 기리기 위해 다비한 장소에 세워진 일종의 기념탑이다. 비문과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4호

여주 신륵사 원구형석조부도

驪州 神勒寺 圓球型石造浮屠

조선시대
1기
높이 223cm
석재(화강암)
여주시 신륵사길 73

지정일 : 2004.11.29
소유자 : 신륵사
관리자 : 신륵사

여주 신륵사는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상당한 규모의 가람을 유지하면서 번성했던 사찰이었다. 신륵사 원구형圓球形 부도는 스님의 유골이나 사리 등을 봉안했던 조형물로 명부전 뒤편으로 형성된 낮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데, 원래는 조사당 북쪽으로 형성된 구릉 너머에 있던 것을, 1966년 11월 경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고 한다.

이 부도는 사각형의 지대석 위에 곧바로 중대석이 올려 있는데, 원래는 별도의 하대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석은 가로와 세로로 연주문을 장식하여 각 면을 구분하고 안상을 새겨 넣었다. 상대석은 하부에 여러 겹으로 표현된 연화문을 새겼으며, 수평으로 치석된 상면에도 보기 드물게 연화문을 새겨 장식적인 기교를 보이고 있다. 탑신석은 전형적인 원구형으로 표면에 명문이나 문양은 없다. 옥개석은 목조건축물의 좌우 측면을 번안한 전각형殿閣形으로 마련되었다. 옥개석의 하부는 낮은 받침대를 표현하고 모서리에는 추녀와 사래를 번안하였으며, 낙수면에는 기와등이 높게 표현되고, 합각부에는 마루부와 그 끝에 용두龍頭 형상을 배치하였다. 상륜부는 하엽형의 받침대와 연주문이 장식된 복발과 보주를 올려 마무리하였다.

이 부도는 하대석이 결실되었지만 각 부재의 치석 수법과 양식 등이 전형적인 조선후기 양식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부도의 옥개석 마루 끝에 표현된 용두는 조선초기 왕실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회암사 무학대사 부도나 청룡사 보각국사 부도 등을 중심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도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주인공이 상당한 법계를 가졌던 승려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석과 옥개석의 치석 수법과 장식 등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걸쳐 건립된 조선후기 부도들과 양식적으로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3

1 2

1. 옥개석 마루 끝에 표현된 용두,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상대석 상면 연화문,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여주 신륵사 원구형석조부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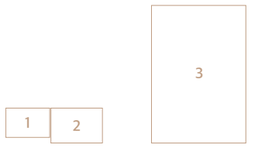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5호

양주 회암사 지공선사 부도비

楊州 檜巖寺 指空禪師 浮屠碑

조선시대
1기
높이 370cm
석재
양주시 회암동 산8-1

지정일 : 2004.11.29
소유자 : 회암사
관리자 : 회암사



1. 양주 회암사 지공선사 부도비, 1981_ 여주시
2·3. 지공선사 부도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양주 회암사지 북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 회암사가 있다. 지공선사 부도 및 석등은 회암사 옆 동쪽 능선에 위치해 있으며, 부도비는 그 앞에 있다. 부도비는 탑비塔碑로도 불린다. 탑비란 일반적으로 고승이 입적한 후 부도(승탑)와 함께 건립된 비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탑비는 신라 하대(780~935년)에 본격적으로 출현한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전해지고 있다. 부도와 탑비는 고승 개인의 행적을 추모하는 기념물적인 성격도 있었지만 산문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표상하는 상징물이기도 하였다. 탑비는 부도가 건립된 이후 시차를 두고 조성되었다. 그 이유는 비문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비문 작성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탑비는 승려의 입적과 함께 건립이 진행된다. 하지만 승탑과 탑비의 건립은 모든 승려들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 국사國師에 상당하는 예우를 받았거나 그러한 지위에 추증된 승려들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국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건립될 수 있었던 조형물이다.

지공(?~1363)은 인도의 승려로 법명은 디야나바드라(Dhyana-hadra, 提納薄陀, 禪賢)이다. 13세기말 원나라에서 활동하였다. 2년 7개월간 고려를 방문한 이후 고려불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지공은 1361년(공민왕9) 입적하였으며 그의 입적 소식은 1367년 고려에 알려졌다. 1370년 지공의 유골이 고려에 오자 왕이 직접 유골을 머리에 이고 궁중으로 옮겼다고 한다. 1372년(공민왕21) 왕명으로 회암사에 부도를 세웠다.

지공부도비는 비의 상부에 지붕돌이 올려져 있으며 방형의 받침이 있는 옥개방부형屋蓋方趺形 비다. 옥개석이 올려있는 비는 주로 조선후기에 유행한 양식이다. 원래의 지공선사 비는 이색李穡이 왕명을 받들어 짓고, 통훈대부 황주목사 이희현李羲玄이 썼으나, 비문의 마지막에 '숭정기원후사무자오월崇禎紀元後四戊子五月'이라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비가 1828년(순조28) 새롭게 건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지공부도비 옆에는 귀갑 위에 지붕돌이 올려있는 귀부가 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6호

풍산군 이종린 묘역

豊山君 李宗鱗 墓域

조선시대
일원
단분, 묘표 1기, 상석 1기, 혼유석 1기, 향로석 1기,
문인석 1쌍, 망주석 1쌍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264-5 외

지정일 : 2005.10.17
소유자 : 전주이씨 풍산군파 종중
관리자 : 전주이씨 풍산군파 종중

조선 중종의 손자이자 덕양군 이기德陽君李岐의 아들인 풍산군 이종린豊山君李宗鱗(1538~1611)의 묘이다. 13세에 풍산정豊山正에 제수되고, 16세에 순회세자順懷世子상례喪禮 집사자執事者가 된 뒤 도정都正에 올랐다. 또 문정왕후文定王后의 혼전魂殿 숙직 뒤에 봉군封君되었다. 임진왜란에서는 선조의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했으며, 1593년(선조26)에는 중종 정릉靖陵을 봉심奉審하기도 했다.
이후 종1품 소덕대부로 종친부의 일을 관장하고 사옹원 제조와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대兼帶하였으며, 사후 현록대부에 추증되었다. 풍산군은 명종과 선조가 친애했으며, 특히 명종은 수시로 풍산군을 궁으로 불러 소대召對하기에 멀리 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풍산군 묘는 부인 금원군부인錦原郡夫人 나주박씨羅州朴氏와의 합장묘이며 봉분은 8각의 호석護石이 둘러져 있다. 호석은 지대석地臺石 위에 호석을 올려놓은 형태로 조선전기와는 다른 형태이다. 봉분 앞에는 묘표·혼유석·상석·향로석·문인석 등이 건립되어 있다.
이 석물들은 당시로서는 소박한 형태로 제작한 것이며, 신도비도 건립되어 있지 않다. 풍산군의 아들 귀천군龜川君 이수李晬가 '선군께서 겉으로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릇된 이름으로 행세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여 신도비 대신 묘지명墓誌銘만 받았던 것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1. 풍산군 이종린 묘역,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문인석(좌),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문인석(우), 2015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7호

평정공 윤호 신도비

平靖公 尹壕 伸道碑

조선시대
1기
높이 282cm
석재(화강암)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31-6

지정일 : 2005.12.05
소유자 : 파평윤씨 평정공파 종회
관리자 : 파평윤씨 평정공파 종회

1. 평정공 윤호 신도비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신도비 전면, 2008_ 연천군
3. 신도비 후면, 2012_ 연천군

<평정공 윤호 신도비>는 조선전기의 문신인 평정공 윤호尹壕(1424~1496)의 생애와 공적을 기린 비석이다. 윤호의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자字는 숙보叔保, 영천부원군 삼산鈴川府院君三山의 아들이다. 1447년(세종29) 생원시에 합격하여 군기시주부 의금부도사 신창현감 밀양부사 양주목사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1472년(성종3) 춘장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병조참판을 지냈다. 그 이듬해 성종이 그의 딸을 왕비로 삼아 정현왕후貞顯王后가 되자 국구國舅로서 영원부원군鈴原府院君에 봉하여 졌다. 1495년(성종25) 우의정이 되면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고 궤장을 하사받았으며 다시 영돈녕부사가 되었다. 평소에 성품이 검소하고 교만함이 없었으며 외척으로서 세도는 추호도 찾을 수 없었다. 저서로는 아들 탕로湯老와 공저인 『파천집坡川集』이 있으며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이 남아 있다. 시호는 평정平靖이다.

신도비는 평정공의 묘 입구 하단 도로변에 있는 하마비보다 약간 상부에 비좌碑座와 백색대리석에 일석一石의 비신 및 이수螭首를 갖추고 서향해 있다. 조각기법이 탁월하여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 신도비는 건립 당시 비각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 주변에는 4개의 주춧돌과 와편이 남아있다. 비좌는 백색화강암으로 전후 9엽, 좌우 4엽씩의 복련문伏蓮紋이 있다. 비신碑身의 전면前面에만 비문碑文이 있는데 임사홍의 글씨이다. 하지만 6·25전쟁 때 입은 수많은 탄흔으로 인해 판독은 불가능하다. 이수는 검게 산화되어 있으나 운문雲文 속에 입을 벌려 혀를 널름거리고 날카로운 이빨과 매서운 눈, 턱 밑의 수염과 발톱이 세 개인 용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8호

포천 안동김씨 고가터

抱川 安東金氏 古家터

조선시대
일원
문간채 5×1칸
광채 5×1칸
사랑채 5×3칸
안채 5×4칸
목재
포천시 창수면 전영로1128번길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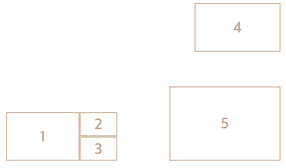
지정일 : 2006.04.24
소유자 : 김용운
관리자 : 포천시

<포천 안동김씨 고가터>의 남서쪽으로는 영평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북쪽으로는 완만한 구릉지가 있다. 안동김씨 종가 후손의 진술에 따르면, 종가건물은 한국전쟁 중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 후손들이 터를 정리하고 그 위에 가옥과 기타 건물을 짓고 주변에 경작지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고가터의 면적은 약 1,050㎡(318평)로 건물터는 안채와 중문 및 광, 솟을대문과 행랑채,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터는 기단의 남쪽과 서쪽 일부와 초석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건물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초석은 총 8기가 확인되었으며, 북쪽에 주로 남아 있다. 초석이 유실된 것으로 추측되는 자리에서 적심은 확인되지 않았다. 초석이 이탈하면서 초석 아래 적심도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문과 광터는 기단석과 초석이 잘 남아 있으며 건물 규모도 파악이 가능하다. 기단은 현재 북쪽과 남쪽에 1단, 서쪽에 2단이 잔존하고 있다. 동쪽의 기단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심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총 9기의 초석이 확인되었으며, 초석이 없는 자리에서도 적심이 확인되었다.

포천 안동김씨 고가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안채, 사랑채, 문간채 등을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가터에 대한 문헌 기록은 없지만 인근에 위치한 금수정金水亭에 대해서는 16~17세기 기록이 있지만, 안동 김씨 종가터에서 확인된 집터의 편년은 16~17세기 기록보다 후대의 것이어서 집터와의 연관성은 확인하기 어렵다. 또 다른 견해로 채제공蔡濟恭(1720~1799)의 「금수정 중수기金水樓重修記」에서 금수정을 전원田園으로 이용한다는 내용이 있어 금수정이 안동 김씨의 전원이었고, 이에 집을 소규모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포천 안동김씨 고가터는 그 연원을 명확히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남아있는 유구만으로도 한강 이북 지역에 얼마 존재하지 않던 조선 후기 양반 가옥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1. 포천 안동김씨 고가터 전경, 2005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 고가터 안채, 2005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3. 고가터 사랑채, 2005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4. 고가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고가 안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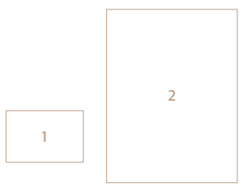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9호

파주 읍내리 석조여래입상

坡州 邑內里 石造如來立像

고려시대
1구
높이 334cm
석재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산142

지정일 : 2006.07.03
소유자 : 홍호선
관리자 : 홍호선



1. 파주 읍내리 석조여래입상, 2005_ 파주시
2. 읍내리 석조여래입상,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파주 읍내리 석조여래입상>은 파주시 군내면 백학산 중턱에 위치한 고려시대 석주형石柱形 석불로 최근 배례석 위에 놓여 있던 불두를 접합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토속적인 느낌의 크고 긴 얼굴, 어깨와 하단 폭이 거의 비슷한 직사각형의 신체 비례, 마치 작도한 듯 기하학적인 옷주름 표현 등은 이 지역 특유의 지방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각형의 얼굴은 콧망울 일부가 훼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길고 가느다란 눈썹과 길게 찢어진 두 눈, 돋을새김한 높고 큰 코에 비해 입은 지나치게 작아 균형을 잃은 모습이다. 민머리素髮의 머리 위에 사다리꼴로 우뚝 솟은 육계를 표현하였으며, 길게 드리운 두 귀의 윤곽도 뚜렷하다. 반면 목은 길어 불안정한 모습이며 삼도三道가 일부 남아 있다. 신체는 상하 두 매의 돌로 구성되었는데 하부가 매몰되어 있어 세부 특징이 불분명하다. 신체는 볼륨이 거의 없고 옷주름만 강조하여 평면 사각형의 석주를 연상케 한다. 통견通肩으로 걸친 법의의 옷주름은 얇은 판을 잇댄 듯 도식적이고 대칭적이며, V자꼴로 트인 가슴의 옷깃 아래로 내의 자락이 드러나 있다. 두 손의 수인은 복부 위에서 모아 합장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불분명하다. 특히 양손을 감싼 옷소매의 상단을 마치 부챗살을 편 것처럼 정연하게 마무리한 표현과, 위아래 옷자락이 중앙의 수인 방향으로 집중되게 표현한 쐐기형의 층단식 옷주름은 지역적인 특징으로 보인다.

이러한 토속적 상호와 옷소매 속에 표현한 수인, 그리고 기하학적인 옷주름 표현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화순 운주사 석불과의 강한 친연성을 나타내고 있어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뒷면은 곳곳이 훼손되어 조각을 확인할 수 없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40호

고양 북한산 서암사지

高揚 北漢山 西巖寺址

조선시대
문화재구역 2,313㎡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145-35

지정일 : 2007.08.13
소유자 : 서암사 외
관리자 : 서암사 외

1
2

1. 고양 북한산 서암사지, 촬영일미상_ 문화재청
2. 북한산 서암사지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고양 북한산 서암사지>는 북한산성 수구문지水口門址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서암사의 창건과 규모에 대해서는 『북한지北漢誌』에 기록되어 있으나 폐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북한지』에는 서암사가 수구문 내에 있고, 규모는 133칸이고 승려 광헌廣軒이 창건하였으며 민지의 유지가 옆에 있어서 처음에는 민지사閔漬寺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서암사로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서암사는 북한산성 축성 후 승군이 주둔하며 산성을 방어하기 위해 건립한 승영사찰僧營寺刹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거급된 외침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도성 외곽방어를 위해 천연의 요새인 북한산에 산성을 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거듭된 논의 속에 1711년(숙종37) 북한산성 축성을 결정하여 그 해 4월부터 9월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 축성공사에는 전국 사찰의 많은 승려들이 동원되었고, 축성 후 산성 방어와 관리를 위해 승군이 주둔할 수 있는 사찰이 건립되었다.

성내에는 중흥사를 수사찰首寺刹로 삼고 서암사를 비롯하여 상운사, 진국사, 보국사, 보광사, 용암사, 태고사, 국녕사, 원각사, 부암사 등 모두 11개의 사찰을 중건 또는 창건하였다. 이들 사찰에는 군사관련 시설과 함께 승장僧將 11인, 수승首僧 11인, 의승義僧 350인 등을 두었는데 이들은 각 도의 승려들 중에서 차출하여 2개월씩 교대로 산성 방어를 담당케 하였다.

서암사는 가까이에 있는 수문 일대 방어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은 1894년(고종31) 갑오개혁으로 승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약 200년 간 지속되었다.

서암사는 1900년대 초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지寺址는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와 지표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를 통해 건물지와 축대, 우물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조선후기의 기와류와 자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현재는 복원정비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41호

평택 서천사 석조여래좌상

平澤 暑天寺 石造如來坐像

조선시대
1 구
112×68cm(가슴이하 제외)
석재
평택시 고덕면 방축 4길 22-49

지정일 : 2007.09.03
소유자 : 서천사
관리자 : 서천사

<평택 서천사 석조여래좌상>은 평택시 서천사 미륵전 내 봉안되어 있는 석조불상이다. 불신 전체에 흰 호분을 발랐고, 머리와 입술 등은 채색되어 있다.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편불偏佛처럼 정면을 중심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하반신 표현은 매우 소략하다. 머리와 육계의 구분이 분명하고 경계에는 중간계주, 정상에는 정상계주가 큼직하게 표현되어 있다.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들어 보주를 들고 있으며, 왼손도 다리 위에 둔 것으로 추정되지만 두꺼운 채색으로 형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어렵다.

얼굴은 넓적하고 평면적이며, 좁은 이마에 콧등이 편평한 오뚝한 코, 볼록한 인중과 다부지게 다문 입술 등 표현기법이 세련되지 못하고 서툴다. 법의는 통견식으로 입었으며, 옷주름은 거의 생략되어 있다.

서천사는 1352년(공민왕1) 나옹화상이 창건하여 1623년 인조반정으로 전소되었다가 1870년(고종7) 동파비구가 미륵불을 발견하여 사찰을 중창했다고 하며, 1929년 수리한 내용도 전한다. 1953년에 다시 화재로 소실되어 1954년에 지은 것이 오늘날까지 이른 것이다.

서천사 석조여래좌상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사찰의 중창시기와 일제강점기에 포교당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해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19세기 후반 동파비구가 발견했다고 하는 미륵불과의 관련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평택 서천사 석조여래좌상,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42호

박유명 초상모본

朴惟明 肖像模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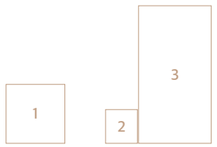
조선시대
1점
170×92.4cm
비단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65

지정일 : 2009.03.23
소유자 : 박근성
관리자 : 수원박물관

박유명朴惟明(1582~1640)은 광해군과 인조년간에 활동한 무신으로 본관은 상주尙州, 자는 형부炯夫이다. 그는 인조반정 당시 이귀李貴의 별장으로 참여하여 정사공신 3등에 책록되었고, 상원군商原君으로 봉해졌다. 1628년(인조6)에 가선대부로 품계가 더해진 이후, 당상선전관과 오위장을 역임하였다. 사후에는 공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박유명 초상은 정사공신定社功臣으로 책록될 당시 제작된 모본模本 1점과 후대에 제작된 이모본移模本 1점 등 총 2점이 전한다. 그의 초상은 17세기 전반의 공신초상 화풍을 잘 보여주며 호랑이 흉배 등을 통해 당시의 무관 초상 양상을 잘 살펴볼 수 있어 모본이 2006년 보물 제1489호로 지정되었다. 이 모본은 선묘를 중심으로 한 모본의 화풍을 충실히 살리고자 하면서도 선명한 안료 등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다만 모본에 비해 세밀한 묘사력이 떨어지고 배접지 등의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여 모본과 함께 지정되지 못하였다.

얼굴묘사는 선묘로 구획을 나누고 얼굴 전체에 옅은 붉은 색으로 채색을 가하여 생동감을 주고자 했지만, 그로 인해 얼굴의 입체감을 강조하지 못하였다. 가슴의 흉배는 무관을 의미하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다. 자세를 비틀어 돌아보는 호랑이 구도는 조선후기 민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구도로 조선후기 흉배와 민화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주목된다.



1. 박유명 초상모본 안면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박유명 초상모본 호랑이흉배, 2008_ 수원박물관
3. 박유명 초상모본, 2008_ 수원박물관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43호

임연 초상

任兗 肖像

조선시대
1점
163×94cm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09.03.23
소유자 : 경기도박물관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1. 임연 초상의 운안흉배,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하단부 의복의 옆트임 표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임연 초상, 촬영일미상_ 경기도박물관

임연任兗(1567~1619)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천豊川, 자는 자정子正, 호는 당호棠湖이다. 그는 임해군臨海君의 역모사건에 대한 공으로 1613년(광해군5) 익사공신翼社功臣 3등에 책록되어 풍안군豊安君으로 봉군封君되었다. 그러나 그의 사후 일어난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출된 이후 삭훈되었다. 이후 아들인 임의백任義伯이 김장생에게 학문을 배우고, 송시열·송준길 등과 교유하며 노론의 중심으로 활동했다. 1664년(현종5)에 복관되어 더 높은 관직에 추증되었다.

이 초상은 공신책록과 삭훈, 그리고 복권에 이르는 그의 명예처럼 굴곡진 구성을 지니고 있다. 초상의 바탕은 총 3면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처음 제작할 당시 그려진 얼굴과 흉배 부분의 우상단 부분, 후대에 바탕을 덧붙이고 그림을 그린 하단부분, 그리고 상단과 하단의 폭을 맞추기 위한 좌측상단 부분이다.

상단은 사모의 낮은 높이와 뿔 내부의 분명한 문양묘사, 선묘 중심의 안면 구성과 맑고 옅은 채색을 통해 익사·형난공신翼社·亨難功臣 등 17세기 초반에 제작된 공신초상의 공통된 특징을 잘 보여준다. 특히 세밀하게 표현된 얼굴의 점 등을 통해 임연의 특성을 잘 표현하였다. 2품에 해당하는 운안흉배雲鴈胸背는 화려한 색감과 세밀한 묘사를 통해 매우 높은 장식성을 지녔다.

하단부는 몇 가지 특징을 통해 후대인 18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의복에서 단령의 구름무늬가 상단에 비해 세밀하게 배치되었고, 다른 17세기 초상들과 반대로 화면 좌측에 그려진 옆트임도 특징적이다. 또한 바닥의 배경이 17세기의 양식인 채전이 아니라 18세기의 양식인 화문석이 그려져 있으며, 상체와 달리 거의 정면인 하체, 위에서 바라본 듯한 시점으로 그려진 교의交椅와 의답椅踏에서도 후대 초상 양식이 드러난다.

비록 이 초상이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제작·수리되었지만, 각각의 묘사력이 모두 뛰어나고 서로 다른 화풍이 잘 어우러져 나타난 점에서 중요한 회화사적 자료로 볼 수 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44호

파주 검단사 목조관음보살좌상

坡州 黔丹山 木造觀音菩薩坐像

조선시대
1구
46×28cm
목재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292-33

지정일 : 2009.02.09
소유자 : 검단사
관리자 : 검단사

<파주 검단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파주 탄현면 검단사의 법화전 내 봉안되어 있는 목조보살좌상이다.

보살상은 약간 상체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로 취하고 있으며, 얼굴과 신체의 비례는 적당한 편이다. 머리카락은 귀를 덮고 양 어깨에서 원형으로 꼬여 세 가닥으로 흘러내렸다. 목은 없는 듯 짧고 어깨는 둥글고 든든해 전체적으로 풍만한 인상을 준다. 살찐 얼굴에는 화불이 있는 높은 보관을 쓰고 있다.

보살상의 착의법은 오른쪽 어깨에 대의가 살짝 걸쳐지면서 밑으로 무겁게 흘러내려 왼쪽 어깨 위로 넘어간 변형 편단우견偏袒右肩이다. 오른쪽 어깨의 일부를 덮으면서 흘러내린 대의 옷자락은 윤곽선을 둥글리면서 층지게 내려뜨려 장식적인 느낌이 강하다. 무릎 밑으로 흘러내린 옷자락이 같은 간격의 사선으로 물결치듯 흘러 내렸으며, 양쪽 무릎의 옷자락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기법과 표현 양식은 주로 18세기 중반 불상들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가슴에 입고 있는 승각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 대각선으로 접혀 있다. 두 손은 복부 앞으로 포개어 모아 선정인을 취하고 있고, 손 위에는 별조別造된 주전자형 정병淨瓶을 들고 있다. 특이한 점은 뒷면의 대의 처리인데, 목 주위에 한 겹으로 접힌 자락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서 대좌 위까지 옷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파주 검단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아미타삼존불의 협시보살이나 독존상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복장물은 조사되지 않았지만 얼굴과 의습선에서 부드러운 감이 줄어들고 도식화 된 것 등으로 보아 18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
2 3

1. 파주 검단사 목조관음보살좌상,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검단사 목조관음보살좌상, 2011_ 파주시
3. 검단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관을 벗은 모습, 2017_ 파주시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45호

용인 법륜사 삼층석탑

龍仁 法輪寺 三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371cm
석재(화강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126

지정일 : 2007.09.03
소유자 : 법륜사
관리자 : 법륜사

<용인 법륜사 삼층석탑>은 단층기단 위에 삼층탑신을 올린 평면 방형의 일반형 석탑이다. 2매의 판석으로 구성된 지대석 상면에 단층 기단을 놓았다. 기단은 일석으로 조성했는데, 각 면에는 양 우주가 모각되었다. 1매의 판석으로 조성된 갑석의 하면에는 각형 1단의 부연을, 상면에는 높직한 각형 2단의 받침을 조출해 탑신을 받고 있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일석으로 조성되었다. 1층 탑신이 2·3층에 비해 높게 조성되었고, 매층 탑신석의 각 면에는 양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매층 각형 4단의 옥개받침이 조출되었다. 낙수면은 중단이 움푹 파인 탓에 완만한 곡선미를 보이고 있는데, 합각부 역시 같은 양식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낙수면의 처리로 인해 전각부가 상향되어 수평을 유지하는 처마와 조화를 이루며 날렵한 반전을 보이고 있다. 처마는 전각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고 있다. 옥개석의 상면에는 각형 1단의 받침을 조출해 탑신을 받고 있다.

이 석탑은 양식적으로 안정된 비례를 유지하고 있다. 옥개석의 양식을 볼 때 신라석탑의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전기에 건립된 석탑으로 추정된다.

용인 법륜사 삼층석탑,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46호

수원 청련암 아미타회상도

水原 靑蓮庵 阿彌陀會上圖

조선시대(1892년)
1점
131.7×234.5cm
비단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335

지정일 : 2009.05.21
소유자 : 청련암
관리자 : 청련암

<수원 청련암 아미타회상도>는 수원 광교산光敎山 청련암에 봉안된 조선후기 불화이다. 화면 하단 중앙에 화기畵記가 남아 있으며, 상부에 오염과 미세한 안료 박락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가로로 길어진 화면 중앙에 녹색의 원형두광과 금색의 원형 신광을 갖춘 아미타부처가 결가부좌結跏趺坐하고 있으며, 그 좌우에 관음보살觀世音菩薩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이 나란히 앉아 아미타삼존阿彌陀三尊을 이룬다. 좌우 가장자리에는 네 보살을, 이들 뒤에는 아난과 가섭 등 10대 제자 등을 배치하였다. 아미타부처 무릎 아래에는 갈색 탁자에 걸터앉은 모습의 사천왕을 나란히 배치하여 상하 2단 구도를 이룬다.

중앙에 높게 솟은 청련화좌靑蓮華坐에 결가부좌한 아미타부처는 넓은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광배는 원형으로 두광은 녹색, 신광은 금색을 칠하였다. 손 모양은 왼손의 손바닥을 위로하여 새끼손가락을 펴고, 첫째와 나머지 손가락을 붙여 엄지손가락과 맞대었고,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어 왼손과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어 수인手印은 불분명하다. 아미타부처 좌우에 나란히 앉아 정면을 응시한 관음과 대세지보살의 광배는 두광과 신광 모두 원형광배이다. 두광은 녹색이고, 신광에는 녹색, 황색, 청색, 붉은색을 반복하여 시문하였다.

비단 바탕에 주로 녹색과 붉은색에 채도가 높은 청색을 사용하였으며, 횡으로 긴 화면구성 등 19세기 말 불화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화면 하단 중앙에 기록된 화기에는 1892년(고종 29)에 수월도량水月道場이었던 청련암의 상단불화上壇佛畵로 조성된 것으로 독성도獨聖圖·신중도神衆圖·산신도山神圖와 함께 불화승佛畵僧 취암승의翠庵勝宜·의암현조義庵玄祖·긍조肯照 등이 그렸다고 기록하였다.

수원 청련암 아미타회상도, 촬영일미상_ 성보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47호

수원 청련암 신중도

水原 靑蓮庵 神衆圖

조선시대(1892년)
1점
144.5×200.7cm
비단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335

지정일 : 2009.05.21
소유자 : 청련암
관리자 : 청련암

<수원 청련암 신중도>는 1892년(고종29) 수월도량이었던 청련암에 용화대일龍化大日·용운순일龍雲淳一·응제법오應濟法旿가 증명법사로 참여하고, 취암승의翠庵勝宜·명응충감明應充鑑·의암현조義庵玄祖·긍조肯照 등이 그려 봉안한 불화이다. 극락보전의 후불도인 아미타후불도와 함께 제작되어 그 좌측에 봉안되어 있고, 범천과 제석천을 비롯한 천부중과 위태천을 중심으로 한 신장상들을 묘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중도에서는 천부중과 위태천을 중심으로 한 무장신들의 위계를 구름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 불화에서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위태천의 좌측에 부채와 영지를 들고 있는 산신과 우측에 오색목편을 들고 있는 조왕신은 19세기 중반 이후 위태천의 좌우에 보처하는 신으로 자리잡은 한국의 전통적인 토속신이다. 이처럼 천부중과 천룡부중의 위계질서가 해이해지고, 산신과 조왕신과 같은 토속신이 신중도의 주요 도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의 시대적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붉은 색을 위주로 녹색·황색·청색·흰색 등을 사용하였다. 붉은 색을 위주로 청색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수법은 19세기 후기에 많이 사용되던 설채법이다. 또한 무기와 투구·지물 등에는 금니를 칠하여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것도 시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물의 표현은 화면 제일 앞줄의 조왕신과 같은 인물에서는 전통적인 묘사법을 따른 반면에 범천과 제석천, 위태천의 얼굴처럼 넓은 얼굴에 이목구비가 작게 묘사되거나 사천왕의 얼굴에서 서양화적인 음영법을 사용한 것도 시대 양식을 반영한 것이다.

수원 청련암 신중도와 같은 형식의 신중도는 대허체훈大虛體訓이 그린 1867년(고종4) 서울 보문사 신중도, 1870년(고종7) 서울 개운사 신중도, 1873년(고종10) 서울 미타사 신중도, 1885년(고종32) 서울 흥천사 극락보전 신중도 등 서울·경기 일대에서 볼 수 있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제작된 수도권에서 제작된 신중도의 화면구성과 도상을 공유하고 있다.

1 2 3

1. 조왕신, 촬영일미상_ 성보문화재연구원
2. 산신, 촬영일미상_ 성보문화재연구원
3. 수원 청련암 신중도, 촬영일미상_ 성보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48호

수원 청련암 독성도

水原 靑蓮庵 獨聖圖

조선시대(1892년)
1점
123.5×132cm
비단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335

지정일 : 2009.05.21
소유자 : 청련암
관리자 : 청련암

<수원 청련암 독성도>는 수원 광교산光敎山 청련암에 봉안된 조선 후기의 불화로 나반존자那畔尊者를 그린 독성도이다. 독성은 석가에게 부촉받아 천태산에 머물며 홀로 수행하면서 열반에 들지 않고 미륵불을 기다리는 나반존자를 지칭한다.

이 그림은 비단 바탕에 채색한 것이다. 화면에는 천태산天台山으로 추정되는 산수와 소나무를 배경으로 땅바닥에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는 나반존자를 표현하였다. 얼굴은 수노인처럼 정수리가 튀어나온 대머리로 정수리에 붉은 색의 원반 무늬가 그려져 있다. 머리에는 투명한 광배를 두르고, 눈썹과 입 주위, 귀 뒤, 턱에는 흰 수염이 나있다. 옷 사이로 드러난 목과 가슴에 깊게 패인 주름과 축 늘어진 가슴은 노인의 특징을 잘 표현하였다.

독성의 복식은 녹색의 옷 위에 붉은 색의 가사를 걸치고 있는데, 붉은 바탕에 황금색의 선으로 원문圓文을 그려 넣었고 가장자리를 꽃무늬로 장식하여 화려한 느낌을 준다. 독성의 주위에는 서적과 필통 등이 놓여 있고, 뒤쪽에 『화엄경華嚴經』, 『법화경法華經』, 『금강경金剛經』의 대승경전과 바위 위에 놓여진 향로 등 19세기말 불화와 민화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화면 하단에 기록된 화기에 따르면, 조성시기는 1892년(고종29)이고 함께 제작된 아미타회상도阿彌陀會上圖의 화기('청련암수월도장신화성상단독성신중산신사축靑蓮庵水月道場新畵成上壇獨聖神衆山神四軸')에 의하여 청련암의 수월도량 불사 때 상단의 아미타회상도阿彌陀會上圖와 독성도獨聖圖·신중도神衆圖·산신도山神圖 네 폭을 동시에 조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❶ 나반존자
❷ 대승경전
❸ 향로
❹ 필통

수원 청련암 독성도, 촬영일미상_ 성보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49호

수원 청련암 산신도

水原 靑蓮庵 山神圖

조선시대(1892년)
1점
122×112cm
비단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335

지정일 : 2009.05.21
소유자 : 청련암
관리자 : 청련암

<수원 청련암 산신도>는 수원 광교산光敎山 청련암에 봉안된 조선 후기의 불화이다. 소나무 아래에 호랑이와 함께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산신, 동자 두 명을 묘사한 산신도山神圖로, 경내의 칠성각에 칠성도와 함께 봉안되었다. 산신도는 수명장수壽命長壽와 현세의 복을 구하기 위해 그려지며 산왕山王으로 신앙되던 호랑이를 의인화하여 묘사한 불화이다. 불교가 민간신앙과 결합하며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산신에 대한 신앙이 유행하면서 사찰의 산신각山神閣·산왕각山王閣·삼성각三聖閣 등에 봉안되었다.

화기에 의하면, 1892년(고종29) 청련암 수월도량水月道場 불사 때 아미타회상도阿彌陀會上圖·독성도獨聖圖·신중도神衆圖와 함께 조성되어 봉안된 것이다. 불화승佛畵僧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화풍과 시주자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아 같은 불화승 집단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화면에는 깊은 산과 골짜기를 배경으로 백발에 수염이 있는 노인 모습의 산신이 동자를 대동하고 앉아 있고, 산신 옆에는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 인자한 표정의 산신은 붉은 색의 옷을 입고 상투를 튼 머리에 투명한 검은 망건을 쓴 모습이다. 양손은 바위 위에 걸터앉은 두 다리 위에 놓고 측면을 응시하고 있다. 산신이 앉아 있는 암석과 주위의 기암절벽은 금색과 청녹색 등으로 채색해 화려함을 더한다. 현재 화기가 남아 있어 19세기 말~20세기 초 불화 조성에 관한 역사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❶ 산신(주산신)
❷ 구름
❸ 소나무
❹ 바위
❺ 영지

수원 청련암 산신도, 촬영일미상_ 성보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50호

수원 청련암 칠성도

水原 靑蓮庵 七星圖

조선시대(1887년)
1점
143×200cm
비단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335

지정일 : 2009.05.21
소유자 : 청련암
관리자 : 청련암

<수원 청련암 칠성도>는 수원 광교산 청련암의 칠성각에 봉안되어 있는 조선후기의 불화이다. 그림 하단 중앙부의 화기畵記에 '광서 십삼년 정해육월초光緖十三年 丁亥六月初……'라고 기록되어 있어 1887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련암 소장 불화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꼽힌다.

칠성도는 불교의 호법선신護法善神이던 북두칠성이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주재한다는 민간신앙으로 수용, 대중 속으로 전파되며 의인화하여 그려진 불화이다. 천재지변과 질병을 다스리며 재앙을 물리친다는 칠성의 주불인 치성광여래와 이를 보좌하는 칠성여래, 성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면 중심부에는 금륜金輪을 손에 잡고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모습의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가 주존으로 크게 부각되어 자리하고 있고, 좌우 협시보살로 일광日光·월광보살月光菩薩이 위치하고 있다. 그 주위로 상하 3단에 걸쳐 칠성여래와 칠원성군 등 권속이 그려진 간략한 구도의 작품이다.

중심의 치성광여래는 균형 잡힌 체구에 법의는 양쪽 어깨에 걸친 통견의를 하고 있으며, 목에 삼도를 뚜렷하게 표현하였고, 후광으로 원형의 두광과 신광이 겹쳐진 이중윤광이 마련되어 있다. 본존불 전면 좌우 협시보살은 붉은 해와 하얀 달이 그려진 보관을 쓰고 합장한 모습이며, 그 옆으로 나란히 자리한 칠원성군은 머리에 평천관平天冠을 쓰고 홀을 들거나 합장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그림은 19세기 중후반에 경상도 및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한 불화승 대허체훈大虛體訓과 봉법奉法이 조성한 작품이다. 칠성도는 칠성七星이 자손의 수명장수 관장 및 재물과 재능을 준다는 믿음으로 확산되며 성행했던 대중성을 잇고 있는 불화이다.

1 2

1. 치성광여래의 금륜, 촬영일미상_ 성보문화재연구원
2. 수원 청련암 칠성도, 촬영일미상_ 성보문화재연구원

❶ 치성광여래
❷ 금륜
❸ 월광보살
❹ 일광보살
❺ 칠성여래
❻ 칠원성군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51호

화성 용주사 목조불패

華城 龍珠寺 木造佛牌

조선시대
1점
103×56cm
목재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2009.06.24
소유자 : 용주사
관리자 : 용주사

<화성 용주사 목조불패>는 사도세자의 원찰 용주사에 봉안된 조선 후기 목조불패이다. 불패는 법회의식 용구法會儀式用具 중 하나로써 불보살의 명호名號 혹은 왕실의 안녕과 축원 등의 내용을 적은 후 불단佛壇 위에 봉안해놓은 나무패이다. 용도나 명문의 내용에 따라 불패佛牌·원패願牌·전패殿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화성 용주사 목조불패의 전체적인 형태는 능화형菱花形 주연周緣을 지닌 몸체부분에 별도로 만들어진 연꽃무늬 대좌臺座를 결구시킨 조선후기 불패의 일반적인 형태를 따르고 있다.

패두에는 좌측을 향해 있는 용을, 패신 좌우측에는 비상하고 있는 용을 각각 1구씩 매우 정교하게 투조하였다. 용문은 백색과 금니로 채색하여 꽉차게 그려 넣었고, 용의 몸체와 얽혀있는 운문과 화염문은 적색, 녹색, 청색 등 대비되는 색채를 사용하여 더욱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패신 중앙에는 장방형의 형태에 명문곽을 만들어 패牌를 교체할 수 있게 하였다. 바탕에는 붉은 안료가 채색되어 있는데, 명시문구는 사라져서 축원의 대상은 알 수 없다.

패좌 부분은 양감이 있게 표현된 상단부의 앙련仰蓮과 하단부의 복련覆蓮이 대칭으로 이루고 있다. 화성 용주사 목조불패는 1790년 용주사 창건 당시 제작·봉안된 것으로 추정되어 경기도 내 목조불패 관련 상대편년 자료가 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화성 용주사 목조불패,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52호

화성 용주사 목조소대

華城 龍珠寺 木造疏臺

조선시대
1점
97×34.3cm
목재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2009.06.24
소유자 : 용주사
관리자 : 용주사

<화성 용주사 목조소대>는 사도세자의 원찰 용주사에 봉안된 조선시대 후기 목조소대이다. 소대는 불교 의식을 행할 때 발원문을 읽고 난 후 보관하는 용기로 소통疏筒이라고도 한다. 불탁 위 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불패와 함께 진설한다.

조선후기 목조소대는 기본적으로 좌대부座臺部·신부身部·두부頭部 3단의 구조에 두부 윗면을 덮고 있는 천판天板, 좌대부 중앙에 의식儀式을 행할 때 읽는 경문經文이나 소문疏文·발원문發願文 등을 꽂아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판목부板木部 등의 보조물들로 구성된다.

화성 용주사 목조소대의 좌대부는 장방형 나무판을 일목으로 제작하여 각 면마다 중앙에 낙양각형 운각을 투각하고 좌·우에는 수직형 족통을 조각했다. 족통의 좌·우 상부에는 게눈각을 선각으로 표현했다. 그 위에는 장방형 나무판을 결구한 뒤 조롱형 동자목만을 조립하여 결구했다. 신부를 받치는 상대목은 장식이 없는 장방형 나무판으로 중대부의 동자목과 판목부, 신부기둥을 결구할 수 있도록 각 모서리와 중앙에 낄구멍이 뚫려있다.

신부는 凸자형 구조로, 각각 8개의 세로로 긴 장방형 나무판의 신부청판과 원형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면은 2개의 가로 띠장을 표현해 3칸으로 분절했고, 각 절마다 중앙에 원형문을 양각하여 그 안으로 범자문을 조각했다. 범자문 위아래로는 외각면만 투각한 매화문을 표현했으며, 화문 주위에는 연화형 안상문을 연속적으로 투각했다. 정면의 좌·우 면에는 1개의 가로 띠장을 중앙에 표현해 상·하 총 2칸으로 분절하고, 각 절마다 가로로 긴 삼엽화형 안상을 투각했다.

두부는 상·하 2단과 상면을 덮은 천판은 일목으로 제작되어 결구하였다. 하단은 8개의 가로로 긴 장방형 나무판을 각 모서리마다 맞춤 조립하고, 천판은 신부 형태와 같은 凸자형으로, 전면에는 백색 안료를 사용하여 연화문 등을 그려 넣었고, 윗면 중앙에는 사엽화형 안상이 투각되어 있다.

화성 용주사 목조소대는 전체적인 구조가 안정적이고 세부 문양이 매우 정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790년(정조14) 용주사 창건 당시 사도세자의 명복을 기원하는 제문祭文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 용주사 목조소대,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53호

광명 금오계첩

光明 金吾契帖

조선시대
5책
20.8×36cm
종이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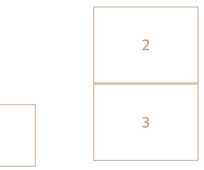
지정일 : 2010.03.23
소유자 : 이승규
관리자 : 충현박물관

<광명 금오계첩>은 광명시 충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의금부 관원들의 계첩이다. 금오金吾는 조선시대의 사법기구 중 하나인 의금부를 일컬으며, 계첩契帖이란 사대부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풍류를 즐기기 위해 개최한 계모임을 그림과 글로 기록한 첩을 말한다. 이러한 계첩은 관료문인들이 같은 출신과 소속을 중요시여기는 동류의식이 중요한 결속력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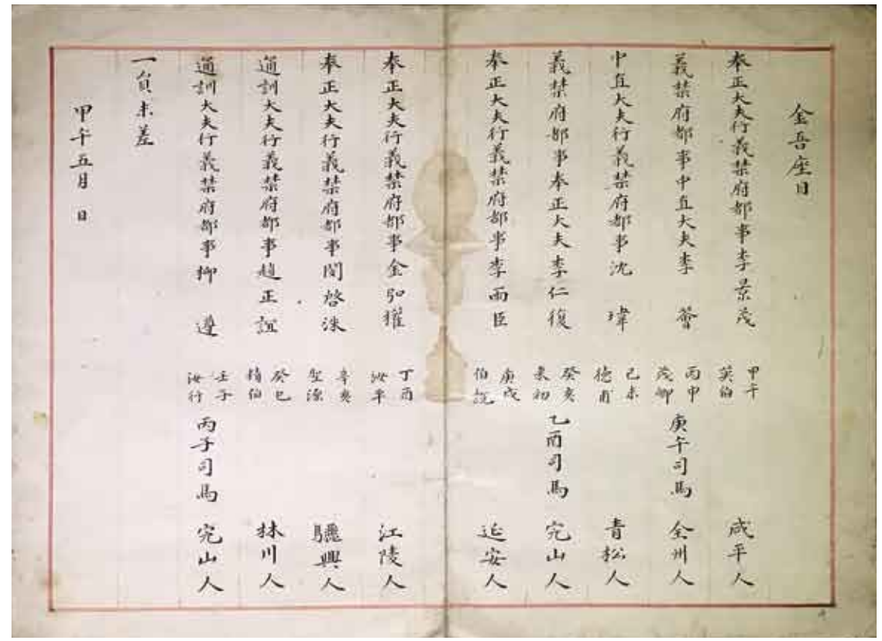
금오계첩禁吾契帖은 금오의 전경과 계회장면을 수묵 채색으로 그린 계회도契會圖 부분과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좌목座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현박물관 소장 금오계첩은 총5권으로 이원익의 5대손인 이인복李仁復(1683~1730)과 6대손인 이언충李彦忠(1716~1776)이 참여한 계회契會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인복이 참여한 1713년 12월, 1714년 5월, 9월, 11월의 계회내용과 이언충이 1756년 8월에 참여한 계회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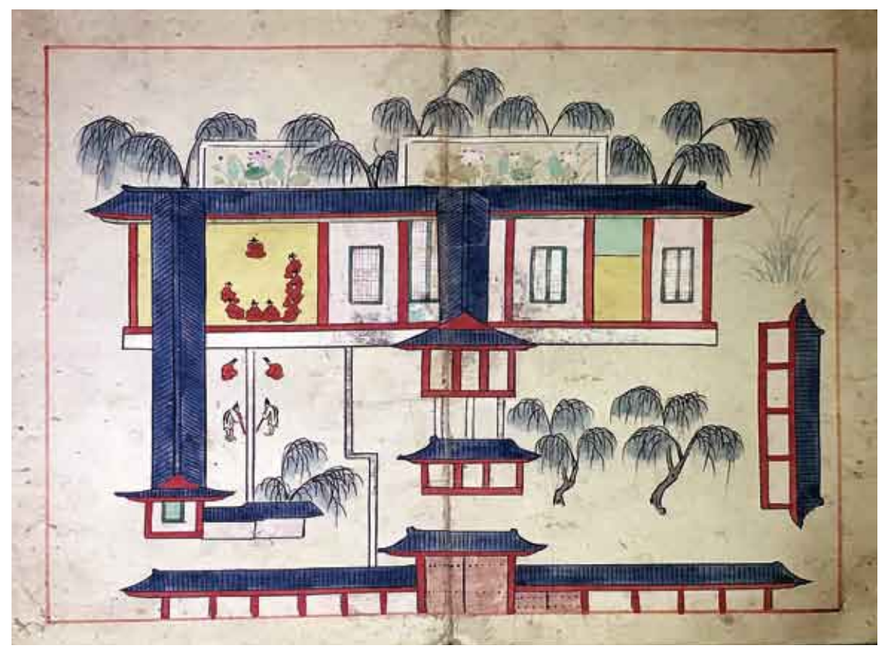
5책은 공통적으로 제1면에는 장지에 주문朱文으로 인찰印札을 두르고 금오金吾의 전경과 계회장면을 그렸고, 제2면에는 참석자의 품계·관직·성명·생년·자字·등과년登科年 등 좌목座目이 묵서하였다. 계회도의 내력과 계의 의미를 밝히는 서발문은 없다.

계회도는 작가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그린 부감법俯瞰法을 사용하였고 구성은 평면도식이다. 건물 마루 안에는 9~10명의 동료 참석자들을 그렸는데, 최고 선임자가 안쪽 가운데에 앉고 후임자들이 좌우로 둥그렇게 앉았다. 그 앞에는 수발을 드는 하급관리인 서리胥吏 두 명과 마당에는 의금부 소속 하급관리인 나장羅將 두 명을 그렸고 뜨락에는 버드나무를 배치하였다. 주변 산세와 마을을 생략하고 계회의 장면과 관아의 모습만 부각시켜 그린 조선후기 기록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1. 광명 금오계첩, 2004_ 충현박물관
2. 금오계첩 1책 좌목,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금오계첩 1책 계회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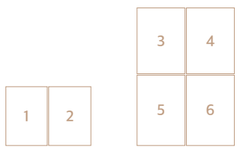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54호

광명 이원익 유묵목판 인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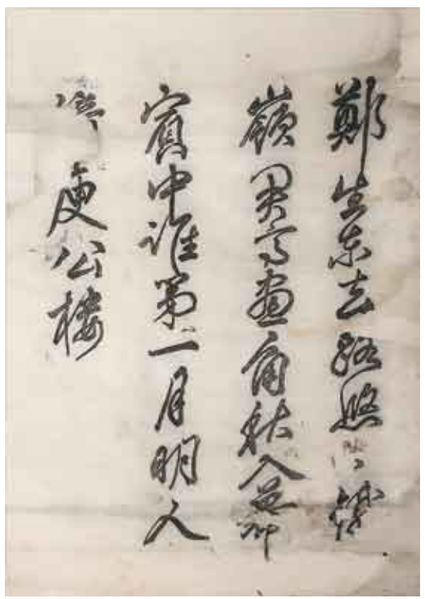
光明 李元翼 遺墨木版 印出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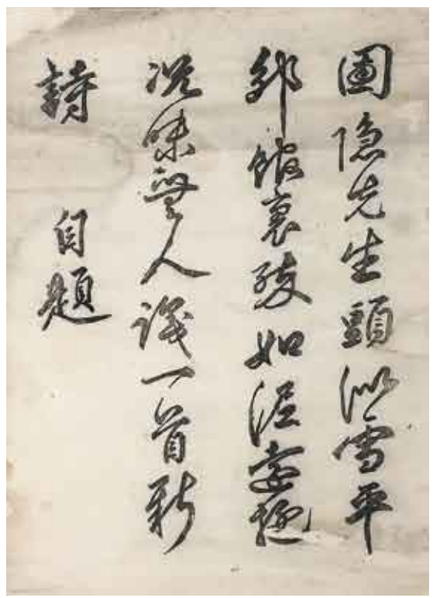
조선시대
8점
135~158.5×59.3~79.8cm
종이(닥종이)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5

지정일 : 2010.03.23
소유자 : 이승규
관리자 : 충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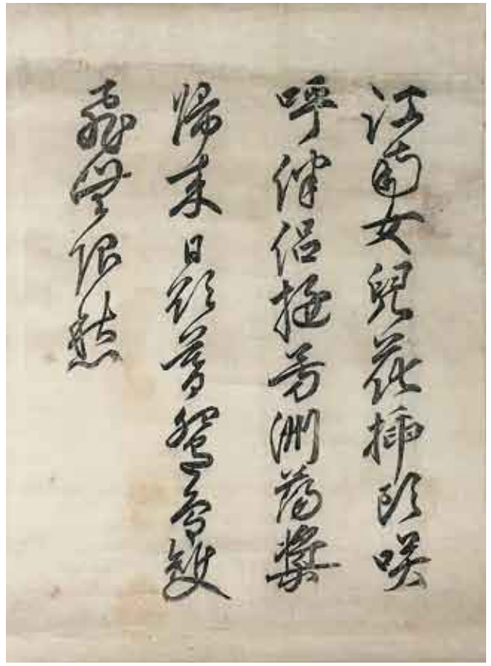
1. 기삼봉,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평교관에 손수지어 써 붙인 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강남곡,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4월 1일 고밀현에서 꾀꼬리 울음소리를 듣다,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5. 금주에 위지휘 집에서 매그림을 보고 붓을 날리다,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6. 변방에 나간 병사 아내의 원망,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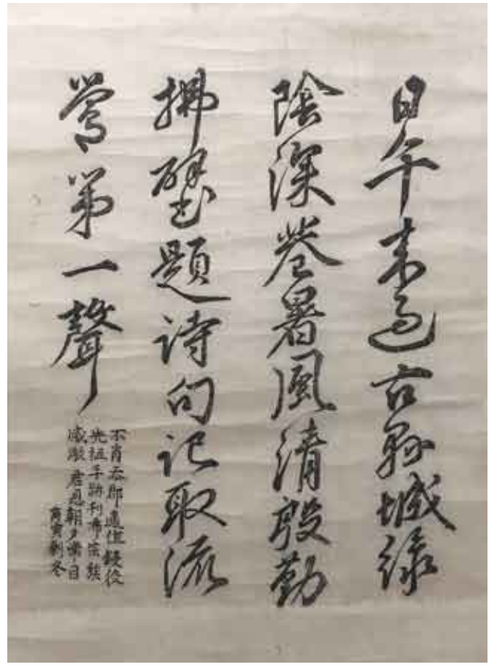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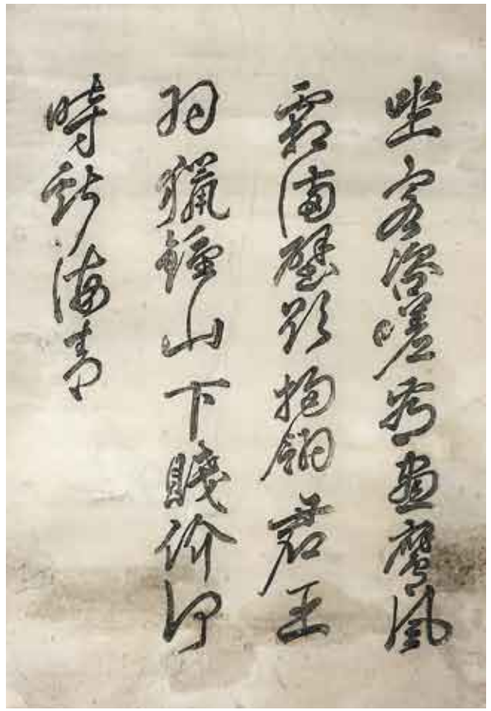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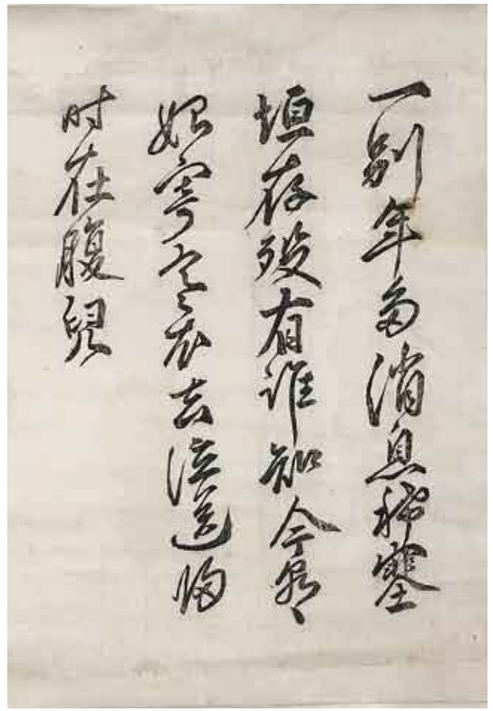
<광명 이원익 유묵목판 인출본>은 오리 이원익梧里李元翼(1547~1634)이 포은 정몽주圃隱鄭夢周(1337~1392)의 시詩를 옮겨 쓴 것을 후손이 목판에 새겨 인출한 것이다. 인출본은 총 8점으로 이 가운데 6점은 친필 원본이 종가에 남아있다. 이 목판본의 정확한 제작시기와 제작자는 알 수 없으나 '사월초일일 고밀현문앵四月初一日高密縣聞鶯'의 인출본에 남아있는 '경인년庚寅年 늦은 겨울에 지방관을 맡아 선조先祖의 친필을 새겨 종족宗族들과 함께 나누었다. 임금에 은혜에 감격하고 아침저녁으로 바라본다不肖添郡 適値鋟役 先祖手跡 刊布宗族 感激君恩 朝夕常目 庚寅剩冬'는 간기刊記가 있어 이를 통해 이원익의 후손 중 한 명이 지방관을 맡았을 때 이 목판을 새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유묵의 내용은 『포은선생문집圃隱先生文集』 권1~2에 수록되어있는 '강남곡江南曲'·'금주위지金州韋指'·'송인送人'·'기삼봉寄三峯'·'인일조회설人日朝會雪'·'평교관수제平郊館手題'·'사월초일일 고밀현문앵四月初一日高密縣聞鶯'·'정부원이절征婦怨二絶' 등이다. 이원익은 각 시의 시제詩題를 생략하고 본문만을 행초行草로 썼다. 이원익의 친필 유묵은 전문적으로 글씨를 쓰는 서예가의 기풍과는 달리 평생 강직하고 청빈한 생활을 영위하였던 그의 품성이 드러나 있으며, 친필본과 대조하여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55호

광명 오리선생집·오리선생속집

光明 梧里先生集·梧里先生續集

조선시대
5책
31×21.5cm
종이(닥종이)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5

지정일 : 2010.03.23
소유자 : 이승규
관리자 : 충현박물관

이원익의 문집은 『오리선생문집梧里先生文集』과 『오리속집梧里續集』이 전해지는데 광명 오리선생집·오리선생속집은 이원익의 증손 이상현李象賢(1635~1705)이 1691년(숙종17)에 간행한 『오리선생문집梧里先生文集』의 초간본이다. 본래 6권2책, 속집2권1책, 별집2권1책, 부록4권1책, 속집부록2권1책으로 이루어져있으나 충현박물관 소장본은 총6책 중 제5권이 누락되어 전해지고 있다.

표제에는 '오리집梧里先生集'이라 명기되어 있고 이원익의 손녀사위인 허목許穆(1595~1682)과 조경趙絅(1586~1669)이 서문을 썼다. 문집내용의 대부분이 상소문과 차자箚子를 한곳에 묶는 소차疏箚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체적 특성이 잘 드러나며, 선생이 여러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하여 이와 관련된 기록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임진왜란, 이괄의 난 등의 당시 정치상황과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충현박물관에는 오리선생집 초간본을 후손인 이존도李存道와 이인복李仁復 등에 의해 주가로 보완되어 펴낸 중간본들이 함께 전하고 있다.

1
2

1. 오리선생집, 2008_ 충현박물관
2. 오리선생집,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56호

화성 용주사 청동시루

華城 龍珠寺 靑銅시루

조선시대
1점
36.5×62cm
금속(청동)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2010.03.23
소유자 : 용주사
관리자 : 용주사

시루는 바닥에 있는 구멍을 통하여 뜨거운 증기가 올라와 시루 안의 음식이 쪄지게끔 하는 도구로서 사찰에서 공양 음식으로 사용된 떡을 만들기 위해 절에서 많이 만들어져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이처럼 청동으로 만들어진 시루가 사찰에서 꽤 많은 수가 전해지고 있는데, 범어사 시루, 직지사 시루처럼 크기가 대형이면서 명문을 기록한 것도 확인된다.

이 시루는 용주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대형의 청동시루이다. 절에서는 이 시루가 신륵사에서 온 것으로 전하고 있다. 큰 원통형 몸체는 구연이 넓고 저부가 약간 좁은 형태이다. 몸체의 양측 면에는 가로로 손잡이를 부착하였는데, 손잡이는 3개의 리벳이 삼각형을 이루며 몸체와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결 방식은 고려시대부터 나타나는 연결방식으로 조선후기에도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몸체 상부에서 연결되는 구연은 45°정도 꺾인 후 다시 직각으로 뻗어 있다. 몸체에는 2개의 굵은 용기선을 표현하였고, 용기선 사이에 손잡이를 붙였다. 저부는 시루의 용도에 맞게 투각透刻으로 뚫어 놓았다. 저부의 내구는 十자, 외구는 방사상으로 7개의 띠로 연결하였고, 다시 7개의 지지대로 몸체와 연결하였다. 몸체와 연결된 외구 밖의 7개의 지지대 사이에는 짧은 돌기가 몸체에 붙어있다. 구연과 몸체 상부는 다듬은 흔적이 있다.

1 2

1. 화성 용주사 청동시루 손잡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화성 용주사 청동시루 저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57호

고양 경주김씨 의정공파 영사정

高陽 慶州金氏 議政公派 永思亭

조선시대
일곽
문간채 7×1칸
영사정 총 12칸
목재
고양시 덕양구 무민로35번길 89

지정일 : 2010.03.23
소유자 : 경주김씨 의정공파 종중
관리자 : 경주김씨 의정공파 종중

<고양 경주김씨 의정공파 영사정>은 숙종의 제2계비繼妃 인원왕후仁元王后의 부친 경은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이 그 아버지 김일진을 위해 지은 재사齋舍건물이다. 대청의 종도리 위에 상량판이 남아 있어 1709년(숙종35)에 지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사정은 '영원히 잊지 않고 생각한다'는 의미처럼 묘제墓祭를 지내기 위하여 무덤 가까이에 지은 재사건물로 현판은 재사의 중심건물에 걸려 있다. 건물은 ㄷ자형의 본채와 ㅡ자형의 문간행랑채가 서로 마주보고 놓여 튼ㅁ자를 형성한 배치를 하고 있다. 영사정의 오른쪽 날개채에 사당방과 아랫방이 붙어 있으며 가구는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평사량平四梁구조이다.

영사정은 2011년 정밀실측하고 전면 해체하여 수리하였다. 해체 수리 당시 기존부재를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의 초석, 대청 뒷쪽 여닫이문 가운데 기둥, 옛 모습의 판목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원공사가 완료된 것은 2014년 8월로 현재는 시민들의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1
2 3 4

1. 고양 경주김씨 의정공파 영사정(복원 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고양 경주김씨 의정공파 영사정 전경, 2008_ A&A문화연구소
3. 고양 경주김씨 의정공파 영사정, 촬영일미상_ 경기도
4. 고양 경주김씨 의정공파 영사정, 2011_ A&A문화연구소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58호

가평 대원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加平 大願寺 石造毘盧舍那佛座像

삼국~고려시대
1점
79.6×68.5cm
석재(화강암)
가평군 북면 백둔로 21-162

지정일 : 2010.03.23
소유자 : 대원사
관리자 : 대원사

<가평 대원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명지산에 위치한 대원사 대웅전 안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이다. 사찰 측에 의하면 이 석불은 강원 춘천 근방에서 살고 있는 농부가 밭에서 발견하여 현 위치로 옮겨왔다고 한다.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화강암 1석으로 조성된 석불로, 광배와 대좌는 남아있지 않다. 이전에 세 조각으로 깨진 것을 임시로 붙였다가 최근에 깨진 부분을 제대로 붙이고 갈라진 부분을 보존처리하였다.

석불은 상반신을 곧게 세워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불두佛頭는 신체에 비하여 큰 편으로 나지막한 육계肉髻에 굵고 커다란 나발螺髮이 표현되어 있다. 얼굴은 통통한 편이며 이목구비는 파손되어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다. 목 부분이 수리되어 삼도三道가 명확하지 않고, 어깨는 좁고 가파른 편이다. 이것은 오른손으로 왼손의 검지를 잡은 지권인智拳印을 취하기 위해 양 팔을 몸에 밀착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불상의 착의법은 통견으로 옷주름이 어깨와 팔에 평행계단식으로 처리되었고, 결가부좌한 하반신에 향좌측으로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다.

이와 같은 지권인 불상은 766년(신라 혜공왕2)에 제작된 경남 산청 내원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1021호)을 시작으로 9세기 중반부터 크게 유행하였다. 또한 9세기에 제작된 기년명紀年銘 비로자나불상은 863년(경문왕3)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244호), 867년(경문왕7) 경북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995호), 강원 홍천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542호)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9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불들이 전국의 국립박물관이나 사찰에 봉안되어 있다.

대원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신체비례와 지권인을 잡은 형태 및 대의 처리 등에서 9-10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 조사된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평택 심복사 불상(보물 제565호)과 안성 운수암 불상(경기도유형문화재 제202호) 밖에 없다.

1 2

1·2. 가평 대원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59호

우리절 5층석탑

우리절 5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315cm
석재
광주시 도척면 삼림리 177-2

지정일 : 2010.12.08
소유자 : 우리절
관리자 : 우리절

1 2

1. 우리절 5층 석탑 정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우리절 5층 석탑 평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우리절 5층석탑>은 '절골'로 불리는 옛 사지에 1995년에 창건된 우리절에 세워져 있는데 부도 2기와 함께 구입·기증된 것이라고 한다. 석탑은 법당 앞에 있으며 기단부와 5층의 탑신부로 구성되었다. 현재 기단부는 넓은 판석형 석재를 지대석으로 삼아 그 위에 면석을 올렸다. 그런데 면석과 갑석의 결구 수법과 양식 등으로 보아 원래는 2층 기단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1층 기단이 결실되면서 판석형 부재를 새롭게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2층 기단의 면석은 마모로 인하여 우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상대갑석은 파손된 부분을 새롭게 보강한 흔적이 역력한데, 하부에 부연이 낮게 표현되고, 상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난간 형태의 탑신괴임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탑신괴임은 신라말기에서 고려초기 건립된 석탑에서 많이 적용된 기법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탑신부는 5층으로 구성되었는데, 원래의 부재도 있고 새롭게 보강된 부재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탑신석은 2층부터 현격하게 높이를 낮추었지만 치석 수법은 동일하다. 옥개석은 좌우너비가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적당한 비율로 체감되고 있어 안정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리고 옥개석은 처마부가 수평을 이루도록 치석되었고, 옥개받침은 3단으로 마련되었으며 상부에 2단의 낮은 탑신괴임이 별도로 구성되었다. 현재 상륜부에는 노반과 복발로 보이는 부재들이 올려 있는데, 치석 수법과 규모로 보아 원래의 부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이 석탑은 원위치를 알 수 없고, 결실된 부재들이 있지만 전형적인 고려시대 석탑 양식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탑신부는 영암 성풍사지 오층석탑(1009년, 고려 목종12),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1010년, 현종1), 칠곡 정도사지 오층석탑(1031년, 현종22) 등과 양식적으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우리절 5층석탑은 고려전기인 11~12세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60호

우리절 석조부도 2기

우리절 石造浮屠 2基

조선시대
2기
송계당 부도 높이 142cm
낙화당 부도 높이 170cm
석재
광주시 도척면 삼림리 178-1 외

지정일 : 2010.12.08
소유자 : 우리절
관리자 : 우리절

1
2 3

1. 우리절 석조부도 2기,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낙화당 부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송계당 부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우리절 석조부도 2기>는 '절골'로 불리는 옛 사지에 1995년에 창건된 우리절에 세워져 있다. 이중에서 1기는 이곳에 흩어져 있던 것을 복원한 것이고, 나머지 1기는 여주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고 있으며 5층석탑과 함께 구입·기증된 것이라고 한다.

부도는 모두 명문이 남아있어 주인공은 알 수 있으나 현재 여러 기의 부도재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중에서 낙화당樂華堂 부도는 관음전 중창 시 출토되었다고 한다. 기단부의 하대석과 중대석은 팔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탑신은 원구형이고, 옥개석은 사각형이다. 높게 마련된 중대석 한 면에 세로로 주인공을 알 수 있도록 '낙화당대사승신樂華堂大師勝信'이라고 음각했다. 옥개석은 우진각지붕형태로 치석되었으며, 기왓등이 표현되었고 마루부에는 돋을새김이 강한 용두가 양각되었다. 이 부도는 최소한 3기 이상의 부도재가 혼용된 상태로 조선후기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송계당松溪堂 부도는 연화문이 장식된 하대석과 상대석을 마련하고, 그 사이에 연주문이 새겨진 팔각 중대석을 마련하였다. 탑신석은 상하부의 지름이 거의 동일한 원구형으로 정면에 위패형 액방額枋을 마련하여 세로로 주인공을 알 수 있도록 '송계당松溪堂'이라고 음각하였다. 원구형 탑신 위에 올린 지붕형의 개석은 탑신석과 어울리지 않고 있어 다른 석물에 활용되었던 부재로 추정된다. 송계당 부도도 기단부의 연화대석과 탑신석의 형태 등으로 보아 조선후기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61호

양주 석굴암 석조불좌상

楊州 石窟庵 石造佛坐像

조선시대
1구
42×25cm
석재
양주시 장흥면 석굴암길 519

지정일 : 2011.03.08
소유자 : 석굴암
관리자 : 석굴암

양주 석굴암 석조불좌상,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양주 석굴암 석조불좌상>은 희고 고운 재질의 경주 불석沸石으로 조성된 소형의 석조불상이다.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며 허리는 짧아지고 하반신이 높은 조선후기 석조불상의 특징을 따르고 있다. 상반신은 앞으로 숙여 앉은 자세에 양손의 손끝이 땅을 향하는 손 모양으로, 신체와 손이 한 돌로 조각되어 있다.

머리에는 나발이 조각되어 있으며, 육계와의 구분이 없이 경계에 큼직한 중앙 계주中央髻珠가, 정상부에는 납작한 모양의 정상 계주頂上髻珠가 있다. 넓적한 방형의 얼굴은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긴 눈, 편평한 콧등의 큼직한 코, 입술이 얇고 크며, 입가에 미소로 인자해 보인다.

오른쪽 어깨에는 복견의를 걸치고 그 위에 오른쪽 어깨를 살짝 가려 대의를 돌려 입었으며, 배 앞에서 복견의와 대의 자락이 서로 대칭되게 교차되어 있다. 가슴 아래 수평으로 입은 승각기는 대각선으로 접어 모양으로 내었으며, 다리 사이에는 넓은 옷주름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정돈되어 있다. 옷주름은 두껍고 끝이 날카로우며 힘 있게 표현되어 있다. 이런 표현 기법은 인근의 1685년(숙종11) 마일摩日이 조성한 안성 칠장사 대웅전 목조삼불좌상이나 1705년(숙종31) 칠장사 지장전 지장삼존상의 큰 방형의 얼굴, 두껍고 힘 있는 옷주름 표현 등이 닮아 같은 유파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불상으로 보이며, 제작시기도 이런 양식적 특징을 고려해 늦어도 18세기 초 이전에는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62호

양주 석굴암 석조지장보살좌상

楊州 石窟庵 石造地藏菩薩坐像

조선시대(1873년)
1점
48×30cm
석재
양주시 장흥면 석굴암길 519

지정일 : 2011.03.08
소유자 : 석굴암
관리자 : 석굴암

양주 석굴암 석조지장보살좌상,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양주 석굴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은 석굴암 삼성각 안 중앙 불단에 봉안되어 있다. 석불은 코 끝부분이 떨어진 것을 보강한 것 외에 거의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다.

지장보살좌상은 경주 불석沸石을 쪼아서 만들었다. 머리 위에 두건을 두른 피건형으로 양 어깨에 두건 자락이 늘어져 있으며, 고개와 상체를 직각으로 세워 결가부좌한 자세를 하고 있다. 지장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둥근 얼굴에 얇은 눈두덩, 가늘게 뜬 눈, 뭉뚝하고 뾰족한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가는 입을 가지고 있다. 신체에 비하여 머리가 크고, 상반신에 비하여 하반신이 높으며, 무릎의 폭에 비하여 높이가 높아서 신체비례가 왜곡되어 있다. 수인은 오른손을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하고, 왼손은 손바닥을 편 상태로 작은 보주를 들고 있다.

보살상은 대의 안쪽에 복견의覆肩衣를 입고, 바깥쪽에 걸친 대의가 오른쪽 어깨에서 걸친 후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 자락이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수직으로 내려와 하반신에 펼쳐져 있다. 하반신에는 복부에서 늘어진 옷자락이 넓게 펼쳐져 있고, 그 옆으로 두 가닥이 완만하게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보살상의 뒷부분에는 왼쪽 어깨부위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 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가슴을 덮은 승각기僧脚崎는 수평으로 간략하게 처리되었고, 불상의 바닥면에 주서朱書로 범자梵字(옴)를 쓴 종이가 붙여져 있다.

『봉선사본말사지奉先寺本末寺誌』에 의하면 1873년(고종10) 무자생戊子生 이씨진명행李氏進明行이 발원하여 한봉창엽漢峰瑲曄과 금곡영환金谷永煥이 지장보살상과 나한상을 같이 제작하였다고 한다. 이 불상을 만든 한봉창엽과 금곡영환은 19세기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불화승佛畵僧이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62-1호

석조나한상

石造羅漢像

조선시대(1873년)
1점
60×38cm
석재
양주시 장흥면 석굴암길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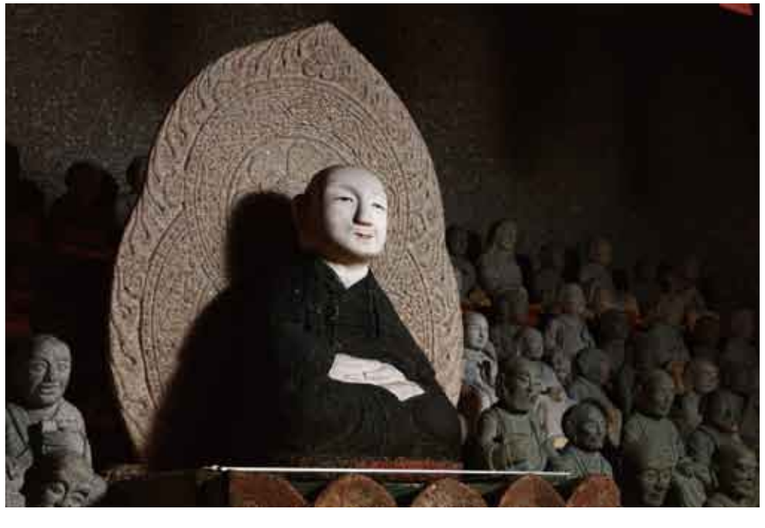
지정일 : 2011.03.08
소유자 : 석굴암
관리자 : 석굴암

양주 장흥면 석굴암 나한전에는 수 백구에 이르는 나한상이 봉안되어 있다. 그 가운데 중앙에 놓인 석조나한상은 문헌기록이 남아 있고, 한국전쟁 기간에 총탄을 맞아 얼굴에 약간 파편이 떨어진 것을 제외하면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나한전 중앙 수미단에 봉안된 석조나한상은 중형불상으로, 근래 제작된 커다란 주형광배를 두르고, 방형의 높은 연화대좌에 결가부좌한 모습이다. 나한상의 얼굴과 손발에는 호분胡粉이 칠해져 있고, 대의에는 옻칠이 두껍게 입혀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은 광택이 난다. 나한상은 삼성각에 봉안된 석조지장보살좌상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조각승에 의해 제작되었다. 그래서인지 둥근 얼굴에 얇은 눈두덩, 가늘게 뜬 눈, 뭉뚝한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술을 하고 있다. 빈약한 어깨에 비하여 머리가 크고, 상반신에 비하여 하반신이 높아 삼각형의 구도를 하고 있다. 수인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왼손을 아래로 하고 오른손을 위로 하여 선정인禪定印을 취하고 있다. 나한상은 대의 안쪽에 복견의覆肩衣를 입고 있으며, 오른쪽 어깨에서 걸친 대의는 완만하게 늘어진 후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 자락이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수직으로 내려와 하반신에 펼쳐져 있다. 하반신에는 복부에서 늘어진 옷자락이 넓게 펼쳐져 있고, 옆으로 두 가닥이 완만하게 늘어져 있다. 나한상의 뒷모습은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 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가슴을 덮은 승각기僧脚崎는 수평으로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불상의 바닥면 복장구는 열려있어 최근에 복장물을 넣었다.

이 나한상은 지장보살좌상과 같이 『봉선사본말사지奉先寺本末寺誌』에 1873년(고종10) 무자생戊子生 이씨진명행李氏進明行이 발원하여 한봉 창엽漢峰瑲曄과 금곡 영환金谷永煥이 제작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 불상을 만든 한봉창엽과 금곡영환은 19세기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불화승佛畵僧이다.

석조나한상,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63호

남양주 봉선사 목조불좌상

南楊州 奉先寺 木造佛坐像

조선시대
1구
34.2×20.5cm
목재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

지정일 : 2011.03.08
소유자 : 봉선사
관리자 : 봉선사

<남양주 봉선사 목조불좌상>은 봉선사에 봉안되어 있다. 불상의 얼굴은 앞으로 약간 내민 형태에 둥근 편이고, 머리에 나발이 촘촘하고, 정수리 부위에 작은 정상계주와 이마 위에 반달형의 중앙계주를 가지고 있다. 얼굴에는 가늘게 치켜 뜬 눈과 살포시 다문 입에 미소를 머금고, 미간에 작은 백호가 표현되어 있다.

왼쪽 어깨에 걸친 대의는 완만하게 내려와 오른쪽 허리로 흘러내리고, 왼쪽 어깨 뒷면에 앞에서 넘어간 대의자락이 엉덩이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오른손은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손바닥을 위로 향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왼발의 복사뼈에서 한 번 접힌 한 가닥의 대의자락이 바닥까지 넓게 펼쳐지고, 그 옆으로 두 가닥의 옷주름이 흘러내리고 있다. 불상의 바닥에는 커다랗고 둥근 복장구가 마련되어 있다.

봉선사 목조불좌상은 조선후기에 성행하던 도식화된 옷주름을 가진 목조불상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우견편단右肩偏袒을 한 불상은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조선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450년(세종32) 제작된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 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등을 참조해보면 봉선사 목조여래좌상은 조선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 2 3
4

1. 남양주 봉선사 목조불좌상 정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봉선사 목조불좌상 측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봉선사 목조불좌상 후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봉선사 목조불좌상 바닥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64호

남양주 봉선사 칠성도

南楊州 奉先寺 七星圖

1903년
1점
210×195.5cm
비단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

지정일 : 2011.03.08
소유자 : 봉선사
관리자 : 봉선사

<남양주 봉선사 칠성도>는 봉선사 북두각北斗閣에 봉안된 불화로, 화기에 의하면 칠성도는 1903년(고종40) 독성도獨聖圖·산신도山神圖와 함께 삼각산 원흥사에서 조성한 것이다. 현재 칠성도와 독성도는 봉선사奉先寺에 모셔져 있고, 산신도는 봉영사奉永寺에 소장되어 있다.

칠성도는 비단 바탕에 진채색을 사용하여 범선원하梵船元河가 출초出草하고 예운상규禮雲尙奎가 그린 것이다. 예운상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서울·경기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며 전국적으로 3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화면 중앙에는 금륜金輪을 손에 잡고 수미단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한 모습의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가 정면을 응시하며 앉아 있다. 육신부 뒤로 삼중의 원형 두광과 신광을 지녔고, 둥근 얼굴에 가늘고 눈꼬리가 올라간 눈, 중앙으로 몰려 있는 입과 코, 넓은 어깨를 갖추고 있다. 수미단 아래 방형 대좌를 배치하여 화면에 공간감을 주었다. 구성은 중앙의 본존 좌우에는 일광日光과 월광보살月光菩薩이 입상으로 위치하며, 두 손에 잡고 있는 연꽃 위에는 해와 달을 나타내고 있다. 그 좌우에는 3단으로 나눠 칠성여래와 자미대제, 칠원성군을 배치하였다. 이 외에 맨 위쪽에 구름을 타고 하강하는 삼태육성과 꽃을 잡고 선 동자를 그린 간략한 구도이다.

상단의 천상과 주존불 및 권속들 사이에 채운彩雲으로 경계를 주어 구분하였고, 구름의 백색 테두리와 치성광여래의 신광을 금박으로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화면에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고 있다. 채색은 적색을 주로 사용하고 황색과 청색, 백색을 부분적으로 가미하였다.

이 그림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서울·경기지역에서 활동한 불화승佛畵僧 예운상규가 그린 것으로 조선후기 이후 대한제국기까지의 불화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❶ 치성광여래
❷ 월광보살
❸ 일광보살
❹ 자미대제
❺ 칠성여래
❻ 칠원성군

남양주 봉선사 칠성도, 촬영일미상_ 성보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65호

남양주 봉선사 독성도

南楊州 奉先寺 獨聖圖

1903년
1점
203×195cm
비단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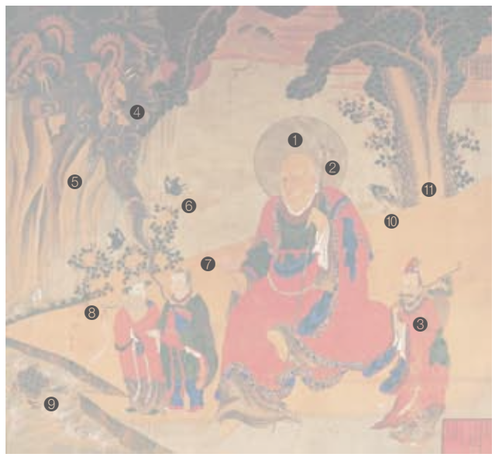
지정일 : 2011.03.08
소유자 : 봉선사
관리자 : 봉선사

<남양주 봉선사 독성도>는 천태산에서 홀로 수행하며 깨달은 성인으로 알려진 나반존자那畔尊者를 그린 독성도이다. 독성도는 주로 삼성각三聖閣이나 독성각獨聖閣 등에 봉안되며 조각상보다 그림 형태로 봉안되는 경우가 많다. 형상은 대개 선풍도골仙風道骨의 노인이 폭포수가 흐르는 깊은 산 고목 아래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봉선사 독성도는 1903년(고종40)에 수화승 금호약효錦湖若效가 출초하여 봉법奉法·대호 등이 그린 것으로 북두각에 칠성도와 함께 봉안되었다. 화면 중앙의 독성은 비스듬한 둔덕 위에서 측면 자세로 앉아 원형 신광을 지니고 오른손에 영지를 들고 왼손에는 석장을 쥐고 있다. 주위에는 걸망을 지고 있는 진각거사眞覺居士와 선의동자善依童子들이 있다.

배경에는 노송 한 그루와 모란꽃, 붉은 해가 걸려 있는 천공에 학 한 마리가 날고 있다. 맞은편에는 기암절벽이 펼쳐지고 동자가 안고 있는 호리병에서 뿜어져 나온 구름 사이로 용이 포효하고 있다. 이 작품은 독성의 배경과 소품으로 그려진 요소들이 다채롭고 다양하여 눈길을 끈다.

이 그림은 화면에 그려진 요소들로 대화를 나누는 학·거북이·꿩·소나무·영지·구름·국화·나비·바위·물 등 수복장수壽福長壽를 상징하는 십장생의 요소들을 배치시킴으로써 독성신앙의 영험함을 은유적으로 묘사함과 동시에 민화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❶ 나반존자
❷ 석장
❸ 진각거사
❹ 용과 구름
❺ 바위
❻ 국화와 나비
❼ 영지
❽ 학
❾ 거북
❿ 꿩
⓫ 소나무

남양주 봉선사 독성도, 촬영일미상_ 성보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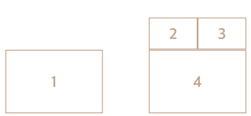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66호

통진이청

通津吏廳

조선시대
1식
7×2칸
목재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276번길 27

지정일 : 2011.10.04
소유자 : 김포시
관리자 : 김포시



1. 통진이청 정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통진이청 내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통진이청 측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통진이청 후면,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통진이청>은 조선시대 통진부의 관아官衙 건물 중 하나인 이청吏廳이다. 이청 혹은 인리청人吏廳은 아전衙前들이 모여 집무를 보던 곳으로 일반적으로 작청作廳이라고 하며, 길청吉廳·질청秩廳·성청星廳·연청椽廳이라고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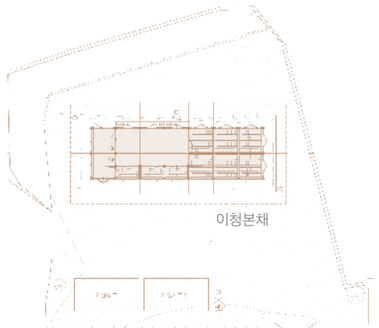
통진부의 관아건물은 읍지와 지도를 통해 살필 수 있다. 1899년(고종36) 만들어진 규장각 소장 『통진읍지通津邑誌』가 가장 상세한데, '작청 21칸作廳二十一間'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통진지도通津地圖』는 통진부의 관아 모습을 가장 소상히 묘사한 지도인데, 다른 관아 건물과는 달리 동남향 좌향을 하고 사방담으로 둘러싸인 중앙에 14칸의 一자형 건물로 묘사되어 있고, '이청 14칸吏廳 十四間'으로 명기되어 있다.

현 통진이청은 정면 7칸, 측면 2칸, 전체 14칸 규모의 동남향 건물로 『통진지도』의 기록과 같다. 평면은 우측에 대청이 넓게 차지하고 좌측에 방과 부엌이 자리한 독특한 형태인데, 세부구성을 읍지로 살필 수 있는 충청도 목천현 작청에서도 부엌이 시설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방과 부엌이 설치된 좌측과 달리 전면 우측 3칸 대청부분에서만 기둥 상부에 익공翼工을 두고 대공臺工을 파련대공波蓮臺工으로 꾸몄으며, 종도리와 종창방 사이에 화반華盤을 사용하여 좌측과 위계 차이를 두었다.

기록된 규모는 다르지만 규장각 소장 『통진읍지』에 의하면 통진에 있는 대부분의 관아를 1869년(고종6) 부사 백낙선白樂善이 중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인 장식이나 구조의 특징으로 볼 때 1800년대 이전 연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3·1운동 당시에는 주재소로 쓰였던 기록이 있으며, 이후 주택으로 사용하다 폐가로 방치된 것을 2011년 문화재로 지정하고 2013년 원형대로 복원 완료하였다.

통진이청은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관아건축 중 하나로 경기도 관아건축의 모습과 조선후기 관아건축양식을 보여주는 매우 드문 자료로 평가된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67호

여주 신륵사 삼화상진영

驪州 神勒寺 三和尚眞影

조선시대
3폭
각 폭 142×88cm
비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지정일 : 2012.06.26
소유자 : 신륵사
관리자 : 신륵사

신륵사는 나옹화상懶翁和尙(1320~1376)이 입적한 곳으로 경내에는 1397년(태조6) 경에 세워진 나옹선사의 부도와 비가 있으며, 조선전기 건립된 조사당에는 나옹화상과 그의 스승인 지공화상指空和尙(?~1363), 그리고 나옹화상의 제자인 무학화상無學和尙(1327~1405) 등을 그린 삼화상진영을 봉안하였다.

<여주 신륵사 삼화상진영>은 지공화상을 중심으로 좌측에 나옹화상, 우측에 무학화상을 배치하는 구조로 진영 속의 지공화상은 정면을 바라보고 나옹화상은 오른쪽, 그리고 무학화상은 왼쪽을 바라보고 있다. 세 승려는 모두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손에는 불자佛子를 들고 있다. 바닥에는 깔려 있는 화문석에는 화려한 기하학적 문양이 그려져 있다.

지공화상 진영은 화면 왼쪽에 '西天國薄陀尊者指空大和尙(서천국박타존자지공대화상)'이란 영제가 적혀 있다. 서천국은 인도 마가다국으로 원나라를 경유해 고려로 입국한 지공화상의 행적이 함축되어 있다. 지공화상은 머리에 라마관을 쓰고 있으며 청색 장삼을 입고 금색 가사고리로 묶은 홍색 가사를 걸친 모습이다. 의자에 결가부좌하였기에 답상踏床에는 신발만이 놓여 있다.

2 3 4

1

5 6 7

1. 여주 신륵사 삼화상 진영 전경,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무학화상 진영,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지공화상 진영,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나옹화상 진영,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지공화상 영제 '서천국박타존자지공대화상',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6. 나옹화상 영제 '고려국공민왕나옹화상',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7. 무학화상 영제 '조선국태조왕사무학대화상',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나옹화상의 진영에는 고려 공민왕의 왕사였던 행적을 드러낸 '高麗國恭愍王師懶翁和尙(고려국공민왕나옹화상)'이라는 영제가 적혀 있다. 회색장삼에 끈으로 묶은 홍색가사를 착용하고 있다. 무학화상 진영에는 조선 태조의 왕사임을 강조한 '朝鮮國太祖王師無學大和尙(조선국태조왕사무학대화상)'이라는 영제가 적혀 있다. 좌측을 향해 앉은 자세에 한손은 불자를 잡고 다른 한손은 의자를 잡고 있는 모습만 차이가 있을 뿐 장삼과 가사의 표현은 나옹화상과 거의 동일하다.

화기가 없어 정확한 제작연대는 알 수 없으나 동일한 계열의 색을 이용하여 음영효과를 주는 방식이나 화면 배경으로 상단에 기하학적 문양을 사용하고 하단에 화문석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조선 19세기 말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주 신륵사 삼화상진영은 신륵사의 중요인물인 나옹화상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작품일 뿐 아니라, 삼화상 진영은 매우 드물어 자료적인 측면에서 희귀하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68호

양평 대성사 아미타불회도

楊平 大成寺 阿彌陀佛會圖

1910년
1점
148.2×197.5cm
삼베
양평군 지평면 역말4길 58

지정일 : 2013.11.12
소유자 : 대성사
관리자 : 대성사

❶ 아미타여래
❷ 타방불
❸ 서방광목천
❹ 지장보살
❺ 아난
❻ 가섭
❼ 북방 다문천왕
❽ 남방 증장천왕
❾ 백의관음
❿ 동방 지국천왕

<양평 대성사 아미타불회도>는 1910년(순종3) 경 계룡산 갑사의 아미타불회도로 제작된 것으로, 수화승 금호 약효錦湖若效(1840년대~1928년 활동)의 주도 아래 월암당 응탄月庵堂應坦, 청응당 목우淸應堂牧雨 등이 함께 제작하였다.

이 불화佛畵는 현재 대성사 대웅전 주불전 후불벽에 봉안되어 있는데, 화폭 중앙에는 설법인說法印을 한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가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있고, 주위에는 타방불他方佛을 비롯하여 보살·십대제자·사천왕·천자 및 천녀·천동 등이 배치되어 있다. 여래의 좌우에는 각 2위의 사천왕이 협시하고 있는데, 왼쪽에는 비파를 든 천왕과 칼을 쥔 천왕, 오른쪽에는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 및 당幢과 탑을 든 천왕이 배치되었다. 사천왕의 명칭은 장곡사 괘불도(1673), 마곡사 괘불도(1687) 등 조선후기 괘불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배치로 볼 때, 비파를 든 천왕은 북방 다문천왕多聞天王, 칼을 든 천왕은 동방 지국천왕持國天王,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은 남방 증장천왕增長天王, 당과 탑을 든 천왕은 서방 광목천왕廣目天王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불화에 보이는 인물표현, 즉 여래와 보살의 둥근 얼굴과 작은 이목구비 표현, 강한 인상의 사천왕, 선염기법을 이용한 음영 표현 등은 수화승 약효 특유의 존상 묘사법인데, 특히 관음보살의 보관을 덮어 쓴 백의 끝을 앞으로 날리게 표현한 점과 옷주름 선에 연한 갈색을 칠하고 그 주변에 흰색을 칠하는 기법, 화면의 하단을 흰색으로 처리하는 방식 등은 약효 불화의 특징적인 화풍이라 할 수 있다.

수화승首畵僧 약효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퇴운당 신겸退雲堂信謙, 보응당 문성普應堂文性과 함께 충청지역을 대표했던 화승으로, 50여 년 동안 주로 마곡사 본·말사 등 계룡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100여 점에 달하는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 불화는 화기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조성연대는 알 수 없지만 특징적인 상호 표현과 음영법, 백의관음의 독특한 묘사, 하단을 백색으로 처리하는 방식 등은 1907년(고종44) 갑사 대웅전 삼세불도에서부터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이 불화 또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약효가 응탄, 목우와 함께 불화를 제작한 시기는 1910년(순종3) 갑사 팔상전 영산회상도 및 대웅전 신중도 제작 때로서, 갑사 팔상전 영산회상도의 불단을 장식하는 용문양의 형태가 대성사 아미타불회도의 불단에 표현된 용문양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 아미타불회도는 191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성사 아미타불회도는 1910년경에 금호당 약효의 주도로 제작된 불화로서, 약효의 작품 중 몇 점 되지 않는 아미타불회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판단된다.

1
2
3 4

1. 양평 대성사 아미타불회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백의관음,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가섭존자와 권속들,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아난존자와 권속들,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69호

평택 약사사 석조지장보살좌상

平澤 藥師寺 石造地藏菩薩坐像

1945년
1구
31×20cm
석재(불석)
평택시 안중읍 용성 3길 120-10

지정일 : 2013.11.12
소유자 : 약사사
관리자 : 약사사

<평택 약사사 석조지장보살좌상>은 평택 비파산에 있는 용주사의 말사 약사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불상은 호분을 두껍게 발라 얼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머리에는 녹색으로 채색된 두건을 쓰고 있다.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큰 편이지만, 어깨와 다리 폭이 이루는 신체비례가 좋아 상이 작아도 안정감이 있다. 결가부좌의 자세에 연꽃을 손바닥 위에 둔 오른손은 다리 위에 두고, 손등을 위로 한 왼손은 손끝이 땅을 향해 있는 손 모양이며, 손은 신체와 함께 조각되어 있다. 머리에는 한번 접어 모양을 낸 두꺼운 두건을 쓰고 있는데 귀 위쪽에서 한번 꺾어 접은 두건 자락이 어깨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으며, 두건 앞으로 살짝 둥글린 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이마에는 가닥을 나누어 머리카락을 표현했으며, 네모진 얼굴은 좌우의 폭이 넓어 더욱 넓적해 보인다. 얼굴의 이목구비는 채색되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마로부터 내려오는 넓고 평평한 콧대에 코가 작다. 다리 사이는 넓은 주름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균등하게 옷주름을 나누어 정리했으며, 옷주름이 얇고 일정한 두께로 내려오는 면적인 조각적 특징으로 보아 조선후기 석조불상의 재료인 불석佛石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상은 머리에 쓴 두꺼운 두건이 특징적인데 이런 두건 형식은 17세기 후반 석조불상에서 표현되기 시작했으며, 두건 가운데에 수평적인 옷주름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예로는 1703년(숙종29) 수연秀演(1651~1719)이 제작한 대전 청송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상, 해인사 궁현당 석조보살상 등이 있다. 따라서 약사사 석조지장보살상은 두건, 옷주름의 표현기법 등으로 보아 18세기 불석제 석조불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양식 상 수연 혹은 그 계보를 가진 조각승이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작품으로 추정된다.

평택 약사사 석조지장보살좌상,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70호

고양 백자음각 황사경 묘지

高陽 白磁陰刻 黃事敬 墓誌

조선시대(1531년)
4점
약 23.5×17.5×3cm
도자기(백자)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지정일 : 2014.01.24
소유자 : 장수황씨 창평공파 종중
관리자 : 고양시

<고양 백자음각 황사경 묘지>는 조선전기 문인인 황사경黃事敬(1452~1531)의 행적과 일생을 기록한 묘지이다. 황사경은 조선전기 청백리淸白吏이자 명재상名宰相으로 널리 알려진 황희黃喜(1363~1452)의 손자로 통정대부通政大夫 창평현령昌平縣令을 지냈다.

이 묘지墓誌는 당시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를 지냈던 채세영蔡世英(1490~1568)이 1531년(중종26) 총 4점의 백자白磁에 음각陰刻의 형태로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묘지의 주인공인 황사경의 휘諱와 자字, 본관本貫과 가계家系, 관직, 생일과 사망일, 평생의 행적, 가족관계, 묘의 위치와 좌향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이 작품을 통해 좁게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넓게는 서예사·도자사·미술사 등 인접학문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서체書體로만 보더라도 고려 말 조선 초에 도입된 조맹부의 송설체松雪體가 조선화朝鮮化 된 이래 16세기의 전개 양태를 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유려流麗하고 연미燕尾한 도입기의 필획筆劃과 글자 짜임새가 조선중기 왕희지 복고로 말미암아 왕법王法과 혼효混淆되면서 도학자道學者의 성정기질에 부합하도록 재해석 된 것이다. 유려하고 연미하여 부드러운 아름다움보다, 단순하고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필획과 엄정嚴正 단아端雅한 결구가 특징인 조선중기의 미감으로 재해석된 사례를 이 묘지墓誌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황사경 묘지는 군부대가 1976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서 참호를 파던 중 출토됐다. 이때 발견된 묘는 인근으로 옮겨졌으며 묘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호수공원내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에서 보관중이다.

1 2 3 4 5

1. 고양 백자음각 황사경 묘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백자음각 황사경 묘지(四),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백자음각 황사경 묘지(三),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백자음각 황사경 묘지(二),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5. 백자음각 황사경 묘지(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71호

송준길 등서첩

宋浚吉 等書帖

조선시대
1점
40×26cm
종이
여주시 신단2길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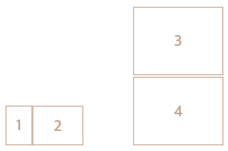
지정일 : 2014.01.24
소유자 : 문제봉
관리자 : 문제봉

<송준길 등서첩>은 송준길의 글씨 2폭과 정이청의 글씨 2폭 등 두 사람의 글씨 4폭을 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동춘당 송준길同春堂宋浚吉(1606~1672)은 숙종 대 명필이자 도학자道學者 정치가로 우암 송시열尤庵宋時烈(1607~1689)과 함께 양송체兩宋體를 이끌며 조선후기 서단을 주도한 인물이다. 송준길의 서예는 조선중기 석봉체石峰體를 토대로 안진경顔眞卿의 필법筆法을 녹여낸 것으로 생전에 모습이 '빙옥같다'는 표현대로 원만圓滿하고 부드러운 필획이 특징이다. 실제 『현종실록顯宗實錄』「졸기卒記」에서 '준길은 타고난 자질이 온후溫厚, 순수純粹하며 예법禮法과 태도態度가 탁 트여 그를 바라보면 빙옥氷玉과 같았다'고 송준길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태산泰山같다'라고 묘사한 송시열의 힘있고 거친 갈필渴筆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서예가 인격수양人格修養이나 도학道學공부와 직결된다고 생각한 점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접점을 이룬다.

실제 이 서첩에는 조선 도학자들의 수기修己에 있어 첫 번째 덕목이라 할 '신독愼獨' 등 모두 4자의 송준길의 글씨가 수록되어 있다. 신독愼獨은 '혼자 방 안에 있는 그대의 모습을 살펴볼 때도 행동을 삼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라(相在爾室, 尙不愧于屋漏)'라는 의미로 『시경詩經』에서 나왔다. 조선의 선비들은 글씨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을 반영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송준길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정이청鄭以淸(1498~1579)은 정구鄭逑, 정유일鄭惟一, 정탁鄭琢, 조목趙穆 등과 같이 퇴계 이황退溪李滉(1501~1570)의 문인으로 활동한 인물로 당시 엄정嚴正·단아端雅한 도학자道學者 글씨의 전형을 구사하였다.



1. 송준길 등서첩 표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송준길 등서첩 내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송준길 등서첩 내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송준길 등서첩 내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72호

파주 검단사 검단조사진영

坡州 黔丹寺 黔丹祖師眞影

조선시대
1점
64.6×49.7cm
비단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292-33

지정일 : 2014.05.09
소유자 : 검단사
관리자 : 파주시

<파주 검단사 검단조사진영>은 파주시 탄현면 검단사에 소장되어 있는 검단조사의 진영이다. 화면 왼쪽에 '검단사 조사黔丹寺 祖師'라는 영제影題가 적혀 있어 검단사의 창건주인 검단조사의 진영임을 알 수 있다. 검단조사는 검단사를 창건한 진감국사眞鑑國師 혜소慧昭(774~850)의 별칭인데, 검단조사라는 별칭은 얼굴이 검어서 흑두타黑頭陀라고 불렸다는데서 비롯되었다. 혜소는 신라 하대 선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선승禪僧으로 불교음악인 범패를 최초로 도입하고 지리산 쌍계사에 산문山門을 열어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차나무를 들여와 차 문화 발전에도 공헌하였다. 804년(신라 애장왕5) 당에 가서 신감대사神鑑大師의 제자가 되었으며, 810년(현덕왕2) 숭산 소림사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종남산에 들어가 불법을 닦았다. 830년(흥덕왕5)에는 귀국하여 상주 장백사에서 선禪을 설법하였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고 한다. 850년(문성왕12) 사망한 후 건립된 쌍계사 진감선사대공탑비鎭鑑禪師大空塔碑의 비문은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것으로, 사산비명四山碑銘 가운데 하나이다.

조사는 화면 왼쪽을 향해 몸을 틀고 화문花紋 덮개가 덮여 있는 등높은 의자에 결가부좌한 의좌상倚座像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의자의 옆면에는 나전칠기를 연상케 하는 학과 구름문양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양은 대구 동화사 보조국사진영(보물 제1639호)과 송광사 십육조사 진영(보물 제1043호)에서도 볼 수 있다. 조사는 청록색의 장삼을 입고 그 위에 문양이 있는 천으로 만든 가사를 걸치고, 왼손에는 수정염주를, 오른손에는 불자拂子를 잡고 있다. 얼굴은 붉은 선으로 이목구비와 주름을 그리고 눈동자를 또렷하게 표현하였다. 깊게 패인 이마주름과 입가의 팔자주름, 긴 눈썹 등에서 오랫동안 수행한 조사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조사 앞에는 향완과 향합을 올려놓은 향상香床이 있으며 바닥에는 박쥐문양이 장식된 화문석이 깔려 있다. 전체적으로 인물 묘사가 안정되었으며 문양 등의 세부 묘사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검단조사진영은 조선후기 이전의 고식古式 진영의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결가부좌한 의좌상 형식, 나전칠기 장식, 향상, 화문석 등 조선후기 진영의 새로운 형식을 반영하고 있다. 진영에 명문이 없어 제작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화면의 구성요소나 화풍상의 특징으로 보아 19세기 말 경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❶ 영제 '검단사 조사'
❷ 불좌
❸ 수정염주
❹ 향완
❺ 향합
❻ 향상
❼ 박쥐문양장식 화문석
❽ 나전칠기장식 의자

파주 검단사 검단조사진영,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73호

가평 현등사 지장시왕도

加平 懸燈寺 地藏十王圖

조선시대(1830년)
1점
150.7×182.4cm
비단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34

지정일 : 2014.05.09
소유자 : 현등사
관리자 : 가평군

<가평 현등사 지장시왕도>는 현등사 극락전의 좌측벽 불단 위에 봉안된 불화이다.

화면 중앙의 커다란 원광 안에 지장보살과 도명존자道明尊者, 무독귀왕無毒鬼王 등 지장보살삼존이 크게 묘사되었으며, 좌우에는 각각 팔곡병八曲屛을 배경으로 시왕十王을 비롯한 판관·사자·옥졸·장군 등의 권속이 4단으로 화면을 꽉 채우듯 배치되어 있다. 지장보살은 체발剃髮의 승형僧形으로 백색 윤광을 배경으로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는데,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올리고 왼손은 무릎 위에 대어 긴 석장을 쥐고 있다. 좌우 협시인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은 녹색의 두광頭光을 지고 지장보살을 향해 합장하였다. 지장삼존의 아래쪽에는 두루마리 뭉치를 들고 무릎을 꿇은 판관, 홀笏을 든 판관 등이 중앙을 향해 있으며, 그 옆으로는 우두옥졸牛頭獄卒과 마두옥졸馬頭獄卒, 지옥장군이 칼을 들고 시립하였다. 이들 위로는 명부를 든 판관과 선악동자善惡童子, 사자使者가 모두 중앙을 향해 나란히 서 있다.

상단에는 시왕과 천녀가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었다. 시왕은 관복에 관모를 쓰고 홀을 들거나 수염을 쓰다듬는 모습으로 등높은 의자에 앉아있는데, 제10 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은 다른 왕들과 달리 새날개 깃 형태의 투구를 쓴 무장형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채색은 홍색과 녹색을 주색으로 하고 군청색과 백색·황색·금색 등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녹색과 청색안료의 박락이 심하다. 권속들의 얼굴에는 강한 음영법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이 지장시왕도에서 보듯이 지장보살과 권속들을 거대한 원광 안에 묘사하는 구성은 삼척 영은사 지장시왕도(1811)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며, 이후 서울 보문사 지장시왕도(1867), 서울 청룡사 지장시왕도(1868) 등으로 이어졌다. 화면 하단의 화기는 훼손이 심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경화시왕중단탱봉안우□성암敬畵十王中壇幀奉安于□聖庵', '도광道光…경인팔월일庚寅八月 日…'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도광 경인년인 1830년(순조30)에 □성암의 중단탱으로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평 현등사 지장시왕도, 촬영일미상_ 성보문화재연구원

부계팔경도, 2014_ 성호기념관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74호

부계팔경도

釜溪八景圖

1900년대
1점
병풍 각폭 113×36.8×13.3cm
그림 31×25cm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31

지정일 : 2014.05.09
소유자 : 유승종
관리자 : 안산시

<부계팔경도>는 모산 유원영帽山柳遠聲(1851~1945)이 자신이 거주했던 안산시 부곡 일대(현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237)의 뛰어난 8경을 그린 그림들이다.

안산은 조선 17세기 이래 당쟁을 거치며 몰락했던 남인들의 문화교류 거점지로 18세기에 성호 이익星湖李瀷(1681~1763)의 영향을 받았던 유경종柳慶種(1714~1784), 신광수申光洙(1712~1775), 강세황姜世晃(1713~1791), 허필許佖(1709~1768) 등의 문예활동을 주목할 수 있다.

유원영은 안산의 대표 남인 집안인 진주 유씨 후손인데, 그의 6대조 퇴당退堂 유명천柳命天(1633~1705)은 남인의 핵심세력으로 판서를 지냈고 많은 서책을 소장했던 청문당淸聞堂의 주인이었다. 안산과 집안의 문화적 배경으로 유원영은 서화 등에 대한 문예적 소양을 지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의 제목은 오른쪽부터 '판천해화板川蟹火', '모산초적帽山草笛', '지평농가芝坪農歌', '진벽백운鎭碧白雲', '망해귀범望海歸帆', '만수화우萬樹花雨', '우산낙조牛山落照', '부계조월釜溪釣月' 등이며 안산 부곡동을 중심으로 주변 또는 멀리 떨어진 경관까지 담고 있다. 그러나 각 경관들은 실제 경치의 표현이기보다 '망해귀범도'처럼 높은 절벽과 소나무, 멀리 펼쳐진 원산 그리고 돌아오는 어선 등 제목에 따른 경물들을 간결하게 그렸다.

오사모 형태의 화모산華帽山의 산세를 마치 고지도의 산등성이처럼 묘사한 '모산초적도'를 제외한 '부계조월도', '만수화우도', '지평농가도', '판천해화도' 등은 전경에 언덕과 나무 두세 그루, 후경에 원산이나 지평선 등을 배치하는 예찬倪瓚(1301~1374)식 구도를 따르고 있다.

이 작품은 남인들의 문예 전통이 강했던 안산의 명문가문 출신 유원영이 1900년 경에 안산의 지역 경관을 예찬식 구도와 필선 위주의 간결한 경물 묘사 등을 특징으로 하는 남종문인화풍으로 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75호

부계전도

釜溪全圖

1900년대
1점
131×75.5cm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31

지정일 : 2014.05.09
소유자 : 유승종
관리자 : 안산시

부계전도, 2014_ 성호기념관

<부계전도>는 안산 부곡 일대를 부감법俯瞰法으로 포착하고 지형의 특징을 그림처럼 나타낸 회화식 지도로 1900년(고종37)에 제작되었다.

지형을 간략하게 추상화시킨 일반적인 지도와는 달리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산, 나무, 가옥 등을 사실적으로 그린 회화식 지도이다. 안산 부곡일대의 실제 지형의 특징상 동쪽의 수리산을 화면 위에 배치하고, 서쪽 서해 방향으로 향한 부곡 일대를 중앙에 표현하였다.

지도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펼쳐지는 방식으로 그렸는데, 마치 꽃잎이 벌어지는 것과도 같은 개화식開化式 구도를 취하고 있다. 지형, 산세에 따라 여러 지명을 자세히 적어 놓았고, 특히 진주유씨 가문의 분묘는 붉은 점으로 표시, 땅은 자신의 소유와 타인의 소유를 구분하여 적어 두었다. 윤곽선은 뚜렷하게 그리고 가는 필선을 많이 사용하여 마치 목판화같은 인상을 준다.

지도 위쪽에는 긴 서문이 적혀있는데 1900년(고종37) 단양절(5월5일)에 유원성이 선조의 분묘를 잊지 않도록 자세히 그렸다는 내력이 밝혀져 있다. 서문을 쓴 서은 장홍식西隱張鴻植(1866~1950)은 당시 유원성과 법규교정소法規校定所에서 함께 일했었다고 한다. 장홍식은 부계팔경도의 제시도 적었는데 서체가 일치한다.

이 지도를 그렸다고 전하는 모산 유원성帽山柳遠聲(1851~1945)은 안산 부곡 출신으로 본관은 진주이다. 고종 대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갔으며, 법부주사와 개천군수를 지냈다. 유원성은 개천군수로 있으면서 1970년에 조양군지지라는 대형 회화식 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계전도는 그것의 선례가 되는 것이다.

부계전도는 1900년대 안산 부곡 일대의 지형·산세·지명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당시 부곡 지역의 지형 구조가 현재와 어떻게 다른지 대조해 볼 수 있는 작품으로서 유용한 가치가 있다. 또한 명기된 지명들은 이 지역의 지명을 고증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76호

의왕 청계사 조정숙공사당기비

義王 淸溪寺 趙貞肅公祠堂記碑

고려시대
1기
높이 177cm
석재
의왕시 청계동 12

지정일 : 2014.05.09
소유자 : 청계사
관리자 : 의왕시

<의왕 청계사 조정숙공사당기비>는 고려후기 문인 정숙공 조인규趙仁規(1237~1308)의 사당 건립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비로, 의왕시 청계사 경내 주차장 옆에 자리하고 있다. 비석 받침은 3단이며, 비신 위쪽의 양끝 모서리를 줄인 형식으로, 비신이 한때 절단되어 접합시켜 놓은 상태이다. 1344년(충혜왕5) 건립된 이 비는 글씨가 모두 마모되어 현재 '조정숙공사당기趙貞肅公祠堂記'라는 비액 글씨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다. 다행히 비문을 지은 이곡李穀(1298~1351)의 문집 『가정집稼亭集』권3에 비문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다.

이곡은 정동행성征東行省의 막부에 있던 시절 이미 비문의 찬술을 부탁받았지만 임기가 만료되어 연경燕京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 청을 들어줄 수 없었다. 이후 조인규의 아들인 삼장법사三藏法師 선공旋公이 연산燕山에 주석하면서 자신을 볼 때마다 그 일을 언급하며 간절히 부탁하자 비문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이 비의 주인공 조인규의 휘는 인규仁規, 자는 거진去塵이며, 평양 사람이다. 그는 원종 때 몽고어 통역관 양성 요원을 선발하는 시험에 뽑힌 뒤 주야로 공부하여 훌륭한 몽고어 실력을 갖추고 제교諸校에 보임되었다. 이후 충렬왕과의 돈독한 관계, 원나라 세조의 두터운 신임 등을 바탕으로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특히 1292년(충렬왕18) 그의 딸이 세자비(충선왕비)로 간택되면서 국구國舅이 되어 조정 내에서 가장 유력한 존재가 되었다. 1298년 발생한 '조비무고사건趙妃誣告事件'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그는 1305년 방면되어 다시 세력을 유지하다가 1308년(충렬왕34) 사망하였다. 정숙貞肅은 그의 시호이다.

이곡은 이 비에서 조인규를 '공은 자질이 명민하고 기우器宇가 웅위雄偉하였으며, 과묵하고 풍채가 아름다웠다.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고 일을 강직하게 처리하면서 4대에 걸쳐 임금을 보필하여 우뚝 국가의 원신元臣이 되었다. 공은 성품이 또 선을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였는데, 특히 불교를 독실하게 믿어 청계의 불사를 창건하고, 상을 위해 복을 축원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1 2 3 4 5

1. 의왕 청계사 조정숙공사당기비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청계사 조정숙공사당기비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청계사 조정숙공사당기비 비액글씨,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청계사 조정숙공사당기비 전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청계사 조정숙공사당기비 후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77호

영조 어필 벼루

英祖 御筆 벼루

조선시대
1점
49.8×31.2×4.5cm
석재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지정일 : 2014.07.08
소유자 : 수원시
관리자 : 수원화성박물관

조선의 제21대 임금인 영조英祖(1694~1776)가 71세 되던 1764년(영조40) 정월 초하루에 작성한 특이한 연표年表다.

자신이 태어난 1세 갑술년(1694)부터 71세 갑신년(1764)까지 여덟 번의 갑년甲年에 있었던 주요 사건을 적었는데, 영조의 어용御用 벼루 밑바닥에 네모 형태의 표를 긋고 작은 세자細字로 새겨 넣었다. 상단 가로줄에 '6갑에 2갑을 더하니 참으로 뜻밖이다'라 쓰고 아래 첫줄에 '자성옹이 71세 망팔望八에 시력을 시험한 연표 글씨'라 썼다. 마치 영조가 60세에 쓴 '기년시안耆年試眼'과 64세에 쓴 '자서연보自敍年譜'를 합친 듯한 형식이다.

벼루는 약간 붉은 색을 띠며 어떤 무늬도 새기지 않은 소박한 것으로 평소 검약을 숭상하고 이를 실천했던 영조의 생활을 보여주는 듯하다. 조선시대 왕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국내 유일의 벼루이기도 하다.

<御製御筆 六甲加二甲, 誠料表>
自醒翁七十一歲望八試眼年表書

一歲	九月十三日寅時, 誕生于寶慶堂 六歲封爵	甲戌年
十一歲	仲春吉禮於安國洞 前冬冠禮	甲申年
二十一歲	受恩賜圖像諭書厩馬 二十八歲承儲	甲午年
三十一歲	九月嗣服于昌德宮 四十歲圖像	甲辰年
四十一歲	以春秋四十歲, 受宴, 遵古例	甲寅年
五十一歲	圖像一本, 奉安萬寧殿. 效司馬光耆英故事, 入耆社	甲子年
六十一歲	以回甲, 諸臣請賀, 竟歲守志 六十六歲嘉禮	甲戌年
七十一歲	前年月正元日, 受賀勤政殿耆老科	甲申年

自號六吾居士 甲戌重回甲申重逢 正月上元日書

〈어제어필 6갑에 2갑을 더하니 참으로 뜻밖이다〉
'자성옹이 71세 망팔(望八)에 시력을 시험한 연표 글씨'

1 세	9월 13일 인시(寅時:3~5시)에 보경당에서 태어남(6세 封君)	갑술년
11세	2월에 안국동에서 길례(吉禮:결혼식). 전해 겨울에 관례(冠禮:성인식)	갑신년
21세	도상·유서·내구마로 은혜로운 하사를 받음(28세 世子位 계승)	갑오년
31세	9월에 창덕궁에서 왕위를 이음. 40세에 초상을 그림	갑진년
41세	춘추 만40세라서 잔치를 받아 고례를 따름	갑인년
51세	도상 1본을 만녕전에 봉안. 사마광의 기영고사 본받아 기로소에 들어감	갑자년
61세	회갑이라서 신하들이 축하받길 청하나 한 해 가도록 뜻을 지킴(66세 가례)	갑술년
71세	전해 정월 초하루에 근정전 기로과(耆老科)에서 축하를 받음	갑신년
	'스스로 육오거사라 부름(갑술년이 거듭 돌아오고 갑신년을 거듭 만남) 정월 초하루에 씀'	

1. 영조 어필 벼루 앞면, 2014_ 수원화성박물관
2. 영조 어필 벼루 뒷면, 2014_ 수원화성박물관
3. 영조 어필 벼루 뒷면 각자, 2014_ 수원화성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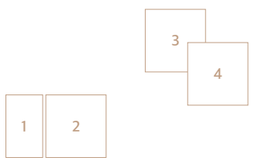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78호

대혜보각선사서

大慧普覺禪師書

조선시대(1511년)
1책
26.3×16.0cm
종이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550번길 346-11

지정일 : 2014.08.29
소유자 : 송암사
관리자 : 양주시



1. 대혜보각선사서 표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뒤표지 내면 강희12년 인출기,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권수 서명과 찬자 표시,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4. 송대 간기와 개판 간기,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대혜보각선사서』는 송나라의 대혜 종고大慧宗杲(1089~1163)가 간화선법을 물어온 42인에게 사악한 견해를 깨뜨리고 정법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보낸 62통의 편지글을 후에 그의 문인 혜연慧然이 기록하고 황문창黃文昌이 중편重編하여 문도들이 비용을 모아 1166년에 항주의 경산 묘희암妙喜庵에서 처음 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서명을 약칭하여 '대혜서大慧書' 또는 '대혜서장大慧書狀', '서장書狀'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知訥(1158~1210)이 이 책을 보다가 도를 깨친 뒤 간화선看話禪 수행에 지침서로 삼았다. 이후 이 책은 선학을 학습하는 학승들에게 바른 지견을 심어 주어 수행의 요체를 체득하는 선종의 지침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송판본을 저본으로 고려 말 1387년(우왕13)에 지담志淡과 각전覺全이 우왕의 정비인 근비謹妃와 근신 진천군 강인부姜仁富 등의 시주를 받아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이후 조선시대에 주로 강원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이 고려본을 저본으로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번각하거나 혹은 이를 재편하여 모두 26종 이상을 간행하였다.

양주 소재 송암사 소장본은 표지가 오래되어 양호한 상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본문의 내용이나 간기면이 결락이 없는 온전한 상태이다. 송암사 소장의 대광사판의 특징은 변란이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계선은 없고 행자수行字數는 10행 18자이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에 대흑구가 보이고 그 사이에 있는 상하 흑어미黑魚尾가 서로 내향하고 있으며, 어미 사이에 판심제 '서書'와 '장수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자체字體에 완결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판각 이후 여러 차례 인출한 후인본으로 보인다. 뒤표지 내면지에 '康熙十二年…畢(강희12년 필)'이란 인출기가 묵서되어 있어 1673년(현종14)에 후쇄後刷한 책임을 알 수 있다.

권수의 서명이 '大慧普覺禪師書(대혜보각선사서)'로 시작되며, 다음 행 아래에는 '參學慧然錄(참한혜연록)/淨智居士黃文昌重編(정지거사황문창중편)'이란 찬자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권말에는 이 책이 송나라에서 편찬되어 간행된 배경을 밝히고 있는 황문창의 후록後錄과 '乾道二年徑山妙喜菴刊行(건도2년경산요희암간행)'이란 송대 간기가 수록되어 있으나, 고려 말 1387년 왕실에서 간행하면서 첨부한 이색李穡의 발문은 빠져 있다. 간기면 맨 앞쪽에 '正德六年辛未冬季朔月日 全羅道順天府地母後山大光寺開刊(정조6년신미동계삭월일전라도순천부지모후산대광사개간)'이란 간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책이 1511년 전라도 순천의 모후산 대광사에서 개판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간기에 이어서 시주자가 차례로 기록되어 있으며, 끝에 '自備自刊(자비자간)'이란 표어 아래 '正悟(정오)'라는 승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이 대광사판은 정오가 판각에 소요되는 목판을 마련하고 직접 판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주 송암사에 소장되어 있는 대광사본은 1511년 모후산 대광사에서 판각한 목판에서 160년이 지난 1673년 후쇄한 판본에 해당된다. 비록 후인본이긴 하지만 조선시대 전국 사찰에서 간행된 대혜서 26종 가운데 가장 먼저 개판된 판본이라는 의미가 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79호

불법총론
法佛總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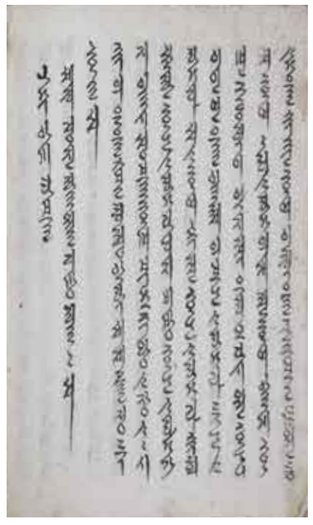
조선시대(1880년 추정)
1책
34.2×22.8cm
종이(닥종이)
포천시 호병골길 193

지정일 : 2014.08.29
소유자 : 왕산사
관리자 : 포천시

『불법총론』은 단권으로 모두 101장의 닥종이에 궁체흘림으로 써 놓은 사본이다. 한 면은 12행, 한 행은 15-17자 형식이다.
『불법총론』의 표제表題는 『佛法總論(불법총론)』, 서제序題와 내제內題는 『불법총논』, 권수제는 『불법총셜』이다. 이 책을 불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의 총괄 저작으로 본다면 총론,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본다면 총설이 적합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나 필사자는 총론과 총설을 구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권수제 다음 행에는 '해동조선국천마산사문보일'이라는 저자표시가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천마산의 어느 사찰에 머물던 승려 보일이 찬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책의 말미에는 필사한 시기를 '경진팔월기망'이라고 적어 놓았다. 경진년은 1880년(고종17)으로 추정되며, 필사를 마친 시기는 그해 8월 16일이었다. 그런데 당시 내용과 필사를 동시에 완료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저작을 이때 와서 필사한 것인지는 알기가 어렵다.
본문의 전개 형식은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금강경金剛經』 등 여러 경전과 고승들의 저작을 적절하게 인용하여 문답형식으로 해설해 놓았다. 아직까지 동일한 내용의 사본이나 인본, 심지어 유사한 저작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이 소장할 의도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순 한글로 된 불교개론서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가진다.

1 2 3

1. 불법총론 표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불법총론 권수,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불법총론 권말,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80호

고양 대성암 육경합부
高陽 大聖庵 六經合部

조선시대
1책
26.8×16.3cm
종이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396-1

지정일 : 2015.03.09
소유자 : 홍정표
관리자 : 대성암

『육경합부』는 조선전기에 널리 독송되었던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대방광불화엄경보현항원품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대불정수릉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관세음보살예문觀世音菩薩禮文』,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등 여섯 가지 경전을 묶어서 간행한 책이다.
이 판본은 권수卷首의 금강경 권말에 '천순4년경신선종개판天順4年庚辰禪宗開板'이란 선종 개판으로 되어 있는데, 1460년(세조6)에 선종도회소禪宗都會所가 개설되어 있던 흥천사興天寺에서 개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주상전하를 비롯하여 왕실의 안녕을 축원하고 효령대군孝寧大君과 영응대군永膺大君 그리고 세조의 둘째딸 의숙공주懿淑公主의 남편 하성위 정현조河城尉鄭顯祖(정인지 아들) 등 발원 시주자가 차례로 기록되어 있어 왕실의 지원으로 판각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1424년에 글씨가 뛰어났던 성달생이 필사하여 간행한 고산 안심사 판본 이후 대부분이 안심본의 번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440년(세조22) 영제암 판본, 1457년(세조3)의 원암사 판본, 1460년(세조6)의 진안 중대사 판본, 1488년(세조19) 고산 화암사 판본 등이 있다. 이들에 비해 정성껏 잘 새겼고 인쇄 및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1460년에 선종 본사인 흥천사에서 당시에 세조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효령대군 등 왕실의 종친들이 참여하여 판각한 판본으로 당시 왕실의 불교신앙과 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이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문화재이다.

1 2

1. 고양 대성암 육경합부 권수와 변상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고양 대성암 육경합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81호

용인 행복선원 묘법연화경 권1~7

龍仁 幸福禪院 妙法蓮華經 卷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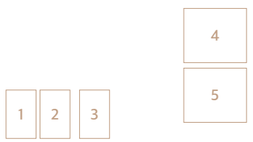
조선시대
2책
27.8×17.8cm
종이(닥종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127번길 36-84

지정일 : 2016.07.22
소유자 : 행복선원
관리자 : 행복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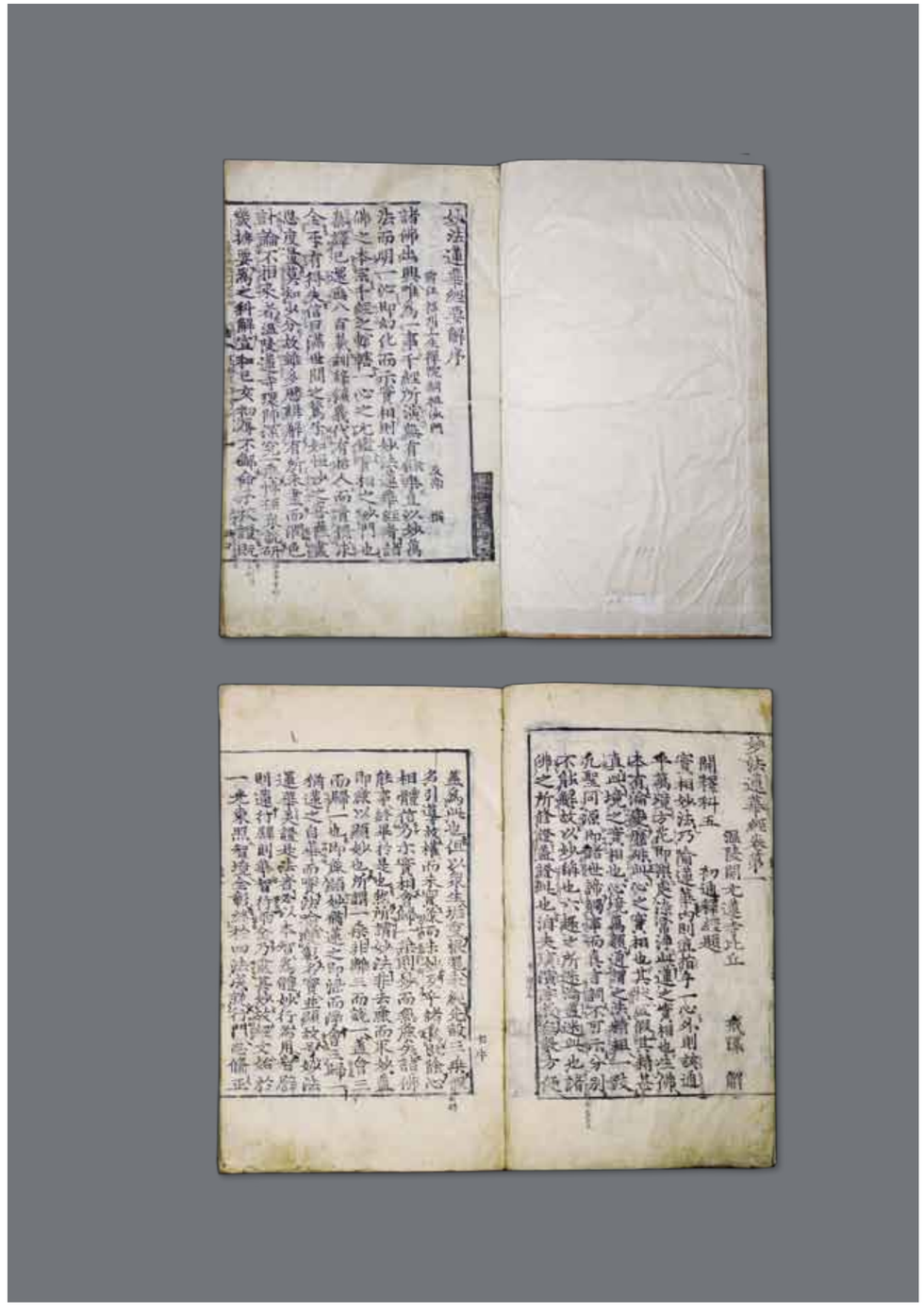
『묘법연화경』은 전 7권을 권1~3, 권4~7의 2책으로 묶은 완본으로, 저지에 인쇄한 목판본이다. 황해도 평산平山 자모산慈母山 연봉사烟峰寺에서 1559년(명종14)에 새긴 목판을 30년 후인 1589년(선조22)에 인출한 후쇄본이다. 성달생成達生(1376~1444)이 쓴 1443년(세조25) 간행 화암사본을 모본으로 복각한 판본이다. 표지는 새로 개장하였으며, 권6의 42장부터 권7 마지막까지 기름이 묻은 흔적이 있다. 첫머리의 변상도, 권3의 29장은 결락되었으며, 권1의 56장은 필사하여 보충해 놓았고, 권4의 58장과 59장은 거꾸로 장책되었다. 상책에는 한자어에 대한 한글 해석을 적어 놓은 부분이 있어 국어연구의 자료가 된다. 간행과 인출 시기, 판본의 희귀성 등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묘법연화경은 흔히 법화경이라고 부르며, 대승경전의 가장 중요한 경전의 하나로서, 경전을 독송·서사·간행하는 것을 공덕으로 묘사한 내용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간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경전이다. 이 책은 대화주였던 사준思峻이 인명대왕대비仁明大王大妃, 명종明宗, 명종비 인순왕후明宗妃 仁順王后, 공의왕대비恭懿王大妃, 세자의 만수를 위해 간행한 것이다. 간행에는 판선종도대선사判禪宗都大禪師이자 봉은사 주지인 각의覺儀, 봉선사 주지인 천칙天則, 연봉사 주지인 화엄종 지후志厚가 참여하였다. 각수는 경웅冏雄·혜연惠衍·학변學卞·대의大義 등이었고, 연판鍊板은 성민性敏, 화주는 사준과 경묵冏默이었다. 시주질은 권1과 권3의 끝에 수록되어 있다.

두 책 끝에 인경할 당시 쓴 것으로 보이는 묵서가 있다. 1책에는 '萬曆十七年己丑 月 日 化主引淡 大化主智聰 施主正朝安逸首戶長昊忠年兩主 粧冊匠奴石乙同(만력십칠년기축 월 일 화주인담 대화주지총 시주정조안일수호장오충년양주 장책장노돌동)'이라는 묵서이며, 2책에는 '大化主智聰(대화주지총)' 구절만 빠진 동일한 내용이다. '대화주지총'은 후대에 써넣은 것으로 생각된다.



1. 용인 행복선원 묘법연화경 권1~3 표지, 2016_ 용인시
2. 행복선원 묘법연화경 권4~7 표지, 2016_ 용인시
3. 행복선원 묘법연화경 권2 묵서, 2016_ 용인시
4. 행복선원 묘법연화경 서문, 2016_ 용인시
5. 행복선원 묘법연화경 권1, 2016_ 용인시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82호

포천 화봉사 신중탱화

抱川 華峰寺 神衆幀畵

조선시대(1867년)
1점
129×171cm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227-37

지정일 : 2016.07.22
소유자 : 화봉사
관리자 : 화봉사

<포천 화봉사 신중탱화>는 1867년(고종4) 양주 오봉산五峰山 석굴암石窟庵에서 제작·봉안되었으나 3년 후인 1870년(고종7) 포천 화봉사가 개창되면서 이운된 불화이다. 설암당 관익雪巖堂寬益 스님이 총감독都監 겸 화주化主로 칠성각의 칠성도, 삼성각의 독성도와 함께 조성하였으며, 불화를 그린 금어는 최정最幀이다.

화기에는 유희관劉熙觀이 인권대화주引勸大化主 겸 대시주자로서 등재되어 있으며 유희관 이외에 30명의 시주자가 참여하였다. '시주자들의 수복壽福과 자손의 창성昌盛, 극락왕생의 원을 성취하고, 나아가 모든 불자들이 보리에 회향하고 정각의 열반문에 들기를 기원' 하는 발원문에서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기원하는 차원 높은 신앙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이 불화는 화면을 황색의 운무로 경계 짓고 상단에 대범천과 제석천, 그리고 공양자와 주악천녀상 등을 배치하고, 하단에 위태천을 중심에 두고 신장상을 배치하였다. 주존격인 대범천과 제석천, 위태천의 녹색두광을 꼭지점으로 역삼각형구도를 이루고 있지만 위태천 주변에 일렬로 무장상 등의 인물을 배치하여 구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단구조와 주존을 중심으로 한 역삼각형구도의 결합은 19세기 신중도의 전형적인 구성법이다.

상단 우측에 위치한 범천의 옆에는 사물놀이패의 복식을 갖추어 입은 천녀와 동자가 북과 장고·피리·생황을 연주하고 있다. 상단에 위치한 동자는 머리에 흰 종이화관을 쓰고 북채를 든 두 손을 치켜들어 흥겹게 북을 치는 형상이다. 북에는 전통적인 삼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연주하는 장고·피리·생황은 모두 조선의 전통적인 악기들이다. 이들의 형상은 조선후기 민간에서 유행했던 사물놀이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어 신중도의 제작에 적용된 조선후기 대중문화의 단면을 볼 수 있다. 또한 하단부에 한국의 토속신인 산신山神이 무장상들과 같은 비중을 두고 배치되는 것은 19세기 전반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특징적인 요소로서 전통적인 산신신앙이 불교에 습합되면서 바뀐 도상적인 변화이다.

전체적으로 적색·황색·청색을 주조로 하고 부분적으로 녹색·흰색 등을 적절히 섞어 조화롭게 채색하였다. 아수라와 팔부신장의 피부는 백색 안료에 붉은 색의 진사나 황색 안료 등을 혼합하여 엷게 선염하여 입체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음영법은 신장상들의 위엄과 용맹한 성정을 드러내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법적인 특징이다

불화의 뒷면에는 오봉산 석굴암에서 포천 화봉사로 이동하게 된 경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기록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불화의 조성과 이동에 관한 새로운 사실도 알 수 있어 중요하다.

포천 화봉사 신중탱화, 2010_ 포천시

❶ 위태천
❷ 주악선녀
❸ 제석천
❹ 공양자
❺ 대범천
❻ 팔부중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83호

안성 봉덕사 나반존자도

安城 鳳德寺 那般尊者圖

조선시대
1점
55.7×34.5cm
비단
안성시 월덕천길 44-19

지정일 : 2017.06.14
소유자 : 봉덕사
관리자 : 봉덕사

<안성 봉덕사 나반존자도>는 봉덕사에 있는 조선후기의 불화로, 부처님의 제자 16나한 중의 한분인 나반존자를 그린 작품이다. 나반존자那畔尊者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도를 닦아 깨달음을 증득하여 연각緣覺의 지위에 있는 분을 일컬으며, 독성獨聖·빈두로존자賓頭盧尊者로 불려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삼성각이나 독성각 또는 나한전, 영산전에 모셔진다.

안성 봉덕사 나반존자도의 중앙에는 평평한 바위 위에 선풍도골仙風道骨의 노인 형상을 한 존자가 정면을 응시하며 앉아 있고 나반존자 뒤로는 깊은 산의 암굴이 묘사되어 있다. 나반존자의 한쪽 다리 위에는 호랑이가 머리를 기댄 모습이며, 존자는 두 손으로 한쪽 무릎을 감싸고 조용히 정좌하고 백발과 흰 수염, 녹색 장삼 위에 붉은 가사를 입고 있다.

나반존자는 형상적 특징으로 흰 머리에 아주 긴 눈썹을 지니고 있어 부처님의 다른 제자와 확연히 구분된다. 이러한 나반존자의 모습은 『잡아함경雜阿含經』에 '아육왕이 빈두로존자를 친견하니 머리카락이 희고 벽지불과 같았다. 빈두로존자가 손으로 길고 흰 눈썹을 걷어 올려 왕을 보고 말했다.'라고 묘사되면서 비롯되었고 그 뒤에 나반존자를 표현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안성 봉덕사 나반존자도는 나반존자의 형상적 특징인 길고 흰 눈썹, 지물인 주장자, 향로 등이 일체 배제된 간략한 구성인 것이 특징이다.

화면 상부에 복장주머니腹藏囊와 함께 드리개의 일종인 풍대風帶가 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형태는 족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전 독성도는 대부분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조성되었다. 봉덕사 나반존자도는 서울 영화사 소장의 화양사華陽寺 독성도獨聖圖(1880년)와 호랑이 외에 화면 구성 방식이나 나반존자의 인물 표현, 자세 등이 매우 유사하며 구성이 간결한 점이 특징이다.

안성 봉덕사 나반존자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시군별 문화재 목록

가평군

조종암	기념물 제28호	42
이방실장군 묘	기념물 제52호	79
가평 연하리 향나무	기념물 제61호	96
이정구선생 묘 및 삼세신도비	기념물 제79호	112
가평 하판리 삼층지진탑	문화재자료 제17호	358
이천보 고가	문화재자료 제55호	404
가평 현등사 지장십왕도	문화재자료 제124호	516
가평 현등사 칠성정화	문화재자료 제125호	518
가평 현등사 독성도	문화재자료 제126호	520
가평 대원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문화재자료 제158호	575
가평 현등사 지장시왕도	문화재자료 제173호	600

고양시

최영장군 묘	기념물 제23호	34
유형장군 묘	기념물 제50호	76
북한산 중흥사지	기념물 제136호	197
고양 독산 봉수대지	기념물 제193호	275
고양 멱절산 유적	기념물 제195호	278
고양 북한산 산영루지	기념물 제223호	322
한미산 흥국사 약사전	문화재자료 제57호	408
원흥리 신라말·고려초기 청자요	문화재자료 제64호	416
고양향교	문화재자료 제69호	426
행주서원지	문화재자료 제71호	429
월산대군 사당	문화재자료 제79호	440
연산군시대 금표비	문화재자료 제88호	452
고양 흥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문화재자료 제104호	480
고양 북한산 서암사지	문화재자료 제140호	548
고양 경주김씨 의정공파 영사정	문화재자료 제157호	574
고양 백자음각 황사경 묘지	문화재자료 제170호	594
고양 대성암 육경합부	문화재자료 제180호	613

과천시

연주대	기념물 제20호	28
과천 관악사지	기념물 제190호	272
과천 육봉 일명사지	기념물 제191호	274
과천향교	문화재자료 제9호	344
시흥 문원리 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39호	390
문원리사지 석조보살입상	문화재자료 제77호	437

광명시

이원익선생 묘 및 신도비	기념물 제85호	120
가학동 지석묘	문화재자료 제58호	409
오리 이원익 종택 및 관감당	문화재자료 제90호	454
광명 금오계첩	문화재자료 제153호	568
광명 이원익 유묵목판 인출본	문화재자료 제154호	570
광명 오리선생집·오리선생속집	문화재자료 제155호	572

광주시

맹사성선생 묘	기념물 제21호	30
최항선생 묘	기념물 제33호	50
허난설헌 묘	기념물 제90호	130
신립장군 묘	기념물 제95호	138
김자수선생 묘	기념물 제98호	144
김균선생 묘	기념물 제105호	154
망월사지	기념물 제111호	160
개원사지	기념물 제119호	172
신익희 생가	기념물 제134호	194
신흠 묘역 및 신도비	기념물 제145호	208
의안대군 방석 묘역	기념물 제166호	232
광주 삼리 구석기유적	기념물 제188호	268
지수당	문화재자료 제14호	354
장경사	문화재자료 제15호	355
추곡리 백연암 부도	문화재자료 제53호	402
곤지암	문화재자료 제63호	414
우리절 5층석탑	문화재자료 제159호	576
우리절 석조부도 2기	문화재자료 제160호	577

군포시

정난종선생 묘 및 신도비 외 묘역 일원	기념물 제115호	164
이기조선생 묘	기념물 제121호	176
전주이씨 안양군 묘	기념물 제122호	177
김만기 묘역	기념물 제131호	190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문화재자료 제95호	464

김포시

한재당	기념물 제47호	70
고정리 지석묘	기념물 제91호	131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	기념물 제108호	158
김포 수안산성	기념물 제159호	222
김포향교	문화재자료 제29호	380
통진향교	문화재자료 제30호	382
권상 묘역	문화재자료 제109호	490
통진이청	문화재자료 제166호	586

남양주시

정약용선생 묘	기념물 제7호	16
흥선대원군 묘	기념물 제48호	72
덕흥대원군 묘	기념물 제55호	84
류량선생 묘	기념물 제78호	110
수석리 토성	기념물 제94호	136
김상용선생 묘	기념물 제99호	146
김상헌선생 묘	기념물 제100호	148
이맹현선생 묘	기념물 제114호	162
충렬공 박원종 묘역	기념물 제170호	240
청풍김씨 문의공파 묘역	기념물 제177호	250
불암산성	기념물 제221호	320
이순지선생 묘	문화재자료 제54호	403
흥국사 대웅보전	문화재자료 제56호	406
가운동 지석묘	문화재자료 제80호	441
양평공 한계순 묘역	문화재자료 제102호	476
신빈신씨 묘역	문화재자료 제105호	482
구정 남재 묘역	문화재자료 제114호	500
능원대군 이보 묘역	문화재자료 제115호	502
대은 변안렬 묘역	문화재자료 제116호	504
남양주 봉선사 목조불좌상	문화재자료 제163호	581
남양주 봉선사 칠성도	문화재자료 제164호	582
남양주 봉선사 독성도	문화재자료 제165호	584

성남시

이수선생 묘	기념물 제54호	82
이경석선생 묘	기념물 제84호	118
한산이씨 묘역	기념물 제116호	166
전주이씨 태안군파 묘역	기념물 제118호	170
천림산 봉수지	기념물 제179호	254
둔촌 이집 묘역	기념물 제219호	316
수내동 가옥(이택구 가옥)	문화재자료 제78호	438
청주한씨 문정공파 묘역 신도비	문화재자료 제84호	446
풍산군 이종린 묘역	문화재자료 제136호	540

수원시

노송지대	기념물 제19호	26
김준룡장군전승지및비	기념물 제38호	59
심온선생 묘	기념물 제53호	80
팔달산 지석묘군	기념물 제125호	181
아담스 기념관	기념물 제175호	248
수원 축만제	기념물 제200호	286
수원 여기산 선사유적지	기념물 제201호	288
수원 창성사지	기념물 제225호	326
수원향교	문화재자료 제1호	330
박유명 초상모본	문화재자료 제142호	550
수원 청련암 아미타회상도	문화재자료 제146호	556
수원 청련암 신중도	문화재자료 제147호	558
수원 청련암 독성도	문화재자료 제148호	560
수원 청련암 산신도	문화재자료 제149호	562
수원 청련암 칠성도	문화재자료 제150호	564
영조 어필 벼루	문화재자료 제177호	608

시흥시

강희맹선생 묘 및 신도비	기념물 제87호	124
조남리 지석묘	기념물 제103호	151
청주한씨 문익공파 묘역	기념물 제163호	228

안산시

팔곡리 향나무	기념물 제31호	47
이익선생 묘	기념물 제40호	61
별망성지	기념물 제73호	102
안탄대선생 묘	기념물 제83호	116
고송정지(탄옹고지)	기념물 제101호	149
안산읍성 및 관아지	기념물 제127호	183
한응인 묘역	기념물 제157호	220
취몽헌 오태주 묘역	기념물 제186호	264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	기념물 제194호	276
오정각	문화재자료 제7호	342
사세충렬문	문화재자료 제8호	343
안산 청문당	문화재자료 제94호	462
쌍계사 아미타회상도	문화재자료 제110호	492
구 대부면사무소	문화재자료 제127호	522
부계팔경도	문화재자료 제174호	602
부계전도	문화재자료 제175호	604

안성시

이덕남장군 묘	기념물 제26호	40
죽주산성	기념물 제69호	100
영창대군 묘	기념물 제75호	104
서흥김씨 삼강정문	기념물 제77호	108
서운산성	기념물 제81호	114
안성 구포동 성당	기념물 제82호	115
전주이씨 서원군파 묘역	기념물 제117호	168
망이산성	기념물 제138호	200
안성 봉업사지	기념물 제189호	270
칠장사	문화재자료 제24호	372
운수암	문화재자료 제25호	373
죽산향교	문화재자료 제26호	374
안성향교	문화재자료 제27호	376
양성향교	문화재자료 제28호	378
안성 유명건 묘갈	문화재자료 제45호	396
안성 대농리 석불입상	문화재자료 제46호	398
청룡사 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59호	410
이해룡 고가	문화재자료 제73호	430
안성 도기동 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76호	436
안성 죽리 석조여래입상	문화재자료 제108호	488
안성 법계사 신중도	문화재자료 제131호	530
안성 법계사 화장찰해도	문화재자료 제132호	532
안성 봉덕사 나반존자도	문화재자료 제183호	618

안양시

안양시 비산동 도요지	기념물 제124호	180
석수동 석실분	기념물 제126호	182
삼막사 명부전	문화재자료 제60호	411
구 서이면사무소	문화재자료 제100호	474

양주시

권율장군 묘	기념물 제2호	12
해유령전첩지	기념물 제39호	60
이수광선생 묘	기념물 제49호	74
백인걸선생 묘	기념물 제58호	90
노고산 독재동 추사필적 암각문	기념물 제97호	142
이준선생 묘	기념물 제120호	174
양주 관아지	기념물 제167호	234
송석 최명창 묘역	기념물 제178호	252
양주향교	문화재자료 제2호	332
전성부원군 이준선생 영정	문화재자료 제81호	442
양주 옥정리 선돌	문화재자료 제89호	453

죽산안씨 연창위 종가	문화재자료 제103호	478
양주 회암사 지공선사 부도비	문화재자료 제135호	538
양주 석굴암 석조불좌상	문화재자료 제161호	578
양주 석굴암 석조지장보살좌상	문화재자료 제162호	579
석조나한상	문화재자료 제162-1호	580
대혜보각선사서	문화재자료 제178호	610

양평군

노산사지	기념물 제43호	65
유관선생묘	기념물 제62호	98
한음 이덕형선생 묘 및 신도비	기념물 제89호	128
이순몽장군 묘	기념물 제92호	132
이준경선생 묘	기념물 제96호	140
양평군 함왕성지	기념물 제123호	178
양평 신복리 강맹경 묘역	기념물 제154호	216
운계서원	문화재자료 제18호	360
양근향교	문화재자료 제19호	362
지평향교	문화재자료 제20호	364
양평 용천리 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21호	366
정창손 묘역 석물	문화재자료 제85호	448
익원공 김사형 묘역	문화재자료 제107호	486
양평 상원사 철조여래좌상	문화재자료 제119호	510
양평 대성사 아미타불회도	문화재자료 제168호	590

여주시

이완장군 묘	기념물 제16호	20
서희장군 묘	기념물 제36호	56
여주군 석우리 선돌	기념물 제132호	192
여주군 처리 선돌	기념물 제133호	193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	기념물 제155호	218
구암 한백겸 묘 및 신도비	기념물 제165호	230
여주 매룡리 고분군	기념물 제180호	256
여주 상교리 고려석실묘	기념물 제198호	282
민진장 묘역	기념물 제199호	284
제간공 권규 묘역	기념물 제214호	308
여주향교	문화재자료 제3호	334
영월루	문화재자료 제37호	388
기천서원지	문화재자료 제75호	434
여주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	문화재자료 제97호	468
임은 이민곤 영정	문화재자료 제106호	484
원호·원두표 묘역	문화재자료 제128호	524
죽서 원몽린 묘역	문화재자료 제129호	526
여주 신륵사 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133호	534
여주 신륵사 원구형석조부도	문화재자료 제134호	536
여주 신륵사 삼화상진영	문화재자료 제167호	588
송준길 등서첩	문화재자료 제171호	596

연천군

정발장군 묘	기념물 제51호	78
박진장군 묘	기념물 제110호	159
연천 삼곶리 돌무지무덤	기념물 제146호	210
연천 학곡리 고인돌	기념물 제158호	221
미수 허목 묘역	기념물 제184호	262
연천 차탄리 고인돌	기념물 제208호	300
연천 양원리 고인돌	기념물 제209호	301
연천 신답리 고분	기념물 제210호	302
연천 학곡리 적석총	기념물 제212호	305
연천 심원사지	기념물 제213호	306
연천 통현리 지석묘	문화재자료 제52호	401
평정공 윤호 신도비	문화재자료 제137호	542

오산시

오산 금암리 지석묘군	기념물 제112호	161
오산시 궐리사	기념물 제147호	212
오산 외삼미동 고인돌	기념물 제211호	304

용인시

정몽주선생 묘	기념물 제1호	10
심대장군 묘	기념물 제3호	14
채제공선생 묘	기념물 제17호	22
민영환선생 묘	기념물 제18호	24
용인 왕산리 지석묘	기념물 제22호	32
이종무장군 묘	기념물 제25호	38
유형원선생 묘	기념물 제32호	48
처인성	기념물 제44호	66
오윤겸선생 묘	기념물 제104호	152
문정공 조광조 묘 및 신도비	기념물 제169호	238
저헌 이석형 묘 및 신도비	기념물 제171호	242
음애 이자 묘역	기념물 제172호	244
용인 할미산성	기념물 제215호	310
양지향교	문화재자료 제23호	370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문화재자료 제42호	394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문화재자료 제44호	395
용인 주북리 지석묘	문화재자료 제49호	400
용인 창리 선돌	문화재자료 제61호	412
용인 목신리 석조여래입상	문화재자료 제62호	413
용인 고안리 분청사기 도요지	문화재자료 제65호	418
용인 맹리 지석묘	문화재자료 제68호	424
공안공 정옥형·충정공 정응두 신도비	문화재자료 제91호	456
문간공 김세필 묘역 일원	문화재자료 제92호	458
용인 이주국장군 고택	문화재자료 제96호	466
용덕사 석조여래입상	문화재자료 제111호	494
죽정 최유경 묘역	문화재자료 제120호	511
임연 초상	문화재자료 제143호	552
용인 법륜사 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145호	555
용인 행복선원 묘법연화경 권1~7	문화재자료 제181호	614

의왕시

하우현성당 사제관	기념물 제176호	249
의왕 모락산성	기념물 제216호	312
청계사	문화재자료 제6호	340
임영대군 이구 묘역 및 사당	문화재자료 제98호	470
의왕 청계사 조정숙공사당기비	문화재자료 제176호	606

의정부시

정문부장군 묘	기념물 제37호	58
노강서원	기념물 제41호	62
송산사지	기념물 제42호	64
신숙주선생 묘	기념물 제88호	126
망월사 천봉당 태흘탑	문화재자료 제66호	420
망월사 천봉선사 탑비	문화재자료 제67호	422
서계 박세당 사랑채	문화재자료 제93호	460
의정부2동 성당	문화재자료 제99호	472
서계 박세당 묘역	문화재자료 제113호	498
의정부 회룡사 석조	문화재자료 제117호	506
의정부 회룡사 신중도	문화재자료 제118호	508

이천시

이천 설성산 설성지	기념물 제76호	106
퐁고 김조순 묘역	기념물 제207호	298
이천향교	문화재자료 제22호	368
이천 자석리 석불입상	문화재자료 제41호	392
이평리 석불입상	문화재자료 제70호	428

파주시

황희선생 영당지	기념물 제29호	44
황희선생 묘	기념물 제34호	52
성혼선생 묘	기념물 제59호	92
이세화선생 묘	기념물 제60호	94
윤곤선생 묘	기념물 제106호	156
허준 묘	기념물 제128호	184
파주 다율리·당하리 지석묘군	기념물 제129호	186
심지원 묘 및 신도비	기념물 제137호	198
정연 묘역	기념물 제139호	202
김덕함 묘 및 신도비	기념물 제144호	206
자유의 다리	기념물 제162호	226
춘곡 정탁 묘역	기념물 제173호	246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	기념물 제182호	258
파주 교하 물푸레나무	기념물 제183호	260
유항 한수 묘역	기념물 제187호	266
파주 월롱산성지	기념물 제196호	280
파주 육계토성	기념물 제217호	314
파산서원	문화재자료 제10호	346
교하향교	문화재자료 제11호	348
반구정	문화재자료 제12호	350
파주향교 대성전	문화재자료 제83호	445
사제 김정국 묘역	문화재자료 제122호	514
용재 성현 묘역	문화재자료 제130호	528
파주 읍내리 석조여래입상	문화재자료 제139호	546
파주 검단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문화재자료 제144호	554
파주 검단사 검단조사진영	문화재자료 제172호	598

평택시

이대원장군묘 및 신도비	기념물 제56호	86
원균장군 묘	기념물 제57호	88
농성	기념물 제74호	103
안재홍 생가	기념물 제135호	196
평택 무성산성지	기념물 제202호	290
평택 자미산성지	기념물 제203호	292
평택 비파산성지	기념물 제204호	294
평택 용성리성지	기념물 제205호	295
평택 덕목리성지	기념물 제206호	296
평택향교	문화재자료 제4호	336
홍학사 비각	문화재자료 제5호	338
진위향교 대성전	문화재자료 제40호	391
평택 서천사 석조여래좌상	문화재자료 제141호	549
평택 약사사 석조지장보살좌상	문화재자료 제169호	592

포천시

이항복선생 묘	기념물 제24호	36
채산사	기념물 제30호	46
서성선생 묘	기념물 제35호	54
화산서원	기념물 제46호	68
충목단	기념물 제102호	150
인평대군 묘 및 신도비	기념물 제130호	188
포천 영송리 선사유적	기념물 제140호	204
포천 고모리 산성	기념물 제185호	263
포천 자작리 유적지	기념물 제220호	318
포천향교	문화재자료 제16호	356
포천 금현리 지석묘	문화재자료 제47호	399
포천 안동김씨 고가터	문화재자료 제138호	544
불법총론	문화재자료 제179호	612
포천 화봉사 신중탱화	문화재자료 제182호	616

하남시

광주향교	문화재자료 제13호	352
하남시 상사창동 연자마	문화재자료 제82호	444
남한산 법화사지 및 부도	문화재자료 제86호	450

화성시

남이장군 묘	기념물 제13호	18
백천장선생 묘	기념물 제86호	122
수원 고읍성	기념물 제93호	134
화성 남양리 신빈김씨 묘역	기념물 제153호	214
만년제	기념물 제161호	224
화성 홍법리 남양홍씨 묘역	기념물 제168호	236
화성 화량진성	기념물 제224호	324
남양향교	문화재자료 제34호	384
용주사 천보루	문화재자료 제36호	386
홍승인 고가	문화재자료 제74호	432
남양 풍화당	문화재자료 제112호	496
추연 우성전 묘역(우하영 묘역 포함)	문화재자료 제121호	512
화성 용주사 목조불패	문화재자료 제151호	566
화성 용주사 목조소대	문화재자료 제152호	567
화성 용주사 청동시루	문화재자료 제156호	573

총괄
김성명 | 경기문화재연구원장
도현선 | 경기도 문화유산과장

기획
김영화 |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장
이재복 | 경기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장
김선미 | 경기도 문화유산과 학예연구사

진행
김영화 |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장
우승희 |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 선임연구원
김다혜 |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 연구원
손영하 |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 연구원

사진촬영
오세윤

사진협조
(가나다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도문화재돌봄사업단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경기문화재연구원 북한산성문화사업팀
경기G뉴스
고려대학교 박물관
과천추사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군포문화원
금강문화유산연구원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 백령사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문화재청
반남박씨 금계종택
반남박씨 서계종택
서울대학교 박물관
성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성보문화재연구원
성호기념관
세종대학교 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
안산문화원
여주박물관
전주이씨 완양부원군 종택
중앙문화재연구원
충청대학교 박물관
충현박물관
판교박물관
평택민요보존회
한국문화유산연구원
LH토지주택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백문화재연구원
화성시향토박물관
한신대학교 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A&A문화연구소

집필 및 감수
(가나다순)
강명호 | 경기도자박물관
곽동석 | 동양대학교 문화재발굴보존학과
금종숙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김길식 | 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김미경 | 문화재청 대구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김민규 | 간송미술관
김상영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김 영 | 서울문화유산연구원
김우림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김은선 | 대전광역시청
김이순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김자운 |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김재호 | 한국식품연구원 우리술연구팀
김정희 | 원광대 고고·미술사학과
김주홍 |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지민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헌선 |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혜정 |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학과
도윤수 | 동국대학교 불교건축문화연구소
박경식 |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상국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박상준 | 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박진재 |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박철상 | 고문헌연구가
배영일 |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실
백난영 | 상지대학교 원예조경학과
백종오 |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손환일 | 대전대학교 서화문화연구소
송만영 | 숭실대학교 사학과
송일기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심경보 | 전곡선사박물관
심영신 | 숭실대학교 사학과
엄기표 |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양학부
여상진 | 선문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염정섭 | 한림대학교 인문학부
오용섭 |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옥영정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윤진영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윤호필 | 동양문물연구원
윤효정 |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이동국 |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이민식 | 수원박물관
이순미 |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이순희 | 안산대학교 건축디자인과
이승희 | 한서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이유라 |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이현정 | 근대건축활용연구가
이희정 | 문화재청 부산항 문화재감정관실
정병삼 |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정성권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장세웅 | 경기문화재연구원
정은우 |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정정남 |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최공호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과
최선일 |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최응천 |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최종철 | 여주대학교 건축학과
하문식 |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홍대한 | 숙명여자대학교 건축환경연구센터
홍병화 | 주)한국건축안전센터

경기도 문화재 총 람

도지정편 ___ 2

기념물
문화재자료

발행일	2017년 12월 15일
발행	경기도 경기문화재연구원
편집디자인 인쇄·제작	칼라뱅크 조은문화사
ISBN	979-11-88858-00-2 (제2권) 979-11-959816-8-7 (전2권)
발간등록번호	71-6410000-000243-14

(비매품)
이 도서의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도서에 수록된 사진자료의 사용권한은 경기도와 각 소장처에 있습니다.

비매품/무료
9 791188 858002
94080
ISBN 979-11-88858-00-2
ISBN 979-11-959816-8-7 (세트)